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언론정보학박사학위논문

한국 탐사보도 언론인의 소명의식(Beruf)과
가치자유(Wertfreiheit) 실천에 대한 참여관찰 연구
- 〈뉴스타파〉 취재팀을 대상으로 -

2019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언론정보학과
최 문 호

한국 탐사보도 언론인의
소명의식(Beruf)과 가치자유(Wertfreiheit)
실천에 대한 참여관찰 연구
- <뉴스타파> 취재팀을 대상으로 -

지도교수 박 승 관

이 논문을 언론정보학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언론정보학과
최 문 호

최문호의 박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9년 2월

위 원 장	윤 수 빈 (인)
부위원장	이 재 현 (인)
위 원	이 민 제 (인)
위 원	카 재 영 (인)
위 원	박 승 관 (인)

초 록

본 연구는 〈뉴스타파〉 언론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명의식이 무엇이며, 어떻게 실천하는지, 그리고 탐사보도 전문성이 무엇인지 연구했다. 언론 역사에서 명작으로 기록되는 탐사보도를 남긴 언론인들에게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특징이 있는데 소명의식이다. 그러나 언론인의 소명의식은 탐사보도 연구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고 축적된 연구 결과물은 양이나 깊이에서 미흡하다.

연구자는 베버(Max Weber)의 Beruf(소명의식)와 Wertfreiheit(가치자유) 이론을 분석 이론으로 적용했다. Beruf는 신념과 그것에 열정적으로 헌신하는 행위, 다시 말해 신념과 그것을 이루려는 열정이다. Wertfreiheit는 소명의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다. 이후 Beruf와 Wertfreiheit 논의를 바탕으로 언론 보도를 정파보도, 객관보도, 탐사보도로 구분했다.

연구문제는 세 가지이다. 첫째, 〈뉴스타파〉 언론인들은 소명을 갖고 있는가? 갖고 있다면 어떠한 소명인가? 둘째, 〈뉴스타파〉 언론인들은 소명을 어떻게 실천하는가? 셋째, 탐사보도 전문성은 무엇이며 어떻게 쌓여가는가? 연구방법으로는 문화기술지를 채택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뉴스타파〉 취재팀이다.

참여자들은 〈뉴스타파〉에서 자유롭게 자신들의 신념을 표출했는데 그 중에서 소명의식으로 판단되는 것은 “독립언론, 자유언론”, “저널리즘”, “이명박근혜”, 그리고 “탐사보도”로 요약됐다. 〈뉴스타파〉의 출발은 독립언론, 자유언론에 대한 열망이었다. 참여자들은 〈뉴스타파〉 출범 이후부터 독립언론, 자유언론을 위해 열정적으로 헌신해 왔다. 독립언론, 자유언론의 대의 아래 구체적으로 실천했던 이념과 가치는 세 가지였다.

첫째, 저널리즘 비판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 아래에서 보수 언론은 정권과 유착해 있고 공영방송은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뉴스타파〉가 언론 감시의 책임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사명감이었다. 비판이 집중된 대상은 〈KBS〉, 〈MBC〉, 〈YTN〉, 조중동/종편이었고 구체적인 실천 방법은 적대적 공격이었다. 참여자들은 이들 언론사를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탄생과 유지에 있어 1등 공신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언론 비판이라는 목적이 적대적 공격이라는 수단을 정당화시키는 측면이 있었고, 그 결과는 탐사보도와 정파보도의 혼재와 다른 언론인들의 반감을 불러 왔다.

둘째, 이명박, 박근혜 정권 감시라는 소명의식은 분노였다. 참여자들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대해 분노의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동시에 두 정권은 집권 권력으로

탐사보도의 본원적 기능 가운데 하나인 권력 감시의 대상이었다. 따라서 개인적 분노의 대상이 자연스럽게 언론인으로서 적극적으로 감시해야 할 대상이 되면서 정권에 대해 적극적인 비판 보도를 해야 한다는 소명의식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다. 그러나 권력 감시는 정파에 따라 선택적으로 가치자유와 함몰, 배제 과정을 거쳤다. 참여자들 대부분은 〈뉴스타파〉의 보도가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는 적극적인 반면, 당시 야권에는 소극적이라는 것을 인정했다. 이런 상황이 고착화될 경우 정파성의 악순환에 갇히게 되는 위험성이 있었다.

셋째, 탐사보도는 〈뉴스타파〉의 생존 전략으로서 소명이다. 참여자들은 주류 언론이 하지 않는 것을 보도하거나 주류 언론의 보도를 비판하던 대안 언론의 성격에서 벗어나 탐사보도를 통해 명실상부한 언론으로 인정받고자 했다. 장기기획이나 국제 협업, 또는 제보 등을 통해 수용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은 탐사보도를 할 때마다 후원회원의 수는 늘어났다. 최고의 탐사보도 언론이 되겠다는 소명의식은 가치자유를 거친 탐사보도를 만들어 냈다. 〈뉴스타파〉가 안착할 수 있었던 것도 성공적인 탐사보도 때문이었다. 취재 대상에는 성역이 없었고 변화를 만들어 내고자 노력했다. 그 결과인 보도는 이념적으로 진보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자는 소명의식과 가치자유 실천의 능수능란함 그리고 그 능수능람함이 탐사보도 정의(진실, 폭로, 변화)와 부합할 때 탐사보도 전문성으로 정의했다. 소명의식과 가치자유 관점에서 최승호는 탐사보도 전문 언론인이었다. 참여자 중 한 명이 최승호를 체험하면서 느낀 그의 전문성의 양상은 완벽한 장악, 집요한 노력, 예의 바른 공격, 평등한 관계였다.

마지막으로 해석에서는 〈뉴스타파〉가 겪고 있는 위기의 원인을 탐사정신의 원동력, 탐사보도의 방향성, 탐사보도와 정파성, 탐사보도의 취재 윤리, 탐사보도의 독립성 등 다섯 가지 측면으로 정리한 뒤 〈뉴스타파〉와 한국 탐사보도에 대한 연구자의 제언을 제시했다.

주요어 : 탐사보도, 뉴스타파, 맥스 베버, 소명의식, 가치자유, 탐사보도 전문성
학 번 : 2011-30881

목 차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제 2 절 선행연구 검토	7
1. 탐사보도에 대한 논의들	7
1) 탐사보도 정의	7
2) 탐사보도 언론인에 대한 논의들	10
3) 언론인 전문성에 대한 논의들	13
4) <뉴스타파>에 대한 논의들	15
2. 정파보도와 탐사보도 관계	19
1) 미국에서 정파보도와 탐사보도	19
2) 한국에서 정파보도와 탐사보도	22
3. 객관보도와 탐사보도 관계	28
1) 객관보도의 확립 과정	28
2) 객관보도와 탐사보도의 상충성	32
4. 선행연구의 한계와 새로운 이론의 필요성	37
제 3 절 논문의 구성	38

제 2 장 탐사보도 언론인에 대한 이론적 논의

- 막스 베버(Max Weber)를 중심으로 40

제 1 절 베버의 생애와 언론 연구에 대한 기여	41
1. 학자, 언론인, 정치인으로서 베버	42
1) 사회과학의 가치자유를 주장한 학자	42
2) 정치적 소명의식을 가진 언론인	44
3) 정치 참여의 실패를 경험한 정치인	45

2. 베버의 언론, 언론인 인식과 언론 연구에 대한 기여.....	46
1) 언론과 언론인에 대한 과학적 연구 제안	46
2) 언론인의 소명의식 강조	49
3) 언론 연구에 대한 기여	50
제 2 절 소명의식(Beruf)와 가치자유(Wertfreiheit)	51
1. 소명의식(Beruf).....	53
1) Beruf의 의미와 중요성.....	53
2) 신념윤리와 책임윤리 균형의 중요성	56
3) 신념 과잉과 책임 부재에 대한 경고	60
4) 신념 부재와 책임 과잉에 대한 경고	61
5) 신념과 책임에 따른 언론인 구분	63
2. 가치자유(Wertfreiheit)	64
1) Wertfreiheit의 의미와 중요성.....	64
2) 가치자유: 가치평가, 가치연관, 가치토론	67
(1) 가치평가.....	67
(2) 가치연관.....	69
(3) 가치토론.....	70
제 3 절 소명의식과 가치자유에 따른 보도 유형 대비.....	72
1. 정파보도.....	73
2. 객관보도.....	76
3. 탐사보도.....	78
제 4 절 소결	82

제 3 장 연구문제와 연구방법 84

제 1 절 연구문제	84
제 2 절 연구방법과 절차.....	85
1. 문화기술지 연구.....	85
2. 연구 참여자.....	89

3. 연구 진행	93
4. 자료 분석과 결과 제시	97
제 4 장 <뉴스타파> 조직의 기능 원리.....	99
제 1 절 뉴스 제작	100
1. 자율발제.....	100
2. 333 시스템	101
제 2 절 조직 총괄: 김용진.....	105
제 3 절 재정 기반: 후원회원	116
제 5 장 소명의 양상	123
제 1 절 <뉴스타파> 참여 경로.....	123
1. ‘해직’ 언론인	124
2. ‘퇴직’ KBS 출신.....	125
3. ‘공채’ 후배 집단.....	125
제 2 절 소명의식의 내용과 형성.....	126
1. 독립언론, 자유언론: <뉴스타파> 출범 정신	128
2. 이념과 가치.....	132
1) 저널리즘: “할 데가 아무도 없으니까요”(사명감)	132
2) 이명박, 박근혜: “한을 가지고 있잖아요”(분노).....	135
3) 탐사보도: “우리가 일등이 되자”(생존).....	138
3. 소명의식에서 선, 후배 집단 차이	139
제 4 절 소결	141
제 6 장 소명의 실천.....	143
제 1 절 저널리즘 비판	143
1. 가치연관: 적대 언론과 경쟁 언론 구분	144

2. 가치토론.....	145
1) 적대 언론: 적대적 공격.....	145
(1) KBS: “청와대 손바닥에서 놀았다”.....	145
(2) MBC: “김재철, 안광한, 김장겸”.....	147
(3) 조중동/종편: “양치기 소년”.....	147
2) 경쟁 언론: 공정경쟁 유도.....	152
3. 탐사보도와 정파보도의 혼재: 다른 언론의 반감.....	157
제 2 절 권력 감시.....	160
1. 가치연관: 적대 정파와 우호 정파 구분.....	160
2. 가치토론.....	162
1) 적대 정파: 적극적 기획과 적대적 공격.....	162
(1) 적극적 기획: “본 헤드 플레이를 해”.....	162
(2) 적대적 공격: “끼워넣기”.....	164
2) 우호 정파: 소극적 보도.....	167
3. 탐사보도, 정파보도, 객관보도의 혼재: 정파성의 뒤편.....	171
제 3 절 탐사보도.....	182
1. 가치연관: 성역없는 비판.....	183
1) 취재 대상과 목적 설정 전략.....	183
(1) 대박 가능성에 대한 집중 투자.....	183
(2) 기획과 현안 사이 균형 찾기.....	187
2) 주요 탐사보도 대상 가치들.....	190
2. 가치토론.....	194
1) 취재 수단의 타당성 검토.....	194
2) 목적의 실현 가능성 검토.....	197
3) 부수적 결과 검토.....	199
3. 탐사보도의 이념성.....	200
4. 조직 차원의 가치자유 관리.....	202
1) 탐사보도의 역동성.....	202

2) ‘나경원 딸’ 보도 관리	203
5. 탐사보도의 함정	208
1) 대선 후보 검증 보도 문제점	208
2) 앰부시 과잉	211
제 4 절 탐사보도의 세속화	213
1. 말하는 기준: 독자적 취재, 변화	214
2. 보는 기준	218
1) 동료 보도 평가 진술문 분석	218
2) 독자적 취재	222
3) 의미 전달	224
4) 영상	225
5) 수용자 흥미	225
3. 실천 기준	227
1) 판단 기준으로 “재미있다” 표현 분석	227
2) 독자적 취재	231
3) 수용자 흥미	233
4) 차별화	234
5) 분노	235
제 5 절 소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복기(반성과 혼돈)	240
1. “다른 매체들이 안 하는 것을 하면서” 차별화	240
2. “다른 매체들이 못하는 것을 해야” 생존	245
제 7 장 소명의식과 가치자유의 결합	247
제 1 절 소명의식과 가치자유 관점에서 최승호 분석	249
1. 참여자들의 최승호에 대한 평가	250
2. 정재원이 체험한 최승호	254
1) <뉴스타파> 기자 정재원	254
2) 최승호의 탐사보도 실천	260

(1) 완벽한 장악: “머릿속에 완전히”	260
(2) 집요한 노력: “집중력도 실력”	261
(3) 예의 바른 공격: “태도의 기술”	263
(4) 평등한 관계: “자꾸 얘기하고 싶어”	265
3) 정재원의 성장	267
3. 소명의식과 가치자유 관점에서 최승호 평가	270
제 2 절 소명의식과 가치자유 관점에서 스톤 분석	276
1. 스톤의 탐사보도 실천	277
1) 〈Picture Magazine〉 시기	277
2) 〈I. F. Stone’s Weekly〉 시기	278
2. 스톤 대 리프만 비교	281
1) 루즈벨트의 대법원 재구성 계획	281
2)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	282
3) 스페인 내전	283
3. 소명의식과 가치자유 관점에서 스톤 평가	284
제 3 절 소결: 최승호, 스톤, 리프만 비교	286

제 8 장 해석 및 논의 291

제 1 절 탐사보도의 원동력, 소명의식	293
제 2 절 탐사보도의 이념과 가치	300
제 3 절 탐사보도의 함정, 정파보도	305
제 4 절 책임윤리 강화와 교조적 객관보도 경계	308
제 5 절 모두로부터 독립적인 탐사보도	312

제 9 장 결론 319

제 1 절 요약	319
제 2 절 함의	324
제 3 절 한계	326

표 목차

[표 1] 과학의 사실 확인과 철학의 당위적 판단 구분	68
[표 2] 소명의식과 가치 실천에 기반한 언론보도 대비	75
[표 3] 연구 참여자 19명	93
[표 4] 후배 집단 참여자의 2015/2017년 심층면담 결과 비교	112
[표 5] 권은희, 노영민, 문재인 보도 이후 후원회원 해지 분석	122
[표 6] 시즌 1~2 기간 이명박, 박근혜 관련 보도	136
[표 7] 참여자들의 참여 경로와 소명의식	140
[표 8] KBS, MBC, YTN, 조중동/종편에 대한 비판적 보도 통계	144
[표 9] ‘조세도피처 2016’ 관련 뉴스타파 인용 여부	154
[표 10] 조중동/종편에 대한 비판적 보도 목록	159
[표 11] 2017년 3월 해지 회원 가입 연도 분석	179
[표 12] 신규회원 가입 수와 보도 내용 분석	185
[표 13] 나경원 딸 성신여대 부정입학 의혹 보도 목록	204
[표 14] ‘대선 후보 검증 … 판결문 분석’ 보도 목록	208
[표 15] 참여자들이 뽑은 가장 성공적인 보도와 평가 이유	215
[표 16] 참여자들이 말하는 좋은 탐사보도 기준	216
[표 17] 리뷰에서 언급된 동료 보도 평가 분석	221
[표 18] 발제, 토론에서 언급된 “재미” 표현 분석	230
[표 19] 좋은 탐사보도의 말하는, 보는, 실천 기준 비교	239
[표 20] 최승호의 국정원 간첩 조작 관련 보도 목록	273
[표 21] 주요 사건에서의 스톤과 리프만의 행적 비교	286
[표 22] 최승호, 스톤, 리프만 비교	287
[표 23] 소명의식의 내용, 실천, 결과 정리	291
[표 24] 뉴스타파 후원회원 특징 구분	314

그림 목차

[그림 1] 신념윤리와 책임윤리에 따른 언론인 유형 구분.....	63
[그림 2] 〈뉴스타파〉 취재팀 A의 산술적인 보도 주기	102
[그림 3] 〈뉴스타파〉와 관계 구분과 보도 인용 여부에 따른 〈뉴스타파〉 참여자들의 감정.....	149
[그림 4] 다원주의 내 정치사상의 영역 구분	303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본 연구는 탐사보도 논의에서 탐사보도 언론인의 내면세계에 대한 심층적, 맥락적 이해가 핵심 위치를 차지해야 하며, 특히 탐사보도 언론인의 소명의식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탐사보도 언론인들에게서 관찰되는 탐사정신, 즉 용기나 집요함, 만족할 줄 모르는 호기심, 직감 등은 탐사보도 언론인들이 소명의식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밖으로 표출되는 에너지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런 주장 하에 본 연구는 탐사보도 언론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명의식은 무엇이며, 그들은 소명을 구현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그들이 축적해 놓은 고유한 기능, 즉 탐사보도 전문성이 무엇인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탐사보도는 은폐되어 있거나 알려지지 않은 진실을 폭로함으로써 변화를 추구하는, 즉 진실, 폭로, 변화를 핵심으로 하는 보도이다. 그러나 진실이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는 경우는 거의 없다. 누군가의 두려움 없는 진실 말하기가 필요했고 그에는 희생이 뒤따랐다(Hargreaves, 2002). 탐사보도 언론인들은 무엇이 진실인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진실이라고 스스로 믿는 단계까지 파고 들었고, 온갖 위험을 뚫고 폭로를 했다. 주장과 반론을 넘어 증명하거나 반증을 해왔고, 한 번의 폭로가 미흡하면 변화가 일어날 때까지 추적 보도를 했다(Shapiro, 2003; Spark, 2012).

2016년 한 해는 한국 언론사, 특히 탐사보도 역사에서 기억될 것이다. ‘촛불혁명’으로 불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한국 언론이 이뤄 낸 탐사보도는 결정적 기여를 했다. 2016년 한국 언론은 워터게이트(Watergate) 보도에 버금가는 탐사보도를 이어갔고 이를 주도한 언론사 3곳¹에게는 한국기자협회의 한국기자상 대상이 수여됐다. 심사과정에서 “이명박-박근혜 정권 내내 권력과 자본에 억눌려 ‘기레기’라는 모욕적인 평가를 받았던 점에서 대상작 선정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중견 언론인, 언론학자, 변호사 등 20여 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이들 언론 3사가 권력형 비리를 집요하게 파헤쳐 세상 밖으로 폭로하는 저널리즘의 본령을 지킨 것을 적극적으로 평가했다.

1. 2017년 한국기자상 대상은 기자상 제정 이래 처음으로 3개 언론사에게 수여됐는데 TV조선(미르-K스포츠재단 권력형 비리 의혹), JTBC(최순실 국정개입 사건), 그리고 한겨레신문(최순실 게이트)이 공동 수상했다. 한국기자상은 한국기자협회가 그 해의 우수 보도를 선정해 수여하는 상으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부문별 수상작으로 선정된 10편의 보도들 역시 권력을 감시하고 약자의 편에서 정의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언론은 정권과 자본의 압력,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 현상에 맞서 감시와 비판이라는 저널리즘 본령을 지켜나가야 한다. 그런데 저간에 그런 구실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채 침체의 늪에 빠졌던 한국 언론은 작년 말 터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활발한 탐사보도와 현장취재를 쏟아내며 뒤틀린 정권의 권력남용과 부정부패를 고발하고 비판하면서 한국 언론사에서 다시 한 번 언론인의 자부심을 회복²했다는 평가를 받았다(한국기자상 대상 심사평 중에서).

이렇듯 언론에 대해 제기되는 근본적인 질문들 가운데 하나인 언론과 민주주의 관계에서 탐사보도는 민주주의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심재철 & 이경숙, 1999; Altschull, 1990/1993; Haas, 2007/2008). 폭로 대상은 주로 규범을 위반한 부끄러운 관행이나 부정 부패, 권력 남용, 지배 이데올로기의 어두운 이면, 법의 맹점, 그리고 명분과 실제의 괴리 등이었다(de Burgh, 2000).

예를 들어 여성 수용소에서 벌어지는 야만적인 인권 침해와(Bly, 1887), 뉴욕 빈민가의 비인간적인 삶의 조건과 범죄의 악순환 등을 고발하면서 변화를 만들어 냈고(Riis, 1890), 동시에 저널리즘이 한 단계 발전하는데 기여해 왔다(Aucoin, 2005/2007). 1903년 <맥클루어 매거진>(McClure's Magazine)에 실린 3편의 보도는 탐사보도의 황금기를 이끌면서 악당의 악행을 폭로하고 각성된 여론이 변화를 이끌어 내는 탐사보도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Feldstein, 2006; Fitzpatrick, 1994). 핵전쟁의 참담함을 고발하면서 반핵운동을 촉발시키는가 하면(Hersey, 1946), 식탁 위의 안락함 뒤에는 환경파괴라는 희생이 뒤따른다는 것을(Carson, 1962/2002), 그리고 소비자 안전의 희생을 대가로 자동차 회사가 이득을 챙기는 것을(Nader, 1972) 고발했다. 한 프리랜서 언론인이 작성한 미군의 학살보고서는 전쟁이 끝나는 것을 앞당겼고(Hersh, 1970), 그가 가장 존경하는 한 탐사보도 언론인의 지속적인 폭로가 없었다면(Stone, 1964, 1968) 미국 역사책에서 베트남전은 북베트남이 먼저 도발한 전쟁으로 기록돼 있을 수도 있다. 탐사보도의 신화로 불리는 워터게이트 보도는 현직 대통령의 불명예 퇴진을 불러왔고 워싱턴의 지역 신문이었던 <워싱턴 포스트>(Washington Post)는 펜타곤 페이퍼(Pentagon Papers)와 워터게이트(Watergate) 보도를 거치면서 <뉴욕타임스>(The New York Times)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적인 언론사로 도약했다(Bradlee, 1995/2009;

2. 이하에 나오는 인용문이나 자료에서 강조된 부분은 모두 연구자에 의한 것이다.

Graham, 1997/1997; Woodward & Bernstein, 1974/2014). 20세기 마지막 해인 1999년 뉴욕대학 언론학부가 발표한 20세기 미국의 우수한 100대 저널리즘에서 상위 10위 가운데 9개가 탐사보도였고(Stephens, 1999), 최근에는 미국을 넘어 영국이나 프랑스, 중국 등에서도 탐사보도가 활성화되면서 국가마다 조금씩 다른 양상을 보이긴 하지만 시민의 삶이 향상되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de Burgh, 2003; de Burgh & Rong, 2011; Mair & Keeble, 2011; Marchetti, 2009).

그러나 언론사 내의 탐사보도 전담 부서는 부침을 거듭하고 있고, 언론인들 중의 일부만이 탐사보도 전통을 지켜나가고 있는 실정이다(정서린, 2010; Mair, 2011a). 특히 한국의 경우 TV 탐사보도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미디어 통제 속에서 고사위기는 진단까지 나왔다(김상균 & 한희정, 2014; 박인규, 2010, 2017). 또 언론사 내에서는 탐사보도를 하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불경기를 맞을 경우 탐사보도를 호사로 여기고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발행인이나 간부들에게 탐사보도는 제3자의 입장일 때는 저널리즘의 본령이지만 자신이 담당 책임자일 때는 계륵으로 생각하기 십상으로, <한겨레신문>의 한 간부가 느낀 다음과 같은 부담과 고민은 탐사보도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탐사보도에 대한 갈증은 현장 취재기자들도 있다. 경제부 소속으로 경력이 10년이 넘은 어느 기자가 최근에 차별성 없는 기사를 써온 매너리즘을 자성하면서 출입처를 따로 두지 않고 경제 분야 취재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발품을 팔면서 취재하고 싶다는 것이다. 출입처에서 쏟아지는 각종 자료와 발표 때문에 기획취재를 엄두내지 못했다고 한다. 경제부 회의를 거쳐 그 기자는 출입처에서 자유롭게 만들어 주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경제면을 책임지고 있는 처지에선 매일 안정적으로 지면을 만들어야 하는 부담과 고민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조계완, 2013).

이는 탐사보도가 수용자에게는 감시견(watchdog) 기능으로 언론의 본령을 의미하지만(Stone & Banning, 1997), 언론사에게는 생존과 발전의 수단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때문에 생존과 발전 전략 측면에서 탐사보도에 대한 논의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모든 출입처를 탐사보도의 거점으로 전환하거나, 보도 과정에 시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유도해 언론인 중심에서 언론인과 시민이 함께하는 탐사보도의 가능성을 점검해 보는 것들이 대표적이다(김재영, 2014; Berry, 2009; Mair & Keeble, 2011). 생존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미국 언론의 노력들을 분석한 보고서나 연구들에 따르면 미국 언론들은 언론사간 협업 등을 통해 탐사보도를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이용

주, 2015; 장아영, 2016; Downie, Jr. & Schudson, 2009; Hamilton, 2016).

그러나 이런 고심 속에서 탐사보도 언론인 개인들에 대한 논의는 빈약한 상태이다. 예를 들어 언론인 일생 대부분을 탐사보도에 헌신하며 탐사보도 전문가로 불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들은 언론인으로서 무엇에 의미를 두는가? 즉 그들은 어떤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가? 또 그 실천은 왜 실패하는가? 탐사보도 언론인의 전문성은 무엇인가? 언론인은 어떻게 하면 탐사보도를 더 잘할 수 있을까? 탐사보도를 잘하는 언론인과 못하는 이의 차이는 무엇인가? 이들은 다른 언론인과 무엇이 다를까? 이들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탐사보도 전문 언론인을 만들어 내는 것은 아닐까? 본 연구는 이런 질문들에서 시작됐고 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노력이다.

잠입취재를 통해 악명 높던 여성수용소의 인권침해를 고발한 블라이(Nellie Bley)는 이후에도 사기성 직업소개소, 공장의 열악한 노동 조건, 의원들의 뇌물수수, 여성 교도소 안에서의 가혹 행위 등에 대한 잠입취재를 계속했고, 그녀로 인해 잠입취재는 탐사보도의 공인된 취재방법으로 자리잡았다. 미라이 학살 보도로 전쟁은 물론 전쟁 보도를 바꿔 놓은 허시(Seymour Hersh)는 2004년에는 주간지인 <뉴욕커>를 통해 미군의 이라크군 포로 학대를 폭로했고(Hersh, 2004/2004), 2015년에는 오사마 빈 라덴의 죽음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발표가 거짓이라는 주장을 내놓았다. 그의 주장이 맞다면 CIA가 수년 동안 추적한 끝에 빈 라덴의 소재를 찾아 냈고, 파키스탄 정부 몰래 작전을 수행했다는 오바마 행정부의 발표는 거짓이 된다(조찬제, 2015). 최근 영국 탐사보도의 아이콘으로 떠오른 제닝스(Andrew Jennings)는 스포츠 업계의 비리를 묵인하거나 동조하는 스포츠 기자들을 경멸한다(Mair, 2011a, p. 66). 1990년대 10년 동안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비리를 고발해 개혁을 이끌어 냈던 그는 2000년대 들어서는 국제축구연맹(FIFA)과 회장인 블래터(Joseph Sepp Blatter)의 비리를 집중적으로 고발해 2015년 미국 연방수사국(FBI)의 FIFA와 블래터에 대한 수사를 이끌어 냈다(양모듬, 2015; Mair, 2011b). 자신이 한 보도로 인해 만일 어떠한 법이 바뀌었다면 그 언론인에게는 평생 대단한 자부심일 것이다. 그런데 해밀턴(Hamilton, 2016)에 따르면, 보도를 통해 거의 매년 법을 바꾸는 언론인이 실제로 존재한다. 언론인 경력 42년 가운데 36년을 탐사보도 언론인으로 살아온 스티스(Pat Stith)가 주인공이다. 1966년 언론인이 된 스티스는 5년 뒤인 1971년부터 2008년 은퇴할 때까지 36년 동안을 미국 노스 캐롤라이나의 <뉴스 앤 옵저버>에서 탐사보도 언론인으로 일했다(pp. 209-212). 그는 1996년 풀리처상 공공서비스 부문 수상자이기도 한데 놀라운 것은 그가 이뤄낸 성과로 36년 동안 31건의 법률 변화를 이끌어 내, 법이 제정되거나 개정됐고 새로운

규제가 도입됐다(pp. 229-233). 법률 변화는 탐사보도가 이뤄낼 수 있는 최상위 변화로, 스티스가 일생 동안 만들어 낸 314건의 탐사보도는 모두 큰 반향을 불러왔다. 그는 컴퓨터를 활용한 보도(CAR, Computer - Assisted Report)의 선구자였고, 동료들로부터는 공평하고, 정확하고, 집요하고, 그리고 심층 지식이 있다는 평을 들었다. 확실한 것은 스티스가 탐사보도 전문 언론인이라는 점이다.

이들 탐사보도 언론인들을 어떻게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을까? 연구자는 이들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핵심에 소명의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널리즘 역사에서 명작으로 기록되고 있는 탐사보도를 남긴 언론인들에게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강박적인 집요함’이다. 탐사보도 언론인들은 때로는 검사가, 때로는 변호사가 되어서 부정부패를 파고 들었고 부정부패로 희생되는 사람들을 도우려고 노력했다. 부패와 폭로, 개혁, 그리고 다시 서서히 부패로 이어지는 사회변화 과정을 지켜보면서 탐사보도 언론인들은 탐사보도는 미국이 존재하는 한 계속되어야 하는 과정의 일부라는 것을 터득하게 됐다(Hamill, 2003, pp. vii-xii). 그들은 가치나 이념에 대한 신념이 강했고 이를 보도에 투영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미국 탐사보도의 황금기를 의미하는 머크레이커(muckraker) 시기 탐사보도 언론인들은 당시 사회주의가 그리던 이상을 선호했고 그런 이상에 대한 동경을 보도에 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다. 대표적인 경우가 미국에서 사회주의 혁명을 주장했던 싱클레어(Upton Sinclair)라고 할 수 있다(Sinclair, 1906/2009).

연구자가 보기에 탐사보도 언론인에게서 보이는 이런 신념과 이를 이루려는 열정은 역사적으로 보여진 장인의 삶, 그리고 그들의 소명의식과 다를 바가 없다. 일 그 자체를 위해서, 일을 잘 해내려는 욕망으로 사는 사람들인 장인들에게서 보여지는 특징은 별다른 보상이 없더라도 일 자체에서 깊은 보람을 느끼고, 별다른 이유 없이도 세심하고 까다롭게 일한다는 점이다. 장인이 추구하는 근본 신념을 잘라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들은 평생 본인 기능의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하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소명의식 때문이다(Sennett, 2008/2010, pp. 420-425). 모노즈쿠리로 불리며 일본 경쟁력의 바탕이라는 평가를 받는 일본 장인들도, 머리가 아닌 몸으로 전통 기능을 배우고 이를 지켜나가는 한국 장인들도 마찬가지이다(김재호, 2015; 유승호 & 선원석, 2014; 조성실, 2013). 모두 일 자체를 자신의 삶과 동일시하면서 일을 통한 자기 세계의 형성을 추구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탐사보도 언론인에 대한 심층적, 맥락적 이해의 핵심에 소명의식이 있다면 탐사보도 전문성에 대한 논의 역시 새로운 시각의 접근을 요구한다. 언론 전문직주의는 언론인에게 자신의 보도를 보호할 책임을 부여하고 보도는 필연적으로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며, 균형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Schiller, 1979), 반대로 언론인이 정치적으로 중립적일 수 있고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전문직주의에 대한 한계도 지적되고 있다(Patterson, 1996/1999). 그러나 이런 전문성 논의에서 탐사보도 전문성은 큰 고려를 받지 못하고 있다.

탐사보도 전문성이 학교 교육이나 집합적 연수 등을 통해 축적되지도 의문이다. 장인의 전문성은 체득을 통해서 얻어진다. 체득은 보고 들은 내용과 실제로 해본 경험이 암묵적 지식으로 쌓이는 과정으로 장인의 전문성에서 본질적이다. 전문성이 높은 단계에 들어서면, 암묵적 지식과 스스로 자신을 비춰보는 자기의식 사이에 끊임없는 상호작용이 생기게 되는데 이런 반복 과정 속에서 문제를 알아보고 스스로 교정하는 자기비판 능력이 올라가는 것이다. 때문에 장인은 끊임없이 자신의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자기 자신을 자극하고 일깨워야 한다(Sennett, 2008/2010, pp. 90-91). 그렇다면 탐사보도 전문성도 소명과 소명의식의 실천에서 쌓여 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탐사보도 전문 언론인으로 불리기에 손색이 없는 사람들은 분명 객관보도가 요구하는 냉정한 관찰자의 모습은 아니었다. 소명과 소명의식 실천의 능수능란함 그리고 그 능수능란함이 탐사보도 정의(진실, 폭로, 변화)와 부합할 때 장인의 전문성과 같이 탐사보도 전문성이 쌓여가는 것은 아닌지 하는 가설을 세워 볼 수 있다. 소명의 실천에서 개인이 미숙할 때는 조직이 미숙함을 보완해 주고, 궁극적으로는 조직의 보완이 필요 없을 정도로 능수능란해지는 것이 탐사보도 전문 언론인 형성 과정이라는 가설이다.

위와 같은 의문들은 탐사보도 조직이나 언론인들의 주위를 맴 돌아서는 풀 수 없는 것들이다. 그들이 실생활에서 스스로의 삶을 어떻게 이해하고 의미를 부여하는가를 얹으로써 발견과 이해와 통찰을 통해 해소할 수 있는 의문들이다. 즉 탐사보도 언론인들의 자연스러운 일상 속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탐사보도의 이런 측면은 저널리즘 연구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고, 따라서 축적된 연구 결과물은 양이나 깊이에서 매우 미흡했다. 따라서 기존의 개념이나 이론에 근거해서 양적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었고, 이런 상황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탐사보도가 이뤄지는 현장을 찾아가서 질적 연구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현장을 찾는 것은 연구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인데, 연구자는 한국의 탐사보도 전문 언론 매체인 <뉴스타파>가 이러한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이상적인 사례라고 판단했다. 무엇보다 <뉴스타파>에는 한국 탐사보도 역사에서 선구자적인 역할을 해 왔던 김용진, 최승호, 박중석, 최경영 등과 같은 언론인들이 많

았고, 연구대상 선정 당시 다른 언론사들의 탐사보도가 위축된 상황에서도 활발하게 탐사보도를 이어가는 매체로 평가받고 있었다.

제 2 절 선행연구 검토

선행연구 검토는 두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졌다. 첫째, 탐사보도 일반 보다는 탐사 보도 언론인에 대한 연구에 집중했다. 본 논문의 주요 연구 문제가 탐사보도 언론인의 내면 세계에 있는 소명의식인만큼 탐사보도 언론인의 직업과 역할에 대한 인식, 도덕성, 신념, 전문성 등 언론인의 소명의식과 관련성이 있는 연구들에 검토를 집중했다. 국내의 경우 탐사보도 경험과 역사의 부족 때문인지 탐사보도에 대한 연구 자체가 많지 않았다. <뉴스타파>에 대한 선행연구는 별도로 정리했다³.

둘째, 좀 더 거시적으로 언론 역사 측면에서 정파보도와 탐사보도의 관계, 그리고 객관보도와 탐사보도의 관계를 검토했다. 역사적으로 탐사보도는 정파보도와 정파보도에 대한 반성으로 등장한 객관보도를 거치면서 흥망성쇠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이유를 추정해 보는 것이 필요했다. 특히 탐사보도 언론인이 소명의식에 집착해 가치함몰에 빠진 경우 정파보도라는 비판을 받았고, 이후 사실상 가치를 배제하라는 객관보도의 요구 속에서 탐사보도 언론인의 의지가 위축되어 온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검토 대상이 미국 언론 역사에 한정됐다는 한계는 있지만 탐사보도의 발상지이고 탐사보도가 활발하게 이뤄져온 나라가 미국이라는 점에서 제한적이지만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1. 탐사보도에 대한 논의들

1) 탐사보도 정의

탐사보도에 대한 학문적 논의들을 종합해 보면(남재일 & 오대영, 2018; de Burgh, 2000; Houston, 2010; Protess, et al., 1992; Stephens, 1999) 탐사보도는 은폐돼 있거나

3. 탐사보도와 유사한 개념으로 심층보도, 정밀보도, 기획보도 등의 있다. 이와 같은 보도 등의 표현은 학계에서 정밀하게 정의된 개념이라기 보다는 뉴스 생산 현장에서 편의적으로 사용되어 온 표현의 성격이 크다. 또 이들 표현에는 보도에 대한 비판과 보도가 답아야 하는 내용에 대한 규범적 희망이 담겨 있다. 반면 탐사보도는 역사적으로 실체가 있는 언론 실천의 한 유형으로 점차 위의 규범적 희망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대됐다고 할 수 있다(남재일 & 오대영(2018)을 참고함).

알려지지 않은 진실을 폭로함으로써 변화를 추구하는, 즉 진실, 폭로, 변화를 핵심으로 하는 보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 드 버(de Burgh, 2000)는 탐사보도는 “진실을 찾아내서 잘못을 확인하는 것”(p. 9)이라고 말한다. 프로테스와 동료들(Protess, et al., 1992)은 독자들의 의식을 일깨워 시민의 공분을 일으키는 분노저널리즘(the journalism of outrage)을 강조하며, 탐사보도에 대한 사후 평가에서 탐사보도가 가져온 변화는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언급되고 있다(Stephens 1999). 남재일과 오대영(2018)은 “공공성이 있는 사회의 부패 구조나 권력의 비리를 독자적으로 취재해서 폭로함으로써 시민의 공분을 일으켜 사회 개혁을 촉진하는 보도”로 정의한다. 언론인 출신인 휴스턴(Houston, 2010)의 탐사보도에 대한 설명은 탐사보도의 특성을 골고루 지목하고 있다.

“탐사보도는 철저한 문서 자료와 풍부한 인터뷰로 가득한 독자적 보도(original reporting)로, 주로 정부 기관의 재정 낭비와 부정, 권한 남용 등을 파고 든다. 탐사보도는 당대의 권력에 도전하는 적대인(adversarial)이면서 동시에 동원인(populist)으로서 도덕적 판단을 수반한다”(p. 45). 탐사보도 언론인이 진실이라고 믿는 것들이 전달되는 방식 또한 중요하다. 탐사보도에서 보여지는 드라마틱하면서 공격적인 폭로 방식은 탐사보도의 특성 가운데 하나로, 탐사보도는 폭로 언론의 전통을 모태로 하면서 폭로를 핵심 이데올로기로 삼는다(Protess, et al., 1992). 탐사보도는 목격이나 연구, 증거 등에 기초한 선정적인 폭로 방식을 사용해 왔고 이것이 탐사보도가 이윤을 창출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탐사보도 언론인들은 취재 과정과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에 중점을 둔다. 미국 탐사기자·편집인협회(IRE, Investigative Reporters and Editors)는 탐사보도의 조건으로 “자신이 주도적으로 작업을 해서 만들어 내야 하며, 독자나 시청자나 청취자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보도로, 많은 경우 보도 대상들은 취재되고 있는 문제들이 공개되지 않기를 희망하는 것”이라고 제시한다(IRE & Weinberg, 1996/2000). 한국에서는 2007년 탐사보도 언론인들이 모여 탐사보도 정의를 내려보려 했지만 정의를 성급하게 내리기 보다는 대신 훌륭한 탐사보도의 구성 요소를 제시한 바 있다. 핵심은 정의, 참신, 심층, 중요, 현상이었다(한국탐사언론인회, 2007, p. 19).

머크레이커(muckraker)와 워터게이트(Watergate)는 탐사보도의 대표적 상징이다. 머크레이커는 미국 언론 역사에서 탐사보도가 황금기를 구가하던 20세기 초반을 대변하면서 동시에 탐사보도 언론인을 부르는 부정적 표현인 ‘추문폭로가’를 의미한다. 워터게이트는 미국 탐사보도의 중흥을 의미하면서 탐사보도의 존재 의미와 가치를 세계에 알린 신화 같은 보도이다. 워터게이트 보도는 다른 나라들에게는 탐사보도가 시작되거나 융성하게 하는 기폭제가 됐다(Chalaby, 2004; de Burgh, 2003; de Burgh &

Rong, 2011; Marchetti, 2009).

추문폭로(muckraker) 대신에 탐사(investigative)라는 말이 사용된 것은 그리 오래 되지 않았다. 1962년 폴리처상 위원회 소속 큐레이터가 폴리처상 출품작에 대한 글을 쓰면서 ‘폭로 보도(exposure journalism)’와 ‘일반 보도(routine reporting)’의 특징을 구별하기 위해 전자에 ‘investigative’라는 수식어를 붙인 것이 탐사보도(Investigative Journalism) 용어의 시원이 됐다. 폴리처상 위원회는 1964년 보도 부문 수상에 새로운 분야를 추가했는데 탐사보도였다.

탐사보도에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 것은 허친스위원회이다. 위원회는 언론이 사실을 의미 있는 맥락에서 제시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실에 관한 진실을 규명하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했다(Hutchins Commission, 1947/2004). 언론인은 객관적 사실 이상의 것을 추구하고, 취재원이 제공한 정보의 행간을 읽어야 하며, 사건의 이면에 무엇이 있나를 살펴보아야 하는 등 드러나지 않은 진실을 찾아서 제시해야 한다. 사실을 제시하고 한 걸음 나아가서 사실 뒤의 진실을 제시해야 할 뿐만 아니라,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이유를 사회에 설명해야 하는 도덕적 의무를 지게 된다. 이같은 사회적 책임 의무가 탐사보도의 도덕적 근거가 됐다(Altschull, 1990/1993, pp. 522-523).

탐사보도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대개 언론의 책임을 역설하는 규범론적 특성을 띤다. 탐사보도의 실천과 원리, 즉 필요한 기술이나 기능, 성공 사례, 장애물, 성공 조건 등의 논의도 연장선상이라고 할 수 있다. 브롬리(Bromley, 2008)는 이런 당위론적 접근을 넘어 탐사보도에 대한 논의를 종합해 규범이론, 사회경제이론, 문화이론, 사회기술이론의 측면에서 다각적인 시야를 제공하고 있다. 규범이론은 사회에는 언론과 언론인의 정당한 역할이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언론은 민주주의를 증진하고 유지하기 위해 공공선에 복무해야 하며, 언론인은 독립성, 객관성, 정확성, 윤리의식 등으로 채워진 전문성을 바탕으로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진실은 명확하기 보다는 잠재적이기 때문에 비밀주의는 사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 탐사보도는 알 권리와 공공 이익 관점에서 민주주의의 바로미터가 된다. 사회경제이론은 언론과 시장의 관계에 집중한다. 시장의 수익 압박, 고도 경쟁, 소유 집중 속에서 탐사보도는 퇴조할 수밖에 없다. 탐사보도에 대한 양가적인 시각 속에 미국에서 탐사보도는 대부분 대중과 결합이 아닌 정책 결정자들과의 제휴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는 연구는 비판쪽에 힘을 싣고 있다(Protess, et al., 1992). 탐사보도는 언론인의 직업적 자유를 정당화하기 위한 또는 헌신과 용기를 주장하는 명분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더해진다. 탐사보도 퇴조에 대한 대안으로 추구되어 온 탐사보도 언론인의 자발적 공동체(예를 들어 IRE, Investigative Reporters and Editors)나 국제 협업(예를 들어

ICIJ, International Consortium of Investigative Journalists)은 시장의 한계를 벗어난 자율성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문화이론은 탐사보도를 문화적 현상의 하나로 바라본다. 예를 들어 워터게이트 보도는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대중적 신화와 '권력에 대한 진실 말하기'라는 언론 신화가 교차하면서 탐사보도를 상징화시킨 사건이라는 시각이다(Schudson, 1995). 문화이론은 탐사보도의 여론 동원에 의문을 제기한다. 탐사보도의 변화는 맥락적 또는 문화적 요인들(예를 들어 민주주의, 대중, 문화, 불신, 민주화 등)에 의해 영향받는, 동시에 스캔들을 둘러싸고 거래가 이뤄지는 권력 게임의 참여자에 불과하다는 시각이다. 마지막으로 사회기술이론은 기술의 발전이 탐사보도에 갖는 긍정과 부정적 측면을 제시한다. 확실한 것은 '모두가 미디어(we media)' 또는 '시민저널리즘(citizen journalism)' 시대에 전통적 게이트키퍼이나 탐사보도의 역할이 대체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가디언>(The Guardian)의 신문판매원 톰 린슨(Ian Tomlinson) 사망 사건 추적 보도이다(Lewis, 2011). 탐사보도 언론인은 새로운 현실에 적응해야 하지만 시민저널리즘이 무엇인지, 어떨지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2) 탐사보도 언론인에 대한 논의들

상대적으로 풍성하지 못한 가운데 소수의 연구들이 탐사보도 언론인에 대한 고찰을 시도했다. 프로테스와 동료들(Protest, et al., 1992)의 연구는 탐사보도 언론인에 대한 연구의 시초로 평가받는다. 연구자들은 미국 탐사기자·편집인협회(IRE, Investigative Reporters and Editors) 회원 927명을 조사해 미국 탐사보도 언론인들의 기본적인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제시했다. 그러나 질문이 나이, 성, 인종 등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탐사보도 언론인에 대한 전체적인 윤곽을 보여주지 못했으며, 특히 본 연구가 주목하는 언론인의 이념이나 가치, 또는 소명의식 등을 유추할 수 있는 연구 결과는 없었다. 카플란(Kaplan, 2008)은 IRE의 도움을 받아 눈덩이 표집 방법으로 신문사 소속 탐사보도 언론인 281명에 대한 인식 조사와 이 가운데 10명에 대한 심층면담을 통해 탐사보도 언론인들이 위장 취재나 몰래 카메라 등 논쟁적인 취재 방법을 윤리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연구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분의 1은 논란이 되는 취재 방법을 모두 사용하겠다고 응답했다. 최근에는 탐사보도 언론인과 일반 언론인을 비교하는 연구가 진행됐다(Lanosga, Willnat, Weaver, & Houston, 2017). 탐사보도 언론인의 역할 인식과 취재 방법 선호의 관계를 분석하면서 연구자들은 IRE 소속 언론인 861명과 일반 언론인 1,08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인식 조사를 실시했다. 연

구 결과 예상대로 탐사보도 언론인들은 역할 인식에서 적대인 역할을 더 지지했고, 언론 윤리 측면에서 논란이 제기되는 공격적인 취재 방법을 더 지지했다. 그러나 왜 탐사보도 언론인이 일반 언론인 보다 더 적대적인 역할과 공격적인 취재 방법을 선호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구체적으로는 설명하지 못했다.

언론인의 역할 인식에 대한 연구는 언론인이 자신의 직업에 두는 직업적 가치의 지표로서 연구되어 왔다. 언론인들은 자신의 역할에 대한 일정한 유형의 인식을 갖고 있으며 이런 인식은 언론인들의 행위와 보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보도에 가장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언론인의 개인적 특성이 보도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점은 우리에게 익숙한 생각이다(Gans, 1979; Shoemaker & Reese, 1996).

언론인의 역할 인식에 대한 연구는 존스톤(Johnstone, 1976)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71년 당시 미국 언론인 1,31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바탕으로 그는 언론인을 중립적인(neutral) 역할을 선호하는 집단과 참여자(participant) 역할을 선호하는 집단으로 나누었다. 위버와 윌호이트(Weaver, 2007; Weaver & Wilhoit, 1991, 1996)는 이를 발전시켜 지난 1980대부터 10년 주기로 미국 언론인들의 특성을 조사하면서 인구사회학적 특성뿐만 아니라 정치적 견해, 교육, 직장, 전문직주의, 뉴스가치, 윤리 등과 관련한 변화를 추적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미국 언론인들 사이에는 역할과 가치, 그리고 윤리에 대한 인식에서 전반적인 불일치가 존재하고 있으며, 언론인의 역할에 대해서는 설명인(interpretive), 배포인(disseminator), 적대인(adversarial), 동원인(populist mobilizer)의 네 가지 인식이 혼재하고 있었다(Weaver, 2007). 이 가운데 적대인 역할은 주로 탐사보도 언론인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 역할이다(Lanosga, Willnat, Weaver, & Houston, 2017).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압데노르와 리페(Abdenour & Riffe, 2016)는 미국 TV 탐사보도 언론인 165명을 대상으로 역할 인식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탐사보도 언론인은 사실에 기반한 정보제공자 역할을 가장 선호했으며 다음으로 해석자와 감시자 역할을 지지했다. 이는 탐사보도 언론인도 정확성과 수용자에 대한 정보제공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국내에서도 언론인들 사이에 언론인 역할에 대해서 정보전달, 해설/탐사 그리고 감시자 역할 인식이 존재하고 있음이 확인된 바 있으며(오택섭, 이창근, & 강명구, 1993) 보다 구체적으로 미디어 전문기자들의 역할 인식에 대해서도 연구가 진행됐다(최경진, 2003). 연장선상에서 김연식(2008)은 TV 언론인의 역할 인식이 그들의 공정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기자와 PD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자 집단은 관찰자로서의 역할 인식에, 프로듀서 집단은 주창자로서의 역할 인식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고 제시한 바 있다.

언론인 역할 인식에 대한 플레잔스와 스쿠이스(Plaisance & Skewes, 2003)의 연구는 언론인의 이념이나 가치 등 신념과 역할 인식 사이의 상관성을 보여줌으로써 언론인의 개인적 신념이 역할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002년에 실시된 미국 신문 언론인 355명에 대한 우편조사를 통해 연구자들은 위버(Weaver, 2007)가 정립한 네 가지 역할 인식 가운데 세 가지(설명인, 배포인, 적대인 역할)의 존재를 확인한 뒤, 이들 역할 인식과 특정 가치들이 밀접하게 연관돼 있음을 밝혀냈다. 예를 들어 적대인 역할은 관대(broadminded), 균형(fair), 용기(courageous), 상상력(imaginative), 독립(independent) 가치들과 유의미하게 연결돼 있었으며, 배포인 역할은 능력(capable), 균형(fair), 책임(responsible), 그리고 설명인 역할은 관대(broadminded), 용기(courageous)와 각각 밀접하게 연결돼 있었다. 돈스바흐(Donsbach, 2004)는 뉴스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기존의 이론들을 비판하면서 심리적 요인들을 중심으로 인지심리학 또는 사회심리학 관점에서 탐사보도 언론인에 접근할 것을 제안했다.

이들 역할 인식 연구들을 종합하면, 역할 인식은 일시적인 태도가 아닌 언론인 개인의 특정 이념이나 가치 등 신념을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태도라는 점과 언론인 신념이 역할 인식을 통해 언론인의 행위와 보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특히 탐사보도 언론인들의 경우 신념이나 소명의식이 강했다는 점에서 이런 특성이 보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 가능성이나 탐사보도 언론인의 신념 또는 소명의식을 본격적으로 탐색한 연구는 없었다.

다만 몇몇 연구들에서 탐사보도 언론인의 신념이 보도에 적극 투영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탐사보도 언론인(75명)과 종교 단체 가입 언론인(89명)을 포함한 미국과 캐나다 언론인 422명에 대한 인식 조사를 바탕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탐사보도 언론인도 종교 단체 가입 언론인 못지 않게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있고, 사회 정의와 부패 척결의 도덕적 관념 위에서 종교적 신념을 적극적으로 보도에 반영하고 있다(Underwood & Stamm, 2001). 그러나 종교적 신념이 과잉 또는 근본주의적으로 빠질 경우 오히려 언론인의 도덕성을 저하시킨다는 점을 경고하는 연구들도 있다(Coleman & Wilkins, 2004; Parker, 1990). 맥킨타이어(Alasdair MacIntyre)의 사회적 직능(social practice) 이론을 적용에 미국 탐사보도 역사를 분석한 어코인(Aucoin, 2005/2007)은 미국에서 탐사보도는 정의와 진실, 용기 등과 같은 신념에 헌신하는 탐사보도 언론인 때문에 발전해 왔다고 결론지었다. 문화기술지와 심층면담, 언론상 수상작 등을 분석한 에트마와 글레셔(Ettema & Glasser, 1998)는 탐사보도 언론인을 사회적 병폐의 폭로에 헌신하는 도덕적 욕구에 깊숙이 관여되어 있는 사람으로 바라보았다. 언론인의 윤리 의식에 대한 시민들의 부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탐사

보도 언론인은 도덕성에서 일반 언론인은 물론 다른 직업군에 비해 상위(18개 직업군 중 4위)에 있었다(Coleman & Wilkins, 2004). 탐사보도가 언론인의 도덕성을 강화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탐사보도 언론인이 더 높은 도덕성을 갖는 것인지 구분은 못하지만 탐사보도에는 윤리적 결정을 하는 과정이 수반되고 탐사보도 언론인은 이런 결정에 대한 고민을 자신들의 일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일상적으로 윤리적 문제를 고민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능을 개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3) 언론인 전문성에 대한 논의들

어떤 직업이든 그 직업에 맞는 전문성이 있기 마련이며 일부 직업에 대해서는 전문직이라는 지위가 부여된다. 무어(Moore, 1970)는 사회학자들이 제시하는 전문직의 속성을 8가지로 정리했다. 숙련된 기술의 수준, 자율성, 서비스 정향성, 자격증 절차, 능력 검증 시험, 조직, 윤리 강령, 훈련과 교육프로그램이다(Zelizer, 2004/2010, p. 51 재인용). 이 8가지는 조건(자격증 절차, 능력 검증 시험, 조직, 윤리강령, 훈련과 교육 프로그램)과 정신(서비스 정향성), 그리고 실천(숙련된 기술의 수준, 자율성)으로 묶어서 정리할 수 있다. 라슨(Larson, 1979)이 전문직의 조건을 인지적(지식과 기술), 규범적(서비스 목표와 지향, 윤리), 평가적(자율성) 차원으로 제시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이 같은 기준들을 바탕으로 언론인이 전문직인지, 전문성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상근직, 대학 내 언론 교육, 윤리강령, 전문직 협회의 존재를 들어 언론인의 전문직화를 주장한 윌렌스키(Wilensky, 1964)의 연구는 조건에 초점을 맞추었다. 윤영철(2003)은 실천의 측면에서 전문직의 조건으로 세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전문적 지식(뉴스 생산 과정에 대한 전문적 이해와 특정 분야에 관한 특화된 지식), 둘째, 숙련된 기술(말하기, 글쓰기, 영상 이미지 활용, 경우에 따라서 사실에 입각한 객관적 글쓰기), 셋째,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윤리적 소양이다. 국가별 언론인의 전문직화를 연구한 할린과 만시니(Hallin & Mancini, 2004)의 연구가 기준으로 고유한 직업 규범, 공공서비스 지향성, 자율성을 채택한 것은 조건과 정신, 실천을 아우르는 시도였다.

조건과 정신, 실천 가운데 조건은 언론인 개개인이 결정할 수 없는 것이지만 정신과 실천은 언론인 개인과 관련이 있다. 그렇다면 탐사보도 언론인의 전문성은 정신과 실천의 측면에서 무엇일까? 그동안 제시되어 왔던 언론인 전문성이 탐사보도 언론인 전문성도 포괄할 수 있을 것인가? 등의 문제가 제기된다.

정신과 실천의 측면에서 볼 때 그동안 언론인 전문성의 핵심은 최소한 영미권과

한국의 경우 객관보도였다(김경모 & 신의경, 2013; Schiller, 1979). 그러나 가치배제에 방점이 찍힌 객관보도를 기반으로 한 전문성은 뒤에서 자세히 살펴 보겠지만 탐사보도 언론인의 전문성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오히려 객관보도의 규범화가 탐사보도를 제약해 왔다. 객관보도에 대한 반성이 주창보도나 탐사보도, 공공보도와 같은 다양한 대안으로 나타났음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공공서비스라는 사회적 책임의 정신에서 탐사보도 언론인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오히려 한국의 경우 언론인의 소명의식 부족이 탐사보도의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남재일 & 오대영, 2018). 김연식(2008, 2014)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기자 보다는 PD들의 소명의식이 더 높는데, 이는 PD들의 주창자적 언론 실천과 연관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언론인의 이념과 가치, 소명의식 등은 탐사보도 언론인의 전문성 논의에서 주목받지 못했다.

탐사보도 전문 언론인으로 평가받는 사람들의 행적을 확인해 보면, 그들의 삶은 오히려 장인의 그것과 닮아 있다. 장인이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계속 원숙해져 가는 자신의 기능이다. 장인이 장인다우려면 기능은 계속 진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얻는 자부심은 기능과 노력에 대한 보상이고 보람이다. 이렇게 자기 일을 계속 이어가며 결실을 내리는 동기를 베퍼는 소명의식(Beruf)라고 불렀고, 소명의식은 장인의 대표적인 특징이다(Sennett, 2008/2010; Weber, 1919/2011). 20세기 중반 활동했던 사회학자 밀스(Mills, 1951)는 이상적인 장인의 특징으로 6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창조와 창조의 결과물 외에 다른 궁극적인 동기가 없다. 둘째, 일상의 일에서 세부적인 것들 자체가 의미로 다가온다. 셋째, 작업자는 일할 때의 자기 행동을 직접 통제할 수 있다. 넷째, 장인은 그의 일에서 스스로 배우며, 그런 수행을 통해서 스스로의 능력과 기술을 개발해 간다. 다섯째, 일과 놀이 또는 일과 문화의 구분이 없다. 여섯째, 그러한 장인의 삶의 방식이 그의 인생을 결정하고 생기를 불어넣는다(pp. 220-223).

이런 장인정신은 전통적으로 집합식 교육이 아닌 도제식 교육을 통한 체득의 과정을 거쳤다는 점에서(김한미, 2009), 한 가지 추가적으로 제기되는 쟁점은 탐사보도 전문성을 교육하고 쌓아가는 방법이다. 기존 언론인 전문성 논의에서는 훈련과 교육 프로그램, 즉 공식 교육 기관의 설립과 언론인에 대한 재교육이 방안으로 제시되어 왔다. 영국의 경우 대학에서의 언론 전공이 뉴스룸 문화에 보다 잘 적응하고 언론인 경력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는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있지만(Frith & Meech, 2007), 한국의 경우 언론 입문 전 또는 입문 후 언론 전공 여부는 전문직 인식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김연식, 2014). 효과 여부를 떠나 탐사보도 언론인의 전문성이 이런 집합식 교육을 통해 학습이 가능한지는 보다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장인의 기능이 수많은 실패와 성공 속에서 터득한 경험이라는 점에서(김재호, 2015), 머리가 아닌 몸이, 즉 신체의 모든 감각기관이 동원되어 체화된다는 점에서(조성실, 2013) 탐사보도 언론인의 전문성은 장인의 기능에 가깝고, 장인의 기능은 혼자 또는 도제식 교육을 통해 체득되었다.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프랑스의 꼬냑농의 경우 형식적으로는 집합식 교육이지만 내용적으로는 도제식 교육에 가깝다(유승호 & 이나라, 2015).

종합해 보면, 객관보도의 틀에서 벗어나 탐사보도 언론인의 전문성은 정신과 실천의 측면에서 새롭게 정립되어야 한다. 특히 탐사보도 언론인의 이념이나 가치 등 소명의식이 전문성에 고려되어 논의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전문성의 교육 내지 전수 방법 또한 보다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4) <뉴스타파>에 대한 논의들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뉴스타파>에 대한 약간의 선행연구들이 존재하고 있다. <뉴스타파>에 대한 연구들은 <뉴스타파>를 새로운 실험으로 평가하면서 언론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념이나 가치 등의 내면세계를 탐구함으로써 본 연구에 시사점을 주었다.

우선 김수지(2016)는 참여관찰과 심층면담을 통해 <뉴스타파> 취재팀이 저널리즘과 독립성 그리고 공정성이라는 세 가지 신념을 공유하고 있다고 분석했다(pp. 106-114). 연구에 따르면, <뉴스타파> 취재팀 개개인은 “주류 언론에 대한 비판의식”으로 “시니어와 주니어를 막론하고 한국 사회에서 언론이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의식을 공유”하고 있었다. 이곳에 종사하는 언론인들이 주류 언론사를 퇴직한 후 여타의 주류 언론사가 아닌 <뉴스타파>로 합류한 배경에 대해서는 첫째, 다른 주류 언론 역시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둘째, 주류 언론의 위계 서열 가운데 꼭대기에 위치했던 이들이 다른 언론사에 입사하는 것 자체가 부자연스럽다는 점, 셋째, “문제 있는 인사”로 평가받게 될 것에 대한 부담을 들었다(pp. 76-78). 또 권력의 핵심부를 바라보는 것과 권력에 의해 소외된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 사이에서 “<뉴스타파>의 시야가 여의도와 청와대로 국한될 위험”이 있다면서 정파성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는 것도 시사점이었다(p. 84). 다만 연구자가 <뉴스타파>가 개설한 하계 대학생 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형식을 빌어 연구를 수행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높은 수준의 개입이 아닌 중간 수준의 참여와 개입”이었고(p. 58), 참여관찰이 이루어진 기간도 4주에 그쳤다. 또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뤄진 면담에서도 <뉴스타파> 내에서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행태와는 동떨어진 당위적인 답변들이 많

다는 느낌을 받았다.

신(Shin, 2015) 역시 참여관찰과 심층면담을 통해 <뉴스타파>를 저널리즘의 전통적인 가치와 새롭게 등장하는 시민참여 가치가 충돌하고 협상해 나가는 공간으로 이해했다. 그는 연구에서 <뉴스타파> 구성원들의 진실 수호자라는 정체성이 뉴스의 선택과 생산에서는 ‘정파적 객관성(partisan objectivity)’으로 나타난다고 분석했다(p. 694). 즉 <뉴스타파>가 문제제기 한 이명박 정권의 토목사업과 제주 해군기지 건설, 정부 인권 침해와 노동 탄압 이슈 등은 보수 언론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은 이슈들이라는 것이다. 연구에 따르면 <뉴스타파> 취재팀은 자신들은 진보 성향의 정파와 결탁하지 않는다면, 비록 정파적으로 보일 수는 있지만 이는 한국 언론 환경에서 비롯되는 불가피한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내에서 참여관찰을 통해 탐사보도 조직이나 탐사보도 언론인을 이해해 보려는 시도는 간간이 있어 왔다. 김진영과 성민규(2016)는 울산 MBC가 최초로 정규 편성한 탐사보도 프로그램인 <돌직구40> 제작 과정을 참여관찰과 면담을 통해 분석해 탐사보도에서 객관성은 절대적인 규범이라기보다는 수용자들을 설득하고 납득시킬 수 있는 직업수행의 약호(code)로 기능한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제작자들은 사실성에만 그치는 일반 뉴스보다는 여러 측면의 주장과 입장을 공평하게 제시하고 반론까지 가능한 탐사보도 프로그램이 더 객관성을 담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PD들이 제작하는 탐사보도 프로그램을 참여관찰한 육서영과 윤석민(2013)은 구성작가들이 제작 과정에 전방위적으로 참여하며, 현장에 몰입된 PD들이 빠질 수 있는 사실 간과나 감정 몰입 등을 견제하는 내부 비판자 또는 견제자 역할을 함으로써 탐사보도의 질과 완성도에 기여한다고 분석했다.

<뉴스타파>뿐만 아니라 탐사보도 조직이나 탐사보도 언론인에 대한 참여관찰 연구는 수량적으로 많지 않았고, 참여관찰 기간도 1~2개 월에 그치는 등 탐사보도 언론인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제공하는 데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었다. 참여관찰 기간이 짧은 한계는 미디어 조직이나 수용자에 대한 국내 다른 연구들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다. 1995년 4대 지방선거 당시 <강원도민일보>의 뉴스 생산 과정에 대한 윤영철과 홍성구(1996)의 연구에서 참여관찰 기간은 1개 월이었고, <CNN>과 <KBS>, 그리고 <SBS>의 국제뉴스 선정 과정의 차이를 분석한 박천일(1995)의 연구에서 참여관찰 기간은 <CNN>은 5주, <KBS>와 <SBS>는 각각 5일이었다. PD들이 제작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이오현(2005, 2007)의 연구 역시 참여관찰 기간은 1.5개 월 정도였다. 짧은 현장연구 기간은 질적 연구의 전략적 목표인 발견과 통찰, 그리고 이해를 달성하는데 제약요인이 될 수 있지만(홍용희, 1998, p. 114), 참여관찰이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시도된 후부터 제기되어 왔던 문제였다(정재철, 1997). 1994년부터 2005년까지 학술지에 게재된 민속지학적 수용자 연구 논문 17편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 심층면담을 주요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었으며, 몇몇 연구는 부가적으로 제한된 참여관찰이나 편지 분석 등의 방법을 병행했다. 뿐만 아니라 공통된 문제로서 연구방법 선택의 근거나 타당성 그리고 연구 설계와 절차 등에 대한 설명이 미비했다(나미수, 2005).

탐사보도 생산에 시민참여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 김재영(2014)은 최근 여러 나라에서 시도되고 있는 클라우드소싱 취재 방법이 <뉴스타파>에 어떻게 도입됐으며, 그 실험의 성과와 한계는 무엇이었는지 분석한 바 있다. 박인규(2017)는 권력과 자본의 감시라는 저널리즘의 본령을 실천하려는 구성원들의 적극적 의지,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 재정적 독립, 자율성과 전문성을 중시하는 제작 문화가 <뉴스타파>를 비중 있는 탐사보도 매체로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남재일과 오대영(2018)의 연구는 <뉴스타파> 언론인을 포함해 국내에서 탐사보도 전문성을 인정받는 언론인 12명에 대한 심층면담을 통해 이들 언론인들이 한국 탐사보도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을 탐구했다. 주목되는 점은 한국 탐사보도의 장애 요인 가운데 하나로 언론인들의 소명의식 부족이 지적됐다는 점이다. 장애요인으로 지적된 다섯 가지 가운데 정치 권력의 통제와 압력, 광고주 등 자본 권력의 압력, 조직 내부의 상업성 압력, 취재원의 압력과 소송의 부담은 이미 탐사보도의 장애요인으로 주지되어 온 것들이지만 소명의식이 부족이 지적된 것은 본 연구에 큰 시사점을 주었다. 면담에 참여한 언론인들은 “한국 탐사기자들의 소명의식이 약하며, 그 원인은 언론 전반의 철학이 빈곤하고 경험적 축적이 일천하기 때문”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그 외 국내 탐사보도 연구들은 세 가지 흐름으로 압축할 수 있다. 첫째, 탐사보도 사례 연구(심재철 & 이경숙, 1999; 차재영 & 이영남, 2005), 둘째, 텍스트 분석을 통한 탐사보도 특성 연구(강형철, 2007; 김민하, 2008; 이민정 & 이건호, 2014), 셋째, 탐사보도 생산자에 대한 미디어 통제 연구이다(김상균 & 한희정, 2014; 박인규, 2010, 2017).

심재철과 이경숙(1999)은 탐사보도를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여론을 환기하며, 국민의 공분을 일으킬 수 있는 폭로저널리즘”으로 정의하며 미국의 머크레이커에서 뿌리를 찾고 있다. 이들은 한국에서 탐사보도의 대표적 사례로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보도를 제시했다. 성공적인 탐사보도로 보기에선 미흡한 측면이 있지만 폭로 대상으로 정치 권력에 순종하며 사건을 은폐, 조작한 검찰과 경찰이라는 악당이 확실했고, 서울대학교 재학 중이던 박종철은 당시 월급 20만 원을 받는 근로자의 아들이

자 5공화국 독재정권의 희생자로 등장하는 등 시민의 분노를 자극하기 위한 요소들이 잘 갖추어져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차재영과 이영남(2005)은 1999년 <AP통신>의 노근리 사건 보도가 세계적인 반향을 불러올 수 있었던 것은 피해자는 물론 가해자까지 양측 모두에서 취재원이 다수 등장함으로써 취재원의 다양성이 확보됐고, 기자가 직접 비밀 해제된 다수의 문서를 새로 발굴해 학살이 있었음을 뒷받침했으며, 취재 과정을 공개함으로써 보도의 투명성을 강화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반면에 한국 언론들은 취재원의 다양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피해자 측 취재원에만 의존함으로써 호소력을 갖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진실을 밝혀내는 데도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강형철(2007)은 한국에서 탐사보도는 PD들이 선도했다면서 연구의 초점을 PD들이 제작하는 TV 탐사보도 프로그램에 맞추었다. 그는 지상파 3사 탐사보도 프로그램(<KBS> 추적60분, <MBC> PD수첩,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이 방송한 10년 동안의 보도 1,336건을 내용분석해 주제와 등장 인물의 편향성 등에 대한 분석을 시도했다. 김민하(2008)는 한국 신문의 탐사보도가 객관보도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있으며 공공저널리즘과는 어느 정도 유사한 지를 검토한 뒤, 탐사보도는 언론인의 주관적 주장이나 관점의 비대칭적 제시와 같이 객관보도에서 벗어나 사회문제 발굴이나 문제제기에는 적극적이지만, 대안 제시에는 소극적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민정과 이진호(2014)도 기자 스스로 발굴한 아이디어를 활용한 독창성과 문제제기와 함께 대안을 제시하는 심층성 차원에서 한국 신문의 탐사보도 특성을 규명하고자 했다.

한국 언론에서 2천년대 초 전성기를 구가하던 방송 탐사보도가 어떻게 권력의 압력으로 위축되어 갔는지 규명하는 연구들은 탐사보도의 정치적 독립성을 강조하고 있다. 박인규(2010)는 이명박 정권에서 임명된 <KBS> 경영진이 편성과 인사를 수단으로 직접 그리고 간부를 통해 시사프로그램의 편성과 제작 과정에 개입했고, 그 결과 <KBS>의 시사프로그램의 기능이 크게 약화된 과정을 규명하고자 했다. 2010년 3월 발생한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해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특정 시점 이후부터 관련한 탐사보도 프로그램이 갑자기 중단된 이유를 분석한 김상균과 한희정(2014)의 연구는 정치적 압력이 어떻게 제작자의 자기 검열로 이어지면서 탐사보도 의지를 약화시키는지 보여주었다.

탐사보도는 언론인이 진실이라고 믿는 것을 가장 잘 표현하면서 동시에 호소력이 있고, 깊이 있고, 긴장감이 있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설진아(2009)는 탐사보도 글쓰기가 탄탄한 논증적 구조를 갖춰야 수용자에게 호소력을 가진다고 제시하였다. 미국에서는 탐사보도 글쓰기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탐사보도 글쓰기는 이야기(story telling)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객관보도의 5W 기사쓰기와는 서로 어

울리지 않는 측면이 있다. 폴리처상 수상자인 재키 바나스진스키(Jacqui Banaszynski)는 2014년 미국 탐사기자·편집인협회(IRE, Investigative Reporters and Editors) 총회에서 “두괄식 기사는 1970~80년대 방식”이라며 디지털 시대에는 사람마다 중요한 정보가 다르게 적용된다고 말했다. 그녀 외에도 총회에서 글쓰기에 대해 강연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지금은 기사를 소설처럼 쓴다. 소설 쓰는 방식을 적극 활용하라”는 주장을 내놓았다(조수경, 2014). IRE는 한발 더 나아가 “사실의 문학”을 쓰자고 말한다. 이는 “취재기자와 편집인들이 진실에 대해 말하면서도 마치 아주 치밀한 소설처럼 독자들을 끌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탐사보도는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교육시키는 구조에서 벗어나 그들과 얘기하고 그들을 자극하고 끌어 들이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IRE & Weinberg, 1996/2000, pp. 496-497). 이러한 추세에 연장선상에서 객관보도에 대한 반성으로 1960년대 시작된 뉴저널리즘(New Journalism)은 실험적인 양식과 문체로 미국 사회를 조명하면서 저널리즘의 영역을 확장 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이충환, 2013, p. 233).

2. 정파보도와 탐사보도 관계

1) 미국에서 정파보도와 탐사보도

탐사보도 언론인들은 탐사보도 자체를 위해서, 탐사보도를 잘 해내려는 욕망 속에서 진실을 찾아 다니고 사회를 개혁하고자 노력하였다. 이 과정에서 그들이 추구했던 이념과 가치는 탐사보도의 자양분이었다. 그러나 언론인이 특정 이념이나 가치에 함몰되어 특정 정파와 유착 내지 적대하면서, 이를 위해 언론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정파보도는 언론인이 지켜야 할 직업윤리에 대한 배신이며, 오히려 탐사보도를 제약하고 있다.

미국 언론 역사에서는 객관보도가 언론 규범으로 자리잡기 이전에는 언론과 정당이 강력한 유착을 통해 언론이 정당의 선전선동을 담당하는 정파보도가 바람직한 언론상이었다. 연방주의와 공화주의의 정쟁 속에서 신문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됐고 정부와 유력 인사들의 비밀과 스캔들을 폭로하는 보도는 대부분 반대파를 공격하는 수단이었다(Aucoin, 2005/2007, pp. 32-33). 미국 독립 전쟁 이전 및 전쟁 기간 동안 독립 세력은 30여개나 되는 식민지 신문들을 이용해 영국 국왕의 박해를 폭로하며 식민 통치에 대한 반대 여론을 확산시켰다. 정착민들이 열렬한 신문 독자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효과적인 전략이었다. 당시 사실과 루머, 과장법이 혼합된 보도 방식은 독립

후에도 계속됐고 정파보도로 이어졌다.

1795년 〈필라델피아 오로라 앤 제네럴 어드바이저〉(The Philadelphia Aurora and General Adviser)에 실린 “조용한 관찰자(A Calm Observer)” 보도와 신문의 발행인 배치(Benjamin Franklin Bache)는 여러 면에서 정파보도의 전형이었다 (Bache, 1795). 배치가 신문을 창간한 1790년대는 미국 정치는 조지 워싱턴 대통령을 중심을 한 연방주의와 반대파인 공화주의가 대립하고 있었다. 1795년에 들어서면서 공화주의 진영은 워싱턴에 대한 탄핵을 주장하기 시작했는데 탄핵 주장의 절정이 배치의 “조용한 관찰자(A Calm Observer)” 보도였다. 공화주의자들은 이전부터 워싱턴이 사치스럽다거나 그의 연봉이 너무 높다는 등의 이유로 워싱턴을 비난해 왔다. 그러나 배치는 그런 차원을 넘어 보도에서 워싱턴이 법으로 정해진 것보다 많은 연봉을 가져갔으며 이는 헌법과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위선자라고 비난했다. 이 보도 후 배치는 공개적으로 워싱턴에 대한 탄핵을 주장했다. 워싱턴 측은 반격에 나섰다. 재무부의 예산통제관을 통해 해명하려 했지만 일이 더 어렵게 되자 해밀턴(Alexander Hamilton)이 직접 배치의 신문에 4일 동안 연속으로 배치의 주장을 반박하는 반론을 게재했고 워싱턴의 연봉을 둘러싼 논쟁은 정리됐다(Daniel, 2009, pp. 140-143).

주목되는 점은 신문 창간 당시 배치가 내세운 발행 원칙이다. 창간호에서 그는 “신문은 정치적인 토론이나 다른 어떤 주제에 대해서도 항상 열려 있을 것”이며 이런 관점에 따라 “매우 철저한 불편부당함이 지켜질 것”라고 밝혔다. 또 “사람들이 깨우치게 된다면 국가는 계속되고 번창할 것”이라면서 가능한 한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정보를 신설했지만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단순한 재밌거리의 기사는 신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구독료는 일년에 5달러로 당시 평균 노동자의 5일치 임금의 네 배였다. 일주일에 6일 신문을 발행했고, 발행 부수는 첫 해 4백부에서 8년만에 천 7백부로 늘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배치의 신문은 점점 정파적인 색채가 강해지게 되었다. 신문이 창간될 당시 미국에는 백여 개가 넘는 신문이 등장했지만 대부분 연방주의를 지지하는 쪽이었다. 연방주의와 공화주의 지지 비율이 2대 1정도인 상황에서 점점 공화주의 신문들이 몰락했고 “조용한 관찰자” 보도가 실릴 즈음 배치의 신문은 공화주의를 지지하는 대표 신문이 돼 있었다(Smith, 1990, pp. 100-109).

배치는 정부의 탄압에도 폭로를 멈추지 않았고 그 이면에는 공화주의에 대한 강력한 신념이 자리 잡고 있었다. 배치는 3년 후인 1798년에도 정부의 비밀문서를 폭로하면서 워싱턴 행정부와 대립했다. 그는 프랑스 정부가 미국 정부에 평화협상을

요청한 외무장관 명의의 비밀 편지를 입수해 공개했다. 그러면서 워싱턴이 전쟁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 의회에 이를 일주일 이상 알리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당시 미국은 프랑스와 전쟁 일촉즉발 상황이었다. 즉각 연방주의자들이 반격에 나섰다. 연방주의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의회가 재류 외국인 및 선동법(Alien and Sedition Act)을 제정한 것이다. 이 법에 따라 배치는 체포돼 기소됐다. 그는 재판을 받기 전 보석 상태에서 황열병으로 29살의 나이에 사망하는데 사망하기 전까지도 신문 발간을 멈추지 않았다.

독립언론, 자유언론에 대한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당시 정파보도의 폭로 방식은 수십 년 후 미국 언론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탐사보도를 암시하고 있었지만 강력한 정파보도 관행은 오히려 독립성을 핵심으로 하는 탐사보도의 탄생을 어떤 식으로든 지연시켰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센서스 자료에 의하면 1850년경만 해도 미국 신문의 80% 정도가 정파보도의 특성을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었다(채백, 2011, p. 364). 특히 신문은 매우 정파적이 되었고, 정당의 무기로 창간되는 경우가 많았다(김영옥, 2011).

스티븐스(Stephens)는 〈뉴욕 헤럴드〉(New York Herald)의 베넷(James Gordon Bennett Sr.)을 미국 최초의 탐사보도 기자로 뽑는다. 1836년 4월 뉴욕에서 발생한 23살 엘렌 주이트(Ellen Jewett)라는 이름의 창녀가 피살된 사건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베넷이 보여준 취재와 보도가 탐사보도를 개척했기 때문이다. 당시 언론인들은 증언이 공식적인 기록에서 나온 것이 아니면 이를 직접 인용한 보도를 할 수 없었다. 언론인들이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말을 거는 것도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취재하는 것도 불가능했다. 그러나 베넷은 살인 사건을 취재하면서 이런 장벽을 깨뜨렸고 보도 후 〈뉴욕 헤럴드〉의 판매 부수가 세 배나 급증할 정도로 수용자들은 새로운 보도 방식에 열렬히 반응했다. 베넷의 성공으로 언론인의 임무는 받아쓰는 사람에서 심문자로 또는 수사관으로 확대됐다. 언론인들은 이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캐내야 하는 상황에 처했고 그만큼 그들 사이의 경쟁은 심해졌다(Stephens, 2007/2010, pp. 352-354). 그러나 정파보도가 건재한 상황에서 탐사보도가 제자리를 잡았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정치적, 시대적 논쟁에 대한 중요성이 약해진 상황에서 남북전쟁 이후 미국 사회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변화가 나타났는데 이는 탐사보도의 태동과 성장에 기반이 되었다. 우선 전쟁 이후 신문이나 잡지 산업이 대호황기에 접어들었다. 1870년에서 1900년 사이에 일간지의 수는 400개에서 2,326개로 급증했다. 일간 총 발행 부수는 350만 부에서 1,500만부로, 연간 광고 수입은 1,600만 달러에서

9,500만 달러로 증가했다(Ward, 2004/2007, p. 262). 언론인의 수가 획기적으로 증가하면서 노동의 분업을 바탕으로 현대적 개념의 편집국이 생겨났다. 1884년에 편집국에 처음 도입된 타자기는 생산성을 향상시켰고 1890년에 보급된 전화기는 편집인에게 전화로 기사를 불러주는 분업을 추가시켰다(Ward, 2004/2007, p. 269). 19세기 후반 매체의 급증은 경쟁의 심화로 이어졌고 산업화 속에서 폭로 보도는 판매부수를 늘리기 위한 매력적인 전략이었다. 또 다른 변화는 연방정부는 물론 지방정부까지 파고든 부정부패로 그 수준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전쟁과 주기적인 경제불황, 이민자 문제, 통신과 교통의 발달로 인한 도시의 확장 등 급격한 산업화 속에서 사회는 동요했다. 기업이 거대화 되면서 독점이 심화됐고, 현대식 공장이 들어서면서 노동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노동착취가 성행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은 정치인이나 공무원을 뇌물로 매수했다. 대기업과 노동, 정부가 각각 또는 서로 얽히면서 미국사회는 광범위한 갈등과 대립 속으로 빠져들었다(Fitzpatrick, 1994, pp. 3-8). 급격한 산업화에 따른 사회적 동요 속에 부정부패를 비판하며 개혁을 요구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폭로 보도의 확산과 개혁에 대한 요구들이 합쳐지는 환경 속에서 19세기 후반 탐사보도는 미국 언론에서 확고한 위치를 잡게 되었다(Shapiro, 2003, p. viii). 그러나 탐사보도의 기세는 오래 가지 못했다. 여전히 대세였던 정파보도와 황색보도에 대한 반성으로 새롭게 등장한 객관보도의 위력 때문이었다.

2) 한국에서 정파보도와 탐사보도

한국 언론의 정파보도 역시 한국 탐사보도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다. 정파보도가 한국 언론의 고질적인 병폐라는 점에 이견을 제기하는 학자들은 없으며, 그 심각성에 있어서는 진보와 보수 언론 사이 질적인 차이나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상황이다(박승관, 2017; 박승관 & 장경섭, 2001a, 2001b). 한국 언론인이 정파보도를 관행화하는 배경에는 한국 정치 현실에 뿌리내리고, 언론인들의 의식구조 속에 각인된 보수-진보의 이분법적인 신념이 있다. 언론과 언론인들은 특정 정파와 유착 내지 적대하면서 자신의 각인된 정치 이념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언론을 활용해 왔으며, 이것을 윤리적으로 정당한 행위로 인식하는 경향이 퍼져 있다. 정당하다고 믿는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정치세력을 지원하고 상대 정파를 공격하는 것이 언론의 책임이라는 이념윤리적 언론관이 아직 한국 언론에서 극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박승관(2017)은 한국 언론인들은 각자의 이념에 스스로 도덕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그 신념의 관철을 위해서 언

론이라는 공적 자원을 수단시하고 이러한 일을 언론인 본연의 합당한 임무로 당연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탐구해 보아야 한다고 지적한다(pp. 8-14).

1987년 민주화 운동 이후 한국 언론의 정파보도를 노태우, 김영삼 정권과 김대중, 노무현 정권으로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언론 시장을 과점했던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보수 언론은 여론 형성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면서 특정 정파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반대 정파를 공격했고, 반대로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 등 진보 언론은 이른바 ‘조중동’ 연합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에서 역시 특정 정파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다(강명구, 2005). 노태우, 김영삼 정권 시기 보수 언론은 정권의 언론 개혁 의지를 스스로 저지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했고 기득권을 유지했다(강준만, 2000). 그러나 1998년 김대중 정권이 등장하자 보수 언론은 구정권을 택했고 진보 언론은 신정권을 택했다. 이전 시기와 다른 점은 정파적 양극화 현상이 시작되면서 언론이 독자적으로 정파보도를 강화해 나갔다는 점이다.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에 이어 정부 소유의 <서울신문>이 김대중 정권과 노선을 같이하면서 ‘조중동’에 대립하는 ‘한경서’ 진영을 형성했고, 김대중 정권의 언론사 세무조사를 둘러싸고 벌어진 정권과 언론, 그리고 언론 내 대결 상황은 언론 전쟁으로 규정될 정도였다(강명구, 2004). 최영재(2005)의 신문 사설 연구에 따르면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의 경우 노태우, 김영삼 정권과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기 정권에 대한 태도는 확연히 달라졌다. 2003년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자 정파적 양극화는 더욱 격화됐고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노무현은 대선 이전부터 보수 언론에 대해 노골적인 반감을 표현했다(강준만, 2007, p. 667), 대선 기간에는 보수 언론은 노무현을, 진보 언론은 이회창을 적극적으로 비판했고(최진호 & 한동섭, 2012), 보수 언론은 대선 이후에는 5년 내내 노무현 정권을 공격했다(박정의, 2006).

극심한 정파보도는 한국 사회에 “아노미적 소통 위기”를 초래했고(양승목, 2011, p. vi), 한국 언론이 직면한 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이재경, 2004; 이준웅 & 최영재, 2005; 최장집, 2005). 학자들뿐만 아니라 수용자들도 언론이 자신들보다 더 정파적이라며 언론을 신뢰하지 못하는 1번 원인으로 정파보도를 지목하고 있을 정도이다(김영옥, 2009). 더욱 심각한 것은 정파적 양극화까지 중첩돼 있다는 점이다. 수용자 이념의 정규분포를 반영한 언론의 정규분포는 사라진 지 오래이며 양극단을 중심으로 특정 정파와 유착된 정파적 진영 언론 만이 존재할 뿐이다. 진영으로 갈라선 언론은 스스로의 정파적 이익을 적극적으로 도모하는 정치행위자로 변모했고, 공공 이익 감시자에서 사적 이익 추구자로 변신하면서 공론장의 기능을 방기했다(박승관, 2011, p. 134). 이런 구조는 이명박 정권을 거치면서 더욱 고착화되었고(김균, 이정훈, & 박영흠, 2012), 정치와 언론, 여론 모두 누구라 할 것 없이 균열의 늪에 빠져 분열

의 악순환 고리를 되풀이하고 있다(최영재, 2011).

우선 정파보도는 유착이나 적대의 상태로 탐사보도에서 절대적인 조건인 독립성을 근본적으로 제약한다. 탐사보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언론사가 외부 압력에 동요되지 않아야 하고 언론사 내에서는 언론인이 데스크의 정당한 편집권을 넘어서 월권 행위에 저항할 수 있어야 한다. 탐사보도에는 성역이 없어야 하지만 정파보도는 정치 권력의 반을 동맹으로 만들고, 나머지 반은 적으로 만들었다. 언론이 노골적으로 정파 보도를 표출하기 시작한 후 자신들이 유착한 정파에 대한 탐사보도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나아가 정파적 양극화는 정파보도로 포기하고 남은 나머지 반쪽에 대해서도 탐사 보도를 제약한다. 정파적 양극화가 탐사보도에 치명적인 이유는 양극화가 언론사들 간의 담합의 성격을 띠면서 진영으로 뭉친 그들 내부의 경쟁을 제약해 경쟁 내지 생존 전략으로서 탐사보도의 필요성을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담합은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사업들 간의 공모”로 담합을 통해 과점 기업들은 독점 기업과 같은 이익을 누리게 된다. 때문에 담합은 법적 규제를 받게 된다(권수진, 신영수, 김호기, & 최문숙, 2011; 김남수, 2007; 장연화 & 백경희, 2013). 담합의 또 다른 형식으로는 신사협정(Gentlemen's agreement)이 있다. 신사협정은 당사자 사이에 자유스러운 의사로서 약속의 성립과 이행을 추구하는 합의 형식으로, 합의가 이행되지 않더라도 어떠한 법적 강제도 제기되지 않는다(최신섭, 2003).

한국 언론의 정파적 양극화는 담합 또는 최소한 신사협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일반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 때 원자재가 필요하듯 뉴스에서 원자재는 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이다. 정파적 양극화는 언론인들이 무리 지어 자신들이 지지하는 정파와 정보 제공과 처리에 대한 조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를 이루었을 가능성을 뜻한다. 유착한 정파에 대한 맹목적 지지와 반대 정파에 대한 적대적 공격이 그것이다. 그들 사이 합의를 규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상품의 종류나 규격을 통해 유추할 수 있다. 공장에서 제품이 상품이라면 언론에서는 뉴스가 상품이다. ‘대북 지원과 북한 핵’, ‘종합부동산세 폐지’, ‘호주제 폐지’ 이슈에 대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한국일보>의 보도를 분석한 최현주(2010)에 따르면 ‘대북 지원’에서는 동아, 중앙, 조선이 보수, 한국과 경향이 중도, 한겨레가 진보로 나타났다. 경제 차원인 ‘종부세 폐지’에서는 동아, 중앙, 조선이 보수, 한국이 중도, 경향과 한겨레가 진보로 나타났다. 사회, 문화 차원인 ‘호주제 폐지’에서는 조선이 중도로, 나머지 분석된 신문들은 모두 진보로 나타났다. 대형 이슈일 경우 동질성 현상은 더욱 뚜렷해진다. 예를 들어 2008년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촛불집회 기간 동안 ‘조중동’과 ‘한경서’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보도를 비교한 분석에 따르면, 두 진영의

언론들은 기사 수, 제목, 정보원, 주관적 태도 등에서 확연하게 동질성을 보였다(김주완, 2009).

정파적 양극화가 탐사보도에 얼마나 치명적인지는 신문의 탐사보도 역사를 추적해 보면 더욱 뚜렷해진다. 2천 년대 초반 신문사들은 기세 좋게 경쟁적으로 탐사보도에 뛰어들었지만 기세는 10년을 넘기지 못했다. 특별기획취재팀을 중심으로 시작된 탐사보도 기풍이 신문사 전체로 확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며 탐사보도 전통을 정착시킨 세계일보(박현수, 2005, pp. 24-26; 세계일보사사편찬위원회, 2009, p. 422) 외에는 대부분의 신문사들은 탐사보도를 조직 내 전통이나 브랜드로 정착시키지 못했다. 특히 탐사보도의 유행과 퇴조의 기울기가 매우 가팔랐다. 이는 탐사보도의 토대가 그만큼 취약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또는 경쟁 전략으로 시작했지만 그 의지나 전략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만든 이유가 있었다는 것으로 연구자는 그 이유를 정파적 양극화로 추정한다.

신문사들은 2천 년대에 들어서자 경쟁적으로 탐사보도 부서를 신설했다. 신문에 서는 <중앙일보>와 <세계일보>가 앞장섰다. 당시는 탐사보도의 유행으로 불릴 정도였는데, 2007년 발족한 한국탐사언론인회에 참여 의사를 밝혔던 언론사는 당시 <경향신문>, <국민일보>, <내일신문>, <동아일보>, <문화일보>, <부산일보>, <세계일보>, <전자신문>,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KBS>, <MBC>, <SBS> 등 13곳으로 언론인만 백여 명이었다(한국탐사언론인회, 2007).

신문사들이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등 탐사보도를 강화하는 이유는 당시 사고(社告) 등을 통해 볼 때 뉴스의 질을 통한 경쟁력과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겠다는 측면이 컸다. <한겨레신문>의 경우 탐사보도 전담부서를 공식 출범시키기 전인 2005년 5월 16일 당시 편집국장은 창간 17돌을 맞아 독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신문의 질을 높이기” 위해 탐사보도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신문의 질을 높이는 게 중요하지요. 이를 위해 탐사보도, 기획보도를 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로 ‘부장급 현장기자’를 두었습니다. 이분들이 오랜 취재경험을 가지고 현장에서 깊이 있는 기사를 내놓을 겁니다. 각 팀들이 유연하게 움직이면서 탐사보도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겨레만이 보여줄 수 있는 기획기사가 속속 나올 것입니다(김종옥, 2015).

<경향신문>도 탐사보도 전담부서 출범 전인 2004년 9월 13일 사고 형식으로 신문 1면에 “질 높은 심층, 탐사보도”를 표명했다.

질 높은 심층. 탐사보도: 기자들이 ‘발과 머리’로 뛰어 깊이 있는 기사를 발굴해낼 것입니다. 예산의 전모를 날낱이 파헤치는 ‘나라살림 이대론 안 된다’를 비롯한 각종 심층분석기사와 질 높은 기획물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한국 언론의 취약점으로 지적돼온 ‘발표저널리즘’의 한계가 점차 극복될 것으로 기대합니다(경향신문, 2004).

〈조선일보〉는 2003년 1월 6일 사고에서 “그저 정보를 전하는 데 그치지 않고 땀내 물씬한 현장에 뛰어들겠다”고 밝혔다(조선일보, 2003a). 1월 26일에도 다시 사고를 통해 경제 섹션에서 “경제 현상의 이면을 파헤치는 탐사보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자가 한국인 삶의 현장에 직접 뛰어들어 체험하는 르포를 신설합니다. 그저 제3자의 관찰기가 아니라, 특정 생활인들과 똑같이 겪고 체감한 것을 ‘1인칭형’으로 기록해 나가는 새로운 시도입니다. 독자들은 피상적으로 알고 있었던 특정 현장의 진실에 보다 생생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조선일보, 2003b).

〈동아일보〉 역시 2000년 5월 21일 1면 사고를 통해 독립 부서는 아니지만 “기존의 부나 팀 체제로 손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의 뉴스거리를 구석구석 발굴해 내기 위해 기획취재팀을 운영”한다고 공개했다.

기획취재팀: 시대 흐름에 따라 급격히 재조합되고 있는 우리 사회 각 영역의 욕구와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한발 앞서 독자들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심층탐사보도 기능을 우선시하고 새로운 사회적 트렌드를 발굴해 보도하겠습니다(동아일보, 2000).

이규연(2006)은 당시 상황을 탐사보도의 “무난한 출항”으로 판단하면서 그 배경으로 뉴스 차별화 전략을 든다. 경쟁사나 다른 매체와 경쟁하기 위해 또는 추락하는 구독률을 만회하기 위해 뭔가 필요했는데 그 대안이 탐사보도였다는 것이다. 당시 탐사보도가 만개하면서 언론인에게 수여되는 각종 언론상을 탐사보도 언론인들이 받는 경우가 많아지기도 했다(황호출, 2003).

그러나 막 꽃을 피웠던 탐사보도는 곧바로 시들해졌다. 신문사들은 탐사보도 전담부서를 째게는 몇 개월 길게는 몇 년 운용하다가 2천 년대 후반 들어 폐지하거나

규모를 축소시켰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상설 조직이 아닌 TF팀 형식으로 바꿨다. 물론 탐사보도 전담 부서가 없어졌다고 탐사보도가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일반 취재 부서를 중심으로 간간이 이뤄지는 수준으로 방식도 전통적인 심층 보도 방식으로 회귀했다. <중앙일보>는 1998년 7월 국내 최초로 기획취재팀이라는 이름으로 탐사보도팀을 신설해 출입처 위주에서 탈피했다. 당시 기획취재팀에는 많게는 기자가 24명까지 있었지만 2001년 증면 등의 이유로 해체됐다. 2004년 12월 팀원 8명으로 구성된 탐사보도팀이 부활됐지만 다시 2년 만인 2006년 12월 해체됐다. <세계일보>는 2001년 1월 팀장 포함해 기자 7명으로 이뤄진 특별기획취재팀을 만들었는데 특징은 많은 기자들이 탐사보도에 대한 경험을 쌓기 위해 평균 6개월 마다 구성원들을 교체한다는 점이었다. 2010년 현재 적게는 4명, 많게는 7명까지 유동적으로 운영되면서 장기적으로 정착해온 모델이다. <조선일보>는 2004년 4월 4명으로 탐사보도팀을 출범시켰으나 1년만에 해체했다. <경향신문>은 2005년 3월 기획취재부가 3명으로 출범했으나 2006년부터는 독립 전담부서 형태를 없애고 대신 편집국장 아래에 TF팀 형식으로 운영했다. <국민일보>도 중장기 지면 개선 TF팀에서 탐사보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와 2005년 10월 6명으로 구성된 탐사기획팀을 출범시켰지만 2009년 해체시켰다. <한겨레신문>은 2006년 2월 편집국 조직 개편에서 3명으로 구성된 탐사보도팀을 신설했으나 10개월만에 해체했다. <서울신문>의 경우는 탐사보도팀 신설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보도국장이 취임하면서 2006년 12월 기획탐사부를 5명으로 꾸렸지만 인원이 3명으로 축소돼 운영되다 편집국장이 바뀌면서 2008년 해체됐다(정서린, 2010).

탐사보도 전담 조직이 생기고 없어진 시기가 김대중, 노무현 정권 기간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파보도와 함께 정파적 양극화가 격화되는 시기로 당시 보수 언론은 정권과 전쟁을 하고 있었다. 언론전쟁으로 불리며 정파적 양극화가 구조화되는 흐름과 신문사의 탐사보도 전담부서들이 해체되거나 축소되는 흐름은 반대 방향으로 거의 일치하고 있다. 상품으로서의 뉴스는 이중적 시장을 가지고 있다. 수용자에게 좋은 품질의 기사를 생산해서 파는 시장과 이렇게 얻은 독자의 관심을 광고주에게 파는 시장이다. 언론 시장의 선순환 구조는 독자에게 필요하고 유용한 뉴스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된다. 19세기 말 20세기 초 미국에서 탐사보도가 황금기를 누렸던 것도 당시 신문이나 잡지들이 탐사보도를 경쟁 전략으로 이용해 수익 창출에 성공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정파적 양극화 아래에서는 이런 선순환 모델이 통하지 않았다. 정파적으로 뭉치며 담합을 형성한 언론인들에게 탐사보도는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았다.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고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탐사보도를

포기하고 그들은 다른 경쟁 전략을 찾았다.

당시 정파적 신문들이 선택한 경쟁 전략은 보급 전쟁과 증면 경쟁이었다. 신문사들은 수용자를 늘리기 위해 말그대로 전쟁을 벌였고, 판촉 경쟁으로 보급소 직원이 살해되는 사건까지 일어났다. 신문사들은 위성방송 안테나나 안마기, 진공청소기, 자전거 등 다양한 경품을 뿌리면서 전쟁에 나섰다. 또 하나 전략은 증면이었다. <중앙일보>가 48면으로 지면을 늘리고 뉴스와 경제, 스포츠 등 3개 섹션으로 지면을 구성하자 다른 신문들도 적극적으로 증면 경쟁에 돌입했다(우병동, 1994). 이런 전략 속에서 뉴스의 질이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겠다는 전략은 후순위일 수밖에 없다. 보급 전쟁은 상품의 질이 아닌 고객 서비스 차원의 차별화 전략이다. 갑작스러운 증면은 언론인이 출고해야 할 기사의 수가 갑자기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럴 경우 기사의 질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탐사보도는 때로는 여러 명의 기자들이 팀으로 움직여야 하며,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보도이다. 때문에 증면 경쟁은 탐사보도와 상충될 수밖에 없다.

결국 신문의 경우 뉴스의 질을 통한 경쟁이나 사회적 책무 차원에서 탐사보도를 추진했지만 정파보도의 강화는 탐사보도를 밀고 갈 의지를 그만큼 약화시켰으며 정파적 양극화는 탐사보도 퇴조의 결정적인 이유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한국 언론에서 정파보도와 정파적 양극화가 해소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탐사보도는 계속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다.

3. 객관보도와 탐사보도 관계

1) 객관보도의 확립 과정

객관보도(objective journalism)는 객관보도 이전 단계에서 미국 언론을 지배하였던 정파보도와 황색보도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모색, 정착되었다(박승관, 2017). 본 연구가 객관보도의 역사를 검토한 것은 20세기 초 객관보도가 처음 확립되는 과정에서 논의의 방점이 사실과 가치의 구분 속에서 사실에 대한 존중과 과학적 엄밀성 추구가 아닌 언론인 스스로의 가치 배제에 쫓히면서, 객관보도와 탐사보도가 충돌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정파보도에 대한 반성이 언론인의 정파성을 차단 내지 극복하는 차원이 아닌 언론인의 이념이나 가치를 아예 배제하라는 쪽으로 흐르면서 당시의 객관보도가 탐사보도와 충돌하거나 또는 탐사보도를 위축시켰을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충돌 또는 위축은 그동안 간과되어 왔는데, 예상보다 심각하게 탐사보도

를 제약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실에 대한 존중과 과학적 엄밀성을 추구하는 객관보도는 탐사보도와 수렴할 수 있지만 가치 배제, 즉 가치에 대한 불신과 사실에 대한 맹신을 추구하는 객관보도는 탐사보도와 상충한다는 것이 연구자의 판단이다. 객관보도의 사실에 대한 존중과 과학적 엄밀성은 탐사보도에도 가장 중요한 직업 윤리이기 때문이다.

미국 탐사보도 역사에서 지금까지의 탐사보도 관련 연구들로는 잘 설명되지 않는 시기가 있다. 1903년 <맥클루어 매거진>(McClure's Magazine)에 실린 3건의 탐사보도를 중심으로 황금기를 구가하던 탐사보도가 갑자기 퇴조하기 시작해 1950년대까지 암흑기를 맞았는데 그 이유가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고 있다. 탐사보도는 감소했고, 언론인들은 탐사보도를 떠나거나 포기했고, 탐사보도에 주력하던 신문이나 잡지들은 매체 성격을 바꿨다. <맥클루어 매거진>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3인방도 1906년 매거진을 떠났다. 연구자는 이 시기 객관보도의 확립 과정을 주목한다. 신문이나 잡지 등에서 언론을 주도했던 탐사보도를 일시에 잠재울 수 있는 강력한 대체 논리로 20세기 초에 미국에서 등장한 객관보도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미국 언론은 192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 객관보도의 영향력에 지배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반면, 보도에서 의견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유럽 언론에서는 객관보도는 인기를 얻지 못했다. 베넷(Bennett, 2002/2009)은 객관보도로 이어지는 모든 관례들은 19세기부터 확립되어 왔으며, 20세기에 등장한 객관보도는 언론직을 전문직으로 미화함으로써 고학력, 중산층 수용자들에게 호소하는 수사로서 기능해 왔다고 말한다(p. 404). 워드(Ward, 2004/2007)에 따르면 객관보도는 세 가지 요소를 핵심으로 확립됐다. 독립성과 사실성, 그리고 전문직주의로, 어떤 정당이나 정파에 대해서도 자유롭고 독립적인 대변인으로서의 독립성, 수동적 관찰자의 사실적 진술로서의 사실성, 그리고 공평하게 글을 쓰는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로서의 전문직주의가 핵심이다.

우선 1830년대를 기점으로 대중지의 등장과 신문의 사업화 속에 신문의 재원 중심이 정당 보조금에서 시장에서 조달한 광고로 이동하면서 상대적으로 독립성은 이루어졌다. 이 시기 이런 변화가 가능했던 데는 기술 발전이나 문맹률 감소 등도 기여했지만 주요 동력은 1830년대부터 도시에서 형성되기 시작한 중산층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시장이었다. 당시 대중지들이 보였던 특징들은 새로운 시장의 요구와 관련이 있었다(Schudson, 1978, p. 55).

이 즈음 매체들이 급증하면서 신문들은 본격적인 경쟁에 들어섰고 주요 경쟁 전략으로 채택된 것이 추문 폭로였다. 1880년대 들어서면 황색보도의 폐해가 점점 심해지는데 1883년 <더 월드>(The World)를 인수한 풀리처(Joseph Pulitzer)와 1895년

〈더 저널〉(The Journal)을 인수한 허스트(William Randolph Hearst) 사이의 경쟁은 특종을 만들어 내기 위해 범죄 사건의 증거를 조작하거나 대통령 암살을 공개적으로 부추기는 상황까지 갔다. 이를 통해 〈더 월드〉의 발행 부수는 폴리처가 인수할 당시 15,000부에서 3년 만인 1886년에는 250,000부로 급증했다. 당시 〈더 월드〉의 주요 독자층은 이민자와 중산층 노동자였다. 1896년 현재 뉴욕의 이민자는 640,000명으로 뉴욕 인구의 40%였는데 상당수가 문맹이거나 영어를 모르는 상황이었다. 당시 〈더 월드〉가 판매 전략으로 내세운 신문 크기 축소와 만평, 사진, 큼직한 헤드라인, 스포츠 기사 등은 이들에게 호소력을 가졌다. 〈더 월드〉의 정치적 성향은 민주당 쪽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옥스(Adolph Ochs)가 1896년 〈뉴욕타임스〉(The New York Times)를 인수하는데 이때만 해도 발행 부수는 9,000부에 불과했다. 새로운 신문을 천명한 〈뉴욕타임스〉는 모토를 “보도하기에 적합한 모든 뉴스를 보도한다(All the News That’s Fit to Print)”로 내걸고 사실에 대한 충실함과 신문의 품위를 강조하며 황색보도를 공격했다. 동시에 보다 많은 경제 뉴스와 경제 광고들을 실었고 이런 전략은 상류층 독자들을 끌어들이는 데 주효했다. 1898년에는 신문 가격을 3센트에서 1페니로 인하하자 일 년 만에 발행 부수가 25,000부에서 75,000부로, 1920년에는 343,000부까지 증가했다. 〈뉴욕타임스〉의 정치적 성향은 공화당 쪽이었다. 이 시기 고학력 상류층을 기반으로 한 〈뉴욕타임스〉의 정보 언론(information journalism) 모델과 이민자와 중산층 노동자를 기반으로 한 〈더 월드〉의 이야기 언론(story journalism) 모델 사이의 ‘도덕 전쟁(moral war)’이 벌어졌고, 〈뉴욕타임스〉가 승리하면서 객관보도의 두 번째 요소인 사실성이 확립됐다(Schudson, 1978, pp. 106-120).

당시 편집인들은 실재하는 현상으로부터 동떨어져 있는 관찰자가 시각적 관찰을 통해 현실을 중립적 언어로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전달할 수 있다고 믿었다. 사실과 가치의 분리 속에 사실에 대한 확신과 가치에 대한 불신을 믿었고, 가치는 주관적이고 정당하지 못한 것으로 여겨지면서 사실과 의견 사이의 명확한 구분이 요구됐다. 글쓰기에서는 통신에서 시작된 역피라미드형 기사 구조가 지배적인 형태로 정착되고, 사실을 신봉하는 편집인들은 기사에서 형용사나 동사에 의문을 제기하며 논평이나 해석을 금지하는가 하면, 비정파성 논리 아래 엄격한 중립을 고수했다.

따라서 탐사보도나 분석과 해석, 극적 묘사, 이론적 고찰, 강한 논조의 논평, 캠페인 등은 사실이 결여된 보도로 여겨지게 됐다. 그러나 아직까지 객관성(objectivity)이라는 단어는 사용되지 않고 있었는데 대신에 편견이 없음을 뜻하는 ‘unbiased’ 혹은 ‘uncolored’라는 말이 주로 쓰이고 있었다(김민환, 2007, p. 103).

제1차 세계대전은 사실에 대한 이러한 확신을 흔들었다. 1900년대 들어 증가하기 시작한 공보 담당자들의 설명은 진실이 아니었고 전쟁 중에 언론이 정부의 프로파간다 수단으로 이용됐다는 비판이 일면서 언론인들은 사실에 대한 맹신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었고 인식의 주관성을 인정해야 했다. 보완 조치들로 기사에 언론인 이름을 포함시키는 바이 라인(by-line)을 도입하고, 주장을 검토하고, 사실을 검증하며, 취재원을 인용하고, 논평의 저자를 밝히는 등의 노력을 더했다. 또 현실의 복잡성이 더 많은 해석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칼럼 등 해석적 보도도 허용했다. 그러나 여전히 ‘사실’ 보도에 대한 믿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언론인들에게는 언론이라는 직업을 좀더 진지하게 만들기 위한 동시에 독자나 비평가들을 설득하기 위한 새로운 프레임이 필요했고 이때 탄생한 것이 객관보도였다(Schudson, 1978, p. 151).

객관보도의 선두에는 리프만(Walter Lippmann)이 있었다. 리프만은 진지한 교육과 전문적 지식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처방으로 언론에 과학적 방법론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Lippmann, 1922). 즉 전문가 공동체로부터 인정받은 확립된 절차에 입각한 언론의 진술은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리프만이 제안한 전문직주의가 추가되면서 객관보도는 상업주의 팽배와 독립성 결여로 인한 신뢰 위기에 대한 언론의 대응 전략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규정된 의사나 변호사와 같은 전문직이라는 주장을 하면서도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전문적 기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미합의 상태였다(McQuail, 2005/2008, pp. 214-217).

발행인과 언론인 모두의 지지를 받은 객관보도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발행인들에게 객관보도는 정파보도나 황색보도에서 탈피하라는 독자들의 요구에 부합하면서 발행 부수와 광고 수익을 증가시킬 수 있는 새로운 경영 모델로 각광받았다. 또 객관보도는 덜 공격적인 만큼 명예훼손 등에 따른 소송의 위험도 적었다. 언론인들 입장에서는 객관보도가 무엇보다 언론인의 자율 규제와 책임감이라는 견해를 촉진시켜 언론인 직업이 전문직으로 받아들여지도록 기능하면서 광범위하게 지지됐다(Ward, 2004/2007).

객관보도는 이후 언론인 단체들의 강령으로 채택되면서 언론 윤리로 격상됐다. 대표적인 것이 미국 뉴스편집인협회(ASNE, American Society of News Editors)의 1923년 강령과 전문언론인협회(Society of Professional Journalists)의 전신인 시그마 델타 카이(Sigma Delta Chi)의 1926년 강령이었다. 최초의 전국적 강령인 뉴스편집인협회 강령은 객관보도에 미치지 못하는 어떤 것도 “전문직의 근본적 원칙을 파괴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뉴스편집인협회의 강령을 본뜬 시그마 델타 카이의 강령은 진실성 바로 다음에 객관성을 명시하면서 “보도에서 객관성은 노련한 전문직이라는 지표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또 다른 목표다. 객관성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수행 기준이다. 우리는 객관성을 달성한 사람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할 정도였다.

그러나 1950년대 초반 매카시즘을 거치면서 객관보도의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노출됐다. 마감시간이 임박해 매카시가 나타나 실현되지 않을 줄 알면서도 “내일은 대통령을 소환하겠다”고 하면 다음날 신문 1면에는 그의 말이 실리는 식이었다. 특히 객관보도 우산 아래 통신사를 통해 매카시의 주장은 빠르게 확산됐다. 책임 있는 정보원의 말이라면 그대로 보도한다는 객관보도의 원칙에 따른 결과였다(Bayley, 1981, pp. 123-124). 매카시가 정치 무대에서 몰락하자 언론에 대한 비판이 일었는데 핵심은 언론인이 ‘파블로의 개’였다는 지적이었다. 그러나 이런 비판에 대해 리프만은 “객관적인” 보도였다고 반박했다. 그는 한 칼럼에서 “반역이나 간첩행위, 부패, 부정 등을 적발했다는 매카시의 주장은 무시할 수 없는 뉴스”이며 “미국 상원에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기사화할 만한 가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뉴욕타임스>도 “그런 보고서들이 대개는 거짓으로 판명된다는 이유로 매카시가 제기한 주장을 무시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대단히 어렵다”며 판단은 독자들의 몫이라고 주장했다(Macpherson, 2006/2012, pp. 562-563). 1960년대 들어서면서 객관보도에 대한 재반성이 일어나는데 정부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어 간 것이 주요 배경이었다. 정부가 거짓말을 한 사실들이 밝혀지고, 정부도 거짓말을 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객관보도의 위상은 하락했다.

1960년대 이래로 미국 언론인들은 객관보도를 폐기하지는 않았지만 스스로 중요성을 감소시켰다. 가치와 해석이 보도와 분리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한 언론인들은 보다 많은 해석과 판단을 허용하는 객관보도로 선회했다. 동시에 언론의 두 가지 전통이 부활하는데, 하나는 문학적 전통으로 호소력 있는 기사를 만들기 위해 해석, 배경 설명, 유머, 은유 등을 사실과 혼합하는 창조적 글쓰기였고(Ward, 2004/2007, p. 337), 다른 하나는 탐사보도의 폭로 전통이었다(Schudson, 1978).

2) 객관보도와 탐사보도의 상충성

많은 경우 언론인이 스스로의 이념이나 가치에 함몰돼 자신의 분노를 보도에 가감없이 투영하는 언론 현실을 감안할 때, 박승관(2017)의 지적처럼 탐사보도를 주장하기 이전에 객관보도라도 먼저 충실하게 실천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에서 연구자가 객관보도의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에 대한 존중 속에서 과학적 엄밀성을 추구하는 객관보도의 윤리는 탐사보도의 윤리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객관보도의

과학적 엄밀성은 오히려 탐사보도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과학적 탐사보도 기법의 발달은 객관보도의 윤리를 적극 수용한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제2장 이론적 논의에서도 살펴보지만 베버(Max Weber) 역시 가치와 사실의 분리 속에 가치함몰에 빠져 가치와 사실을 안이하게 혼동하는 것을 철저히 경계했다.

다만 탐사보도와 객관보도의 핵심 원리는 서로 다르다는 것이 연구자의 주장이다. 객관보도를 한 마디로 정의 내리기는 어렵지만 객관보도의 확립 과정을 바탕으로 했을 때 연구자가 이해하는 객관보도의 핵심은 언론인은 보도 과정에서 가치배제 또는 가치중립을 지키는 객관적 관찰자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객관보도는 언론인이 현실에 개입하거나, 가치를 주창하거나, 문제의 해결을 직접 시도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다. 그 이면에는 이념 또는 가치에 대한 불신과 사실에 대한 확신이 은연 중에 깔려 있다.

우선 시기적으로 탐사보도의 암흑기와 객관보도 황금기가 겹친다. 제1차 세계대전을 전후해 객관보도가 확고한 규범으로 정착하는 시점에 탐사보도는 급격하게 쇠퇴하기 시작했고, 1960년대 사회적 격변 속에서 객관보도에 대한 반성이 고조되던 시점에 탐사보도가 부활하기 시작했다(Feldstein, 2006; Shapiro, 2003). 탐사보도의 중흥기인 워터게이트 보도는 역으로 언론인들이 객관보도의 한계를 절감하게 한 경우였다. <워싱턴 포스트>가 9개월 동안 단독으로 워터게이트 관련 기사를 쓸 때 백악관 출입 기자들은 백악관 관계자들에게 사건에 대한 언급을 요청하고 발표문을 그대로 받아 보도하는 식으로 일관했고 그 배경 논리가 객관보도였다.

암흑기 동안 탐사보도를 하고 싶은 언론인은 객관보도를 주장하는 편집인들과 갈등을 겪어야 했다. 객관보도를 신봉하던 편집인은 황색보도와 함께 탐사보도도 폐기했고, 지배적인 글쓰기 방식으로 정착된 역피라미드형 기사쓰기는 탐사보도 글쓰기와 충돌했다. 편집인들에게 탐사보도와 황색보도는 똑같은 선정적 보도였다. 탐사보도 언론인들은 객관보도를 비판했다. 스테펜스(Lincoln Steffens)는 “기계처럼 기자들은 선입견이나 성향, 스타일도 없이 발생한 대로만 뉴스를 보도하도록 요구 받았다. 모두가 비슷하게”라고 한탄했다(Ward, 2004/2007, p. 281). 막 태동하기 시작한 대학의 언론학과에서 쓰이는 교재들은 객관보도는 수용한 반면, 탐사보도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Marshall, 2011, p. 28).

반대로 언론인들은 점점 공보 담당자들이 내놓는 보도자료에 의존해 갔다.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1916년 2,461개였던 일간 신문의 수가 1969년 1,753개로 줄어들었고 대신 뉴스 체인이나 미디어 그룹이 생겨나면서 TV나 라디오는 더

이상 탐사보도에 투자하지 않았다. 공보부가 정부는 물론 기업으로까지 확산되면서 정부와 기업은 기자실을 만들고 공보 담당자를 고용하면서 언론 통제를 시도했고 언론인들은 공보 담당자의 발표에 의존하는 것이 스스로 기사를 발굴하는 것보다 쉽다는 것에 적응해 갔다(Dinan & Miller, 2011/2011). 한 연구에 따르면 1926년 12월 29일 <뉴욕타임스>(The New York Times)에 실린 255개의 기사 가운데 147개가 공보 담당자를 출발로 하고 있었고, 1월 14일자 <뉴욕 선>(New York Sun)의 경우 162개 기사 중 75개가 같은 방식이었다. “오늘날 언론인은 보도자료를 받기 위해 출입처를 돌아다니는 탁발승과 다를 바 없다”는 탄식이 나올 정도였다(Schudson, 1978, p. 144).

탐사보도와 객관보도는 사실에 대한 존중에서는 차이가 없지만 작동 방식에서는 다르다. 탐사보도는 폭포를 통한 변화를 추구하는 반면, 객관보도는 정보를 통한 설명이 우선이다. 보도 방법에서도 탐사보도가 목격과 증언, 재구성 등을 주로 사용하지만, 객관보도는 관찰과 정보, 설명 위주다. 진실은 언론인이 자료를 파고, 신뢰할 만한 내부 고발자를 취재원으로 발굴하고, 사안을 자체적으로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야 드러난다는 것이 탐사보도 언론인들의 생각이다. 이를 위해 탐사보도는 연구나 증거에 기초한 폭로 방식을 이용하고 이를 통해 시민들의 도덕적 분노를 유도하고자 한다. 탐사보도 언론인들이 객관보도를 싫어했던 이유 중의 하나는 중립성 요구 때문이었다(Ward, 2004/2007, p. 333). 사물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것과 중립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다르다. 중립은 그냥 중립지대에 있는 것으로 중립은 옳고 그름의 고민이 필요 없는 상태이다. 언론인들이 중립을 객관으로 이해하게 되면서 중립은 객관이 아님에도 객관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가장 안정한 방법이였다.

메릴(Merill)은 객관보도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물론 그는 이것이 실현 불가능하기 때문에 객관보도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첫째, 언론인 자신이 객관적 행위를 방해하는 제 요소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한다. 사람들은 행위를 함에 있어서 자신의 경험, 지식, 환경, 교육, 또는 기타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받기 마련인데 언론인이란 이런 제약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둘째, 언론인은 전체 사실을 이해하고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언론인이 낱말의 사건이나 문제들을 속속들이 알고 정리하여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사실과 관계없이 독립될 수 있어야 한다. 언론인이 사건이나 문제를 만나서도 감정적으로 움직이거나 그 속에 끌려 들어가서는 안 된다. 넷째, 언론인은 편견에 치우치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 어떤 경우라도 찬성, 반대, 편중이 없어야 한다. 다섯째, 언론인이 자신이 쓴 기사에 견해를 넣지 않을 수 있어야 하며 자신의 의견과는

전혀 별개의 기사를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송정민, 1996, pp. 109-110 재인용). 이런 전제들은 실현 가능 여부를 떠나 탐사보도와 충돌하고 있다. 탐사보도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이념이나 가치에 대한 신념은 탐사보도의 중요한 자양분이었다. 또 탐사보도 언론인들은 중립을 배척하며 오히려 악당을 규정하고 그에 대한 폭로를 통해서 여론을 자극하고자 했다. 연구자는 객관보도를 폐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객관보도도 언론의 한 유형이라는 점을 직시하자고 주장하는 것이다.

탐사보도의 갑작스러운 퇴조 이유에 대해서는 다른 시각의 연구들도 있는데 우선 음모론이 제기된다. 대표적인 것이 당시 탐사보도의 표적이었던 기업들이 탐사보도를 없애기 위해서 대규모 소송이나 광고 중단 등으로 압박했고, 언론사가 이에 굴복하면서 퇴조하기 시작했다는 주장이다(Filler, 1976). 이런 주장에 대해 당시 기업들이 폭로 기사를 막으려고 한 것은 맞지만 그 관계를 너무 과장했고, 잡지들이 겪었던 경영 위기 원인을 다른 데서 찾아야 한다는 반박도 있다(Marcaccio, 1984). 또 일부 잡지들이 기업들의 공격으로 무너진 것은 맞지만 보다 직접적인 원인은 탐사보도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Regier, 1932, pp. 206-207). 그러나 음모론이나 자연사론은 탐사보도의 갑작스러운 퇴조를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물론 영향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최고점에서 갑자기 최저점으로의 급락을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루즈벨트(Theodore Roosevelt) 대통령이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한다(Fitzpatrick, 1994, pp. 113-114). 루즈벨트는 1906년 3월 중견 언론인 모임인 그리다이언 클럽(Gridiron Club)에서 탐사보도를 비난한 데 이어 4월 14일에는 새로 건설된 하원 건물에 초석이 놓여 지는 공식 행사에서 탐사보도에 대한 공격을 이어 갔다. 그는 “갈퀴를 든 사람(the men with muck-rakes)들은 사회 발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존재들이지만 갈퀴질을 멈출 때를 알아야” 한다며 “추문 폭로 재주 외에는 아무 것도 생각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쓰지도 못하는” 언론인은 “사회에 도움이 되고, 선에 유익한 존재가 아니라 악의 잠재적 원천 가운데 하나로 급속히 변해간다”고 비난했다(Altschull, 1990/1993, pp. 504-505). 연설 내용이 다음 날 신문 1면을 장식하면서 머크레이커(muckraker)는 탐사보도 언론인을 가리키는 낙인이 됐다. 루즈벨트는 나중에 상원을 금권정치가 집단으로 묘사한 탐사보도 언론인 필립(David Graham Phillips)에 대한 언급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연설에서는 이를 구분하지 않고 탐사보도 언론인들을 싸잡아서 비난했다. 버니언(John Bunyan)의 천로역정(Pilgrim's Progress)은 미국에서 광범위하게 읽히는 기독교 서적으로 그 안에 나오는 갈퀴를 든 남자는 현실에서 눈 앞의 이익만을 쫓는 사람으로 그의 손에 들려 있는 갈퀴는 속물 근성을 가리킨다. 루

루즈벨트는 현실의 이익만을 좇는 독점기업이나 부패한 정치인이 아니라 그들을 폭로하는 탐사보도 언론인을 속물 근성의 사람에 비유한 것이다. 결국 루즈벨트가 기독교의 도덕성을 자극해 탐사보도의 도덕성을 위협했고, 탐사보도 언론인들에 대한 충격과 분노를 일으킴으로써 탐사보도의 퇴조를 낳았다는 주장이 루즈벨트 책임론의 핵심이다.

그러나 머크레이커라는 낙인이 미국 언론에서 황금기를 구가하던 탐사보도를 일시에 잠재울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효과를 가져왔는지 의문이다. 당시 탐사보도 언론인들이 머크레이커라는 낙인에 불편해하긴 했지만 자신들의 직업에 대한 일종의 훈장으로 받아들이기도 했기 때문이다(Feldstein, 2006). 한 조사에 따르면 1903년부터 1912년 사이에 정부 기관의 부패나 정책 혼란에 대한 보도는 2,000건이나 쏟아졌다고 한다(이규연, 2002, p. 357). 즉 루즈벨트의 비난 이후에도 폭로 보도는 계속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

루즈벨트는 오히려 여러 탐사보도 언론인들과 협조 관계를 유지하며 탐사보도를 자신의 개혁 정책에 적극 이용하려는 쪽이었다(Leonard, 1986, pp. 211-212). 예를 들어, 정글이 출판된 직후 루즈벨트는 수시로 싱클레어를 만나 어떻게 정육 사업을 규제할 것인가에 대한 조언을 구했는데 당시 그는 식품과 의약품에 대한 규제 법안을 준비 중이었다(Fitzpatrick, 1994). 또 루즈벨트와 스테펜스(Lincoln Steffens)는 1890년대 중반 스테펜스(Lincoln Steffens)가 〈뉴욕 포스트〉(New York Post) 경찰 담당 기자, 루즈벨트가 뉴욕 경찰 국장이던 시절부터 서로 잘 알고 있었다. 루즈벨트는 대통령이 된 후에는 스테펜스(Lincoln Steffens)의 주장을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정부 비판 보도를 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했다. 1906년 루즈벨트는 모든 공무원들은 정부 부패에 대한 스테펜스의 조사에 협조하라고 지시했고, 이후 스테펜스는 10개의 시리즈 기사를 보도할 수 있었다(Regier, 1932, p. 109).

사실이 뉴스로 전달되기까지의 과정은 계속된 선택과 변형의 과정이다(Tuchman, 1978). 탐사보도는 일반 보도보다 훨씬 더 많은 선택과 변형을 포함한다. 여러 변수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에서 탐사보도 언론인들은 매 순간마다 복잡한 계산을 거쳐 본인이 생각하는 최선의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여기에는 그 결정이 가져올 실제적, 도덕적 책임까지 고려되어야 한다. 김사승(2012)은 탐사보도가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으로 언론인의 광범위한 재량권을 들면서 탐사보도 언론인의 전문성에는 주관성을 다루는 방법이 중요하게 감안돼야 한다고 말한다(pp. 19-20). 연구자는 김사승의 지적이 타당하다고 본다. 조사, 분석, 설명, 해석, 판단 등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수많은 재량권 행사에서 주관성 문제는 탐사보도의 핵심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4. 선행연구의 한계와 새로운 이론의 필요성

탐사보도 언론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명의식은 무엇이며, 그들은 소명을 구현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그들이 축적해 놓은 전문성이 무엇인지를 고찰해 보고자 하는 연구목적 하에서 선행연구를 검토했을 때 의의와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탐사보도에 대한 선행연구를 개관하면서 느낀 점은 탐사보도 조직이나 언론인에 대해 질적으로 접근한 연구들이 절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또 질적연구의 경우 표면적으로는 참여관찰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면담 연구 성격이 강했다. 때문에 선행연구들은 탐사보도 조직 내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맥락적, 심층적 이해에 도달하지 못했던 것 같다. 특히 국내의 경우 탐사보도나 탐사보도 언론인에 대한 연구 자체가 많지 않았다. 그 속에서 주된 흐름은 성공적으로 평가받는 탐사보도에 대한 사례 분석, 실험을 통한 탐사보도 효과 연구, 탐사보도 내용분석 등이었다. 다만 김수지(2016)와 남재일과 오대영(2018)의 연구가 탐사보도 언론인의 신념이나 소명의식을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었다.

둘째, 탐사보도 언론인들에 대한 연구들이 있었지만 연구방법이 대부분 언론인들에 대한 인식 조사였다. 또한 탐사보도 언론인의 신념 또는 소명의식을 본격적으로 탐색한 연구는 없었다. 탐사보도 언론인의 전문성에서도 언론인의 정신과 실천의 측면에서 새로운 접근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셋째, 미국을 중심으로 탐사보도 역사를 봤을 때, 정파보도나 객관보도를 탐사보도 언론인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삼기에는 한계가 뚜렷했다. 언론인이 추구했던 이념과 가치는 정파보도의 자양분이었다. 언론인은 특정 이념이나 가치에 함몰되어 특정 정파와 유착 내지 적대하면서, 이를 위해 언론을 수단으로 이용했다. 정파성 속에서 폭로보도가 성행했지만 정파성은 탐사보도의 탄생과 발전을 제약했다. 이후 정파보도에 대한 반성으로 등장한 객관보도는 언론인의 정파성을 차단 내지 극복하는 차원이 아닌 언론인의 이념이나 가치를 아예 배제하라는 쪽으로 흐르면서 역시 탐사보도와 충돌 또는 위축시켰다. 정파보도와 객관보도는 시간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반면, 탐사보도들은 언론 역사에 명작으로 기록되고 있다. 따라서 정파보도와 객관보도를 벗어나 탐사보도 언론인을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이론이 필요했다.

결국 선행연구를 통해서는 연구목적에 잘 부합하는 이론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제2장 이론적 논의에서 자세히 언급되겠지만 베버(Weber)의 소명의식(Beruf)과 가치자유(Wertfreiheit) 주장을 탐사보도 언론인에 대한 설명, 이해, 분석을 위한 새로운 이론으로 검토했고, 이를 본 연구에 탐색적으로 적용했다.

제 3 절 논문의 구성

탐사보도 언론인의 내면세계에 대한 심층적, 맥락적 이해를 추구하는 본 연구에서 연구자는 언론인의 소명의식을 논의의 핵심에 두고 있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탐사보도 언론인을 이해하기 위한 새로운 이론 틀로 베버(Max Weber)가 주장한 소명의식(Beruf)과 가치자유(Wertfreiheit)를 검토한다. 소명의식을 가진 언론인에게 필요한 자질과 윤리는 무엇인지, 가치중립 또는 가치배제로 번역되는 가치자유 of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소명의식과 가치자유가 탐사보도 언론인에게 왜 중요한지를 살펴본다. 이후에는 소명의식과 가치자유를 결합한 탐사보도 모형을 도출한다.

3장에서는 연구문제와 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어떤 연구방법을 선택했는지 설명한다. 1절에서는 <뉴스타파>에 대한 질적 연구를 통해 고찰하려는 세 가지 연구문제를 제시한다. 2절에서는 연구자가 질적 연구방법 중에서 선택한 문화기술지 연구가 왜 본 연구에서 장점을 가지는지와 연구 참여자에 대한 현장 연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됐는지 소개한다.

4장은 <뉴스타파> 조직의 기본적인 운영 원리를 4가지 열쇳말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를 통해 <뉴스타파> 조직에 대한 입체적 설명을 시도한다. 4가지 열쇳말은 운영 원리이면서 동시에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구조이기도 하다.

5장부터 7장까지는 현장 연구결과가 제시되는 부분이다. 오랫동안 질적 연구를 해온 연구자들은 현장 연구결과를 기술, 분석, 해석으로 나누어 제시할 것을 권장했고 연구자는 그 방법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기술의 질은 연구 참여자의 세계를 얼마나 생생하게 보여주는가에, 분석의 질은 분석하는 내용과 형식의 과학적 체계성과 치밀성에, 그리고 해석의 질은 학문적 전통을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인정받는가에 달려 있다.

5장은 연구결과의 기술 부분으로 연구 참여자들이 갖고 있는 소명의식의 구체적인 내용과 형성 과정이 설명된다. 우선 참여자들이 <뉴스타파>에 합류하게 된 경로를 세분화 한 뒤, 참여 경로와 소명의식과의 연관성을 분석한다. 5장은 연구문제 1에 대한 연구결과이다.

6장과 7장은 연구결과의 분석 부분이다. 6장에서는 베버의 소명의식과 가치자유 관점에서 참여자들이 소명의식을 어떻게 실천하는지 체계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다. 1절에서는 저널리즘 비판, 2절에서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 감시, 3절에서는 탐사보도라는 소명의식의 실천 방법과 각각의 소명의식이 과잉, 즉 가치함몰 됐을 때 나타나는 위험성도 제기할 것이다. 6장은 연구문제 2에 대한 연구결과이다.

7장은 소명의식과 가치자유의 능수능란한 결합을 탐사보도 전문성으로 정의하고 이 관점에서 최승호와 스톤을 평가한다. 특히 최승호를 수개월 동안 직접 체험한 한 참여자의 취재 일지와 심층면담 내용을 분석해 탐사보도 전문성에 대한 탐색적 논의를 시도한다. 7장은 연구문제 3에 대한 연구결과이다.

8장은 연구결과의 해석 부분이다. 연구 참여자들이 〈뉴스타파〉에 대해 느끼고 있던 문제 및 위기의식을 중심으로 연구결과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다각도로 논의한다. 아울러 본 연구가 〈뉴스타파〉를 넘어 한국 탐사보도에 주는 제언을 제시한다.

9장에서는 이러한 연구결과가 지니는 의미와 한계가 무엇인지를 전체 연구 요약과 함께 제시한다.

제 2 장 탐사보도 언론인에 대한 이론적 논의

- 막스 베버(Max Weber)를 중심으로

탐사보도는 정치적으로 가장 격렬하며 방법론적으로 가장 엄밀한 언론 실천이다. 지난 30여 년 동안 미국 탐사기자·편집인협회(IRE, Investigative Reporters and Editors) 언론상에 출판된 탐사보도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주제 면에서는 정부 비판과 견제가 48%로 가장 많았고, 취재를 시작한 계기에서는 언론인 자체 기획(47%)이 제보 등 정보원 의존(35%) 보다 높았다. 취재와 제작에는 평균 20주, 길게는 46주까지 소요됐다(Lanosga & Martin, 2016). 탐사보도 언론인들은 왜 격렬하게 정부를 비판하고 감시하며 그러면서도 윤리적 또는 도덕적으로 엄밀함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일까?

탐사보도 전문성을 인정받는 언론인들의 행적을 확인하고, 선행연구를 검토하면서 탐사보도 언론인을 이해하는데 그들의 내면세계, 특히 소명의식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절감했지만, 탐사보도 언론인의 소명의식을 본격적으로 탐색한 연구들을 찾지 못했다. 다만 한국의 경우 탐사보도의 장애 요인으로 소명의식의 부족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동시에 탐사보도와 객관보도는 여러 면에서 다른 점이 분명한데, 객관보도의 관점에서 탐사보도를 평가하면서 탐사보도 언론인들의 의지의 위축이 있었다는 점에서 탐사보도 언론인을 이해하고 설명하고 분석할 수 있는 새로운 이론이나 관점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그동안 이런 문제들은 탐사보도 연구에서 활발하게 논의되지 못했다.

연구자는 베버(Max Weber)의 소명의식(Beruf)과 사회과학론⁴의 대명사인 가치자유(Wertfreiheit)을 주목했다. 베버는 소명의식이 있으면 무엇인가에 ‘의존해서’ 살지 않고 무엇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게 되고, 이런 삶을 사는 사람만이 어떠한 좌절과 절망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소명의식(Beruf)의 지적 기반으로 가치자유(Wertfreiheit)를 제안했다. 베버의 소명의식과 가치자유는 정치나 학문을 하는 사람들 개인에 초점을 맞추며 인간 행위 일반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한 유형의 인간, 즉 소명 또는 생업을 위해 사는 개인을 논하고 있다. 개인의 행위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이런 방법은 실증주의적 방법과는 대조적으로 인간의

4. 여기서 ‘사회과학론’이란 사회과학 연구의 본질적 속성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성찰하는 분야를 뜻한다. 따라서 이것은 기술적 의미에서의 ‘사회과학 조사방법론’과는 구별되는 광의의 사회과학 이론이다(전성우, 2011a, p. 7).

사회적 행위에 대한 해석적 이해에 초점을 맞추며, 인간의 내면적 신념 그리고 이를 둘러싼 갈등과 고민을 좀 더 실존적인 문제로 이해하는데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최장집, 2013, p. 16), 탐사보도 언론인의 내면세계를 맥락적, 심층적으로 이해하려는 본 연구의 목적에 잘 부합했다. 따라서 베버가 주장한 소명의식과 가치자유는 무엇이고, 그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검토한 뒤 소명의식과 가치자유가 오늘의 탐사보도 언론인에게도 유효한지 살펴보려고 한다.

다만 연구자가 베버의 소명의식과 가치자유가 탐사보도 언론인에 대한 여러 쟁점들에 대한 직접적인 해답을 제공해 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 보다는 그동안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이해했던 것을 새롭게 보고, 옳다고 주장했던 생각이 과도한 것은 아닌지 살펴보면서, 탐사보도나 탐사보도 언론인들에 대해 얼마든지 다른 시각으로 접근할 수가 있구나 하는 일종의 성찰적 사고의 출발점으로서 베버의 이론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탐사보도 언론인을 연구하는데 왜 갑자기 베버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연구자의 간접적인 대답이 될 수 있다. 백 년 전 베버가 보여준 언론과 언론인에 대한 통찰력과 언론의 중요성을 고려해 언론과 언론인을 사회학의 한 분야로 삼아 과학적으로 연구하려 한 베버의 열정과 노력이 이후 언론학의 정립에서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는 평가를 고려할 때, 그간의 한국의 언론 연구가 베버를 간과해 온 측면이 있다.

제 1 절 베버의 생애와 언론 연구에 대한 기여

베버는 현대 사회학의 창시자 가운데 한 명으로 평가받지만 그의 저작은 사회학 뿐만 아니라 경제학, 법학, 철학 그리고 비교 역사학을 아우른다. 그의 대다수 저작은 근대 자본주의의 발달과 근대사회와 근대 이전 사회의 차이에 관련된 것으로 그는 일련의 경험적 연구를 통해 현대 사회학에서도 중심이 되고 있는 중요한 쟁점들을 발굴해 냈다(Giddens, 2006/2011, pp. 32-33). 베버에 대한 연구들이 사회과학에 대한 그의 기여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본 연구는 공적 기관으로서 언론과 정보 제공이라는 언론인의 역할에 대해 그가 가졌던 실천과 인식에 초점을 맞춘다.

베버는 학자이면서, 언론인이었고,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정치에 참여했던 정치인이었다. 학자로서는 사회과학의 엄밀성을 주장했고, 언론인 활동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표명했으며, 그가 보기에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독일을 구하기 위해 현실 정치에 참여하였다. 이런 실천적 경험을 바탕으로 베버는 언론과 언론인에 대한 그만의 시각을 정립했고, 1910년과 1919년 두 번의 기회를 통해 자신의 시각을 공개

적으로 주장했다. 독일에서는 19세기 중엽부터 학문의 지나친 관념화 현상 때문에 언론 연구의 연구 대상은 언론 자체가 아니라 언론 외적 문제들에 집중되었고 주의주장적 이론 체계가 난무하였다. 이런 연구 풍토에서 베버는 언론학이 취해야 할 학문적 자세와 방향을 제시하였고, 그 영향과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김경근, 1985; Dickinson, 2013, Hardt, 2001).

1. 학자, 언론인, 정치인으로서 베버

1) 사회과학의 가치자유를 주장한 학자

베버는 1889년 베를린대학에서 중세 이탈리아 도시의 무역 회사에 관한 역사를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고, 2년 뒤인 1891년에는 로마 농업사와 공법, 시민법을 주제로 교수 자격논문을 써 베를린대학의 상법, 로마법, 독일법 과목의 교수 자격을 얻었다. 이때부터 그의 관심은 법학에서 차츰 경제학, 역사학, 사회학 등으로 옮겨 갔다. 그는 1896년는 저명한 경제학자 크니스(Knies)의 후임으로 하이델베르크대학의 교수직을 맡게 된다. 당시 베버의 관심사는 국가의 운명을 이끌어 나갈 주도 계층의 확보와 이들의 정치적 성숙 강화에 모아져 있었다. 베버의 이 같은 독일 국민에 대한 강렬한 교육 열망은 후일 그의 소명의식과 가치자유 이론에 담기게 된다.

학문적 경력이 꽃피고 있을 무렵인 1897년 베버 인생에서 중대한 전환기가 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베버와 심한 언쟁을 벌인 아버지가 여행 도중 사망한 것이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사망이 베버에게 준 충격은 상당했고, 6년여 동안 심한 신경쇠약증을 겪어야 했다. 오랜 정신분열증 이후 1903년에 이르러서야 그의 정신 능력은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고 학문 세계로 복귀할 수 있었다. 충격을 극복한 베버는 1904년부터 그의 학문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저작들을 집필하는 등 학문 활동을 활발히 이어갔다. 오랜 공백기를 지나 다시 시작된 베버의 저작 활동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이 사회과학론에 대한 그의 깊은 관심이다.

사회학에 대한 베버의 견해는 상당 부분 당시 독일을 휩쓸었던 일련의 지적 논쟁에서 영향을 받았다. 특히 독일 사회정책협회(Verein für Socialpolitik) 내에서 벌어졌던 가치판단 논쟁은 본 연구가 주목하는 가치자유와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사건이다. 1872년에 창립된 사회정책협회가 당시 독일 사회과학의 발전에 미친 영향은 지대했다. 협회는 복음주의-사회협의회(Evangelical-Social Congress)와 함께 독일 사회에서 특별한 지위를 점하고서 사회과학과 정치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었다.

협회는 당시의 주요 경제적, 사회적 이슈들에 대해 조직적이며 광범위한 조사와 연구를 주도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을 건의하는 등 사회적 관심사들에 대해 활발하게 토론하고 때로는 참여했다. 이렇게 협회와 정치는 관계를 유지하며 서로 보완해 갔고, 협회는 정치의 요구를 학문적 권위로 뒷받침하며 국가와 시민에 호소했다. 사회정책협회 회원들은 20세기로 접어들면서 이론적, 이념적 스펙트럼에 따라 대체로 세 그룹으로 분화되는데, 좌파는 이른바 아카데미 사회주의로 불렸던 그룹으로 베버를 포함해 나우만(Friedrich Naumann), 쾰바르트(Werner Sombart), 브렌타노(Lujo Brentano) 등이 속했고, 쉬몰러(Gustav Schmoller)와 그나이스트(Rudolf von Gneist)는 중간파였고, 바그너(Adolf Wagner)는 우파에 속해 있었다(최장집, 2013, p. 28). 이런 가운데 일단의 소장학자들이 정치적 보수주의와 그 주창자들이 노정하고 있는 과학적 이해와 윤리적 가치판단 사이의 안일한 혼동, 그리고 맑시즘적 사회주의에 대한 주관적인 배격을 비판하고 나섰다. 1905년 ‘국가에 대한 카르텔의 관계’를 주제로 한 만하임(Manheim) 회의에서 쉬몰러는 카르텔에 대한 규제를 주장했는데 이를 둘러싸고 열린 논쟁이 벌어졌다. 협회 내의 일단의 좌파 그룹이 이에 대해 격렬히 반대하며 쉬몰러의 사퇴까지 요구하는 등 이를 발단으로 협회 내에서는 이론과 방법의 이해에 대한, 나아가서는 협회 자체에 대한 이해를 둘러싼 논쟁이 시작됐다(전병근, 1994, pp. 27-31).

아버지의 죽음이 가져온 오랜 신경쇠약에서 벗어나 학계로 돌아온 베버는 이 논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1903년에 ‘로셔와 크니스(Roscher und Knies)’ 논문(원 제목은 Roscher und Knies und die logischen Probleme der historischen Nationalökonomie, 로셔와 크니스 그리고 역사적 국민경제학의 논리적 문제)을 출간하였고, 다음 해에는 ‘객관성’ 논문(원 제목은 Die ‘objektivität’ sozialwissenschaftlicher und sozialpolitischer erkenntnis, 사회과학적 그리고 사회정책적 인식의 ‘객관성’)(Weber, 1904/2011)을 발표했다. 베버의 첫 번째 방법론 저작인 ‘로셔와 크니스’ 논문은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이 다르다고 여기는 것이 허구적인 직관주의를 지지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베버는 사회과학은 필연적으로 정신적인 또는 이념적인 현상들에 관심을 가지며 이것이 자연과학 주제 속에는 존재하지 않는 사회과학만의 특수성이라는 점을 인정한다. 그러나 이런 점이 사회과학의 객관성을 희생시킬 필요도 없고 희생시키지도 않는다는 것이 베버의 생각이었으며, 다음 해에 발표되는 ‘객관성’ 논문에서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보여주려고 했다(Giddens, 1971/2008, pp. 264-265).

가치판단 논쟁은 1909년 비엔나 회의에서 전면적으로 발발했다. 비엔나 회의에서 베버의 프라이부르크대학 전임자였던 필리포비치(von Philippovich)는 오스트리아학과

의 대표자로서 ‘국민 경제적 생산성의 본질’이라는 논문을 발표하는데, 베버는 쾰바르트 등과 함께 ‘생산성’이라는 개념이 가치평가를 함축하고 있으며 특히 민족적 번영이라는 개념과 혼용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비판하고 나섰다. 협회에서 이전에는 이런 이론적인 논쟁은 제기된 적이 없었다. 베버는 “우리가 여기서 가치판단을 배제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혹은 그것은 원칙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 그리고 가치판단의 배제는 실천적으로 얼마나 가능한지에 대한 논의가 특별 의제로 채택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회의에서의 발표문을 수정, 보완해 1917년 학술지 로고스(Logos)에 ‘가치자유’ 논문(원 제목은 Der sinn der <wertfreiheit> der soziologischen und ökonomischen wissenschaften, 사회학 및 경제학에서 ‘가치자유’의 의미)(Weber, 1917/2011)을 발표했다(전병근, 1994, pp. 27-31). 가치판단 논쟁에서 베버의 핵심 논지는 과학적 주장을 통해 정치적 관점을 정당화시키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2) 정치적 소명의식을 가진 언론인

베버가 직면해야 했던 독일은 처음부터 기반이 미약했던 자유주의적 세력이 의회를 통해 정치적 발전을 주도해 나가지 못하고 오히려 프러시아의 군사력과 비스마르크라는 권위주의적 인물에게 주도권을 빼앗긴 채 계속해서 이끌려 가는 상황이었다. 그런 가운데 보수 지배 세력은 더더욱 자신들의 계급적 안위만을 공고히 해 가고 있었다. 산업화의 심화와 더불어 사회적으로는 계급간의 갈등이 급격히 표면화되기 시작하는 등 정치사회적 갈등은 적절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쌓여 갔다(전병근, 1994).

이런 상황에서 베버는 적극적인 언론인 활동을 통해 정치에 참여했다. 그의 언론인 활동에는 당시 독일의 정치적, 경제적 문제들에 대한 스스로의 이해와 분석, 해결 노력이 담겨 있으며, 동시에 그가 언론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이후 언론 연구에 대한 지적 활동을 이어가는 계기가 됐다. 베버는 1890년 <크로닉 데어 크리스틀리헨 벨트>(Chronik der Christlichen Welt)의 기고가를 시작으로, 1891년 <에팡겔시쉬-조찌알레 차이트프라겐>(Evangelisch-soziale Zeitfragen)의 편집인으로 활동하면서 자유주의 이론가들과의 접촉을 늘려갔고, 그 중에는 나우만(Friedrich Nauman)이 있었다. 나우만과의 교류는 베버가 나우만이 주도하는 사회주의 개혁 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언론인으로 활동하는 계기가 됐다. 나우만은 1894년 사회주의 개혁 운동을 주장하는 신문인 <디 힐페>(Die Hilfe)를 창간하는데 그는 베버에게 주요 기고가가 되어 줄 것을 요구했다. 베버는 나우만이 1896년 창당한 독일사회연맹(Nationalsozialer Verein)의 정당지인 <디

차이트》(Die Zeit)의 창간에도 참여했다. 그러나 <디 차이트>는 재정난 등으로 1년만에 폐간됐다. 몇 년 후 베버는 독일의 유력 신문 중의 하나인 <프랑크푸르터 차이트>(Frankfurter Zeitung)의 주요 기고가로 활동하면서 정치 민주화와 학문 자유 등 광범위한 분야에 대한 그 자신의 견해를 적극적으로 표출했다. 베버는 그 외에도 <베를린너 타게블라트>(Berliner Tageblatt), <베를린너 웨르젠-차이트>(Berliner Börsen-Zeitung), <뮌헨너 노이에스테 나흐리히텐>(Münchner Neueste Nachrichten) 등 다른 신문에서도 언론인으로 활동했다. 언론인으로서 베버의 활동과 글은 그의 자전적 에세이인 <Gesammelte Politische Schriften>에 모아져 있는데, 정치와 정치 지도자의 책임에 대한 그의 걱정과 언론인으로서 당시 독일 사회의 문제들을 알리겠다는 그의 소명의식이 잘 나타나 있다(Hardt, 2001, pp. 128-30).

베버는 소명의식을 가진 언론인이었다. 당시 독일에서 언론은 정치적 변화의 중요한 수단이었고, 베버는 그 속에서 행동하는 언론인으로서 정치에 적극 참여했다. 베버가 정치인 못지 않게 언론인에 대해 걸었던 기대는 생애 마지막 해인 1920년 부인에게 쓴 한 편지에서 학자의 길보다 언론인의 길을 택하길 원했다는 점에서 상징적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조맹기, 1997, p 162). 동료 언론인들 중에서 선도적 위치에 있었던 베버는 대중성을 얻어 갔고, 이런 대중성은 베버가 현실 정치에 직접 참여하는 발판이 되었다.

3) 정치 참여의 실패를 경험한 정치인

베버 생애의 말년에 해당하는 1917년부터 1920년은 패전으로 인한 독일 제국 붕괴와 새로운 공화국 건설이라는 전환기로, 이 시기만큼 독일 현대사에서 혼란과 위기가 극심했던 적은 없었다. 새로운 공화국에서의 첫 의회 선거, 새로운 헌법의 내용을 둘러싼 논란, 패전의 조건을 결정하는 베르사유 조약 등 독일 운명을 결정할 일련의 사건들이 모두 이 시기에 일어났다. 이 과정에서 베버는 1918년 이후 약 1년 동안 열정적인 정치 참여 행적을 보였다. 강력한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있었지만 현실 정치 일선에 직접 참여하는 데는 유보적이었던 그가 입장을 바꾼 것은 그만큼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독일 상황을 최악으로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그의 정치 참여 강도는 그가 인식하는 위기 정도와 비례했다.

베버는 1918년 11월 창당된 부르주아 지식인 주도의 정당인 독일민주당(Deutsche Demokratische Partei, DDP)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지식인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였다. 당의 중앙위원회 집행위

원장으로서 열정적으로 활동하던 그에게 당은 1919년 1월에 치러지는 바이마르공화국 최초의 총선에서 헤센-나사우(Hessen-Nassau) 지역구에 출마를 권유했고 베버는 수락했다. 현실 정치에 주요 정치인으로 참여할 기회가 주어졌지만 베버는 해당 지역 출신 후보에 밀려 공천을 받지 못했다. 공천에서 탈락한 베버에게 당은 전국구 후보를 제안했지만 베버는 이를 거절했다. 의원직 자체에 연연하는 의원이기 보다는 유권자들에게 선택받는 정치인이고 싶었던 것이다(임상우, 1992).

새로 뽑힌 의회는 일종의 제한의회였고, 베버는 의원은 아니었지만 유일하게 초빙된 외부인사로서 헌법 초안 논의 과정에 깊이 개입했다. 베버는 이곳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예를 들어 헌법에 반영된 강력히 결속된 연방국가 체제와 국민직선 대통령제는 베버의 주장이 관철된 결과였다(함용준, 1976).

1918년 연말부터 시작해 1919년 6월 조인된 베르사유 조약 과정 참여했던 베버는 자신의 영향력에 대한 한계를 절감하고 절망했다. 그는 그동안의 사태의 전개에 대한 절망감을 안은 채 모든 정치적 활동을 그만두고 대학에서의 학자의 삶으로 돌아갔다.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했지만 “우익과 좌익이 모두 미쳐 날뛰고 있는 판국에 독일에 있어 정치는 불가능하다”는 판단만이 남았다. 정계를 떠나면서 한 지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베버는 “정치는 언제나 나의 내밀한 연인이었다. ... 그들이 이러한 사랑을 파괴하고 만 것이다”라고 말했다(임상우, 1992)

베버의 삶은 국가의 장래를 걱정하는 한 지식인이 얼마만큼 성실한 태도와 정열적 헌신을 보여줄 수 있는가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학자, 언론인, 정치인으로서 베버는 도덕적 가치의 우월성에 편승하여 자신들의 정파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가치의 우월성에 함몰된 관념적 강박감으로 인해 지식인이 지켜야 할 지적 성실성을 잃은 경우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2. 베버의 언론, 언론인 인식과 언론 연구에 대한 기여

1) 언론과 언론인에 대한 과학적 연구 제안

1910년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제 1회 독일 사회학자 대회에서 첫 발제자로 나선 베버는 언론이 사회학 연구의 중요한 분야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하며, 언론과 언론인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제안했다(Weber, 1976). 학자이면서 언론인, 그리고 정치인이었던 그의 위치가 언론에 대한 그의 이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핵심은 신문에 무엇이, 얼마나, 어떻게, 언제, 누구에 의하여, 어떠한

빈도로 거론되는지를 정확히 측정하여 얻은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언론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내리는 새로운 연구방법론의 제시였다.

이 보다 앞선 1909년 4월 베버는 독일 사회학회(German Sociological society)에 자신이 추진하는 연구에 대한 연구계획서를 제출했다(Weber, 1998)⁵. 이 계획서에서 베버는 언론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을 언급하는데, 근대 인간의 주관적 특성을 형성하는 수단으로서 언론과 근대 문화의 객관적 특성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언론이다. 계획서에 나타난 핵심 연구대상은 신문 산업(신문 소유주, 자본, 발행 비용, 보도되는 자료의 확보, 신문의 수입, 경쟁과 독점, 언론인, 기타 고용인 등 8가지)과 신문의 성격(신문의 성격과 경향의 형성, 신문 성격에 영향을 주는 외부 요인들, 신문에 의한 여론의 형성 등 3가지)이었다. 베버는 계획서의 마지막에 자신의 연구가 언론에 대한 객관적 사실이 무엇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순수한 과학적 연구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가 연구 대상으로 두 가지를 선택한 것은 더 이상 신문이 개인의 사적 미디어가 아니라는 점과 신문의 상업화 경향을 설명하는 의미로 언론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Hennis, 1998).

그리고 다음해 사회학자 대회에서 베버는 자신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천명했다. 베버는 언론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다면서, 언론의 시대적 변화와 국가별 차이를 언급했다. 한 사례로 영국에서 의회와 언론의 위치가 뒤바뀐 상황을 들었다. “150년 전 의회 활동에 대해 언론이 보도하자 의회의 특권을 침범했다며 의회가 언론인들의 무릎을 꿇리며 사과를 받아냈지만, 지금은 의원들의 발언을 보도하지 않겠다는 작은 위협에도 의회가 언론에 무릎을 꿇는 상황”이라며 이런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 연구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영국 귀족이 미국의 평범한 여성과 결혼할 경우 미국 언론은 보도하지만 독일 언론은 보도하지 않을 것이라며 동일 사안에 대한 국가별 보도의 차이를 강조했다. 인간과 언론, 사회의 변증법적 관계를 강조하려는 의도로서 베버는 언론과 정치(예를 들어 정당), 경제(예를 들어 기업), 사회(예를 들어 조직이나 이익집단)와의 관계에서 힘의 균형의 다양성이 사회학의 연구대상이 되어야 한다며 구체적인 연구 문제들을 직접 제안했다(p. 97).

우선 신문 제작과 경영 구조에 대한 연구 필요성을 강조했다. 요약하면, 언론은 완전히 다른 두 종류의 고객을, 독자와 광고주, 갖는데 이는 언론이 다른 기업들과 구별되는 속성이다. 신문 경영에서 광고주는 독자보다 중요하다. 광고주는 많으면 많을

5. Preliminary report on a proposed survey for a sociology of the press 제목의 연구계획서는 당시 초대 사회학회장이던 뢰니스(Ferdinand Tönnies)의 저서에서 발견됐다.

수록 좋지만 반대로 독자가 너무 많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다. 계속 증가하는 발행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광고주에 더 의존하고 광고비도 인상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 경우 인상된 광고비에도 계속 광고를 할 수 있기 대기업들이 광고를 독점하고, 나아가서는 신문 발행에 영향을 미치는 세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베버의 질문은 광고주 의존의 증가는 광고주의 여론 형성에 대한 영향력 증가를 의미하는지, 독점적 언론 대기업은 등장할 것인지, 만일 등장한다면 결과는 어떠한 것인지, 언론의 경영적 측면을 얼마나 고려해야 하는지였다. 핵심은 언론 산업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본주의적 발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학문이 연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신문의 경영 형태가 신문의 성격을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이다.

베버는 또 신문의 언론인 고용 형태 언급했다. 당시 독일은 정규직 언론인이, 반면 영국이나 프랑스는 자유기고가 형식의 임시직이 일반적 형태였다. 베버는 언론인들이 누구이고 무엇을 쓰는지, 즉 신문에 참여하는 계층과 참여하지 않는 혹은 못하는 계층을 구분하고, 누구에 의하여 사회의 어떤 점이 무시되고 또는 소외되는지 연구할 필요를 강조한 것이다. 이외에도 베버는 언론의 기사 취급 방식(예를 들어 익명성과 기명성의 차이), 통신사, 언론인, 그리고 언론 효과 등에 대한 연구 필요성을 역설했다(pp. 98-100).

이를 위해 베버는 오늘의 내용분석에 해당하는 양적연구방법을 제안했다. 연구문제는 두 가지였다. 첫째, 언론은 근대 인간의 형성에 기여하는가? 둘째, 개인의 가치는 언론에 의해 어떤 영향을 받으며, 어떻게 변해가고, 무엇이 파괴되고 새로 생성되는가? 베버는 답을 찾는 길은 매우 긴 여정이 될 것이라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여러분은 물을 것이다. 그러한 연구를 시작할 자료는 어디에 있는가? 자료는 신문 자체이다. 우리는, 정확히 말하면, 지금부터 가위와 나침반을 가지고 신문 내용이 지난 세대 동안 양적으로 얼마나 변모해 왔는지를 측정하는 일을 시작해야 한다. 특히 광고, 오락기사, 오락기사와 사설의 사이, 사설과 뉴스보도 사이, 보도된 것과 보도되지 않은 것 사이를 말이다. 왜냐하면 조건들이 중요하게 변해왔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런 양적 분석으로부터 시작해 질적 분석으로 넘어갈 것이다(Weber, 1976, p. 100).

언론인으로서 정치 참여 그리고 언론에 대한 걱정 등을 감안할 때 베버가 언론에 대해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연구를 창안하고 주장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는 학자적인 진지함과 과학적 방법론을 통해 언론에 대해 만연해 있는 단순한 정치적 관

십이나 추측을 극복하고자 했다. 스스로 언론에 대한 과학적 연구의 어려움을 알았지만, 만일 연구가 성공한다면, 언론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가치 있는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2) 언론인의 소명의식 강조

베버는 사회 변혁의 주체로서 정치가의 역할을 강조했지만 그에 못지 않게 언론인에 대한 기대를 가졌다. 하르트(Hardt, 2001, p 130)는 베버가 언론인으로 활동하면서 교육받고 책임의식 있는 언론인의 중요성 확신했을 것이라고 말한다. 여론 형성에 있어서 언론인의 역할을 인정하고, 그래서 동료 언론인들과 생각들을 교환하면서 언론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립했으며, 특히 〈프랑크프루터 차이퉁〉(Frankfurter Zeitung)에서의 경험, 예를 들어 엄선된 편집진, 높은 교육 수준, 기사 선택이나 편집 방향에서 집단 지성의 존중 등,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언론인의 소명의식과 관련해 베버의 생각이 드러난 것이 1919년 1월 〈직업으로서의 정치(Politik als Beruf)〉 강연이다(Weber, 1919/2011, pp. 62-68). 강연 당시는 베버가 아직 현실 정치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던 도중이었다. “비록 부정적 뒷맛”을 가지고 있지만 베버에게 데마고그(선동가)는 “정치 지도자의 전형”이었고, 언론인은 데마고그의 “가장 중요한 대표자”였다. 때문에 언론인의 책임은 학자의 책임보다 크며 모든 성실한 언론인의 책임감 역시 평균적으로는 학자의 책임감보다 낮지 않았다고 본 베버는 “언론인이라는 직업이 가진 정치적 직업으로서의 장래, 즉 언론인이 정치적 지도자의 지위에 오를 수 있는 기회”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현실에서 언론인들 중 정치 지도자가 배출되는 경우는 매우 예외적이었는데 베버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로 언론인이 생업에 얽매어 다른 일을 할 여유를 가지지 못하는 상황을 지목했다. 예를 들어 “재산이 없고 직장에 예속”되어 “매일 또는 매주 기사를 써야만” 생계가 유지되는 상황이다. 지도자적 자질을 갖춘 언론인도 “이런 이유들 때문에 마비되어” 가는 반면, 언론 재벌의 정치적 영향력은 점점 더 증대하고 있었다. 결국 언론인은 “아웃사이드어 계층”에 속하며 그들에 대한 평가는 윤리적으로 가장 열등한 사람들로 인식되고 있었다.

베버가 언론인의 현실과 일부 언론인의 무책임성을 강조한 것은 언론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언론에 대한 방어의 의미로, 언론인의 책임성 강화와 앞으로 다가올 위험에 대한 경고의 의미가 더 크다(Dickinson, 2013). 베버는 다시 한번 “언론인 경력은 소명의식이 있는 정치인에 이르는 가장 중요한 길 중의 하나”라고 말하며, 언론인

의 소명의식을 강조했다. 그 길은 아무나 갈 수 없는 길이라는 것을 베버는 잘 알고 있었지만 희망을 갖고 있었다.

물론 이 길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나약한 성격의 소유자, 특히 잘 보장된 신분적 지위에서만 내적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는 이 길은 가장 부적합합니다. ... 그의 삶은 다른 어떤 직업에서도 찾기 힘든 방식으로 그의 내적 자부심을 시험하는 그런 조건들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 인간적으로 탈선하고 쓸모없이 되어버린 언론인들이 많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놀라운 일은 위에서 서술한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계층에야말로 탁월하고 참으로 순수한 사람들이, 국외자들은 쉽게 짐작하기 어려울 만큼,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Weber, 1919/2011, p. 67-68).

3) 언론 연구에 대한 기여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독일 등 유럽에서는 언론을 문제가 많은 기관으로 인식하고, 언론인의 수준이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논의들이 있었다. 예를 들어 크니스(Knies)는 언론의 사회적 영향력이 경제학, 역사학, 정치학의 관점에서 연구되어야 한다면 언론에 대한 규제를 제안했다. 언론인은 지적으로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그들의 행동은 직업 규칙과 윤리적 원칙에 의해 통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셰플레(Schäffle)는 신문에서 광고와 정보, 그리고 의견의 구분을 제안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베버는 언론에 대한 대규모 연구를 계획하고 실천하고자 했다(Marocco, 2005).

베버 주장의 핵심은 자본주의 시장에서 언론의 산업화와 상업화가 여론 형성과 정치 과정에 어떤 함의를 갖는지를 연구하는데 있었다. 베버가 산업화되고 상업화된 언론의 수익성을 활용해 부를 축적한 기업인의 대표적인 인물로 노스클리프(Northcliffe)를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었다. 이는 언론과 언론인의 책임성 강조와 앞으로 다가올 위험에 대한 베버의 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비록 언론 관련 개인 소송과 동료 학자들의 무관심, 그리고 전쟁 등으로 언론에 대한 베버의 연구 계획은 실패했지만(Hardt, 1976, p. 92), 베버의 언론과 언론인에 대한 인식에서 흥미롭고 놀라운 것은 그의 관찰과 이해의 수준뿐만 아니라 20세기 언론학에서 제기될 연구 주제들을 미리 암시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베버는 언론 연구의 중요한 영역들을 개념화하는데 성공했다. 그의 여러 분야에 걸친 전문성이 언론의 정치적,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개인과 사회에 대한 언론의 영향과 관련한 심리적, 사회적 설명을 제공해 주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언론의 경제적 측면에 대한 통찰력은 독일 언론의 “미국화(Americanization)”, 즉 독일 언론의 소유 독점 경향, 그리고 그런 경향이 독립적 또는 정파적 언론에 미칠 영향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졌다. 당시 독일에서 “미국화”는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었다(Hardt, 2001, p. 138). 또 신문이 어떤 경로와 과정을 거쳐 보도 자료를 입수하며, 그 가운데서 어떤 내용을 보도하고 안 하는지에 관하여 알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게이트키퍼(gatekeeping) 문제를 제기했다(김경근, 1985, p. 52).

1930년대 이후부터 언론학 분야에서 내용분석이 본격적으로 시도되기 시작한 데는 베버의 주장이 큰 자극제가 되었다. 보도 내용을 자료 채고 가위로 자르는 것만이 언론학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은 자명하지만, 이런 방법은 언론의 일반성, 본질성, 그리고 성립 과정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베버의 주장을 이어받아 언론에 대한 양적연구를 활발하게 수행했던 그로스(Groth)는 “언론학을 위한 베버의 근본적 의미는 문화적 작품인 정기간행물에 관한 다각적이고 철저한 연구를 언론학의 기초적 과업으로 뚜렷이 부각시켰다는 데 있다. 베버는 신문이 언론학의 대상이며, 신문 속에서 언론학의 기본 개념을 찾을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고 평가했다(김경근, 1985, p. 56 재인용). 베버는 학자와 현업 언론인의 협업을 제안했는데 이는 연구에 대한 언론인의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학자들만의 연구는 객관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베버는 언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언론 소비, 효과, 확산, 물적 조건 등이 사회적, 정치적 중요 이슈가 될 것을 예상했고, 그의 예상은 특히 수십년 후 자본주의와 기술 확산, 정보 사회의 도래 속에서 미국에서 적중했다. 제이콥스(Jacobs, 2009)는 미국에서 언론을 사회학의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의 시조로 파크(Robert Park)를 지목한다. 그러나 디킨슨(Dickinson, 2013)은 베버가 한때 그런 역할을 했으며, 비록 연구를 완성하지는 못했지만 언론학에 미친 기여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이런 면을 고려할 때 뒤에 설명될 소명의식과 가치자유 주장에는 언론인으로 활동하고 동시에 언론의 역할과 기능을 이론화하려는 베버의 실용주의적 태도가 녹아 있다고 할 것이다.

제 2 절 소명의식(Beruf)과 가치자유(Wertfreiheit)

베버는 1920년 여름 급성 폐렴으로 향년 56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그는 사망 전 해인 1919년 1월에 뮌헨대학 근처에 있는 ‘슈다이니케’라는 서점의 작은 홀에서 자유주의 좌파를 신조로 하는 학생단체인 자유학생연맹의 초청을 받아 두 차례 강연을 했다. 첫 번째가 <직업으로서의 학문(Wissenschaft als Beruf)>(Weber, 1919/2012)이고,

두 번째가 <직업으로서의 정치(Politik als Beruf)>(Weber, 1919/2011)이다.⁶ 이 쌍둥이 강연은 현대 사회과학 논의에서 중요한 준거점으로 거론되는데 대학생들을 상대로 한 강연문이 이처럼 학문적 관심을 받는 것은 드문 일이다. 강연이 이루어지던 시기는 베버가 학자와 언론인, 동시에 정치인이 될 수는 문제에 도전했던 마지막 단계였다. 강연문 초고를 보완해 출판한 직후 베버는 사망했다. 따라서 이 두 강연은 베버가 직접 감수한 마지막 문헌이며, 그래서 그의 ‘학문적 유언장’이라는 평가를 받는다(전성우, 2011b, p. 5).

베버의 소명의식과 가치자유는 자신이 체험해야 했던 깊은 번민과 갈등에 대해 스스로 내놓은 대답이었다. 정치를 바라보는 베버의 시각은 냉혹한 현실주의였다. 혼돈의 독일 사회를 이끌어 갈 대안적 리더십에 목말라 했던 그의 고민은 <직업으로서의 정치(Politik als Beruf)> 제목의 강연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는 지배 정당성의 이념형을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첫째는 과거가 가진 권위로서 과거부터 통용되어 왔고 준수되어 온 관습이나 권위에 의한 전통적 정당성이다. 둘째는 비범한 개인의 카리스마적 자질에 대한 믿음에 근거한 카리스마적 정당성으로 지도자가 가진 자질에 대해 피지배자가 순전히 개인적으로 헌신하고 신뢰하는 것이 정당성의 근거가 된다. 셋째는 합법적 정당성이다. 이것은 합법적 규약이 정하는 객관적 권한의 타당성에 대한 믿음에 의거한 지배로 복종은 법규가 규정한 의무의 수행을 의미한다. 베버는 장기적으로는 합법적 정당성이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이며, 인간은 그 과정에서 관료제라는 철장에 갇히게 될 것이라고 예견했다(Ritzer, 2002/2010, pp. 44-49). 그렇다면 하나의 통치체제로서 민주주의는 어디에서 정당성을 찾을 수 있는가? 베버의 대답은 인민주권의 원리 위에서 제정된 법에 의한 합법적 정당성이 아닌 카리스마적 정당성이었다. 베버에게 민주주의는 카리스마적 지도자가 대중에게 호소하고 대중이 그에 호응해서 그를 지지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즉 카리스마적 지도자와 이를 추종하는 대중의 열망 사이의 관계에 기초를 둔 통치체제인 것이다. 최장집(2013)에 따르면 베버는 민주주의에 어떤 과도한 기대나 이상도 갖지 않았으며, 오로지 민주주의에 기대한 것은 어떻게 한 정치공동체가 카리스마적 지도자를 배출하고 그의 유능한 리더십이 얼마나 성과를 내는 지일뿐이었다(p. 47). 베버는 민주주의를 지지했지만 그의 민주주의관은 지금도 논쟁과 비판을 불러일으킨다. 예를 들어 그가 독일이 중부 유럽을 지배해야

6. 원래 자유학생동맹은 <직업으로서의 정치>를 주제로 한 연설을 먼저 요청했으나 베버는 이를 거절하고 <직업으로서의 학문>으로 주제를 고쳐 허락했다. 그러나 베버는 학생동맹이 바이에른 혁명의 지도자였던 쿠르트 아니스나에게도 같은 제목으로 강연을 요청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마음을 바꿔 <직업으로서의 정치> 제목의 두 번째 강연을 연이어 하게 된다(김진욱(외), 2012, p. 8).

한다는 생각을 갖는 등 독일 제국주의를 지향했다는 주장이다(Allen, 2005/2010, pp. 44-47).

여기서 주목할 점은 지배 정당성의 세 가지 이념형 가운데 전통적 정당성은 근대 이전, 즉 전통사회에, 합법적 정당성은 근대 이후를 대표하는 지배 방식인데 비해, 카리스마적 정당성은 전통사회와 근대사회 모두에 속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베버는 두 사회, 즉 전통사회와 근대사회의 카리스마적 정당성을 구분하는데 결정적인 차이가 직업 정치가의 등장이었다(Max Weber, 1919/2011, pp. 21-25). 때로는 선동가이기도 하고 때로는 의회 내 정당 지도자의 모습이기도 한 정치가는 전통사회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서양의 입헌국가에서만 존재하는 새로운 인간이었고, 베버의 눈에는 민주주의의 핵심이었다. 뒤에서 상술하겠지만 베버는 이들이 소명의식을 가져야 정치와 나아가서 민주주의가 발전한다고 생각했다. 베버에게 민주주의란 소명의식에 의거한 카리스마적 지도자들의 정치적 권력 투쟁의 장이었다.

베버가 소명의식과 가치자유를 체계화한 데는 두 가지 배경이 있었다. 하나는 근대사회에 대한 그의 인식이고, 다른 하나는 당시 독일의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베버는 근대사회를 “탈주술화(세속화되고 합리화)”된 “다신론(가치질서 신들의 투쟁)” 즉, 가치들의 무한 경쟁과 투쟁으로 진단하면서 가치들 사이 우열이나 선후를 정하는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또 당시 독일은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혼돈에 빠져 있었다. 베버는 이 상황에서 정치가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신념과 그것을 이루려는 열정적 헌신, 즉 소명의식(Beruf)이며, 소명의식을 가진 정치가가 취해야 할 실천적 자세로 가치중립이나 가치배제가 아닌 가치자유(Wertfreiheit)를 제안했다.

1. 소명의식(Beruf)

1) Beruf의 의미와 중요성

베버가 〈직업으로서의 정치〉 강연을 할 당시 독일은 제1차 세계대전 패전국으로 국가적 위기 상황에 처해 있었다. 따라서 학생들이 베버를 강연에 초청한 것은 그에게서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조언이나 방안을 듣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그러나 베버는 ‘정치적 행위가 어떤 내용을 담는 것이 옳은가’와 ‘정치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학생들의 기대를 저버린다.

〈직업으로서의 정치〉 강연의 독일어 원 제목은 〈Politik als Beruf〉이다. Beruf은 사전 상으로는 세속적인 생업과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소명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포

함하고 있다. 베버는 이 둘 중 어느 의미를 선택한 것일까? 베버는 두 의미 모두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 연구자의 판단이다. 베버에게 정치가에는 정치를 생업으로 생각하며 정치에 ‘의존해서’ 사는 유형과 정치를 소명으로 생각하며 정치를 ‘위해서’ 사는 유형이 있었다. 베버는 Beruf를 통해 정치를 생업 아니면 소명으로 삼을 것인지 묻고 있는 것이다. 베버가 요구하는 소명은 가벼운 주의주장이나 책임의식이 아니다. Beruf를 선택함으로써 정치가의 소명이 하나님의 부름 또는 명령에 버금가는 무게를 가진 직업정신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베버가 소명을 처음 얘기한 것은 그의 대표적인 저작인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원 제목은 ‘Die protestantische Ethik und der ‘Geist’ des Kapitalismus’)>(Weber, 1919/2010)에서이다. 정당한 경제활동을 통해 돈을 벌고자 한 노력이 그 소득을 개인적 향락에 사용하지 않으려는 태도와 특이하게 결합되어 근대 자본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했다 것이 핵심 요지이다(강휘원, 2014; Max Weber, 1920/2010, pp. 106-107). 주목되는 점은 베버가 소명이라는 개념과 그 속에 들어있는 노동에 대한 헌신이라는 정신이 무엇으로부터 파생되었는지를 밝히는 과정이다.

베버에 따르면 소명이라는 개념은 종교개혁 당시에 비로소 나타났다. 가톨릭교에도, 고대의 정신세계에도 소명 개념은 물론 그와 비슷한 개념도 없었다. 종교개혁이 소명 개념을 도입하는데 역할을 했다면, 소명 개념을 더욱 세련되게 만든 것은 프로테스탄트 중에서도 후기에 나타난 종파들이었다. 베버는 이 종파들을 ‘금욕적 프로테스탄티즘’이라고 불렀는데 다양한 종파들 중에 특히 칼뱅교에 집중했다.⁷ 베버는 칼뱅교에서 세 가지 중요한 교리를 밝혀내는데, 첫째는 우주가 창조된 것은 신의 영광을 드높이기 위한 것이며, 둘째는 전능하신 신의 의도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으며, 셋째는 예정설을 믿는다는 점이다. 즉 단지 소수의 인간만이 영원한 은총을 받도록 선택 받았다는 것으로 이는 태어난 순간부터 주어진 돌이킬 수 없는 운명이며, 인간의 행위에 의해 달라질 수도 없는 운명이다. 인간 행위가 운명을 바꿀 수 있다면 그것은 신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교회와 세례를 통한 구원의 가능성이 송두리째 없어졌다는 것이 가톨릭과 칼뱅교를 구분시켜주는 결정적인 차이라고 베버는 보았다. 이런 교리는 칼뱅교 신도들에게 유례없는 내부적 고립감과 긴장감을 가져다주었다. 나는 과연 선택받은 존재일까? 그러나 답이 있을 수 없었다. 선택받은 자와

7 베버는 진정으로 금욕적인 프로테스탄트를 찾기 위해 후기에 나타난 프로테스탄트를 넷으로 구분하여 언급하였다. 칼뱅파(Calvinism), 감리파(Methodism), 경건파(Pietism), 침례파 운동(Baptist Movement)이었고, 연구에서는 칼뱅교의 청교도 정신에 주로 초점을 맞추어 논의하였다.

선택받지 못한 자 사이에 외형적인 차이가 없다는 칼뱅교의 교리는 종교 지도자의 조언이 중요해지는 상황을 낳았는데, 여기에 대하여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다. 첫째는 개인은 자기 자신을 선택받은 사람으로 간주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는 것으로 선택의 확실성에 대한 어떤 의심도 신앙이 불완전하다는 증거가 된다. 둘째는 열심히 세속적으로 활동을 하는 것이야말로 자기 확신을 발전시키고 유지시켜주는 가장 적절한 수단이다. 시간의 낭비는 신의 영광을 위한 노동의 손실이기 때문에 죄였다. 현실 세계에서 노동은 윤리적으로 가장 높게 평가됐다.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소명에서 헌신적으로 노동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었다. 소명은 구원을 얻는 수단이 아닌 구원에 관한 의혹을 없애주는 수단이 된 것이다(Giddens, 1971/2008, pp. 248-261).

베버는 강연에서 소명을 언급함으로써 노동에 헌신하면서도 일상 생활을 도덕적으로 이끌어감으로써 신에 대한 의무를 이행했던 칼뱅교의 삶을 당시 독일 정치가들에게 요구했다. 칼뱅교도들이 노동을 신이 주는 소명으로 생각했듯이 정치가도 시민에 대해 이에 버금가는 소명의식을 갖지 않는다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소명의식이란 무엇이어야 하는가? 그것은 한 마디로 내면에 있는 신으로서의 대의, 즉 신념과 그것에 열정적으로 헌신하는 행위이다. 다시 말해 소명의식은 신념과 그것을 이루려는 열정인 것이다. 당시 독일은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직후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처해 있었다. 이런 절망과 좌절 속에서도 소명의식을 가진 누군가가 나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외치며 독일을 위해 헌신해야 했으며, 근대 이후 새롭게 나타난 직업 정치가를 독일을 구원할 희망으로 본 것이다.

자신이 제공하려는 것에 비해 세상이 너무나 어리석고 비열하게 보일지라도 이에 좌절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말할 능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만이 정치에 대한 소명을 가지고 있습니다(Max Weber, 1919/2011, p. 140).

베버에게 “열정은 객관적 태도”였다(Max Weber, 1919/2011, p. 104). 어떻게 열정이 객관적 태도일 수 있는지 쉽게 납득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 번 칼뱅교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웹스터(Merriam Webster) 사전에 따르면 열정(passion)의 첫 번째 뜻은 “최후의 만찬과 죽음 사이에서 예수가 받은 고통(the sufferings of Christ between the night of the Last Supper and his death)”이다. “격한 감정”의 의미는 그 다음이다. 열정은 예수의 고통을 자기의 고통으로 공감하는 상태에 가까이 가고자 하는 마음이자 강력한 감정으로, 칼뱅교에서 열정은 신에 대한 강력한

믿음이 탐욕을 억제하는 금욕적 정신이었다. 즉 열정은 감정적으로 터져 나오는 충동이 아닌 엄격한 규율의 교리로서 복음에 복종하고 신을 위해 희생하는 것을 가르친다(최장집, 2013, p. 84). 따라서 베버가 말하는 열정은 신념에 대한 헌신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이성에 의해 규율 되는 심리적 상태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태도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베버는 저작 어디에서도 신념의 배제나 가치 중립이 객관적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

베버는 내면의 신, 즉 소명의 대상이 무엇이어서 하는지에 있어서는 제약을 두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든 소명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가 헌신하고자 하는 목표는 민족 또는 인류를 지향할 수도 있으며, 사회적 윤리적 또는 문화적, 현세적 또는 종교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진보-이것이 어떤 의미이든 간에 강한 믿음에 차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이런 종류의 믿음을 냉철히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하나의 이념에 헌신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으며 아니면 이념에 헌신한다는 이런 생각 자체를 원칙적으로 거부하면서 일상 생활의 외적 목표에 헌신하고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경우이든 하나의 신념이 있어야만 합니다(Max Weber, 1919/2011, pp. 108-109).

2) 신념윤리와 책임윤리 균형의 중요성

베버는 국가를 물리적 강제력 또는 폭력이라는 수단에 기초해 성립되는 인간의 인간에 대한 지배로 정의 내렸다. 국가의 여러 특성 가운데 물리적 폭력으로 국가를 정의한 것은 정치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윤리 문제를 얘기하기 위함이었고, 베버는 정치의 실천 윤리를 신념윤리와 책임윤리로 구분했다. 정치인이 물리적 폭력을 사용하는 데는 반드시 윤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베버는 소명에 충실한 그러나 평균적인 결함을 가진 정치가를 정치 이해의 중심에 놓고 있다. 정치가는 어떤 자질을 가져야 하는가? 베버는 세 가지를 제시했다. 열정, 책임감, 그리고 균형감각이다. 열정은 대의에 대한 헌신으로, 열정의 결과가 원래 의도와 다른 또는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왔더라도 열정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열정은 행위의 내적 발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열정 만으로는 '위해서' 사는 정치가가 될 수 없다. 열정은 책임의식을 일깨우고 책임의식이 행동을 주도하는 열정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균형감각이다. 균형감각은 “내적 집중과 평정 속에서 현실을 관조할 수 있는 능력, 즉 사물과 사람에 대해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다. 열정과 책임, 그리고 균형감각의 이상적인 조합이 당시 독일 사회에 만연하던 정치적 아마추어리즘을 극복하는 길이었다.

“정치에 대한 헌신은 열정에서만 태어나고 열정에서만 자양분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열정적 정치가의 특징인 강한 정신적 자기 통제력은 거리감에 익숙해짐으로서만 가능한 것이며, 이러한 정신적 자기 통제력이 그를 단순히 비창조적 흥분에만 빠져 있는 정치적 아마추어들로부터 구분하는 자질이다(Max Weber, 1919/2011, p. 105).

균형감각은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의미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내적 집중과 평정 속에서 상대는 물론 나 자신으로부터 거리를 유지하는 것은 흥분 상태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무관심이나 초연도 아니다. 흥분은 이성의 통제를 받지 않은 상태지만 무관심이나 초연은 행위의 내적 발판인 열정이 없기 때문이다. 균형감각은 둘 또는 그 이상의 적절한 안배를 의미하는 중립도 아니다. 현실 정치에서 주관적으로 볼 때 상충되는 견해들을 중재하는 것이 둘 중 어느 하나를 편드는 것만큼이나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베버는 이것은 과학적 객관성과는 어떤 식으로든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과학에서 중간 노선은 좌파나 우파의 극단적인 정파적 이상들에 비해 “머리카락 한 올 굵기만큼도 진실에 가깝지 않다”는 것이 베버의 생각이었다(Max Weber, 1904/2011, p. 41). 연구자는 베버가 말하는 균형감각은 전쟁터에서 병사가 취해야 할 사주경계와 같은 자세로 냉철함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고 해석한다. 거리감의 상실은 이런 냉철함을 잃은 상태인 것이다. 어떤 치명적 결과를 가져올지도 모를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는 정치가가 이성애 의해 통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책임하게 또는 자기 자신을 위해 권력을 행사한다면 이는 권력에 ‘의지해서’ 사는 생업 정치가의 모습인 것이다. 〈직업으로서의 학문〉 강연에서도 베버는 사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 학문을 하는데 있어 “정열 없이 하는 일이란 무가치” 하다며 열정을 강조했고, 학자가 학문을 해야 하는 이유가 “진보해야 하는 운명에 놓여있기” 때문이라며 책임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학자가 균형감각을 갖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베버는 이것을 가치자유라는 방법으로 말하고 있다.

자질(열정, 책임, 균형감각)만으로 소명을 완수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베버는 그렇게 보지 않았다. 그는 자질을 이끌어줄 윤리의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정치 행위의 윤리적 원칙을 두 가지로 나누는데 ‘신념윤리’와 ‘책임윤리’였다. 신념윤리는

종교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올바른 행동을 하고 그 결과는 신에게 맡긴다”는 원칙이고, 책임윤리는 “우리는 우리 행동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원칙이다. 만약 순수한 신념에서 나온 행위의 결과가 나쁜 것이라면, 신념윤리를 원칙으로 하는 사람은 그것은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 세상 또는 타인들의 어리석음, 아니면 인간을 그렇게 만든 신의 책임이라고 말할 것이지만, 반면에 책임윤리를 원칙으로 하는 인간은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자신에게 돌릴 것이다. 책임윤리는 행위자가 자신의 결정이 가져올 수 있는 결과를 상상하고 그가 원래 바라던 목표와 관련해 그것이 어떤 차이를 가져올 것인가를 생각하는 사려 깊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베버는 인간 행위를 네 가지 이념형으로 구분했는데, 신념윤리는 가치 합리적으로 규정된 행위, 그리고 책임윤리는 목적 합리적으로 규정된 행위와 동일한 내용이다(Max Weber, 1976/2011, pp. 237-240).

정치행위에서 신념윤리와 책임윤리 균형의 특수성은 정당한 폭력이라는 수단에서 출발한다. 폭력이라는 특수한 수단과 손을 잡는 자는 누구든지 그 수단이 가져오는 특수한 결과들에 직면하게 된다. 베버에게 국가는 정당한 또는 정당하다고 간주되는 물리적 강제력(독일어로는 ‘physische Gewaltsamkeit’인데 물리적 폭력이라는 뜻도 담고 있음)이라는 수단에 기반하여 성립되는 인간의 인간에 대한 지배 관계일 뿐이다(Max Weber, 1919/2011, p. 21). 따라서 국가가 존재하려면 피지배자는 지배 집단이 주장하는 권위에 복종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국가는 무정부상태로 빠지게 된다. 물론 강제력이 국가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수단은 절대 아니다. 그러나 베버는 국가를 그것이 가지고 있는 강제력이라는 특정 수단을 준거로 정의함으로써 근대사회로 와서 국가만이 물리적 강제력을 독점했고 물리적 강제력을 사용할 권리의 유일한 원천이 되면서 국가와 강제력의 관계가 특히 긴밀해졌음을 말하고자 했다. 친족이나 사적 조직체들의 강제력은 점점 비정상적인 수단이 되어 갔고 이들이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고자 한다면 국가가 정한 범위를 지켜야 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가의 역할은 점점 더 커지고 있었다.

정치행위는 권력 투쟁이고 정치의 과업들은 폭력이라는 수단을 통해서만 완수될 수 있는 것, 이것이 베버가 생각하는 정치의 본질이다. 따라서 권력과 폭력을 수단으로 하는 정치에 뛰어드는 사람은 “악마적 세력과 계약을 맺는 것”으로, 정치의 지고지순한 대의가 치명적인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폭력이라는 악마적 수단에 의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이 정치 권력이 경제 권력이나 문화 권력 등 다른 유형의 권력들과 차별화되는 점인데, 다른 권력들도 현실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합법적 폭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정치를 직업으로 삼겠다는 사람이면 누구나 상기한 윤리적 역설들을 자각하고 있어야 하고 또한 이 역설들의 중압감에 눌려서 자신이 변질된다면 그것은 자신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그는 모든 폭력성에 잠복해 있는 악마적 힘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다(Max Weber, 1919/2011, p. 133).

정치가는 권력을 목표로 활동하는 사람으로 권력 본능은 정치가의 지극히 정상적인 성질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정치가는 때로는 “자신들이 보통 사람들 위에 있다”는 권력감에 빠지게 된다(Max Weber, 1919/2011, p. 103). 때문에 권력감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것이 직업 정치 세계에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그것이 정치를 ‘위해서’ 사는 길이며 그 실천은 신념윤리와 책임윤리의 균형을 통해서만 가능해진다.

대안적 리더십에 목말라 했던 독일 사회에 내놓은 베버의 처방은 소명의식이었다. 소명의식이 있는 사람은 자아 내부 심연으로부터 형성된 신념을 가진 인격체로서 냉철한 안목으로 현실을 직시하고 일상을 책임윤리적으로 통일시켜 나가는 인간인 것이다.

성숙한 인간이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진정하고 그리고 온 마음으로 느끼며 책임윤리적으로 행동하다가 어느 한 지점에 와서 “이것이 나의 신념이요. 나는 이 신념과 달리는 행동할 수 없소”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비할 바 없이 감동적인 것이다(Max Weber, 1919/2011, p. 137).

그러나 신념윤리와 책임윤리의 균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인간은 자신의 신념을 유보해야 해야 하거나 모든 희망이 좌절되는 상황에 봉착할 수도 있다. 베버의 이런 주장에 대해 불가능에 가까운 엄격한 책임을 부여하면서도 의지라는 신비로운 수단 외에는 별다른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또 이런 엄격한 요구들의 실천적 결과는 오히려 내재적 갈등 때문에 고민하면서 신념을 행위로 쉽사리 옮기지 못하는 무기력한 자아로 나타날 수도 있다(김성호, 2003). 베버는 그럼에도 불가능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면 오늘의 인간 사회는 없었을 것이며, 이런 도전은 정치가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해당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3) 신념 과잉과 책임 부재에 대한 경고

〈대의〉에 대한 헌신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성을 결여한 채 순전히 개인적 자기도취를 목표로 하는 순간, 그때부터 정치가 - 직업의 신성한 정신에 대한 배반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정치영역에서는 궁극적으로는 단 두 가지 종류의 치명적 죄악이 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객관성의 결여와 -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흔히 이것과 동일한 것으로서 - 무책임성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허영심, 즉 자기 자신을 가능한 한 눈에 띄게 전면에 내세우고 싶어하는 욕구가 정치가로 하여금 위의 두 가지 죄악 가운데 하나, 또는 둘 다를 범하도록 유혹하는 가장 강력한 요소입니다(Max Weber, 1919/2011, p. 107).

신념 과잉과 책임 부재는 사리사욕 등 개인의 영달만을 생각하거나 행위의 결과를 생각하지 않은 마음에서 비롯된 흥분상태로, 베버는 신념 과잉을 “비창조적 흥분 상태”라며 경고했다. 베버는 강연 중에 여러 번 비창조적 흥분 상태는 “객관성을 결여한” 주관적인 자아도취로 “직업의 신성한 정신에 대한 배반”이자 “치명적 죄악”이라고 비판했다. 예를 들어 당시 독일 공산주의자들은 혁명을 위해서는 내전도 불사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었는데, 베버는 혁명으로 예상되는 “이런 하찮은 결과를 위해서 아직도 몇 년 더 전쟁을 하자”고 한다면 공산주의자들을 강력하게 비난했다(Max Weber, 1919/2011, p. 122).

베버가 신념 과잉과 책임 부재의 유형이나 그에 따른 문제점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당시 강연이라는 특수성과 강연 이후 급작스럽게 사망하면서 더는 이론을 발전시키지 못한 탓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신념 과잉이 언론인과 관계 속에서 어떤 문제를 파생시킬 것인가에 한정해서 논의를 진전시켜 보겠다. 언론인이 빠지기 쉬운 신념 과잉의 심리, 언론인의 신념 과잉이 초래하는 취재 대상과의 관계, 그리고 신념 과잉의 결과인 보도는 어떠한 것인가의 측면이다.

전쟁이라는 최악의 수단을 통해서라도 혁명이 그리던 삶을 추구하겠다는 당시 독일 공산주의자들의 내면은 일원주의 또는 유토피아 사상으로 볼 수 있다. 일원주의는 사람들이 좋은 삶, 덕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타인을 공평하게 대우하는데 필요한 대인관계를 구성하기 위해서 단 하나의 최선의 방법만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Schumaker, Delehanty, Kiel, & Heilke, 2008/2010, p. 87). 유토피아 사상은 단순히 더 나은 미래에 초점을 두는 정도가 아니라 완벽한 미래에 초점을 두며 모든 사회적 병폐와 인간의 결함을 구원할 길이 존재한다는 확신을 견지한다. 이 사상에

빠질 경우 구원으로 가는 길에 방해가 되는 사람이나 제도는 제거되어야 하며, 미래 세대의 유토피아를 위해 현세대가 큰 희생을 감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자신의 억압적 주장을 정당화시키곤 한다(Schumaker, et al., 2008/2010, p. 751). 이처럼 신념 과잉은 언론인 내면에서 무엇인가에 대한 맹목적 신봉이나 거부를 불러올 것이다.

신념 과잉에 빠진 언론인은 취재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신념을 옹호하기 위해 사실을 과장, 편향, 왜곡할 가능성이 크다. 적대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과도한 기획을 하고, 보도 안에는 적대적, 공격적 표현들이 자주 등장할 것이며, 반대로 유착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고도의 계산된 지지가 녹아 있을 것이다. 신념 과잉은 또 적대와 유착 대상 모두에 대해 언론인의 외로운 방관 내지 침묵을 초래할 것이다. 적대 대상이 잘하거나 유착 대상이 잘못하면 신념 과잉에 빠진 언론인은 다른 언론인들과 달리 혼자만의 판단으로 침묵의 길을 갈 것이기 때문이다. 신념 과잉은 일반 언론인 보다 탐사보도 언론인이 빠지기 쉽다. 탐사보도 언론인의 신념 과잉이 더 위험한 이유는 탐사보도가 내포하고 있는 폭력성 때문이다. 탐사보도는 수용자들의 분노를 극대화하기 위해 자극적인 폭로 방식을 선호해 왔다. 예를 들어 명예훼손을 감수하면서도 실명을 공개하고, 취재 대상을 집요하게 추적하는 자극적인 영상을 그대로 보여주기도 한다. 최근 방송 탐사보도에서 자주 등장하는 ‘앰부시’라는 취재 방법은 취재 대상에게 반론권의 기회를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취재 대상의 악함을 더욱 강조하기 위한 일종의 분노 자극 장치로 활용되는 경향까지 나타나고 있다.

4) 신념 부재와 책임 과잉에 대한 경고

비록 강연에서 상당 부분 책임윤리를 강조하지만, 그는 신념이 없는 책임의 폐해를 당시 독일 관료들을 예로 들어 경고했다. 그가 보기에 진정한 관료는 어떠한 분노나 편견도 없이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관료의 명예는 상급 관청이 그가 보기에 잘못된 명령을 고수할 경우에도 마치 그 명령이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듯이 명령을 수행하는 능력에 기초하고 있었다. 따라서 도덕적으로 지고한 품성을 가진 관료들이야말로 정치가로서는 부적절하고 무책임한 사람들이며 윤리적으로 낮은 수준의 정치가들인 것이다. 당시 독일 사회는 이런 낮은 수준의 정치가들이 지도적 위치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 베버의 생각이었다(Max Weber, 1919/2011, p. 61). 즉 베버가 진정으로 주장한 것은 두 윤리가 현실의 냉혹한 정치세계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베버의 입장에서 보면 가치를 배제하라는 객관보도는 신념 부재와 책임 과잉에 해당한다. 아마 가치배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주문할 것이다.

- 언론인이 자신의 가치를 개입하지 않고 사실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하려고 노력할 것.
- 언론인은 자신의 문화적, 종교적, 이념적 그리고 어떤 종류의 희망적 사고의 영향도 배제하고 도덕적인 문제를 사실과 뒤섞지 않으며 사실 그 자체에 접근하고 탐구할 것.

그러나 베버는 아마 이렇게 조언할 것이다.

- 언론인은 가치나 이념 없이는 취재 선택의 원칙이 있을 수 없고 개별적 현실에 대한 유의미한 인식도 있을 수 없음.
- 사실들 스스로는 절대 어떤 말도 하지 않음.
- “사실이 말하도록 한다” 또는 “가치판단 없는 사실”이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의식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감추고 있을 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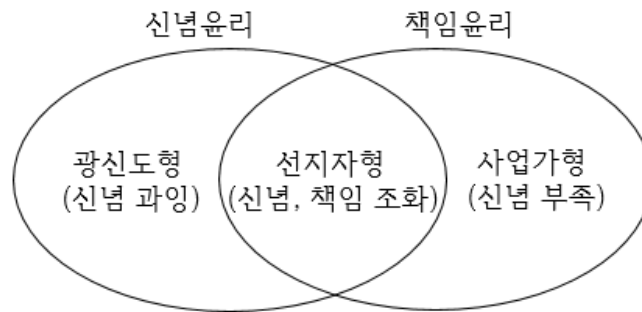
베버는 동시에 다음과 같이 신념 과잉도 경고할 것이다.

- 언론인은 이념이나 가치에 기반해 현실을 인식하되 자신의 이념이나 가치만을 절대화하지 말 것.
- 언론인의 이념이 가치를 다른 사람의 그것보다 옳다고 주장하지 말 것.

가치배제 지향의 객관보도 원칙은 탐사보도에 대해서 만큼은 실효성 없는 지침의 남발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탐사보도의 정당화가 그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에 의해서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면 과정의 정당화는 단순한 취재 수단의 정당화를 넘어 이론적, 철학적 기반의 의미도 갖고 있어야 한다. 연구자는 객관보도의 폐지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보도의 가치배제 요구가 탐사보도가 서로 맞지 않으며, 특히 객관보도를 향한 일원론적 또는 근본주의적 태도가 탐사보도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말하는 것이다.

5) 신념과 책임에 따른 언론인 구분: 광신도형, 선지자형, 사업가형

최문호와 박승관(2018)은 언론인의 삶을 <그림 1>과 같이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 바 있다. 소명의식을 바탕으로 신념윤리와 책임윤리의 조화를 추구하는 ‘선지자형’, 신념윤리와 책임윤리의 부조화 속에서 신념 과잉과 책임 부재에 빠진 ‘광신도형’, 그리고 신념 없이 언론인이라는 직업이 가져다주는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업가형’이다.



<그림 1> 신념윤리와 책임윤리에 따른 언론인 유형 구분

언론인은 견제와 공생, 협력의 범위 안에서 취재 대상과 관계를 맺어야 하며 이 선을 넘어 적대나 유착의 관계로 빠질 경우 이는 신념 과잉에 빠진 광신도의 모습이다. 그가 하는 보도는 특정 대상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반쪽자리 진실이다. 자신의 신념이 과도하게 덧입혀진 주장은 시민의 사실 인식과 이해를 그르쳐 잘못된 판단으로 이끌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갈등의 골만 깊게 해 사회를 분열과 대립으로 이끌어 갈 수 있다. 소명의식을 가진 언론인은 신념윤리와 책임윤리를 유동적으로 결합해야 한다. 즉 목적과 수단을 평가하고 도달된 목적이 수단을 정화하여 좋지 않은 부작용을 상쇄하는데 충분한 가치를 갖는가에 대하여 책임지고 반성하는 신념이다. 또한 자신이 신봉하는 신념과 전혀 다른 신념에서도 영감을 받을 수 있는 유연한 신념이다. 이 같은 신념을 가진 언론인은 선지자의 모습이다. 이런 언론인은 자신의 신념을 타인이 비판적으로 검토하게끔 허용하고, 자기와 반대되는 신념을 주장하는 사람을 논쟁에서 이기는 것만을 추구하지 않으며, 설령 자신의 신념을 수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더 나은 사회를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삼을 것이다. 언론인 중에는 신념이 없는 경우가 더 많을 수 있다. 겉으로는 신념을 내세우지만 압력에 쉽게 굴복

하고 신념이 없는 책임만 강조하는 경우로 이런 언론인은 사업가의 모습이다.

한국 언론인의 다수가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박용규 (2015)의 연구는 추정을 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그는 한국 언론인 사이에서 지사로서의 정체성이 사실상 사라졌다고 진단한다. 지사, 전문직, 그리고 노동자로서의 정체성 가운데 지사적 전통은 맥이 끊겼고, 전문직 노력은 변질됐으며 결국 남은 것은 월급쟁이로서의 정체성만 남았다는 것이다. 개화기에 잠깐 형성됐던 지사정신은 1960~70년대를 거치면서 사라졌고 민주화 이후에도 언론사들 간의 과당경쟁으로 회복되지 못했다. 오히려 최근에는 언론인이 순수하지 않은 목적으로 과도하게 현실에 개입하면서 이를 지사정신으로 포장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언론인이 전문직이 되고자 했던 노력은 1960~70년대를 거치면서는 현실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변질됐다. 이제 남은 것은 자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월급쟁이로서의 노동자만 남았다. 심하게 말하면 한국 언론인들은 자신의 주관적 신념을 표현하기 위한 무원칙한 충동에 따라 행동하거나 그나마 신념조차 형성하지 못하며 언론사라는 기계의 톱니바퀴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pp. 435-441). 지사정신은 베버의 소명의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한국 언론 현실을 베버의 시각으로 진단한다면 소명의식, 즉 지사정신의 회복이 시급한 처방이 될 것이다. 언론인을 생업이 아닌 소명으로 생각하고, 어떠한 현실적 난관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외칠 수 있는 모습이다. 어느 유형에 속하는 삶을 살지는 언론인 개인의 몫이지만, 진정한 언론인이라면 광신도를 넘어 선지자를 추구해야 하며 그 핵심에는 신념윤리와 책임윤리가 조화를 이룬 소명의식이 자리잡고 있어야 한다.

2. 가치자유(Wertfreiheit)

1) Wertfreiheit의 의미와 중요성

진정한 소명의식은 신념에 헌신하되 책임윤리에 기반해 목적과 수단 사이를 타협하고 조화시키는 과정이다. 이런 윤리적 비정합성을 순수한 근본주의자들은 수용할 수 없을 것이지만, 소명의식은 신념과 책임이라는 두 윤리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선택적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양자 사이 최적의 균형을 발견해 나가야 한다. 공동체의 이상을 실현하는 것과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 수단의 제약 사이에는 균형 그러나 언제나 유동적인 균형이 존재한다. 그 균형을 어떻게 빨리 찾아갈 수 있을까?

〈직업으로서의 정치〉 강연에서 베버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베버의 답은 그의 사회과학론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Wertfreiheit에서 찾아야 한다.

베버의 Wertfreiheit는 가치중립으로 해석되며 사회과학자들이 개인적 가치를 어떤 방식으로든 연구에 개입시켜서는 안 된다는 주장의 근거로 이용되어 왔다. 한 사회과학 조사방법론 책에는 Wertfreiheit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사회과학에서의 객관성과 중립성에 관한 고전적 진술은 ‘직업으로서의 과학(Science as a Vocation)’이라는 막스 베버의 강의이다. 이 강의에서 베버는 가치중립적 사회학(value free sociology)이라는 문구를 만들고 사회학이 사회에 특별히 공헌하고자 한다면 다른 과학처럼 개인적 가치에 의해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자유주의와 보수주의자 모두 사회과학의 ‘사실’이 자신들의 개인적 신념과 부합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Babbie, 1998/2009, pp. 107-108).

릿저(Ritzer, 1996/2010)는 미국 사회학자들이 베버를 가치중립적 사회학의 대표 주자로 간주하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연구가 가치중립이라고 주장하는데 베버를 거론하는 것이 가져오는 유용성을 안다는 것이 더 맞을 것이라고 말한다(p. 172). 급작스러운 죽음으로 베버는 자신의 사회과학론을 완성시키지 못했다. 그런 상황에서 사회학의 중심이 미국 쪽으로 이동하면서 Wertfreiheit는 베버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미국 사회의 맥락에 맞는 방식으로 채택됐다는 것이다. 당시 미국 내에 베버의 저작을 제대로 번역할 수 있는 인프라가 없었던 것도 오역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Swatos & Kivisto, 1991). 여기에 자신들의 방법론적 입장에 따라 베버를 추앙하거나 또는 비판하면서도 정작 베버가 사회과학론을 통해서 고민했던 근본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거나 소홀히 한 측면이 잘못된 이해를 더했다(박성우, 2014).

Wertfreiheit는 복잡한 개념으로 가치중립과 같은 단순한 차원으로 환원될 수 없다. 베버는 오히려 가치중립이라는 명분 아래 행해지는 행위들에 대해 “낙관적 혼합주의”라며 비판했다. 베버는 여러 정파들의 견해들을 절충하거나 비슷한 맥락들을 뽑아서 과학적 타당성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배척했는데 이는 스스로를 기만하거나 자신의 가치를 은폐하는 것으로 과학에 대한 맹목적 믿음보다 더 위험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중간노선은 극단적 주장보다 “머리카락 하나만큼도 더 진실하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Wertfreiheit를 가치중립으로 해석 및 이해하는 것은 베버의 뜻에 배치된다.

과학에서 중간노선은 좌파 또는 우파의 극단적인 당파적 이상보다 머리카락 하나만큼이라도 더 과학적 진리를 내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과학이 가진 목적이 길게 볼 때 가장 크게 침해 받는 경우란, 삶의 제반 현상들 중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과 현실을 그것이 가진 냉혹함 그대로 직시하지 않으려고 하는 바로 그런 자세가 우리를 지배하는 경우다(Max Weber, 1904/2011, p. 41).

Wertfreiheit가 가치배제는 더욱 아니다. 왜냐하면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특정하고 일면적인 관점”, 즉 가치에 의거하지 않고는 사회현상을 연구대상으로 선택할 수도, 분석할 수도, 그리고 서술적으로 분류할 수도 없다는 것이 베버의 주장이기 때문이다.

가치판단이 중국에는 어떤 특정한 이상에 바탕하고 있고, 따라서 주관적 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학적 논의의 대상에서 전적으로 배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도출될 수 있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 이러한 주장이 부당함을 거듭해서 밝힐 것이다(Max Weber, 1904/2011, p. 32).

베버가 주장한 것은 가치의 배제가 아닌 경험적 사실과 실천적 가치평가의 구분이었다. 즉 경험적 사실과 사실이 바람직하거나 바람직하지 않다는 등의 평가를 서로 구분하자는 요구이다(Max Weber, 1917/2011, p. 141). 베버는 사실과 가치의 구분을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뚜렷한 현실을 뜻하며, 가치는 누군가에게는 소중하지만 이것은 사실로 존재할 수 없는 영역이다. 예를 들어 한미 FTA 조약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가지고 있는 폐단이 많기에 이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가치이다(류성희, 2011).

베버는 자신의 사회과학론 저작들에서 가치판단(Wertungen)을 “현상에 대해 그것이 바람직한지 또는 바람직하지 않는지 여부를 두고 내려지는 실천적 평가”라고 정의하면서도 여기에 한 가지 의미를 추가해 실제로는 가치판단을 두 가지 의미로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다. 하나는 개별 또는 그 이상의 가치들에 대한 상대적인 평가를 뜻하는 가치평가(Wertung) 행위이며, 다른 하나는 현실을 가치 쪽으로 끌어와서 현실과 가치를 관련시키는 가치연관(Wertbeziehung) 행위이다. 베버는 첫 번째 가치판단 행위, 즉 가치평가를 단호히 배격했으며, 그가 가치판단 배제를 얘기할 때 배제 대상은 가치평가 행위이다. 반대로 두 번째 가치판단 행위, 즉 가치연관은 그의 사회과학론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데 적극적인 가치연관과 가치에 대한 활발한 토론을 통해

학문이 진보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최치원, 2014). 따라서 베버의 사회과학론에 들어 있는 주장들을 고려하면 Wertfreiheit는 ‘가치판단으로부터 자유’ 또는 ‘가치판단 자유’, 그리고 용어의 간명성을 위한다면 줄여서 ‘가치자유’로 해석하고 표현함이 베버의 의도에 가장 부합하는 것이다.

2) 가치자유: 가치평가, 가치연관, 가치토론

(1) 가치평가

가치자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베버의 사회관에 대한 선이해가 필요하다. 그의 사회과학론의 논리적 근원이자 동시에 논리적 귀결인 사회관은 한 마디로 인간 세계란 가치 질서들 간의 화해의 여지가 없는 투쟁 상태인 “절대적 다신주의” 사회라는 것이다(Max Weber, 1917/2011, p. 151). 절대적 다신주의 사회에서는 아무리 잘 정돈된 도식을 통해서도 가치 사이 투쟁은 조정되는 것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가치들 간의 관계는 대안 관계가 아니라 사생결단적 투쟁의 관계, 마치 신과 악마 간의 투쟁과 같기 때문이다. 우리를 움직이는 최고의 가치들은 다른 가치들과 투쟁하는 가운데서만 실현되며, 우리의 가치가 우리에게 성스럽듯이 다른 가치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이 성스러운 시대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가치들 간에는 상대화도, 타협도 있을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투쟁에 결말을 가져오는 것은 과학이 아니라 운명이고, 운명을 “얘기하는 사람은 구세주나 예언자뿐”이라는 것이 베버의 시각이었다(Max Weber, 1919/2012, p. 70).

결국 경험적 사실 확인과 규범적 또는 실천적 평가는 확실히 구별되어야 하며,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은 사회과학이 아니라 예를 들어 정치나 철학의 영역에 속하는 일이 되는 것이다. 한 마디로 어떤 머리 색을 더 선호해야 하는지를 사회과학은 제시할 수 없는 것이다.

프랑스의 문화와 독일의 문화를 비교하여 학문적으로 그 가치의 고하를 결정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나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점에서도 신들은 서로 다투고 있고 더욱이 이는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Max Weber, 1919/2012, pp. 58-59).

정치나 철학은 과학의 경계를 넘어서 가치를 평가하고 그들 사이의 관계를 규명할 수 있으며, 따라서 가치들이 차지할 위치도 지정할 수 있고 또는 가치가 가지는

의미의 타당성도 제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과학은 누구에게도 당위적으로, 도덕적으로 또는 규범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가르칠 수 없으며, 단지 그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경우에 따라서는 무엇을 원하는지를 가르쳐줄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이 베버의 주장이다. 다음 <표 1>의 사례들은 사회과학이 할 수 있는 한계들을 예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표 1> 과학의 사실 확인과 철학의 당위적 판단 구분

사실 확인	당위적 판단
하나의 구체적 사실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의 구체적인 상황에서 실천적으로 무엇을 당위적으로 해야만 하는지
왜 이 구체적 상황이 다른 모습이 아니라 지금과 같은 모습을 띠게 되었는지	어떤 관점 하에서 이 상황이 바람직한 것으로 또는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지
하나의 주어진 상황 A에 다른 하나의 상황 B가 실제적 행위 규칙에 따라 그리고 얼마만큼의 가능성을 가지고 통상적으로 따라 일어나는지	이들 관점들을 귀속시킬 수 있는 보편적 진술이 가능한 명제가 있는지
하나의 구체적으로 주어진 실제적 상황이 어떤 방향으로 또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가지고 이 방향으로 장래 발전할 것인지	하나의 구체적 상황이 하나의 특정한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하는 데 기여해야만 하는지
특정한 인간들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또는 불특정한 다수가 같은 상황에서 한 특정한 문제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아마도 형성하게 될 것인지	아마도 또는 형성될 이 견해가 옳은지

주) Max Weber, 1917/2011, pp. 153-154

<표 1>에서 보듯이 베버는 사실과 가치의 구분을 통해 가치에 대한 진정한 지식이 불가능하며 사실의 영역에서나마 과학적 지식을 보존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가치에 대한 지식의 가능성을 부정하는데 이유는 서로 갈등하는 가치들 간의 화해불가능성 때문이다. 사실과 가치의 이질성 때문이 아니라 다양한 가치들 간의 갈등이 화해할 수 없는 전쟁 상태이기 때문이다. 베버는 적어도 사실 영역에서의 과학적 지식은 인간에게 인간의 조건에 대한 명료성을 더해 준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지닌다고 주장했다. 사회 현상에 대한 지식을 제공해 주는 사회과학은 주어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을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료성을 높여준다. 베버는 이러한 명료성이 적어도 행위자가 어떤 판단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하는 의미를 제공한다고 말했다(박성우, 2014).

(2) 가치연관

가치평가가 사회과학이 할 일이 아니라면 사회과학자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가치평가가 과학적 분석을 통해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주장이 과학에서 모든 가치 관련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베버는 가치중립적 사회과학이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다(전성우, 2011a, p. 13). 베버에게 역사는 끊임없는 구체적인 현상들로 이루어져 있는 절대적 무한성이다. 이런 무한성 속에서 현상들이 가진 문화의 의미를 인식하고자 노력하는 분야를 그는 문화과학이라고 불렀다. 이때 문화의 의미는 현상이 법칙이 아닌 개인의 가치와 연관됨으로써 비로소 생겨난다. 따라서 “문화 개념은 가치 개념이다”(Max Weber, 1904/2011, p. 69). 끊임없이 이어지는 현상들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가치와 연관 짓는 순간부터 현상은 우리에게 문화가 되고 문화의 의미가 생겨나는 것이다. 현상은 우리에게 알 가치가 있고 의미를 가지는 것이 확정된 뒤에야 연구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현실을 가치에 연관시키는 과정”으로의 이 같은 가치연관은 경험적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의 선별과 구성을 지배하는 것이다(Max Weber, 1917/2011, p. 156).

베버는 가치를 연관 짓는 것의 토대로서 가치판단과 가치를 평가하는 것의 토대로서 가치판단을 날카롭게 구분했으며 전자의 가치연관이 문화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가치연관은 그래서 세상사의 절대적 무한성 가운데 인간의 가치를 통해 중요성이 부여된 유한한 단면을 찾아내는 작업이다. 문화의 의미가 부여된 모든 역사적 개체들은 불가피하게 가치에 근거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만 학문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베버의 입장을 오늘의 사회과학 용어로 살펴본다면, 연구대상 자체가 가치에 의해 결정되며, 연구대상이 결정된 후에는 분석 수준에서 그것과 관련된 모든 것을 검토할 수는 없기 때문에 무엇을 중요한 변수로 검토할 것인가 또한 가치에 의존하여 결정될 수밖에 없게 되는 등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점이 연구의 대상과 변수의 선택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김용학 & 장덕진, 1991, p. 57).

(3) 가치토론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것을 원할 때 그것이 가진 고유 가치 자체 때문에 원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다른 목적에 적절한 수단이 기 때문에 원할 수도 있다. 여기서 과학적 고찰이 할 수 있는 것은 주어진 목적에 대한 수단의 적합성 문제이다. 목적에 대한 수단의 적합성 검토에서 과학이 할 수 있는 것은 첫째, 목적을 달성하는 데 그것을 위한 수단이 적합한지 타당성을 판단한다. 둘째, 주어진 여건, 수단에 견주어 목적의 실현가능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셋째, 목적이 실현 가능하다면 수단의 실행에 따른 부수적 결과를 추정한다. 따라서 과학이 최종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의 한계는 행위자가 자신의 이상과 목적을 스스로 비판적으로 평가하도록 가르치는 것이며, 행위자로 하여금 자신의 욕구에 달려 있는 궁극적 공리에 대해 자기 성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이해하면서 설명”하는 노력이다. 이는 특정 현상에 대해 사후적인 의미에서 판단하지 말고 행위 그 자체에 내재한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여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해적 설명은 인간 행위의 진정한 궁극적 동기를 규명하기 위해 행위를 경험적으로, 인과적으로 분석하며 만약 자신과는 다른 가치판단을 내리는 사람과 토론할 경우 상대방의 진정한 가치판단 입장이 무엇인지 규명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이를 통해 가치 간의 토론인 가치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상대방이 또는 자기 자신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두 당사자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비로소 가치에 대한 입장표명을 가능하게 하자는 것이 가치토론의 진정한 목적이다. 가치판단의 의미들에 대한 상호 인식이 토론의 바탕이 되는 것이다(Max Weber, 1917/2011, p. 145).

베버는 가치평가를 학문의 영역에서 배제할 것을 주장했지만 가치연관과 가치토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가치평가 문제를 다시 학문의 영역으로 끌어 들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가치자유는 가치판단에 대해 자유스럽게 논의하라는 것이지 가치판단을 하지 말라는 요구가 아닌 것이다(최치원, 2014). 가치에서 벗어나거나 비켜서 있을 때 가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치에 헌신적으로 달려들어 자신의 의지를 실현시킬 수 있을 때 비로소 가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류성희, 2011). 비록 이를 통해 도달하는 결론이 영원한 것이 없는 “존재 판단들의 혼돈”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해한다는 것이 반드시 용서나 수용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이다. 가치토론의 끝은 우리가 합의를 보지 못하는 무엇인가에 대한 인식일 가능성이 더 크다.

베버는 제한적인 가치평가가 허용되는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이 부분이 그의 가치 이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지만 그럼에도 연구자가 전제조건에 주목한 이유는 불가피하게 가치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경우를 대비해 내놓은 베버의 처방이 탐사보도에도 적절한 조언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베버의 주장은 한마디로 약점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평가를 하자는 것이다. 그는 ‘객관성’ 논문과 ‘가치자유’ 논문에서 가치평가가 허용될 수 있는 전제조건으로 세 가지를 제시했다(Max Weber, 1917/2011, p. 136; 1904/2011, pp. 44-45). 첫째, 지극히 상이한 가치들을 부정확하게 혼합시킴으로써 가치들 간에 존재하는 갈등 관계를 은폐하여 모두를 만족시키려 하지 말고 자신이 현실을 가늠하고 또 가치평가에 이른 기준이 어떤 것인지를 독자와 스스로에게 명확히 밝혀야 한다. 베버는 가치평가의 순수성이 담보된다면 이런 가치판단은 무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유용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가치중립은 사회과학론 전반에서 줄기차게 비판받고 있다. 중립성과 진실은 아무 관련이 없으며 오히려 중립성이 자기기만이거나 진실을 은폐하는 수단일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불가피하게 가치평가를 내릴 경우 상대방은 물론 자기 자신에게도 자신의 서술 중 무엇이 논리적으로 규명된 것이고, 경험적인 사실 확인이며, 가치평가인지 등을 엄격히 밝혀야 한다. 사실의 확인과 당위적 판단을 혼합시키는 것은 선동가들이 하는 행위의 특성이다. 마지막으로 모든 정파적 가치판단이 주저 없이 주장될 수 있을 때에 허용될 수 있다. 주장의 허용 대상에는 극단주의자도 포함될 수 있는데 때로는 “극단적인 회의가 새로운 인식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베버의 가치이론에 대해 근본적인 가치의 존재나 가치 간 위계적 질서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서 인간의 행위에 지침이 될 참된 개념을 전개시키거나 가르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예를 들어 스트라우스(Leo Straus)는 베버가 자신이 이해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결코 설명하지 않은 채 그저 가치와 사실의 절대적 이질성을 전제함으로써 특정 사실로부터 그 사실이 갖는 가치적 특성도 그리고 반대로 가치 있는 혹은 바람직한 어떤 것으로부터 그것의 사실적 특성도 추론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또 베버는 참된 가치 시스템의 존재를 부정하고 갈등하고 있는 가치 혹은 동등한 지위를 갖는 다양한 가치만을 인정할 뿐 이러한 갈등이 인간의 이성애 의해 해결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베버의 제자이기도 했던 루카치(Georg Lucacs)는 “엄격한 가치자유”란 “진실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도달했던 비합리주의의 최고 단계”라고 비판했다(최치원, 2014, pp. 62-63 재인용). 최치원(2014)은 이에 대해 세계를 이해하는 여러 다른 지평이 있다는 것 그리고 각각의 지평은 그 나름의 고유의 존엄성 혹은 내재적 고유성이 있다는 베버의 생각을 전혀 고려하고 않은 것이라고 반박한다. 박성우(2014)는 베버의 사회

과학론을 심도 있게 해부한 스트라우스 주장을 판단하는 데는 정치철학자로서 현대 정치에서 정치철학의 쇠퇴를 한탄하고 정치철학의 재정립을 자신의 학문적 목표로 삼고 있었던 스트라우스의 입장이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즉 사실과 가치를 구분하고 가치의 영역에서는 과학적 지식이 불가능하다는 베버의 선언은 스트라우스에게는 정치철학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나아가 부정으로 받아 들어졌고 베버의 가치이론에 대한 비판이 정치철학의 존재 근거를 회복하는 데 필수적인 작업이었다는 것이다.

종합하면 첫째, 베버의 가치자유를 가치중립이나 가치배제로 이해하는 것은 베버의 사회과학론에 대한 잘못된 이해이다. 즉 가치자유는 가치 문제에 관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둘째, 베버는 오히려 가치평가를 제외한 적극적인 가치판단을 권유했고 그 핵심에는 가치연관과 가치토론이 있다. 그는 또 가치평가를 완전 금지한 것도 아니었다. 전제조건이 충족된다면 제한적인 가치평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특히 그가 가치평가를 배제한 것은 사회과학 내에서의 경우이지 정치나 철학 등 분야에서의 가치평가를 금지한 것은 아니다. 셋째, 베버는 학문의 이름으로 개입해 중재하거나 타협하는 것을 비판했다. 중립성은 사회과학적 객관성이나 냉철함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제 3 절 소명의식과 가치자유에 따른 보도 유형 대비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언론보도를 <표 2>와 같이 정파보도, 객관보도, 그리고 탐사보도로 구분했다. 우선 직업정신은 언론인이라는 직업 수행에 있어 핵심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무엇인지이다. 핵심은 소명의식이나 이념 또는 가치일 수도 있으며 반대로 무엇을 강력히 거부하는 것일 수도 있다. 실천 윤리는 신념에 헌신하는 열정의 원칙으로 신념의 실천을 강조하는 신념윤리와 실천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포함하는 책임윤리로 구분한다. 가치 실천은 신념윤리와 책임윤리의 균형 여부에 따라 가치함몰과 가치배제, 그리고 가치자유로 구분한다. 가치 실천은 베버의 가치자유 이론을 원용해 세 가지 차원으로 다시 나뉘는데 가치연관과 가치토론, 그리고 가치평가로 세분화된다. 가치연관은 취재 대상의 선정과 취재 목적의 설정에 해당한다. 가치토론은 취재 수단을 결정한 뒤 목적과 수단을 저울질하며 혹시 뒤따를 부수적 결과를 검토하는 과정이다. 예를 들어 취재윤리 위반 여부이다. 마지막으로 가치평가는 언론인이 자신의 직업정신을 절대화하는지 여부이다. 보도 특성은 위의 과정을 거친 보도가 어떤 정치적 성향을 보일 것인지이다. 수용자 기반은 해당 언론 보도가 어떤 수용자를 재정적 기반으로 하는지이다. 이후 신념윤리와 책임윤리에 따른 <표 1>의 언론인 유형을 결합했다.

1. 정파보도

우선 정파보도는 특정 이념이나 가치 등을 고집하며 이를 통해 추구하는 목표는 정파성이다. 책임윤리가 부재한 상황에서 신념윤리 만을 고집하는 경우로, 정파보도는 탐사보도 언론인이 소명을 실천하는데 있어서 경계해야 할 위험이다. 탐사보도가 소명의 실천 측면에서 신념윤리와 책임윤리의 균형, 즉 가치자유라면, 정파보도는 신념 과잉과 책임 부재, 즉 가치함몰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가치함몰은 객관성을 결여한 무책임성으로 비창조적 흥분 상태일 뿐만 아니라 직업에 대한 배신이기도하다.

탐사보도 언론인이 늘 경계해야 할 위험이 가치함몰이다. 이는 세상 일에 초연하거나 무관심한 언론인에게는 없는 위험이기도 하다. 가치연관에서 보면, 가치함몰에 빠진 언론인은 흥분이나 분노의 상태에서 자신의 이념이나 가치와 반대되는 인물이나 세력을 취재 대상으로 선정하고 정파적 이익을 취재 목적으로 설정할 가능성이 높다. 취재 대상은 견제가 아닌 사라져야 할 적대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가치토론 측면에서 보면, 광신도형의 이런 언론인은 취재 과정에서 순환적인 반성을 하지 않고 본인이 선택한 취재 방법만이 유일한 방안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신념의 관철이라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시킨다고 믿으며 취재윤리의 준수는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 그 결과 보도에서는 사실을 과장하거나 편향되게 해석하고, 왜곡할 위험성이 있다. 또한 자신이 추구하는 이념이나 가치를 절대시하면서 다른 사람의 그것들을 평가절하하는 가치 평가를 적극적으로 실천할 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친 보도는 결과적으로 개별 또는 총합으로 볼 때 정파성을 보일 것이다.

그렇다고 언론인이 이념이나 가치를 갖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스스로 인지하지 못할 수는 있어도 이념이나 가치가 없는 사람이 없듯이 언론인도 이념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소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핵심은 이념이나 가치가 가치자유와 가치함몰 중 어느 과정을 거치는 가이다. 가치자유를 거친 이념이나 가치는 이념성으로 탐사보도의 한 부분이지만 가치함몰을 거친 이념이나 가치는 탐사보도가 아닌 정파보도이다. 예를 들어 국가에서 정부를 ‘자본 계급의 집행위원회’로 보는 진보적 시각의 언론인은 경제적 이익집단이 선거에서 선출된 공직자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문제에 대해 이념에 근거해 정밀하게 취재하고 보도할 수 있다면 이것은 결점이 아니라 언론에 유용한 자산일 것이다. 다양한 이념이나 가치에 따른 이 같은 과정의 반복을 통해 실제 권력 분포에 대한 다양한 경쟁 가설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공동체 내의 권력 분포 등에 대한 정확하고 타당한 서술과 설명이 가능해진다고 할 수 있다(Schumaker, et al.,

2008/2010, pp. 66-67).

이념성과 정파성은 구분되어야 한다. 이념성은 ‘공공 사안에 대해 보도가 보이는 상대적으로 일관된 입장과 태도’인 반면에, 정파성은 이념성의 한계를 넘어 ‘특정 정파와 유착해 그 이익을 대변하거나 유리하게 보도하고 다른 정파를 적대시하거나 공격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언론과 정부와의 관계를 적대 - 견제 - 중립 - 협력 - 유착으로 나눈다면 탐사보도는 어떤 단계에서 이루어 져야 할까? 탐사보도는 혁명이 아닌 개혁을 추구한다. 때문에 선거를 통해 집권한 정부를 없애져야 할 적으로 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탐사보도도 민주주의 제도 안에서 작동하는 것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한 정부를 부정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본을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언론이 정부와 유착하면 정부에 대한 탐사보도는 불가능해진다. 때문에 탐사보도는 견제와 중립, 협력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선을 넘어 적대나 유착의 관계에서 이뤄지는 탐사보도는 정부나 정부의 반대편에 있는 특정 정파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반쪽자리 진실을 가능성이 높다(우병동, 2005; 최영재, 2005).

〈표 2〉 소명의식과 가치 실천에 기반한 언론보도 대비

보도 유형		정파보도	객관보도	탐사보도
직업정신		이념, 가치	전문직	소명의식
실천 윤리		신념윤리>책임윤리	신념윤리<책임윤리	신념윤리+책임윤리
가치 실천		함몰	배제	자유
가치연관	취재 대상	반대 인물/세력	주요 인물/세력	성역 없음
	취재 목적	정파적 이익	사실의 전달	진실과 변화
가치토론	취재 수단	적대(적대적 공격)	거리(소극적 동향)	견제(적극적 기획)
	목적의 실현가능성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	목적보다 수단의 정당성 중시	목적과 수단의 적합성 검증
	부수적 결과	취재윤리 경계를 벗어남	취재윤리 안에 머무름	취재윤리 경계를 넘나들
가치평가	신념의 절대화	적극	금지	제한
보도 특성		정파성	사실성, 중립성	이념성
수용자 기반		정파성, 이념성	중도	개혁성, 이념성
언론인 유형		광신도	사업가	선지자

정파보도는 의견의 표현과 확산을 방해하고 왜곡하는 행위로 시민의 사실 인식과 이해를 그르쳐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사회를 분열과 대립으로 이끌어 갈 수 있다. 그러나 정파성을 경계한 나머지 탐사보도의 이념성마저 정파성에 포함시켜 매도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과거 황색보도를 비판하면서 탐사보도까지 포함시켜 탐사보도의 위축을 가져온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이념성과 정파성은 구분되어야 하며 이를 안일하게 혼동할 경우 탐사보도의 근간을 흔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언론인은 신념윤리를 넘어 책임윤리에 충실해야 한다. 언론인은 자신의 일터에서 가치함몰에서 벗어나 가치자유를 실천해야 한다. 가치함몰에 빠져 정파보도가 불가피하게 요청되거나 정당화된다고 믿는 언론인이 있다면, 그는 더 이상 탐사보도 언론인이 아니다.

2. 객관보도

객관보도는 소명이나 이념이 아닌 언론인 개인의 전문직 의식을 직업정신의 핵심에 위치시킨다. 보도 목표는 객관성으로, 윤리적으로는 신념의 부재 속에서 책임을 강조한다. 소명의식이 없는 경우 언론인은 자기 자신 외 세상 돌아가는 일에는 초연하거나 무관심할 가능성이 높다. 세상 일에 만족하면서 또는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적응해 갈 것이기 때문이다.

가치연관에서 보면, 언론인의 가치배제를 주장하는 객관보도는 이슈가 되는 주요 인물이나 세력에 대한 사실의 전달에 치중한다. 가치토론에서 보면,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한 취재 과정에서 객관화된 절차나 규범적 원칙의 준수 등 취재 수단의 정당성 확보를 중요시 할 것이다. 객관보도를 중시하는 언론인이 취재윤리의 한계를 벗어날 가능성은 낮다. 앞서 신념과 책임윤리의 조화 여부를 기준으로 구분한 언론인 유형에서 사업가형이 여기에 속하며 이들의 보도는 결과적으로 사실성이나 중립성의 특징을 보일 것이다. 가치평가는 거의 하지 않을 것이다. 소명의식과 가치자유 관점에서 보면 이런 언론인들을 탐사보도 언론인으로서는 부적합한 사람들이다. 언론인이라는 직업을 경제적 소득원으로 삼으며 시민을 ‘위해서’가 아닌 시민에 ‘의지해서’사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들도 탐사보도를 할 수는 있지만 빈도 등에서 간헐적일 가능성이 높다.

대신 객관보도가 추구하는 사실에 대한 존중과 과학적 엄밀성은 언론인의 가치함몰을 방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객관보도를 지나치게 교조적으로 또는 규범적

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경계해야 하지만 객관보도의 사실에 대한 존중과 과학적 엄밀성에 대한 추구는 가치자유에서도 가장 중요한 실천이기 때문이다.

탐사보도가 언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처방이 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형식적 사실주의, 기계적 균형과 같은 객관보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언론이 사회 정의를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실천의 한 방법이라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탐사보도를 정의하면서 객관보도와 차별화를 강조한 경우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설진아(2009)는 탐사보도를 “극단적인 객관보도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뉴스원이나 보도 대상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인 시각과 관점에서 사실을 파고들어 정확하게 보도하는 양식의 프로그램”으로 정의한다. 스파크(Spark, 2012)도 탐사보도와 객관보도의 차이를 강조한다. 탐사보도는 주장과 반론을 넘어서 주장을 증명하거나 반증하는 것을 추구해야 한다(p. 4). 핵심은 관여로 언론인은 진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주장의 여러 측면들을 불편부당하게 제시하는 것을 넘어서야 하기 때문에 탐사보도는 객관보도와 구별된다. 탐사보도는 주장과 대답 사이의 불편부당한 균형이 아니다. 그것은 새로 드러난 사실들에 대한 판단을 표현하는 것이다(p. 2).

미국의 경우 객관보도는 끊임없이 도전받고, 수정되고, 보호받아 오면서 진화해 왔다. 우선 사건이나 문제에 대해 중립을 지키면서 상반된 측면이나 주장을 똑같이 다루는 단순 객관성(mere objectivity)은 오히려 현실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원리주의적 중립성으로서 객관보도의 폐해가 지적되고 있다(Pippert, 1989). 터크만(Tuchman, 1972)은 언론인들이 객관성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의례(ritual)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사용되는 전략은 당사자의 주장을 동시에 보도하거나, 자기 자신의 의견을 인용문 형식을 통해 전달하거나, 중요도나 재미를 기준으로 사건을 배열하는 방법들이었다. 헬린(Hallin, 1986)은 베트남 전쟁에 대한 미국 TV 뉴스를 분석하면서 객관보도가 이슈의 정치적 기구나 엘리트들의 의견 일치 정도에 따라 주창자나 관찰자, 또는 적대자 등의 여러 얼굴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틀린과 프랑켈(Gitlin & Frankel, 1980)은 언론인들이 객관보도의 그늘 아래에서 근로자 계층이나 소수 인종 집단의 목소리에 둔감해지도록 훈련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객관보도 원칙은 1996년 미국기자협회 윤리 규정에서 삭제되고 대신 진실, 정확성, 포괄성 등으로 대체됐다(Bennett, 2002/2009, p. 400).

그러나 한국에서는 객관보도는 여전히 한국 언론을 지배하는 이데올로기로 방법이자 동시에 목표로 기능하고 있다. 객관보도는 공정성, 중립성, 불편부당성 등과 혼용되면서 강력한 규범으로 한국 언론에 자리잡았고 그 중심에는 가치배제의 주장이 있어 보인다. 다음은 언론학 관련 저서에 나오는 한 대목이다.

객관보도가 사실을 사실대로 알리는 데 있어서 주관주의에 비해 효율적이며 안정적이라는 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사실을 사실대로 알리는 데 효율적이고 안정적이라면, ... 객관주의는 공적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는 저널리즘이 가장 기본적으로 선결해야 할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김민환, 2007, p. 103).

더 큰 문제는 한국 언론의 경우 객관보도도 제대로 이해하지도, 실천하지도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김영옥(2011, p. 198)은 한국 언론의 객관보도를 성찰 없는 객관보도라고 비판한다. 미국에서 언론의 폐해와 인간 인식의 한계에 대한 성찰로 객관보도가 도입되었다면, 한국에서는 이러한 성찰 없이 언론자유가 제약된 상황에서 상업적 이익 추구를 위해 객관보도가 도입됐다는 것이다. 한국 언론의 객관보도는 거짓과 편파, 왜곡된 뉴스를 진실하고 공정한 것처럼 내보이기 위한 치장이었다는 비판도 나온다(송정민, 1996). 객관보도의 핵심 가치를 자체적으로 구축하지 못한 채 객관보도의 형식적 관행만 파상적으로 실천해 왔다는 비판도 있다(김경모 & 신의경, 2013). 사건사고에서 위험의 정도나 피해의 발생보다는 정부의 행정적 이벤트가 있을 때 보도량이 증가하는 행태는 객관보도의 대표적인 얼굴 중 하나이기도 하다(박성철 & 이덕환, 2013). 김사승(2008)은 객관성과 중립성을 고집하면서 언론인이 관찰자나 전달자의 역할을 고수하게 되고, 이것이 시민과 괴리되는 분리주의적 보도를 초래한다고 지적한다(pp. 12-14).

이 지점에서 어쩌면 오늘날 한국 언론에 가장 긴급하게 요청되는 언론인은 우선 정파보도에서 벗어나 사실에 대한 존중과 과학적 엄밀성을 핵심으로 하는 객관보도를 추구한 뒤, 궁극적으로는 객관보도의 한계까지 넘어서면서 가치자유를 실천하는 언론인이라는 박승관(2017, p. 49-50)의 지적은 한국 언론 현실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미국에서 객관보도가 이전 단계에서 미국 언론을 장악하였던 정파보도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모색, 정착되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한국 언론은 정파보도를 극복함으로써 객관보도로 이동해 가는 것에 머물지 말고 가치자유 언론으로 질적 도약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3. 탐사보도

탐사보도 언론인이 추구하는 독립적 자유언론은 정파보도를 벗어나고, 교조적 객관보도도 극복해야 이루어질 수 있다. 탐사보도는 언론인의 직업정신의 핵심에 소명

의식을 위치시켜 놓는다. 탐사보도 역사에서 세상을 바꾸는데 기여했거나 탐사보도 전문가라고 평가받는 언론인은 대부분 그것이 무엇이든 소명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탐사보도 모형은 소명의식을 탐사보도 언론인이 갖추어야 할 필수조건으로 평가한다.

소명의식은 내면에 있는 신으로서의 대의, 즉 신념과 그것에 열정적으로 헌신하는 행위로, 신념과 그것을 이루려는 열정이다. 중요한 것은 대상이 무엇이든 소명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역사에 기록되는 탐사보도를 남긴 언론인들의 경우 가치나 이념에 대한 신념이 강했다는 점에서 이념이나 가치 등도 소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소명은 단순한 이념이나 가치 측면을 넘어 직업적으로 구현해야 할 윤리를 포함해야 하며 그럴 때만이 신념윤리를 넘어 책임윤리의 구현이 가능해진다고 할 수 있다. 교사의 소명이 이념이나 가치가 될 수도 있지만 일 자체, 즉 잘 가르치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하며, 택시운전사의 경우 마찬가지로 승객의 안전이 이념이나 가치에 앞서 소명의 기본이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탐사보도가 추구하는 목표는 진실 보도를 통한 변화이다. 이를 위해 윤리적으로는 신념윤리와 책임윤리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자신의 결정이 가져올 수 있는 결과를 상상하고 원래 바라던 목표와 어떤 차이가 생기는지를 생각하는 사려 깊음을 의미하는 책임윤리의 구현은 가치자유를 통해서 이뤄질 수 있다. 신념윤리와 책임윤리의 조화와 균형, 그리고 책임윤리를 가능케 하는 지적 기반으로 가치자유이다.

가치연관에서 볼 때, 탐사보도의 취재 대상에는 성역이 없어야 한다. 정치권력이나 자본권력 등 어떤 인물이나 세력으로부터도 독립적이어야 하며 어떤 정파와 유착해서도 안 된다. 동시에 탐사보도는 특정 정파와 유착하지 않은다면 언론인의 이념이나 가치를 포함한 소명의식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 또는 권장한다. 가치토론에서 보면, 탐사보도는 취재 수단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취재 목적의 실현가능성을 재평가한 뒤 취재 수단과 취재 목적 사이 어울림이 있다면 혹시 뒤따를 부수적 피해를 차단하거나 최소화해야 한다. 언론인은 소명의 실천을 위해 취재윤리가 허용하는 최대치까지 집요하게 파고 들거나 윤리의 경계를 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역사적으로 탐사보도 언론인들은 집요한 취재를 통해 기존에 정해진 취재윤리의 경계를 확대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탐사보도에서 가치토론은 수단과 목적을 평가하고 목적이 부작용을 상쇄하기에 충분한 의미를 갖는지를 책임지려는 반성의 연속이다. 탐사보도에서 윤리적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해 줄 만한 해결책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가치토론은 대안으로 수단과 목적 사이의 연결 관계에 중점을 둔다. 가치토론은 탐사보도의 윤리적 문제는 보도가 진행되는 중에 물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입장이다. 사후약방문 식의 윤리를 가치토론은 반대한다. 소명의식과

가치자유에 충실한 언론인은 선지자형의 모습이다. 다만 연구자는 탐사보도의 가치평가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현재로서는 유보한다. 베버는 과학의 가치평가를 배제했지만 철학이나 정치 등의 가치평가를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연구자는 언론의 역할이 철학이나 정치의 영역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사회적, 학문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물론 현실적으로 한국 언론 전반에서 가치평가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그런 현실이 탐사보도의 가치평가를 저절로 정당화시켜주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소명의식과 가치자유의 과정을 거친 탐사보도는 결과적으로 개별 또는 총합으로 볼 때 이념적일 가능성이 높다. 탐사보도의 이념성으로 미국의 경우 탐사보도 언론인들은 대부분 진보 성향으로 보수 성향으로는 <뉴욕타임스>의 윌리엄 사파이어(William Safire)가 유일하게 뽑힐 정도이다. 탐사보도 언론인들은 개혁을 추진하는, 사회적, 경제적 소수자를 돕는, 그리고 끊임없이 사회 정의를 추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이슈들은 전통적으로 진보 이념과 가치 영역에 속해 있었다(Hamill, 2003).

다만 탐사보도와 정파보도는 외형적으로는 비슷하게 보일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결과물인 보도가 특정 입장을 표명했을 경우 그것을 탐사보도의 이념성과 정파보도의 정파성으로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힘든 일이다. 이념이나 가치가 가치자유와 가치함몰 중 어느 과정을 거쳤는지는 어쩌면 언론인 본인만이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서 정파보도에서도 언급했듯이 직업정신, 목표, 윤리, 가치와 실천 등 모든 측면에서 탐사보도의 이념성과 정파보도의 정파성은 다르며 구별되어야 한다.

영국 BBC의 마크 델리(Mark Daly) 기자의 예를 들어 탐사보도의 가치자유의 실천 과정을 살펴보자. 그는 영국 맨체스터경찰청의 경찰 훈련 학교에 훈련생으로 7개월간 잠입해 인종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을 밝혀내 영국의 오스카상이라는 바프타(Bafta)상을 탔다. 그에게는 잠입취재 경험이 10차례 정도 있었지만 이렇게 오랜 기간 잠입취재를 한 것은 처음이었다. 영국 경찰 내 인종차별이 존재한다는 그의 의심은 단순한 추측이 아닌 충분한 증거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의심이었다. 영국 경찰 문화를 조사한 보고서와 경찰 간부들의 증언, 인종차별 논란을 일으켰던 사건들을 모두 종합해 인종차별이 존재할 것이라는 확신에 이르렀다. 이런 합리적 의심에 이르게 한 충분한 증거들은 취재 시작을 위한 사전 준비 차원뿐만 아니라 나중에 보도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취재 자체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데도 매우 중요하다. 충분한 증거가 없었다면 잠입취재에 대해 매우 엄격한 BBC의 내부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다. 다음, 합리적 의심이 사실인지 여부를 증명하기 위해 가능한 취재 방법을 검토했는데

유일한 결론이 잠입취재였다. 잠입취재는 그가 선택한 마지막 수단이었다. 경찰 훈련생으로 잠입취재를 진행하면서 그의 대원칙은 열정을 앞세우지 않는 것이었다. 즉 목표를 증명하고자 하는 열정이 어떻게 취재하는가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며, 모든 취재는 정당하게 그리고 도덕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이었다. 이를 위해 그는 BBC 내부의 잠입취재 규칙들 외에도 자신만의 원칙들을 정했는데 대표적인 것이 “절대 선동하지 않는다”였다. 그는 훈련생들 사이에서 인종차별주의자인 척하지 않았고, 인종차별적 발언을 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이 인종차별적 발언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스스로 금지했다. 다른 훈련생들과는 감정적으로 동화되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취재 과정에서 벌어질 여러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한 가상 시나리오도 스스로 준비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그의 모든 취재물은 철저한 검증을 거쳤다는 점이다. “두 번째 의자(second chair)”라고 불리는 사람이 180여 시간의 영상을 빠짐없이 검토했는데 취재팀으로부터 독립된 그의 목적은 오직 취재물이 BBC의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검증하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BBC는 보도에 대해 경찰은 물론 다른 언론들까지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증을 할 것을 예상하고 있었고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렇기에 모든 취재는 철저하게 도덕적이어야 했고 이는 증명될 수 있어야 했다(Daly, 2011, pp. 88-96).

객관보도의 틀에서 벗어나 탐사보도 언론인의 전문성은 새롭게 정립되어야 한다. 특히 탐사보도 언론인의 이념이나 가치 등 소명의식이 전문성에 고려되어 논의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렇다면 탐사보도 언론인의 전문성은 소명의식과 가치자유의 결합에서 쌓여 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소명의식과 가치자유 결합의 능수능란함 그리고 그 능수능란함의 결과가 탐사보도 정의(진실, 폭로, 변화)와 부합할 때 탐사보도 언론인의 전문성이 쌓여가는 것이다. 여기서 소명의식은 전문직 논의에서 정신, 가치자유는 실천에 해당한다. 소명과 가치자유 결합이 미숙할 때는 조직이 미숙함을 보완해 주고, 경험이 쌓여 조직의 보완이 필요 없는 수준으로 결합이 능수능란할 때 탐사보도 전문 언론인이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것이다. 탐사보도 언론인의 전문성에서 객관성은 두 가지를 내포한다. 하나는 소명의식의 객관성이다. 이는 소명의 실천에서 사리사욕이나 가치함몰에 빠지지 않는 대의에 대한 열정적 헌신, 즉 대의에 대한 강력한 믿음이 탐욕이나 비창조적 흥분을 억제하고 그래서 이성애 의해 규율 되는 심리적 상태를 말한다. 둘째, 가치자유의 객관성이다. 사실과 가치의 구분 속에서 사실에 대한 존중과 과학적 엄밀성의 추구로 객관보도의 장점을 수용는 객관성이다. 탐사보도 언론인의 신념윤리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책임윤리로까지 승화해야 하며, 언론인은 신념과 책임윤리 사이의 균형을 찾으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 무엇보다

다 보도 과정에서 취재 목적에 대한 취재 수단의 적합성을 반복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목적과 수단을 평가하고 도달된 목적이 수단을 정화하여 좋지 않은 부작용을 상쇄하는데 충분한 가치를 갖는가에 대한 반성의 연속이다.

제 4 절 소결

베버에게 정치는 냉혹한 현실이었다. 국가는 고유의 수단인 정당한 강제력에 의지한 지배이며, 정치가는 권력의 배분을 위해 이유가 무엇이든 필요하다면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었다. 베버가 바라본 독일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독일을 구원할 희망의 빛을 베버는 소명의식을 가진 정치가에서 찾으려고 했다. 베버가 희망했던 정치가들은 스스로 바라봤을 때 세상이 가치가 없고 열등하고 비열하다고 하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외쳐야 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자질은 세 가지로 열정, 책임, 균형감각이다. 어떤 대의에 헌신하는 열정, 결과를 신중하고 냉정하게 반성하여 자신이 한 일이라고 인정하려는 의지로서 책임, 그리고 올바른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거리감각이다(Marianne Weber, 1926/2010, pp. 258-261).

베버는 그러나 자질 만으로는 부족하며 소명의 실천은 윤리적 통제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신의 신념에 갇힌 신념윤리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려는 책임윤리로까지 승화해야 하며, 정치가는 신념과 책임윤리 사이의 유동적인 균형을 찾으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 신념과 책임윤리의 유동적인 균형을 찾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은 가치자유에 제시돼 있다. 가치자유는 신념과 책임윤리의 상호보완 속에서 책임윤리를 가능케 하는 지적 기반이다(최장집, 2013, pp. 42-43). 베버는 가치들 사이의 옳고 그름이나 우선 순위를 평가하는 가치평가는 단호하게 반대했지만 가치와 현실을 적극적으로 연관시키는 가치연관과 서로의 가치를 이해하면서 설명하는 가치토론은 적극적으로 권장했다. 가치토론 과정에서 서로는 주어진 목적에 대한 수단의 적합성을 반복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이는 목적과 수단을 평가하고 도달된 목적이 수단을 정화하여 좋지 않은 부작용을 상쇄하는데 충분한 가치를 갖는가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반성의 행위이다.

베버의 소명의식과 가치자유는 오늘의 한국 탐사보도 언론인에게 충분한 의미를 갖는다. 또 소명의식과 가치자유의 능수능란한 결합이 탐사보도 언론인이 추구해야 할 전문성의 실질적 내용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연구자의 생각이다. 베버의 이론이 한국 탐사보도 언론인에게 주는 의미는 소명의식, 자질, 윤리, 그리고 전문성 등의 측

면에서 다음과 같다.

첫째, 탈주술화되어 어떤 예언도 기대할 수 없는 절대적 다신주의 사회라는 근대 사회에 대한 베버의 진단은 이념이나 가치 등에 대한 무수히 많은 신념들이 경쟁하고 때로는 충돌하고 있는 현재 한국사회에도 유효하다고 본다. 즉 신념들이 격돌하고 투쟁하는 세상에서의 삶이다. 근대사회의 각종 부조리와 독일이 겪고 있던 극심한 위기 속에서 베버는 그런 현실을 직면하고자 했고 자명해 보이는 것을 문제 삼고자 노력했다. 그가 제시한 소명의식은 “희망이라는 얇은 갑옷을 입고, 열려 있는 자세로, 모든 종류의 환상과 욕망으로부터 거리를 유지하며, 전통 또는 이상적 낙관주의에서 벗어나, 투쟁하는 가치들로 얹혀 있는 세상을 직면하라”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는 정치가나 전문 연구자를 위한 의미를 넘어 본 연구가 주목하고 있는 탐사보도 언론인에게도 실천적 격언의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Hennis, Brisson, & Brisson, 1994).

둘째, 정치가에게 필요한 자질인 열정과 책임, 그리고 균형감각은 일반 언론인보다 탐사보도 언론인에게 더 절실히 요구되는 것들이다. 수 개월 또는 수 년씩 걸리는 취재에서 탐사보도 언론인들이 보여 온 강박적인 집요함은 신념에 헌신하고자 하는 열정이 없으면 어려운 일이었다. 현실에 대한 무관심이나 초연함에서 탐사보도는 출발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성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열정은 비창조적인 흥분일 뿐이다. 많은 탐사보도의 경우 출발이 언론인의 현실에 대한 분노나 흥분이지만 이런 감정들은 이성을 바탕으로 한 신념으로 바뀌어야 한다. 탐사보도 언론인은 자신의 보도가 가져올 충격을 알기에 보도 이전은 물론 이후에도 상대는 물론 자기 자신으로부터도 거리감을 유지하는 균형감각을 잃지 말아야 한다.

셋째, 정치가가 직면하는 현실과 탐사보도 언론인이 직면하는 현실, 그리고 그 속에서 지켜야 할 윤리 또한 다르지 않다. 정치가가 신념과 책임윤리를 조화시켜 나가야 하듯 탐사보도 언론인도 둘을 서로 보완적으로 결합시켜 나가야 한다. 탐사보도 과정은 보도 목표와 수단 사이의 끊임없는 고민과 결정의 과정이다. 취재 목표가 정해지면 목표에 부합하는 취재 수단을 찾아야 하고 적절한 수단이 없으면 목표를 수정하기도 하며, 이를 통해 목표와 수단의 적합성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탐사보도 언론인 전문성 논의에 대한 탐색적 시도로 소명의식과 가치자유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에서 검토된 바와 같이 언론인 전문성의 정신과 실천 측면에서 볼 때 소명의식은 정신, 가치자유는 실천의 측면과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다. 탐사보도 전문성은 소명의식을 어떻게 엄밀하게 구현할 것인가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탐사보도 전문 언론인은 객관보도가 요구하는 냉정한 관찰자의 모습은 아니었다.

제 3 장 연구문제와 연구방법

제 1 절 연구문제

학계와 언론계 차원은 물론 일반 시민들도 탐사보도에 대해 보다 효과적인 처방을 내리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처방을 제시하기에 앞서 이루어져야 할 일은 탐사보도가 실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언론인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탐사보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생산 현장을 주의 깊게 연구하는 것이 적절하며, 연구자는 〈뉴스타파〉라는 사례를 통해서 탐사보도 생산 현장에 대한 깊은 이해를 시도하고자 한다. 탐사보도 전문 언론을 표방하고 있는 〈뉴스타파〉에 대한 질적 연구를 통해 고찰하려고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 세 가지이다.

연구문제 1) 〈뉴스타파〉 언론인들은 소명의식을 갖고 있는가? 갖고 있다면 어떠한 소명인가?

〈뉴스타파〉 언론인들이 확신을 갖고 열정적으로 헌신하고자 하는 소명이 있는지, 있다면 소명의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볼 것이다. 소명에는 직업의식이나 이념, 가치 등 그 무엇일 수 있으며, 반대로 그 무엇을 강력하게 거부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언론보도에 따르면 〈뉴스타파〉 언론인들은 인터뷰 등을 통해 언론자유와 탐사보도의 중요성을 강조해 오고 있는데 이런 언급이 당위적 주장에 그치는 것인지 아니면 언론인으로서 열정적으로 헌신하는 소명인지 살펴볼 것이다. 아울러 이념 성향이나 선호 가치도 주의 깊게 연구할 예정이다.

연구자는 부수적으로 소명의식이 〈뉴스타파〉 언론인들 내에서 질적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다. 탐사보도를 오래 한 언론인과 처음 시작한 언론인 사이에 소명의식에서 차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그 차이를 극복하는 방안에 대한 후속 연구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첫 번째 연구문제의 해결을 통해 얻어질 수 있는 생생하고 구체적인 소명의 내용은 좁게는 본 연구의 두 번째, 세 번째 연구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이며, 넓게는 후속 연구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데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 2) 〈뉴스타파〉 언론인들은 소명을 어떻게 실천하는가?

〈뉴스타파〉 언론인들이 소명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이해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소명은 취재와 제작은 물론 보도 후 사후 관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들이 어떤 방법으로 소명의식을 실천해 나가는지 세분화해서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 앞서 제시된 세 가지 언론보도 유형, 즉 탐사보도(가치자유)와 정파보도(가치함몰), 객관보도(가치배제)는 연구와 분석의 틀이 될 것이다. 소명과 소명 실천 통한 결과물인 〈뉴스타파〉 보도가 이념적인지, 정파적인지, 중립적인지 여부도 연구문제에 포함된다. 특히 한국 언론의 고질병으로 불리는 정파성이 〈뉴스타파〉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으며, 있다면 탐사보도를 제약하고 있는지도 살펴볼 것이다.

연구문제 3) 탐사보도 전문성은 무엇이며 어떻게 형성되는가?

탐사보도 언론인의 전문성 논의는 객관보도와는 다른 접근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 연구자의 주장이다. 최대한 주관성을 배제하고 관찰자 입장에서 사실을 보도하라는 객관보도 기준을 탐사보도 전문성으로 확대하는 데는 분명 한계가 있으며 미국의 경우 탐사보도를 제약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이다. 연구자는 베버의 소명의식과 가치자유를 연구하고 이를 이론적으로 탐사보도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탐사보도 언론인의 전문성은 ‘소명의식과 가치자유’의 능수능란한 결합이라는 개념 정의를 탐색적으로 시도하였다. 세 번째 연구문제는 이 개념 정의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데 집중될 것이다. 〈뉴스타파〉 언론인들이 생각하는 탐사보도 전문성은 무엇이며, 이 기준에 가장 근접한 언론인이 누구인지 알아 본 뒤, 그의 전문성이 취재와 제작 현장에서 어떻게 발현되는지 연구하고자 한다. 특히 탐사보도 전문성 그리고 이를 배워가는 과정이 말과 눈으로 이뤄질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현장에서 몸으로 느끼면서 체득하는 것인지도 확인해 보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방법과 절차

1. 문화기술지(ethnography) 연구

탐사보도 언론인이 갖고 있는 소명, 소명의 실천, 그리고 탐사보도 전문성은 어떻게 연구될 수 있을까? 어떤 연구주제에 접근함에 있어서 연구자가 선택하는 연구방법

은 답하고자 하는 연구문제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다시 말해 연구를 ‘어떻게’ 할 것이냐(연구방법)는 ‘무엇’을 ‘왜’(연구문제와 목적)에 따라 조심스럽게 숙고 되어야 한다(Jankowski & Jensen, 1991/2004, p. 87). 연구자가 선택한 연구문제에는 탐사보도 언론인의 내면 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소명의 내용과 구체적인 실천 방법, 그리고 그 속에서 그들이 지키려고 노력하는 윤리 등이 포함됐다. 또 탐사보도 전문성에 대해서는 선행 연구가 매우 미흡했다. 때문에 선행 연구 등을 바탕으로 어떤 가설이나 개념을 도출한 뒤 관계를 밝히려는 양적 연구방법은 채택하기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연구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탐사보도가 이뤄지고 있는 생산 현장을 찾아서 질적 연구방법을 적용하는 것이다. 질적 연구에서는 두 가지 개념이 근본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는 이해의 개념으로 사람들이 사회적 상황과 행위에 부여하는 의미에 대한 이해를 뜻한다. 사람은 스스로나 타인에게 부여한 의미를 바탕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질적 연구에서는 일상 생활 및 참여자들에 의해 지각된 의미에 초점을 맞춘다. 두 번째는 역할 수행의 개념으로 인간의 행위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참여자의 시각이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 연구자의 임무는 이 참여자의 시각을 재구축하고 이해하는 일이 된다(Jankowski & Jensen, 1991/2004).

질적 연구 범주 안에는 많은 연구방법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월코트(Wolcott, 1992)는 질적 연구를 네 가지 부류(문헌 연구, 면담 연구, 비참여관찰 연구, 참여관찰 연구)로 나누고, 그 아래 스무 가지 하위 연구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조용환(1999) 이들 질적 연구방법의 한 갈래인 문화기술지 연구를 수행하기 적합한 과제, 또는 문화기술지 연구가 특히 유용한 경우로 다섯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연구하고자 하는 현상, 대상, 지역에 대한 선행 연구나 사전 지식이 전혀 또는 거의 없을 때, 둘째, 복잡하고 미묘한 사회적 관계 또는 상징적 상호작용을 탐구할 때, 셋째, 소집단 또는 소규모 사회적 역동성에 관해 국지적이지만 총체적인 연구를 하고자 할 때, 넷째, 시간의 맥락, 흐름, 구조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하고자 할 때, 다섯째, 현상 이면에 내재한 가치 체제, 신념 체제, 행위 규칙, 적응 전략의 파악이 연구의 주목적일 때이다(pp. 33-34). 따라서 탐사보도 언론인에 대한 선행 연구나 선이해가 깊지 않은 상황에서 이 논문의 주된 관심사인 언론인의 소명과 소명의 실천, 그리고 탐사보도 전문성을 고찰하는 데는 문화기술지 연구가 가장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문화기술지 연구의 대표적인 기법은 참여관찰과 심층면담이다. 이 두 가지 연구 기법은 인류학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과학 연구에서도 널리 응용되고 있다(조용환, 1999, p. 117). 비참여적 관찰이 연구자가 관찰 대상자의 행위에 일체 간섭함이 없이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하는 것과 달리, 참여관찰은 연구자가 직접 연구 참여자들의 삶

에 참여하면서, 그들의 행위나 말, 상징뿐 만 아니라 자신이 경험한 것이나 느낀 것, 그리고 참여자들과의 비공식적 면담과 같은 순간적인 대화 내용까지도 연구자료로 이용하는 것이다. 연구자 자신이 연구의 도구가 되는 셈으로 참여관찰의 결과로 수집된 자료는 따라서 연구자 자신에 대한 정보도 상당히 많이 포함하게 된다. 물론 참여관찰을 토대로 하는 연구라고 해서 연구자가 항상 참여만 하는 것은 아니며 상황에 따라 비참여적 관찰을 병행하게 되는데 보통 연구자가 연구 대상을 더 잘 이해하게 되는 연구의 후반부로 갈수록 연구자 참여의 비중은 커지게 된다. 이런 적극적 참여의 경험은 연구 현장을 더욱 분명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게 되는데 가장 높은 수준의 참여인 완전한 참여는 연구자가 자신이 속한 집단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이용숙, 1998, pp. 110-111).

참여관찰은 미디어 연구에도 널리 적용되고 있다. 특히 미디어 조직에 대한 연구들은 참여관찰 방법의 유용성을 입증해 주는 터전이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1960년대 후반부터 연구자들이 뉴스, 문화, 사회에 대하여 비판적인 문제제기를 하기 위하여 질적 연구로 회귀하였다. 터크만(Tuchman)은 이 시기 연구들은 기존 뉴스 연구의 전통과 세 가지 측면에서 차이를 보였다고 말한다. 첫째, 연구 대상이 개별적인 리포터나 편집인이 아닌 복합적인 제도로서의 뉴스 조직이었다. 둘째, 중립적인 학문적 용어를 사용했지만 연구들은 암묵적으로 정치적이었다. 연구자들은 뉴스가 논쟁 중인 사건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해석을 지지하게 되는 방식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셋째, 함축적으로 그러나 명시적으로 인식론적인 문제를 제기하면서 당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던 뉴스의 사실성 이데올로기에 도전하였다. 갠즈(Gans, 1979)와 터크만(Tuchman, 1978), 피쉬맨(Fishman, 1980)의 뉴스 조직 연구가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터크만(Tuchman)과 갠즈(Gans)는 기사 할당과 편집, 배포에 이르는 뉴스 제작 경로를 좇아 뉴스 제작진들의 행동을 뉴스룸 안팎에서 관찰했다. 그들은 취재 현장에 기자들과 동행했고 야간의 경우는 당번 기자들과 같이 야간 순찰을 돌았고, 기자실에서 시간을 보냈다. 터크만(Tuchman)은 당시 자신의 참여 정도에 대해 “나의 참여는 고작해야 종종 심부름꾼(필름을 스튜디오에 전달하는 사람이나 커피를 뽑아 오는 사람)이나 개인적으로 매우 가까운 지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반면 피쉬맨(Fishman)은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선호했는데 그는 7개월 동안 한 지역 신문사에서 신참기자로 일하면서 연구를 수행했다(Jankowski & Jensen, 1991/2004, pp. 116-120).

참여관찰과 함께 심층면담을 반드시 병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 중 어느 한 가지 방법만으로는 복잡한 현상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홍용희, 1998, pp. 115-

116). 면담은 인간이 인간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일반적이면서도 뛰어난 방법이다. 참여관찰은 연구 참여자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일상적인 일들, 참여자가 논의할 수 없거나 논의하기를 원하지 않는 화제들, 참여자들이 처한 상황이나 전체 맥락, 그리고 참여자가 직접 설명하지 못하는 일상적 삶의 과정이나 의미 등을 파악하는데 가장 효과적이라면, 심층면담은 관찰할 수 없는 과거의 사건들, 연구자가 이해할 수 없는 관찰 내용, 관찰만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참여자의 생각, 의도, 감정 등에 대해 알고자 할 때, 그리고 관찰 내용에 대한 연구자의 이해나 해석이 적합한 지를 확인하고자 할 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따라서 참여관찰과 심층면담은 서로 상호보완적으로 함께 쓰이는 것이 바람직하며 본 연구에서도 두 가지를 병행했다.

양적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연구 사례를 선정할 때 중립적인 자세를 취해야 하고 또 중립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다고 믿지만,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간에 자신이 궁금해하는 연구문제에 대한 가장 좋은 해답을 얻을 수 있는 사례를 선정한다. 메리엄(Merriam, 1998)은 양적 연구에서 사례 선정이 질적 연구보다 크고 무작위적인 데 반해서, 질적 연구에서 사례 선정은 대부분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작위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작은 사례를 대상으로 한다고 말한다(p. 8). 특히 연구자가 고민하는 것은 한 사례가 대상인가 아닌가 보다는 그 사례가 좋은 사례인가 나쁜 사례인가 하는 정도의 문제일 때이다. 때문에 질적 연구자에게 사례 선정은 매우 목적적이고 의식적인 과정이 될 수밖에 없다. 사례를 선정할 때 연구자의 선 이해가 개입될 수밖에 없다면 중요해지는 것은 연구자가 자신이 갖고 있는 선입견을 점검하고 자신의 연구목적에 맞추어 신중하게 사례를 선정하는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자는 사례를 선정한 준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준거가 왜 중요한지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권장된다.

김한미(2009)는 성악 레슨에서 이루어지는 도제식 교육을 문화기술지 방법으로 연구하면서 연구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시간이라는 점을 절감했다. 연구가 진행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점차 편안한 마음으로 참여자의 활동을 지켜볼 수 있었으며, 맥락을 거스르지 않는 자연스러운 관찰이나 인터뷰가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그녀는 각종 논문의 제목에 “심층”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실제로는 연구를 통해 밝혀낸 것이 과연 심층적인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다(p. 11).

연구자는 이 같은 비판에 동감하면서 두 가지 측면에서 시간의 중요성을 절감했는데 하나는 참여자의 태도 변화이다. <뉴스타파> 구성원이 돼서 연구를 수행하는 완전한 참여관찰에 해당하는 이번 연구에서 내부 구성원인 만큼 보다 쉽게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연구자의 입장이 연구 진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왜냐하면 연구자가 대부분의 참여자들보다 언론인 경력에서 선행이고 직위도 더 높은 상황에서 참여자들이 자신들의 솔직한 내면 얘기를 하는 것을 어색해하거나 부담스러워하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현장연구를 시작한 지 3~4개월 후부터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시도했지만 이런 느낌들이 많이 들었고 따라서 심층면담의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판단 아래 면담을 중단했다. 이후 현장연구가 1년쯤 지나면서부터 그런 어색함이나 부담스러움이 없어졌고 면담을 재개해 참여자들에 대한 심층적 이해에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얻을 수 있었다. 이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나타나는 참여자들의 태도 변화는 연구자가 얻을 수 있는 자료의 질과 깊은 관련이 있었다. 다른 하나는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새롭고 근본적인 문제를 발견하고 그것을 해석해 나가는 과정에서 연구자 자신이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점이다. 연구를 진행하면서 자료를 수집하지만 당시는 자료가 미래에 어떻게 새로운 의미로 탄생할 것인지 예측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중간중간 자료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기획 단계에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연구결과를 발견하는 체험들이 계속됐다.

2. 연구 참여자

특정 사례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면서 심층적인 이해를 추구하는 문화기술지 연구 방법을 선택한 상황에서 연구자가 수많은 탐사보도 현장을 모두 다루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일도 아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연구문제 해결에 가장 적합한 탐사보도 생산 현장 사례를 찾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사례를 선택하는 것은 연구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인데 연구자는 두 가지 조건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 첫째, 탐사보도 언론인의 소명과 소명의 실천 그리고 탐사보도 전문성이 연구문제의 핵심이기 때문에 가급적 탐사보도를 오랫동안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언론인이 많은 현장이 더 바람직했다. 둘째, 언론사 내 탐사보도를 전담으로 하는 부서이거나 아니면 별도의 조직이며 동시에 탐사보도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기획 당시 이 두 조건 하에서 검토한 결과, 신문의 경우 탐사보도 전담 조직을 운영하는 언론사가 거의 없는 상태였다(정서린, 2010). 방송의 경우 <KBS>가 유일하게 보도본부에 안에 5명으로 구성된 탐사보도팀을 두고 있었지만 두 가지 조건 모두를 충족시키지 못했다.⁸ 또 PD들이 제작하는 지상파 탐사보도

8. <뉴스타파>에 대한 현장연구는 2016년 3월 시작해 2017년 6월 마무리됐다. 연구 마무리 한달 전인 2017년 5월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교체가 이뤄진 후 <KBS>, <MBC>, <SBS> 등 지상파 언론은 보도본부 내 탐사보도 전담 조직을 부활하거나 신설해 탐사보도를 생산하고 있다.

프로그램(추적60분, PD수첩, 그것이 알고 싶다)들의 경우 탐사보도의 위축이 지적되고 있었다(김상균 & 한희정, 2014; 박인규, 2010, 2017). <JTBC> 스포트라이트는 연구 기획 당시 프로그램이 생긴지 오래되지 않은 상태였다.

<뉴스타파>와 취재팀은 연구문제와 목적에 부합하는 가장 이상적인 사례였다. 오랫동안 탐사보도를 해온 언론인이 많았다. <뉴스타파> 대표인 김용진은 <KBS> 전 탐사보도팀장으로 방송에서 탐사보도를 선도해 온 인물이다. <뉴스타파>를 이끌어 가는 또 한 명의 인물이 있는데 최승호이다. 이 외에도 <뉴스타파>를 처음 시작했던 최경영이나 박중석 등은 <KBS>에서 탐사보도를 하면서 이미 능력이 검증됐다는 평가를 받는 언론인들이었다. 이런 기자와 PD들이 모여 4년 넘게 탐사보도를 이어오고 있었던 만큼 <뉴스타파> 취재팀은 연구문제를 탐구하는데 가장 적합한 연구대상이었다.

또 <뉴스타파>는 “99퍼센트 시민들의 독립언론” 또는 “진실의 수호자가 되겠습니다”라는 모토에서도 나타나듯이 탐사보도 전문 언론을 표방하고 있었고 외부적으로도 활발하게 탐사보도를 하고 있는 언론으로 평가되고 있었다. 1987년 민주화 운동 이후 한국 언론에는 다양한 시민 참여 실험이 이루어져 왔는데, 예를 들어 <한겨레신문>의 창간 당시 시민 모금, <오마이뉴스>의 시민기자제, <뉴스타파>의 시민 후원금, <국민TV>의 미디어 조합 등이 대표적이다(Kim, 2015). <뉴스타파>는 미국의 <프로퍼블리카>(ProPublica)를 모델로 한 비영리 탐사도보 언론으로 지속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이민규, 2013). <뉴스타파>에 대한 여러 평가들이 있지만 <뉴스타파>가 그동안 수상한 내역을 보면 국내 언론 가운데 탐사보도 전문 언론으로 상당 부분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⁹. 물론 탐사보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현장에서의 연구도 잘 이뤄지는 현장에서의 연구 못지 않게 이론 형성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매우 특이하고 극단적인 사례를 통해 이론화에 성공한 연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스타파>를 연구할 수 있었던 것은 연구자로서는 행운이었다.

<뉴스타파>와 연구 참여자들에 대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뉴스타파>는 전국언론노동조합(줄여서 언론노조) 산하 민주언론실천위원회(줄여서 민실위)가 2011년 10월경 프로젝트 형식으로 기획한 것이 출발점이었다. 당시 민실위 위원장이었던 <KBS> 기자 박중석과 부위원장이던 춘천 <MBC> 기자 박대용이 구상했고, 이를 <YTN> 해직 기자와 <MBC> 해직 PD였던 노종면과 이근행에게 제안하면서 구체화

9. <뉴스타파>가 출범한 이후 조직 또는 개인이 받은 수상 내역은 뉴스타파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정리되어 있다(<https://kcij.org/awards>)

됐다. 이후 김용진이 형식적으로는 자문, 실질적으로는 데스크로 참여하면서 정식 출범하게 됐다(김수지, 2016, pp. 34-36). 아래 <자료 1>은 당시 프로젝트를 기획한 이유에 대한 참여자의 설명이다.

<자료 1>¹⁰ 선배 집단 한 명과 심층면담 중에서(2017년 5월 24일)¹¹

문제의식이 어떤 거였냐면 민실위로 와서 했지만 첫 번째 얘기는 아주 단순한 거거든요. 어느 날 오다 보니까 금속노조에 우리가 산별노조잖아요 민주노총 산하의 언론노조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다 있는데 뭔가 이렇게 약간 나쁘게 이야기하면, 뭐라고 해야 하지, 이렇게 계모임이나 혹은 이렇게 품앗이 하듯이 한 열 명씩 다섯 명씩 공동 집회, 어떤 집회 현장에 가서 참여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해요. 금속노조가 여의도에서 하면 언론노조 간부들이 가가지고 공동 발언해주고 거기에 앉아서 있고 뭐 이런 게 있었고. 또 하나는 언론노조는 금속노조는 그래도 2천 명, 3천명 모여 그 세 과시를 해. 그런데 언론노조는 만 천 명 정도 조합원이 있었는데 천 명은 불가능이고 오백 명 모으기도 힘든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연대라는 방식은 다른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거기에 다섯 명 참여할 게 아니라 우리가 제일 잘하는 방식 그거는 금속노조의 그 목소리를 우리가 보도하는 거다, 세상에 알려주는 거다, 그게 창구가 없으면 우리가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 그거를 보도를 안 했다고 사후비판적으로 모니터링 식으로 민실위 보고서를 내는 건 약간 좀 뒤늦은 거 아니냐? 우리가 그냥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 사실은 처음 만들 때 어떤 고민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 처음 만들 때 늘 얘기했지만 프로젝트였거든요. 1년 간 한시적인 프로젝트 개념.

참여자들은 <뉴스타파> 역사를 시즌 1, 2, 3으로 구분해서 부르는데 2012년 1월 ~ 6월까지를 시즌 1, 2012년 8월 ~ 12월까지를 시즌 2, 그리고 2013년 3월 이후를 시즌 3으로 부른다. <뉴스타파>가 언론사로 등록한 정식 명칭은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인데, 이 이름을 내걸고 독립언론을 지향하며 본격적인 탐사보도를 시작

10. 이하에서는 분석을 위해 관찰, 면담 자료에 자료 번호를 매겨 <> 속에 표기하였다.

11. 연구 참여자의 직접 언급을 인용하는 것은 세 가지 종류로 나뉜다. 연구자가 참여자와 사전에 면담 날짜를 잡은 뒤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해 진행한 ‘심층면담’과, 연구자가 참여자들을 관찰하는 과정에서 연구자와 참여자 사이에 자연스럽게 오고 간 ‘일상대화’, 그리고 기획회의나 편집회의에서 기자나 PD들 사이에서 오고 간 ‘회의대화’이다. 회의대화 역시 참여관찰 결과의 일부분이다. 본 연구는 참여관찰과 심층면담의 결과를 구분하기 위해 참여자의 직접 언급을 세 가지로 구분해서 제시했다.

한 것은 시즌 3부터이다. 따라서 시즌 1, 2 기간의 <뉴스타파> 보도는 탐사보도 전문 언론 보다는 언론노조의 보도 프로젝트 성격이 강했다.

<뉴스타파>의 첫 보도는 2012년 1월 27일이었다¹². 한시적인 프로젝트로 출발했기 때문에 운영 자금은 언론노조의 언론개혁기금에서, 공간은 언론노조 사무실 한 칸을 이용했다. <KBS>와 <MBC>, <YTN> 그리고 <국민일보> 등에서 해직이나 퇴직한 언론인과 언론노조 파견자들이 합류했지만 당시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사람들 중 어느 누구도 지금의 <뉴스타파>로 조직이 확대될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 2013년 초 <뉴스타파>는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라는 이름 아래 언론노조에서 벗어나 서울 창전동에 자그마한 사무실을 얻을 수 있었다.

본격적인 현장연구를 처음 시작한 때인 2016년 3월 현재 <뉴스타파> 구성원은 대표인 김용진과 앵커인 최승호를 포함해 모두 43명이었다. 당시 <뉴스타파> 조직은 대표와 앵커를 중심으로 탐사 1팀과 탐사 2팀, 제작편집팀, 영상취재팀, 데이터팀, 데이터저널리즘연구소, 개발팀, 경영미디어실로 구성돼 있었다. <뉴스타파>는 지속적으로 인원을 늘려가고 있었다. 회원수가 늘어 재정에 여력이 생기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필요한 인력 소요가 생기고 책임자가 있을 경우 내부 회의를 거쳐 적극적으로 인력을 충원하고 있었다.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는 모두 19명이다. 김용진과 최승호를 포함해 취재팀 소속 기자와 PD들이다. 참여자들은 스스로를 ‘시니어’ 또는 ‘주니어’라고 부르는데 시니어는 선배 집단으로 다니던 언론사에서 해직이나 퇴직을 통해 합류한 사람들로 <뉴스타파> 합류 전 이미 10여 년 이상의 취재 경력을 갖고 있었다. 주니어는 후배 집단으로 <뉴스타파>가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탐사보도 전문 언론을 천명한 이후 공개채용을 통해 기자나 PD로 입사한 사람들이다. 이들 중 일부는 다른 언론사 경력을 갖고 있었지만 기간이 길지 않았다. 이들이 스스로를 주니어로 부르는 데는 취재 경력이나 능력에서 시니어와 차이를 스스로 인정하는 측면도 있었다.

아래 <표 4>에 정리되어 있듯이 선배 집단의 경우 참여 경로와 출신 언론사, 언론인 경력 등에서 다양했지만, 후배 집단의 경우는 사실상 탐사보도를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다. 19명 가운데 선배와 후배 집단은 각각 11명과 8명이다.

1 2. 뉴스타파가 첫 보도를 내보낸 날짜는 2012년 1월 27일로, 이날 세 건을 보도했는데 ‘10.26 투표소 변경 … 선관위의 거짓말 Part.1’, ‘10.26 투표소 변경 … 선관위의 거짓말 Part.2’, ‘MB 임기 말 14조 무기도입 추진 … 미국의 압력 의혹’이었다.

〈표 3〉 연구 참여자 19명

이름	직종	뉴스타파 참여	언론인 경력	전 언론사	참여 경로	구분
김용진	기자	2013.03	1987	KBS	퇴직	선배
최승호	PD	2013.03	1986	MBC	해직	선배
최기훈	기자	2013.03	1995	YTN	퇴직	선배
최경영	기자	2013.04	1995	KBS	퇴직	선배
유원중	기자	2014.03	1996	KBS	무급 봉사	선배
황일송	기자	2013.03	1997	국민일보	해직	선배
박중석	기자	2014.04	2000	KBS	퇴직	선배
김경래	기자	2013.09	2001	KBS	퇴직	선배
한상진	기자	2015.02	2003	동아일보	퇴직	선배
김성수	기자	2014.03		OBS	퇴직	선배
심인보	기자	2015.02	2005	KBS	퇴직	선배
홍여진	기자	2013.03		대학신문	공채	후배
박경현	PD	2013.03		없음	공채	후배
신동윤	PD	2013.03		없음	공채	후배
조현미	기자	2013.03		매일노동뉴스	공채	후배
오대양	기자	2013.03		오마이뉴스	공채	후배
이유정	기자	2013.03		신화통신	공채	후배
김새봄	PD	2013.03		없음	공채	후배
정재원	기자			없음	공채	후배

연구 참여자 전체는 실명으로 공개한다. 〈뉴스타파〉 전체 구성원들의 이름과 경력 등이 이미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후 연구자료를 제시할 때는 참여자 이름을 익명으로 처리하는 대신 선배 또는 후배 집단으로 구분한다. 현장 연구 전반에 걸쳐 참여자가 어느 집단에 속하는 지가 여러 면에서 큰 차이를 가져오는 변수였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앞으로 논문을 기술하면서 더 설명할 것이다. 다만 불가피하게 이름을 밝혀야 할 경우 해당 참여자의 동의를 구해 실명으로 자료를 제시한다. 예를 들어 김용진, 최승호, 그리고 탐사보도 전문성 논의에서 중요 참여자로 나오는 정재원이다.

3. 연구 진행

〈뉴스타파〉와 취재팀을 연구대상으로 선택한 뒤 연구자는 2014년 가을 〈뉴스타

파> 대표인 김용진에게 문화기술지 연구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연구자와 김용진은 그 전부터 친숙한 사이였다. 연구자가 김용진을 처음 만난 것은 <KBS> 보도본부에 탐사보도 전담팀이 처음 만들어진 2005년으로 연구자와 김용진은 당시 한 팀에서 평기자로서 탐사보도를 만들었다. 기자 경력으로는 김용진이 연구자 보다 8년 선배이다. 당시 김용진은 탐사보도팀이 만들어지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며, 그가 만들었던 ‘누가 일제 훈장을 받았나’는 탐사보도에 대한 지식이 거의 있었던 연구자를 포함한 팀내 다른 기자들에게 좋은 학습이 됐다. 연구자가 이후 김용진과 다시 같은 부서에서 일한 적은 없지만, <KBS> 내에서 이런 저런 일들로 지속적인 만남을 가졌고, 김용진이 <KBS>를 퇴직한 후에는 송년회 모임 등을 통해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연구 의사를 전달받은 김용진은 조직을 외부에 공개하는 문제인 만큼 혼자 결정할 수는 없으며, <뉴스타파> 내 의사결정체들 가운데 하나인 집행위원회를 통해서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한달 정도 지나서 연구가 가능하겠다는 연락이 와서 연구를 시작할 수 있었다.

현장연구는 예비 관찰과 본 연구, 두 단계 나뉘어서 진행됐다. 연구자는 <뉴스타파>로부터 연구 승인을 받았지만 곧바로 본격적인 현장연구에 들어가지 않고 일정 기간 예비 관찰을 하기로 결정했다. 무엇보다 연구자가 갖고 있는 연구문제를 해결하는데 <뉴스타파>가 적합한 사례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했고, 본격적인 현장연구에 들어갈 경우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행하는 것이 좋은지, 그리고 현장연구 기간은 어느 정도나 필요할 지 등을 가늠하기 위해서였다.

예비 관찰은 2014년 11월 11일부터 2015년 3월 초까지 4개 월 동안 매주 화요일 <뉴스타파>를 방문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당시 <뉴스타파> 쪽에서 뉴스룸 내 별도 책상 하나를 내어 주어서 구성원들의 일상을 용이하게 관찰할 수 있었고, 기획회의를 두 차례 참관했다. 또 식사와 회식, 그리고 술자리 등에 초대되어서 얘기를 나눌 수 있었으며, 일부 참여자와는 탐색적 성격의 인터뷰도 할 수 있었다. 예비 관찰은 이후 연구자의 개인적 사정으로 계속되지 못했지만 예비 관찰을 통해 <뉴스타파>와 취재팀을 연구 참여자로 최종 확정했고, 이 기간 얻은 자료는 연구문제를 보다 정교하게 다듬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

본 연구는 연구자가 <KBS>를 퇴직하고 <뉴스타파>의 구성원으로 합류한 2016년 3월 21일부터 시작해 2017년 6월 31일까지 약 1년 3개월 동안 진행됐다. 이종규(2006)에 따르면 참여관찰은 참여의 수준에 따라 다섯 가지 유형(외부적인 참여, 수동적인 참여, 균형 잡힌 참여, 활동적 참여, 총체적 참여)으로 나뉘는데, 총체적 참여는 연구자가 자연적으로 참여자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가장 고도 수준의 참여이며 보통 연구자가 이미 자연적인 참여자인 상황에서 주제를 연구할 때 해당한다(p. 113).

본 연구에서 연구자가 수행한 참여관찰은 총체적 참여관찰에 해당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연구자인 동시에 참여자라는 이중적 위치 속에서도 연구자는 학습자로서 겸허한 태도를 잃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자와 참여자의 부단한 상호작용 속에서 연구가 진행된다. 다시 말해 질적 연구는 연구자와 참여자 사이의 대화의 과정이다. 대화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전제로 한다. 특히 질적 연구에서는 사물이나 현상의 맥락을 구성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논리와 언어를 통해 연구가 진행되므로 연구자의 세계보다는 참여자의 세계가 더 중시되고 연구자는 참여자의 세계를 학습하는 겸허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조용환, 1999, p. 23). 연구자는 비록 <KBS>에서 탐사보도를 여러 차례 제작한 경험이 있고, 다른 취재팀원보다 언론인 경력에서 선배였고, 조직 내에서 에디터라는 직위를 갖고 있었지만, 무엇보다 연구자 자신이 잘 모르는 낯선 세계를 연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을 최대한 배제하려고 노력했다. 연구자는 스스로 배우고자 자발적으로 찾아 간 경우인 만큼 학습자로서 참여자들로부터 직접 보고, 듣고, 배우고,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지각하고 이해하며 탐사보도의 세계를 경험하고자 노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자의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이 참여자들에게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연구자가 에디터로 있었던 데이터팀의 구성원들은 참여자에서 배제했다.

현장연구를 하는 연구자들이 대부분 그러하듯 연구자도 관찰기록지를 작성해 관찰 내용을 최대한 자세하게, 차곡차곡 적도록 노력했다. 연구자가 관찰자인 동시에 참여자였기 때문에 관찰하거나 경험한 내용을 즉석에서 기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었다. 이럴 경우는 휴대폰의 메모 기능을 이용해 메모만 했다가 가능한 한 빠른 시간에 기록했고, 메모도 불가능할 경우는 잘 기억해 두었다가 기억을 되살려 기록했다. 기록을 할 때는 관찰된 사실과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을 최대한 구분했다. 처음에는 매일 관찰기록지를 작성하며 최대한 시야를 넓게 해서 <뉴스타파>와 취재팀의 생활세계 구석구석을 이해하려고 했다. 예를 들어 출근과 퇴근시간은 언제인지, 식사는 누구와 같이 하는지, <뉴스타파> 내 공간 활용은 어떠한지, 참여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들은 어떤 식으로 서로 무리를 지어 관계를 맺는지 등이다. 이후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연구문제와 관련 있는 방향으로 참여관찰의 폭을 좁히는 대신 깊이 있는 자료를 얻는 방식으로 진행했고, 관찰기록지가 작성되지 않는 날도 있었다.

본 연구는 시기적으로 둘로 나뉘지는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전과 이후로 구분된다. 게이트 이전에는 연구가 순조롭게 진행됐다. 그러나 게이트를 거치면서 참여자들은 물론 연구자도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쟁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 시기에는 새로이 등장한 쟁점과 직접 관련된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연구를 진

행했다. 당시 나타났던 얘기치 않았던 상황은 세 가지 정도이다. 우선 게이트가 진행되는 동안 <뉴스타파>가 탐사보도 전문 언론으로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내부 자성이었다. 둘째, 게이트 보도를 사실상 실패로 규정한 사람들 사이에서 <뉴스타파>가 그 동안 고수해 온 취재와 보도 방식에 근본적인 한계를 지적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셋째,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의 탄핵과 문재인의 당선이라는 정권교체가 겹치면서 <뉴스타파>와 정권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 논란이 제기되었다. 특히 <뉴스타파>의 재정적 기반인 후원회원의 경우 문재인 지지와 진보 성향일 가능성이 높아 문재인 정권과 비판적 관계 설정이 회원의 이탈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스프레들리(Spradley, 1980/1988)는 일반적으로 참여관찰은 기술 관찰(descriptive observation), 집중 관찰(focused observation), 그리고 선택 관찰(selective observation) 순으로 진행된다고 말한다. 기술 관찰은 일어나는 모든 일들 중에서 연구자가 원하는 것을 관찰하는 것으로 연구의 전 과정에서 수행된다. 집중 관찰은 연구자가 조사하는 것의 범위를 좁혀서 관찰하는 것이며, 선택 관찰은 가장 작은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말한다. 연구자가 수행한 참여관찰을 되돌아 봤을 때 스프레들리의 3단계를 의식적으로 지키려 한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그 순서에 부합하게 진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연구 후반 선택 관찰을 했다고 해서 기술 관찰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니다.

심층면담은 질적 연구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형식인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했다. 기술 관찰에서 점점 선택 관찰로 연구의 폭이 좁아지면서 질문지의 내용도 그제 맞게 조금씩 수정해 갔다. 면담을 진행하면서 몇 가지를 유념했는데 첫째, 참여자가 연구목적이 무엇인지를 물을 때는 정직하게 얘기하되 너무 세부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다. 둘째, 면담 일정을 정할 때는 참여자들의 생활을 방해하지 않도록 그들의 일정을 우선 고려했다. 셋째, 연구자 보다 후배인 참여자들 중에 “내가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라며 연구 참여자로 선택된 이유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았는데 “탐사보도를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탐사보도를 하면서 개인이 느낀 것들을 알고 싶은 것”이라고 대답했다. 넷째, 면담 내용 중 참여자가 공개하기를 원하지 않는 내용은 결과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며 면담 내용은 익명으로 처리된다는 점을 분명히 약속했다. 면담을 시작하기 전에는 모두에게서 개별 동의서를 받았다. 동의서에는 연구자의 이름과 소속, 연락처, 연구 명, 연구주제, 연구방법, 연구자의 책임과 연구에 동의하는 것의 의미 등이 자세히 명시돼 있었다. 수집된 자료는 비밀번호가 있는 외장 하드 드라이브에 저장되었으며, 연구자만 듣고 볼 수 있도록 했다.

4. 자료 분석과 결과 제시

자료 수집 이후 결과물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은 자료 수집만큼이나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다. 특히 자료 분석은 질적 연구의 오랜 아킬레스건이었지만 많은 연구자들이 논문에서 분석이라는 이름 아래 이 복잡한 과정을 간단하게 처리하고 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월코트(Wolcott, 1992)와 조용환(1999)은 자료 수집 이후의 연구결과 제시를 기술과 분석, 해석으로 나눌 것을 권장했고, 연구자는 이 방법론이 타당하다고 생각했다. 이들에 따르면 기술은 “연구자가 본 것을 독자가 보게(see) 하는 일”이며, 분석은 “연구자가 안 것을 독자가 알게(know) 하는 일”이며, 해석은 “연구자가 이해한 방식으로 독자가 이해하게(understand) 하는 일”이다. 이 세 가지 작업은 서로 다른 사고를 요청한다. 기술은 “사실을 관찰하고 수집하는 데 치중”한 사고를 요청하는 반면에, 분석은 “창안과 상식의 적절한 조화”를 요청하며, 해석은 “자유롭게 그러나 인내심을 가지고 한 문제를 숙고”하는 자세를 요청한다. 따라서 기술, 분석, 해석의 질을 평가하는 기준도 서로 다르다. 우선 기술의 질은 내부인의 세계를 얼마나 생생하게 보여주는가에 달려 있다. 그와 달리 분석의 질은 분석하는 내용과 형식의 과학적 체계성과 치밀성에 달려 있다. 마지막으로 해석의 질은 학문적 전통을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그럴 듯함을 인정받는가에 달려 있다. 한 마디로 말해서 기술이 ‘그들’의 세계를 중시할 때, 분석은 ‘그것’의 세계를 중시하고, 해석은 ‘우리’의 세계를 중시한다.

예를 들어 기술 부분에 해당하는 제4장과 5장에서 중점은 〈뉴스타파〉에서는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이다. 〈뉴스타파〉 취재팀은 누구이며, 탐사보도를 어떻게 만들고 있으며, 어떤 소명을 갖고 있는지 등을 가급적 육하원칙에 맞게 서술적 이야기(storytelling)로 구성하였다. 그러나 관찰과 추론은 구분하려고 노력했다.

이 논문의 6장과 7장은 분석에 해당한다. 수집된 자료를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에서 첫 작업은 코딩이었다. 코딩은 “연구하는 현상의 내면적 구조를 분석하기 위하여 자료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어휘, 주제, 장면 등을 조사하여 일정한 코드를 부여함으로써 자료를 체계화하는 작업”을 말한다(조용환, 1999, pp. 53-54). 분석 초기에는 ‘개방적 코딩(open coding)’으로 시작했는데 정해진 카테고리들이 없는 상태에서 자료를 전체적으로 훑어보며 반복되거나 또는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장면이나 대화, 어휘 등을 선택하여 정리하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카테고리 하나 하나를 중심축에 놓고 자료들과 다른 카테고리들을 수렴시켜 가는 ‘중추적 코딩(axial coding)’과, 지금까지

검토한 모든 카테고리들을 하나의 체계 속에 정리하고 그 체계에 따라서 자료들을 일목요연하고 정리하는 ‘선택적 코딩(selective coding)’을 거쳤다. 이는 한 번으로 끝나는 과정이 아니었으며 특히 논문의 구조와 목차가 구체화되면서 이를 염두에 두면서 코딩 자료를 보완해 나갔다.

기술과 분석은 자료를 기반으로 하지만 해석은 또 다른 작업이다. 해석에서는 연구자의 주관적 이해와 판단의 개입 여지가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자료에서 자유로워지는 단계이다. 그러나 해석에서 방종은 경계되어야 하는데 신중하지 못한 해석이 연구 전체의 의미를 망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 제8장이 해석에 해당한다. 학문적 전통을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그럴 듯함을 인정받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기에 연구자는 해석에는 신중을 기하는 대신 분석에 보다 많은 노력을 투입했던 것을 솔직히 인정한다. 후버만과 마일스(Huberman & Miles, 1994)는 연구자가 과학적 해석을 하는데 있어 점검해야 할 다섯 가지를 제안하고 있다. 첫째, 확실하지 않은 주장을 배제할 것, 둘째, 주요 발견을 다시 한 번 검토할 것, 셋째, 대안적 설명이 가능한지 검토할 것, 넷째, 반증 자료가 있는지 체크할 것, 다섯째, 참여자와 전문가에게 보이고 타당성을 검토 받을 것이다(조용환, 1999, p. 65 재인용). 연구자는 〈뉴스타파〉 내에서 평소 가깝게 지내던 동료들을 통해서 연구자의 분석과 해석이 타당한지를 검증 받는 과정을 거쳤지만 그래도 검증에 있어서 노력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제 4 장 <뉴스타파> 조직의 기능 원리

<뉴스타파> 언론인들의 소명의식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뉴스타파>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데 이는 본 연구의 전체 내용을 이해하는데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뉴스타파> 조직 전체를 관통하는 유일한 원칙은 집단지성을 존중한다는 점이었다. 협력 또는 경쟁을 통해 모아진 의견이 특정 개인의 의견보다 더 존중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참여자들은 공유하고 있었고, <뉴스타파> 출범 이후 도전 받은 적이 없는 불문율이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뉴스타파> 내에는 여러 목적의 회의체들이 있었다. <뉴스타파> 후원회원에게 매년 3월 지난 1년의 사업 성과와 앞으로 1년의 사업 계획을 보고하는 ‘총회’를 비롯해, 매주 월요일 아침 9시 모두가 참여해 한 주의 업무와 일정을 공유하는 ‘전체회의’, 조직의 중요 경영 사안을 결정하는 ‘집행위원회’, 팀장 이상 간부들이 점심을 겸해 모이는 ‘팀장회의’, 취재팀원 전체가 모인 자리에서 아이템 발제와 토론, 취재 승인이 이뤄지는 ‘기획회의’, 그리고 취재 관련 팀장들이 모여 보도 방향을 논의하는 ‘편집회의’ 등이 있었다. 예를 들어 <뉴스타파>의 한 주의 시작은 매주 월요일 9시에 시작하는 전체회의로 모든 구성원들이 모여 조직 전체의 업무를 공유하는 자리이다. 전체회의가 끝나면 같은 자리에서 기획회의가 이어져 취재팀 중심으로 지난주 보도를 평가하고 앞으로 취재 계획 등을 협의하게 된다. 매주 구성원들 전체가 모이는 것도 차별적이지만 특히 기획회의는 일반 언론사에는 없는 독특한 회의체였다. 비록 의사결정의 신속성은 떨어지더라도 보다 나은 결론에 도달할 것이라는 확신으로 보였다.

집단지성의 원칙 속에서 <뉴스타파> 조직이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설명하는 열쇳말은 세 가지로 압축될 수 있었다. 첫째, 뉴스 제작 측면에서 아이템 발제를 강제하지 않는 ‘자율 발제’와 취재와 제작 시스템을 의미하는 ‘333 시스템’, 둘째, <뉴스타파>의 경영과 보도를 총괄하는 ‘김용진’, 셋째, 재정적 기반인 ‘후원회원’이다. 이 세 가지가 <뉴스타파>라는 조직이 채택한 기본 원리인데 각각의 원리는 장점과 함께 시간이 지나면서 단점도 노출하고 있었다. 세 가지 원리의 역사와 현재, 미래를 둘러싼 참여자들의 고민을 이해하는 것이 <뉴스타파>를 이해하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제 1 절 뉴스 제작

1. 자율발제

기자나 PD 구분 없이 언론인의 기본 업무는 발제와 취재 그리고 기사쓰기로 이 과정을 통합해 일반적으로 보도라고 말한다. <뉴스타파>의 경우 다른 언론사와 비교해 취재와 기사쓰기는 크게 다르지 않지만 발제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보통의 언론사에서는 언론인들이 매일 또는 주기적으로 발제를 해야 하는 강제 발제를 원칙으로 삼는다. 또 방송사의 주간 단위 프로그램의 경우 이를 담당하는 언론인들은 순서대로 방송 날짜를 배정받게 되고 그에 맞춰 발제를 해야 한다. 반면, <뉴스타파>는 강제 발제가 대형 탐사보도를 발굴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생각해 자율 발제를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발제를 독려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언론사처럼 주기적인 발제를 강제하지는 않았다.

자율 발제 원칙은 <KBS> 탐사보도팀을 모형으로 한 것으로 보였다. 지상파에서는 처음으로 2005년 처음 만들어진 <KBS> 탐사보도팀은 당시 발제를 강제하지 않았는데 고민을 하면서 사전 취재를 하다 보면 언젠가는 제대로 된 아이템이 잡힐 것이라는 믿음에 기반한 것이었고 실제로 이 원칙은 충분한 성과를 낳았다(박인규, 2010). 당시 한국 언론의 관행으로 볼 때 획기적인 실험이었고 <뉴스타파>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제 2절에서 자세히 설명되겠지만 <뉴스타파> 언론인 가운데 김용진을 포함해 <KBS> 출신 상당수가 당시 탐사보도팀의 일원이었던 것이 이러한 결정에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였다.

<KBS> 탐사보도팀이 당시 큰 성과를 낸 데는 자율 발제 외에 정규 프로그램을 맡지 않았다는 조건이 하나 더 있었다. 탐사보도팀이 출범한 뒤 사내, 외에서 좋은 평가를 받게 되자 당시 보도본부는 기자들이 만드는 주간 단위 시사프로그램의 편성을 추진했고 인원 보강을 전제로 탐사보도팀에서 새 프로그램을 맡아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탐사보도팀원들은 전체회의를 거쳐 정규 프로그램을 맡을 경우 취재에 충분한 시간이 투자되기 어렵고, 결국 제대로 된 탐사보도를 만들기 어려울 것이라며 요청을 거부했는데 당시 논의에는 김용진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후 ‘시사기획 씬’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정규 프로그램은 별도의 부서가 만들어져 전담하게 됐고, <KBS> 탐사보도팀의 두 가지 원칙, 즉 자율 발제와 정규 프로그램 거부하는 팀이 해체될 때까지 고수됐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KBS> 탐사보도팀의 경우 두 가지 원칙이 절묘하게 결합되

면서 상승작용을 냈다는 점이다. 자율 발제를 고수할 수 있었던 것은 자율에 수반되는 나태함을 용인하고 견뎌낼 수 있었기 때문인데 방송을 순서대로 또는 의무적으로 하지 않는 상황에서 누군가의 나태함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았던 것이다. 즉 정규 프로그램을 하는 상황이라면 한 명이 방송 순서를 지키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메워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업무 가중으로 이어지지만 <KBS> 탐사 보도팀은 그렇지 않았다.

따라서 <뉴스타파> 내에서 <KBS> 탐사보도팀 출신들의 경우 자율 발제와 충분한 자원 투여가 상승작용을 내려면 당시 채택하고 있었던 정규 방송 원칙이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인식을 어느 정도 공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뉴스타파>는 정규 편성 원칙을 고수했다.¹³ 무엇보다 정규 방송을 하지 않을 경우 인지도가 약한 상태에서 <뉴스타파> 자체의 정체성이나 존재감이 위협받을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었다.

<자료 2> 팀장회의 대화 중에서(2016년 6월 13일)

우리가 본방을 정말로 탐사보도 촬영을 한다면 일주일에 한 번씩 약속하는 것도 사실은 어불성설이거든요. 사실은 KBS 탐사팀 만들어 질 때도 그때 같은 상황도 12명의 중견기자가 있었는데도 언제 방송이 나올지 언제 보도가 나올지 약속을 안 하고 만든 거예요. 취재가 다 되면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뉴스타파>는 탐사보도의 필수조건인 독립성이라는 큰 우산 아래에서 자율 발제와 정규 방송이 가장 이상적으로 결합되는 보도 시스템을 찾기 위한 실험을 계속하고 있었다.

2. 333 시스템

현장연구 동안 <뉴스타파>의 보도 시스템은 333 시스템이었다. <뉴스타파>의 보도는 매주 목요일 오후 방송 리포트를 인터넷(<뉴스타파> 홈페이지와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등)에 업로드하는 것을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참여자들은 이를 ‘본방’으로, 그 외 리포트는 요일에 구애없이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수시’로 불렀다. 이름에서 느낄 수 있듯이 본방에는 그 주에 <뉴스타파>가 가장 공을 들인 아이템이 보도됐다.

13. <뉴스타파>는 현장연구가 끝난 후인 2017년 하반기 조직개편과 인사이동을 단행하면서 목요일 정규 방송 원칙을 폐지했다. 정규 방송에 쫓겨 기대 이하의 보도를 하는 것 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취재와 제작을 하자는 취지였다.

여기서 ‘333’이란 본방이 돌아가는 방식인데 이번주 본방에는 3명이 3개의 리포트를 하고, 동시에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의 아이템을 미리 확정하는, 그래서 항상 3주의 본방 아이템이 미리 확정되어 있는 방식을 말한다. 예를 들어 이번주 목요일 본방이 세월호 침몰 원인에 관한 것이라면 기자나 PD 3명이 평균 10분 정도 길이의 리포트 세 꼭지를 만들어야 하며, 다음 주에도 3명이 세 꼭지,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3명이 세 꼭지의 취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333 시스템이 무리 없이 돌아가면 항시적으로 9명이 취재 또는 제작에 투입되게 된다.

연구가 이뤄지는 동안 취재팀 중에 대표인 김용진과 앵커인 최승호를 뺀 경우 보도에 투입될 수 있는 인력은 데스크를 보는 에디터 3명을 포함해 17명이었는데 이 중 4~5명 정도는 휴가나 장기 기획 취재를 하고 있어서 상시 가용 인력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휴가나 장기 기획 인력을 빼면 평상시 가용 인력은 최대 13명이었고, 이들이 333 원칙에 따라 본방을 책임지는 방식이었다. 따라서 취재에 투입된 9명을 뺀 나머지 4명이 4주째 본방을 준비해야 했다.

이를 취재팀원 A 개인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도식화하면 아래 <그림 2>와 같다.

1주	2주	3주	4주	5주	6주	7주	8주	9주	10주	...
A방송				A방송				A방송		

<그림 2> <뉴스타파> 취재팀 A의 산술적인 보도 주기

이 경우 참여자 개인으로 보면 발제, 취재, 기사쓰기를 위해 주어지는 시간은 최대 4주라는 것을 알 수 있다. 4주라는 시간이 충분한지 아닌지는 판단할 수 없지만 이 시스템은 당장 아이템을 취재하면서 동시에 다음 아이템을 중첩으로 개발함으로써 4주의 시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나 경험을 전제로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보도에 투입되는 시간이 줄어들어 품질이 낮은 리포트가 만들어지거나 보도 주기를 맞추지 못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

333 시스템의 경쟁력을 다른 언론사 탐사보도 부서의 그것과 비교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다만 참여자들 스스로 333 시스템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느끼고 있었다. 첫째, 취재팀 개개인이 4주의 기간을 제대로 맞추면 좋겠지만 나태함 때문이든 개인 간의 경험이나 능력의 차이든 간에 자율 발제 속에서 4주 원칙은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고 아이템의 풍족과 기근 현상이 반복됐다. 어떤 주는 발제가 많이 이뤄져 아이템이 풍족인 반면, 때로는 월요일 기획회의에서 목요일 방송 아이템을 확정하는 상황이 반복됐다.

〈자료 3〉 기획회의 대화 중 김용진 발언(2016년 6월 20일)

현실적으로 그러면 매주 뭔가는 해야 되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매주 이제 뭐를 우리가 정기적으로 해나가는 게 있는데 이거는 시청자하고 독자하고 약속이기도 하고, 근데 그런 자발적인 발제들이 나올 때 그런 거를 정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둘째, 아이템이 급하게 정해지는 것은 보도에 투여되는 시간이나 자원이 적어지고 그만큼 제대로 된 이른바 대박 탐사보도가 나올 가능성도 적어진다는 것을 의미했다. 좋은 제보가 있으면 가능하겠지만 자체적으로 탐사보도를 발굴하기는 어려웠다. 특히 영상의 경우 투여되는 인적, 물적 자원이 많아야 다양한 촬영이 가능해져 질이 높아지는데 아이템이 급하게 정해지면 촬영 기간은 짧아질 수밖에 없었다. 결국 자료 화면이나 유튜브 화면 등을 사용해야 하는데 탐사보도에는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참여자들 내에서는 이런 상황에서는 탐사보도 전문 언론이라는 정체성을 지켜나가기 어려운 것이 아니냐는 위기감이 생겼다. 다음은 2016년 12월 20일 저녁 회식 자리에서 선배 집단 참여자 한 명이 〈뉴스타파〉의 현실을 토로한 내용이다.

〈자료 4〉 선배 집단 한 명과 일상대화 중에서(2016년 12월 20일)

말이 안 되는 거야. 〈뉴스타파〉가 탐사보도를 하는 매체라고 하잖아.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찍어서 방송을 내보낼 때 우리 화면의 깊이가 얼마나 돼? 우리는 몇일을 찍어서 방송을 해? 우리가 월요일 아이템 결정해 가지고 월요일 오후부터 찍기 시작해서 월, 화, 수 찍어 갖고 목요일 날 방송하는 게 나는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해 무슨 특집 아니면, 근데 탐사보도 매체라는 게 이런 식의 영상의 깊이가 없고, “탐사보도를 한다” 라고 이야기 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허접한 지금 있잖아.

선배 집단의 또 다른 참여자는 후배가 촬영을 제대로 해 오지 않았을 경우 시간 상 여유가 있으면 같은 현장을 다시 보내 “내가 정말 멍청하게 찍었구나, 멍청하게 물어봤구나”하는 것을 느끼도록 해 주고 싶지만 여건상 그럴 기회를 주지 못하는 것을 아쉬워했다.

셋째, 333 시스템은 정규 방송을 유지하기 위한 시스템인데 정규 방송이 오히려

긴박한 현안을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33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면 9명은 현재 진행 중인 취재와 제작에 집중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다음 아이템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보도되는 아이터들은 대부분 기획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본방 아이터의 경우 쉬운 취재가 아닌데다 기승전결을 갖춘 완성도를 담보해야 해 참여자 개개인이 느끼는 심리적 부담감이 컸다. 때문에 현안이지만 그 속에서 탐사보도 아이터를 만들어 낼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 경우 취재 시도조차 안 하는 상황이 생긴 것이다. 예를 들어 2016년 4월 25일 기획회의에서는 당시 이슈로 등장하고 있던 가슴기 살균제 피해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지만 이미 대부분의 인력이 기획 취재에 투입돼 있었고 총선 직후인 상황에서 “앞으로 집중해 보자”라는 정도로 논의를 마쳤다. 가슴기 피해 문제는 이후 대형 의제로 대두됐지만 <뉴스타파>는 개입할 시점을 잡지 못하고 낙종을 하는 상황이 반복됐고, 참여자들은 피해자들의 사연을 외면했다는 자책감으로 괴로워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현장연구 당시의 333 시스템은 그 이전 보도 시스템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도출된 것이라는 점이다. 이전에는 주 2회, 화요일과 목요일 정기적으로 보도를 했는데 이를 위해 취재 인력을 선배 집단과 후배 집단으로 나누어 운영했다. 선배 집단은 자율적으로 발제를 하는 방식인 반면, 후배 집단의 경우는 선배 집단 참여자 한 명이 팀장을 맡아 주기적으로 발제를 받고 취재를 지시하는 식으로 일반 언론사의 사회부 사건기자 운영 방식과 유사했다. 그 결과 현안에 대해서는 비교적 순발력 있게 대응이 됐지만 하루나 이틀 취재해 주 2회 보도 일정을 메우기에 급급했고, “<뉴스타파>가 뭐하는 조직인지 모르겠다”라는 정체성 논란이 제기된 것이다. 결국 현안 대응에서 탐사보도로 무게 중심을 이동하고 강제 보다는 자율성을 강화해 탐사보도 기능의 향상을 도모해 보자는 것이 333 시스템이었던 것이다. 보도의 경우는 정규 방송을 유지하되 횟수를 주 2회에서 1회로 줄였다. 현안 대응에서 탐사보도로 무게 중심을 이동하자 얼마 안 있어 다시 현안 대응에 대한 우려가 나온 것이다.

문제제기가 계속되자 333 시스템은 2016년 11월 소폭 수정됐다. 발제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2개였던 취재팀을 4개팀으로 세분화하는 대신 팀장이 보다 적극적으로 팀원들의 발제를 독려하는 방식이었다. 자율을 제약하고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이었지만 기본적으로는 자율 발제가 원칙이었다. 그러나 이 실험 역시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 팀장 수가 많아진다는 것은 데스크가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했고 그만큼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취재 인력이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지는데 이를 예상하지 못한 것이다.

〈자료 5〉 후배 집단 한 명과 심층면담 중에서(2017년 6월 22일)

딱 상징적인 게 그거잖아요. 편집회의가 생기면서 팀장들이 많아졌잖아요. 편집회의에 못 들어가는 사람은 다 여기 밖에 있는 사람보다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편집회의인데도.

결국 탐사보도 전문 언론으로서의 정체성에 집중하다 보면 당면 이슈를 외면한다는 비판을 의식해야 하고, 질 높은 탐사보도를 위해 자율성을 보장했지만 자율에 수반되는 나태함이나 능력 부족을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었다. 구성원 일부에서는 〈KBS〉 탐사보도팀처럼 자율성을 계속 보장하기 위해서는 보도의 정규성을 포기해야 한다는 제안도 하고 있었지만, 그럴 경우 〈뉴스타파〉 자체가 일을 안 한다는 평가로 이어질 우려가 있었다. 좀더 요약하면 미디어 생태계 속에서 〈뉴스타파〉가 정확하게 어느 영역을 점령해 나갈 것인지를 정하지 못한 상태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

제 2 절 조직 총괄: 김용진

베버는 하나의 질서 체계에 정당한 타당성을 부여하는 근거로 전통, 카리스마, 합법성을 제시한다(Max Weber, 1904, 1917, 1976/2011, p. 260). 과거부터 통용되어 왔고 준수되어 온 관습이나 권위에 의한 전통적 정당성, 비범한 개인의 카리스마적 자질에 대한 믿음에 근거한 카리스마적 정당성, 합법적 규약이 정하는 객관적 권한의 타당성에 대한 믿음에 의거한 합법적 정당성이다.

세넷(Sennett, 2003/2004)은 사회에서 사람들이 존경을 얻거나 얻지 못하는 세 가지 방식을 제시한다. 첫 번째 방식은 자기 개발로 특히 능력과 기능의 개발을 통해 존경은 생겨난다. 뛰어난 지적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재능을 허비하는 사람은 존경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반면 재능은 좀 모자라지만 자신이 가진 능력의 한계까지 노력하는 사람은 존경을 불러일으킨다. 자기 개발이 존경의 원천이 되는 이유는 사회 자체가 낭비를 비난하면서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높이 평가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방식은 자기에 대한 돌봄이다. 자기에 대한 돌봄은 타인에게 짐이 되지 않음을 의미할 수 있는데 궁핍한 성인은 수치를 초래하는데 반해, 자급자족하는 사람은 존경을 받는다. 존경을 획득하는 세 번째 방식은 타인에게 무언가를 되돌려주는 것이다. 아마도 교환이야말로 존경을 얻는 가장 보편적인 원천일 것이다. (pp. 88-90).

따라서 지배 정당성은 강압적인 힘이 아닌 무엇에 대한 우월성을 바탕으로 아래로부터의 동의가 있어야 형성된다. 기자나 PD 세계에서든 선배는 입사 순서를 나타내는 기수가 아니라 보도와 관련된 우월한 기능을 갖고 있어 이를 후배에게 보여주고, 후배가 기능의 우위를 동의할 때 권위가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이때 선배는 기능을 내어주고 존경을 얻으며, 지도를 해줌으로써 통제권을 획득하게 되면서 교육이라는 공정한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기능이 희귀할 경우 우월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Willis, 1979/1989, p. 104).

참여자들 가운데 선배 집단은 해직이나 퇴직 이후 <뉴스타파>에 합류한 사람들인데 합류 당시 보도 경험이 15년을 넘는 사람들이다. 이는 보도 기능의 측면에서 이미 검증이 됐다는 것을 의미하며, <뉴스타파>가 출범 직후부터 활발한 탐사보도와 특종을 할 수 있었던 것도 검증된 보도 기능을 갖고 있었던 선배 집단이 있어서 가능했다. 그러나 2013년 3월 공채를 통해 합류한 후배 집단의 경우는 보도 기능이 없거나 다른 언론사 경력이 있더라도 탐사보도를 해 본 경험이 없었다. “방송이 처음인 완전 초짜 신입”이었던 후배들은 “워낙 뛰어난” 선배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존경과 함께 그들의 권위를 인정했고, 선배와 후배 집단 사이에는 전통을 기반으로 하는 위계가 정당한 질서로 자리 잡았다.

<자료 6> 후배 집단 한 명과 심층면담 중에서(2017년 6월 27일)

처음에는 저희가 방송이 처음인 완전 초짜 신입들이었고 선배들한테 이제 배우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뭔가 판단할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초반이 더 험악한 큰소리 많이 나고 곳곳에서 맨날 소리지르고 혼나고 울고 원래 초반에 더 심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일에 대한 혼남이었기 때문에 납득하면서 상처는 당연히 받지만 울면서 일하고 막 이랬어요.

<자료 7> 후배 집단 한 명과 심층면담 중에서(2017년 6월 30일)

여기 모인 선배들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고 어떻게 KBS를 때려치우고 여기에 나와서, 그래서 아무리 우리한테 뭐라고 해도 초반 1년은 꺾쩍하고 진짜 저 같은 경우는 마와리도 돌았는데 시민단체 맨날 뽕뽕이 돌리고 하셨는데 가끔은 이걸 좀 아니지 않나 싶을 때도 참았어요.

〈뉴스타파〉 내 결속에서 구심점으로 조직을 더욱 하나로 뭉치게 만든 사람이 김용진이었다. 그의 탐사보도 기능에 대해 참여자들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김용진에게는 본인만의 탐사보도 스타일이 있었는데 전형적인 머크레이크형으로 한번 먹잇감을 잡으면 지긋이 앉아서 승부가 날 때까지 가는 것을 좋아하는 꼼꼼한 사람이었다. 특히 이런 꼼꼼함은 탐사보도에 늘 따라다니는 소송의 위험이나 가치함몰 등을 관리하는데 큰 장점이었다. 참여자들의 김용진에 대한 이런 존경은 조직을 결속시키는 또 다른 원동력이었다.

〈자료 8〉 선배 집단과 일상대화 중에서(2014년 11월 25일)

작년에 송년회 할 때 김용진 선배가 딱 한 마디 했어. 작년에 조세피난처도 하고 댓글도 하고 했는데 자기가 볼 때 000 씨가 했던 SNS 트위터 국정원 직원 밝혀낸 특종은 내 언론사 20여 년 동안 나도 해보지 못한 특종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뉴스타파〉가 저만한 특종은 하기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 비록 상은 하나도 못 탔지만 자기는 정말 대단한 특종 했다고 생각한다. 딱 그 얘기 하는데 난 진짜 고맙더라고 감동적이고. ... 우리 내부 수장이 인정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탐사보도의 대가가.

참여자들의 표현에 따르면 김용진은 “피라미드 의사 결정 구조” 속에서 “모든 것을 컨트롤” 하면서 “모든 사안에 대해서 틀어 쥐”고 있는 사람이었다. 현장연구가 진행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KBS〉의 경우를 보면, 사장-본부장-국장-부장-팀장-평가자 순의 의사결정 구조인데, 이와 비교할 경우 〈뉴스타파〉에서는 사장과 본부장, 국장의 역할을 대표가, 부장과 팀장을 에디터나 팀장이 맡는 식이었다. 그러나 에디터나 팀장의 역할은 미약했는데, 김용진은 본방에 나가는 모든 보도의 데스크를 직접 하고 있었다. 참여자들 중에 〈뉴스타파〉가 지금의 기능과 영향력 그리고 인지도 등을 얻는데 있어 김용진의 역할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었다.

조직을 결속시키는 데는 선배 집단의 기능의 우위나 김용진의 카리스마 외에도 한 가지가 더 있었다. 다양한 비공식적 활동들이 공식 영역 속에 녹아 들어 있었다. 예를 들어 선배나 후배 또는 하는 일에 구분없이 어울려 식사를 하거나 자연스러운 술자리 등이 많았고 보도 등 업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자연스러웠다. 흥미로운 것은 이 같은 양상이 장인들의 작업장에서 장인과 직공, 그리고 도제가 결속하는 방식과 비슷하다는 점이다. 장인 작업장에서도 구성원들은 일과 결합된 의례에

주기적으로 참여하거나 직접 얼굴을 맞대는 친밀한 관계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면서 결속했다(Sennett, 2008/2010, p. 126).

〈자료 9〉 후배 집단 한 명과 심층면담 중에서(2017년 6월 27일)

처음에는 그거를 이제 풀 수 있는 주기적인 시간들이 항상 있었어요. 왜냐면 지금보다 규모가 훨씬 작았고 방송 끝날 때까지 모든 구성원이 남아서 기다려서 같이 방송을 보고 밥을 먹으러 가고 이런 자리들이 항상 있었거든요. 그 때는 회의 방식들도 뭐 팀 별 발제 이런 거 아니고 자유롭게 다 둘러 앉아서 한 테이블에서 자율적으로 발제하고 그 과정에서 피드백도 자유롭게 오고 가고 그런 식으로 내 아이템이 정해지면 혼나든 깨지든 간에 어쨌든 배워서 완성해나가는 과정이 항상 공동작업이라는 느낌이 되게 강했으.

〈뉴스타파〉 출범 초기 참여자들은 전통과 카리스마적 정당성, 그리고 다양한 비공식적 만남을 통해 결속을 유지했다. 이는 베버가 얘기한 공동체적 결속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데 참여자들은 자신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전통적 또 정서적 연대감을 기반으로 가족과 비슷한 공동체를 유지했다. 공동체적 결속과 반대되는 개념은 이익중심적 결속으로 합리적 동기에서 이루어진 이해 관계 조정이나 제후에 기반하는 관계를 일컫는다(Max Weber, 1904, 1917, 1976/2011, p. 268). 탐사보도 기능에서 선배와 후배 집단의 구분이 확연한 상황에서 후배들은 선배의 권위를 인정했고, 김용진의 위상은 조직을 결속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 특히 탐사보도에서의 그의 탁월성과 신뢰성 등은 매우 강력한 힘을 발휘했다. 후배들은 배우면서 실력이 향상되고 있다는 생각과 언젠가는 선배들처럼 스스로 탐사보도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으로 순응했다. 조직 운영상 몇 가지 규정을 정해 놓기는 했지만 경영상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뿐 이익중심적 결속은 미약한 상태였다.

그러나 공동체적 결속은 시간이 지나면서 부식되어 갔다. 이를 다시 전통과 카리스마적 정당성, 그리고 비공식적 만남의 차원에서 살펴보면 앞서도 얘기했듯이 정당성은 무엇에 대한 우월성을 바탕으로 아래로부터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선배는 기능을 내어주고 존경을 얻으며, 지도를 해줌으로써 통제권을 획득하게 되면서 교육이라는 공정한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후배 집단은 언제부터인가 조직 내에서 자신들이 처한 삶의 조건과 위치를 되돌아봤고 회의를 느끼기 시작했다. 공채로 입사했을 당시만 해도 모든 것이 결핍된 상황에서 선배들에 의지해서 참아 왔

지만 조직이 안정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 발전, 즉 자기가 개발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 연구에 참여한 후배 집단 대부분이 아래 심층면담 내용과 같이 자기 개발 가능성에 대한 불만을 토로 했다.

〈자료 10〉 후배 집단 한 명과 심층면담 중에서(2017년 6월 19일)

5년이면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중학생을 데려다 가르쳐도 제작은 가능하고 그런 식인 거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좀 뭐랄까 구성원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기자 1인분으로 하기 위한 어떤 차라리 뭔가 교육이라고 할 만한 그런 게 있는 게 좋을 거 같은데 〈뉴스타파〉에는 그냥 그 사람의 개인의 성장을 고려하기 보다는 당장 있는 걸 쳐내는데 사람이 동원 됐다고 생각해요.

〈자료 11〉 후배 집단 한 명과 심층면담 중에서(2017년 6월 28일)

전 직장에는 항상 뭐 사수라든가 직속 딱 정해진 선배가 있고 뭐 그런 관계가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그런 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저를 특별히 애정을 가지고 저에 대해서 지도해주고 편달해주는 선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자료 12〉 선배 집단 한 명과 심층면담 중에서(2017년 5월 24일)

후배들이 낸 아이템은 뭐 이룰테면 내가 많이 해봤으니까 해봤는데 이거는 아니야, 지금은 약간 불요불급이야, 뭔가 너는 정곡을 찌르지 못하는 거 같아, 그러니 이거는 그냥 때로는 그런 거 있잖아요 수시로 하자. 그러면서 지금까지 애들이 따라왔던 측면들이 어느 순간에 불신으로 작용하고 그거를 풀지 못한 것들이 저는 있다고 봐요.

또한 선배들의 탐사보도 기능을 의심하고 있는 경우도 나타났다. 후배들이 자신들이 선배들만큼의 탐사보도 기능을 갖추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었다. 중요한 것은 기능의 차이를 존경할 만큼의 차이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이 같은 이해에도 불구하고 선배들이 가지고 있는 후배들의 기능에 대한 불신과 보도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실수의 위험성은 여전히 제약 요인이었다. 제약의 중심에는 한 명의 기자나 PD로서 독립적인 탐사보도를 하기에는 “후배들이 아직 미흡하다”는 인식이 있었다.

〈자료 13〉 후배 집단 한 명과 심층면담 중에서(2017년 6월 30일)

못하면 혼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저희도 알겠고. 어떤 선배가 하는 엠부시는 과한 거 같고 어떤 선배가 하는 엠부시는 맞는 거 같고 평가를 할 수 있는데 특정 선배가 자꾸 자기 방식으로 우리한테 아직까지 그렇게 안 하면 혼 내키니까. 내가 판단했을 때 안 맞는 거 같은데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은 거 같아요.

더 심각한 것은 이 같은 후배 집단의 불만이 김용진에게로 향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김용진은 “피라미드 의사 결정 구조” 속에서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만큼 불만이 한 곳으로 모이는 것은 조직 안정성에 위험 요인이었다. 후배들이 보기에 선배들의 인식은 시간이 가도 바뀔 것 같아 보이지 않았다.

〈자료 14〉 후배 집단 한 명과 심층면담 중에서(2017년 6월 30일)

초반에는 워크숍 하면서 얘기를 하면 바뀔 거라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별 큰 불만이 없었어요. 근데 몇 차례 워크숍을 거치면서 ‘얘기를 해도 안 바뀌더라’라는 것들이 고착화되니까 그냥 우리는 우리끼리 선배는 선배끼리 하면서 말해봐야 안 바뀌는 거 우리끼리 놀자 이렇게 되는 게 생긴 것 같아요.

선배 집단 중 일부는 김용진에 대한 조직의 지나친 의존이 보도에서도 문제를 낳는다고 생각했다. 대표적인 것이 선배 집단의 책임의식 약화였다. 다음은 2016년 12월 선배 집단과 가진 술자리에서 나온 대화의 일부분이다.

〈자료 15〉 선배 집단과 일상대화 중에서(2016년 12월 20일)

참석자 1: 내가 생각할 때는 사실은 그 책임이 있잖아. 〈뉴스타파〉의 아젠다를 끌고 가는 책임이 과연 누구한테 있는지? 누구한테 있는지 애매한 상황들이 많은 것 같아. 뭐 에디터랑 기자들은 대표로 보고 있고 응? 대표를 봐. 대표가 결정해 주기를 기다려. 대표는 또 막상 그건 또 아니야. 대표는 또 올려 주기를 기다려.

참석자 2: 네네, 맞아요.

참석자 1: 기자와 에디터나 뭐 팀장들이 아이템을 발제해주기를 원해. 그런 상황 속에서 누구의 어떤 결정도 아닌 상황에서 애매하게.

동시에 공동체적 결속이 유지되는데 기능을 했던 비공식적 활동들도 차츰 사라지게 되는데 예를 들어 빈번했던 술자리나 회식은 특별한 계기가 있어야 하고, 식사는 여러 개의 하위 그룹들로 나뉘져 끼리끼리 먹는 식이었다.

〈자료 16〉 후배 집단 한 명과 심층면담 중에서(2017년 6월 27일)

언제부터인가 선배들과 같이 밥을 먹으러 가는 게 일의 연장처럼 느껴지고 부담이 되면서 그런 얘기를 잘 안하게 되고.

어느 시점부터인가 후배 집단은 김용진이나 선배 집단에 대한 존경을 축소시키거나 철회했고, 개인 차원에서는 퇴사나 개인주의, 주관적 안주, 무기력한 표류 등의 모습들이 보였다.

〈자료 17〉 후배 집단 한 명과 심층면담 중에서(2017년 6월 30일)

저는 맨 처음 입사했을 때 무급으로 라도 일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사실 저는 너무 보도가 좋아서. 그때는 뉴한 팩트가 있어서 좋은 게 아니었어요. 저렇게 심각한 상황이야? 이런 걸 알 수 있게 해주고 그거를 막 단순히 팩트 보도가 아니고 그들의 삶 얘기도 많이 해주고 호홉이 너무 좋고 그래서 난 이런 데라면 진짜 돈 안 받고 일 해야겠다 생각하면서 그때 면접 때에도 000선배한테 말하고 들어왔는데 지금은 이 정도 돈 받고는 굳이 이렇게 일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드는데 왜냐면 이렇게 일할 거면 다른 데 가서도 이거보다 많이 받으면서 일할 수 있다는 생각도 조금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마음이 생겼을까 하면은 〈뉴스타파〉가 초반의 〈뉴스타파〉스러움을 제가 보기엔 잃었기 때문에 구성원으로서의 애정이 떨어져서 그런 거 같은데.

심층면담을 진행하는데 쓰여진 반구조화된 질문지는 2014년 11월 예비 관찰을 시작할 당시에 작성된 것이었다. 물론 이후 본격적인 현장연구를 진행하면서 질문지는 상황에 맞게 조금씩 수정되어 갔지만 주요 질문들은 대부분 중복돼 있었다. 현장연구가 막바지에 다다를 무렵 연구자에게는 〈뉴스타파〉가 설립된 이후 조직의 변화를 좀더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싶은 욕구가 생겼다. 그러던 중 예비 관찰 당시인 2015년 2월 25일 후배 집단 참여자 한 명과 면담을 한 사실을 확인했고, 2년이 지난 시점인 2017년 3월 16일 같은 질문으로 다시 심층면담을 시도했다. 참여자는 2년 전 면담이 있었다는 사실만 기억하고 있을 뿐 당시의 질문이나 답변은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2년 전과 후의 면담 결과는 2년 동안 한 개인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었고 <표 5>의 이런 자료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연구자로서는 행운이었다. 질문이 많아 방대한 내용이지만 가급적 면담 결과를 자세히 정리했다.

<표 4> 후배 집단 참여자의 2015/2017년 심층면담 결과 비교

질문	2015.2.25 면담	2017.3.16 면담
재미있나?	네 재미있 것 같아요.	일어요? 글썄요 요즘은 그렇게 막 일이 재미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무엇이 제일 재미있나?	내가 관심 있는 문제에 대해서 계속 찾아보게 되고 어떻게 보면 아이টে를 선배들이 시켜서 한다기 보다는 내 스스로 내가 뭔가에 자꾸 발굴해 내고 그런 게 재미있 것 같아요.	아이টে에 대해서 고민을 너무 관성적으로 시키는 거만 하게 되는 거 같다는 얘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네가 지금 뭘 하고 싶어 이야기하면 딱히 뭘 뚜렷하게 생각나는 건 없는데.
입사 때와 비교해 달라진 것은?	조금 더 큰 것 같은데요. 제 생각은 더 큰 것 같은데 되게 아이러니한 건 ‘내가 좀 더 컸다’ 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취재는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고민도 많아지고.	기자로서는 조금 더 단단해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여전히 취재는 어렵고 리포터 하는 것도 어렵고 하기는 한데 취재원 대할 때 제가 예전처럼 서툴지는 않은
탐사보도는 무엇인가?	되게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 다른 시각으로 내가 다른 식으로 접근해서 어떠한 문제의 본질에 최대한 가깝게 다가가 수 있게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계속해서 하는 보도라고 생각해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 거 같아요. 저도 사실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 우리가 그냥 기존 방송에서 다루는 그런 짧은 리포트보다 조금 더 어떤 걸 심층적으로 보려고 하고 더 깊이 다루려 하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탐사보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좋은 탐사보도란?	얼만큼 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가 좋은 탐사보도를 결정하는 거 같아요.	사회적으로 얼마나 큰 반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그런 게 좋은 탐사보도인 것 같아요
좋은 탐사보도 기자란?	끊임없이 궁금해해야 되는 것 같아요. 모든 거에 그냥 딱 뭔가 있을 때 끝이곧대로 믿고 그런가 보다 이게 아니라 왜 이런 말이 나왔지? 이 뒤편 또 뭔가 있는 거 아닐까?	아무래도 좀 집요하게 취재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 탐사보도 기자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탐사보도 기자 계속?	지금 <뉴스타파>가 하고 있는 이런 보도의 형태가 제가 생각했던 기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보도 형태에 맞는 것 같아서 그건 좋은 것 같아요.	단순히 <뉴스타파>의 문제가 아니라 기자 말고 내가 다른 일을 하면은 재미가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항상 있기는 있어요.
기억에 남는 보도?	조세피난처	2013년도에 조세피난처

재미없는 아이템?	오더	저희도 이제 밖에 나가면 저랑 비슷한 연차의 다른 회사 기자들을 보잖아요. 그런데 뭔가 그 사람은 저보다 더 자기 몫을 하고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저는 뭔가 저 스스로를 봤을 때 항상 선배가 시키는 거에 막 열심히 하는 느낌이지 내가 스스로 뭔가를 그 비교하게 되면 제가 되게 어리게 느껴지고 그러는 거예요.
선배, 대표 역할?	격이 크게 차이가 나고 이런 게 아니라서 그냥 다 기자 선배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제가 처음 <뉴스타파>에 들어왔을 때에는 사실 팀장 이런 거 없이 다 기자로서 취재하고 이랬잖아요 선배들도. 지금은 모든 선배들이 다 팀장으로 앉아 있으니까 약간 왜 이렇게 됐지? 우리는 조그만 조직인데 왜 이렇게 팀장이 많은 거지? 이런 생각도 들고요. 팀장 회의한다고 한다면 선배들 다 들어가니까
탐사보도 교육?	스스로 알아가는 것 외에 교육이라고 이름 붙일만한 건 없어요.	딱히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 없이 다치면 알아서 하는 거니까.
선배로부터 교육?	거의 일상처럼 계속 대화 듣고 이러면서 취재를 거의 선배랑 같이 붙어서 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따로 자리를 마련해서 한다가 보다는 많이 그런 식으로 가르쳐주시고.	선배들한테 배운 게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뭐 배우는 거는 많은 거 같아요. 사실 선배들이 막 일을 시키는 거에 불만이 있으면서도 배우는 게 있긴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뉴스타파> 약점?	확장성 문제라든지 그거에 대해서 애길 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오래된 조직도 아니고 자리를 완전히 잡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서로들 배워나가는 과정인 것 같고 이거 어떻게 조직을 운영해야 되냐 대해서도 아직까지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고요.	뉴스포차하면서 대선 후보들 중에 문재인이나 유승민, 남경필, 안철수 다 안 나온다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 보고서 아무리 우리는 되게 객관적인 언론이라고 외쳐도 밖에서 봤을 때에는 편향됐다고 보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뉴스타파> 진보?	얘기해요. 너무 무정부적이고 너무 그런 쪽이라고.	일단은 저희 리포트가 보수적으로 엄청 그렇진 않잖아요
동료 만족		동료들에 대한 만족도 9점
직무 만족		직무에 대한 만족도 6~7점
상사 만족		상사에 대한 만족도 5점
업무량		많은 편이에요

참여자는 2년 전 “재미있다”와 달리, 두 번째 면담에서는 “재미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2년 동안 탐사보도 언론인으로서 크게 성장하지 못했다고 느꼈다. 특히 취재 현장에서 만난 타사 기자와 비교해도 자신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인식을 스스로 갖고 있었다. 그가 생각하는 탐사보도는 탐사보도의 정의 수준에 머물렀고, 2015년이나 2017년 모두 기억에 남는 보도는 2013년에 했던 보도였다. 선, 후배 사이 소통의 어려움을 호소했는데 조직이 관료화 되는 것을 원인으로 생각했다. 입사 이후 교육은 선배를 따라다니거나 같이 일하면서 배우는 방식이었다. 이 같은 상황이 누적되면서 직업에 대한 만족도는 크게 저하된 상태였고 직장을 그만 두는 것을 고민하고 있었다.

월리스(Willis, 1979/1989)는 노동자 계급이 특정한 제도로부터 영향을 받으면서도 그로부터 분리되는 과정을 분화(differentiation)로 설명한 바 있다. 여기서 분화란 공식적인 질서 체계에서 예상되는 전형적인 교환이 계급적 이해관계와 감정, 그리고 의미와 관련되어 재해석되고, 분리되고, 구별되는 과정이다. 분화의 역동성은 제도에 대해 얼마나 반항하는가에 달려 있다. 통합은 분화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저항과 그 의도들이 겹보기에 정당한 제도적인 관계 및 교환 속에서 재정의되고 수정되는 과정이다. 모든 제도는 분화와 통합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분화는 결코 제도적 기능의 미비나 실패를 의미하지 않는다(p. 102).

〈뉴스타파〉에서의 분화는 간파와 제약, 그리고 저항의 과정으로 간파는 ‘현실을 꿰뚫어 보는 것’이고, 제약은 ‘간파의 발전을 가로막는 것’이며, 저항은 ‘정당성에 대한 개인적, 집단적 반항’이라고 할 수 있었다. 분화를 주도하는 것은 후배 집단이었다. 분화가 언제부터 나타나고 심화됐는지를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후배들은 자신들의 오늘을 간파하기 시작했는데 탐사보도 언론인으로서 미래가 보장될 것 같지 않은 오늘이었다. 〈뉴스타파〉에 처음 입사했을 때 가졌던 김용진이나 선배 집단에 대한 믿음과 존경은 더 이상 예전 같을 수 없었다. 그러나 선배 집단은 여전히 그들의 탐사보도 기능 미숙을 이유로 후배 집단의 불만을 제약했다. 결국 후배들은 저항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저항을 결심한 것은 변화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였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뉴스타파〉는 탐사보도 전문 언론에 맞는 최적의 질서 체계를 찾아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었다. 우선 〈뉴스타파〉는 전통과 김용진에 기반한 지배 정당성이 약화 내지 부식되면서 공동체적 결속이 거의 소멸된 상태였다. 그렇다고 이익중심적 결속으로 나아갔거나 규약에 의한 합법적 정당성을 확립한 것도 아닌 상황이었다. 선배들로부터 기능을 전수받고 후배들은 존경을 주는 교육이라는 공정한 교환은 더 이상 유의미한 기능을 하지 못했다. 후배들의 불만은 저항의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다. 결국 〈뉴스타파〉는 질서 체계의 근간인 지배 정당성, 그리고 정당성의 핵심이었던 권위와 존경을 어떻게 다시 복구할 것인가의 문제를 안고 있었

다. 권위는 강압적인 힘이 아닌 무엇인가에 대한 우월성을 기반으로 하는데 여기서 ‘무엇’을 재정립해야 하는 것이다. 선배들이 주장했던 탐사보도 기능의 우월성만으로는 권위를 보장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무엇’에 대한 우월성을 재정립한 뒤 이를 후배 집단과 ‘어떻게 공유’하고 ‘전수할’ 것인가에 대한 과제도 안고 있었다.

둘째, 위의 문제와 연결된 것으로 지배 정당성을 새롭게 형성했다면 그에 맞는 결속 방식을 찾아야 했다. 예를 들어 공동체적 결속을 다시 회복할 것인지 아니면 포기하고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지의 여부이다. 〈뉴스타파〉는 그 동안 조직을 관리하기 위해, 때로는 편의를 위해서 새로운 의사결정 단계와 규약을 만들어 왔고 구성원들은 조직이 수직적이고 관료주의적이라며 불편해하고 있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규약에 근거한 합법적 정당성이 탐사보도 기능을 고양하고 공유하는 데 적합한지에 대한 검토가 그동안 없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뉴스타파〉가 언제 탐사보도를 통해 가장 많은 성과를 냈는지, 그리고 당시 조직은 어떤 방식으로 결속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후배 집단뿐만 아니라 선배 집단에서도 과거 공동체적 결속일 때가 더 탐사보도를 하는데 좋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 공동체적 결속 방식이 〈뉴스타파〉에 적합한 방식이라면 활성화되고 있는 다양한 하위 문화는 의외로 심각한 현상일 수 있다. 선, 후배 사이뿐만 아니라 후배들 사이에서도 격리된 다양한 하위 문화가 활성화되고 있었는데 앞으로 권위를 회복하는데 큰 장애가 될 가능성이 높았다.

마지막으로 ‘김용진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해 나가야 할지가 단기적으로 〈뉴스타파〉가 직면한 난제로 보여 졌다. 〈뉴스타파〉라는 배의 선장은 김용진이다. 문제는 현재 〈뉴스타파〉 내 선배 집단에서 김용진을 대체할 수 있는 인물이 없다는 점이다. 그 만큼 김용진에 대한 의존은 절대적이었다. 참여자들 대부분은 현재 상황에서 김용진이 없을 경우 〈뉴스타파〉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었다. 그러나 후배 집단을 시작으로 참여자들 사이에 김용진의 개혁 의지에 대한 의심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김용진에 대한 의심이 김용진 개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뉴스타파〉의 리더십 부재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뉴스타파〉는 어쩌면 실험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다. 변화하는 환경에 맞는 취재와 제작 시스템을 찾아가는 다양한 노력이 시도되고 있었고 노력의 중심에는 김용진이 있었다. 그러나 조직이나 문화 차원에서 아직 안착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였다. 오히려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방향을 상실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도 받았다. 현장연구가 끝날 무렵 〈뉴스타파〉는 조직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구성된 TF가 구성원들은 물론 외부 전문가 면담과 후원회원들에 대한 설문조사까지 병행해 전반적인 조직 진단과 대안 마련에 들어갔다.

제 3 절 재정 기반: 후원회원

〈뉴스타파〉를 배에 비유한다면 김용진은 선장이고, 구성원은 선원이며, 후원회원은 연료라고 할 수 있다. 후원회원은 〈뉴스타파〉가 어디에도 눈치를 보지 않고 독립적으로 탐사보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재정적 원천이다. 그러나 그들은 돈만 대주는 것이 아니라 보도가 자신들의 생각과 다를 경우는 배를 흔들거나 때로는 뒤집을 수도 있다고 압력을 넣었다. 압력은 참여자들이 마음을 다잡는 계기도 되지만 때로는 그들의 탐사보도 의지를 위축시키기도 했다.

광고를 기반으로 하는 언론사는 뉴스라는 정보를 수용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또는 받게 될 관심을 상업적 가치의 형식으로 광고주에게 제공하고 광고료를 받는 이중적 상황에 있다. 언론사의 직접 수입원이 수용자가 아닌 광고주인 점은 언론인에게 수용자와 광고주에게 동시에 충성할 것을 요구하는데 언론인은 반복적으로 두 충성심 간의 충돌 상황에 놓이게 된다(McManus, 1992; McQuail, 2005/2008). 진실 보도라는 사회적 책무와 이윤 추구 사이의 어색한 동거 상황은 언론의 이상이 서서히 현실과 타협해 가는 과정이기도 하다(Haas, 2007/2008, p. 114).

〈뉴스타파〉는 후원회원들이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후원금을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타협을 할 필요가 없고 수용자의 이해를 극대화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시간과 비용 등 자원을 무제한으로 투입할 수 있는 장점을 누리고 있다. 따라서 참여자들은 어떻게 하면 수용자들의 관심을 집중시켜 후원회원을 늘릴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 〈뉴스타파〉가 인력을 새로 뽑는 등 조직을 키워나갈 수 있는 것도 후원회원의 증가가 있어서 가능했다.

참여자들은 후원회원에게 재정적으로 의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로부터 에너지도 받고 있었다. 〈뉴스타파〉는 후원회원 가입을 받을 때 이름과 나이 그리고 계좌번호 이외의 정보를 수집하지 않기 때문에 성별과 연령대 외에는 회원들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 다만 “사정이 그리 넉넉하지 못한 평범한 서민”들로 “정치지식이나 참여의 수준이 높은” 사람들로 추정하고 있었다.

인지도나 영향력이 미약했던 〈뉴스타파〉 출범 초기, 보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격려하는 의견을 개진하거나 과일이나 간식 등을 보내주는 등 애정을 표현하는 회원들은 참여자들이 〈뉴스타파〉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자극제가 됐다. 2014년 겨울 예비 관찰 당시 선배 집단과 가진 술자리에서 나온 다음 대화는 참여자들이 당시 느낀 후원회원에 대한 고마움을 잘 보여주고 있다.

〈자료 18〉 선배 집단과 일상대화 중에서(2014년 11월 25일)

내가 예전에 광주 출장 가는데 광주법원 앞이었어요. 어떤 남자가 와가지고 〈뉴스타파〉시죠? 음료수 두 개를 주고 갔어요. 나는 온마이크도 잘 안하고 얼굴 내보내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어떻게 날 알고 주신 거예요. 어느 언론사에서 그렇게 상을 받을까? 그게 내가 조금 더 일할 수 있는 모티브가 돼요.

〈자료 19〉 선배 집단과 일상대화 중에서(2014년 11월 25일)

‘항상 응원합니다’, ‘초심을 잃지 말아주세요’라고 내가 메시지 보낼 수 있을까? 상상이 안 가요. … 그런 식의 문자나 메시지 무수하게 많이 받았어요. 그 때마다 가슴이 막 울컥울컥 해요. 사실 나는 나 먹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 얘기를 받으면 진짜 울컥울컥 해요.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면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겠는가? 물론 의사를 하면 환자한테 이런 얘기 들을 거고. 불구덩이 가서 구해주면 소방관이 그렇겠지만, 직종 상관없이 상황에 상관없이 모든 지역에 상관없이 해외에 있는 사람들까지 해서 그런 응원을 듣는다는 건 엄청난 영광이죠. 진짜 영광이죠. 그게 진짜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고 할까? 그거 하나만 보면 진짜 여기 뭐가 막 생겨요. 계속 그런 거 볼 때마다 나태해지면 안 되겠다. 항상 날 돌아봐야겠다 내가 최선을 다 하는지.

〈뉴스타파〉는 후원회원들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회원들이 보내준 후원과 지지에 보답하는 차원이 주요 목적이지만 동시에 참여자들도 회원들의 응원과 채찍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각오를 다지는 계기로 삼기 위함이었다. 예를 들어 ‘회원시사회’라는 것을 시작했는데 매달 넷째 목요일 회원들을 〈뉴스타파〉 사무실로 초청에 본방을 함께 시청한 뒤 보도 내용에 대한 것은 물론 〈뉴스타파〉 전반에 대해 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후 제작 스튜디오와 뉴스룸 등을 함께 둘러보는 행사이다. 초청 인원이 처음에는 40명 정도였지만 1년쯤 후에는 백 명으로 늘었다. 또 매년 12월 하순에는 ‘회원의 밤’ 행사를 통해 회원들과 한 해의 성과와 다음 해의 각오를 공유하고 있었다. 이 외에도 〈뉴스타파〉가 제작한 영화 〈자백〉과 〈공범자들〉의 경우 회원들에게는 무료로 예매권을 제공하는 등 후원회원의 소중함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자료 20〉 선배 집단과 일상대화 중에서(2016년 12월 20일)

참석자 1: 우리 4만 2천 우리 후원자들 굉장히 의리가 있는 사람들이야.

참석자 2: 미안해.

참석자 1: 그게 중요해. 그 사람들이 보는 거를 있잖아. 그 사람들이 보는 거는 우리 진정성을 보는 거야.

참석자 3: 맞아요.

참석자 1: 우리 진정성을 보는 거지 우리의 실력만 보는 것도 아니야. 어떤 분이 손석희 사장한테 뭐 지지 마세요 그런 얘기하는 건 우리 〈뉴스타파〉 후원자로서의 자존심을 보여주는 이런 거지. 그만큼 우리를 지지하겠다는 의사표시야. 손석희라는 사람과 JTBC라는 매체가 갖고 있는 그 화려함과 그 물량과 이런 것과 다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좀 모자라긴 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정신, 이것을 끝까지 지켜나가려고 하는 우리 마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거야. 이것을 지켜나가면서 우리가 중요한 의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중요한 의제에 대해서 우리의 나름의 방식으로 우리 나름의 발언을 할 수 있다면 나는 그분들은 우리를 계속 끝까지 지지해줄 거라고 봐.

〈뉴스타파〉가 처음 후원회원 방식을 도입하게 된 경위와 이후 회원이 증가하는 과정은 〈뉴스타파〉를 이해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2012년 1월 27일 첫 보도 이후 〈뉴스타파〉 보도에 들어가는 재원은 언론노조 민실위 예산이 이용됐다. 곧 민실위 예산이 바닥나자 언론노조는 집행위원회 의결로 언론개혁기금 2,500만 원을 전용해 지원했지만 보도가 계속되면서 더 이상 언론노조 예산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당시 제작진이 방송사 출신들로 구성되면서 “우리가 잘하는 걸 해보자”며 방송 보도를 추구했는데 여기에는 제작, 서버, 장비 비용 등이 만만찮게 필요한 상황이었다.

2012년 6월 시즌 1의 앵커였던 노종면이 〈뉴스타파〉를 떠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시즌 1이 종료되자 당시 제작진은 본격적으로 재원 문제를 논의했고 “제작은 언론노조와 해직 언론인 중심으로, 재원은 시민사회를 통해서”라는 방식을 채택했다. 2016년 7월 초, 〈뉴스타파〉 시즌 1 평가 토론회를 통해 후원회원 방식의 도입을 알렸고 곧바로 인터넷 사이트를 열어 회원을 받기 시작했다. 회원 모집을 위해 〈경향신문〉, 〈서울신문〉, 〈한국일보〉 등에 시민사회의 참여를 요청하는 광고를 싣기도 했다. 당시 광고 요지는 “1만 시민의 1만 원 후원으로 〈뉴스타파〉를 지켜주세요. 한국의 프로퍼블리카를 꿈꿉니다”였다.

시즌 1 때도 후원회원 논의는 있었지만 당시 제작진은 적극적이지 않았다. 주로 <KBS>와 <MBC>, <YTN> 출신이었던 제작진에게 <뉴스타파>에서의 보도는 자기만 성과 시민들에 대한 사죄의 의미도 담고 있었다. 때문에 그들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을 두고 후원을 받는 것을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일정한 성과를 낸 후에 이런 보도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후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던 진정성이 후원 모델이 성공할 수 있었던 원인 중 하나였던 것으로 보여 진다.

연구자는 <뉴스타파> 후원회원의 후원 동기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한다. 하나는 ‘친문재인 성향’이며 다른 하나는 ‘탐사보도 지원’이다. 출범 초기 <뉴스타파>는 언론을 추구하기 보다는 언론운동 차원의 한시적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당시 제작진은 2012년 12월 19일에 있을 대통령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뉴스타파>를 해소하고 모두 원래 직장이나 하던 일로 복귀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었다. 대선 전 12월 12일 방송을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제작진은 모두 휴가를 갔고 당시 남아있던 6천만 원 정도의 후원금은 어딘가에 기탁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었다. 그런데 대선 결과에서 박근혜가 당선되자 상황이 급변했다. 문재인 지지 진영에서 대선 패배의 원인으로 권력에 포섭된 언론의 편파 보도가 지목되면서 대안 언론을 키우자는 움직임이 일었고 그 대상 가운데 하나로 <뉴스타파>가 떠올른 것이다. 문재인 지지자들이 느낀 대선 패배의 상실감이 <뉴스타파> 후원 운동으로 유입된 것이다. 대선 직후인 12월 21일부터 31일까지 열흘 사이에 후원회원이 갑자기 만 명이 늘어났다. 그 전까지만 해도 회원은 6천 명 선이었다.

때문에 대통령 선거 직후 가입한 회원들의 경우 정치 성향을 기준으로 봤을 때 문재인이나 당시 야당이던 민주통합당 지지 성향이 강한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들을 ‘정파성 후원회원’으로 부를 수 있다. 참여자들도 이들이 정치적 동기로 후원했을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다. 물론 이들이 이후에도 정파적 이유 때문에 후원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는 확인이 불가능하지만 정치 성향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의 후원 동기는 <뉴스타파> 보도를 평가할 때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자료 21> 선배 집단 한 명과 일상대화 중에서(2017년 5월 11일)

만 명 들어왔다니까. 그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이쁘다기 보다는 너가 앞으로 박근혜 까고 다음에 저기 조중동 이런 거에 방어 논리를 펴고 그래서 문재인을 제대로 알려달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어? 그게 문재인이든 야당이든. 그래서

지긋지긋한 보수정권 깨고 정권교체를 제발 해달라고 민주적인 정권교체를, 그런 의미 아니겠어?

재정적 안정화의 기초가 마련되고 대안 언론으로서 역할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시즌 3가 결정됐다. <KBS>를 퇴직한 후 세명대학교 교수로 있던 김용진이 교수직을 그만 두고 대표로 참여했고, 언론으로서의 규모를 갖추기 위해 기자와 PD도 충원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 <뉴스타파>에는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라는 이름 하에 탐사보도 전문 언론을 표방한 것이다.

조직의 성격이 언론운동 프로젝트에서 탐사보도 전문 언론으로 바뀌면서 탐사보도의 독립성과 후원회원의 정파성이 상충할 수 있다는 점이 예상됐지만 당시 <뉴스타파>는 스스로 추구하는 보도가 정파보도가 아닌 탐사보도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후원회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후 집권 권력인 박근혜 정부에 대한 적극적인 탐사보도가 회원들의 정파성과 어느 정도 일치하면서 회원도 늘어났고 조직은 더욱 탄탄해졌다. 이를 두고 참여자들은 “운이 좋았다”고 평가했는데, 일종의 오월동주 전략이었던 셈이다.

〈자료 22〉 선배 집단 한 명과 일상대화 중에서(2017년 5월 11일)

우리가 탐사저널리즘센터를 통해서 탐사 기관으로써 해보자 이렇게 되면서 사실 내부 구성원에 어떤 창립 정신과 취지와 후원자들 간의 괴리가 그 때부터 시작된 거야. 후원자들의 괴리가. 근데 그게 우리가 어떤 탐사로써 아주 전형적인 권력과 오작동과 오남용을 그게 누구겠어? 박근혜 정부이고. 그게 예를 들면 자원외교, 4대강 이런 게 나오니까 이제 그게 계속 올라가고 그 다음에 조세피난처 통해서 기득권 세력의 있는 사람들의 사회 부유층의 일탈 행위를 하니까 올라간 거고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그게 너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서로가 이제 생각은 다르지만 결과물로써 보면 같다고 본거지.

2013년 3월 시즌 3이 시작된 후 후원회원 수는 서서히 계단식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참여자들은 경험적으로 “좋은 탐사보도가 나갔을 때 회원들이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시즌 3 이후 가입한 회원의 경우 문재인 지지라는 정치적 성향보다는 <뉴스타파> 보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후원을 시작하는 동기일 가능성이 높았다. 이들은 정파성 보다는 탐사보도 전문 언론을 추구하는 <뉴스타파>의 가치를 평가하는 ‘탐사보도 후원회원’이며 이념적으로는 진보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

다.

연구자가 전체 후원회원에서 정파성 회원과 탐사보도 회원의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참여자들도 2012년 말부터 2013년 초에 가입한 경우 정파성 후원 성향이 강할 것이라고 추정할 뿐이었다. 이런 추정은 그 동안 있었던 회원의 대거 해지 사태를 돌이켜 볼 때 상당한 일리가 있었다. <뉴스타파>가 설립된 후 현장연구가 진행되는 기간까지 참여자들은 세 번의 회원 대량 해지를 경험했다. 2014년 7월 18일 ‘권은희 후보, 남편 수십억 대 부동산 보유 축소 의혹’ 보도가 있는 후 1,500명이, 2015년 11월 30일 ‘국회 산자위원장, 의원실에 카드단말기 두고 공기업에 책 불법 판매’ 보도 후 500명이, 그리고 2017년 3월 16일 ‘문재인 캠프, ‘SNS 기동대’ 사건 책임자 SNS팀장 재기용’ 보도 후에는 2,000명이 해지했다. 모두 보도 직후 2~3일 사이에 이뤄진 것으로 보도에 대한 불만이 직접적인 해지 이유였던 것으로 보인다. 3건의 보도로 4천 명이 해지한 것은 참여자들에게 충격이자 위기였다.

세 건의 보도에서 취재 대상이었던 권은희, 노영민, 문재인은 모두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 소속 정치인이었다. 당시 팀장회의에 정식 보고된 바에 따르면 세 건의 보도 이후 해지한 사람 중에 회원 가입 시기로 볼 때 2012년 말과 2013년 초에 가입한 사람들이 가장 많았다. 즉 정파성 회원들이 지지하는 정치인이나 정파에 대한 비판 보도에 불만을 품고 해지했을 가능성이 있었다. 참여자들이 특히 심각하게 받아들인 것은 당시 국회의원으로 산자위원장이던 노영민에 대한 보도 여파였다. 권은희와 문재인에 대한 검증 보도의 경우 공직자나 공직 후보자의 경우 일반인 보다 엄격한 도덕적 기준이 적용되는 만큼 충분히 할만한 보도였지만 그 과정에서 사실의 과장이나 편향 등 흠결이 있었다는 지적이 참여자들 내부에서 제기됐다. 따라서 두 보도 이후 해지한 경우 정파성 때문인지 보도의 흠결에 대한 실망 때문이었는지 정확히 가늠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노영민에 대한 보도는 달랐다는 것이 참여자들의 일치된 생각이다.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국회의원실에 카드단말기까지 설치해 놓고 자신의 시집을 감사 대상인 공기업에 사실상 강매했다는 내용의 보도는 취재 과정은 물론 내용에 흠결이 전혀 없었는데도 회원들이 500명이나 이탈한 것이다. 따라서 보도에 어떤 흠결이 없는데도 해지했다면 문재인 지지 성향이 강한 정파성 후원회원일 가능성이 높았다.

〈표 5〉 권은희, 노영민, 문재인 보도 이후 후원회원 해지 분석

	정파성 후원회원	탐사보도 후원회원
해지 이유	정치성향과 반대 보도	보도 흠결/경쟁력 저하
권은희 보도	해당	일부 해당
노영민 보도	해당	해당 없음
문재인 보도	해당	일부 해당

이 같은 상황은 참여자들에게 난제를 던져 주었다. ‘회원과의 거리’로 탐사보도의 근본 원칙인 독립성의 문제였다. 이는 잠재되어 있었고 또 선배 집단 중심으로 외면해 왔던 문제이기도 했다. 후원회원이 탐사보도를 구현할 수 있는 훌륭한 토양이지만 어떤 때는 탐사보도를 제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된 것이다. 실제로 참여자들은 회원과의 거리를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지만 현실론과 원칙론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했다.

〈뉴스타파〉의 고민은 어쩌면 예정돼 있었다. 그동안은 〈뉴스타파〉의 방향성과 회원들의 성향이 일치하면서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다. 연구자는 이를 오월동주 전략이라고 불렀다. 서로의 생각은 달랐지만 가는 방향이 같았기에 동행했던 것이다. 그사이 조직은 성장했고 참여자들은 마음껏 자신들의 소명을 펼칠 수가 있었다. 그러나 정권교체가 이뤄지면서 외면했던 문제가 불거졌다. 보도의 방향과 회원들의 성향이 상충하는 경우가 생기기 시작했고 회원들의 이탈이 뒤따랐다. 참여자들뿐만 아니라 〈뉴스타파〉 조직 자체가 아직 해법을 찾지 못한 상황이었다.

제 5 장 소명의 양상

제5장은 첫 번째 연구문제에 대한 연구 결과로 연구 참여자들이 실천하고자 하는 소명의식의 양상을 제시한다. 소명의식은 내면에 있는 신으로서의 대의, 즉 신념과 그것에 열정적으로 헌신하는 행위이다. 다시 말해 소명의식은 신념과 그것을 이루려는 열정이다. 이런 소명의식의 정의 아래 <뉴스타파> 참여자들이 헌신하고자 하는 소명의식이 있는지, 있다면 소명의식의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소명의식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등에 대해 연구된 결과를 제시한다. 아울러 참여자들 내에서 개인별 또는 집단 별로 소명의식의 실재에서 질적 차이가 있는지도 제시한다.

소명의식은 개인이 자신의 삶을 살면서 그때 그때 열정적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마음 속에서 느끼는 무게와 열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개인에 따라 여러 가지 소명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개인은 이들 개별 소명들의 논리적 층위를 따지기 보다는 마음 속 중요도에 따라서 추구해 갈 것이다. 다만 본 연구가 주목한 것은 참여자들이 추구하는 직업정신 가운데 <뉴스타파> 언론인이라는 직업과 밀접한 것들이었다. 다시 말해 <뉴스타파> 구성원으로서 또는 탐사보도 언론인으로서 열정적으로 헌신하며 구현하고자 하는 것들이다. 따라서 직업정신과 관련이 적은 개인적 차원의 신념은 부득이하게 논의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었다.

제 1 절 <뉴스타파> 참여 경로

연구 참여자들은 언론인으로서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서 자발적으로 <뉴스타파>에 모인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그들이 <뉴스타파>에서 하고 싶은 것과 그들이 <뉴스타파>에 참여하게 된 이유와 경로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여기서 참여자들의 <뉴스타파> 이전 경력과 구체적인 참여 이유를 살펴보는 것도 참여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뉴스타파>에 참여했는지가 <뉴스타파>에서 실천하고자 하는 직업정신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뉴스타파>가 시즌 3, 즉 탐사보도 전문 언론으로 출발한 후 <뉴스타파> 보도에 참여한 기자(조사기자, 촬영기자 포함)나 PD는 연구 참여자 19명을 포함해 모두 45명이었다. 이들이 <뉴스타파>에 참여하게 된 경로는 해직과 퇴직, 그리고 공채로 압축될 수 있는데 이들이 <뉴스타파>에 참여하게 된 계기를 살펴본다.

1. ‘해직’ 언론인

잘 다니던 언론사에서 해직된다는 것은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이다. 이미 언론 보도나 영화 등을 통해 알려졌듯이 해직 언론인들이 겪은 고통은 다른 어느 해직 노동자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 〈뉴스타파〉 시즌 3에 참여한 전체 45명 가운데 해직자들은 7명이었다. 이 가운데 최승호와 이근행은 모두 언론노조 〈MBC〉본부 위원장을 맡았던 사람들로 정권의 언론장악 시도에 저항하다 해직된 경우였다. 최승호는 2012년 〈MBC〉 김재철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노조의 170일 파업에 참여했다 해직된 후 시즌 3부터 앵커이면서 PD로 〈뉴스타파〉에 참여했다. 그는 〈뉴스타파〉에 있으면서 국정원의 간첩 조작 사건을 다룬 영화 〈자백〉과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 동안 공영방송이 권력에 포섭돼 가는 과정을 다룬 영화 〈공범자들〉을 제작하기도 했다. 이근행은 이명박 정권 당시 김재철 사장 선임을 반대하며 39일간의 파업을 이끌다가 2010년 6월 해직된 후 2013년 1월 특별채용 형식으로 복직했다. 이근행이 〈뉴스타파〉 시즌 3에서 실질적인 보도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뉴스타파〉를 기획하고 설립하는데 1등 공신 중 한 명이었다. 특히 이근행은 다른 해직 언론인을 적극적으로 〈뉴스타파〉에 참여시킨 사람이었다.

해직 언론인 중에는 〈YTN〉 출신들이 4명으로 가장 많았다. 현덕수, 권석재, 조승호, 정유신이다. 이들은 모두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구본홍이 사장으로 임명되자 방송 장악을 위한 낙하산이라며 반대 투쟁을 하다 해직된 경우였다. 최승호와 이근행은 PD수첩에서의 경력으로 탐사보도 기능이 이미 검증된 사람들인 반면, 〈YTN〉 출신들은 탐사보도 기능이 상대적으로 미약했지만 〈뉴스타파〉에서 탐사보도를 배우는 새로운 경험을 쌓아갔다(정유신, 2015; 현덕수, 2016). 〈뉴스타파〉에 해직 언론인들이 모여있다는 사실은 〈뉴스타파〉에 대한 동정적인 시선을 불러왔다.

〈뉴스타파〉에 해직 언론인들이 적극 참여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다. 언론노조 소속 언론사에서 해직자가 발생할 경우 언론노조나 단위 노조에서 임금을 보전해 주는데 해직 언론인들은 그에 맞는 활동을 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뉴스타파〉라는 공간이 만들어졌고 기자나 PD였던 사람들이 〈뉴스타파〉 또는 언론노조의 적극적인 권유로 참여하게 된 것이다. 이들은 해직 이후 노사 협상, 정치권과의 협의 또는 소송 등을 통해 복직을 시도했지만,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 기간 복직은 이뤄지지 않았다.

2. ‘퇴직’ KBS 출신

전체 45명 가운데 퇴직 언론인은 모두 13으로 모두 전 직장을 개별적으로 퇴직한 후 <뉴스타파>에 합류한 사람들이다. 13명 가운데 7명이 <KBS> 출신으로 <뉴스타파> 내에서는 ‘K 출신들’로 불렸다. 주목되는 점은 이들에게는 서로를 연결시켜 주는 공유 경험이 있었는데 그 중심에 김용진이 있다는 것이다. <KBS> 재직 당시 김용진과 함께 근무하면서 그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고, <KBS> 탐사보도의 황금기를 이끈 그의 탐사보도 기능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 김용진은 <KBS> 재직 당시 미디어포커스 팀장과 탐사보도팀장을 맡았는데 6명 가운데 5명이 그와 함께 근무한 경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 사이에서도 미디어포커스와 탐사보도팀에서 같이 근무한 경험이 있었다. 따라서 김용진을 중심으로 한 공유된 경험은 단순한 친소 관계가 아닌 K 출신들을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했다.

K 출신들의 공유된 경험의 핵심은 탐사보도라고 할 수 있었다. 미디어포커스는 당시 한국 언론에서 미디어 비평을 가장 적극적으로 했던 프로그램이다. 특히 김용진이 팀장으로 있을 당시는 미디어 비평에 적극적으로 탐사보도 방식을 가미했던 시기이다. 김용진이 평기자 또는 팀장이었던 탐사보도팀의 경우는 방송 탐사보도의 황금기로 불릴 정도로 활발하게 탐사보도가 이뤄졌던 시기이다. 그런 만큼 두 조직이라는 시간과 공간에서 김용진과 함께 시간을 보냈고 그들 사이에서도 같이 근무했던 경험은 단순한 친목 이상으로 ‘김용진식 탐사보도의 공유’라고 할 수 있었다. 그들이 사용하는 방송 언어도 비슷하고 사안에 대한 보도 가치를 판단할 때의 기준에서도 차이가 크지 않았다.

이런 공유된 경험은 비슷한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끼리끼리 문화로 비춰지고 특히 김용진이 중심에 있는 상황에서 기득권으로 비춰지고 있었다. 조직 내에서 “K 출신들이 제일 많고” 특종이 될만한 아이템은 “K 선배들이 주도권을 갖고”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불만이였다. 뿐만 아니라 팀장 등 보직자의 경우도 K 출신들이 많다고 인식되고 있었다.

3. ‘공채’ 후배 집단

후배 집단으로 분류되는 참여자들은 대부분 공개 채용을 통해 <뉴스타파>에 합류한 사람들이다. 김용진이 대표로 참여하면서 출발한 시즌 3에서 <뉴스타파>는 <한국

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라는 사명을 채택하며 탐사보도 전문 언론으로 나아가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더 이상 해직이나 퇴직 언론인의 충원이 없는 상황에서 부족한 인력을 공채를 통해 충원했다.

후배 집단의 〈뉴스타파〉 이전 경력은 다양했다. 오마이뉴스나 대학신문, 매일노동뉴스 등에서 언론인 경력을 쌓은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또는 졸업 후 언론인 지망생 등이었다. 언론인 경력을 가진 경우도 〈뉴스타파〉를 염두에 두고 퇴직한 것은 아니었다. 공채로 합류한 후배 집단은 참여 동기도 다양했다. 때문에 조직 내에서는 후배 집단으로 불리지만 그들 내에서도 여러 하위 집단으로 나뉘어서 어울리고 있었다. 그러나 해직이나 퇴직 출신들과 달리 후배 집단의 경우는 공유된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후배라는 지위와 보도 경험과 기능 등에서 약자의 위치에 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지금까지 〈뉴스타파〉 시즌 3에 참여한 기자나 PD들의 면면을 참여 경로로 유형화해 살펴보았다. 경로는 세 가지로 해직과 퇴직, 그리고 공채였다. 그러나 참여 경로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뉴스타파〉는 개개인의 언론인 경력이나 보도 기능 또는 겪어야 했던 경험 등의 측면에서 해직과 퇴직 언론인 중심의 조직이다. 〈MBC〉와 〈YTN〉에서 해직된 후 참여한 이들은 정권의 방송장악 시도에 저항하다 부당하게 해직된 사람들이었다. 이명박 정권에서 해직된 후 박근혜 정권에서 복직이 좌절됐다. 때문에 이들에게는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은 차이가 없었다. 그래서 “이명박근혜 정권”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이들은 〈뉴스타파〉에 가장 먼저 참여해 초기 방향 설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 퇴직 경로에서 핵심은 〈KBS〉 출신들이었다. 김용진과 같이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김용진식 탐사보도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KBS〉 출신들 중 일부는 퇴직 이전 노동조합 전임 간부를 지내기도 했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대한 감정이 해직 출신들보다는 높지 않아 보였다. 대신 그들은 탐사보도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이들은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 하에서 정권이 지명한 사장에 반대하거나 그런 지배구조 아래서 행해진 보도에 염증을 느끼고 모인 사람들로 〈뉴스타파〉는 이들이 언제든지 자신의 신념을 표출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제 2 절 소명의식의 내용과 형성

참여자들은 〈뉴스타파〉에서 보도를 통해 자유롭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직업정신을 표출했다. 참여관찰과 심층면담을 통해 파악된 직업정신, 즉 연구 참여자들 개개인이 〈뉴스타파〉 언론인으로서 추구하고 싶은 것은 다양했다. 예를 들어 “저

널리즘”, “재벌”, “부동산”, “부정부패”, “인권”, “소수자 보호”, “권력 감시” 등이었다. 또한 각각의 직업정신을 추구하고자 하는 열정도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예를 들어 단순한 관심 수준인 경우가 있는 반면, 취재에 실패할 경우 좌절하는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참여자들이 추구하는 직업정신의 내용 하나하나를 열거하며 소명의식인지 아닌지를 판단한 뒤 그 내용과 형성 과정을 논의하는 것은 연구문제 해결에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다.

이런 가운데 참여자들 대부분이 동의하고 동시에 열정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직업정신이 있었다. 신념과 그것에 열정적으로 헌신하는 행위, 즉 신념과 그것을 이루려는 열정의 측면에서 소명의식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었다. 이런 기준에서 참여자들이 소명의식으로 느끼는 것은 네 가지로 “독립언론, 자유언론”, “저널리즘”, “이명박근혜”, 그리고 “탐사보도”로 요약됐다. 독립언론, 자유언론은 〈뉴스타파〉 출범 정신이자 참여자들이 탐사보도 언론인으로서 추구하는 직업에 대한 대의였으며, 나머지 3개는 이념 또는 가치에 가까웠다.

이들을 소명의식으로 판단한 이유는 무엇보다 참여자들이 〈뉴스타파〉 또는 탐사보도 언론인으로서 가장 하고 싶은 것들이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저널리즘 비판이 탐사보도의 영역인지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참여자들은 한국 언론을 권력으로 바라 보았고 언론이 진실을 왜곡하거나 은폐하고 있기 때문에 권력 감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비판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있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집권 정권으로 살아 있는 권력이라는 당위 차원을 넘어 자신들이 해직되거나 퇴직할 수밖에 없게 만든 분노의 대상이었다. 탐사보도 역시 탐사보도 전문 언론으로서 경쟁력을 인정받지 못하면 더 이상 조직이 유지될 수 없는 생존의 차원이었다.

이들 소명의 층위나 체계를 논리적, 이론적으로 구성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과 매슬로우 이론을 사회에 적용해 가치 변화 방향을 예측한 잉글하트의 가치 변화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정희숙, 백명진, & 김재범, 2011; Inglehart, 1977), “이명박근혜”와 “탐사보도” 소명의식은 생리 또는 안전 욕구에 가까운 물질적 가치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생존을 위협했던 존재이며, 탐사보도는 앞으로 생존하기 위한 필수조건이기 때문이다. 반면 “저널리즘”은 탈물질적 가치에 가깝다. 따라서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사명감 측면의 “저널리즘” 보다는 분노의 대상인 “이명박근혜”와 생존 차원인 “탐사보도” 소명의식이 참여자들에게는 보다 절실하고 근원적이라고 볼 수 있다.

1. 독립언론, 자유언론: 〈뉴스타파〉 출범 정신

〈뉴스타파〉의 출발은 독립언론, 자유언론에 대한 열망이었다. 참여자들은 〈뉴스타파〉 출범 이후부터 독립언론, 자유언론을 위해 열정적으로 헌신해 왔고, 이런 헌신에 대해 자부심을 가졌다. 그 과정에서 겪은 무시나 공격, 희생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2013년 5월 서울 창전동 사무실 개소식에서 나온 김용진의 다음과 같은 말은 〈뉴스타파〉 초창기 참여자들의 열정과 헌신을 잘 보여주고 있다.

〈자료 23〉 〈뉴스타파〉 개소식 중 김용진 인사말(2013년 5월 10일)

오늘 여기서 지난 1년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봅니다. 50만 원짜리 중고 캠코터와 낡은 노트북으로 시작했습니다. MBC와 KBS, YTN, 국민일보 해직기자·PD, 언론노조 파견자들 몇 명이 뭉쳤습니다. 언론노조 회의실 한 칸에서 일주일에 3~4일씩 낄밤을 새웠습니다. 뭔가에 단단히 홀렸고, 뭔가에 단단히 빠져서 미친 듯이 취재하고 편집했습니다. 그 무언가는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바로 자유언론과 독립언론이었습니다.

김용진의 언급에서도 나오듯이 초창기 〈뉴스타파〉 구성원들에게는 독립언론과 자유언론에 대한 갈망이 컸다. 〈뉴스타파〉가 첫 보도를 시작한 2012년 1월은 〈KBS〉, 〈MBC〉, 〈YTN〉 등 방송 3사의 파업이 동시에 진행 중이던 시기였다. 〈YTN〉에서 시작해 〈MBC〉와 〈KBS〉로 확산된 방송 파업은 낙하산 인사로 대표되는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 시도에 저항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YTN〉과 〈MBC〉에서 해직된 언론인들이 〈뉴스타파〉로 모여들었고, 권력에 장악돼 공영방송으로서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염증을 느낀 〈KBS〉 기자들이 퇴직 후 합류했다. 이들은 보도들을 쏟아내기 시작했고 이를 자부심으로 느꼈다. 다음은 역시 2013년 개소식에서 나온 김용진의 말이다.

〈자료 24〉 〈뉴스타파〉 개소식 중 김용진 인사말(2013년 5월 10일)

이름만 공영인 거대 방송과 족벌·재벌 신문이 애써 외면하거나 용기를 못 냈던 사안을 거침없이 다뤘습니다. 그들이 고위공직자와 권력자들에게 아첨하고 눈치 보느라 감히 묻지 못했던 질문을 〈뉴스타파〉는 사정없이 던졌고 집요하게

마이크를 갖다 댔습니다. 때로는 욕을 먹고 때로는 개처럼 끌려가고, 때로는 그들이 탄 자동차 바퀴에 발이 깔리고, 밀쳐져서 넘어져서 뼈가 부러지고, 그래도 굴하지 않고 국민을 대신해 끝까지 할 말을 하며 카메라를 놓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뉴스룸에서는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아이템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한 참여자의 경우 “이렇게 행복한 기자 생활을 해 본 적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참여자들은 높은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었다. 당시 <뉴스타파>는 국정원 댓글 조작, 국정원 간첩 조작, 조세피난처, 그리고 세월호 보도 등으로 인지도를 높여갔고, 좋은 평가를 받는 보도가 나갈 때마다 회원들이 늘어나고 있었다. <뉴스타파> 취재팀은 좋게 말해서는 열정적으로 일했고, 나쁘게 말해서는 격무에 시달리고 있었다. 한 선배 집단 참여자는 “지금은 많이 업무 강도가 떨어진 것이다. 사람들을 새로 뽑아서. 전에는 매주 하나씩 했다. 지금은 2주에 하나 정도 하고 있다”라고 말했고, 또 다른 선배 집단 참여자는 “빡빡하다. 그러니까 아프면 안 된다. 완전히 심한 조직이다”고 토로할 정도였다. 예비 관찰 기간이었던 2014년 11월 참석했던 회식에서 한 참여자가 연구자에게 한 다음 언급은 참여자들의 <뉴스타파>에 대한 만족과 헌신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자료 25> 선배 집단과 일상대화 중에서(2014년 11월 25일)

전 기자 생활하면서 정말 행복하다 기자생활 할 맛 난다고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던 것 같아요. 000 있을 때 항상 무언가에 시달리고 쪼들리고 마음의 여유도 없고 재미없단 생각을 진짜 많이 했고 재미없다는 건 보람이 없다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 그런데 여기 와서 이런 식의 기자 생활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아이템 가지고 싸우길 해? 해야 되는데 못해서 뭐가 있어?

이후 참여자들은 <뉴스타파>를 탐사보도 전문언론으로 전환시켰는데 전환이 가능했던 것은 후원회원을 통한 재정적 독립성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뉴스타파>는 2012년 7월 18일부터 정기 후원회원을 받기 시작했다. 후원회원을 받기 시작한 후 그해 연말에는 약 6천 명의 후원자를 확보했고, 시즌 2가 끝날 때쯤에는 상당한 규모의 여유 자금도 있었다. 당초 <뉴스타파>는 시즌 2, 즉 18대 대통령 선거를 끝으로 프로젝트를 마무리할 생각이었으며 갖고 있던 돈은 어딘가에 기탁할 예정이었다. 그러던 중 18대 대선에서 정권교체가 이뤄지지 않자 후원자가 대거 늘기

시작했다. 18대 대선이 있던 12월 19일에서 이틀이 지난 21일부터 31일까지 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후원회원으로 가입했다. 이에 놀란 구성원들이 다시 모였고, 논의 끝에 시즌 3을 시작하되 언론노조의 프로젝트가 아닌 탐사보도 전문 언론을 표방하기로 결정했다.

〈자료 26〉 선배 집단 한 명과 일상대화 중에서(2017년 5월 11일)

참여자: 만 명이 들어왔다니까 만 명이. 21일부터 31일까지 만 명이 들어왔다니까.

연구자: 열흘 사이에?

참여자: 열흘 사이에. 그게 뭐냐면 트위터 상으로 갑자기 패배 원인을 기울어진 운동장, 그 다음에 공영방송이 완전히 정권 장악된 것에 의한 편파적인 보도, 이러면서 대안 언론을 키우자, 딱 보인 게 〈뉴스타파〉고 거기에 후원자가 확 몰린 거야. 그 사이에 만 명 이상이 들어왔어.

〈뉴스타파〉는 시민들의 후원 외에는 다른 재정적 소득원이 없다. 광고나 기업 등에서 오는 기부금 등은 받지 않고 있다. 이는 구성원들이 정치나 자본 권력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원천이기도 하다. 현장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뉴스타파〉의 후원회원 수는 대략적으로 4만 명 정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현장연구 기간 동안 연구자로서 취재와 제작 과정을 관찰하고, 보직 간부로서 지켜본 결과 〈뉴스타파〉에서 외부 압력 등으로 보도가 나가지 못한 경우는 없었다. 다른 언론사가 정치나 자본 권력의 압력으로 제대로 된 보도를 하지 못하는 분야나 대상의 경우 〈뉴스타파〉는 오히려 강점을 가질 수 있었다. 대표적인 것이 삼성 등 재벌에 대한 감시 보도라고 할 수 있다.

2017년 5월 4일 점심을 겸해 팀장들이 모인 회의에서는 〈뉴스타파〉가 한국 사회 또는 언론에서 가지는 의미와 가치에 대해 다음과 같은 언급들이 나왔다. 언급의 핵심은 “〈뉴스타파〉가 진짜 공영방송이다”라는 주장이었다. 참석자들은 선배 집단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자료 27〉 팀장회의 대화 중에서(2017년 5월 4일)

참석자 1: 우리가 만든 것도 아니고 시민들이 만든 걸 우리가 없앨 그것도 없어요 권한도. 이게 후원이 다 끊겨 가지고 다 굶어 죽게 생기지 않는 이상.

참석자 2: 이런 게 세계 어느 언론사에 어디 있어. 한국 언론사에서도 처음이고.

참석자 3: 시민사회의 소중한 자산이다.

참석자 4: 한 번도 시민사회에서 자생적으로 이렇게 4만 명이 넘는 후원회원이 뒷받침 해가지고 정말 시민사회에 자생적인 진짜 공영방송은 나온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참석자 5: 시민사회의 진짜 공영방송을 정권이 바뀌었다고 관영방송의 역사를 가졌던 사람들의 말만 믿고 그걸 그냥 없애버릴 것이냐.

참여자들은 “시민사회의 소중한 자산”, “시민사회의 진짜 공영방송”, “사회적 자산”인 〈뉴스타파〉가 보다 적극적으로 시민사회를 위해서 “뭔가 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공공적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다. 2017년 1월 9일 전체회의에서 밝힌 김용진의 다음과 같은 소회는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뉴스타파〉의 공공적 책임감을 표현하고 있다.

〈자료 28〉 전체회의 대화 중 김용진 발언(2017년 1월 9일)

공영시스템이 만들어지고 한때는 공영시스템이 주축이 되고 나름대로 역할을 해왔는데 공영시스템이 거의 30년 만에 와해된 거가 눈앞에 보여. 어쨌든 공적 소유의 매체들이 제대로 못하면 향후 몇 십년 간 상업언론, 족벌언론이 지배하는 상황이 되고. 어쨌든 우리가 뭔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절박하게 드는게 우리가 뭐 하여튼 〈뉴스타파〉는 사회적 자산이다 이제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하고 다녔는데 우리라도 뭔가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참여자들은 〈뉴스타파〉와 〈뉴스타파〉 언론인이라는 것에 상당한 자부심과 만족감을 갖고 있었다. 이들은 탐사보도 자체를 좋아할 뿐만 아니라 그 활동을 통해 자신들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발휘하고 있었다. 〈뉴스타파〉에 참여하게 된 동기와 경로는 다양했지만 다양성 이면에서 자신들이 좋아하는 일을 선택하며, 그 일에 매료되어 즐기고 있었고, 일을 통해 정서적인 안정과 내적 평화를 얻고 있었다. 다만 일부 참여자는 자부심을 넘어 자만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뉴스타파〉와 같은 조직의 성격상 한 순간의 자만이 조직 전체를 위협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을 일부 참여자들은 잘 알고 있었다.

〈자료 29〉 선배 집단과 일상대화 중에서(2014년 12월 2일)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극복하지 않으면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지금은 내가 보기에 상당 부분 거품이 있다고 봐요. 그 거품의 상당 부분은 초기 〈뉴스타파〉가 해직자 중심으로 힘겹게, 불쌍하게 그리고 주류 언론에서 주류 방송인 KBS, MBC, YTN 선수들이 돈 적게 받고 와서 생고생 하고 있다는 이미지가 지금도 여전히 작용하기 때문에 먹히는 거지. 이제 그것도 먹힐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참여자들은 〈뉴스타파〉를 통해 독립언론, 자유언론을 소명으로 추구하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짧은 시간 동안 〈뉴스타파〉라는 시, 공간에 모여든 사람들이다. 비록 참여 동기와 시기, 배경 등은 다양했지만 탐사보도 언론인이라는 직업을 자기 삶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독립언론, 자유언론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보람을 느끼고 있었다.

2. 이념과 가치

1) 저널리즘: “할 데가 아무도 없으니까요”(사명감)

〈뉴스타파〉는 언론노조가 기획한 한시적 프로젝트였다. 산별노조인 언론노조는 민실위라는 조직을 통해 산하 언론사들의 보도를 감시한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보도에 대한 사후 평가라는 점과 언론사에 대한 직접적인 관여를 하지 못하는 점에서 한계가 뚜렷하다.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정권 들어 해직되는 언론인이 속출하자 해직 언론인과 언론노조가 직접 보도를 하는 방안을 기획한 것이다. 언론이 권력에 포섭된 현실 속에서 언론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라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 〈뉴스타파〉라는 이름은 시즌 1에서 앵커였던 노종면이 제안했는데 말 그대로 권력에 포섭된 언론을 타파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자료 30〉 선배 집단 한 명과 심층면담 중에서(2017년 5월 24일)

우리가 제일 잘하는 방식 그거는 금속노조의 그 목소리를 우리가 보도하는 거다, 세상에 알려주는 거다, 그게 창구가 없으면 우리가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

그거를 보도를 안 했다고 사후비판적으로 모니터링 식으로 민실위 보고서를 내는 건 약간 좀 뒤늦은 거 아니냐? 우리가 그냥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해직 언론인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적합한 사람들이었다. 2012년 7월 <뉴스타파>가 후원회원을 모집하기 위해 만든 문서를 보면 “<뉴스타파>는 전국언론노동조합과 해직 언론인이 의기투합해 2012년 1월 27일 첫 방송을 시작한 인터넷 언론입니다”로 시작하고 있다. 이어 “심층과 탐사보도를 할 수 있는 터전이 없다면 해직 언론인들이라도 나서서 뭔가 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뉴스타파>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고 말하고 있다.

2013년 1월 이명박 정권에서 해직된 언론인들이 한 자리에 모인 적이 있다. 당시 모두에게 “기피하는 뉴스가 있느냐?”는 질문이 던져졌는데 <YTN> 해직자들은 “<YTN> 뉴스”라고, <MBC> 해직자들은 “<MBC> 뉴스”라고 대답했다. 언젠가 복귀하면 다시 만들어야 할 뉴스인데 자신들이 보기에 뉴스가 계속 망가져가고 있었고, 그것이 마음 아팠던 것이다. 이들 중 일부가 <뉴스타파>에 참여하는데 예를 들어, <YTN> 해직 언론인이었던 조승호와 현덕수는 참여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했다.

대법원 확정판결이 났다. 완벽한 백수가 된 현덕수 기자와 나를 <뉴스타파>가 불렀다. 그동안 <YTN> 외에는 생각도 말라던 <YTN> 동료들이 도리어 ‘복직할 때까지 <뉴스타파>에서 일했으면 좋겠다.’고 강권했다. 해직 언론인들의 보루가 된 ‘<뉴스타파>’와의 인연은 그렇게 시작됐다(조승호, 2015, p. 48).

나 스스로도 더 이상 일에서 멀어지면 기자로서의 활동을 계속 이어나가기 어려울 것 같았고 한편으로는 <YTN> 노조를 위해서도 일을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을 하던 차에 <뉴스타파>에서 같이 가자는 제안이 왔어요. 크게 고민하지 않고 <뉴스타파>에서 일하기로 결정했어요(홍주예, 2015, p. 31).

해직 언론인들의 보루가 된 <뉴스타파>에서 이들은 자신들의 숙달된 보도 기능을 유지할 수 있었고, 동시에 언젠가는 돌아갈 직장의 보도와 언론 생태계를 왜곡시키고 있다고 판단되는 언론인이나 언론사에 대한 실망과 분노를 표출할 수 있었고, 숨겨야 할 제약도 없었다.

〈자료 31〉 선배 집단과 일상대화 중에서(2014년 11월 25일)

우리의 고민은 우리가 밥 벌어먹고 산다 그 다음 우리가 기자로서 하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산다 이거는 지금까지는 이 정도면 충분해요. 그런데 이거 말고 조금 더 나은 언론 환경이 어떤 것일지 우리나라를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뭐가 있을까? 거기서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저널리즘 비판에 대한 소명은 이후 합류하는 퇴직자들도 적극 동의했다. 여론을 왜곡하는 언론에 대해 적극적으로 비판해야 한다는 사명감에서는 이견이 없었다. 보도에 대한 상호 비평을 금기시하는 한국 언론 현실은 문제될 게 없었다. 참여자들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 아래에서 보수 언론은 정권과 유착해 있고 공영방송은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뉴스타파〉가 언론 감시의 책임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자료 32〉 선배 집단과 일상대화 중에서(2014년 12월 2일)

연구자: 왜 미디어 비평을 해?

참여자: 미디어 감시를 할 데가 아무도 없으니까요. 미디어 비평 중요하죠.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을 할 데가 없고. ...

연구자: 저널리즘 비평을 하는 게 〈뉴스타파〉 내에서 컨센서스가 이루어진 거야? 아니면 대표의 캐릭터가 반영이 된 거야?

참여자: 아니죠. 원래 미디어 비평을 하고자 했던 것들은 000 선배가 주장했고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동의를 해요. 왜냐하면 알게 모르게 ‘주요 언론들은 우리 뉴스를 본다’ 예요. ‘우리 비판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 쓴다’ 라는 거예요. 〈YTN〉의 ‘참 매력적인 대통령’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다고 참여자들이 스스로를 미디어 비평 전문가로 생각하지는 않았다. 대신 언론 장악에 맞서 언론자유를 지키다가 해직됐다는 ‘순교’와 주류언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정론의 길을 택했다는 ‘고행’의 자부심이 깔려 있다고 느껴질 때가 많았다. 이들은 권력에 포섭되거나 불의에 침묵하는 다른 언론인들에 비해 스스로 도덕적으로 우월하다고 생각했다. 이런 우월감은 저널리즘 비평을 보다 적극적으로 하게 되는 원동력이었다. 즉 〈뉴스타파〉가 보도의 문제점을 지적할 경우 지적된 언론인은 다른 언론사로부터 비판을 받았을 때보다 더 심리적으로 위축될 것이라는 생각, 그리고

지적은 언론자유를 지키다 해직된 언론인의 따끔한 충고로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자신감이었다.

〈자료 33〉 선배 집단과 일상대화 중에서(2014년 12월 2일)

우리가 쓰는 게 더 아플 거다. 그게 우리의 힘이 라기보다는 우리의 동료가 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류 언론에 대한 감시는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 힘은 있어요. 전 그 힘이 있다고 봐요. ...

연구자: 그렇게 저널리즘 비평을 해서 바뀌었다는 뭔가가 있나?

참여자: 바뀌었다 기보다는 시청자에 대한 새로운 정보 제공이 지금은 좀 더 큰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 바꾸는 것들은 노조와 이런 것이겠지만. 그리고 직접적으로 준다면 그 사람에 대한 쪽팔림이겠죠. 당사자에 대한 쪽팔림.

언론에 대한 실망과 분노는 때로는 압박감으로 다가올 때도 있었는데 언론 비평 이슈가 생겼는데도 〈뉴스타파〉가 제대로 보도하지 못할 때 참여자들은 책임감을 느꼈다. 저널리즘 비판이라는 소명은 특히 해직 후 〈뉴스타파〉에 합류한 언론인들에게는 사명감이었다. 거기에는 〈뉴스타파〉가 아니면 또 내가 아니면 누가 할 수 있겠는가라는 도덕적 우월감이 깔려 있었다.

2) 이명박, 박근혜: “한을 가지고 있잖아요”(분노)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 동안 해직이나 퇴직한 후 〈뉴스타파〉에 합류한 참여자들이 두 대통령과 정권에 대해 분노의 감정을 갖고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이명박 정권에서의 해직과 박근혜 정권에서의 복직이 좌절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분노는 더 커졌을 것이다. 해직 후 동고동락했던 동료 중 일부가 재판에서 승소해 복직해도 회사가 그들에게 다시 징계를 내리는 것도 지켜봐야 했다(김성후 & 이진우, 2016).

모두 정권의 언론 장악이 빚은 결과라는 것이 참여자들의 생각이었다. 참여자들은 두 정권의 성격이 같다는 의미로 공개적으로 “이명박근혜” 정권이라고 부르며 분노의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동시에 두 정권은 〈뉴스타파〉 출범 이후 집권 권력으로 탐사보도의 본원적 기능 가운데 하나인 권력 감시의 대상이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느끼는 분노의 대상이 자연스럽게 언론인으로서 적극적으로 감시해야 할 대상이 되면서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대해 적극적인 비판 보도를 해야 한다는

소명의식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은 것이다. 후원회원의 정치적 성향은 이런 소명의식에 더욱 에너지를 넣었다.

〈자료 34〉 선배 집단 한 명과 심층면담 중에서(2017년 6월 16일)

기본적으로 이 보수 정부에 대한 미움들이 있잖아요. 개인사 비릇된 일이던가 어쨌든 정치적인 성향에서 그랬던 간에. 그게 당연했던 거 아닌가요? 저만해도 마음가짐이 좀 다른.

〈자료 35〉 선배 집단 한 명과 심층면담 중에서(2017년 7월 2일)

참 부정하기 어려운 게 여기 〈뉴스타파〉에 한을 가지고 여기에 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게 이제 아주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는 어쩔 수 없는 거인 거예요. 다니던 그 회사에서 뭐 KBS, MBC에서 이런 저런 안 좋은 일을 겪고. ... 저 새끼들 해도 너무 하는 거 아니야? 내 인생이 여기까지 이렇게 왔으면. 저는 이런 부분도 존재했다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까지를 사실은 완전히 눌러버리고 제작을 하고 하기에는 또 그거를 넣었을 때 공감해주는 시청자들 우리 후원자들 층들이 또 많았다. 그게 저는 이게 상호작용을 하고.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대한 분노의 감정이 보도를 통해 가장 적극적으로 표출된 것은 시즌 1과 시즌 2의 기간이다. 언론노조의 언론운동 프로젝트 시기였던 만큼 이념성이나 정파성의 표출이 보다 자유로웠던 시기였다. 조사 결과 시즌 1과 시즌 2 기간에는 모두 219건의 보도가 있었는데 이 가운데 31건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 보도였다. 전체의 14%에 달하는 비중이었다. 아래 보도 목록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제목에서도 감정적 분위기가 느껴진다.

〈표 6〉 시즌 1~2 기간 이명박, 박근혜 관련 보도

보도 날짜	보도 제목
2012.01.27	MB 임기 말 14조 무기도입 추진 ... 미국의 압력 의혹
2012.01.27	변상욱 칼럼 “MB탈당, 아무 의미 없다”
2012.02.17	위키리크스: MB정부의 대일본 굴욕외교와 미국의 태도
2012.02.17	공갈영상: MB-오바마 디트로이트 방문

2012.02.24	Wikileaks: MB, 포퓰리즘을 비난할 자격있나?
2012.03.24	위키리크스 - 국권침탈 100년, 여전히 비굴한 MB 정부
2012.03.24	변상욱 칼럼 - MB 정부의 역사적 정체성은?
2012.03.31	박물관 만찬, MB정부의 천박한 문화관
2012.04.20	공갈영상: 수첩공주에서 녹음공주로
2012.04.27	변상욱 칼럼: 떠나는 MB에게 묻는다
2012.05.05	공갈영상: 박근혜 압그레이트
2012.06.02	변상욱 칼럼: MB가 '종북'으로 간 까닭은?
2012.06.30	인천공항 지분매각 - MB의 민자사랑
2012.06.30	변상욱 칼럼: 대선을 앞둔 마지막 꿈수
2012.08.17	시선: 박근혜와 7명의 원로들
2012.08.17	최용익 칼럼 - 박근혜 후보의 역사의식
2012.08.17	최용익 칼럼: 현실 왜곡하는 대통령의 경축사
2012.09.21	박근혜 역사를 바로잡고 싶습니다.
2012.10.23	박근혜 캠프의 언론플레이
2012.10.26	최용익 칼럼 - 박정희와 정수장학회 그리고 박근혜
2012.11.03	이명박 대통령 경제공약 집중 점검 - 부자편
2012.11.03	이명박 대통령 경제공약 집중 점검 - 서민편
2012.11.03	최용익 칼럼- MB 말기 꿈수 2
2012.11.10	박근혜만 바라보는 KBS TV토론
2012.11.10	MB 5년, 재갈 물린 국민들
2012.11.16	박근혜, 바꾸네
2012.11.16	박정희는 神입니다
2012.11.16	이명박 정부 치적의 꿈수
2012.12.01	박근혜, “제가 뭐라고 했죠?”
2012.12.08	다카키 마사오와 6억 원
2012.12.15	이명박 5년, 행복하셨습니까?

〈뉴스타파〉는 시즌 3부터 탐사보도 전문 언론을 추구하지만 이명박, 박근혜 비판이라는 소명의식은 변하지 않았다. 다만 선거 이전과 같은 감정적 태도를 지양하면서

비판 보도를 내놓기 시작했다. 당시 정권이 하는 “본 헤드 플레이” 또는 “멍청한 짓”이 이들의 눈에는 잘 띄었고, 이를 적극적으로 보도하는 것이 언론인의 당연한 책무가 아니냐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었다. 선배 집단은 주류 언론이 두 정권의 실체를 은폐하면서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뉴스타파>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들에게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적폐 세력이었다. 그러나 2017년 대선에서 정권이 바뀌면서 “이명박근혜”라는 소명의식은 많이 약해진 상태였다. 여전히 두 전 정권의 행적을 적폐로 규정하며 비판적인 보도를 이어가야 한다는 요구도 있지만 설득력이 예전 같지는 않았다.

3) 탐사보도: “우리가 일등이 되자”(생존)

“저널리즘”이 사명감을, “이명박근혜”가 분노를 핵심으로 하는 소명이라면 “탐사보도”는 생존 차원의 소명의식이다. 생존 문제가 어떻게 소명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일 수 있지만 장인의 경우를 생각하면 의외로 간단하게 이해될 수 있다. 장인의 소명의식은 그가 가진 직업의 핵심 기능에 대한 것으로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할 경우 장인은 더 이상 그 직업을 생존의 바탕으로 삼을 수 없다. <뉴스타파>는 탐사보도 전문 언론을 표방하고 있다. 따라서 참여자들이 탐사보도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지 못하면 장인과 마찬가지로 직업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 재정 기반인 후원회원이 늘지 않거나 오히려 감소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구 참여자들에게 “탐사보도”라는 소명은 탐사보도 언론인이라는 직업정신에서 생존이 걸린 핵심적인 소명의식이라고 할 수 있었다.

모험에 가까운 출발에도 불구하고 <뉴스타파>가 언론으로서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었던 데는 역설적으로 보수 언론과 공영방송의 권력과 유착 내지 침묵이 도움이 됐다.

<자료 36> 선배 집단과 일상대화 중에서(2014년 12월 2일)

최근 2년 동안 운이 좋았던 거예요. 성공이란 말도 웃기긴 하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된 데는 운이 굉장히 좋았어요. 대중들이 우리에게 대해서 굉장히 호평해 주고 그리고 언론 지형들 객관적인 우리와 상관없이 주어진 외부 정치적인 여러 가지 계속해서 탄압을 해주고 계속해서 반언론정책, 반언론자유정책을 계속 썼으니까. 거기에 지상파들이 호응해주면서 제 역할

못했고. 그렇잖아요 제 역할 못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4대강 아무 거나 찍어서 보내도 다 먹히던 시절이잖아요 다 특종이고. 운 좋았죠. 조세피난처도 운 좋았고. 세월호도 운 좋았고. 그리고 간첩 사건도 굉장히 운이 좋았어요.

이후 〈뉴스타파〉는 시즌 3를 시작하면서 다른 언론이 하지 않는 것을 보도하거나 다른 언론의 보도를 비판하던 대안 언론의 성격에서 벗어나 탐사보도를 통해 명실상부한 언론으로 인정받자는 쪽으로 선회했다. 〈KBS〉 출신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된 결과였다.

〈자료 37〉 선배 집단 한 명과 일상대화 중에서(2017년 6월 19일)

시즌 3에 접어들면서는 전체적으로 시니어는 물론 김용진이나 나도 똑같이 동의했던 건 뭐냐면 정반합에서 합으로 가자 합으로 가서 개들이 할 만한 아이тем, 기성 언론이 할만한 아이тем에서도 성과를 내고 우리가 1등이 되고. 같은 카테고리 아이тем에서도 그게 내 욕심이었고 김용진의 욕심이었고 기존 어떤 여기 있던 기자들의 욕심이었다고 봐. 그렇기 때문에 자체가 상당히 변한 거지 변한 거야 이쪽으로 이동을 한 거야.

탐사보도에 대한 소명의식은 탐사보도 전문 언론인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인정 욕구로 보일 수도 있다. 다만 인정받고자 하는 이유가 사회적 지위나 명예가 아니라 직업의 유지 측면에서 최고가 되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탐사보도에 대한 소명의식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거치면서 위기를 맞게 된다. 모든 언론이 제약 없이 경쟁에 뛰어들어든 상황에서 〈뉴스타파〉의 탐사보도 경쟁력에 의문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동시에 그 동안 〈뉴스타파〉가 성장하고 인정받아 온 것이 상당 부분 운에 의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자성이 확산됐다. 이 과정에 대해서는 제6장 제4절에서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3. 소명의식에서 선, 후배 집단 차이

소명의식에서 한 가지 특징은 “저널리즘”, “이명박근혜”, “탐사보도”는 앞서 검토된 〈뉴스타파〉 참여 경로에서 해직과 퇴직을 경험한 선배 집단이 주도한 소명라는 점이다.

〈표 7〉 참여자들의 참여 경로와 소명의식

	저널리즘	이명박, 박근혜	탐사보도
해직	주도	주도	동의
퇴직	주도	동의	주도
공채	동의	동의	동의

저널리즘 비판에 대해서는 해직과 퇴직 참여자 모두 확고한 사명감을 갖고 있었고, 이명박, 박근혜 정권 감시에 대해서는 해직 참여자가, 탐사보도에 대해서는 퇴직 참여자가 주도했다. 반면에 후배 집단은 선배들에 의해 끌려가는 입장이었고 개인 별로 관심 주제나 가치가 있었지만 추구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독립언론, 자유언론이라는 소명에서는 참여자들 사이에 이견이 없었지만 그 안에 담고자 하는 이념과 가치에서는 선배 집단과 후배 집단 사이에 질적인 차이가 있었다. “탐사보도에서 열정이나 신념이 중요한가?”라는 질문에서 선배 집단은 열정이나 신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필수조건이라고 말했다.

〈자료 38〉 선배 집단과 한 명과 심층면담 중에서(2016년 6월 19일)

신념 있고 열정 있고 그러면 뭐 그런 애들이 일취월장 늘어나는 거야 진짜 청출어람 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직장인처럼 하면서 일도 저 선배처럼 단기간에 하자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자료 39〉 선배 집단과 한 명과 심층면담 중에서(2017년 4월 3일)

자기 고집이 강한 사람이 비율로 보면 되게 적은 것 같아요. 그게 강한 사람들이 뭐라도 들고 오잖아.

놀라운 점은 공채를 통해 합류한 후배 집단의 답변으로, 일부는 심층면담에서 “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 대해서 열정을 잃었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열정이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는가 하면, “사회에 별 관심이 없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었다.

〈자료 40〉 후배 집단 한 명과 심층면담 중에서(2016년 8월 26일)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는 일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 대해서 열정을 잃어 가지고 지금 약간 조금 열정을 좀 잃은 상태인 것 같아요.

〈자료 41〉 후배 집단 한 명과 심층면담 중에서(2017년 5월 29일)

저는 너무 대의를 위해서 막 운동하듯이 언론을 하면 안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성향 자체도 사실 사회에 별 관심이 없었어요.

〈자료 42〉 후배 집단 한 명과 심층면담 중에서(2016년 9월 2일)

저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 부러워하는 편이에요. 제가 그렇게 막 충동적으로 잘 행동하지 않는 편이라고 좀 스스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기자가 가끔은 또 그래야 이제 좋은 기사들이 나오는 것 같고 그게 또 끈기로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하고 싶은 탐사보도가 있는가?”의 질문에 후배 집단의 대답은 대부분 인권 영역에 속하는 것들이었다. 특징은 하고 싶은 탐사보도가 소명의식에서 비롯됐 다기보다는 이성적인 관심 수준이며, 다분히 원론적이고 추상적이라는 점이었다. 다시 말해 후배 집단 대부분에서 무엇인가에 대한 열정적인 헌신의 모습은 관찰되지 않았다.

선·후배 간 소명의식의 차이는 단순히 차이로 끝나지 않았다. 연구자가 보기에는 악순환의 고리였다. 선배 집단의 경우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보도하는데 사실상 제약이 없었지만 후배 집단은 스스로 제약하고 있었다. 하고 싶은 취재가 있어도 발제를 포기했고, 결국 자신의 것이 아닌 선배가 발제한 취재를 도와주는 보조 역할을 하는 경우가 반복됐다. 2013년 공채로 입사한 이후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후배 집단의 자신감은 줄어들었고, 선배 집단과의 소명의식 차이는 더 커지는 악순환이었다. 자신감 저하가 누적되면서 후배 집단은 〈뉴스타파〉에 대한 소속감 저하와 탐사보도 언론인으로서 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있었고 일부는 이직 의사를 보이기도 했다(최문호 & 박승관, 2018).

제 4 절 소결

연구 참여자들의 직업정신에서 소명의식이 관찰됐고, 소명의 구체적인 내용은 네 가지였다. 독립언론, 자유언론은 〈뉴스타파〉 출범 정신이자 탐사보도 언론인으로서 직업적 대의였고, 저널리즘 비판과 이명박, 박근혜 정권 감시, 그리고 탐사보도는 이념 또는 가치 측면의 소명이었다. 독립언론, 자유언론은 선, 후배 집단 구분 없이

참여자들 모두가 헌신하는 소명이었지만 저널리즘 비판과 이명박, 박근혜 정권 감시, 그리고 탐사보도는 해직과 퇴직을 통해 <뉴스타파>에 합류한 선배 집단의 갖고 있는 소명이었고 조직 내 최상위 소명으로 일종의 지배 소명이라고 할 수 있었다.

연구 결과에서 특히 주목되는 점은 소명의식이 형성되는 과정이다. 소명의 중심에는 <뉴스타파> 참여 이전의 개인적 경험과 <뉴스타파> 참여 이후의 책임감을 바탕으로 한 대의, 사명감, 분노, 생존이 있었다. 특히 분노와 생존을 핵심으로 한 소명의식은 참여자들에게는 생존 차원으로 보다 근원적인 소명이라고 할 수 있었다. 연구자는 앞선 연구에서도 소명의식의 형성은 개인적 경험과 밀접함을 제시한 바 있다(최문호 & 박승관, 2018).

이 같은 연구 결과는 탐사보도 언론인의 교육과 양성에 대한 새로운 접근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탐사보도 언론인에게 소명의식이 필수라면, 그리고 소명의식은 누군가에 의한 일방적 교육이나 이식에 의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집체식 교육이나 연수 프로그램 등 기존의 탐사보도 언론인 교육 방법은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

실제로 <뉴스타파>는 후배 집단이 입사한 후 모 대학의 작은 공간을 빌려 1주일 정도 탐사보도 정의와 정신, 자주 이용되는 기술, 예를 들어 예산감시나 정보공개청구, 데이터 활용 등을 집체식 교육으로 가리켰지만 후배 집단에서 이를 탐사보도 교육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었다. 또 선배가 현장 취재를 나갈 때 후배들을 동행시키거나, 가급적 기사를 많이 쓰도록 강제했지만 역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탐사보도 언론인에게 소명의식이 핵심이라면 어쩌면 탐사보도 언론인 교육은 장인 사업장처럼 도제식 교육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 제7장의 탐사보도 언론인 전문성 부분에서 연구 참여자 한 명의 탐사보도 수준이 향상되어 가는 과정을 일부 분석하지만 탐사보도 언론인 교육 문제는 후속 연구에 맡기기로 한다.

제 6 장 소명의 실천

제6장에서는 제5장에서 내용과 형성 과정 위주로 언급된 소명의식 가운데 이념이나 가치에 해당하는 “저널리즘”, “이명박근혜”, “탐사보도”를 참여자들이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각각의 소명을 실천한 결과가 어떠한지를 살펴본다. 중요한 것은 윤리 측면에서 신념윤리와 책임윤리의 조화 여부이다. 세부적으로는 소명의식이 가치연관, 가치토론, 가치평가 측면에서 가치함몰, 가치배제, 가치자유 가운데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이다. 소명의식의 실천이 저절로 탐사보도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소명의식은 가치함몰을 거치면 정파보도, 가치배제를 거치면 객관보도, 가치자유를 거치면 탐사보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결과에는 정파보도와 객관보도, 그리고 탐사보도 성격이 혼재되어 있을 수도 있다.

참여자들은 이들 소명을 실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개인별 차이는 있지만 특히 선배 집단의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구현하고자 했다. 탐사보도 언론인들이 어떤 방법을 통해 자신들의 소명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특히 소명의 실천에서 가치에 함몰되어 일을 그르치는 경우는 더욱 그렇다. 탐사보도 언론인에게 소명의식은 필수조건이다. 소명은 가치자유와 과정을 거쳐 보도로 이어질 때만이 탐사보도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특정한 이념이나 가치에 집착하는 가치함몰에 빠진 보도는 정파보도일 뿐이다. 탐사보도는 어쩌면 가치자유와 가치함몰 사이 선택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의 삶을 여러 가지 다른 길로 인도하는 것은 타고난 능력보다는 무언가를 추구하는 동기와 열망이다. 여기서 추구한다는 것은 목적을 달성하려는 성취욕만을 뜻하지 않는다. 그것은 본능적인 충동이나 욕구에 이끌리 듯 무슨 물건을 만드는 일이나 기능을 숙달하는 일에 집착하며 강박적으로 쏟아붓는 에너지를 포함한다. 그러나 마음 속 강박적 집착은 사람을 기형적으로 만들 위험이 있는 반면, 행동할 때의 강박적 집착은 고착과 경직을 부를 위험이 있다. 이런 집착에 빠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기도 하고, 자신들을 그들과 분리시키기도 한다. 이런 위험은 개인 차원에서도 잘 다스려야 하지만 조직 차원의 관리에서도 고려되어야 할 문제이다. 즉 강박적 에너지를 개인이든 조직이든 잘 활용할 줄 아는 방법을 배워서 익혀야 한다는 것이다.

제 1 절 저널리즘 비판

이명박, 박근혜 정권 내내 권력과 자본에 억눌려 ‘기레기’라는 모욕적인 평가를

받았던 한국 언론이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선배 집단은 해직과 퇴직을 거쳐 <뉴스타파>에 합류했다. 순교와 고행의 마음으로 잘못된 언론을 바로잡자는 소명의식은 <뉴스타파> 밖에 할 데가 없다는 책임감이 더해지면서 적극적으로 실천됐다. 그러나 그 결과가 탐사보도였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1. 가치연관: 적대 언론과 경쟁 언론 구분

저널리즘 비판 대상에는 모든 언론이 포함됐지만 참여자들은 언론을 두 집단으로 구분하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한국 사회 여론이 <KBS>, <MBC>, <YTN>, 조중동/종편에 의해 왜곡되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들 언론들을 적대적 시각으로 바라보았다. 반면 진보 언론에 대해서는 우호적이거나 경쟁적 시각으로 보았다.

따라서 비판의 목적 역시 집단 별로 달랐다. 적대 언론에 대해서는 해당 언론이 “이명박근혜 체제의 1등 공신”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부각시키는 것이었던 반면, 경쟁 언론에 대해서는 언론윤리적으로 비윤리적인 행위들을 비판하며 공정경쟁을 유도 하겠다는 것이 목적이었다.

<뉴스타파>가 첫 방송을 시작한 후 현장연구가 끝나는 시점인 2017년 6월 30일 까지 보도한 2,382건 가운데 <KBS>, <MBC>, <YTN>, 조중동과 종편에 대한 비판적 성격이 명확히 드러난 것은 97건으로 전체의 4%였다. 미디어나 언론 관련 다른 보도 가운데도 위 언론사들이 일부 언급된 경우들이 있었지만 해당 보도의 핵심 주제가 아니었다. 97건을 언론사 별로 보면 <KBS>가 32건으로 가장 많았고 <MBC>가 18건, 조중동/종편이 12건, <YTN>이 7건 순이었다. 이들 언론사들의 여론 왜곡 등을 종합 적으로 비판한 보도도 28건이었다.

<표 8> KBS, MBC, YTN, 조중동/종편에 대한 비판적 보도 통계

언론사	전체	비중	시즌 1~2	비중	시즌 3	비중
KBS	32	32.99%	4	15.38%	28	39.44%
MBC	18	18.56%	7	26.92%	11	15.49%
YTN	7	7.22%	2	7.69%	5	7.04%
조중동/종편	12	12.37%	4	15.38%	8	11.27%
종합	28	28.87%	9	34.62%	19	26.76%
합계	97	100.00%	26	100.00%	71	100.00%

언론사 별 보도를 시즌 1, 2와 시즌 3으로 나누어서 보면 언론사 간 비중이 달라진다. 시즌 1, 2의 경우 26건이었는데 <MBC>가 7건으로 가장 많았고 <KBS>와 조중동/종편이 4건으로 같았다. 이 시기 <MBC>의 해직 문제가 이슈였고 해직 언론인들이 <뉴스타파> 제작진의 중심이었기 때문으로 보여 진다. 시즌 3이 시작된 후에는 71건이었는데 <KBS>가 28건으로 월등히 많았고 <MBC>와 조중동/종편이 각각 11건과 8건이었다. 시즌 3부터 <KBS> 출신들이 참여했고 세월호 참사 이후 <KBS> 보도국장이던 김시곤의 청와대 외압 폭로와 이어진 파업, 그리고 사장이던 김환영의 해임 등 <KBS>가 언론계 주요 이슈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금부터는 언론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소명의식을 참여자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했는지 살펴보겠다.

2. 가치토론

1) 적대 언론: 적대적 공격

(1) <KBS>: “청와대 손바닥에서 놀았다”

<뉴스타파> 보도에서 <KBS>에 대한 비판 보도의 특징은 <KBS>의 사장이나 간부와 대통령과의 관계를 사실상 종속관계로 규정하고 비판한다는 점이다. 우선 제목에서 대통령이나 이를 뜻하는 청와대, 정권 단어가 상대적으로 많이 등장했다. 32건의 비판 보도 가운데 11건이 제목에 대통령, 청와대, 정권 단어를 포함하고 있었다. 내용에서도 “희석시키기에 급급”, “부끄러운 현주소”, “손아귀 안에 있었다”, “정권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았음”, “참담한 현실”, “부끄러운 민낯이 날날이 벗겨진 자리” 등과 같은 감정적이면서 공격적인 표현들이 사용되었다(‘KBS, 대통령 기초연금공약 후퇴 감싸기 급급’(2013.10.01), ‘KBS 보도국장 사퇴에 ‘청와대 개입’ 사실상 확인’(2014.05.09), ‘숨가뻐던 1박 2일…청와대, KBS 장악 드러나’(2014.05.10), “‘청와대, KBS 뉴스 개입 … 사장은 대통령 기사 챙겨’”(2014.05.17), ‘청와대-KBS 핫라인 … “대통령이 봤다” 세월호 보도 노골적 개입’(2016.06.30), ‘박근혜-최순실 체제의 부역자들 - KBS’(2016.11.09), “‘김영한 비망록’ 속의 KBS…청와대 손바닥에서 놀았다’(2016.11.18) 등).

제목에 직접적으로 대통령이나 청와대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내용에서 <KBS>가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다는 취지로 비판하며 <KBS>와 대통령의 관계를 다룬 경우까지

포함하면 32건 가운데 절반이 <KBS>와 대통령의 관계를 비판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KBS 간부들에게는 없는 것?’(2012.09.28)에서 보도는 “공영방송 KBS. 그러나 공영방송의 역할을 하기보다는 권언유착을 즐기며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라고 비판했다. 또 김환영 해임 후 새로 사장 후보가 된 고대영에 대해서는 “새로 선출된 KBS 사장 후보 고대영 씨는 2008년 이후 KBS 뉴스를 ‘국정화’하는 데 앞장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2016년 11월 9일과 18일에 보도된 ‘박근혜 최순실 체제의 부역자들 - KBS’(2016.11.09)와 “‘김영한 비망록’ 속의 KBS…청와대 손바닥에서 놀았다’(2016.11.18)는 <KBS>에 대한 비판의 수위가 한층 높아졌다.

〈자료 43〉 ‘박근혜 최순실 체제의 부역자들 - KBS’ 중에서(2016년 11월 9일)

거의 한 달 동안 KBS보도국 간부들은 단 한 번도 최순실 의혹과 관련된 기사 발제를 하지 않고 공영방송의 침묵을 조장해 왔습니다. 그 배후에는 능력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과 정권에 대한 충성심을 인사의 기준으로 삼아왔다고 비판받아온 고대영 사장이 있습니다. 이들 역시 박근혜 최순실 체제의 공범들입니다.

〈자료 44〉 “‘김영한 비망록’ 속의 KBS … 청와대 손바닥에서 놀았다’ 중에서(2016년 11월 18일)

청와대가 KBS 수뇌부를 통해 보도를 통제하려 한 정황이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김환영 사장이 물러난 뒤에도 여전히 KBS는 청와대의 손아귀에 있었습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 공개된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은 그 실상을 말해줍니다.

‘박근혜 최순실 체제의 부역자들 - KBS’ 보도 후 <KBS>와 보도본부 간부 10여 명이 <뉴스타파>와 취재기자를 상대로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고소를 했지만 검찰은 사건을 불기소 처리했다. <KBS> 수뇌부와 대통령과의 관계를 권력의 시녀로 바라보는 참여자들의 시각은 세월호 참사 당시 김시곤의 폭로와 김환영 해임 기간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권력의 시녀로서 청와대 손바닥에서 놀았다는 판단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 하의 <KBS>를 바라보는 기본 관점이었다.

(2) 〈MBC〉: “김재철, 안광한, 김장겸”

〈MBC〉에 대한 비판 보도는 〈KBS〉에 대한 방식과 달랐다. 〈KBS〉에 대한 보도가 〈KBS〉와 대통령과의 관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MBC〉 경우는 권력과의 관계보다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 기간 동안 사장이었던 김재철, 안광한, 그리고 김장겸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기간 이뤄진 대량 해직과 프로그램 폐지, 보복 인사 등의 책임을 당시 사장에게 묻고 있었다. 물론 〈MBC〉와 대통령의 관계를 언급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강도가 약했다. 예를 들어 ‘MBC 김재철 “투표율을 높이지 마라!”(2012.03.31)에서 “젊은 층의 투표율이 높아질 경우 여당에 불리하다며 총선 당일 선거방송을 투표가 모두 마감되는 오후 6시부터 하겠다는 결정. 이명박 정부의 낙하산 김재철 씨가 사장으로 있는 공영방송 MBC의 현주소입니다” 정도 수준이었다.

〈뉴스타파〉는 발생이나 기획을 통해 이명박, 박근혜 정권 당시 〈MBC〉 내에서 벌어진 일들을 자세하게 다루려고 노력했다. 핵심 논조는 언론인 해직, 비판적인 프로그램 폐지, 계속되는 보복 인사였다(‘MBC 옴부즈맨 살인사건’(2012.06.30), ‘응답하라 PD수첩’(2012.09.28), ‘〈뉴스타파〉 특별판 PD수첩의 눈물’(2012.08.03), ‘최승호가 찼다’(2012.06.23), ‘MBC 고위간부의 밀담, “그 둘은 증거없이 잘랐다”’(2016.01.25) 등). 영상구성으로 보도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해직이나 폐지, 보복의 피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공정방송이 근로조건” ... MBC 해고, 징계 무효 판결’(2014.01.17), ‘언론자유 핑계 국조 거부 MBC, 법원의 해직자 복귀 명령도 거부’(2014.07.08), ‘MBC, 재심에서도 권성민 PD 해고 결정’(2015.01.30) 등). 보도에서는 해직, 폐지, 보복의 책임을 당시 사장이던 김재철, 안광한, 김장겸에게 집중시켰다. 그러면서 세 사람은 “MBC 파탄의 책임”을 지고 해임돼야 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비추었다. 예를 들어 ‘MBC 김재철 해임무산 막전막후’(2012.11.10), ‘끝없는 ‘보복인사’ ... 무너지는 MBC’(2014.11.07), “MBC뉴스 파탄 책임자’ 김장겸, MBC 사장이 되다’(2017.02.24)가 대표적이었다.

(3) 조중동/종편: “양치기 소년”

참여자들의 조중동/종편에 대한 감정은 〈KBS〉, 〈MBC〉, 〈YTN〉에 대한 그것과 달랐다. 선배 집단의 경우 본인들의 전 직장이기도 한 〈KBS〉나 〈MBC〉, 〈YTN〉에 대해서는 사장과 수뇌부가 비판의 대상이지만, 조중동/종편은 언론사 자체가 비판의

대상이었다.

조중동/종편에 대한 보도의 특징은 두 가지였다. 첫째, 이들 언론사의 보도나 행태가 과거와 현재가 다르고,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을 비판하며 언론사의 신뢰도를 공격했다. 예를 들어 영상 구성 리포트였던 ‘시선 - 입맛대로 서민경제, 보수언론의 이중성’(2012.08.31)에서는 노무현 정부 시절 택시운전사나 재래시장 상인들의 말을 인용해 “경제가 파탄 났다”며 “모든 게 노무현 탓”이라고 주장하던 보수 신문들이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자는 영상 배경에 자막을 통해 <조선일보>를 포함한 보수 신문들을 이렇게 비판했다.

<자료 45> ‘시선 - 입맛대로 서민경제, 보수언론의 이중성’ 중에서(2012년 8월 31일)

신문에 비친 서민의 모습은 그때 그때 다르다 어떨 때는 최악의 모습으로(노무현 배경화면) 어떨 때는 최선의 이미지로(이명박 배경화면) ... (조선일보 배경화면) 자칭 비판 신문들은 세상을 비추기 위해 펜을 든 게 아니라 때로는 비난하기 위해(노무현 배경화면), 때로는 띄워 주기 위해(이명박 배경화면) 서민의 삶을 이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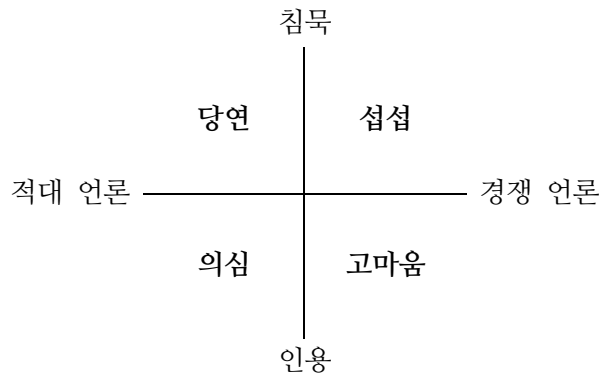
종편의 보도나 시사프로그램 내용을 하나하나 분석해 비슷한 정치 사안에서 종편이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에는 걱정이나 이해하는 태도를 보이는 반면,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에는 “비난을 퍼부었다”고 지적했다(‘종편의 ‘편파질주’에는 이유가 있다’(2016.03.24)). 또 ‘다음은 어느 신문사의 기사일까요?’(2014.11.10) 보도에서는 근거 자료를 제시하며 보수 신문을 비롯한 신문들이 건설회사 홍보팀에서 제공한 내용을 조사 하나 틀리지 않게 그대로 베껴 쓰면서 건설회사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신문의 비윤리성을 비판했다. 조중동/종편의 비윤리성 비판은 이들 언론사들이 광고 영업을 위해 시청률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거나(‘종편시청률의 꿈수’(2012.03.17)), 언론사 내부 문건을 근거로 광고를 대가로 뉴스나 프로그램을 거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천기누설, ‘종편의 속살’’(2015.03.19)). 요약하면 조중동/종편의 보도는 거짓말이거나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었다.

조중동/종편에 대한 보도의 두 번째 특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종편 재승인 문제점을 지적하는 방식이다(‘종편, 일단 재승인부터 하고 ...’(2014.03.21), “양치기 소년’ 종편 ... 방통위, 조건 달아 또 승인하나’(2017.03.15), ‘무기력한 방통위, TV조선

재승인…기준미달에도 3년 허가’(2017.03.24)). 제목에 나오는 “양치기 소년”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처음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된 법에 따라 설립된 종편이 이후 재승인 기준을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방통위가 편법으로 재승인해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구자는 참여자들이 일부 종편에 대해서는 재승인이 나서는 안 된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느꼈다.

탐사보도가 추구하는 변화에서 다른 언론사의 반응이 결정적인 변수가 되는 경우가 많다. 다른 언론사들은 진실을 철저히 외면하면서 침묵으로 의제 설정이나 형성을 방해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적극적인 인용 보도를 통해 탐사보도가 추구하는 변화를 앞당기기도 한다. 다른 언론사들이 침묵할 경우 폭로의 대상은 변화의 압력에 저항할 힘을 얻게 된다. 워터게이트 당시 <워싱턴 포스트>는 9개월 동안 다른 언론사들의 철저한 침묵 속에서 외로이 보도를 이어가야 했다.

<뉴스타파> 보도에 대해서도 다른 언론사들은 침묵하거나 인용 보도를 하였다. 참여자들은 일부 언론사들에 대해 적대감을, 다른 언론사에 대해서는 경쟁의식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침묵/인용과 적대/경쟁의 차원을 결합하면 아래 <그림 3>과 같은 네 가지 분면이 나타난다.



<그림 3> <뉴스타파>와 관계 구분과 보도 인용 여부에 따른 <뉴스타파> 참여자들의 감정

참여자들은 <뉴스타파>가 특종이라고 생각하는 탐사보도에 대해 적대 언론이 침묵할 경우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경쟁 언론이 같은 태도를 보이면 섭섭해했고, 반대로 인용을 하면 고마워했다. 문제는 적대 언론이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하는 경우였다. 자신들의 보도를 다른 언론이 인용할 경우 당연히 좋아해야 할 일이지만 참여자들은 그 의도를 의심했다.

참여자들의 의심을 정당화시키는 구체적인 사례가 있었다. <뉴스타파>는 2015년 11월 30일 ‘국회 산자위원장, 의원실에 카드단말기 놓고 공기업에 책 불법 판매’를 보도했고, 특종을 인정받아 방송기자연합회가 주는 이달의 방송기자상(제86 회)을 받았다. 그런데 취재기자였던 황일송의 기자상 수상 후기의 제목이 “특종을 해놓고서 마음이 착잡한 이유”였다. 꼬박 3주 동안 서울과 지방을 오가며 2백여 명 이상의 공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확인한 취재에 대한 평가였던 만큼 기뻐해야 할 일이지만 황일송의 마음은 착잡했다. 특종이 일부 언론들에 의해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황일송이 직접 조사한 바에 따르면 <뉴스타파>의 첫 보도가 나간 뒤 48시간 동안 주요 일간지와 방송에 보도된 노영민 의원 책 판매 관련 기사는 모두 241건이었다. <국민일보>가 21건으로 가장 많았고, <MBN> 20건, <조선일보> 20건, <YTN> 19건, <동아일보> 18건 순이었다. 이는 <경향신문>과 <한국일보>가 각각 3건과 4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였다(황일송, 2016a). 황일송은 불길한 마음에 <조선일보>에 난 관련 기사들을 꼼꼼히 살펴봤다. <조선일보>는 12월 2일자 신문에서 5면을 통 털어 노영민 관련 기사로 채웠는데 노영민과 새정치민주연합을 함께 비난하고 있었다(정녹용, 2015). 황일송은 <조선일보>가 같은 면에 문재인이 독거 노인을 방문해 활짝 웃는 모습의 사진을 함께 실으면서 노영민의 갑질 행태와 문재인과의 연관성을 부각시키려는 “악의적인 편집 보도”를 했다고 비난했다. <동아일보>도 ‘문 대표, 노영민 건 흐지부지 처리하면 진짜 콩가루 당’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을 달았다(박해식, 2015).

<자료 46> 황일송의 이달의 방송기자상 후기 중에서(2016년 1월)

악용됐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야당의 부도덕성을 선전하는데 <뉴스타파> 기사가 이용됐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기자가 특종을 하고서도 마냥 기뻐하기보다 마음이 착잡해지는 이유다.

황일송은 몇 달 후에는 해당 언론이 정반대의 태도를 보이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황일송은 2016년 3월 17일 ‘나경원 딸 성신여대 부정입학’을 보도했고 역시 특종으로 인정받아 방송기자연합회 이달의 기자상(제91 회)을 수상했다. 4.13 총선을 한 달도 안 남은 상황에서 나온 보도는 네이버와 다음 등 인터넷 포털에서 하루 종일 검색어 1위에 올랐다. 그러나 보수 언론들의 태도는 이번에는 정반대였다. 다음 날 <한겨레>와 <경향신문>이 <뉴스타파>를 인용해 보도했을 뿐 보수 언론은 물론 지상파 방송은 모두 침묵했다. 황일송은 “마치 짜기라도 한 듯한 침묵의 카르텔”이라며 “진실은 외면

하고, 권력의 추가 기우는 정도에 따라 기사를 쓰는 이중잣대”라고 비난했다(황일송, 2016c).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당시 보수, 진보 언론 가릴 것 없이 한국 언론은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했고 <TV조선>과 <JTBC>, 그리고 <한겨레신문>은 한국기자협회의 한국기자상 대상에 선정됐다. 그러나 참여자들은 조중동과 종편을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실 규명에 기여한 것은 인정하지만 당시의 모습이 과거와 너무 다르고, 탄핵 이후에도 그 모습을 지켜나갈 것인지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

〈자료 47〉 전체회의 대화 중 김용진 발언(2017년 1월 9일)

박근혜 체제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폭로를 하고 그 다음에 정권교체까지 쫓가는 이 과정에서 제일 큰 역할을 하는 게 족벌언론, 재벌언론, 그들이 만든 종편들이 역할을 한다는 게 나로 바로 봐서는 이게 우리 <뉴스타파> 문제를 떠나가지고 한국 언론이나 한국 사회의 큰 문제다 앞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들어요. 사실 이 종편, 족벌언론, 재벌언론 이런 것들이 어쨌든 이른바 박근혜 체제를 만든 1등 공신인데 거기에 대한 반성이나 이런 거 전혀 없이 이제 이 체제를 무너뜨리는 데 1등 공신으로 자리매김되어 버리고 이런 것들이 향후에 한국 언론 지형이나 언론 질서를 만드는데 변수가 되고 이럴 때 ...

〈중앙일보〉는 2013년 겨울 한국 언론에 작은 감동을 준 적이 있다. 〈중앙일보〉가 시도한 ‘2003 바로잡습니다’ 때문이었다. 당시 〈중앙일보〉는 12월 23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매일 신문 한 면 전체를 할애해 정치, 국제/통일외교, 경제, 사회, 문화/스포츠 등 다섯 분야에서 수용자들에게 그 동안의 보도에 대해 사과하고 이해를 구했다. 〈중앙일보〉는 사실이 아닌 것, 부분적으로만 사실인 것, 사실을 모아 놓았지만 의미를 잘못 읽은 것으로 오보의 유형을 나누기도 했다. 당시 다른 언론사 언론인들은 “우리가 놓쳤다”, “평가받아야 할 일이다”, “대단한 용기였다”고 칭찬했다(최광범, 2004). 참여자 가운데 일부는 조중동이나 종편이 헌법재판소의 박근혜에 대한 탄핵 결정 이후 지난 보도를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탄핵 보도의 주역으로 자임하는 것에 분노했다.

〈자료 48〉 기획회의 대화 중에서(2016년 10월 31일)

참석자 1: 언론, 관료, 정치인, 교육계, 문화계 이렇게 해가지고 지네들이 그런 체제를 강화하게 만들고 그런 체제 속에서 각종 이권이나 공생관계를 누려온 놈들이.

참석자 2: 지금 세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일종의. 세탁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세탁을 하는 사람들의 원래 검은 모습을 과거에 뭐라고 했었는지 박근혜에 대해 그런 것들을 좀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참석자 3: 어제 00이 〈JTBC〉에 나와 가지고 자기가 최태민을 최초로 취재한 것처럼.

참석자 2: 아이 **놈 아이.

참석자 3: 설레발을 치던데.

참석자 2: 제일 박근혜 빨랐던 놈 중에 하나잖아.

참석자 3: 최고의 부역자가.

위 자료는 조중동 소속 한 언론인이 〈JTBC〉의 시사토론 프로그램에 나와 자신이 그동안 박근혜 정권 감시에 앞장서 왔다고 주장한 것을 보고 선배 집단 참여자들이 나눈 대화의 일부로, 참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조중동/종편에 대한 분노와 적대의 감정이 잘 드러나 있다.

2) 경쟁 언론: 공정 경쟁 유도

참여자들은 〈KBS〉, 〈MBC〉, 〈YTN〉, 조중동/종편 외 다른 언론사들에 대해서는 경쟁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뉴스타파〉가 다른 언론사들과 공정하게 경쟁을 하자는 방향으로 나간 것은 탐사보도 전문 언론을 표방한 시즌 3을 시작하면서부터였다.

경쟁이 배타적 경쟁의식은 아니었다. 연구자가 보기에는 협조적 경쟁으로 〈뉴스타파〉는 다른 언론사와 협업 또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이었다. 〈뉴스타파〉가 객원기자 제도를 통해 다른 언론사 소속 기자의 탐사보도를 지원하는 것도 같은 취지였다. 다른 언론사들보다 먼저 기사를 쓸 수 있는데도 일부러 낙종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일종의 경쟁 회피를 통한 경쟁 전략이었다. 예를 들어 국회의원이나 특정 기관과 공동작업을 해서 보도 가치가 있는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을 경우 〈뉴스타파〉가 단독으로 기사를 쓰기 보다는 해당 국회의원이나 기관이 보도자료를 내 다른 언론사가 먼저 보도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럴 경우 다른 언론사가 기사를 쓸

가능성이 높아 의제 설정이나 형성에 유리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선택이었다. 시즌 3의 초창기에 자주 있던 경우지만 참여자들이 다른 언론사와 협업할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다. 또 <뉴스타파> 보도에 대해 경쟁 언론사가 침묵하면 섭섭해하고, 인용하면 고마워했다.

〈자료 49〉 선배 집단과 일상대화 중에서(2014년 11월 25일)

참석자 1: 다른 언론사를 경쟁자 내지 적으로 보면 안 되고 배타적으로 하면 안 돼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언론사가 있다면 우리 밖에 없어 지금.

참석자 2: 그런 공간을 열어주고 열어 주고 여기서 니들 마음대로 뛰어 놀아라 지원해 줄게.

참석자 1: 타 언론사하고 협업도 많이 해야 되고 서포트 해주고 결과물은 그 언론사의 타이.

그러나 경쟁 관계에서 참여자들이 섭섭함이나 감사함을 벗어나 심각한 분노를 느끼는 경우가 있었다. 경쟁이 공정하지 않거나 비윤리적 행위로 받아들여질 경우 참여자들은 해당 언론사에 대해 분노했고 적극적인 항의를 거쳐 기사 수정이나 사과를 받아냈다.

대표적인 것이 인용 생략과 단독 장사 두 가지 경우로 주로 <JTBC>와의 관계에서 발생했다. 참여자들은 <뉴스타파>의 보도 자료나 보도 내용을 사실상 인용하면서 <뉴스타파>를 출처로 밝히지 않거나(인용 생략), 이미 <뉴스타파>가 보도한 내용을 특종 또는 단독이라며 보도할 경우(단독 장사) 이를 심각한 비윤리적인 행위로 받아들였다. 적대하는 언론사가 그랬을 경우 오히려 무시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협조적 경쟁자라고 생각했던 언론사가 그런 행위를 했을 경우 분노했다.

2016년 4월 5일 기획회의에서는 대표인 김용진이 <JTBC>를 강하게 비난했다.

〈자료 50〉 기획회의 대화 중 김용진 발언(2016년 4월 5일)

JTBC 오만하고 교활하다. 한국 저널리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날은 화요일로 원래 기획회의는 월요일에 하지만 전날인 4일, <뉴스타파> 등 전 세계 백여 개 언론사가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와 수개월 동안 공동 취재해 온 ‘조세도피처 2016’의 결과에 대한 보도자료 배포와 언론 설명회 등이 있어 회의를 하

루 연기한 상태였다. <뉴스타파>도 4일 관련 내용을 4꼭지로 보도했다.¹⁴

문제는 인용 생략이었다. <뉴스타파> 사무실에서 있었던 언론 설명회에 참석해 인터뷰와 보도자료 등을 취재해 간 언론사들 가운데 일부가 <뉴스타파>를 정보의 출처로 인용하지 않은 것이다. 아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뉴스타파>를 인용하지 않은 언론사는 <KBS>, <MBC>, <조선일보>, <동아일보>, <JTBC>였다.

〈표 9〉 ‘조세도피처 2016’ 관련 <뉴스타파> 인용 여부

언론사	보도 제목	인용	보도 문장
KBS	노재현,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 설립	X	국내외 탐사보도 기관들이 분석해보니
MBC	사상 최대 조세회피처 자료 공개, 한국인도 연루	X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가 오늘 공개한
SBS	역대 최대 조세회피 폭로 “한국 이름 195명	O	분석에 참여한 국내 독립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는
조선	푸틴의 수상한 2조 3000억원 ... 시진핑 매형도 ‘유령회사’	X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는
중앙	노재현,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 3개 설립	O	비영리 인터넷언론매체 ‘<뉴스타파>는’
동아	푸틴-메시-청룡 등 세계 유명인사 검은돈 의혹	X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는
한겨레	노재현 씨, 조세회피처에 유령회사 3개	O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는
경향	노재현, 조세도피처에 ‘유령회사’	O	한국에서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한 <뉴스타파>는
JTBC	푸틴·메시 포함 ‘유령회사 설립’ 파문...노태우 장남 등 한국 이름 195명 등장	X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의 분석 결과

14. 2016년 4월 4일 <뉴스타파> 보도는 4꼭지였다 1) 사상 최대 조세도피처 자료 유출...한국인도 수백명, 2) 노태우 아들 노재현도 조세도피처에 유령회사 설립, 3) 노재현, 조세도피처에 무엇을 숨기려 했나?, 4) 푸틴, 메시, 성룡 ... 조세도피처의 유명인들

김용진이 분노한 것은 <KBS>, <MBC>, <조선일보>, <동아일보> 때문이 아니었다. 이들 언론사를 사실상 적폐로 보는 김용진으로서는 무시하고 넘어갈 만 했지만, <JTBC>는 용서가 되지 않았던 것이다. 4월 4일 <JTBC> 뉴스룸 보도에서 앵커인 손석희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의 분석 결과”로 내용을 소개했고, 취재기자 역시 리포트에서 <뉴스타파>를 정보의 출처로 언급하지 않았다(임지수, 2016). 김용진에게는 <JTBC>가 <KBS>나 <MBC>, <조선일보>, <동아일보>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였고, 윤리적으로 용납할 수 없었다. 당시 언론 설명회에 참석했던 <JTBC> 취재기자에게 경위를 확인한 결과 “본인은 <뉴스타파>를 넣었는데 데스크 과정에서 사람들이 <뉴스타파>가 보도한 것을 아니까 굳이 표기할 필요 없다는 이유로 삭제됐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JTBC>는 왜 출처를 표기하지 않을 것일까? 언론인으로서 윤리의식이 없는가? 오만해진 것인가? 등의 불만이 쏟아져 나왔다. 이후 최승호가 <JTBC> 사장인 손석희에게 사실 확인을 요청하자 손석희는 사과했다. 또 <JTBC>는 <뉴스타파>를 정보 출처로 인용해 리포트를 다시 제작해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그러나 향후 <뉴스타파>가 보도자료를 배포할 일이 있을 경우 <JTBC>를 제외하자는 논의가 나오는 등 불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참여자들이 <JTBC>에 격하게 분노했던 데는 다른 이유가 더 있었다. 참여자들이 보기에는 <JTBC>의 이런 행태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인 5월 7일 <JTBC>는 해경이 조류 시간을 잘못 파악해 생존자 수색이 지지부진했다는 보도를 했다(‘정조시간 잘못 파악? 해경 발표한 시간, 물살 가장 센 시점’) 그러나 이보다 일주일 앞선 4월 30일 <뉴스타파>는 ‘조류 오판, 천금같은 구조 기회 날렸다’(2014.04.30) 보도에서 이미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다른 언론사가 앞서 보도했다 라도 얼마든지 다른 방식으로 보도할 수 있고 이는 반복되는 일이기도 하다. 참여자들의 불만을 샀던 부분은 “저희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살펴본 내용입니다. 저희 취재진이 입수한”이라는 손석희의 표현이었다. “한걸음 더”와 “입수”라는 표현을 통해 <뉴스타파>가 이미 보도한 내용을 <JTBC>가 특종을 한 것처럼 가로챈 것으로 받아들였다. 앞서 5월 5일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JTBC>는 “10시 11분’ 사진 8장...아이들이 보낸 ‘세 번째 편지’”(2014.05.05) 보도에서 역시 “입수”라는 표현을 쓰며 특종을 한 듯한 뉘앙스를 비쳤다. 이번에도 <뉴스타파>가 일주일 앞서 ‘간힌 아이들의 ‘마지막 셔터’...10시 11분 45초’(2014.04.29)에서 이미 보도한 내용이었다. 또 <JTBC>의 ‘해경-언딘 사이에 해양구조협회? 업체 선정 유착 의혹’(2014.05.07) 보도는 <뉴스타파>의 4월 27일 “총력 구조’ 정부 믿었는데...특정단체가 장악’(2014.04.27) 보도를

사실상 압축해 놓은 것이었다. 그러나 <JTBC>는 한 번도 <뉴스타파>를 인용하지 않았다. 당시 에디터였던 참여자 한 명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은 참여자들이 <JTBC>에 대해 느낀 분노를 잘 보여주고 있다.

〈자료 51〉 선배 집단 한 명의 페이스북 글 중에서

이거 모두 <뉴스타파>에서 진작에 며칠 전에 보도했던 리포트들입니다. 인용 보도는 못할지언정 단독 인양, 한발 더 들어가서 알아본 것 인양 하진 말아야죠. <JTBC>는 언론 종사자로서의 최소한의 양심도 없단 말입니까? 이미 <뉴스타파> 통해 수십만 명이 본 내용을 어떻게 그렇게 철판 깔고 한발 더 들어가서 살펴봤다고 할 수 있는지 ... 한 번 두 번은 그냥 넘어갔는데 도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도 내용이 좋다면 받아야지요. <뉴스타파>가 보도한 내용이라고 인용하기 그러면 그냥 드라이하게 받으면 됩니다. 굳이 단독이니 한발 더 들어갔다니 생색내면 꼴이 우스워지지요.

2017년 4월 2일 <JTBC> 스포트라이트는 ‘단독 수중 영상! 꺾이고 뒤엎킨 세월호 내부, 미수습자 9명은 어디에?’(2017.04.02) 편을 방송했다. 그런데 “단독 수중 영상”이라며 공개된 영상은 <뉴스타파>가 2년 전에 이미 공개한 영상으로 이를 다른 ‘세월호 참사 1주기 특집 - 참혹한 세월, 국가의 거짓말’(2015.04.16)은 한국 PD연합회가 주는 한국 PD대상(시사다큐부문)을 수상하기도 했다. 참여자들 일부가 SNS 상에서 적극적으로 이를 문제 삼았다.

〈자료 52〉 선배 집단 한 명의 페이스북 글 중에서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단독이 참 많습니다. 종편답지요? 그런데 제발 뭐가 단독인지 좀 명확히 밝혀주세요.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관련 동영상들은 이미 <뉴스타파>에서 방송이 됐고 이번 건은 2년 전에 피디협회 대상까지 수상했습니다.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난 번 헌법재판소 영상도 단독이라 하길래 배가 많이 고픈 분들인가 보다 생각하고 그냥 웃고 넘어갔습니다만. 세월호 가지고는 장난 좀 치지 마세요. “단독 수중 영상! 꺾이고 뒤엎킨 세월호 내부, 미수습자 9명은 어디에?” 라고 타이틀을 붙이셨더군요. 그러지 마세요. 장사하는구나 저널리즘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발 그리 살지 마세요.

참여자들은 이런 행위는 도둑질로 언론윤리 차원에서 절대 용납될 수 없다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었다. 연구자는 <KBS>, <MBC>, <YTN>, 조중동/종편 외 언론사들에 대해 참여자들이 적대감이나 악감정이 가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다. 연구자로서 동시에 내부 구성원으로서 느낀 바이다. 진보 언론에 대해서는 협력적 경쟁의식을 갖고 있었고, 그들이 특종을 터트렸을 때는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자책했다. 그러나 그들이 인용 생략이나 단독 장사 등 비윤리적으로 판단되는 행위를 했을 때는 분노했고 적극적으로 비난했다. 한발 더 나아가 항의하고 기사 수정이나 사과를 받아냈다. 직접 항의하는 경우는 한국 언론 관행상 드문 일이지만 참여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항의했다. 인용 생략이나 단독 장사가 도둑질이라는 인식에 진보 언론에서도 비윤리적 행위가 계속된다면 권력에 장악된 공영방송이나 보수 언론과 무엇이 다른가 라는 생각이 더해진 것으로 느껴졌다.

3. 탐사보도와 정파보도의 혼재: 다른 언론의 반감

참여자들은 한국 언론과 관련한 진실을 누군가는 제대로 말해야 하며, 특히 자신들이 진실을 보도할 경우 한국 언론의 잘못된 관행이 더 빨리 고쳐질 것으로 생각했다. <뉴스타파>의 언론 비판은 출범 이후 집요했다.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는 자신감을 발판으로 하는 행위는 때로는 선비정신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선비정신의 근저에는 <뉴스타파> 언론인들이 얘기하면 더 아프고, 더 위축되어, 같은 행위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었다.

비판 방식에서는 차이가 있었지만 언론 비판 대상에 성역은 없었다. 한국 언론에 대한 진실을 보도하겠다는 사명감이 한국 언론의 잘못된 관행에 얼마나 많은 변화를 가져 왔는지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 다만 <뉴스타파>의 비판 보도가 나간 뒤 해당 언론사나 언론인들이 비공식적으로 해명하거나 변명하는 경우들이 있었다.

그러나 일부 언론에 대한 적대적 공격에서는 정파보도의 특징이 나타났다. 언론 비판이라는 목적이 적대적 공격이라는 수단을 정당화시키는 측면도 있었다. 언론인도 누군가에 대해 적대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적대의 감정이 여과 없이 보도에 투영되는 것은 다른 일이다. 적극적인 비판 보도의 대상이었던 <KBS>, <MBC>, <YTN>, 조중동/종편에 대해 참여자들은 “이명박근혜 체제의 탄생과 유지의 1등 공신”으로 생각했고 적대의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문제는 이런 적대감이 보도에 그대로 투영되는 경우였다.

<KBS>와 <MBC>에 대한 보도에서는 공영방송이 권력에 예속되어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제목에 등장하는 “땡전뉴스”, “땡박뉴스”, “저널리즘 포기”, “두 얼굴”, “청와대 스피커”, “침몰” 등에서 나타나듯이 자극적, 선정적 표현을 통해 감정을 드러냈다(‘KBS, MBC에 땡전뉴스를 許하라’(2012.09.07), ‘시선 - 독재를 독재라 부르지 못하고...’(2012.09.07), ‘시선 - 언론이 아니무니다’(2012.09.28), ‘공영 방송, 저널리즘 포기했나?’(2013.07.18), ‘땡박뉴스 전성시대’(2013.11.01), ‘방송3사, 1년 내내 ‘청와대 스피커’’(2014.02.28), ‘공영방송도 침몰했다’(2014.05.06), ‘사라진 목소리와 공영방송’(2014.06.11), ‘다음 중 국정 홍보채널을 고르시오’(2016.03.24) 등).

조중동/중편에 대한 보도에서는 적대적 공격이 더 강했다. 시즌 1, 2의 경우 언론사를 가릴 것이 보도 제목에서 단정적이거나 감정적, 또는 풍자적인 표현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다(‘중편시청률의 꿈수’(2012.03.17), ‘조현오+YTN=경찰방송’(2012.06.11), ‘KBS 간부들에게 없는 것?’(2012.09.28), ‘언론이 아니무니다’(2012.09.28), ‘응답하라 피디수첩’(2012.09.28), ‘김재철 지키기 진상을 밝혀라!’(2012.11.10), ‘길환영 때문에 KBS 기자들이 뿔났다’(2012.12.28) 등). 그러나 시즌 3을 기점으로 탐사보도 전문 언론을 선언한 뒤부터는 <KBS>, <MBC>, <YTN>에 대해서는 가급적 제목에 보도 내용을 요약, 기술하는 쪽으로 변화하는 모습이 보였다. 예를 들어 세월호 참사 후 김시곤의 폭로와 파업, 길환영의 해임으로 이어지는 <KBS> 이슈에 대한 <뉴스타파> 보도 제목은 당시 다른 언론의 보도와 크게 다를 바가 없었다.¹⁵ 그러나 조중동/중편에 대한 보도 제목은 시즌 1, 2나 3사이에 달라진 것이 없었다. 여전히 적대적 공격이 묻어 나왔다.

15. 당시 <KBS> 이슈를 다룬 <뉴스타파>의 보도 목록은 다음과 같다. ‘KBS 보도국장 사퇴에 ‘청와대 개입’ 사실상 확인’(2014.05.09), ‘길환영, 청와대 앞 때늦은 사과 ... ‘만신창이’ KBS’(2014.05.09), ‘숨가뺐던 1박 2일 ... 청와대, KBS 장악 드러나’(2014.05.10), ‘보도국장에 ‘친靑’ 인사...’정권의 KBS’ 재확인?’(2014.05.13), “‘제가 가족이어도...” KBS 기자의 눈물’(2014.05.14), “‘청와대, KBS 뉴스 개입...사장은 대통령 기사 쟁겨’”(2014.05.17), ‘KBS 제작거부 돌입...길환영은 사퇴 거부’(2014.05.19), ‘KBS 뉴스 파행, 다음주 중 전면 파업?’(2014.05.20), ‘길환영, ‘보도개입’에 불법 건물 ‘투기의혹’까지’(2014.05.27), ‘사장은 ‘독립성’ 포기, 이사회는 ‘방송’ 포기’(2014.05.30), ‘길환영 KBS 통제력 상실?...보도본부장 또 사표’(2014.06.02), ‘갈길 먼 KBS 정상화...’사장 해임은 끝이 아닌 시작’(2014.06.10).

〈표 10〉 조중동/종편에 대한 비판적 보도 목록

보도 날짜	보도 제목
2012.02.24	공갈뉴스: 종편의 “자백”
2012.03.17	종편시청률의 꿈수
2012.08.31	시선 - 입맛대로 서민경제, 보수언론의 이중성
2012.09.07	최용익 칼럼: 조선일보 오보 이중성
2013.08.08	“미래저축은행 김찬경 전 회장, ‘채널A’에 차명으로 100억 투자”
2014.03.21	종편, 일단 재승인부터 하고 ...
2014.11.10	다음은 어느 신문사의 기사일까요?
2015.03.17	“죽어가는 것은 동아투위 아닌 동아일보”
2015.03.19	천기누설, ‘종편의 속살’
2016.03.24	종편의 ‘편파질주’에는 이유가 있다
2017.03.15	‘양치기 소년’ 종편 ... 방통위, 조건 달아 또 승인하나
2017.03.24	무기력한 방통위, TV조선 재승인 ... 기준미달에도 3년 허가

그러나 〈뉴스타파〉 밖에 할 데가 없는 것과 〈뉴스타파〉만이 제대로 된 언론인 양 행세하는 것은 분명 다른 상황에서 참여자들의 저널리즘 비판은 다른 언론인들에게는 오히려 후자 쪽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자료 53〉 선배 집단과 일상대화 중에서(2014년 11월 25일)

참석자 1: 우리를 경쟁자로 보더라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약간 보기 싫은, ‘니들은 잘났다’고 하면서 매일매일 보도자료에 치이지 않고 충분하게 취재 시간을 갖고 하고 자기들이 한 걸 마치 이렇게 시해를 베푸는 것처럼 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반감심을 갖고 있더라고. ...

참석자 2: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들 입장에선 뭐 다른 언론이 다 기득이고 자기들만 제대로 된 언론인 양 하는 것에 대한 반감이 크지.

한 참여자는 〈뉴스타파〉를 바라보는 외부 언론인의 시선 가운데는 “엘리트 의식” 속에 “정의를 독점하고 있는 듯” 행세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려는 느낌”도 있다고 말했다. 참여자들은 집요한 비판이 부메랑이 되어 부작용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언론계에서 이른바 왕따 취급받는 것이었다.

〈자료 54〉 선배 집단과 일상대화 중에서(2017년 3월 17일)

연구자: 우리가 밖으로 비쳐지는 게 약간 오만한 모습으로 비쳐진다는 거야?

참석자 1: 그런 게 있죠.

참석자 2: 있어요.

연구자: 왜?

참석자 2: 니들은 니 잘난 맛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연구자: 너무 다 아는 척 한다 이거야?

참석자 2: 그거 보다는 독야청청 모두끼기의 홀로 고결주의자.

취재윤리의 경계를 벗어난 저널리즘 비판은 〈뉴스타파〉를 오히려 언론 지형에서 고립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었지만 현장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뉴스타파〉 내에서 이 문제가 진지하게 논의된 적은 없었다. 어떤 보도가 과도하거나 억지스러운 비판인지에 대한 토론도 들을 수 없었다. 다만 저널리즘 비판에 너무 집착할 경우 자만이나 오만하게 보일 수 있다는 정도의 고민을 술자리와 같은 사적 대화에서 들을 수 있었다.

제 2 절 권력 감시

앞서 참여자들의 〈뉴스타파〉 참여 경로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 감시는 분노를 핵심으로 하는 선배 집단의 특수한 소명의식이었다. 처음부터 취재 대상과 목적이 명확했고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나쁜 권력이라는 가치평가가 내재해 있었다. 때문에 소명의식 자체에 정파적 속성이 다분했고, 보도 결과에서는 적대 정파에 대해서는 탐사보도와 정파보도 그리고 우호 정파에 대해서는 객관보도의 특성이 나타났다.

1. 가치연관: 적대 정파와 우호 정파 구분

탐사보도의 권력 감시 대상에 정파의 구분은 있어서는 안 된다. 〈뉴스타파〉도 비당파 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김용진은 평소 〈뉴스타파〉는 “골대를 정해 놓지 않는다”는 말을 자주했다. 특정 정파를 가리지 않고 비판할 일이 있으면 서슴치 않고 보도하겠다는 뜻이다. 비영리 비당파는 〈뉴스타파〉의 출범 원칙이고 이후

변하지 않았다. “한국 언론의 가장 고질이 정파성”이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안티였고” 언제나 “그 문제의식은 유효”했다.

〈자료 55〉 선배 집단 한 명과 일상대화 중에서(2014년 12월 9일)

우리가 왜 민주당을 애정 어린 시선으로 비판해야 되냐? 그러면 새누리당도 애정 어린 시선으로 비판해야 되냐? 이런 식이야. 왜 이 아이টে임을 해야 되는지에 관해 트위터나 이런 데서는 난리가 나고 <국민TV>나 <오마 뉴스>나 <프레시안>이나 모든 매체에서 다 나오는 그 시점에, 우리 안에서 논의는 상당히 많이 했었어.

그러나 권력 감시에 있어 실질적으로는 현장연구 당시 여권, 즉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반대로 야권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정권, 즉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감시라는 명분에 재정적 기반인 후원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다고 생각이 더해지면서 이명박, 박근혜 정권 비판에는 거침이 없었다. 여기에 해직이나 퇴직의 경험에서 오는 분노는 에너지를 불어 넣었다. 현장연구가 시작된 지 얼마 안 있어 참여자 가운데 한 명이 페이스북에 당시 대통령이던 박근혜에게 “힘 오의 감정”을 느낀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누구보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대한 비판적인 보도를 많이 하는 참여자였다. 당시는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지 열흘 남짓된 시점으로 국회의원 당선자들을 취재하고 있던 다른 참여자들이 새누리당 측으로부터 항의를 받는 등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자료 56〉 선배 집단 한 명과 심층면담 중에서(2017년 7월 2일)

참여자: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조금 그 리포트 흐름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좀 과도하게 들어간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어쩔 수 없이 인간이니까 그런 한들에 대해서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다.

연구자: 과잉되면 안 되는 거지?

참여자: 과잉되면 안 되는 거죠.

권력 감시라는 소명의식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국한되면서 정권교체라는 가치에 함몰되어 갔고, <뉴스타파>의 권력 감시는 탐사보도와 정파보도, 그리고 객관보도의 혼재로 흘러갔다. 참여자들 중 일부는 이를 심각하게 우려했다.

〈자료 57〉 선배 집단 한 명과 심층면담 중에서(2017년 5월 24일)

박근혜가 아니면 칼럼이 안 써지는 상황들처럼 너무 청와대 중심. 주요 정치 권력 중심? 그것을 타겟팅으로 해서 고발하려고 하는 보도 태도 저는 그거는 굉장히 옳다고 보는데 그게 너무 지나치면 지나치거나 그렇다 그러면 그런 태도는 조금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약간 들어요.

그 결과 현장연구가 끝날 무렵 〈뉴스타파〉는 정파성의 탓에 간혀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참여자들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대한 비판을 소명으로 실천하면서 동시에 정파적으로 흐르지 않는 방법을 추구했지만 결과는 정파성의 탓이었다.

2. 가치토론

1) 적대 정파: 적극적 기획과 적대적 공격

(1) 적극적 기획: “본 헤드 플레이를 해”

〈자료 58〉 선배 집단 한 명과 일상대화 중에서(2017년 3월 21일)

참여자: 너무 본 헤드 플레이를 해가지고, 본 헤드 플레이에 관한, 아주 쉽게 정의를 하자면. 본 헤드 플레이에 관한 것.

연구자: 본 헤드 플레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참여자: 세월호, 뭐 연설문, 기자회견도, 전부다 다 그런 식이잖아. 완전히 그냥 명칭한 짓을 한 거잖아. 창조경제도. 뭐 다 마찬가지로 정책들 자체가.

항상 매의 눈을 가지고 주시했고 먹잇감은 쉽게 눈에 띄었다. 참여자들의 눈에 는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의 잘못이 더 잘 보였던 것 같다. 정권에서 벌어지는 일은 분야를 가릴 것 없이 적극적인 기획을 통해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평가했다. 이명박 정권 당시인 시즌 1, 2때는 이명박의 치적이 부풀려 졌고(‘이명박 정부 치적의 꿈 수’(2012.11.16) 등), 이명박의 말은 대부분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MB의 외침 “이 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2015.02.05) 등). 당시 보도 제목들을 보면 “목불인견”, “적반하장”, “무협지”, “거짓말” 등 다른 언론 보도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은유적이면서도 공격적인 표현들이 등장했다. 정권 막바지에 들어서는 이명박이 대선 당시 내

놓았던 공약을 얼마나 이행했는지를 점검했다(‘이명박 대통령 경제공약 집중 점검_부자편’(2012.11.03), ‘이명박 대통령 경제공약 집중 점검_서민편’(2012.11.03) 등).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도 이명박 비판은 멈추지 않았다. 퇴임 후에도 지속적으로 기획 보도를 만들어 이명박 정권의 어두운 면을 부각시키려 노력했다. 예를 들어 4대강 사업(‘이명박, 4대강, 거짓말 ...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2013.07.11), ‘MB 인맥 건설사, 4대강 공사 4조 8천억 수주’(2013.12.03), ‘4대강 관련 대통령·국무총리 표창자 자료’(2014.01.24) 등)과 자원외교(‘MB집사 아들, 자원외교에 깊숙이 개입’(2015.03.12), ‘MB 자원외교에 국민연금까지 동원?’(2015.03.26) 등) 그리고 국정원 대선 개입(‘국정원 침몰시킨 트위터 ... 이제 대통령이 답할 때’(2015.02.10), ‘국정원 대선 개입 ... MB를 고발합니다’(2015.02.27), ‘MB가 심판대에 오를 날은?’(2015.03.12) 등)이 집중적인 비판 대상이었다.

박근혜 정권의 출범은 <뉴스타파>가 탐사보도 전문 언론을 천명한 시즌 3의 시작과 일치한다. 언론사로서의 체계도 어느 정도 갖춰진 시점으로 정권에 대한 비판은 정치(“‘불통 대통령’ 박근혜...구중궁궐에 갇혔나?”(2013.11.01), “‘만기친람’ 대통령의 침묵”(2014.02.21), ‘신년회견해부’(2015.01.12), ‘말 바꾼 대통령, 여론엔 나 몰라라’(2015.10.30) 등)와 외교(‘윤창중에 덮힌 박대통령의 위험한 방미 발언’(2013.05.17), ‘박근혜 vs. 오바마 ... ‘달라도 너무 다른’ 조세정책’(2015.01.23), ‘박근혜 식 한반도 ‘불신’ 프로세스’(2016.02.18) 등), 경제(‘박근혜표 부동산 정책, ‘부자 위한 정책’ 비판’(2013.04.05), ‘박근혜표 공기업 개혁, 국민부담은 늘고 공기업은 돈잔치?’(2014.01.14), ‘박근혜와 삼성의 밀월, ‘이보다 좋을 순 없다’(2014.05.06), ‘박근혜 본색?... ‘부자에겐 베풀고 서민은 쥐어짜라’(2014.09.16), ‘박근혜 경제 최악의 실패, 주거비 폭등’(2015.09.03) 등), 사회(‘박근혜의 ‘자식된 도리’...국정교과서’(2015.10.15), “‘극우망언’ 고영주는 박근혜의 이념 경호원?’(2015.10.15), ‘독소조항 가득한 ‘박근혜표 노동개혁’(2015.10.22), “‘마음대로 해고’...박근혜 본색?’(2015.10.22), ‘어버이연합 10년...그리고 박근혜’(2016.04.28), ‘대통령 올케 서향희, ‘만사올통’ 있었다’(2016.08.25) 등), 언론(‘박근혜 회견 사전 질문지 입수... “각본대로 읽고 답했다”(2014.01.10), “대통령을 모셔라’...해외순방 ‘쇼쇼쇼’(2015.05.14), “‘난데없는 ‘잭팟’...낮뜨거운 대통령 외교 부풀리기’(2016.05.03) 등) 등 분야를 가리지 않았다.

기레기 논란을 촉발시키기도 했던 세월호 관련 보도를 통해 <뉴스타파>는 박근혜의 무능과 거짓말이 참사의 원인이었다는 주장의 보도를 이어갔다. <뉴스타파> 전체 보도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세월호 참사 관련 보도였을 정도로 참여자들은 <뉴스타파>가 세월호의 진실을 규명하는데 일조를 했다고 자부했다.

장기 프로젝트를 기획해 정권에 대한 주기적 평가도 병행했다. 예를 들어 공약 점검이나 예산 적절성 검증, 공직후보자 인사 검증 등은 단기간에 이뤄지는 취재가 아니다. 자료 준비와 분석, 취재, 제작 등에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는 작업이다. 공약 점검의 경우 수백 개의 공약을 모아서 하나하나 진전 상황을 점검하고 이를 계량화해야 한다. 공직후보자 검증도 재산 검증의 경우만 보더라도 후보자가 스스로 공개한 자료뿐만 아니라 수년 전의 데이터를 찾아서 프로그램에 입력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장을 찾아다녀야 한다. 그런 만큼 탐사보도 전문 언론인들에게 특화되어 있는 취재 영역이기도 하다. 참여자 가운데 <KBS> 출신들 경우 <KBS> 탐사보도팀 당시 이런 기능을 연마한 경험들이 있었다. 이들을 중심으로 한 장기 기획을 통해 <뉴스타파>는 적극적으로 박근혜 정권을 평가했다. 공약 이행 점검 보도는 해마다 2월에 이어졌고 ('박근혜 공약 201개 전수조사, 점수 32점... 낙제수준'(2014.02.25), '박근혜 2년...핵심공약 '후퇴 아니면 축소''(2015.02.24), '박근혜 공약점수 10점 오른 '42점'...실상은?'(2015.02.24), '박근혜 정부 2년...거꾸로 가는 국민대통합'(2015.02.24), '박근혜정부 3년, 당신이 매기는 경제 성적표는?'(2016.02.22) 등), 정권 초기뿐만 아니라 공직자가 교체될 때마다 혹독하게 공직 후보자들의 도덕성을 검증했다('<뉴스타파> 호외: 박근혜 정부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2편-김종훈의 조국은?'(2013.02.21), '박근혜 정부 장관 후보자, 반포아파트 투기 의혹 잇달아'(2013.03.01), '수치로 본 박근혜정부 인사참사 "45%가 부적격"'(2015.02.17) 등).

개인적 분노, 탐사보도 정신, 회원 성향 결합되면서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대한 비판은 참여자들, 특히 선배 집단에게는 소명의식이었다. 정치 현안에 대한 개입을 지양한다는 원칙 아래 적극적인 기획은 소명을 실천하는 핵심 방법이었고 결과는 전형적인 탐사보도였다.

(2) 적대적 공격: “끼워넣기”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대한 감시라는 소명의식을 실천하는 두 번째 방법은 적대적 공격으로 끼워넣기가 대표적이었다. 적극적인 가치평가가 내재된 상황에서 이뤄진 끼워넣기는 취재윤리의 경계를 벗어난 측면이 있었다. 비록 특정 정파와 유착해 정파적 이익 차원에서 정권을 비판한 것은 아니었지만 끼워넣기가 들어간 보도는 탐사보도라기 보다는 정파보도의 특성이 더 강했다.

끼워넣기는 보도의 전체 흐름상 들어가지 않아도 되거나 오히려 어울리지 않는 데 굳이 이명박이나 박근혜와 연관시키거나 과거 발언 영상을 포함시키는 경우로 보

도에서 해당 부분을 빼도 의미나 맥락상 이상하지 않은 경우이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수용자들의 “분노 상승 유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었다. 참여자들 중 일부는 끼워넣기를 할 경우 유튜브 조회수나 공감하는 댓글이 더 많아진다고 생각했다.

〈자료 59〉 선배 집단 한 명과 심층면담 중에서(2017년 7월 2일)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게 잘 팔리고 댓글에서 칭찬받고 사람들이 그거 보면서 같이 욕하고 이러는 거에 도움이 된다 라고 하는 약간의 그런 어떤 공감대 같은 게 내부에 분명히 존재했다고 봐요. 그게 없었으면 데스킹 할 때 걸러지는 것들도 꽤 있었어야 된다고 봐요. 그게 분명히 있었지. 대세에 지장, 사실은 들어가도 그만 안 들어가도 그만 사실은 흐름상으로는 굳이 들어가서 뭐 얘기하고자 하는 주제 자체로만 보면은 굳이 들어가서 살짝 좀 끊어지고 쉬어가는 느낌인 데도 불구하고 하나 넣는 건 분노 게이지 상승 유발효과 뭐 이런 것들을 사실 감안하고 넣은 것들이 꽤 있었죠.

끼워넣기 방식은 다양했다. 보도의 도입부, 중간 또는 마무리 부분에 간략하게 넣거나 도입과 마무리에 동시에 넣는 방법도 있었다. 예를 들어 다음 사례는 앞부분에 끼워넣기가 들어가 경우로, 2016년 4월 28일 방송된 “극단적 중복 척결 그룹’이 청와대 국민소통 담당’ 보도는 박근혜 정권에서 어버이연합에 관제 데모를 지시한 사람이 당시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이었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보도의 시작이 박근혜가 아니라 이명박 정권의 청와대였다. 그러나 보도에는 이명박 정권 청와대의 국민소통비서관실과 박근혜 정권의 그것이 이름만 다를 뿐 둘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명박 정권의 국민소통비서관실 부분을 보도에서 빼도 의미 전달에는 문제가 없었다.

보도 중간에 끼워넣기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 2016년 4월 9일 방송된 “모색폰 세카까지 ‘3관왕’ 한국 ... 국세청은 뭐하나?” 보도는 해외 조세도피처 3곳에 비밀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한 개인을 집중 추적하면서 국세청이 이와 같은 역외 계좌를 이용한 탈세 가능성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런데 보도 중간에 갑자기 박근혜 정권 공약에 대한 언급이 등장하지만 해당 부분은 불필요한 언급이었다.

끼워넣기가 많이 등장하는 경우는 보도의 마무리 부분이다.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은 석유공사의 부실 책임을 당시 경영진에게 묻고 있는 보도(‘망가진 석유공사...’ 적폐 인사’ 청산 시급’(2017.07.24))는 마무리 부분에서 그동안 한 번도 언급이 없었

던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 책임으로 끝을 맺었다. 또 한국 내 사드 배치 논의가 시작된 후 중국 언론 보도를 분석해 한국 경제에 피해가 우려된다는 내용의 보도(‘사드 배치에 등 돌리는 중국… 국내 경제만 피해’(2016.02.18))는 사드 문제와 관련이 없는 박근혜의 과거 발언을 인용하면서 책임을 박근혜에게 돌리고 있었다. 사드 배치의 실효성이 논란이 되고 있던 상황에서 중국의 경제 보복까지 박근혜 책임으로 돌리는 마무리였다.

한 보도에서 끼워넣기가 두 번 나오는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어 ‘증거인멸 전에 신속한 검찰 수사 필요’(2017.06.29) 보도는 지난 정권의 자원외교 문제를 다루면서 특히 석유공사가 부실경영 및 부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런데 방송의 처음과 끝이 모두 퇴임 후의 이명박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법으로 정해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들어 “여유가 넘치는 삶”으로 언급하더니 “그가 국가 경제에 남긴 상처”로 갑자기 전환했다. 논리적 연결이 잘 안되는 부분으로 구성에서 이 부분이 빠진다고 해서 어색할 것이 없었다. 끝 부분에서도 갑자기 이명박과 적폐를 언급하며 계속된 보도 의지를 강조하지만 무리한 결론이라는 느낌을 받았다.’공개한 기록 다시 비공개 … 황당한 대통령기록물관리’(2015.01.15)도 마찬가지였다. 보도는 국가기록원이 이미 공개 결정한 정부 문서를 <뉴스타파>가 정보공개청구하자 돌연 비공개로 처리했다는 점을 비판하고 있다. 그러면서 국가기록원이 비공개 처리한 문서를 이미 <뉴스타파>가 정보공개를 통해 가지고 있다며 국가기록원의 행태를 꼬집었다. 문제는 박근혜 정권 시기 국가기록원의 행태를 비판하면서 보도의 도입부를 이명박 정권에서 열렸던 G20 정상회의 기록이 상당수 비밀로 감춰져 있다고 시작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마무리에서는 기록물 관리와 직접 관련이 없는 박근혜의 과거 발언을 전하면서 국가기록원의 행태도 결국 박근혜의 책임이라는 쪽으로 결론을 맺었다. 처음과 끝이 보도가 주장하고자 하는 취지와 연결되지 않았고 해당 부분이 없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았다.

서로 논리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분야를 억지로 연결시키면서 이명박이나 박근혜를 비판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보도도 있을 정도로(‘박근혜 경제 최악의 실패, 주거비 폭등’(2015.09.03), ‘아파트 값 폭등한 강남부자, 세금도 혜택 봤다’(2017.08.10), ‘허울 뿐인 창조경제, 제조업은 죽어간다’(2015.12.24) 등) 끼워넣기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 감시라는 소명의식을 실천하는 일상화된 방법이었다.

때문에 참여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이 같은 끼워넣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다. 적극적인 기획을 통해 정권을 감시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갖거나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참여자들은 없었다. 연구자가 보기에는 다소 감정적인 표현들이 있어 보

였지만 대표인 김용진의 데스크킹을 거친 만큼 이익을 제기하는 경우는 없었다. 그러나 끼워넣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다. 저널리즘 윤리 측면에서 “지나치다”, “무책임하다”는 의견들이었다.

〈자료 60〉 후배 집단 한 명과 심층면담 중에서(2017년 6월 19일)

참여자: 이전 정권에 대한 비판 기사도 조금 무책임했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모든 리포트에 끝에 박근혜 얼굴을 넣어가지고 끝내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언론의 지향이 맞을까 이런 회의가 있었는데.

연구자: 지난 정권 땀 너무 과했다 이거지?

참여자: 이야기가 되기 위해서는 박근혜와의 연관성을 찾는 방식으로, 저는 모두라고는 할 수 없지만 몇 개는 진짜 작위적이다 생각하면서 봤던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우리 안에 좀 쌓여있는 적폐들 아닌가.

선배 집단의 한 참여자는 해직이나 퇴직의 경험이 없는 후배 집단까지 아무런 거리낌없이 끼워넣기를 하는 것에 우려를 나타냈다. “후배들이 끼워넣기를 보도를 잘하는 방법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모습이었다.

끼워넣기가 들어간 보도는 정파보도의 성격이 강했다. 한국 언론에서 특정 정파와 유착한 언론이 반대 정파를 공격하기 위해 일상적으로 사용해 온 보도 방법이 끼워넣기였기 때문이다. 〈뉴스타파〉 참여자들이 특정 정파와 유착해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비판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끼워넣기는 견제를 넘은 적대로 가치함몰이었으며, 결과는 탐사보도를 벗어난 정파보도였다.

2) 우호 정파: 소극적 보도

현장연구를 처음으로 시작하는 날인 2016년 3월 21일은 20대 총선을 두 달 남짓 남겨둔 시점이었다. 따라서 〈뉴스타파〉도 총선 준비에 바빠 돌아가고 있었다. 이날 처음으로 참석한 기획회의에서도 총선 준비 문제가 다루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인 김종인이 비례대표 2번으로 셀프 공천한 것의 적절성과 비례대표 후보들의 국민 대표성 등이 논의됐다. 그러던 중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에 대한 검증을 “외면하고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왔고 “어떻게 다룰지 고민해 보자”는 선에서 논의를 마쳤다.

〈뉴스타파〉는 한 달 전쯤인 2016년 2월 25일 총선 기획으로 ‘사라진 공약을 찾아서’를 보도를 한 바 있었다¹⁶. 2012년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내놓았던 공약들의 이행 상황을 참여연대와 공동으로 점검하는 보도였는데 “점검이 이루어진 110개 공약에서 새누리당의 공약 이행 점수는 38점으로 낙제점”이라고 비판한 바 있었다. 즉 새누리당에 비해 민주당에 대한 보도가 소극적이라는 문제제기였던 것이다.

〈자료 61〉 기획회의 대화 중에서(2016년 3월 21일)

참석자 1: 민주당 찬찬히 보면 문제가 많은데 우리가 그냥 민주당을 외면하고 그냥 가는 게 아닌가 느낌을 주는 우려도 있긴 있어. 이것들을 어떻게 다룰지 고민 한 번 해봐.

참석자 2: 사실 좀 빨리 하면 좋죠. 다 다음 주에나 아니면 다음 주라도 하면 좋긴 하지.

이날 오후와 다음 날 〈뉴스타파〉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들을 검증하는 보도를 두 꼭지 내보냈다. 비례대표 후보 1번인 박경미와 4번인 최운열이 각각 논문 표절과 이중계재로 연구윤리를 위반했다는 내용이었다(‘더민주당 비례1번 박경미, ‘논문 표절’ 또 있다’(2016.03.21), ‘최운열 더민주당 비례대표, 논문 중복계재로 ‘연구윤리위반’ 의혹’(2016.03.22)). 그런데 보도 형식이 방송이 아닌 텍스트 기사였다.

〈뉴스타파〉 내에서는 중요 취재의 경우 방송 리포트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텍스트로 보도를 내보낸다는 것은 그만큼 사안을 중요하게 보지 않거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가 대부분이다. 10일 후인 2016년 3월 31일 ‘비례대표의 가면을 벗기다’ 보도를 통해 새누리당 후보 3명의 부동산 투기와 정치자금 불법 사용 의혹을 제기했던 것과는 다른 태도였다.

취재에 참여했던 한 참여자는 권력을 감시하는데 있어 당시 여권이던 박근혜와 새누리당에는 더 적극적이고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에는 더 소극적이라는 점을 솔직히 인정하기도 했다.

16. 세부 리포트는 네 꼭지로 다음과 같다. 1) 19대 새누리, 멋진 공약...초라한 성적표, 2) ‘100% 무상’ 공약으로 표 유혹...이행은 겨우 10%, 3) 새누리당 ‘지역 유치 공약’ 줄줄이 ‘꽁’, 4) 여야 대규모 일자리 공약...방법론은 제각각

〈자료 62〉 선배 집단과 일상대화 중에서(2014년 12월 2일)

저도 포함해서 사람들의 시각이 어떤 거냐 하면 시선이 관심이 호기심이라고 표현하는데 호기심이 야당 보다 여당. 청와대 이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오투기 식품보다는 삼성에 가 있는 것처럼.

야당 후보들에 대한 검증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은 201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서도 재연됐다. 당시 참여자들 사이에서는 각 정당은 물론 정당 내에서도 여러 후보가 나와서 경쟁하는 만큼 “정당 별 또는 정당 내 후보들 간의 균형을 맞추도록 노력해 논란을 피해가자”는 주장과 “어떤 후보든 문제점이 발견되면 정당을 가릴 것 없이 먼저 보도하자”는 주장이 갈렸다.

아래 자료에 나오는 대화는 겉으로는 두 주장 사이의 토론으로 보이지만 참석자 2는 〈뉴스타파〉의 선거보도 기준이 갑자기 달라진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있었다. 〈뉴스타파〉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대선이나 총선에서는 정당 별, 후보 별 균형이 아닌 검증 거리가 생기는 대로 보도하는 방식을 택했다. 그런데 2017년 대선에서는 기준이 달라진 것이다. 당시 야당 후보였던 문재인 지지율과 당선 가능성 높은 상황에서 검증은 문재인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정당 별, 후보 별 균형 원칙을 택할 경우 문재인에 대한 검증 보도가 시의성을 놓치거나 낙종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고 무엇보다 그런 기준이 탐사보도에 맞는 방식이냐는 주장이었다.

〈자료 63〉 기획회의 대화 중에서(2017년 2월 8일)

참석자 1: 이걸 이제 하나씩 튀어 나올 때마다 하나씩 사례를 해가지고 하면, 어쨌든 지금까지 몇 명 캠프를 좀 모아가고 종합적으로 해보자는 거지. 그 작업을 좀 빨리 서두르자 앞으로 정밀하게 해야 되겠지만.

참석자 2: 지금 그걸 몇 명을 모아서 하자는 거의 취지 자체가 사실은 지금 대선 국면으로지지 세력들 결집을 하고 있고 특히 야권 지지 세력들 같은 경우는 우리 후원회원하고 겹치는 부분들이 있고 하니까 그걸 갖다가 뭐라 그럴까 한 사람만 한 캠프에 대해서만 우리가 검증 들어갔을 때에 그런 부분들 위험성을 좀 피하자는 거잖아. 그러려면 몇 개 캠프에서 전인범 케이스 같은 유사한 것들을 묶어서 적어도 한 3개 해 가지고 하지 않으면 이게 보도가 어렵다는 애긴데. 그러면 지금 문재인 캠프에는 전인범이 있다 치고 현실적으로 보면 나머지 캠프에서 그 급이나 그런 걸 찾아야 보도가 되는 거고 그걸 빨리 해가지고 끝내든지. 그게 안 되면 저는 안 되면 저는 전인범이 하나라도 해야 된다고 봐요.

그거는 시기도 말씀하셨는데, 내일 당장 재판 선고도 있고 그래서 저는 빨리 마감 정해 놓고선 해야 될 것 같은, 우리가 그런 후원회원들에 대한 압박 같은 걸 너무 신경 쓰다가 사실은 너무 또 타이밍을 놓치는 것도.

참석자 1: 야권 지지자나 후원회원 이런 거보다는 기본적으로 대선보도라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같이 해가지고 공정해 보인다는 그런 장치가 마련할 필요가 있어. 후원회원 그거는 부차적인 문제고.

참여자들 대부분은 <뉴스타파>의 보도가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는 적극적인 반면, 야권에는 소극적 견제 수준이라는 것을 인정했다. 또한 비판 보도를 하더라도 회원들을 자극하지 않고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기사를 가급적 무미건조하게 쓰는 방법 등을 쓰고 있었다.

<자료 64> 탄핵 긴급회의 대화 중에서(2017년 3월 10일)

참석자 1: 그런 것들은 다 빼 버렸거든. 감정을 최대한 드라이하게 쓰려고, 그런데 그런 거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문제인 지지자들이 이걸 보면 어떤 기분이 들까? 이런 걸로 꼬투리 잡지 않을까? 이렇게 자기 검열이 된다는 거야.

참석자 2: 그렇지.

참석자 1: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황교안이나 유승민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팩트 체크를 할 때 그런 생각을 안 하거든 그냥 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래야 되느냐는 거지. 기사 자체가 팩트가 틀렸냐? 잘못된 기사냐? 그거 아니면 쓰면 되는데 유독 문제인이나 안철수 기사에 대해서는 그런 게 생긴다는 거야.

참여자들이 스스로 위안으로 삼는 부분이 있었다. <뉴스타파>는 칭찬하는 보도를 거의 하지 않았다. 때문에 참여자들은 <뉴스타파> 보도가 특정 정파에는 엄격했고 다른 정파에는 우호적이었다는 것을 일정 부분 인정하면서도 “다른 언론에 비하면 덜 그랬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신문과 방송 등 매체를 가리지 않고 언론이 특정 정파를 “대놓고 밀어” 주었지만 “우리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시 야당에 대한 <뉴스타파>의 보도는 객관보도였다. 신념 보다는 책임을 강조했고 가급적 가치평가를 배제했다. 거리 유지와 소극적 견제 차원에서 무미건조한 기사쓰기를 통해 사실의 전달에 집중했으며, 그 결과 보도는 사실성 또는 중립성의 측면이 강했다.

3. 탐사보도, 정파보도, 객관보도의 혼재: 정파성의 뒷

이명박, 박근혜 정권으로 한정된 권력 감시라는 소명의식의 실천은 탐사보도와 정파보도, 그리고 객관보도의 혼재였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대한 적극적인 기획은 가치자유를 거친 탐사보도였지만 끼워넣기로 대표되는 적대적 공격은 가치함몰에 따른 정파보도였다. 우호 정파에 대한 소극적 태도는 가치배제를 거친 객관보도로 이어졌다. 이런 혼재 속에서 참여자들은 정파성의 뒷에 걸렸다.

이론적 논의에서 언급했듯이 언론과 권력과의 관계를 5단계(적대-견제-중립-제휴-유착)로 나눌 때 <뉴스타파>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관계는 연구자가 보기에 견제과 적대를 넘나들었다. 혁명이 아닌 개혁을 추구하는 탐사보도는 견제와 중립, 제휴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 연구자의 주장이다. 이 선을 넘어 적대나 유착의 단계에서 출발한 보도는 정부나 정부의 반대편에 있는 특정 정파를 공격하기 위한 정파보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정파성은 <뉴스타파>가 처음 출범할 때부터 참여자들 사이에서도 우려되는 점이었다. 다음은 2014년 예비 관찰 당시 선배 집단 참여자와 가진 심층면담 중 일부이다.

〈자료 65〉 선배 집단 한 명과 심층면담 중에서(2014년 12월 2일)

그런 것들이 누적되면 <뉴스타파>가 보고 싶은 쪽만 가고 비판을 위한 비판, 진보의 어떤 칼, 창 이런 식으로 갈까 봐 그런 걸 우려하는 입장이거든요. <뉴스타파>가 영향력을 가지고 중립적인, 실제로 중립적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판을 하기 위한 언론, 진보 언론 이런 이미지가 강하다 보니까. 이를테면 새누리당 의원은 <뉴스타파>에 딱히 반론 조차도 별로 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게 좀 지나다 보면 <뉴스타파> 기자도 어차피 인터뷰 요청해도 해주지 않을 거 이렇게 되다 보면 점점 듣고 싶은 얘기만 듣게 되고 하고 싶은 얘기만 하게 되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우려를 갖고는 있어요.

비영리 비당파 독립언론을 추구하면서 여러 곳으로부터 오는 정파적 편들의 요청을 거부했지만 참여자들은 <뉴스타파>의 지난 보도를 돌아 봤을 때 비당파 부분에서 자신이 없었다. 어느 한쪽도 공개적으로 지지하지는 않았지만 어느 한쪽 정파에 대해서는 적대적으로 그리고 반대 정파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대했던 면에서 정파성이 있었다는 것이다. 어느 쪽에도 공히 독립적이고 비판적이어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다는 반성이었다.

〈자료 66〉 후배 집단 한 명과 심층면담 중에서(2017년 6월 19일)

연구자: 그럼 이렇게 물어 볼게. 〈뉴스타파〉 보도가 새누리당에는 가혹하고 민주당에는 관대하다?

참여자: 그렇죠.

연구자: 그러면 〈뉴스타파〉 보도는 정파적이다?

참여자: 정파적인 성향이 있다고 보죠.

연구자: 어떤 면에서 정파적인 구체적으로?

참여자: 이를테면 인사검증이 대표적이죠. 그건 수치화할 순 없지만 우리의 역량을 100으로 본다면 예전에는 90을 썼다는 지금은 10 밖에 안 쓰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연구자: 그게 의도적이라고 보는 거고?

참여자: 의도적이 라기보다는 우리 안에 어떤 가치판단이 있다는 거죠. 일에 경중에 대해서 가치판단이지.

연구자: 그걸 좀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지?

참여자: 전 그냥 그 일이 인사검증이라면 이전에도 50 이었어야 되고 지금도 50 이어야 된다고 봐요.

〈자료 67〉 선배 집단 한 명과 일상대화 중에서(2017년 5월 11일)

참여자: 너희는 임마 왜 〈뉴스타파〉가 만들어진 지를 생각해 봐. 너희는 독야청청 뭐 언론 엘리트, 그때 진짜 나온 이야기가 언론 엘리트로서 너 혼자 고고한 척 하려고 하지 마 그래서 편을 들어줘. 그 편을 들어주는게 공정한 거야 이런 생각을.

연구자: 일부 우리도 그렇게 해 온 면이 있고.

참여자: 없지 않아 있죠. 물론 뭐 아이템의 팩트 부분에서는 우리가 충실하게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는 치열하게 했지만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죠.

선배 집단의 분노, 탐사보도 정신, 후원회원은 상호작용 속에서 하나의 방향을 지향했다. 탐사보도 전문 언론을 표방해 왔지만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탐사보도 전문 언론의 탐사 대상은 오로지 박근혜인 줄 알았을 것”이라는 한 참여자의 솔직한 심정 고백에서 보듯 하나의 방향에는 정파성의 뜻이 기다리고 있었다. 〈뉴스타파〉가 외부에 비치는, 다시 말해 외부에서 〈뉴스타파〉를 정파 언론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을 참여자들은 느끼고 있었다.

〈자료 68〉 선배 집단 한 명과 심층면담 중에서(2017년 6월 16일)

〈뉴스타파〉만이 다룰 수 있는 의제라고 했을 때 그게 우리는 우리 정체성을 탐사보도 매체라고 규정하고 우리만이 다룰 수 있는 탐사보도와 관련된 어떤 것들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밖에서 볼 땐 〈뉴스타파〉만이 다룰 수 있는 독특한 그 무엇이 탐사보도라는 그 특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정파성에서 나오는 것이다, 정파성을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는 지에 〈뉴스타파〉의 특징과 경쟁력이 있다 라고 보는 그런 시선들이 있고.

〈자료 69〉 선배 집단 한 명과 일상대화 중에서(2017년 5월 11일)

어느 교수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교수가 발제를 하면서 토론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 했냐면, “〈뉴스타파〉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제가 〈뉴스타파〉를 최근에 봤는데 99% 시민들의 독립언론이라고 하는데 두 가지 밖에 없는 거 같다. 하나는 너무 큰 것만 그러니까 청와대가 아니면 기사가 안 되는 그 말은 정치적인 아이템만 한다는 이야기잖아. 그거에 반대급부로 시민이 없다는 거야.

더 큰 문제는 정파 언론으로 보이면서 보도의 순수성이 의심받게 되고 비판을 해도 상대가 아프게 받아들이지 않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참여자들 가운데 일부는 정당한 취재인 데도 거부당하거나 상대방이 본인들의 권리인 반론 권조차 하지 않는 경우 등을 경험하고 있었다.

〈자료 70〉 선배 집단 한 명과 심층면담 중에서(2014년 12월 2일)

〈뉴스타파〉가 영향력을 가지고 중립적인, 실제로 중립적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판을 하기 위한 언론, 진보의 언론 이런 이미지가 강하다 보니까 이를테면 새누리당 의원은 〈뉴스타파〉에 딱히 반론 조차도 별로 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게 좀 지나다 보면 〈뉴스타파〉 기자도 어차피 인터뷰 요청해도 해주지 않는 거 이렇게 되다 보면 점점 듣고 싶은 얘기만 듣게 되고 하고 싶은 얘기만 하게 되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고는 있어요.

〈자료 71〉 후배 집단 한 명과 심층면담 중에서(2017년 3월 16일)

참여자: 저는 일단 외부에서는 그렇게 바라본다는 거는 이번에 되게 많이

체감했구요.

연구자: 편향이라는 게 외부에서 바라보는 진보 이념적인 거 같아? 아니면 정치집단과 특정?

참여자: 정치집단이라기 보다는 조금 진보 이념적인 그리고 되게 새누리나 보수 쪽에 지나치게 공격적이라고 보는 거 같아요. 이번에 인터뷰 이런 것도 안 할 일 없는 건데 모르겠어요 왜 우리 보도 때문인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많이 안 좋게 생각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연구자: 새누리 그쪽 보수 쪽에서?

참여자: 네 그래서 조금 뭐가 문제일까? 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이런 경험이 누적돼 하나씩 관계가 단절되면 취재원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한쪽 정파와의 단절은 다른 정파에의 의존을 심화시킬 수 있다. 그만큼 편향된 취재원을 바탕으로 한쪽에는 적대적 보도가, 다른 쪽에는 소극적이거나 침묵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것이 고착화될 경우 정파성의 악순환, 또는 정파성의 텃에 갇히게 되는 것이다.

〈자료 72〉 후배 집단 한 명과 심층면담 중에서(2016년 9월 2일)

연구자: 취재원 중에 새누리당 취재원도 있어?

참여자: 네 있죠.

연구자: 많아?

참여자: 아뇨 많진 않고요.

연구자: 비교해봐 선 어때 민주당쪽이랑?

참여자: 아무래도 야권 성향을 가진 취재원들이 많죠.

〈자료 73〉 후배 집단 한 명과 심층면담 중에서(2016년 8월 26일)

참여자: 없어요.

연구자: 왜 없어?

참여자: 새누리당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그런데 저희가 이제 결국은 내가 취재를 기사의 내용에서 이제 지금 현재의 여당을 비판하는 내용이 또 많았잖아요. 실제로 문제가 있을 때가 참 많았고. 그런데 그렇게 이제 계속 비판적인 보도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 쪽에서 이제 취재원 관계가 형성되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 핑계라면 핑계인 것 같아요.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대한 감시가 정파보도로 흐른 측면에 대한 반성 속에서 참여자들은 새로운 고민에 직면했다. 새로 들어선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도 지난 정권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침묵할 것인지 고민이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과 적대적이었다면 그 반대 관계는 유착이나 제휴인데 참여자들 대부분은 선·후배 구분 없이 문재인 정권과 유착이나 제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자료 74〉 선배 집단 한 명과 심층면담 중에서(2017년 5월 24일)

연구자: 그 주장은 어떻게 생각해? 우리는 진보 언론이다. 진보적인 성격이 있고 진보 정권이 들어온 만큼 진보적인 아젠다를 강화하기 위해서 권력과 일정 부분 제휴할 필요가 있다.

참여자: 동의하지 않아요 원칙적으로.

연구자: 동의하지 않는다?

참여자: 네 동의하지 않아요.

연구자: 왜?

참여자: 그게 어쩌면 유착인데 유착이 별 거 있어요? 뭐 착한 유착이 있고 나쁜 유착이 있어요?

〈자료 75〉 선배 집단 한 명과 심층면담 중에서(2017년 4월 3일)

그거는 약간 좀 짧은 거 같아요 유통기한이.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런 것들이 오래 못 갈 것 같다. 그런 제휴 관계라든가 이런 게 되게 짧게 끝나고 왜 했나 싶을 것 같아서 현실적으로 볼 때에는. 뭐 진영의 어떤 입장을 대변하는 언론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그런 진영을 대변하는 언론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언론사에 있고 싶지는 않고 〈뉴스타파〉도 애초에 무당파 뭐 이런 것들을 표방했기 때문에 자기부정이기도 하고.

〈자료 76〉 선배 집단 한 명과 심층면담 중에서(2017년 6월 16일)

시대정신이라는 게 저는 5년 단위로 바뀌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정권이 바뀌어서 이 정권을 지원해야 된다? 이런 게 시대정신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길게 봤을 때 우리가 수십 년 단위로 봤을 때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들 그런 것들이 시대정신이죠.

〈자료 77〉 후배 집단 한 명과 심층면담 중에서(2017년 6월 22일)

연구자: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일조를 해야 된다고 주장한다면?

참여자: 누가 회사에서?

연구자: 누군가가.

참여자: 그러면 노조가 이제 행동해야 할 때죠. 그러려고 노조가 있는 거잖아요.

독립언론 실천위원회있어요(웃음).

그러나 현실에서는 매번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당장 문재인 정권 초반 참여 인사들에 대한 인사 검증이 문제였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동안 정권이 출범하거나 새로이 공직후보자가 지명될 경우 〈뉴스타파〉가 검증보도를 시도하지 않은 적은 없었다.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인사검증은 〈뉴스타파〉가 다른 언론사들보다 강점을 가지고 있는 영역이기도 했다. 그러나 19대 대통령으로 문재인이 당선되고 새정부에 참여하는 공직 후보자들의 윤곽이 나타나면서 고민이 표출됐다. 그동안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대해서는 권력 감시라는 탐사보도의 본령에 충실했다고 자부했지만 이 원칙을 문재인 정권에도 그대로 적용할 것인가를 두고 현실론과 원칙론으로 의견이 갈렸고, 2017년 5월 29일 기획회의에서는 쟁점이 공론화됐다. 다음 자료에서는 20분 동안의 토론을 참석자의 발언 취지로 압축했다.

〈자료 78〉 기획회의 대화 중에서(2017년 5월 29일)

참석자 1: 개별 케이스를 하나하나 하는 것보다 뭔가 좀 위장전입은 뭐가 문제고 뭐가 문제가 안 되고 이런 거를 한 번 정비를 해줄 필요가 있는데, 검증 부분에 다른 아이디어가 있으면 한 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참석자 2: 위장전입도 또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부동산 투기 목적이나 고급 학군 목적만 아니면 괜찮다는 게 여론이잖아요. 오늘 보니까 이런 것도 있네요. 5대 원칙 벗어나도 역량 있다면 OK가 60% 가까이 있네요 59.8%인데 CBS 나온 것 보니까. 역량에 관한 평가 뭐 이게 어느 정도 도덕성이나 흠결이 되는 건지에 관해서 종합적으로 짚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참석자 1: 역량이 되면 정치적으로 해도 된다 그거는 굉장히 설득력이 없는 이야기인 것 같아.

참석자 3: 이번에 위장전입이나 이런 것에 대한 문재인 지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태도가 이중잣대인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이중잣대는 분명한데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동안 우리가 공직자 인사검증 할 때 굉장히 형식 논리에 치우쳐 온 감이 있고 사실은 박근혜도 자기가 지명한 장관 이런 사람 통과 못할 때 그런 주장을 하긴 했었는데 박근혜 주장이라서 사람들 다시 무시했던 건데.

참석자 2: 굉장히 협소한 기준으로 부동산 투기를 했냐 안 했냐 그 다음에 위장전입 했냐 안 했냐 요즘 이중국적자 아들 자식이 그런 애가 있냐 없냐, 이 기준 하나만으로 그 사람의 인생과 그 사람의 장관의 자질이나 총리의 자질을 평가한다는 거는 굉장히 무리가 있었던 거거든요.

참석자 3: 그런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라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저는 인사 검증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한 차원 올라서야 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거든요.

참석자 1: 전반적으로 한국 언론이 인사 검증할 때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한 번 재점검 해 볼 필요는 있어. ... 이명박, 박근혜 때는 전혀 이런 고민 없이 마구잡이로 쏘시다가.

참석자 4: 위장전입을 이런 케이스는 봐 줘라 저런 케이스는 봐 줘라 케이스가 다르다 저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 우리가 이 상황에서 뭔가 대단한 기준을 하나의 모델링을 해서 우리가 내놓을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그게 기본적으로 불가능할 거다. 그렇게 우리가 모델링을 한 것 자체가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일 가능성이 높다.

2주 후 6월 12일 기획회의에서 인사검증 취재의 진전 상황에 대한 점검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김용진은 인사검증 보도의 방향을 새로이 제시했다. “명확하게 이 사람이 공직자로서 아니다는 확신”이 있어야 하며 “명확하지 않은 것을 의혹 제기하는 수준”으로 하지는 않겠다는 기준이었다.

〈자료 79〉 기획회의 대화 중 김용진 발언(2017년 6월 12일)

명확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의혹 제기하는 수준으로 끼어들다 보면 이게 블랙홀에 빠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해가지고. 우리 원칙은 그래요. 명확하게 이 사람이 공직자로서 아니다 이런 것들이 확신이 드는 게 취재 과정에서 나오면, 어차피 취재는 하니까 자료도 보고, 그게 있으면 인력도 필요하면 투입을 하고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니고. 공직 검증을 단순히 의혹 제기 차원에서 꺼내고 그 다음에 반격이

오면, 우리도 상황에 들어가니까. 조금 더 높은 단계의 검증들을 해보자고 하고 있고.

그러나 특별한 성과가 나오지 않자 결국 얼마 후 회의에서 “우리는 아예 인사검증 완전히 외면인가요?”의 질문이 던져지면서 내부 논쟁이 벌어졌다. 그 동안 잠재되어 있던 것이 표면화된 것이다. 회의에서는 검증을 위한 다양한 시각과 방안들이 논의됐지만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다만 〈뉴스타파〉 출범 이후 감시의 대상이 되어 왔던 이명박, 박근혜가 없는 자리에 문재인을 그대로 놓고 같은 방식으로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결국 침묵을 선택한 것이다. 아래 자료는 15분여 진행된 토론을 참석자의 발언 취지로 압축한 것이다. 문재인 당선 이후 문재인 정권에 대한 검증 기사는 현장연구가 끝날 때까지 한 건이었다(‘문재인 정부 고위 공직 지명 인사 재산 분석’(2017.05.30)).

〈자료 80〉 기획회의 대화 중에서(2017년 6월 19일)

참석자 1: 우리는 아예 인사검증 완전히 외면인가요?

참석자 2: 외면은 아니고 지금 보고 있어.

참석자 3: 큰 원칙은 개별적인 큰 사안이 아니면 아직까지 큰 사안은 제가 능력 부족인지 발견은 못 했고 개별 개별적으로는 텀비지 말자. 각개전투 들어가지 말자라는 거고.

참석자 4: 요즘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오던데, 민주당이 여당이 되더니 옛날에는 다 문제가 됐을 것들이 왜 그런 걸 문제 삼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내로남불이다.

참석자 5: 우리가 지금 인사검증 아무 것도 안 하고 있어서. 사실은 외부적으로 나가는 게 없어서.

참석자 2: 이번에 000 기획부동산 이런 것들 예전에 MB 때 000 법무부장관 후보자 그거하고 비교가 안 돼요. 기획부동산 이거는 100% 말이 안 되는 걸 하는 거야. ... 청문회 정국이 마무리 될 시점에서 한 번 포괄적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참석자 5: 남이 뭘 하고 있다 그래서 남의 잣대가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하려면 우리는 우리 잣대를 제대로 들이대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초기에 우리가 들이뒀던 그 인사검증 잣대에 따라서 지금 인사검증 대상자들을 검증하고 있는지 그 고민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우리가 보도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 이런 잣대보다는 이런 잣대가 나올 것 같더라는 것을 나중에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야 니들 우리가 보기에는 잘못된 잣대인 것 같아 왜곡된 잣대인 것 같아 이런 식의 접근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참석자 3: 물론 박근혜 정부 하에서 고위공직자들을 그런 식으로 했어요. 총선 때도 했었고. 근데 그거에 대한 논의들을 계속 내부적으로는 이거는 그냥 문제제기를 위한 문제제기 아니냐라는 생각들이 있었던 거고. 그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고민을 좀 하는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뉴스타파〉가 문재인 정권에 대한 적극적인 탐사보도로 방향을 다시 트는 것도 여의치 않았다. 참여자들이 문재인이 대통령에 당선된 후 인수위원회나 청와대, 정부에 참여하는 인사들을 검증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두려움은 대선 기간이었던 2017년 3월 16일 법원 판결문 분석을 통해 주요 후보를 검증 한 뒤 후원회원 2천 명이 해지한 경험을 한 뒤 더 커졌다. 어느 정도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생각보다 후원회원 해지가 훨씬 심각했다. 해당 보도 이전까지 한달 평균 280명 정도가 후원을 해지했는데 보도가 나간 3월 한달 동안에만 2085명이 해지했다. 대부분 3월 17일 이후 해지한 경우로 약 2천 명이 해지했고, 해지하면서 남긴 사유는 주로 보도 내용에 대한 불만이었다. 3월 해지한 사람들의 후원회원 가입 연도를 보면 2012년이 49%로 가장 많았고 2013년이 15%였다. 문재인과 안희정에 대한 검증에 불만을 품은 정파성 회원들이 대거 해지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후 문재인이나 정권에 대한 탐사보도 의지는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표 11〉 2017년 3월 해지 회원 가입 연도 분석

해지 회원	가입 연도	연도 별 비중(%)
1019	2012	49
319	2013	15
275	2014	13
107	2015	5
347	2016	17
18	2017	1
2085		100

〈자료 81〉 선배 집단 한 명과 일상대화 중에서(2017년 5월 11일)

그래서 쉽지는 않다는 이야기에요. 그 간극을 우리가 여러 차례 ‘우리는 골대가 따로 없다’ 그런 식의 표현을 쓴 거지 우린 골대가 따로 없고 그 탐사의 결과물로써 이야기가 되면 어디든지 골은 넣는다 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람들이 이해를 안 한 거지. 그리고 우리는 비당파 특히 비당파 비영리 탐사 매체다 라는 말을 수차례 했지만 사람들을 이해를 안 한 거지.

단기간에 2천 명의 후원회원이 빠져 나간 사태는 참여자들에게 상당한 위기감을 불러 왔다. 여기에 정권 출범 후 벌어진 이른바 ‘한경오 논란’까지 겹치면서 취재팀 내에서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처럼 문재인 정권도 검증을 하자는 얘기를 쉽게 꺼내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아울러 그동안 해 왔던 검증 보도 방식에 대해서 자성이 있었지만 앞으로 어떻게 바뀌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자료 82〉 선배 집단 한 명과 심층면담 중에서(2017년 6월 16일)

참여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안경환의 책 그 기사를 우리가 발굴을 했어요, 쓸 거냐 말 거냐? 어떻게 쓸 거냐? 라는 거에 대해서 저 자신이 갖고 있던 기준이 요즘에 흔들린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박근혜 정부 때는 가차없이 썼겠죠. ... 정권 교체와 맞물려서 그런 이야기 하니까 정파적으로 생각이 들고 그렇게 비판할 수 있겠지만 진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진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까지 해왔던 게 맞는 건가?

연구자: 지금까지의 검증 방식에 대해서 비판적인 것도 있다 이거지?

참여자: 이 정부 들어와서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 하니까 저도 생각을 해보게 된 거거든요. 그 전에는 기자가 의혹을 찾았으면 쓰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했어요 쉽게, 근데 이 건 뿐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건에서도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이제는 단편적인 사실 보도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연구자: 근데 이명박근혜 때는 그렇게 썼잖아?

참여자: 썼죠 썼고 그런 생각도 사실 안 했어요.

연구자: 다 있으면 막 써야지 그랬지?

참여자: 그때는 사실 그때도 정부 쪽에서는 박근혜도 능력을 봐야지 자꾸 도덕성 가지고 이야기 하나 이런 이야기도 하긴 했지만 개소리라고 생각 했는데.

문재인 정권 출범 후 참여자 중 한 명이 연구자에게 언젠가 “〈뉴스타파〉에도 태풍이 한 번 몰아치지 않겠냐”는 의견을 보였다. 핵심 감시 대상이었던 이명박, 박근혜가 사라지고 새로이 등장한 문재인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상황이 〈뉴스타파〉에 위기로 다가올 것이라는 예상이었다.

〈자료 83〉 선배 집단 한 명과 일상대화 중에서(2017년 3월 6일)

참여자: 아마 이번 대선 끝나고 나면 아마 〈뉴스타파〉에서 아마 태풍이 한 번 몰아치지 않겠어요?

연구자: 어떤 태풍?

참여자: 정국이 좀 안정이 되면 새 대통령이 뽑히고 좀 더 사회 변화가 막 이루어지고 과거 청산 이루어지고 막 이러면 앞으로 〈뉴스타파〉가 할 일은 뭐냐? 사실은 지금까지는 이렇게 이명박근혜라는 큰 거악이 있었으니까 그걸 잡는 거를 지상 과제로 삼았는데, 사실 엄밀하게 말해서 저는 탐사보도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약간 기형적인 탐사보도잖아요. 특정 정치세력 때문에 탄생을 했고 특정 정치세력의 문제를 지적하는 거를 주 임무로 삼았었던. 그럼 우린 앞으로 뭐 해야 하나? 새로 권력을 잡은 새 정치세력과 또 싸움을 시작을 하는 걸 또 지상과제로 삼을 건지, 그럼 우린 이제 회원들 다 나가겠지.

대선 후 김용진은 〈뉴스타파〉의 정체성과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를 회원들에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2017년 5월 4일 점심 팀장회의에서는 이 문제를 두고 토론이 벌어졌는데 “적폐청산 등 사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도록 개혁에 적극 앞장서야 한다”는 입장과 “〈뉴스타파〉가 잘 하는 권력감시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하게 엇갈렸고 두 입장은 현장연구가 끝날 때까지도 공존하고 있었다.

분명한 것은 이명박, 박근혜에 대한 적대와 문재인에 대한 소극적 견제가 고착화되면서 〈뉴스타파〉가 정파성의 멍에 간헐했다는 점이다.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감시가 빠진 탐사보도는 상상하기 힘들다. 그러나 탐사보도의 본령에 충실하기에는 현실적 여건과 뒤따를 여파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문재인 정권에 대한 태도 여부를 포함해 〈뉴스타파〉의 장기적인 방향성에 대한 연구자의 의견은 제8장 해석 및 논의 부분에서 제시될 것이다.

제 3 절 탐사보도

저널리즘 비판과, 이명박, 박근혜 정권 감시는 처음부터 취재 대상이나 목적이 뚜렷했다. 따라서 보도에 열정을 얼마나 투여하는지 정도의 문제였고, 실천하는 방법도 비교적 간단했다. 그러나 탐사보도는 달랐다. 예를 들어, 한정된 시간과 인력을 통해 무엇을 취재할 것인지부터 전략이 필요했다. 또 취재 대상이나 목적이 정해지면 오보나 소송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직 차원의 세밀한 관리가 뒤따랐다. 〈뉴스타파〉 조직의 본원적인 생존 전략인 탐사보도에서 가치함몰은 조직 자체를 위험에 빠드릴 수도 있었다.

〈뉴스타파〉가 성장할 수 있었던 데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 동안의 언론 환경의 영향이 있었다. 보수 언론은 정권과 유착해서 권력 감시를 하지 않았고 공영방송은 권력에 포섭돼 있었기 때문에 〈뉴스타파〉가 상대적으로 보도를 할 소재들이 많았다. 초창기 인지도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취재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를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언론이 보도하지 않는 진실을 찾아냈다는 자부심이었다.

〈자료 84〉 팀장회의 대화 중에서(2017년 4월 24일)

남들이 바라보지 않는 시각만 가지고도 〈뉴스타파〉다운 무언가를 할 수 있었고,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널려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가지고도 차별화를 시도할 수 있었고, 그러다가 또 뭔가 이제 깊이 있는 특종 같은 거 분석해서 하면 그걸로도 차별할 수 있었는데.

그러나 오늘의 〈뉴스타파〉가 있었던 데는 참여자들이 이뤄낸 탐사보도가 결정적이었다. 장기기획이나 국제 협업, 또는 제보 등을 통해 수용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은 대형 탐사보도를 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탐사보도 전문 언론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

〈자료 85〉 선배 집단과 일상대화 중에서(2017년 3월 10일)

참석자 1: 내 생각에 자잘한 거 많이 한다고 그게 많이 가입하는 건 아냐.

참석자 2: 맞아요.

참석자 1: 센 걸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진짜 중요해.

참석자 2: 한 달에 하나라도 센 거 제대로.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를 거의 시민단체 성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횡수에 강박관념을 가질 필요는 없는 것 같아.

참석자 1: 거의 내 생각에는 우리나라 그걸 생각하지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

1. 가치연관: 성역없는 비판

1) 취재 대상과 목적 설정 전략

(1) 대박 가능성에 대한 집중 투자

〈뉴스타파〉는 이른바 대박이 될만한 취재의 경우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아끼지 않고 투여했다.

〈자료 86〉 선배 집단과 일상대화 중에서(2014년 12월 2일)

그건 우리만의 강점이지. 거기선 하면 출입처도 바뀌고 그러니까 못하고. 여기는 자기 마음만 먹으면 다룰 수 있으니까 설령 다른 아이템을 쉬엄쉬엄하면서도 그건 계속 할 수 있으니까. 그 장점은 엄청나다고 봐요. 엄청난 거죠.

〈자료 87〉 후배 집단 한 명과 심층면담 중에서(2016년 9월 5일)

어쨌든 취재지원이나 시간적 여력이나 이런 지점들이 다른 데일리 기자보다 훨씬 더 풍부하잖아요. 뭔가 깊이 있게 취재한다고 했을 때 말리는 사람이 없으니까 저는 대체로 그런 업무에서는 만족하는데.

이런 혜택이 주어지는 취재의 경우 기획인 경우가 많았는데, 어떤 취재가 대박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선배 집단이 경험적으로 판단했다. 〈뉴스타파〉에는 탐사보도 전문가로 자타가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김용진, 최승호, 최경영, 박중석 등이다. 이들은 〈뉴스타파〉로 합류하기 전에 속해 있던 언론사에서 이미 전문가적 능력을 인정받은 사람들이었다.

〈자료 88〉 선배 집단 한 명과 일상대화 중에서(2017년 6월 23일)

좋은 아이템 정치적이지 않고 탐사보도스럽고 그거 다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거야
우리 머릿속에. 경험자들의 머릿속에 이걸 질적으로 우수해 ... 우리 머릿속에
탐사보도 오래한 사람들이 아 저거는 아이템 훌륭하네.

대박 가능성을 판단하는 선배 집단의 핵심은 김용진과 최승호였다. 1987년 <KBS>에 입사한 김용진은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이었던 미디어 포커스의 데스크를 거쳐, 탐사보도팀 창설을 주도했고 이후 팀장으로서 <KBS> 탐사보도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인물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후 <KBS> 탐사보도팀은 해체 수순에 들어갔고 김용진은 팀장에서 평팀원으로 강등된 후 부산으로, 이후 다시 울산으로 쫓겨나는 보복성 인사를 당해야 했다. 김용진은 <뉴스타파> 시즌 1, 시즌 2에서는 자문위원으로 활동했지만 시즌 3부터는 대표를 맡아 <뉴스타파>를 진두지휘하고 있었다(곽상아, 2013). 특히 참여자들 가운데 <KBS> 출신들의 경우 김용진의 탐사보도 능력에 대한 존경은 확고했다.

〈자료 89〉 선배 집단 한 명과 심층면담 중에서(2017년 6월 23일)

그 때 아 이게 아 이렇게 싸우는 거구나. 그때 용진이 형의 그 뭐랄까 딱 그
먹이를 잡은 늑대의 호전성 그리고 어떻게 잘근잘근 씹는지 그리고 얼마나
주도면밀하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절대 놓지 않는지 뭐 이거 있잖아. 아 그 때
그리고 딱 이겼을 때의 쾌감, 거대 권력이니까. 그때 제대로 희열을 느꼈지.

최승호는 1986년 <MBC>에 입사했다. 이후 그가 <MBC> 탐사보도에 남긴 발자취는 뚜렷했다. 그는 2005년 ‘황우석 박사의 논문조작 의혹’ 편의 책임 PD였다. 2009년 PD수첩의 일선 PD로 복귀한 그는 ‘4대강과 민생예산’, ‘검사와 스폰서’, ‘공정사회와 낙하산’, ‘한 해군 장교의 양심선언’ 등으로 PD 탐사보도에서 일가를 이룬 사람이었다(김도연, 2013). 다음 제7장에서 자세히 언급되겠지만 최승호는 참여자들이 뽑은 <뉴스타파> 내 최고의 탐사보도 언론인이었다.

김용진과 최승호의 진두지휘 아래 내려진 판단은 대부분 성공했고 참여자들은 “좋은 보도하면 수용자가 반응한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 실제로 <뉴스타파> 보도와 후원회원 가입 추이를 비교 분석한 결과 참여자들의 이런 생각은 타당한 근거가

있었다. 연구자는 현장연구를 시작한 2016년 3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 <뉴스타파>에 새로 가입한 후원회원 수를 주간 단위로 집계한 뒤 해당 주 목요일 본방에 보도된 내용과 비교해 보았다. 목요일 본방은 그 주에 <뉴스타파>가 심혈을 기울여 제작하는 이른바 주력 상품이기 때문이다.

후원회원 가입 수는 적을 때는 한 주에 69명, 많을 때는 2,239명이었다. 2,239명은 2016년 7월 18일부터 24일까지 7일 동안 가입한 회원 수인데 해당 주에 보도된 내용이 ‘삼성 이건희 성매매 의혹 … 그룹 차원 개입?’이었다. 당시 유튜브 조회수가 천만 명을 넘을 정도로 많은 주목을 받았던 보도였다. 이건희 아이템이 보도된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에도 504명과 226명이 새로 가입하는 등 이건희 성매매 보도로 3천 명 정도의 회원이 새로 가입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 주에 가입한 회원 수가 2백 명을 넘는 경우만 놓고 보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나경원 딸 부정입학 의혹’, ‘삼성’, 그리고 ‘세월호’ 관련 보도들이었다. 이는 <뉴스타파>가 강점으로 내세우는 정치 권력과 재벌 감시에 충실한 보도였으며, 세월호 보도의 경우 한국 언론사들 가운데 참사의 진실을 가장 열심히 추적한 언론사가 <뉴스타파>였다. 현장연구 기간에 이뤄진 보도는 아니지만 국내 모든 언론이 <뉴스타파>를 인용해 보도한 ‘2013년 조세도피처 프로젝트’의 경우 연속 보도가 이뤄지는 동안 5천 명의 회원이 늘었다.

〈표 12〉 신규회원 가입 수와 보도 내용 분석

보도 날짜	주간 합계	보도 주제
2016. 3. 6	81	국정원 테러방지법
2016. 3. 13	79	공직자 재산검증
2016. 3. 20	399	나경원 딸 성신여대 부정입학 의혹 첫 보도
2016. 3. 27	252	종편
2016. 4. 3	118	공직자 재산검증
2016. 4. 10	193	조세도피처
2016. 4. 17	236	세월호 참사 2주기 특집
2016. 4. 24	173	조세도피처
2016. 5. 1	143	어버이연합
2016. 5. 8	217	나경원 딸 성신여대 부정입학 의혹 속보
2016. 5. 15	166	사학 비리

2016. 5. 22	86	미세먼지
2016. 5. 29	80	삼성
2016. 6. 5	73	포스코
2016. 6. 12	69	세월호
2016. 6. 19	94	조세도피처
2016. 6. 26	151	사학비리
2016. 7. 3	110	세월호
2016. 7. 10	84	약값
2016. 7. 17	74	지자체
2016. 7. 24	2239	삼성 이견희
2016. 7. 31	504	훈장
2016. 8. 7	226	훈장
2016. 8. 14	153	훈장
2016. 8. 21	111	훈장
2016. 8. 28	125	서양희
2016. 9. 4	95	가습기 피해
2016. 9. 11	82	접대비
2016. 9. 18	79	메르스
2016. 9. 25	103	전두환
2016. 10. 2	261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2016. 10. 9	153	삼성
2016. 10. 16	253	백남기 농민
2016. 10. 23	498	삼성
2016. 10. 30	423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2016. 11. 6	325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2016. 11. 13	258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2016. 11. 20	206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2016. 11. 27	223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2016. 12. 4	206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2016. 12. 11	297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2016. 12. 18	203	세월호, 박근혜
2016. 12. 25	168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2017. 1. 1	133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펜타곤 페이퍼와 워터게이트 특종 보도에서 일등 공신으로 〈워싱턴 포스트〉의 발행인이었던 캐서린 그레이엄(Katharine Graham)이 지목되는 이유는 그녀의 결단력과 함께 그녀가 고수했던 원칙 때문이다. 그녀는 취재가 이뤄지도록 돈을 대줬고(money), 취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으며(patience), 취재가 된 내용을 보도했다(publication)(Hamill, 2003, p. xii). 김용진과 최승호는 대박이 될 가능성이 있는 취재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투자했고, 될 때까지 기다렸고, 결과는 주저없이 보도했다.

(2) 기획과 현안 사이 균형 찾기

생존을 위해서라도 이른바 대박 탐사보도를 해야 했지만 현실은 대박 만을 좇을 수가 없었다. 탐사보도에 기획과 현안을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는 〈뉴스타파〉의 오랜 고민이었다. 고민의 핵심은 현안 취재에서 다른 언론사와 차별화된 탐사보도를 만들어 낸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점이었다. 실제로 인력이 한정된 상황에서 〈뉴스타파〉는 현안을 다룬다고 해도 다른 언론사들에 비해 적은 인력을 투입해야 했다. 예를 들어 〈뉴스타파〉에서 정치권 이슈는 공직자 검증을 책임지는 공직감시팀이 맡고 있었는데 공직감시팀 전체 인원은 4명으로, 중앙 언론사의 경우 정치부에서 여당 출입기자만 7 ~ 8명인 점을 감안하면 매우 부족한 인력이었다. 또 출입처 취재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현안에 따라 갑자기 정보원을 만드는 것도 어려운 일이었다.

현장연구가 끝날 때까지 〈뉴스타파〉 내에서는 “기획에 집중하자”와 “현안을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태였다. 이 논란에서 어느 정도 주도권을 갖고 있는 김용진은 탐사보도 전문 언론이 현안을 같이 다루려 할 경우 어떤 어려움이 따르는지 잘 알고 있었다. 본인 스스로 언론인 경력 대부분을 기획에 집중했고 동시에 현안을 다루는 방식에 대해 고민해 왔기 때문이다. 김용진은 〈뉴스타파〉가 기획에 집중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었는데 평소 사석에서 “〈뉴스타파〉가 생존할 수 있는 길은 탐사보도 뿐이다”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했다. 〈뉴스타파〉는 일년에 두 번 전체 구성원들이 워크숍을 가는데 그 자리에서 나온 김용진의 다음 입장은 명확하게 기획 중심의 탐사보도를 하겠다는 것이었다.

〈자료 90〉 〈뉴스타파〉 워크숍 중 김용진 발언(2016년 6월 17일)

우리가 가는 큰 길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그 부분이 우리 존재 가치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길인데 우리는 탐사보도 전문 매체죠. 그리고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해요. 지금 수많은 인터넷 방송들, 매체들 생기고, 영상을 활용한 다양한 매체들이 나와 가지고 있는데 좀 전에 우리가 조희수 이런 것들, 도달률 얘기하고 그랬지만 사실 최근에 도달률 제일 높은 것은 얼마 전에 서울광장에서 피어 축제할 때 부모가 허그하는 그 장면 그건 도달률이 천만대였어요. 그 다음에 동영상 조희수만 9백 만이 나오고. 예를 들어 우리가 그런 지표들을 가지고 영상 경쟁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잘못된 방향이라고 봐요. 우리가 진짜 잘할 수 있는 그리고 아무도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진입장벽을 갈수록 많이 쌓아 놓아야 우리가 지속가능한 모델이 된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간혹 길을 옆으로 간다 하더라도 다시 돌아와야 할 길이라고 보고요.

그러나 김용진은 때로는 이중적인 입장을 취했다. 그는 일부 현안에 대해서는 대응을 주문하기도 하는데 〈뉴스타파〉가 본격적인 취재에 들어갈 경우 경쟁력을 가질 가능성이 보이는 현안들이었다. 예를 들어 언론 비평이나 고위공직자 검증이 대표적이다.

김용진이 현안 대응에 어떤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런 이중적 입장을 취하는 것은 〈뉴스타파〉가 현안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다는 평판이 나올까 우려해서였다. 특히 〈뉴스타파〉가 반드시 다루어야 할 책임이 있는 이슈가 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미국의 경우 〈뉴욕타임스〉나 〈CNN〉 등 기존 언론에서 충분히 현안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탐사보도 전문 언론이 개입할 여지가 별로 없지만 한국은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 김용진의 생각이었다. 즉 “기획만 할 것이 아니라 현안을 커버해 달라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김용진의 고민은 현안을 쫓으면 고만고만한 보도들만 나올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현안을 안 할 경우 책임을 방기한다는 역풍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아가는 것이었다.

제한적인 여건에서 탐사보도의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는 것도 난제였다. 연구자가 임의로 〈뉴스타파〉의 취재를 세 가지 경우로 나누면 첫째, 단발성 사건 사고, 둘째, 현안, 셋째, 기획이다. 실제로 〈뉴스타파〉 내에서도 참여자들은 이런 이름으로 사안을 분류하곤 했다. 현실적인 고민은 각각의 경우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였다. 첫 번째

이른바 ‘동타’로 불리는 사건 사고를 <뉴스타파>는 거의 다루지 않는다.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해야 하지만 <뉴스타파>로서는 다른 언론사들에 비해 강점을 갖고 있지 않았고 그렇게 해서 나온 보도 역시 차별화된 탐사보도로써 매력이 없었다. 세 번째 기획은 참여자들이 스스로 강점으로 여기는 영역이다. 국정원, 조세도피처, 이견희 성매매 등 <뉴스타파>가 간판으로 내세우는 보도들은 모두 기획이 출발점이었다. 고민은 두 번째로 중요 현안이었다. 참여자들은 취재를 할지 말지, 한다면 언제 들어갈 것인지 등에서 언제나 고민했다. 취재를 시작했는데 해당 기자나 PD가 소극적 태도로 임해 아무 것도 찾아 내지 못했다면 이는 최악의 경우이다. 반대로 적극적으로 취재를 해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찾아내면 큰 성공이다. 세월호 보도가 대표적이었지만 성공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것이 늘 고민이었다. 취재 인력을 투입한 상황에서 노력했지만 새로운 것을 찾아내지 못하면 관점이라는 명분 아래 기자나 PD의 시각이 들어가는데 관점이 강할 경우 정파보도로 흐를 위험이 컸다.

〈자료 91〉 선배 집단 한 명과 일상대화 중에서(2014년 12월 9일)

정국 현안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여기선 뽀소리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드는 거야. 거기에 관해서 내부에서도 논의 많이 하지. 이래선 안 된다. 쉽지 않아 쉽지 않다. 인원수도 그렇고 출입처도 없고 정보가 팍팍 와야 되는데 우리가 자신 있게 기획하고 있는 아이템이 아닌 상황에서 선수 2~3명을 투입해가지고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에 자원과 시간이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럼 리스크가 많지. 리스크가 있지. ... 이걸 다뤄줘야 될 중요한 이슈는 정국 현안인데 들어 가자니 새로운 팩트는 일주일 안에 찾기 힘들고 그럼 이제 정리하는 아이템들, 정리하는 아이템이면 새로운 시각으로 정리를 해서 무언가 해야 될 거 아니야. 차별화 시켜야 될 거 아니야. 당연히 시각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시각이 강하게 들어가다 보면 정파성이 나올 수밖에 없고.

결국 모든 현안을 다 취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뉴스타파>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현안은 무엇인가? 현안을 취재한다면 탐사보도의 핵심인 기획과는 어떤 비율로 조화시킬 것인가? 현안과 기획 사이의 조화는 가능한가? 등이 참여자들이 하고 있는 고민의 핵심이었다. 참여자들이 심층면담에서 “답이 잘 안 나와”, “굉장히 난해한 이야기예요” 라며 고민하는 것도 이 문제였다.

〈자료 92〉 선배 집단과 일상대화 중에서(2014년 12월 2일)

정확해요. 비슷해요. 약간 어렵게 얘기하면 좀 더 얘기하면 그냥 이렇게 우리가 대안언론인가? 우리가 주류를 대체할 수 있는가? 우린 메인스트림을 하고자 하는 건가? 아니면 뭔가 다른 특화된 것을 하고자 하는 건가? 우리 커버리지는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거지? 커버리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죠. 국제뉴스부터 시작해서 남도에 제주도 어디까지 온 건데. 그럼 우린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런 고민에 우리가 어느 지점으로 다가가는 거야?

핵심은 의제 설정(agenda setting)과 의제 형성(agenda building) 사이에서 〈뉴스타파〉가 둘을 병행하는 것이 가능한가의 여부로 보여 졌다. 또 이를 병행하는 탐사보도 전문 언론은 존재하는가 여부라고 할 수 있었다. 전통적으로 탐사보도가 폭로를 통해 자극하고자 했던 것은 수용자의 양심이었다. 프로테스와 동료들(Protess, et al., 1992)은 탐사보도의 이 같은 과정을 의제 설정이 아닌 의제 형성으로 파악한다. 일반 보도에 의한 의제 설정이 의제들 사이의 순서를 바꾸는 것이라면, 탐사보도의 의제 형성은 인식되지 않았거나 우선 순위에 들지 않은 미미한 사안을 새롭게 의제로 만드는, 즉 여론을 깨우는 과정이며, 각성된 여론이 개혁을 요구하게 만드는 것이다. 의제 설정과 의제 형성을 병행할 수 없다면 〈뉴스타파〉가 처한 현실적인 여건들을 감안할 때 기획에 충실함으로서 의제 형성을 추구하는 것이 〈뉴스타파〉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더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게 연구자의 판단이다. 실제로 〈뉴스타파〉는 의제 형성에 성공한 경험들을 갖고 있는데 예를 들어 조세도피처, 국정원 대선 개입, 국정원 간첩 조작(영화 〈자백〉 포함), 이견희 성매매 보도 등이었다. 미국의 100대 저널리즘에 선정된 탐사보도를 봐도 이른바 대박 아이템을 중심으로 한국 사회에 새롭게 의제를 형성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탐사보도의 기본 정신에 보다 부합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2) 주요 탐사보도 대상 가치들

지금부터는 취재 대상과 구체적인 취재 방법 등에 대한 논의를 한다. 즉 참여자들이 탐사보도라는 소명을 어떤 구체적인 방법으로 실천하는지의 얘기이다. 가끔 탐사정신으로 설명되곤 하지만 탐사정신으로 탐사보도 방법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 안에는 탐사보도 메커니즘이 담겨있지 않기 때문이다.

연구자는 가치자유를 프리즘으로 삼아 참여자들의 탐사보도 실천 방법을 분석하

고자 한다. 베버는 소명을 구현하기 위한 실천 방법으로 가치자유를 제안했다. 가치자유에 따르면 개인은 자신의 소명을 적극적으로 현실과 연관시켜 달성하려고 하되(가치연관), 선택한 수단이 목적 달성에 적절한지 그리고 혹시 모를 부수적 피해는 없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가치토론). 마지막으로 자신의 신념을 절대화하거나 신성시해서는 안 된다(가치평가). 이를 탐사보도에 적용해 보면 가치연관은 취재 대상 선정과 취재 목적 설정 과정이며, 가치토론은 설정된 취재 목적 아래 수단의 타당성, 목적의 실현가능성, 부수적 결과 검토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치평가는 보도에 담기는 주장과 관련되어 있다.

우선 가치연관, 즉 참여자들은 무슨 이유로 취재 대상을 선정하고 취재 목적을 설정하는가? 논의는 〈뉴스타파〉 보도 하나하나를 대상으로 가치연관을 확인하기 보다는 개인들의 이념이나 가치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언론인들은 뉴스가치가 있는 것을 발견하면 보도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연구자가 주목한 것은 발견되어 보도를 하는 경우보다 참여자들이 보도 거리를 적극적으로 찾아다닌 경우이다. 저널리즘 비판이나 이명박, 박근혜 감시는 이미 살펴보았다.

김용진은 언젠가 연구자를 포함한 에디터 3명과 점심을 먹으면서 “재벌을 할 수 있는 곳은 우리 밖에 없다. 대선 정국 들어가기 전에 제기하자”고 말했다. “재벌을 할 수 있는 곳은 우리 밖에 없다”는 의미는 재벌에 대해 성역 없이 보도할 수 있는 곳은 한국 언론사들 중에 〈뉴스타파〉가 유일하다는 자신감이었고 자리에 있었던 에디터 3명도 같은 생각이었다. 저널리즘 비판과 이명박, 박근혜 감시 외 재벌 개혁은 참여자들이 공유하는 가치였다. 비영리 언론으로서 경제 권력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은 〈뉴스타파〉가 가진 최대 장점이었다. 특히 삼성, 이진희, 이재용은 집중적인 감시 대상으로 발제를 할 때마다 참여자들은 삼성에 대해 분노했으며, 비판해야 한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

〈자료 93〉 기획회의 대화 중에서(2016년 5월 16일)

이번 주 포커스는 공정거래법이 미치지 않는 나라로 가 가지고 하청업체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데리고 가서 거기서 완벽하게 갑질을 하고, 가장 화가 제가 났던 부분은 중국 업체에 물량을 줘버리는 거야. 한국 업체를 데리고 간 다음에 협력 업체를 데리고 가서 그 기술을 스리슬쩍 중국 업체에 그냥 줘 버리면서 전학도 시켜주고 그러면서 중국 업체에 상당수의 물량을 줘버리고 중국 업체가 그거를 중국 공장에서 만들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걸 국민들이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 되게 화나는 일이라고. 그리고 점점 한국 협력업체들이 고유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협력업체들이 몰락하고 있는 과정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자료 94〉 기획회의 대화 중에서(2016년 8월 1일)

참석자 1: 이왕 한 번 하는 거 단편적인 거 말고 좀 구조적으로. 지금 어쨌든 재벌 시스템이 한국경제에 유용한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가지고.

참석자 2: 지금 기획의도가 그거예요. 한국 경제에 더 이상 재벌 시스템이 유효하지가 않더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라도 일단 개혁해야한다. 전체 주장은 그거입니다.

재벌 개혁을 확고한 가치로 갖고 있는 참여자들이 보도를 주도했다. 이들은 다른 분야에 대한 취재를 병행하면서도 재벌의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을 찾아 다니고, 국회의원을 만나 자료를 요청하고, 재벌을 비호한다고 생각되는 공무원들을 비판했다.

〈자료 95〉 선배 집단 한 명과 심층면담 중에서(2017년 6월 16일)

재벌 문제 어쨌든 끝까지 가지고 가야 될 거라고 생각 하는데 그 이유는 제가 관심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게 우리 사회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규정하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걸 좀 총체적으로 바라보고 계속해서 여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의무감 같은 건 좀 있어요 실력 유무를 떠나서.

참여자들이 중요하게 공유하는 또 다른 가치는 인권이었다. 재벌 개혁처럼 조직 차원에서 선언적으로 추진되는 가치는 아니지만 참여자들 개인의 선호가 모여서 대세가 된 경우였다. 한 참여자는 〈뉴스타파〉에 있는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와서 그런 줄은 모르겠지만 억울함이나 인권이나 이런 것은 확실히 풀어줘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다고 말했다.

〈자료 96〉 선배 집단 한 명과 심층면담 중에서(2017년 4월 3일)

저는 어찌됐든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야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 노력이라고 하면 좀 애매한데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 사안이 있을 때

보통은 양쪽의 이야길 듣는 거잖아요. 취재를 해보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반올림 문제가 있는데 삼성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피해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고 기사를 쓰는 거잖아요. 거기서 저는 피해자 그러니까 약자의 이야기를 한 번 더 들어 줄 가치는 있다 한 번 더. 일대일로 균형 잡아서 기사 쓰는 건 약간 편의적이고 기계적인 것 같은 생각이 들고, 편드는 것까진 아니더라도 어쨌든 약자의 얘기는 유통이 잘 안되니까 기본적으로 한 번 더 들어줄 필요는 있다 취재할 때 조금 더 자세히.

그러나 출범 초기와 달리 시간이 가면서 <뉴스타파>가 인권 문제를 점점 소극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비판도 있었다. 특종을 통한 경쟁으로 조직의 관심이 중심이 이동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는 것이 불만의 이유였다.

〈자료 97〉 후배 집단 한 명과 심층면담 중에서(2017년 6월 30일)

뉴스는 당연히 얘기가 되어야겠지만 얘기가 안 돼도 전달되어야 할 창구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 ... 옛날의 <뉴스타파>는 그랬거든요. 막 진짜 말도 안 되는 정말 얘기도 막 길게 들어주고 내보내 주고. 보도가 아니라고 하면은 약간 영상 꼭지가 있어서 그런 거라도 해주고 뭔가 그런 게 있어서 되게 좋았는데 지금은 없어 가지고.

선배 집단 참여자들은 확실한 이념 또는 가치를 갖고 열정적으로 노력하고 있었다. <뉴스타파>에 합류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선배 집단의 한 참여자는 “양심을 걸고 취재를 하고 그걸 통해서 나를 입증하고 싶었다. 내가 기자라는 것을”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선배 집단 참여자는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보도를 하고 싶다”는 열망을 강조했다. 선배 집단은 세상 일에 초연하거나 무관심하지 않았다. 소명을 바탕으로 현실에 뛰어 들어 바꾸고 싶어했고, 이를 통해 스스로의 보람과 존재 의미를 찾고자 했다. 그들은 소명을 열정적으로 보도에 투영하는 것을 정당하다고 생각했다.

반면, 후배 집단 가운데 여러 명이 인권이나 소수자 보호와 관련된 보도를 하고 싶어했지만 선배 집단과 달리 이성적인 관심 수준이었으며, 원론적이고, 추상적이었다. 이념이나 가치가 미성숙인데다 설령 있다 하더라도 실현한 경험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후배 집단 대부분에서 무엇인가에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있는 모습은 관찰되지 않았다.

2. 가치토론

1) 취재 수단의 타당성 검토

〈자료 98〉 기획회의 대화 중 김용진 발언(2016년 6년 7일)

우리가 이제 아이템들을 할 때 제일 경계해야 될 게 자기의 기존 선입견 이런 걸 좀 떨쳐내야 돼. 우리가 취재를 하다 에러를 빚을 때도 뭘 해가지고 뭘 소송이 들어 오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이럴 때도 이거는 내 생각하고 맞네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다 든 지 재삼 재사 검증을 안 해본다 든 지 이래 가지고 에러가 생기는 경우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이게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증언도 이런데도 다른 사람 생각은 어떨까 재확인해 보고 다른 이야기를 들어보고, 증거를 하나 확보하더라도 이거하고 또 다른 배치되는 증거는 없을까 확인하고.

김용진이 취재팀에게 당부한 내용으로 그는 가치함몰에 빠져 무비판적인 수용이나 검증을 소홀히 할 경우를 경고했다. 재확인하고, 다른 이야기를 들어보고, 증거를 확보하되 배치되는 증거의 유무까지 확인하는 것은 탐사보도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가치토론이란 바로 이 과정에 해당한다.

그러나 가치토론이 반드시 성공적인 보도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뉴스타파〉도 여느 언론사들과 마찬가지로 선거 보도를 준비하며, 특히 장점인 후보 검증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점이 검증할 후보자를 선택하는 문제였다. 현실 여건상 출마 선언을 했거나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검증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었다. 최소한 5개 정당에서 후보를 낼 것이 확실한 상황에서 당 별로 유력 후보, 즉 검증 대상을 임의로 선정할 수도 없었다. 여론조사 지지율도 기준이 되기에는 허점이 많았다. 당시 여론조사에서는 이전 대통령 선거와 달리 더불어민주당 후보 3명의 지지율이 가장 높았기 때문에 지지율을 기준으로 할 경우 검증 대상에 들어가는 후보의 수에서 정당 별 편차가 너무 컸다.

〈자료 99〉 기획회의 대화 중에서(2017년 2월 16일)

그 비율대로 사람에 대해서 한다고 치면 결국에는 민주당에 대한 검증이나 이런 게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새누리당도 나오긴 해도 이쪽은 하나도

안 되고 있는 상황 아니야. 그런 균형의 문제라든지 그런 게 약간 좀 애매하더라고. 그렇다고 해서 문제인 말고 이재명도 하고 안희정도 한다 그러면 유승민도 하면 그렇게 네 명을 하면 공정한 건가? 그렇지도 않아요. 새누리당 1%도 안 되는 사람들 거는 아예 빠져 있는 거잖아.

시간이 지나 당 별로 최종 후보가 확정되기만을 기다릴 수도 없었다. 그때까지 진행한 검증 작업에서 출마를 선언했거나 출마가 유력시되는 사람들 중 일부에서 보도 가치가 충분한 문제점들을 찾아냈기 때문이다. 때문에 방심하는 사이 다른 언론사가 보도하면 특종이 낙종이 되는 상황이었다. 결국 타협안이 도출됐는데 후보를 “전부다 들여다 봤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일종의 장치를 만들어 최대한 빨리 검증 보도를 시작하는 방안이었다. 보도할 만한 거리가 나올 경우 순서를 가리지 말고 즉시 보도하자는 반대 주장이 있었지만 <뉴스타파>가 택한 방법은 형평성을 맞추는 쪽이었다.

<자료 100> 기획회의 대화 중에서(2017년 2월 16일)

참석자 1: 한 놈만 표적으로 한다는 거는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뭐 나올지는 몰라도 유력 대선 주자들 재산과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한 번 일차적으로 훑어봤다 해가지고 각 주자 별로 재산 형성 과정들 한 번씩 꼭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의혹이 생기면 집중적으로 다뤄주고 그래가지고 3월 첫 주 용으로 일단 한 번 준비하죠. ... 그런 몇 가지 기준으로 가지고 전부다 들여다 봤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 전부다.

참석자 2: 같은 잣대로 한 번 다 스크린 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참석자 1: 물론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지. 애만의 아주 특별한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거는 뭐 할 수 없는데. 그거는 상식적으로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충분히 더 해주면 될 것 같아.

얼마 지나 회의에서는 또 다른 논란이 제기됐다. 5개 정당의 후보가 확정된 후 후보 캠프에 합류한 사람들을 분석해 후보 정체성을 추정해 보겠다는 발제가 나왔는데 문제는 검증 대상 캠프에 어디까지 포함시킬 것인가였다. 취재팀은 인력과 시간의 부족을 이유로 당선이 유력한 후보 캠프로 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회의 참석자 중 일부가 이에 강하게 반대했다. 5개 캠프를 모두 포함시켜야 형평성에 맞다는 주장이었다. 논의 끝에 결론은 5개 캠프를 모두 검증하는 쪽이었다.

〈자료 101〉 기획회의 대화 중에서(2017년 4월 17일)

참석자 1: 현실적으로 지금 다섯 개 캠프를 다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나레비도 잘 안 서고. 그래서 지금 유력 후보 둘만 하는 걸로 대중 얘기가 되고 있고요.

참석자 2: 유력 후보 둘만 하면 나머지는 뭘 기준으로 잘랐다 그래야지? 논리가 있어?

참석자 1: 유력으로 잘랐다 그래야죠. 다섯 개 후보를 다 한다면 게 현실적으로 무리도 좀 가고, 각도 좀 잘 안 서고. 그런 측면이 좀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문과 안으로만 캠프를 가는 게 어떨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말씀대로 뭐 왜 둘만 하나? 흥하고 유하고 심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사실 할 말은 없죠. 할 말은 없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뭐 나머지 세 후보가 10%를 넘지 않는다면 저는 각각 10%씩을 넘지 않는다면 문과 안으로만 집중해서 거기에 디테일을 좀 더 부여하는 게 맞지 않을까.

참석자 2: 하여튼 뭐 그럴싸한 명분이 있어야 돼.

참석자 1: 두 유력 후보의 캠프 만을 했다 그 외에는 뭐 다른 얘기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겠어요?

...

참석자 3: 우리가 캠프 분석을 하는 게 단순히 뭐 캠프에 누가 참여하고 있는지를 뭐 조지고 하겠다라는 의미 물론 그런 게 담겨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공당의 후보들이 지금 대통령 되겠다고 나온 사람들과 관련된 세력들을 소개해주는 측면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지율이 뭐 지금 당장의 지지율이 높은 낮은 어쨌든 공당의 후보가 나와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자의적으로 누구는 자르고 누구는 소개하고 이거는 저는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보고, 다시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참석자 1: 일단 그거는 맞는 말인데 원칙적으로 원론적으로 지적을 하면 틀린 말은 아니죠.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참석자 3: 아니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라는 게 우리 내부의 현실적인 문제지 사실 그게 다른 이유가 없는 이유잖아요 지금. 다른 방법으로 소화를 하는 방법을 생각을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두 사례에서 모두 〈뉴스타파〉는 형평성을 맞추는 노력을 통해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는 쪽을 선택했다. 반대로 그만큼 많은 인력과 시간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하기도 했다. 그런데 결과에 대한 사후평가에서 두 사례는 엇갈렸다. 첫 번째 경우 전부다 들여다 봤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장치를 만드는 사이 취재팀이 확인한 내용을 다른 언론에서 먼저 보도해 특종이 낙종이 됐고 <뉴스타파>는 보도할 수가 없었다. 반대로 두 번째 사례 경우 형평성을 강화한 해당 보도는 우수성을 인정받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주는 인터넷선거보도상을 받았다.

2) 목적의 실현 가능성 검토

‘공적자금 STX … ‘접대비는 쌈짓돈’(2016.09.08)) 취재 당시 참여자는 회의에서 법인카드 세부 사용 내역 입수를 보고하며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구했고 이날 토론에서는 법인카드 접대비 취재에 숨어 있는 함정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법인카드 접대비 취재를 해 본 경험이 있는 다른 참여자들은 STX가 보관하고 있는 접대비 사용 내역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을 제기했다. 다시 말해 STX 직원들이 자신들이 법인카드를 사용한 뒤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들의 이름을 도용해 접대를 한 것처럼 거짓으로 서류를 꾸민 경우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참여자들은 다른 취재 경험에서 그런 경우를 다수 경험한 상태였다. 또 접대를 받은 것으로 기록돼 있는 사람이 접대 자체를 부인할 경우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충고도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특종이지만 그 안에 숨어 있는 함정을 찾아내는 과정이었다.

<자료 102> 기획회의 대화 중에서(2016년 9월 8일)

참석자 1: 취재가 웬지 쉽지는 않을 것 같아. 왜냐하면 이제 이게 상대방이 있으면 상대방이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확인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가라가 좀 있기 때문에. 예전에 가평군수 생각이 나는데 가평군수가 <KBS>, <MBC>, <YTN> 다 잣도 돌리고 했다는데 실제로 받은 적이 없는 경우가 있었거든.

참석자 2: 방송법 때도 그랬어, 방송법 때도.

참석자 1: 그냥 지들이 써놓고 잣 30만 원 이렇게 <YTN> 아무개 기자. 그냥 출입기자 써놓은 거야.

참석자 2: 명함 하나 뒤져 가지고.

참석자 1: 명함 하나 줬는데 애한테 물어보면 난 받은 적이 없다 맹세코. 뭐 그런 경우가 좀 있었어요.

다음 사례는 설정된 취재 목적이 현실 여건상 실현가능한지를 점검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탄핵소추안의 국회 표결을 앞두고 참여자들은 어떻게 하면 <뉴스타파>만의 차별화된 보도를 내놓을 수 있을지 고민이었다. 국회 상황을 단순 전달하는 방식으로는 차별화가 안 되는 것을 아는 김용진이 회의에서 르포 방식의 취재를 제안했다. “국회 표결까지 4일이 남았으니 남은 4일 동안 국회라는 공간에서 국회의원들을 최대한 많이 만나 탄핵소추안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들어 보면 차별화된 보도를 만들 수 있지 않겠냐”는 의견이었다. 당시 탄핵안 통과 여부가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달려 있었기 때문에 새누리당 의원들을 집중적으로 접촉해 보자는 뜻이기도 했다. 문제는 차별화 할 만한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이었다. 참여자들 사이에 격론이 벌어졌고 다음은 그 중 한 부분이다.

〈자료 103〉 기획회의 대화 중에서(2016년 12월 5일)

참석자 1: 비박계들 위주로 마크를 해가지고 계속 지금 남은 몇일 동안 따라붙어 가지고 표결 직전까지 애들을 계속 따라붙어 가지고 이야기를 계속 들어 본다든지 뭐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그래 가지고 3일의 과정들을 한 번 밀착 마크해 가지고 보여 준다든지. 그 외에 지금 뭘 속보를 커버를 해가지고 우리가 뭘 비상하게 보여준다 그거는 현실적으로 힘들 것 같고. 프로젝트를 하나 딱 잡아가지고 할 수밖에 없지. ...

참석자 2: 따라 다닌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그런 숫자를 따라 다닌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

참석자 3: 따라 다니는 건 좋은데 애들이 뭐 별다른 얘기 할 거 같지도 않고. 예를 들어서 뭐 아침에 붙었어요 그래서 한마디 들었어요. 그럼 두어 시간 있다가 또 가가지고 또 물어보고 계속 쫓아다니는 게 그게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참석자 1: 어떻게 되는 거는 해봐야 알지.

...

참석자 2: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돼요. 국회 취재를 제가 안 해본 것도 아니고. 국회 취재를 안 해본 것도 아니고 어떻게 개들을 쫓아다니면서 24시간 붙겠다는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

참석자 4: 24시간 붙는 게 아니라 그냥 뭐 나는 할 수는 있다고 봐. 그런데 의미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 뭐 충분히 할 수는 있어. ...

참석자 2: 저는 무슨 취재를 하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어차피 나오면 대통령이 한 마디 해서 자기들끼리 회의하면서 우르르하고 이 상황이 아니고서는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할 거고.

장시간 토론 끝에 김용진이 제안한 방식의 취재가 결정했고 결과는 ‘민심이나 박근혜나 새누리 의원들에게 묻다’(2016.12.08)로 보도됐다. 당시 취재팀이 4일 동안 문자메시지와 전화통화 그리고 국회 방문 등을 통해 접촉한 새누리당 의원은 80여 명이었고 보도는 호평을 받았다.

3) 부수적 결과 검토

참여자들이 경험하는 고민 중 하나는 보도에서 이른바 악당으로 지목되는 사람의 실명을 공개할지 여부였다. 다음 두 사례에서 <뉴스타파>는 하나는 명예훼손 소송의 위협을 무릅쓰고 실명을 공개했고 다른 하나는 공개하지 않았다.

<뉴스타파>는 2017년 3월 29일 인도네시아에서 자살한 한국인 두 명의 사연을 소개하며 이들의 죽음 뒤에 정당인과 한전 자회사 간부, 그리고 언론사 임원 등의 비리 의혹이 있다는 보도를 내보냈다(‘의문의 죽음에 얽힌 검은 커넥션’(2017.03.29)). 이 보도는 우수성을 인정받아 방송기자연합회가 수여하는 이달의 방송기자상(102회)을 수상하기도 했다. 취재기자는 보도 당시 비리 의혹이 제기된 사람들의 이름을 공개할지 말지 고민이었다. 보도에 등장하는 정당인이나 한전 자회사 간부, 언론사 임원 등은 실명 공개 대상인 공인으로 보기에는 직위나 유명세 등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또 당사자들이 의혹을 부인하고 있었다. 그러나 참여자는 고민 끝에 이들의 이름을 모두 실명으로 공개했다. “진실을 밝혀 달라며 죽기 전 자료를 남긴 고인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 차원이었다.

매스컴에 자주 오르내리는 유명인이나 장·차관급의 고위 공무원이 아니라면 익명으로 보도하는 게 관례인 상황에서 이 사건 관계자들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컸다. 하지만 기자는 익명 보도로 인해 이들의 범죄 사실이 묻히는 것보다 명예훼손 소송을 감수하는 게 차라리 옳다고 여겼다. 그것이 진실을 밝혀 달라며 죽기 전 자료를 정리해 남긴 고인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라고 생각했다(황일송, 2017, p. 55).

STX 접대비 부정 사용 의혹 보도에서는 익명이 원칙으로 채택됐다. 취재에서 실제 접대가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지만 접대를 받은 개인은 모두 익명으로 보도했다. 다만 개인이 속한 기관은 실명을 공개하는 타협안이었다. 이 결정에 대해 김용진은 “민감한 부분을 다루고 한마디 한마디가 보도 대상에게 큰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완벽을 기하려는 자세”라고 설명했다.

3. 탐사보도의 이념성

베버는 가치평가는 과학이 아닌 정치나 철학의 영역이라고 주장했다. 탐사보도 언론인이 과학자로 머물러야 할지 아니면 정치가나 철학자의 역할까지 겸할 수 있는지를 연구자가 정할 수는 없지만 참여자들은 활발하게 가치평가 행위를 하고 있었다.

참여자 중 선배 집단은 확실히 저널리즘, 이명박근혜, 재벌개혁, 인권 등을 다른 신념보다 우위에 두고 있었다. 연구자는 참여자들에 대한 심층면담을 진행하면서 가치평가의 정당성을 물었다. 특정 이념이나 가치를 우선할 수 있는가? 선배 집단은 적극적으로 가치평가를 받아들였고 그 방식도 구체적이었다. 후배 집단의 경우는 본인들의 이념이나 가치를 적극적으로 구현한 경험이 많지 않았지만 역시 가치평가의 필요성은 인정했다.

〈자료 104〉 선배 집단 한 명과 심층면담 중에서(2017년 6월 16일)

참여자: 그걸 안 한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안 하는 언론이 어디 있어요? 다 하고 있는데.

연구자: 할 수밖에 없다?

참여자: 네.

〈자료 105〉 선배 집단 한 명과 심층면담 중에서(2017년 6월 23일)

공공적 가치라면 그리고 그게 뉴스룸에서 합의가 되고 사회적으로 충분히 받아들여지는 정도의 공익성이 있다면 그렇게 머무를 필요는 없다는 거지. 더 그냥 들어가서 이것을 해버리고 세미나나 토론회까지 참석을 하고 국회에서 하는 것이든 뭐든 그래서 드라이브를 걸어버려야 되고 그런 저널리즘이나 그런 센터가 되어야하지 않나. 우리가 그래야 사람들이 조금 다르구나 느끼지 않을까.

가치연관, 가치토론, 가치평가를 거친 결과물, 즉 〈뉴스타파〉 보도에 나타난 정치적 성향은 어떠할까? 앞서 연구자는 이론적 논의에서 소명의식과 가치자유 과정을 거친 탐사보도는 개별 또는 총합으로 볼 때 이념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뉴스타파〉 보도 하나하나를 내용 분석해 보도의 이념성을 분석할 수는 없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자신들의 이념이나 가치가 투영되도록 노력하면서 사실상 보도를 주도하고 있는 선배 집단의 경우 〈뉴스타파〉 보도가 진보적 성격이

강하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점이었다. 심층면담을 한 선배 집단 모두 “그런 표현은 싫지만” “우리 좌파 맞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탐사보도 자체가 진보적이라며 “진보적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참여자도 있었다.

〈자료 106〉 선배 집단과 심층면담 중에서(2014년 12월 2일)

참여자: 우리 좌파 맞아요.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

연구자: 좌파잖아. 실제 보도가 그렇고.

참여자: 인정하기 싫지만.

〈자료 107〉 선배 집단 한 명과 심층면담 중에서(2017년 6월 23일)

우리는 사실은 숨겨온 거지. 다른 사람 다 알아 다 그렇게 생각하고. 다 진보 언론이라고 생각해. 우리만 그냥 우리만 독립 언론이라고 하고 우리만 비정파라고 하고 선언을 했던 것일 뿐이고.

〈자료 108〉 선배 집단 한 명과 심층면담 중에서(2017년 4월 3일)

그런 표현은 싫지만은 그런 평가를 누군가 한다? 그러면은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료 109〉 선배 집단 한 명과 심층면담 중에서(2017년 7월 2일)

연구자: 우리가 진보적이다 이런 거 동의해?

참여자: 뭐 그 쪽 사이트에 있다.

〈자료 110〉 선배 집단 한 명과 심층면담 중에서(2017년 6월 16일)

연구자: 〈뉴스타파〉가 진보 언론이다 라는 거에 동의하나? 진보적이다.

참여자: 네. 진보적 이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연구자: 왜?

참여자: 탐사보도의 성격 자체가 진보적인 거잖아요. 진보가 우리나라의 정치 지형에서 민주당이나 자민당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세상을 현 상태에서

나은 곳으로 만들려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당연히 진보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뉴스타파〉는 비영리 비당파 독립언론으로서 진보와 보수든 성역 없는 비판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근본 원칙으로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해직이나 퇴직을 통해
소명이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고 또 그것들을 공유하면서 탐사보도 역시 자연스럽게
진보 성향으로 흐른 것으로 판단된다.

4. 조직 차원의 가치자유 관리

1) 탐사보도의 역동성

탐사보도는 일종의 폭로 보고서며 이를 통해 시민들의 도덕적 분노를 유도하려고
하다. 그러나 그 과정은 순탄치 않다. 폭로와 반격, 위기, 전환, 그리고 변화로 이어지
는 과정에서 탐사보도가 역동적인 이유는 폭로 뒤에 찾아오는 반격과 위기 때문이다.
권력의 압력과 반격은 탐사보도에서는 사실상 상수로 봐야한다. 정보, 돈, 권력을 손
에 쥔 권력자의 불법 행위를 둘러싼 진실을 밝히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것이
민주주의와 밀접한 문제일수록 권력자의 대응 역시 단호하고 치명적이기 십상이다.

〈워싱턴 포스트〉는 역설적으로 험난하고 좁은 길을 선택함으로써 그것이 생명의
길임을 보여주었다. 그들에게 이긴다는 것은 진실에 다가가는 것이었다(Bradlee,
1995/2009, p. 303). 정부는 거짓말을 하거나 국가안보나 국익이라는 이유로 정보를
비밀로 분류하고 공개하지 않는다(박종인, 2006). 그러나 비밀은 적이나 다른 나라로
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어야지 정부의 잘못을 국민들이 알지 못하도록 국민
을 배제시키는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되며 정부의 거짓말은 세상에 공개되어야
한다는 것이 탐사보도 언론인들이 폭로를 주장하는 이유이다. 정부의 거짓말 외에도
탐사보도의 폭로 대상은 주로 규범을 위반한 부끄러운 관행이나 부정부패, 권력 남용,
중요한 주장에 대한 도전, 법의 맹점, 명분과 실제의 괴리, 감추어진 것 등을 찾아내
는 것을 포함한다(de Burgh, 2000).

폭로 뒤에는 반격과 위기가 있기 마련이다. 반격은 위기를 불러오고 위기를 극복
할 수 있는 전환을 만들지 못하면 취재는 거기서 끝나게 된다. 사실 취재 현실에서는
위기를 넘지 못하고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을 수도 있다. 탐사보도 선례들을 볼 때
탐사보도가 어려운 것은 취재의 난이도 측면도 있지만 반격과 위기 그리고 이 과정에

서 느끼는 두려움이나 공포 때문이기도 하다.

반격의 종류로는 부인과 명성 흠집내기, 법률 대응, 협박, 감시, 회유 등이 있다. 연구자가 검토한 대부분의 탐사보도 사례에서 폭로 대상은 폭로된 내용을 부인하면서 반격을 시작했다. 부인만으로 부족할 경우 취재 기자나 취재 자체가 불순한 의도를 가졌다는 등의 흠집내기를 시도하는 경우도 있었다. 미국 정부는 법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려 하기도 했고, 펜타곤 페이퍼 보도에 대해서는 사전 보도 금지를 법원에 요청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했다. 감시와 회유, 협박 등도 동원된다. 미국에서 소비자운동을 촉발시켰던 네이더의 경우에는 동원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반격들이 나온다. 당시 GM은 사립 탐정을 고용해 네이더의 뒷조사를 하고 약점을 잡아내려 혈안이였다. 네이더가 다닌 초등학교 시절 친구는 물론이고 선생님들까지 찾아가 네이더의 약점을 캐묻고 다녔다. 매춘부를 고용해 네이더를 유혹해 곤란한 처지에 빠지도록 함정을 파려는 짓까지 서슴지 않았다(Nader, 1970).

위기를 극복하면 전환이 이루어지는데 특이한 점은 행운도 일정 부분 개입한다는 것이다. 펜타곤 페이퍼 보도의 경우 연방대법원 판결이 결정적인 전환이었고, 워터게이트 보도는 한 판사의 예상치 못했던 폭로가 전환이였다. 전환이 오면 그때부터는 처음 문제를 제기했던 언론사와 다른 언론사 사이에 큰 차이는 없어진다. 대세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2) ‘나경원 딸’ 보도 관리

현장연구 기간 동안 〈뉴스타파〉 보도 중에서 탐사보도의 역동성이 역력하게 드러난 것은 국회의원 나경원 딸의 성신여대 부정입학 의혹 보도였다. 〈뉴스타파〉는 2016년 3월 17일 “공짜 점심은 없다” ... 나경원 딸 성신여대 부정입학’ 보도를 통해 당시 새누리당 국회의원인 나경원의 딸이 2012년 성신여대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있었지만 성신여대 측이 이를 묵인하고 특혜를 줘 입학시켰다고 보도했다. 2016년 3월 21일에는 ‘성신여대, 나경원 딸에게 성적도 특별 대우 정황’ 보도를 통해 성신여대가 나경원 딸의 성적을 올려주는 등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고 이후에도 5월 초까지 3개월 동안 속보를 지속적으로 내보냈다. 첫 보도 이후 5월 4일까지 나경원과 직접 관련된 보도는 12건이었고 이 가운데 10건이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였다. 보도에서 악당은 국회의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딸을 부정입학 시킨 의혹의 당사자인 나경원이었고 공모자는 부정입학을 도와준 것으로 추정되는 성신여대 총장과 학과장, 그리고 희생자는 나경원 딸과 같이 시험을 봤지만

합격하지 못한 학생들이었다.

첫 보도 이후 참여자들은 여론이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뉴스타파> 홈페이지 접속 건수를 기록하기 시작한 후 최대 접속 기록이 갱신됐고, 후원회원 가입 숫자도 전주에 비해 5배나 늘었다. 또 나경원 관련뿐만 아니라 다른 보도 거리를 제보하겠다는 전화가 폭주했다. 나경원 딸 부정입학 의혹 보도는 한국방송기자연합회가 주는 이달의 방송기자상(91회)을 수상했다.

<표 13> 나경원 딸 성신여대 부정입학 의혹 보도 목록

보도 날짜	보도 제목
2016.03.17	‘공짜 점심은 없다’ ... 나경원 딸 성신여대 부정입학 ¹⁷
2016.03.18	나경원-성신여대, ‘부정입학’ 해명 거부하고도 뒤늦게 언론플레이
2016.03.21	성신여대, 나경원 딸에게 성적도 특별 대우 정황
2016.03.25	나경원 의원 딸 면접 교수 “실기도 점수에 반영했다”
2016.03.28	‘글로벌 메신저’ 공모 절차 없이 나경원 딸 추천
2016.04.12	<뉴스타파> 후속 보도 문제 삼은 나경원 의원 이의신청 ‘기각’
2016.04.25	나경원 의원 가족, 국제 스포셜올림픽 행사 참가 특혜 의혹
2016.05.04	감취도 드러난다 ... 나경원 딸 부정입학 의혹 ¹⁸

그러나 나경원과 성신여대 측의 반격이 예상 외로 강했다. 첫 보도 다음날인 2016년 3월 18일 나경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의혹을 부인했다. “엄마가 정치인이라는 이유로 딸의 인생이 짓밟힌 날입니다”로 시작하는 부인 글에서 나경원은 “법관 출신 나경원이 아니라, 정치인 나경원이 아니라 아픈 아이를 둔 엄마 나경원으로서 반드시 왜곡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며 “<뉴스타파>의 보도는 터무니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¹⁹ 부인 글에는 그러나 의혹을 해명하거나 반박하는 내용은 거의 없고 장애인 딸을 둔 엄마라는 사실을 거듭해서 강조했다. 예를 들어 “태어날 때부터 아팠던 우리 아이가 말도 안 되는 입시 의혹 때문에 또 한 번 아파야 하는 것입니까? 엄마가

17. 당시 보도는 세 꼭지로 구성됐으며 구체적인 제목은 다음과 같다. 1) ‘나경원 의원 딸, 대학 부정 입학 의혹’ 2) ‘나경원 의원 측근들, 비리 의혹 총장 지원?’ 3) ‘성신여대 총장, ‘표절의혹’ 친인척 교수 채용’

18. 당시 보도는 세 꼭지로 구성됐으며 구체적인 제목은 다음과 같다. 1) ‘나경원 의원 딸과 면접 본 수험생, “당시 실기시험 분명 있었다”’ 2) ‘나경원 특강 후 장애인 전형 급조...모집요강엔 ‘실기가 능’ 명시’ 3) ‘심화진 ‘형명 재판’ 계속 연기 ... 사학법시행령 개정 기다리나?’

19. <https://www.facebook.com/nakw1963/posts/845093805636257>

정치인이라는 이유로 딸의 인생이 짓밟혀야 합니까?” 등이었다.

3월 21일 ‘성신여대, 나경원 딸에게 성적도 특별 대우 정황’ 보도가 나가자 나경원뿐만 아니라²⁰ 성신여대와 해당 학과장도 보도자료를 통해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나경원과 성신여대 측은 <뉴스타파>의 취재에 대해 그 동안 반론이나 해명을 하지 않은 것은 취재가 “처음부터 악의적”이었기 때문이라며 취재에 흠집내기를 시도했다.

<자료 111> 나경원의 2차 반박 글 중에서(2016년 3월 21일)

처음 <뉴스타파>가 불쑥 찾아와 했던 질문이 바로 “딸의 성적 조작을 지시했느냐”는 질문이었다. 너무나 기가 차고, 화가 나 어떤 말도 할 수 없었다. 도대체 장애인과 장애인 부모의 심정을 전혀 모르는 그들과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다.

<자료 112> 성신여대 보도자료 중에서(2016년 3월 22일)

성신여대는 이 매체의 보도가 사실 관계를 확인해 줄 가치조차 없는 악의적인 왜곡 허위보도라고 판단해 왔습니다.

나경원의 주장은 취재기자의 해명과 배치된다. <뉴스타파>는 취재 과정에서 나경원 측에 여러 차례 취재 내용을 알려주며 해명 또는 반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접촉했으나 만남은 물론 전화나 이메일로도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다. 결국 직접 찾아가서 물어볼 수밖에 없었고 그 자리에서도 “아무 대답도 안하겠다”는 한 마디 답변만 있었다는 것이 취재기자의 반박이었다(최기훈, 2016). 취재 과정에서 반론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략적으로 회피한 후에 가처분신청이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탐사보도에 대한 반격 전략 중 하나이다(이승선, 2005).

나경원은 법률 대응도 병행했다. 취재기자를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했고, 이와 별도로 김용진과 취재기자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동시에 제기했다. 뿐만 아니라 어버이연합이 나경원 관련 보도에 항의하며 <뉴스타파> 앞에서 집회를 열기도 했다. 침묵에 이어 부인, 흠집내기, 법률 대응, 시위 등 동원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통해 나경원과 성신여대 측은 적극적으로 반격을 시도했다.

참여자들은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이런 반격은 <뉴스타파>로서는 처음

20. <https://www.facebook.com/nakw1963/posts/847129105432727>

당하는 일이기도 했다. 사석에서 참여자들은 “나경원 보도 중요하다. 사운이 걸렸다”, “찝찝한데 돌아버리겠다”, “뭔가 새로운 것 빨리 내야 한다” 등 불안감을 나타냈다. 워터게이트 보도 당시 <워싱턴 포스트> 내에서 돌았던 불안감과 유사했다.

보수 언론이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하면서도 오히려 나경원을 옹호하는 태도를 취하면서 위기감은 더 커졌다. 예를 들어 <조선일보>는 인터넷용 기사에서 비슷한 내용으로 제목만 바뀌가면서 적극적으로 나경원의 주장을 반영했다(‘나경원, 딸 부정입학 의혹에 법적 대응 … “딸 인생 짓밟힌 날”/‘부정 입학 의혹 반박’ 나경원 “장애인 아이 엄마 … 죄인같은 느낌”(2016.03.18), ‘부정입학 의혹 반박’ 나경원 … “다운증후군 딸 악플 괴로워”/‘부정입학 의혹 반박’ 나경원 … “다운증후군 딸, 원망했다”(2016.03.19), 성신여대 외래교수, “나경원 딸 성적 특혜 보도 왜곡됐다”(2016.03.23) 등).

4월 2일에는 선관위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해당 보도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뉴스타파>는 즉각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나경원의 반론을 신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였다. 심의위는 기각 결정문에서 “상대방이 반론을 개진하지 않더라도 선거가 임박한 민감한 시기에 후보자와 관련한 의혹이 명확하게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음을 감안해 치밀한 취재를 통해 상대방의 관점을 다루어 유권자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이유를 들었다.

반격을 막아내고 전환을 이뤄내지 못하면 조직 자체가 위기에 몰리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이 상황에서 <뉴스타파>가 선택한 첫 번째 대응은 신속한 후속 보도였다. 첫 보도 후 열린 기획회의에서 김용진은 “고소를 하더라도 위축될 필요 없다. 취재팀 보강해서 추가 취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지속적으로 후속 취재가 이어졌고 5월 4일 ‘감춰도 드러난다 ... 나경원 딸 부정입학 의혹’ 제목의 보도에서 세 쪽지를 통해 부정입학을 뒷받침하는 추가 근거들을 제시할 수 있었다. 둘째, <뉴스타파>는 나경원에 대한 표적 취재 논란이나 동정론 확산 등 여론이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을 경계했다. 실제로 나경원이나 성신여대 측에서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부각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때문에 부정입학에 관련돼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나경원과 성신여대 총장, 학과장에서 사학 비리나 사학과 권력의 유착 관계 등으로 취재 대상과 범위를 넓혔다. 셋째, 선관위의 경고 조치나 나경원의 소송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했다. <뉴스타파>는 보도를 통해 선관위 결정이 “언론의 사실보도 원칙을 무시하는 터무니없는 논리”라고 반박했다.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취재를 회피하는 상황”에서 나경원이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지를 “선불리 예단하고 보도할 경우 오히려 사실을 왜곡할 소지가 크다”고 반박했다. <뉴스타파>는 이후 선관위를 상대로 법원에 경고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황일송, 2016b). 나경원이 제기한 민, 형사소송도 <뉴스타파>에 큰 압박이 되지 못했다. 취재팀

이 소송이 들어올 것을 예견하고 의혹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축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 기자는 ‘나경원 의원의 딸 입학 부정 의혹’을 보도하면서 소송에 휘말릴 것으로 이미 예견했다. 하지만 소송을 겁내 진실을 외면한다면 시민들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독립언론 <뉴스타파>에 남아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 <뉴스타파>를 믿고 진실을 밝힌 이재원 성신여대 교수의 용기에 답하는 길이기도 했다(황일송, 2016b).

<자료 113> 회원시사회 중 김용진 발언(2016년 5월 19일)

회원: 국정원이나 나경원의원한테 소송 당한 거 어떻게 대응 중입니까?

김용진: 법률대응팀은 아니지만 경영, 회계, 법률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사전 검토하기도 하고, 나경원 의원 관련해서 변호사 위촉했습니다. 형사, 민사소송 당했는데 부정입학 관련해서 추가 보도도 했는데 결론은 낙관합니다. 국정원 수사관들이 소송 건 거는 형사는 무혐의, 국정원 상대는 이겼고 나경원 건도 증빙자료가 있어서 이길 거라 봅니다.

나경원이 취재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형사 고소는 2017년 9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무죄로 선고됐다. 재판부는 “나경원과 성신여대 총장 등 입학 관련 교수들은 공인이라고 볼 수 있고 대학교 입시와 관련된 내용은 우리 사회에서 공적 관심 사항”이라면서 “이런 사안의 보도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 <뉴스타파> 보도의 경우 “일부 단정적으로 보도한 부분 외의 나머지 주요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최기훈, 2017).

2017년 12월부터 4개월 동안 진행된 성신여대의 자체 감사 결과에 따르면, 나경원 딸이 합격한 성신여대 특수교육대상자(장애인) 전형의 신설 과정이 규정 위반이었고, 면접 시험 역시 불공정했다. 또 장애인 전형이 급조된 배경에는 “성신여대와 같은 큰 대학에 장애인 전형과 같은 입시가 없는가”라는 나경원의 발언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황일송, 2018). <뉴스타파>의 첫 보도가 나간 후 2년 만에야 진실이 확인된 것이다. 이 논문을 쓰고 있는 2018년 7월 현재 형사 소송은 검찰이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고, 민사 소송은 재판이 시작되지 않은 상태였다.

5. 탐사보도의 함정

1) 대선 후보 검증 보도 문제점

〈뉴스타파〉는 2017년 3월 16일 ‘대선 후보 검증 … 판결문 분석’이라는 제목 아래 대선 후보 세 명에 대한 검증 보도를 내보냈다. 검증 대상자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과 안희정, 바른정당 유승민이었다. 연구자는 2017년 3월 16일 보도를 포함해 〈뉴스타파〉가 내보낸 판결문을 이용한 대선 후보 검증 보도를 가치토론의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판결문을 이용해 대선 후보를 검증한 보도는 3월 16일과 다음 주인 3월 24일 두 번으로 모두 6쪽지의 보도가 나왔다.

〈표 14〉 ‘대선 후보 검증 … 판결문 분석’ 보도 목록

보도 날짜	보도 제목
2017.03.16	안희정, 불법 정치자금 전력, “국민 판단에 맡기겠다”
	고액후원자는 스폰서? 유승민 후보 측의 수상한 ‘3각 기부’
	문재인 캠프, ‘SNS기동대’ 사건 책임자 SNS 팀장 재기용
2017.03.24	대선후보 14명 전과 살펴보니 … 국보법 위반에서 음주운전까지
	이재명, 잇따른 측근 비리에 침묵과 ‘측근 아니다’로 대응 ‘주민소환조작’ 가담 홍준표 최측근, 또 ‘홍 캠프’ 합류

첫 검증 보도가 나가기 일주일쯤 전인 2017년 3월 13일 기획회의에서 김용진은 대선 후보 검증 원칙으로 두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보도 내용이 유권자들이 후보를 판단하는데 중요해야 할 것, 둘째, 보도 당사자들도 스스로 인정하고 반성할 만큼 취재를 철저히 하라는 것이었다. 대선 정국에서 특히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비판적 보도가 후원회원 감소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감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어설프게 취재해서 반감만 불러일으키고 후원까지 줄어드는 것들은 하지 말자”라며 철저한 취재를 거듭 강조했다.

법원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근거인 판결문을 이용해 후보와 캠프를 검증하겠다는 시도는 신선했고 참여자들에게도 해볼만한 방법으로 받아들여졌다. 문제는 판결문 분석이라는 검증 방법이 갖는 타당성과 신뢰도였다.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근거인 만큼 판결문은 도덕성 검증 수단으로 충분한 타당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신뢰도에서는 상황이 달라진다. 후보 별로 전과의 정도가 다를 수 있어 전과의 수와 범죄

의 질이 변수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A 후보는 전과는 여러 건이지만 대부분 경범죄이고 B 후보는 전과는 한 건이지만 저지른 범죄의 질이 훨씬 나쁘다면 두 후보의 도덕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의 문제가 생긴다. 또 범죄 경력을 조사하는 범위를 후보로 한정할 것인지 캠프 전체로 확대할 것인지, 캠프로 확대한다면 캠프의 범위는 어디까지로 할지 등도 민감한 논란이 될 수 있다.

판결문 검증은 공직후보자를 검증하는 기초 단계인 재산 검증과는 다르다. 재산 데이터는 공직 후보자가 법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스스로 신고하는 것으로 후보 별로 기준이 같다. 재산의 많고 적음, 재산 형성 과정의 의혹, 은닉 재산 여부 등을 검증하거나 비교하는데 문제가 없다. 따라서 검증 수단으로서 신뢰도가 매우 높다. 또한 처음 재산이 공개되기 시작했을 당시만 해도 재산 데이터를 모아서 공직자나 후보자의 도덕성을 검증하는 것은 검증 수단으로서 충분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실제로 재산을 추적한 결과 여러 의혹이 제기되어 공직자나 후보자가 사퇴하는 경우도 많았다. 다만 최근 들어서는 〈뉴스타파〉 내부에서도 재산은 공직자를 검증하는 데 타당성을 잃었다는 평가를 받기는 하지만 여전히 재산은 신뢰할 만한 검증 수단이다.

당시 〈뉴스타파〉 내에서 대선 후보 검증을 맡았던 취재팀은 판결문 분석이 갖는 신뢰도의 불안정성을 간과하거나 가볍게 봤다. 우선 보도에서 판결문 분석이 내포한 신뢰도의 불완전성을 수용자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설득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 앞서 3월 13일 기획회의에서 기획 의도와 취재 방법에 대해 충분히 알리고 앞으로 나갈 보도는 그 기준에 따른 결과물일 뿐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는 당부가 있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취재팀 스스로도 연구자와 면담이나 사적 대화에서 이 점을 크게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결국 첫 보도 직후 비판 댓글과 회원 해지가 이어지자 심각성을 깨닫고 다음 주인 3월 24일 기획 의도와 취재 방법을 설명하는 ‘대선 후보 14명 전과 살펴보니 … 국보법 위반에서 음주운전까지’를 보도했다.

보도 내용이 보도 당사자들도 인정하고 반성할 만큼 철저한 취재였는지도 의문이다. 특히 〈뉴스타파〉 내·외에서 논란이 됐던 것은 문재인 관련 보도였다. 보도의 취지는 18대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에서 SNS를 이용한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이 19대 대선에서도 문재인 캠프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8분 50초 길이의 보도에서 판결문 내용 외에 실제 취재가 이루어진 것은 아래 내용이 사실상 전부였다.

〈자료 114〉 ‘문재인 캠프, ‘SNS기동대’ 사건 책임자 SNS 팀장 재기용’
중에서(2017년 3월 16일)

〈뉴스타파〉 취재진은 18대 대선에서 이른바 ‘SNS기동대’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조한기 전 뉴미디어 지원단장이 이 건물에 자주 드나든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취재 결과, 조 전 단장은 지난 2월 초 문재인 캠프에 정식 합류해 ‘SNS 생산과 대응팀’의 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팀은 국회 전, 현직 보좌진 2명과 일반 전문가 4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김용진이 제시한 검증 보도의 두 번째 원칙인 비판을 받는 당사자들도 “스스로 인정하고 반성할 만큼의 취재”로 보기는 어렵다. 참여자들 내에서 비판이 제기됐던 것도 이 부분이었다. 취재팀은 과거와 같은 불법행위를 하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차원이었다고 설명했지만, 비판하는 쪽은 “다시 일하고 있다”에서 “지금도 불법 행위를 하거나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증거를 찾았다”까지 취재가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첫 보도에서 검증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도 명확하지 않았다. 검증 대상은 더불어 민주당 문재인, 안희정, 바른미래당 유승민 3명이었다. 이유는 취재팀이 검증 후보를 선정하면서 전과 기록 중 임의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범위를 한정시켰기 때문이었다. 그렇다 보니 음주운전 등 오히려 도덕성과 더 밀접한 범죄 기록이 누락되고 이에 해당하는 후보들이 대상에서 빠지는 결과가 됐다. 자의적으로 선택 기준을 한정해 특정 후보를 누락시킨 것이라는 오해를 살 수 있었다. 정치자금법 위반에서도 후보 선정 기준을 벌금 백만 원 이상으로 임의로 설정하면서 또 다른 논란이 제기되기에 충분했다. 결국 판결문을 통해 보았다는 의미 외에 검증 기준 등에서 편향성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또 다른 문제는 사실의 과장 또는 왜곡 위험이었다. 문재인 보도는 전체 8분 50초 가운데 판결문 내용을 설명하는데 5분 정도를 할애하고 있었다. 문제는 판결문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용한 재연 방식이었다. 방송에서는 어두운 사무실에서 대역으로 나오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SNS에 글을 올리는 장면이 연출되고, 효과를 살리기 위해 그래픽 등이 적극 사용됐다. 수용자의 관심이나 분노를 자극하는 효과를 기대했던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연구자는 보도에서 재연이나 삽화는 기자나 PD가 직접 목격한 것을 다시 보여주려고 할 경우에 한정해서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직접 목격하지 않은 것을 사실대로 재연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며 최소한 당시의 상황을

최대한 고증하려는 노력이라도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오히려 사실의 왜곡이 될 가능성이 있다. 목격하거나 철저한 고증을 거치지 않았다면 화면의 추상성 수준을 높여 사실성을 포기했다는 것을 명확하게 수용자들에게 알려줘야 한다. 하지만 당시 문재인 보도는 그런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

이런 문제점들을 내포한 상태에서 김용진이 방송 전날 데스크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위험관리를 했지만 부수적으로 돌아오는 여파를 막을 수는 없었다. 뒤늦게 그 다음 주 보도로 수습에 들어갔지만 물은 이미 었질러진 상태였다. 3월 16일 첫 보도 이후 2천 명 정도의 회원이 이탈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50% 가까이가 2012년에 가입한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18대 대선 직후 가입한 경우로 앞서 얘기한 대로 문재인 지지 성향이 강한 정파성 회원일 가능성이 높았지만 이들이 이탈한 이유가 문재인에 대한 비판 자체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보도 내용의 흠결 때문이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다.

연구자가 보기에는 당시 취재팀은 판결문 검증이라는 새로운 시도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과정보다는 결과에 집착했고 이는 충분한 가치토론을 제약했다. 또한 판결문 검증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취재 목적도 불분명하거나 구체적이지 못했다. 결국 가치토론의 부재 속에서 판결문이라는 수단에 대한 과신이 빚은 결과였다.

2) 앰부시 과잉

탐사보도는 권력 또는 권위에 대한 대항을 의미하고 표현하게 된다. 때문에 보도 안에는 공격성, 어느 정도의 예리함이나 재치, 딱 꼬집어서 비난하기 어려운 뭔가 불손함 같은 것들이 담겨 있다. 공격이면서도 예리함과 재치가 있고, 탓하기 어려운 불손함이 압축돼 있는 것이 앰부시(ambush) 또는 도어스텝(doorstep)이다. 폭로 대상이 언론인과의 접촉을 계속 피할 경우 언론인이 사전 약속이나 통보 없이 직접 찾아가 대상자를 공공장소나 길거리에 세워놓고 공격적으로 인터뷰를 시도하는 취재 방법으로 미국에서는 매복 공격을 의미하는 ambush로, 영국에서는 문 앞에서 기다린다는 의미의 doorstep로 불린다(Kenyon, 2011). 따라서 앰부시의 진짜 목적은 재미가 아니다.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반론할 권리와 해명할 기회를 주는 것으로 이때 중요한 것은 언론인 바로 뒤에 수용자가 있다는 생각이다. 수용자는 의혹의 당사자가 내놓는 반론을 듣고 싶고, 그가 몸으로 하는 반응 하나하나를 보고 싶어한다. 언론인은 뒤따라 오는 수용자를 위해 그 역할을 대신하는 것으로 의혹의 당사자에게 소리치며 질문했다고 앰부시가 되는 것이 아닌 것이다(Kenyon, 2011).

엠부시가 적절하게 사용되면 취재의 적극성과 집요함 반대로 악당의 뻔뻔스러움이 잘 드러나게 되고, 언론인이 던지는 촌철살인의 질문은 수용자에게 통쾌함을 주게 된다. 최근 영국 탐사보도의 아이콘으로 떠오르는 제닝스(Andrew Jennings)가 대표적이다(Mair, 2011b). 그러나 엠부시가 과할 경우 악당이 오히려 공격에 당하는 희생자로 보이게 되고, 보도가 선정적으로 흐르면서 보도의 품격을 떨어뜨리게 된다.

앞서 검토한 나경원 딸 성신여대 부정입학 의혹 보도에서 참여자가 시도한 나경원에 대한 엠부시가 논란이 됐다. 나경원과 성신여대 총장, 그리고 학과장 모두에게 시도한 엠부시에서 지나치게 공격적으로 보이는 장면이 여럿 있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성신여대 총장의 경우 걷는 도중 참여자가 갑자기 나타나자 소스라치게 놀라는 모습이 그대로 방송됐다. 엠부시를 자주 쓰는 언론인들의 충고는 취재 대상과 신체적 접촉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 당시 보도에서는 나경원을 보호하려는 사람들과 몸싸움에 가까운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 신체적 접촉을 하지 말라는 것은 보는 사람에 따라 정당한 취재가 아닌 공격으로 느껴질 수 있어 오히려 폭로의 효과를 반감시키기 때문이다. 당시 엠부시에 대해 참여자들은 “기자가 열 받았다는 느낌을 준다”, “기자의 품격이 떨어진다”, “영상이 지질하게 보인다”, “싸우는 것은 편집에서 잘라 내어야 했다” 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용진이 엠부시의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는데 “첫째, 냉정하고 절제하는 모습이어야 한다. 둘째, 대상을 만나서 진로를 방해하거나 신체적인 접촉을 피하라. 셋째, 적극성을 넘어 무리하다는 느낌을 주지 마라”였다.

〈뉴스타파〉 보도에는 대부분 엠부시가 등장했다. 출범 초기 엠부시는 〈뉴스타파〉의 탐사보도 정신을 드러내는 상징이었지만, 언젠가부터는 서서히 재미를 위한 장치로 남용되거나 공격성이 지나쳐 부작용을 낳고 있었다. 답변을 듣자는 것이 아니라 취재를 돋보이게 하기 위한 일종의 장치적 성격만 부각되는 것에 대해 후배 집단 한 명은 본인이 겪는 어려움을 하소연했다.

〈자료 115〉 후배 집단 한 명과 심층면담 중에서(2017년 3월 16일)

참여자: 취재원들과의 관계를 너무 공격적으로 쌓아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정중하게 질의응답 해가지고 이게 안 되면 그냥 이렇게 쓰고 어찌됐든 나중에 또 관계를 이어가고 이런 게 아니라 저희는 끝까지 엠부시하고 안 좋은 모습 방송 다 내보내고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 취재 방식이 공격적인 걸 조금 톤 다운하는 게 결국에는 〈뉴스타파〉한테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당연히 필요한 게 저희가 질문을 했는데 답변을 안 해주면 만나서 질문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해야 하는 건 맞지만 그런 것도 조금 다르게 어프로치 할 수 있지 않을까? 너무 그냥 약간 방송 그냥 그림 만들 듯이 가서 막 그냥 찍어대고 서로 막 몸 싸움하고 막 이런 광경이 늘 연출이 되니까. 까더라도 예의 바르게 깔 수 있잖아요.

연구자: 엠부시의 남용이 있다는 거지?

참여자: 네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는 거 같기는 해요. 우리는 그게 리포트의 집념을 보여준다는 거지만 사실상 별로 그렇게 의미 있는 거 같지는 않거든요.

연구자가 보기에 엠부시의 과잉은 비창조적 흥분이나 공격성이었다. 이는 수용자 분노보다 참여자 자신의 분노를 앞세우면서 오히려 수용자 분노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었다. 〈뉴스타파〉 자문위원 중 한 명은 회의에서 “가족들과 같이 볼 수 있는 보도를 해달라. 가끔 가족들과 〈뉴스타파〉 보도를 보는데 섬뜩 섬뜩하다. 공격해서 시원하지만 보다 불만하다는 쪽으로 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제 4 절 탐사보도의 세속화

여기서는 심층면담과 기획회의 관찰을 통해서 획득한 자료를 바탕으로 참여자들이 말하고, 보고, 실천하는 좋은 탐사보도 기준을 제시한다. 이 부분은 당초 연구문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회의에서 참여자들의 리뷰를 관찰하던 중 특이한 점을 발견했다. 지난주 보도에 대한 리뷰가 끝나면 취재 기획이 제안되고 논의되는 시간이 이어졌는데 리뷰에서 보도를 평가하는 기준과 기획이 논의되고 채택되는 기준이 다르다는 점이었다. 리뷰에서 보도를 사후평가하는 기준이 ‘보는 기준’이라면, 기획을 논의하고 채택하는 기준은 ‘실천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둘 사이에 차이가 있었던 것이다. 여기에 참여자들이 정의하는 좋은 탐사보도는 ‘말하는 기준’이라고 할 수 있었다.

이런 차이는 현장연구를 마치고 논문 집필을 위해 관찰 자료를 분석하면서 보다 체계화되었고, 이는 일종의 탐사보도의 세속화 과정이었다. 어떤 것이 좋은 탐사보도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기획이나 취재, 제작 과정에서 방향을 제시해주는 나침반이 될 수 있지만 현장연구 기간 동안 참여자들 사이 이에 대한 진지한 논의는 없었다.

1. 말하는 기준: 독자적 취재, 변화

연구자는 제2장 이론적 논의에서 탐사보도를 은폐돼 있거나 알려지지 않은 진실을 폭로함으로써 변화를 추구하는 보도로 정의한 바 있다. 연구자는 참여자들이 정의하는 좋은 탐사보도의 기준을 알아보기 위해 심층면담에서 세 가지 질문을 물었다. 탐사보도란 무엇인가? 〈뉴스타파〉 보도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보도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좋은 탐사보도란 무엇인가? 탐사보도 정의를 묻는 질문에 참여자들의 대답은 연구자가 내린 탐사보도 정의의 세 가지 요소인 진실, 폭로, 변화 가운데 진실에 보다 방점이 찍혀 있었다.

〈자료 116〉 선배 집단 한 명과 심층면담 중에서(2017년 6월 23일)

권력이 감추려 하는 사실을 들춰내서 사회의 공분을 일으키는 것 그러면서 사회적 공분을 일으켜서 결국은 사회를 개혁하는 거.

〈자료 117〉 선배 집단 한 명과 심층면담 중에서(2017년 5월 24일)

지금 이 순간에 가장 중요한 그 무엇을 끄집어내서 드러내는 거.

〈자료 118〉 선배 집단 한 명과 심층면담 중에서(2017년 6월 16일)

우리 사회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지만 알려지지 않았던 어떤 부분을 탐사에서 이렇게 한 꺼풀 벗겨내서 사람들에게 그냥 보여줌으로써 그것만으로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자료 119〉 후배 집단 한 명과 심층면담 중에서(2016년 9월 20일)

사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진실을 끊임없이 다 취재를 해가지고 애는 진짜 나쁜 놈이다 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 취재를 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자료 120〉 후배 집단 한 명과 심층면담 중에서(2015년 2월 25일)

내가 다른 식으로 접근해서 어떠한 문제의 본질을 최대한 가깝게 다가갈 수 있게
 ... 시간을 오래 들여서 뭔가 끝까지 파헤치는 게.

다음으로, 〈뉴스타파〉가 보도한 것 중에 가장 성공적으로 평가하는 보도로는 ‘국정원 대선 개입’, ‘조세도피처 2013’, ‘국정원 간첩 조작’, ‘세월호’가 가장 많이 지목됐다. 그 이유를 정리하면 아래 〈표 15〉과 같다. “분석”, “팩트 파인딩”, “영향”, “취재 머신”, “독보”, “변화”, “발굴”, “까발리”, “현장”, “다른 시각” 등으로 독자적 취재를 통한 진실의 발견과 이에 따른 의미 있는 변화로 압축될 수 있었다. 진실의 경우는 결과 보다는 과정을 중요시하는 독자적 취재의 의미로 구체화되었다.

〈표 15〉 참여자들이 뽑은 가장 성공적인 보도와 평가 이유

성공적인 보도	성공적으로 평가하는 이유
국정원 대선 개입	- 소문만으로 있었던 확인하기 힘들었던 상황들을 어쨌든 트위터 23만개 분석
	- 타 언론사가 따라할 수 없을 만큼 ... 탁월했다고 봐요. 그런 팩트 파인딩의 측면에서
	- 수사 과정에서도 우리 걸 참조해야 할만큼 ... 사건 자체에 영향을 준거는 그게 거의 유일하지 않았나
조세도피처 2013	- 너희는 무슨 취재 머신이나
	- 어떤 타사와의 가지고 있는 능력치에 비교해 보면 독보적
국정원 간첩 조작	- 의미 있는 변화
	- 사회적인 어떤 영향력과 파급력 ... 우연히 얻어졌린 게 아니라 우리 노력으로 발굴한 아이템
	- 간첩은 국정원과 검찰이란 거대 권력이 만들어 버린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권력을 까발리는 것뿐만이 아니고 한 인간을 감방에서 빼 내주는 거잖아
세월호	- 현장의 중요성
	- 한 발자국만 떨어져도 뭔가 새로운 것들이 약간 있는 ... 주류 매체들의 시각이 아닌 시각

예를 들어 ‘친일과 망각’과 ‘훈장과 권력’은 “굉장히 자랑스러워 할만한 아이템이지만 사회적 영향력과 파급력이 적었고”, ‘이건희 성매매’는 “사회적 영향력과 파급력은 높았지만 취재를 시작하게 된 동기가 제보에 의한” 것이 한계로 지적됐다.

마지막으로 좋은 탐사보도가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에 참여자들의 대답은 보다 구체화되었다. 참여자들이 말한 좋은 탐사보도 기준을 정리하면 아래 <표 16>의 독자적 취재와 변화, 분노, 차별화, 그리고 의미 전달이었다. 독자적 취재와 변화는 여전히 중요했고, 상대적으로 비중은 적었지만 보도가 유발한 수용자의 분노가 언급됐다. 전체적으로 보면 탐사보도 정의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표 16> 참여자들이 말하는 좋은 탐사보도 기준

좋은 탐사보도	참여자들의 구체적 언급
독자적 취재	- 감추어져 있는 기존 언론에서 잘 안 다루어졌지만 중요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발굴 ... 정말 쏴쏴 감춰져 있던 팩트를 발굴해 내는지 정말 무에서 유를 창출해 내는지 정도
	- 새로운 거 시각이 됐든 팩트가 됐든 아니면 뭐 소스가 됐든 사람이 됐든 새로운 뭔가가 포함이 안 돼 있으면은 좋은 기사라 하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 내가 알지 못한 좋은 정보를 전달해 주는가
	- 탐사보도 기법과 역량 이런 걸 동원해 나온 결과다 라고 느껴지는 그런 제작물
	- 팩트가 강력하고 구체적일수록 여기서 받는 영향력은 세다 이거지 ... 팩트를 가진 것보다 강한 보도는 없다 생각하거든요
	- 취재의 밀도와 좋은 이야기 구조 인 거 같아요 ... 저런 거까지 확인을 했구나
	- 사실이 아니라는 거를 입증해 내는 데까지 가는 그런 거가 제일 훌륭한 보도
변화	- 보도의 타겟이 된 집단이나 사람이 있잖아 권력자 그 사람이 어느 정도로 반응했느냐
	- 사회를 바꿀 수 있는 보도
	- 피드백 ... 피드백이란 게 가장 좋은 건 법 개정이 됐든 누군기스 내서 낙마시키고 제도 개혁이 제일 좋죠.
	- 제도를 바꿔내는 거 법이나 제도를 바꿔내는 게 탐사보도의 가장 중요한 역할
	- 어떤 긍정적인 사회 변화를 일으키는 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엇보다 변화를 이끌어가는 게 제일 좋은 탐사보도 - 얼마나 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가 좋은 탐사보도를 결정하는 그거 같아요 - 계속 추적을 해서 다시 끄집어 내서 억울함을 풀어주는 그런 탐사보도가 좋은 거 같아요 남들이 다 잊었을 때 끝까지 따라가서
분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들 앞에서 한 번 심판대에 세워주는 것도 저는 좋은 탐사보도라고 생각을 해요 - 구성이 세련되지 않고 러프하더라도 뭔가 이렇게 봤을 때 공분 나는 거 공분 나는 프로그램
차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 있는지 - 관점을 비틀어서 전혀 다른 문제의 제기 - 다른 관점을 통해 이 사건을 다시 보게 되면서 우리 사회가 놓치고 있는 또 다른 소수자나 경계인들에 대한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 시민들의 관점에서 이 사안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명확하게 있어야
의미 전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결성이예요. 완결성이라는 거는 촌촌한 사실들을 확인해서 그 안에 아주 원론적인 애긴데 의미 부여를 하는 것 그 의미 부여가 누구나 상식 선에서 이해가 되고 - 이야기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 하고요 - 스토리텔러로서의 능력이 얼마나 잘 발휘가 됐나 - 재미있으면서도 쉽게 전달되는 게 모든 기사의 기본

특이한 점은 “새로운 시각”, “관점을 비틀어서”, “다른 관점”, “시민의 관점” 등으로 표현된 <뉴스타파>만의 차별화가 기준으로 언급된 것이다. 참여자들은 차별화의 중요성을 세월호 참사 당시 깨달았다. 당시 플랫폼, 기술, 인력 등 모든 면에서 <뉴스타파>의 존재감이 지금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열악한 상황에서 세월호 참사 현장에 급파된 참여자가 한 일은 “기존 매체들이 관성적으로 하는 취재 방식에서 한 발자국 떨어져서” 현장에서 “사람들이 이야기 하는 것을 따고, 스케치하고, 주제 잡아서 일 제대로 하나도 안 되고 있다”고 “10분짜리 리포트 하나 냈는데” 반응이 폭발적이었다. “취재를 오래 한 것도 아니고 주제도 별로 없지만” 수용자들의 반응을 보고 모두 놀랐다. 자신들이 “보기에는 아무 것도 아니”었지만 결과는 “신기하고” “달라 보였다.” <뉴스타파>가 세월호 참사 다음 날 보도한 ‘정부 재난관리시스템 불신 자

초’(2014.04.17)는 당시 한국 언론의 보도 행태를 비꼬는 기레기 논란의 출발점이었다. 차별화는 뒤에 설명되는 보는 기준과 실천 기준에 가면 중요성이 더 커지게 된다.

반면에 참여자 중 상당수는 보도에 대한 수용자의 반응인 홈페이지나 유튜브 조회수에 대해서는 중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보였다. 조회수가 높으면 좋지만 그것이 좋은 탐사보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강했다.

〈자료 121〉 후배 집단 한 명과 심층면담 중에서(2017년 6월 28일)

조회수는 우선 대중들의 반응이니까 그것도 평가 지수가 될 수 있기는 하지만 대중들이 관심을 가지는 이슈는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정해져 있거든요. 일부는 될 수 있지만 그게 전부가 되어서 안 된다 생각이 들어요.

〈자료 122〉 선배 집단 한 명과 심층면담 중에서(2017년 7월 2일)

저도 그렇게 안 봐요. 조회수 높은 건 그냥 하이트 뭐 시점과 형식과 홍보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잘 맞아떨어진 보도 정도로 생각하지, 저는 조회수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보도가 아까 말씀드린 자기완결성이 있어서 나중이라도 막 가서 돌려보면 그때는 별로 주목 못 받았는데 그때 〈뉴스타파〉가 다 얘기한거구만! 이런 것들이 나와 많이 이렇게 쌓여져 있는 게 장기적으로 우리 신뢰도와 우리 존재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요약하면, 참여자들이 말하는 좋은 탐사보도는 독자적 취재와 변화로 압축될 수 있었으며, 그 외에 분노, 차별화, 의미 전달이 언급됐지만 중요도에서 비중은 높지 않았다. 수용자의 흥미는 중요하지 않았다. 참여자들의 말하는 기준은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원론적이었다.

2. 보는 기준

1) 동료 보도 평가 진술문 분석

현장연구 초반 〈뉴스타파〉는 보도에 대한 사후평가를 하지 않았다. 대체로 두 가지 이유였는데, 〈뉴스타파〉에 합류하게 된 경로가 다양하다 보니 솔직한 평가가

상대방에 대한 공격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와, 열악한 취재와 제작 여건을 뻔히 알고 있는데 보도가 부족했다는 말을 어떻게 하겠냐는 것이었다.

〈자료 123〉 선배 집단과 일상대화 중에서(2014년 12월 2일)

우리 조직이 아직까지 단단한 조직은 아니란 생각이 드는 게 다양한 인적 구성들이 있잖아요. 아직까지는 평가하기가 평가하기가 두렵죠. 평가하는 건 나도 똑같은 어느 순간에 똑같은 잣대로 대야 한다는 전제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운 거잖아요.

이에 대해 참여자 한 명이 공개 석상에서 이의를 제기했다. 〈뉴스타파〉는 “첫 번째, 발제가 없다. 유일하게 발제가 없는 조직이다. 두 번째, 마감도 없다. 세 번째, 리뷰도 없다”는 주장이었다. 발제와 마감에서는 앞서 제4장 제1절에서 살펴보았듯이 〈뉴스타파〉가 존중하는 원칙이 있었다. 〈뉴스타파〉는 자발성을 기반으로 강제 발제보다 자율 발제를 원칙으로 삼고 있었고, 충분한 취재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마감시간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리뷰는 달랐다. 보도에 대한 사후평가를 안 해야 할 명분이 딱히 없었다.

〈뉴스타파〉 취재팀 전체가 모여서 집단으로 지난주에 나간 보도를 평가하는 리뷰는 2016년 7월 4일 기획회의부터 시작됐다. 이날부터 기획회의는 두 가지 중심으로 진행됐다. 회의 초반 리뷰를 했고, 이어 취재 기획에 대한 발제와 취재 승인 여부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리뷰는 김용진이 “지난주 거 간단하게 리뷰하고 들어갑시다”고 하면 참여자들이 본인의 의견을 예기하는 방식이었다.

예를 들어 자동차 급발진 사고로 의심되는 교통사고에서 현대기아차와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자동차의 중대 결함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급발진 사고’ 의혹 … 현대기아차·국과수가 덮었나’(2017.01.26) 보도에 대해 참석자 중 한 명은 “꼼꼼하게 취재를 잘 했고” “시청자들 호응이 많다”며 칭찬했다.

〈자료 124〉 기획회의 대화 중에서(2017년 1월 31일)

저는 뭐 전반적으로 꼼꼼하게 취재 잘 했고 구성도 좋았고 좋은 것 같아요. 아까 대표가 이야기 하신 것처럼 000 씨가 또 공채 2기인데 주도적으로 본인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긴 했지만 그래도 본인이 완벽하게 거의 공정의

대부분을 다했다는 것이 큰 의의가 있고 그게 또 굉장히 시청자들 호응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게 잘 만들었다는 칭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 사람이 서로 대화를 주고 받으면서 평가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탄핵 심판을 영상으로 기록하고 헌법재판관들의 이념 성향을 분석한 ‘헌재 60일의 기록-박근혜 ‘심판의 날’ 다가오다’(2017.02.24)’에 대한 리뷰가 대표적인 사례였다. 물론 리뷰에서 항상 칭찬만 있는 것은 아니며 혹독한 비판도 있었다. 이처럼 참여자들은 리뷰 시간에 각자 나름의 근거를 바탕으로 동료의 보도를 평가했다.

〈자료 125〉 기획회의 대화 중에서(2017년 2월 27일)

참석자 1: 많이 팔리더라고.

참석자 2: 이번 주 지나면 10만 넘겠던데?

참석자 3: 저는 그거 보면서 딱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장점이 다 이렇게 종합돼 있는 그런 느낌인데, 뭐냐면 잘 팔리는 거는 남들이 다 관심 있어 하는 주제, 이슈의 아주 최정점에 올라 있는 그런 주제에 대해서 다뤄야 되는데 남들이 안 다루는 부분과 그 다음에 우리만 할 수 있는 부분을 접근했을 때 이게 다 맞아떨어졌을 때 가장 최상의 퍼포먼스가 나온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도 이제 모든 사람이 관심 있어 하는 주제를 남들이 다 쓸 수 있지만 안 쓰는 영상, 우리만 쓸 수 있는 영상과 우리만 할 수 있는 분석, 이 세 가지가 아주 잘 조합이 돼서 잘 나온 작품인 것 같아요. 시의적절하기도 했고 주제별로 이렇게 쪽 알기 쉽게 정리한 것도 되게 좋았고 여러 가지로 다, 앞으로도 종종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연구자는 참여자들이 동료의 보도를 본 뒤 리뷰 시간에 하는 평가 내용에 주목했다. 리뷰에서 참여자들이 언급하는 평가가 그들이 좋은 탐사보도로 ‘보는 기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는 이성적, 논리적, 원론적인 ‘말하는 기준’과는 차이가 있었다. 예를 들어 말하는 기준에서는 탐사보도가 가져온 변화가 중요하게 언급됐지만 실제 리뷰에서는 보도 이후 이루어졌거나 예상되는 변화에 대해 언급이 거의 없었다.

연구자는 기획회의와 간혹 긴급히 소집되는 회의에서 리뷰 시간에 참여자들이 언급한 평가 근거들을 하나하나 모았다. 현장연구를 마칠 때까지 연구자가 참여해서 리뷰를 기록한 회의는 모두 41번이었다. 회의 마다 다르지만 리뷰 시간은 보통

10~20분 정도였다. 이후 리뷰 기록에서 보도 평가 근거에 해당하는 진술문을 별도로 뽑았고 이렇게 해서 모아진 진술문은 모두 217개였다. 참여자들이 좋은 탐사보도로 보는 기준이었다.

연구자는 217개 진술문을 명시적 언급과 그 안에 담긴 취지를 바탕으로 독자적 취재와 변화, 분노, 차별화, 의미 전달, 영상, 수용자 흥미, 기타 등 8가지 기준으로 분류했다. 앞의 다섯 가지(독자적 취재, 변화, 분노, 차별화, 의미 전달)는 말하는 기준에서의 세부 기준을 갖고 온 것이며, 영상과 수용자 흥미와 보는 기준에서 새롭게 추가했다. 진술문을 분류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선행연구를 발견하지 못해 분류는 앞서 말하는 기준에서 언급된 기준을 바탕으로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했다. 그러나 분류를 하면서도 다른 방법의 분류는 없는지, 어떻게 분류의 타당성을 확보할 것인지 등의 문제가 연구자를 괴롭혔다. 따라서 분류상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표 17〉 리뷰에서 언급된 동료 보도 평가 분석

평가 기준	진술문 수(217)
독자적 취재	62
변화	3
분노	11
차별화	11
의미 전달	50
영상	34
수용자 흥미	33
기타	13

다만 한 가지 변명을 한다면 아이스너(Eisner, 1985)가 질적 연구의 원리이자 방법으로 제안한 ‘전문가 감정(connoisseurship)’이다. 아이스너에 의하면 예술 작품의 질을 평가하는데 전문가의 세련된 안목이 요구되듯이 질적 연구를 수행하고 평가하는데도 전문가의 감정이 필수적이다. 질적 연구는 양적 연구와 달리 표준적인 도구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전문가 감정은 최상이거나 유일무이한 방법이 아니며 그 나름의 장단점을 가진 한 가지 접근법이다. 그 말은 실증적, 객관적인 연구 방법들이 갖는 장점을 갖지 못하는 대신 그 방법들의 단점을 전문가 감정이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이다(조용환, 1999, p. 81).

전문가 감정이 제대로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감정을 하는 사람, 즉 여기서는 연구자가 가진 전문성이다. 그렇다면 연구자는 참여자들이 리뷰를 통해 내놓은 보도에 대한 사후평가를 검토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고 있는가? 스스로 돌아보건데 연구자가 이 분석을 하기에 충분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만 연구자는 언론인으로서 20년 이상의 경력을 갖고 있고 그 가운데 10여 년을 탐사보도 전문 기자가 되기 위해 노력해 왔다. 2005년 <KBS> 보도본부에 탐사보도팀이 만들어지고 이후 각종 성과를 내면서 탐사보도의 황금기를 이룰 때 연구자도 취재기자의 한 명으로 참여했다. 또 연구자는 현장연구를 하는 연구자인 동시에 <뉴스타파> 내에서 에디터라는 직위를 맡고 있는 간부였기에 참여자들이 리뷰에서 언급한 평가들의 취지를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때로는 연구자가 취재한 보도가 평가 대상이 되기도 했다. 또 그동안 석사와 박사학위 과정을 거치면서 탐사보도에 대한 이론적, 방법론적 문헌과 연구 산물들을 나름대로 열심히 수집하고 공부했던 것도 연구자가 참여자들이 회의 시간에 내놓은 평가를 주관적으로 분류하는 데 명분을 제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이라는 한계는 여전했다. 때문에 한계를 조금이라도 보완하기 위해 참여자 중에 선배 집단 2명에게 연구자의 분석을 보여주며 분류의 신뢰도와 타당성 검토를 의뢰했고 2명에게서 각각 의미 있는 작업이며 결과에 동의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전문가 감정은 아니지만 윤태진과 강내원(2001)의 공공저널리즘에 대한 연구도 분석 대상 기사를 연구자들이 상호 토론을 거쳐 직접 분석함으로써 질적 방법이 접목된 내용 분석을 시도한 바 있다. 김민하(2008)의 연구 역시 연구자가 전체 분석 대상 기사를 직접 분석하는 내용 분석을 수행했다. 그는 분석 과정에서 연구자 편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판단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 연구 보조원 2명에게 동일한 기사를 분석하게 하여 비교함으로써 편향의 개입을 최소화하였다.

2) 독자적 취재

사후평가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영역은 독자적 취재였다. 전체 217개 가운데 62개가 취재와 관련한 평가였다. 세부적으로 보면 취재가 잘 됐다는 칭찬(“주제의 깊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동료들 본받을 만한”, “좀 취재가 엄청 디테일하게 잘 돼 있는 것들이나”, “되게 오랜 기간 취재했다는 게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꼼꼼하게 취재 잘 했고” 등)이 16개였다.

〈자료 126〉 기획회의 대화 중에서(2016년 8월 29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이게 취재가 아주 잘됐고 좋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나면 어떤 제보자가 있어 가지고 그거를 그냥 할 수 있는 미끼를 다 준 그런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도 권력의 최정점까지 근접하는 데 사다리를 그래도 스스로 2개 내지 3개 정도를 닿았다는 거는 굉장한 의미라고 생각해요 취재 단계에 있어서. 제보자가 전혀 없는 전혀 없지는 않지만 하여간 이런 취재는 굉장히 힘들다 누가 해도 굉장히 평가할 만하다. 취재도 취재 나름인 거고 제보자가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많이 다르니까.

반대로 취재에 허점이 있었다는 지적(“조금 더 총체적으로 다뤄졌으면 좋았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좀 더 들어갔으면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취재가 거기까지 미치지 못 해가지고”, “내용이 너무 밋밋하고 교과서적인 부분은 아쉬웠던 것 같은데”, “금융개혁 부분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등)은 20개로 칭찬보다는 비판이 더 많았다. 특히 취재 부족 또는 허점을 지적하는 것 외에 보도에 과장이나 왜곡, 편향 등이 있다는 비판(“소송을 제기한 그 사람 인터뷰가 공정성이 없어 보이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 “검찰의 수사를 우리가 일방적으로 우리 이야기 근거로 가지고 와가지고 악마로 만들어 버리는”, “어떤 식으로든 답변을 한 건데 마치 질의를 피한 것처럼”, “결과적으로 편파적이 된 거죠”, “논리적으로 오버된 부분이 있지 않나”, “피해자들의 입장에 경도돼 가지고 결론 내 놓고 가는 게 아닌가”, “너무 질문 자체가 의도적인 그런 거 아니야” 등)도 16개나 됐다.

〈자료 127〉 기획회의 대화 중에서(2016년 5월 5일)

우리가 어떤 사건의 경우에는 검찰의 수사나 논거를 비판하다가 이런 아이템 할 때는 검찰 수사를 우리가 일방적으로 우리 이야기 근거로 가지고 와 가지고 악마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게 있는데 이게 사안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어쨌든 그 교수는 재판 받을 권리가 있고 이야기가 서로 배치되고 결국은 우리가 직접 취재를 못 한 상황에서 한 기관의 의견에만 집중해가지고 한 타겟을 두고 나쁜 놈으로 악마화 시켜 버리는. 그런 것들은 법정에서 지금 진행되는 이런 것들은 조금 어떻게 대할 것인가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자료 128〉 기획회의 대화 중에서(2017년 6월 19일)

소송을 제기한 그 사람 인터뷰가 공정성이 없어 보이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 차라리 그 사람 대신에 000 같은 사람을 한 명 더 해가지고 그냥 주장이 아니라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비판이라는 것을 좀 더 보강을 해줬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3) 의미 전달

취재 다음으로 많이 언급된 것은 의미 전달 영역으로 보도가 당초 의도한 바가 제대로 수용자에게 전달이 됐는지를 평가하는 부분이었다. 보도 이후 결과를 놓고 하는 평가라는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였다. 세부적으로 가장 많은 것이 스토리텔링 즉 이야기 구조로서 보도의 구성력이나 완결성 등에 관한 것(“구성이 잘 된 것 같고”, “따박따박 결대로 잘 만들었다”, “주제별로 이렇게 쭉 알기 쉽게 정리한 것도 되게 좋았고”, “이게 왜 중요한가 이런 거를 조금 더 잘 드러냈으면”, “파편적으로 나와 있던 것들을 맥락 안에서 정리를 해주고” 등)이었다. 그 외에 보도를 직접 전달하는 화자나 의미 전달 양식, 제목, 앵커 등과 관련한 평가들이 있었다.

〈자료 129〉 기획회의 대화 중에서(2016년 9월 19일)

뭐 전체적으로 완성도가 높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게 우리가 메르스 관련해서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되게 새롭더라고요. 구성의 힘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사실을 쭉 모아 놓고 모르고 있었던 사실들도 전혀 모르고 있었던 사실들도 좀 있었고.

〈자료 130〉 기획회의 대화 중에서(2016년 8월 22일)

제 생각에는 약간 시청자들이 몰입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꾸 프레젠테이션이 바뀐다거나 누가 나와서 앰부시했다가, 누가 나와서 무덤 갔다가, 집단으로 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는데 그게 좀 같은 사람이 계속 나와 주면 다음 편을 더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것 같아요.

4) 영상

보는 기준에는 말하는 기준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던 영상이 새로운 기준으로 등장했다. 전체 217개 가운데 34개인 영상은 보도가 의도한 바가 영상으로 잘 표현되었는 지에 대한 평가였다. 영상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제발 좀 그림에 관한 고민을 전반적으로 해주세요”, “영상구성이나 이런 것은 굉장히 잘된 것 같고”, “현장 그림들이 좀 부족했다는 것이 조금 많이 아쉽더라고요”, “자극적인 장면이 자주 반복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안에 알맹이는 없고 포장만 지금 나간다는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등)는 물론 인터뷰나 온 마이크, 그래픽, 삽화, 대역이나 재연 등에 대해서도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방송 보도를 기본 방식으로 채택하고 있는 만큼 영상에 대한 활발한 논의는 사후평가에서 당연하게 나올 수 있는 얘기였다.

5) 수용자 흥미

수용자 흥미가 33건이나 된다는 것은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다. 수용자 흥미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보았는가에 대한 평가이다.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유튜브 조회수에 대한 것으로 33건 가운데 18건이었다(“많이 보데”, “우리가 기존에 미리 접근하지 못했던 그런 시장의 수요자들에게 일부 접근한 게 아닐까”,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사람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다” 등).

〈자료 131〉 기획회의 대화 중에서(2016년 10월 4일)

참석자 1: 지난주 최순실 관련 아이템은 뭐 많이 보데. 사람들이 그런 게 좋은 모양이야. 동영상 이런 거.

참석자 2: 동영상 전문기자를 키울까 봐. (웃음)

참석자 3: 70만이 넘었던데.

참석자 1: 백만 뷰가 수년 내에 깨지기 힘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기록은 깨지라고 있는 모양이야. 백만 뷰 기자가 참 올해 좀 아쉽겠다. (웃음) 기록이 이렇게 빨리 깨지다니.

참석자 2: 계속 갱신이 되고 있어. (웃음) 이것도 백만 넘을 것 같아요.

〈자료 132〉 회회의 대화 중에서(2017년 5월 15일)

저는 되게 재미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다 아는 이야기고 지금까지 다 나왔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괜찮을까 이랬는데 조회수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서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던 거로 봐서는 애가 좀 뭔가 이제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이게 뭘 건드려서 반응이 좋았을까 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유튜브나 홈페이지에 달린 댓글(“굉장히 댓글 수도 많고 유튜브에 댓글 수도 많고” 등), 다른 언론의 인용(“다른 사이트에도 굉장히 많이 퍼져 날랐고” 등), 수용자들의 평균 시청 시간(“평균 시청 시간이 한 10 몇 분밖에 안 되는 거는” 등) 등이 있었다. 보도의 길이에 대한 언급이 9개 있었는데 단순히 길이가 길다 짧다가 아니라 수용자 흥미를 유발시키기에 길이가 길다는 취지였다(“이게 길바닥에서 보면 못 봐요 이거 진짜 한 시간 불가능한 시청 시간”, “내용을 편수를 늘리더라도 분량을 조절하는 게 어떨까”, “10분씩 이렇게 하기도 하더라고요 다음 걸 보고 싶게끔 만드는 거죠” 등).

〈자료 133〉 기획회의 대화 중에서(2016년 8월 22일)

과연 이게 PC에서 정자세로 앉아서 프로그램을 쭉 이렇게 우리가 앉아서 볼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생각하면 그렇게 볼 사람 별로 많지 않을 것 같고. 대부분 모바일로 본 사람이 모바일로 많았을 것 같은데. 그게 붙잡고 그렇게 30분 이상 보기에는 부담이 많은. 내용을 편수를 늘리더라도 분량을 조절하는 게 어떨까 같고 싶긴 하죠. 우리는 이제 큰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취재도 많이 했고 답아야 될 팩트도 많고 데이터도 많고 하니까 많이 답아 내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시청자 입장에서는 힘든 부분이 되는 것 같아.

또 다른 특징은 말하는 기준에서 중요하게 언급됐던 변화 영역이 보는 기준에서는 3개에 불과했다는 점이다(“뒤에 뭐 거기서 연락 오거나 뭐 이런 건 없나?”, “청와대는 별 이야기 없어?”, “이 보도가 어떤 변화를 일으킬 것인가”). 보도가 나간 지 몇 일 되지 않아 변화 여부나 가능성을 평가하기가 이른 시점이라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변화에 대한 관심 정도가 너무 낮았다. 심층면담에서 참여자들 대부분은 탐사보도가 가져온 변화를 매우 중요한 기준으로 언급했다. 보도 자체로서 의미가 있더라도 영향

력이나 파급력 면에서 미흡하다면 좋은 탐사보도로 평가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그러나 말하는 기준과 달리 보는 기준에서는 변화는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가 아니었다.

또 차별화는 중요도에서 높아졌다. 동료 보도를 평가할 때 다른 언론과는 다른 또는 다루지 않은 시각이 있었는지가 11개로 비교적 중요하게 언급됐다(“다른 매체에서는 접근하지 못한”, “〈뉴스타파〉 특유의 그런 색깔”, “지상파와 차별화” 등). 특히 차별화는 보는 기준에서는 “〈뉴스타파〉만의 색깔”로 구체화되었다. 감성적으로 수용자를 자극했는지를 평가하는 분노 역시 11개(“분노를 치밀어 오르게 하는 앞 부분 좋았다”, “감정적으로 되게 사람을 잘 자극하고 지루하지 않게 끌고 나가는 거”, “피해자 사례가 같이 들어가서 좀 감정이입도 됐다”, “이 사건에서 핵심적으로 가족들을 그렇게 만든 그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등)였다.

정리하면, 참여자들이 보는 좋은 탐사보도 기준은 탐사보도의 정의를 여전히 존중하지만 말하는 기준에서 중요하게 언급됐던 변화의 중요성은 낮아졌다. 대신 수용자 흥미가 새롭게 등장했다. 즉 참여자들은 동료 보도를 평가할 때 수용자들이 얼마나 반응했는가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수용자 흥미는 말하는 기준에서는 언급되지 않았고 오히려 중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지만 보는 기준에서는 달라진 것이다. 차별화는 〈뉴스타파〉만의 색깔로 구체화되었다.

3. 실천 기준

1) 판단 기준으로 “재미있다” 표현 분석

회의에서는 리뷰 시간이 끝나면 곧바로 발제와 토론이 이어지고 마지막으로 취재 승인 여부가 결정됐다. 발제는 취재팀 개개인이 본인이 취재하고 싶은 것에 대한 기획 의도와 개요를 구두로 설명하는 형식이었는데 모든 취재는 회의 보고를 거치는 것이 기본 원칙이었다. 예를 들어 기획회의에서 통과가 되어야 촬영기자 배정 신청 등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발제 후에는 토론이 이뤄지는데 토론 순서나 시간 등에 제약은 없었다. 선배 집단이 의견을 내는 경우가 많지만 후배 집단도 참여하도록 노력하는 분위기였다. 발제와 토론이 끝나면 취재 아이템으로 채택할지 말지에 대한 결정을 하는데 당초 기획의도가 토론을 거치면서 수정이 되는 경우는 있지만 기획이 탈락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발제와 토론은 〈뉴스타파〉가 만드는 탐사보도의 공식적인 출발점이었다.

발제와 토론은 〈뉴스타파〉에서 참여자들이 실제로 실천하는 탐사보도 기준이

녹아 있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었다. 발제와 토론을 잘 들어보면 참여자들이 어떤 기준으로 취재 기획을 선택하고, 평가하고, 결정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다.

〈뉴스타파〉에는 취재나 보도에 대한 어떤 제약이나 정해진 기준이 없었다. 누구나 취재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기획회의를 거쳐 할 수 있었다. 연구자가 발제와 토론 시간에 참여자들이 하는 언급에 주목한 것은 그들의 말이 그들이 실제로 실천하는 탐사보도 기준이고 이를 종합하면 참여자들이 탐사보도로 생각하며 실천하는 기준으로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연구자는 앞으로 이를 ‘실천 기준’으로 부른다. 실천 기준은 앞서 논의됐던 말하거나 보는 기준과는 다를 수 있다. 말하거나 보는 기준 보다 주관적이거나 현실적일 가능성이 있다. 참여자 개인의 신념이나 감정이 개입했을 수도 있고 현실적인 제약이나 고려 등이 감안됐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을 갖고 기획회의를 관찰하던 중 한 가지 특이한 사실에 주목했다. 참여자들이 회의에서 무언가를 판단할 때 습관적으로 쓰는 말이나 표현이었다. 20여 년 기사를 하고 있는 연구자도 스스로를 돌아보니 역시 습관적으로 쓰는 말이 있었다. 예를 들어 연구자는 취재나 보도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될 때 “얘기 된다”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고 있었다. 참여자들도 마찬가지였다. 아래 대화에서 나오는 “얘기 된다”도 “취재나 보도 가치가 있다”는 의미의 습관적 언어 표현이다. 참여자들은 직접적 표현인 보도 가치나 뉴스 가치, 취재 가치 등의 표현은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자료 134〉 기획회의 대화 중에서(2016년 8월 29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얘기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이거를 없앨 수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얘기되는 거 전화로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료 135〉 기획회의 대화 중에서(2016년 5월 23일)

직감적으로 1분 안에 이걸 얘기 된다 안 된다 판별이 되거든요. 그걸 와 가지고 분배하고 알아 봤니 뭐야 이걸 이렇게 할 것도 없고. 얘기 되는 거는 다 누가 뭐라 할 것도 없이 먼저 달라붙거든요. 이거는 딱 떨어진다 싶으면.

습관적인 말이나 표현은 발제와 토론을 할 때도 사용되고 있었다. 연구자가 참여자들의 습관적인 말이나 표현에 주목한 것은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와 맥락 속에 참여자들이 실천하는 탐사보도 기준이 압축적으로 들어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참여자들이 취재하기로 선택한 대상이 아니라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유가 설명된다는 것이다. 기준은 대상이 아닌 이유이기 때문이다.

발제와 토론 시간에 가장 많이 들을 수 있었던 습관적 표현은 “재미있다”였고 그 외에 “먹히다”, “얘기 된다” 등이 있었다. 연구자가 관찰한 41번의 회의에서 실천 기준의 의미로 “재미있다”가 등장한 것은 146번으로 산술적으로 보면 회의 때마다 “재미있다”는 표현이 평균 3.6번 등장하고 있었다. “먹히다”가 29번, “얘기 되다”가 14번인 것에 비하면 압도적으로 많았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맥락에서 나오는 “재미있다”는 “수용자의 흥미를 끌만하다”와 “특종”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었다.

〈자료 136〉 기획회의 대화 중에서(2016년 10월 31일)

그 사람들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고 왜 지지를 철회했는지 다 찍었던 사람들인데 그런 얘기를 한 번 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자료 137〉 기획회의 대화 중에서(2017년 6월 19일)

제가 재미있게 보는 거는 이제 정부가 최근에 자사고나 이런 것들을 없애겠다고 했는데 이게 핵심이 아니라는 걸 이 사람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더라고.

연구자는 발제와 토론 시간에서 “재미있다”는 표현이 등장하는 맥락과 그 안에 담겨 있는 구체적 의미가 무엇인지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참여자들이 현실에서 탐사보도를 실천하는 데 적용하는 기준의 전부를 설명하지는 못하겠지만 한 단면이라도 보여줄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연구자가 “재미있다”의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 택한 방법은 우선 해당 발언이 등장한 전후 맥락을 충분히 고려해 “재미있다”에 담겨 있는 실질적 의미를 추정했다. 추정에는 앞서 말하는 기준과 보는 기준에서 제시됐던 8가지 기준을 근거로 삼았다. 이후 실질적 의미를 기술한 대체 표현을 만든 뒤 “재미있다”를 대체하는 방식이다. 대체해도 맥락과 문맥상 문제가 없을 경우 “재미있다”의 실제 의미로 판단했다. 예를 들어 다음에 인용되는 짧은 대화 속에는 “재미있다”는 표현이 네 번 등장한다.

〈자료 138〉 기획회의 대화 중에서(2017년 6월 19일)

참석자 1: 다음 주는 지금 섭외를 미국 트럼프 사태 FBI, 그거를 ① 재미있게 얘기해 줄 만한 미국 전문가를 좀 섭외하고 있는데.

참석자 2: 좋다 좋다.

참석자 1: ② 재미있을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제 사람이 문제죠 사실. ③ 재미있는 놈이 나와야 ④ 재미있는 건데.

연구자가 추정한 재미의 실질적 의미는 ① ‘수용자 흥미를 끌게’, ② ‘취재가치가 있을’, ③ ‘중요한’, ④ ‘수용자에게 흥미로운’이었다. “재미있다”를 연구자가 추정한 의미의 표현으로 대체하면 아래와 같이 달라진다.

참석자 1: 다음 주는 지금 섭외를 미국 트럼프 사태 FBI, 그거를 ① 수용자 관심을 끌게 얘기해 줄 만한 미국 전문가를 좀 섭외하고 있는데.

참석자 2: 좋다 좋다.

참석자 1: ② 취재가치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제 사람이 문제죠. 사실. ③ 중요한 놈이 나와야 ④ 수용자에게 흥미로운 건데.

따라서 첫 번째와 네 번째는 재미는 수용자 흥미를,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독자적 취재 기준으로 분류했다.

〈표 18〉 발제, 토론에서 언급된 “재미” 표현 분석

평가 기준	재미 수(146)
독자적 취재	45
변화	0
분노	17
차별화	25
의미 전달	6
영상	0
수용자 흥미	45
기타	8

그러나 “재미있다”는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었고 그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앞서 보는 기준에서 그랬듯이 불가피하게 연구자의 전문가

감정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역시 주관성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앞서 보는 기준에서 신뢰도와 타당성 검토에 참여했던 선배 집단 참여자 2명에게 각각 검토를 요청했고 분석에 동의한다는 답변을 얻었다.

2) 독자적 취재

“재미있다” 표현에 녹아 있는 첫 번째 실질적 의미는 독자적 취재에 속하는 것들이었다. 그런데 말하는 기준에서 독자적 취재가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한 반면에 실천 기준의 독자적 취재는 과정보다는 결과, 즉 특종 여부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

〈뉴스타파〉는 2016년 9월 8일 공적자금 투입된 STX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 15만여 건을 입수해 STX 임직원들은 물론 이를 감시해야 할 산업은행관리단, 그리고 기자들이 부정하게 접대비를 사용했다고 고발했다(‘공적자금 STX ... ‘접대비는 쌈짓돈’(2016.09.08)). 이 취재를 시작하기 전 해당 참여자는 “아직 본격적인 분석은 못했지만 법인카드의 세부 사용 내역을 입수”했으며 관련 취재를 시작하겠다고 발제했다. 다음은 발제에 대해 당시 참여자들이 나누었던 토론의 한 부분이다.

〈자료 139〉 기획회의 대화 중에서(2016년 8월 1일)

참석자 1: 접대비까지 받았다는 거야? 다른 임원들이나 이런 거 접대비 목록을 받았다는 거야?

참석자 2: 다 있어요 2009년 거부터 해서.

참석자 3: 몇 년도까지?

참석자 2: 올해 상반기까지.

참석자 3: 올해 상반기까지?

참석자 4: 한 번 돌려봐야 되겠네.

참석자 2: 그래 돌려봐야 돼.

참석자 3: STX면 크지. 굉장히 크지. 업계 한 50위 안에 들어갈 것 같은데.

참석자 5: 취재도 상당히 해야 될 것 같아. 왜냐하면 같이 밥 먹었다는 애들이 부인하기가 십상이라 개네 당사자 확인을 일일이 다 해야지 기사를 쓸 수 있을 것 같아.

참석자 6: 재미있겠는데 어?

참석자 2: 일단 하여튼 그 받은 자료를 좀 이렇게 돌려 가지고 뭐 뽑을 수 있는 애기들이 뭐가 있을지 좀 열개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참석자 중 한 명이 데이터를 입수한 참여자의 노력을 평가하면서 “굉장히 크지”라는 표현을 쓴다. 이는 특종이라는 의미로 보여 진다. 이어 다른 참석자가 “재미있겠는데”라고 평가하는데 이때의 재미있다는 표현 역시 특종의 의미로 해석된다. “굉장히 크지”를 “큰 특종이지”로, “재미있겠는데”를 “특종인데”로 각각 대체해도 대화의 전체적인 맥락이나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다. “얘기들이 뭐가 있을지”와 “얘기가 확 살 텐데”에서 “얘기”는 기사를 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얘기”를 “기사”로 대체해도 무방하다.

다음에 나오는 “재미있다” 표현들도 마찬가지로

〈자료 140〉 기획회의 대화 중에서(2016년 10월 4일)

오늘 지금 국과수 관련된 직원을 만나러 갔어요. 그게 만약에 잘 되면 한 번 상당히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를 “상당한 특종입니다”로 바꿔보면 재미있다는 특종을 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료 141〉 기획회의 대화 중에서(2017년 2월 6일)

참석자 1: 요새는 안 나오고 있는 분이야? 그분은?

참석자 2: 전혀 등장을 하지 않으신 분이고. 지금 그분은 지금 요양원에서 치매가 심해서 아예 이제 기억이 없으셔서. 요양원 가서 찍어오면. 그것만 찍어오면.

참석자 3: 오 그거 제대로 만들면 좋겠다. 야 재미있겠다.

“오. 그거 제대로 만들면 좋겠다. 야 재미있겠다”에서 “재미있겠다”를 “특종이다”로 바꿔서 이해하면 해당 기획의 채택 여부를 판단하는데 특종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심층면담에서도 참여자들 가운데 일부는 특종 여부가 보도를 평가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했다. 결과에 대한 평가 기준이기는 하지만 이 기준이 보도의 출발점에서도 중요하게 기능하고 있었다. 때문에 특종은 참여자들이 탐사보도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기준이었다.

3) 수용자 흥미

“재미있다” 표현이 말 그대로 사전적 의미인 “아기자기하게 즐겁고 유쾌한 기분이나 느낌이 있다”²¹는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즐겁고 유쾌한 기분을 느끼는 주체가 수용자인 점이다. 즉 참여자들은 수용자들이 보도에 충분히 흥미를 보일 것으로 확신이 들 때 “재미있다”는 표현을 쓰고 있었다. 이런 맥락에서 쓰이는 “재미있다”는 “수용자의 흥미를 끝만하다”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이다. 따라서 수용자 흥미, 보다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흥행 여부에 대한 판단이 탐사보도를 실천하는 데 있어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기능했다. 아래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자료 142〉 기획회의 대화 중에서(2016년 11월 21일)

듣다가 아 재미있을 것 같다 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재미있는 부분이 안 나오면 재수야. (웃음)

〈자료 143〉 기획회의 대화 중에서(2016년 11월 14일)

딱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나와 주면 그런 부분들이 재미의 포인트가 아닐까?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자료 144〉 기획회의 대화 중에서(2016년 12월 7일)

참석자 1: 우리 지금 내년도 청와대 예산 그것도 좀 있는데 그거 같이 엮어
가지고, 좋은 아이템은 아닌데.

참석자 2: 아니 재미있어.

참석자 3: 흥미는 끝 거야.

참석자 2: 재미있어 재미있어. 직무정지가 된 다음에 박근혜 생활에 관해.

수용자 흥미의 경우 중요하지 않다는 말하는 기준에서의 입장은 실천 기준에
오면 더 이상 유지되지 않았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볼 것인가는 탐사보도를

21. 국립국어원 표준어대사전에서 가져옴.

실천하는데 중요한 기준이었다. 취재 기획이 내용이나 구성 면에서 다소 비판적 평가를 받더라도 조회수가 많이 나올 것 같으면 면죄부를 받는 경우도 있는 만큼 수용자 흥미는 중요한 기준이었다.

4) 차별화

〈자료 145〉 기획회의 대화 중에서(2016년 8월 29일)

해석만 좀 잘 그럴싸하게 해도 재미있을 것 같은데 사상 초유의 사태라.

한 참여자가 2016년 8월경 당시 〈조선일보〉 주필이던 송희영의 비리 의혹을 놓고 〈조선일보〉와 박근혜 정권과의 갈등을 언급하며 특종은 아니더라도 이슈를 “해석만 잘 그럴싸하게” 해도 충분히 〈뉴스타파〉만의 차별화된 보도를 만들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대목이다.

차별화에 대한 참여자들의 열망은 간절했다. 〈뉴스타파〉는 탐사보도 전문 언론으로 다른 언론사와는 다르며 보도 역시 달라야 한다는 생각이 아주 강했다. 특히 탐사보도에서 영역에서는 더욱 그랬다. 앵커인 최승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차별화를 강조했다. 〈뉴스타파〉는 데일리 뉴스를 만드는 “언론사들과 경쟁하면서 50보 100보 앞서려고” 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되며, 대신 “좀 깊게 A부터 Z까지 보여주면서 어떤 최종적인 결론을 낼 수 있는” 보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은 〈뉴스타파〉 구성원들 전체가 참여하는 SNS 토론방에 최승호가 차별화를 강조하며 남긴 글이다.

〈자료 146〉 〈뉴스타파〉 전체 공지에 최승호가 올린 글(2017년 3월 4일)

좀 아쉬운 부분이 〈뉴스타파〉가 세월호 문제를 가장 깊게 취재해 왔고 사고 원인도 파왔는데 이런 때 ‘결론을 내 주는 매체’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우리가 가진 정보를 잘 조합해서 때로는 자로나 파파이스의 주장에 대해서 분석해 주고 결론을 내주었다면 좋지 않았을까 ... 물론 대중들이 〈뉴스타파〉를 공격할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서 ‘〈뉴스타파〉 말이 맞았구나!’ 하는 정도는 인식되게 해줘야 하지 않을까 ... 사고 원인에 대해 전면적, 총체적으로 다루는 다큐멘터리가 우리 손으로 만들어졌다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리포트 수준으로는 깊은 인상을 남기기 어려워요.

이 같은 차별화에 대한 바람과 열망이 “그럴싸한 해석만 해도 재미있다”는 표현으로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참여자들이 발제를 듣고 취재 승인 여부를 판단할 때 <뉴스타파>만의 차별화는 탐사보도를 실천하는 기준 중의 하나였다. 예를 들어 “우리 시각으로 한 번 정리를 해야죠”가 대표적이다.

〈자료 147〉 기획회의 대화 중에서(2016년 8월 1일)

옥시 재판이 이제 나중에 선고가 있을 거고, 그런 것들도 한 번 잡아가지고 무슨 일이 실제로 있었던 건지. 뉴 하지는 않아도 한 번씩 우리 시각으로 정리를 해 보는 것도 의미도 있고 흥행도 잘 될 것 같고.

회의에서는 “비록 새로운 이야기는 안 나오겠지만 우리 시각을 갖자”는 언급을 수시로 들을 수 있었으며, “우리 취재”, “우리 관점” 등의 표현이 “재미있다”와 어울려 사용되었다.

〈자료 148〉 기획회의 대화 중에서(2016년 4월 25일)

지금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은 사태의 전말. 우리 취재로 좀 풀어 나갔으면 최대한 남의 보도 말고 우리 취재로만 풀어나갔으면 좋겠고요. 어버이연합이 어떤 단체였는지를 지금까지 데모했던 모습들 그 영상들이 좀 미디어몽구 협조와 우리 거와 해가지고 해보니까 몇 년 치가 나와요. 거의 근 뭐 한 7~8년 치 이상이 나오는데 아주 중요한 영상들도 있고. 뭐 아주 영상적으로는 아주 재미있는 영상들도 많고.

5) 분노

“재미있다” 표현에 담겨 있는 네 번째 의미는 자신이 발제를 하거나 동료의 발제를 들을 때 참여자가 느낀 분노였다. 참여자들은 본인들이 느낀 분노를 수용자들도 같이 느낄 것이라고 예상하며 자신들의 분노를 탐사보도 실천에 적극 투영하고 있었다. 따라서 말하는 기준의 분노가 수용자 분노라면 실천 기준의 분노는 참여자 자신의 분노였다.

참여자들은 발제 내용에 대해 분노하면서 오히려 방어적으로 “재미있다”는

표현을 습관적으로 쓰고 있었다. 예를 들어 다음은 재벌 개혁 아이템을 발제하는 경우인데, 앞부분의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가요”에서 “재미있는”은 얼핏 들으면 “흥미로운” 정도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뒤의 내용을 마저 듣고 나면 취재 과정에서 참여자가 느낀 분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했다. 실제 이날 발제를 한 참여자는 스스로 재벌 총수들의 비도덕적 행태에 대해 분노하는 것이 역력했다.

〈자료 149〉 기획회의 대화 중에서(2016년 10월 4일)

클로징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가요. 군대 면제 이야기랄지. 저희가 이제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3대 재벌 모두가 다 군대나 세금 납부에 있어서 SK를 빼고 SK가 갑자기 이제 죽어 가지고 그거 빼고는 지금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3대 재벌이. 그런 팩트 위주로 앵커 클로징도 들어가고 해서 전반적으로 이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뉴스타파〉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후반부에 박근혜 정권에 기여하면서 여론을 왜곡한 사람들을 ‘부역자들’이라는 제목의 연속 보도를 통해 비판했다. 당시 다섯 번째가 청와대 출입기자단에 대한 것이었는데 발제를 들은 참석자들이 반응이 뜨거웠다(‘박근혜 최순실 체제의 부역자들 5 - 청와대 출입기자’(20161116)). 흥분된 어조의 “죽인다 진짜”, “재미있네” 반응이 나왔는데 반응의 기저에는 가장 가까이서 박근혜를 보면서 제대로 된 감시를 하지 않은 청와대 기자단에 느낀 분노와 그 분노가 다소나마 해소될 것 같은 통쾌함이 반영적으로 담겨 있었다.

〈자료 150〉 기획회의 대화 중에서(2016년 11월 7일)

참석자 1: 언론편 일단 K하고 M 끝나면 지금 뭐 어디지? 자료조사는 하고 있나?

연구자: 지금 제목은 청와대 출입기자단이잖아요.

참석자 1: 그 다음이 청와대 기자단.

참석자 2: 죽인다 진짜.

참석자 3: (웃음) 재미있겠네.

참석자 1: 개네들은 발언이 없잖아. 뭐 가지고 하지?

참석자 2: 영상이 있잖아요.

참석자 3: 지난번에 옛날에 그 저기 이렇게 저 〈YTN〉에서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 있잖아. 순서대로 한 거.

참석자 2: 우리가 했던 것들 모으면 되죠.

참석자 3: 우리가 했던 것들을 모아서 신년 기자회견 때마다 했던 거랄지.

이렇게 좀 꺼리가 있죠.

참여자들은 자신들이 느낀 분노를 탐사보도를 실천하는 데 있어 중요하게 생각했다. 참여자들 중에 탐사보도에서 언론인의 분노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참여자들은 스스로 분노를 느끼고, 수용자들도 함께 느낄 것으로 예상하고, 수용자들이 분노를 느낄 수 있도록 노력했다. 일종의 분노 예찬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자신들의 분노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자료 151〉 선배 집단 한 명과 심층면담 중에서(2017년 6월 23일)

참여자: 비슷한 이야기로 ‘전문화’ 라고 내가 안 물어보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오래동안 탐사보도 기사를 할 수 있냐? 할 수 있었냐? 저쪽 미주리에 있을 때 어떤 캔사스시티의 탐사보도 전문기자한테 물어 봤어.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 하더라고. 앵거라고 앵거.

연구자: 분노?

참여자: 그 사람이 70살 왔다 갔다 했었는데 공적인 분노가 유지가 되어야 한다. 이 새끼들 진짜 나쁜 놈들이네! 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열정이 안 일어나지. 열정이 일어나야 지가 막 찾아 보고 찾아 보면 또 만나 보고 하면 거의 준 전문가 되고 뭐 이러는 건데.

〈자료 152〉 선배 집단 한 명과 심층면담 중에서(2017년 5월 24일)

좋은 탐사는 언제나 분노에서 나온다는 거는 맞으니까. 열 받음, 뺨쳐야 기사를 쓰는 게 기사를 쓰고 착수하니까요.

소명의식이 강한 선배 집단뿐만 아니라 후배 집단도 스스로 분노를 느껴야 탐사보도를 더 잘 할 수 있으며, 본인들도 많지는 않지만 그런 경험이 있다는 것을 당연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자료 153〉 후배 집단 한 명과 심층면담 중에서(2016년 8월 26일)

작년에 했던 것 중에 생략 노동자 분들 월급 백 몇 십만 원 받고 한달에 하루 밖에 못 쉬고 이런 분들 얘기가 있었거든요. 사장을 만나서 인터뷰 하는데 자기는 잘 췌다는 거예요 다. 엄청나게 어이가 없구나 사람이 이럴 수도 있구나 싶어 가지고.

〈자료 154〉 후배 집단 한 명과 심층면담 중에서(2017년 6월 30일)

노동자분들이랑 이렇게 억울 하신 분들과 얘기했을 때 더 같이 눈물도 나고. 그래서 맨날 000 선배가 너는 시민단체나 가라고 저한테 그러셨는데. 뭔가 〈뉴스타파〉에 와서 초반에 많이 취재했던 게 노동 문제였고, 현대차도 취재를 했었고, 정리해고도 취재를 했었고, LG 유플러스에서 죽은 사람도 취재 했었고 하면서 노동자들을 취재할 때 제일 화가 나고 분노가 나는 거 같아요. 분노하게 되니까 취재를 하게 되고 이런 거 아닌가 싶어요.

이처럼 참여자들은 “재미있다” 표현으로 자신들의 분노를 표현했고, 이런 반응이 나온 발제들은 대부분 취재로 이어져 보도됐다.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분노가 있어야 수용자들이 더 공감할 것으로 생각했고, 조직 내에서 이에 대한 이의제기는 없었다.

정리하면, 참여자들이 실천하는 좋은 탐사보도 기준은 말하는 기준과 비교하면 많은 것이 달라졌다. 말하는 기준이 독자적 취재와 변화를 중심으로 탐사보도 정의에 근접했다면 보는 기준을 거쳐 실천 기준에 오면 탐사보도 정의는 그 역할이 작아졌다. 우선 독자적 취재에서는 과정 보다는 결과에 방점이 찍혔다. 취재의 중요성은 여전히 강조되지만 말하는 기준의 취재가 과정, 즉 감춰진 진실의 추적이라면 실천 기준의 취재는 결과, 즉 경쟁을 위한 특종 성격이 강했다. 보도에 대해 수용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중요한 기준으로 부상했다. 수용자 흥미가 우선시 되면서 〈뉴스타파〉가 새로운 의제를 발굴 내지 형성하기 보다는 다른 언론사가 주도하는 의제를 추종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다. 말하는 기준에서 중요했던 변화는 실천 기준에서는 더 이상 언급되지 않았다. 즉 해당 보도가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목표로 하는지 또는 추구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줄어든 것이 아닌가 추측되었다. 차별화는 우리 시각으로 표현되지만 〈뉴스타파〉만의 시각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깊은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내가 분노하면 수용자도

분노할 것이라는 믿음 하에 참여자의 분노가 중요한 기준으로 부상했다. 말하는 기준이 추상적, 이성적, 논리적, 원칙적, 전체, 명분의 성격이 강하다면 실천 기준은 구체적, 감정적, 경험적, 현실적, 개인, 실리의 성격이 강했다.

지금까지 논의한 바를 정리하면 <표 19>와 같이 요약될 수 있다.

<표 19> 좋은 탐사보도의 말하는, 보는, 실천 기준 비교

	말하는	보는	실천	특징	탐사보도 모형
독자적 취재	상	상	상	과정에서 결과로 중요도 저하 참여자 분노 중심	가치토론 제약
변화	상	하	하		함몰, 근본주의
분노	하	중	중		홍분, 공격적
차별화	하	중	중		
의미 전달	하	상	하		
영상	무	중	무		
수용자 흥미	하	중	상		면죄부

말하는 기준에서 보는 기준, 그리고 실천 기준으로 오는 과정은 정의감 또는 사명감에서 생존 또는 경쟁으로 중심 이동이었는데 탐사보도의 세속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제2장 제1절에서 제시한 소명의식과 가치자유를 기반으로 한 탐사보도 모형에서 가치자유 실천은 좋은 탐사보도 측면에서 보면 말하는 기준과 상통한다. 모형은 가치연관, 즉 취재 대상 선정과 취재 목적 설정에서 변화를 중시한다. 또 가치토론의 측면에서 보면 결과보다는 과정을 우선시하며, 이때 언론인의 분노는 이성에 의해 통제되는 열정이어야 한다.

그러나 탐사보도의 세속화는 가치자유 실천에서 이탈해 가치함몰로 가는 과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변화의 대상이나 취재 목적이 불분명할 경우 언론인은 자신의 가치나 이념에 함몰된 근본주의적 태도로 빠질 수 있다. 감춰진 진실의 추적에서 경쟁을 위한 특종으로 중심이 이동하면서 결과에 집착한 나머지 면밀한 가치토론을 소홀히 할 수도 있다. 또 수용자의 분노보다 언론인 스스로의 분노가 앞서면서 보도는 비창조적 홍분이나 공격성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이 외에도 차별화 만을 강조하다 보면 <뉴스타파>의 정체성과 직결되거나 <뉴스타파>가 꼭 있어야 할 취재를 포기할 위험도 있다. 그리고 수용자의 흥미는 모든 세속화 과정에 대한 면죄부로 기능할 것이다.

앞서 참여자들이 탐사보도라는 소명을 실천하면서 가치함몰에 빠져 나타나는 문제들(대선 검증 보도 문제점과 앰부시 과잉)은 동시에 세속화의 결과라고 할 수도 있었다. 따라서 탐사보도에서 가치함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언론인 스스로 실천 기준에서 말하는 기준으로 회귀하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과정이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제 5 절 소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복기(반성과 혼돈)

〈자료 155〉 전체회의 대화 중 김용진 발언(2017년 4월 3일)

올해 여러가지 환경변화들이 예상되고 2012년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조직 꾸린 것은 2013년이고 4년 정도 지났는데 앞으로 올해, 내년 정도가 우리 조직이 이 사회 이 언론 생태계에서 진짜 필요한 조직인지 아닌지 판가를 날 수 있는 시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역량들 좀 더 강화하고 진짜 우리가 필요한 조직이라는 것을 각인시킬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되겠고 큰 도전들이 예상되지만 다른 한편으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4년 간은 다른 매체들, 주류매체들이 안 하는 것을 하면서 우리의 차별성이 부각이 됐다면 앞으로는 다른 매체들이 못하는 것들 다른 매체들이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해야 우리가 살아 남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전제는 우리 성원들이 역량을 갖추고 실력을 갖추고 못하는 것들을 할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고... 큰 틀에서는 우리 구성원들 모두가 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1. “다른 매체들이 안 하는 것을 하면서” 차별화

사람들이 자기 일을 계속 이어가면서 많은 결실을 내려고 할 때 우리는 보통 직업이라고 부른다. 베버는 직업에 두 가지 의미를 담았다. 직업을 생업으로 생각하며 직업에 의존해서 사는 유형과 소명으로 생각하며 위해서 사는 유형이다. 베버는 Beruf를 선택함으로써 직업을 생업으로 삼을지 소명으로 삼을지를 당시 독일 정치가들에게 묻고 있었다. 베버가 요구하는 소명의식은 가벼운 신념이나 책임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 또는 명령에 버금가는 무게를 가진 헌신이었다.

참여자들은 본인들의 소명의식에 충실했다. “독립언론, 자유언론”, “저널리즘”,

“이명박근혜”, “탐사보도”라는 공유하는 큰 소명의식 아래에서 개인들은 자신들이 선호하는 신념을 보도에 투영해 왔다. 성공적인 보도가 나가면 박수치고, 축하했고, 각종 상도 받았다. 참여자들은 해직과 퇴직이라는 도덕적 우위를 바탕으로 다른 언론인, 언론사의 잘못이 눈에 들어오면 가차 없이 공격했고, 권력 감시라는 탐사보도의 본령에 기대어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대한 비판적인 보도를 쏟아 냈다. 국정원 대선 개입과 간첩 조작, 세월호, 나경원 딸 부정 입학 의혹, 조세도피처, 이견희 성매매 등 굵직한 탐사보도가 성공했을 때 참여자들의 자신감은 더욱 커졌다.

다른 언론인들이 회피한 시각만 가지고도 <뉴스타파>다운 무언가를 말할 수 있었고, 다른 언론인들이 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기에 그런 것만 가지고도 차별화를 할 수 있었고, 거기에 뭔가 깊이 있는 탐사보도가 나오면 특종이었다. <뉴스타파>는 성공하고 다른 언론사들은 실패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계속된 보도로 몸은 힘들지만 참을 만했다.

탐사보도의 성공은 때로는 다른 언론사의 실패를 의미한다. 탐사보도에 대한 평가에서 그 동안 간과되어 온 측면이 있는데 탐사보도가 저널리즘의 혁신과 발전을 견인한 측면이다. 탐사보도 언론인들은 새로운 취재 방법과 이야기 서술(storytelling) 방식, 그리고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저널리즘의 방법을 확장시켰다. 잠입 취재나 밀착 취재 등 현재 저널리즘에서 사용되는 고난도의 취재 기법은 대부분 탐사보도 언론인들의 희생을 무릅쓴 노력을 통해서 정착된 것들이다(Shapiro, 2003, p. xxii). 훌륭한 탐사보도는 감춰진 진실을 폭로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일반 보도의 실패를 드러내는 것이기도 했다. 수년간 일반 기자들이 놓치거나 실패한 것들을 찾아냄으로써 저널리즘의 잘못을 확인하고 반성을 이끌었다(Berry, 2009, p. 211). 즉 탐사보도의 성공은 저널리즘의 실패이기도 하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뉴스타파>의 상황은 이전과는 반대로 변했다. 다른 언론은 성공했고 반대로 <뉴스타파>는 실패했다. 몇 달 사이에 참여자들 내에는 이제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위기의식이 생겼고, 그동안 보이지 않거나 잠재돼 있던 문제들이 하나씩 드러났으며, 해결책을 두고 백가쟁명식의 토론이 이어졌다. 다음은 참여자들 중 일부가 가진 술자리에서 나온 대화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보도 실패에 대한 토론 부분이다.

〈자료 156〉 선배 집단과 일상대화 중에서(2016년 12월 20일)

참석자 1: TV조선에서 했는데 그 다음에 그걸 지나서 한겨레가 또 했잖아. 그때도 우리가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이걸 놓치면 큰일나겠구나 라는 경각심이 없었어. 그렇지? 한겨레가 그냥 쪽 보도하도록 그냥 놔 두었어. 그러면서 우리는 다른 일 했어. 그리고 마지막에 JTBC에서 짹짹 터뜨린 거야. 짹짹 터뜨렸는데 그것도 몇일 지나서 우리가 팀을 만든 거 아니야. ... 이거 문제야. 이거 진짜 문제야. 이거는 생존이 안 돼 이래가지고. 정말 이거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있잖아 우리가 일보를 못하더라도 최소한 TV조선에서 그걸 할 때 아 이거 심각한 얘기가 나왔다, 누구 한 명이라도 여기에 한 번 이거 따라 붙어야겠다, 누구 하나 딱 너는 무조건 이거 해 무조건. 이렇게 하는 체제로 돼야 돼. 아니면 두 번째 그게 안 되면 한겨레가 할 때도 어쨌든 아 이거 아닌데 이거 앞으로 이거 곤란한데 야 이거 좀 해라 이렇게 하든가. 이게 지금 안 되는 거야. 뭐냐? 우리는 뭐냐 하는 거야? 원인이 뭐냐는 거야?

참석자 2: 다 제 잘못입니다.

참석자 1: 자기 잘못이라고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시스템에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야. 누구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야. 이것을 고쳐야 살아남는 거야. 〈뉴스타파〉가 살아 남으려면 무조건 이걸 고쳐야 돼. 이것을 못 고치면 절대로 못 산다.

연구자: 구체적으로 어떤 거?

참석자 1: 이렇게 사건이 일어날 때 멍청하게 보고 있는 거. 그러면서 그냥, 그냥, 그냥 중요하지 않은 거를 막 계속 이렇게 국민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걸 막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국민들이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가 흘러가는 거를 그냥 놔두는 이런 거는 아니라고 봐.

...

참석자 3: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는 아이템들을 매번 그래야만 된다는 게 아니고 뭔가 이 사건이 간단치 않다라는 게 판단이 딱 들잖아. 그러면 취재하는 거 다 스톱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한 번 해보자 해가지고 짹 집중하는 이런 맛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까지 우리가 어쨌냐면 3, 4명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해서 너네 그걸 한 번 말아봐 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다른 거 했던 말이야.

참석자 2: 맞아요.

참석자 3: 이 사건이 엄청 커졌을 때 문제가 되는 거지.

술자리 대화에서도 나타나듯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동안의 <뉴스타파> 보도에 대한 참여자들의 자체 평가는 실패였다. 심층면담에서 “그래도 선전했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뉴스타파> 규모에 비해 그랬다는 얘기로 <뉴스타파> 보도가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점은 인정할 정도로 참여자들 대부분은 실패한 보도로 평가했다. 따라서 실패를 교훈 삼아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뉴스타파>가 생존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나타났다.

그러나 실패의 원인에 대해서는 참여자들 사이의 진단이 달랐다. 크게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뉴스타파>의 능력은 되는데 당시 상황에 대한 판단을 잘못해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는 의견이다. 일종의 판단 미숙 또는 실수라는 쪽이다.

<자료 157> 선배 집단 한 명과 심층면담 중에서(2017년 6월 16일)

우리가 기회를 놓쳤다 라는 생각이 있어서 실패라는 느낌이 강한 거 같아요. 초창기에 우리가 그것을 취재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차례 있었는데 그 기회를 여러 번 놓치고 나중에 뒤늦게 따라붙어서 만회하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판단을 잘 해서 초창기에 일찍 들어갔더라면 사람들의 기대에 한 번 더 부흥하는 결과가 있을 수 있지 않았나.

<자료 158> 선배 집단 한 명과 심층면담 중에서(2017년 4월 3일)

이게 중대한 사안이라는 막연한 생각들은 널리 퍼져 있었는데 내부적으로도 그거를 집중해서 어떻게 취재하고 어떻게 보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거의 없이 이제 그냥 크게 한방 얻어 맞고 그 다음부터는 약간 반쯤이 정신으로 막 흘러갔던 것 같아서.

두 번째는 보다 회의적인 시각인데 <뉴스타파>의 실력이 모자라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의견이다.

<자료 159> 후배 집단 한 명과 심층면담 중에서(2017년 6월 28일)

실패했죠. 그 우리의 실력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그런데 그거가 단순히 최순실 TF팀에 있었던 사람들만의 실패가 아니라 그때 당시 모든 기자가 그 사안을

취재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그 상황에서 <뉴스타파>를 봐야 될 이유가 없었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그 시기는. ... 그런데 저 역시도 이게 진짜 역량이 딸리는구나 느꼈고 그리고 그거를 저뿐만 아니라 해내지 못하는 또 선배들도 보면서 이게 다 전반적으로 역량이 딸린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료 160> 후배 집단 한 명과 심층면담 중에서(2017년 6월 30일)

참여자: 전 실패라고 보죠.

연구자: 왜 특종도 하고 했는데 왜 실패야?

참여자: 의미 있는 특종이 아니고 특종을 하기 위한 특종이었고 뭐라도 해야 되니까. 그게 뭐 바뀐 것은 없고 너무 늦게 뛰어 들어간데다가 늦게 뛰어들면서 취재원이랑 접촉이 하나도 안 되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전에 <뉴스타파>는 남들이 보도 안하는 것을 주로 다루었기 때문에 다른 언론사의 보도와 직접 비교될 기회가 없었지만 게이트 이후에는 한 가지 이슈를 두고서 경쟁을 해야 했고 결과가 성공인지 아닌지가 스스로의 눈에도 선명하게 보였던 것이다. 때문에 당시 취재에 직접 투입됐던 참여자들 사이에는 열등감이 강하게 퍼졌다.

참여자들은 과거를 되돌아보기 시작했고 새로운 것을 자각했다. 게이트가 터지면서 장이 열리자 언론들은 보도를 쏟아내기 시작했고 자신들이 비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조중동/종편도 두각을 나타내면서 특종을 내보냈다. 그동안 노력했던 저널리즘 비판이라는 소명의식이 자신들의 노력이 아닌 타의에 의해 해소된 것이다. 박근혜 정권에 대한 비판에서도 이미 대세가 형성된 상황에서 참여자들은 큰 기여를 하지 못했다. 결국 권력 감시라는 소명의식을 더 이상 내세울 수 없게 됐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이후에는 남아 있던 소명의식도 사실상 해소됐다. 이런 상황에서 위기의식을 더욱 가중시킨 것은 한국 언론에서 최고라고 자부했던 탐사보도에서도 자신감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탐사보도는 참여자들의 자존심이었지만 그 동안의 자신감이 과신이나 자만이 아니었나 하는 반성이 생기기 시작했다. 참여자들의 마지막 자존심까지 흔들리기 시작한 셈이다.

〈자료 161〉 선배 집단 한 명과 심층면담 중에서(2017년 6월 16일)

우리가 그동안 잘 해왔지만 잘 해온 것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판단과 역량이 충분히 쌓여서 그것이 넘쳐 흘러서 발현되어서 잘 해왔던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운에 많이 의존해왔고 재수 좋게 혹은 조세도피처 같은 경우 해외 독점적인 네트워크? 이런 것들로 만들어 낸 특종이고 그렇게 보면 그냥 이제 언론에 큰 관심 없는 일반인이 보기에 〈뉴스타파〉가 마치 궁극의 언론사인 것처럼 취재를 엄청 잘하는 언론사인 것처럼 여겨지고 있는데 그런 기대가 좀 우리한테 과할 수 있다.

소명은 저절로 실력이 되는 것은 아니다. 소명의 과잉도 문제지만 과신도 문제다. 우호적인 조건에서 소명만 있으면 저절로 실력으로 보이던 때가 있었고 이를 진짜 실력으로 착각했던 측면이 있었다. 다른 언론사들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것을 〈뉴스타파〉는 하고 있다는 과신과 자만이 아니었나 하는 반성이 시작됐다. 우호적이면서 기회였던 주변환경이 정권이 바뀌면서 위험요소로 변했고 참여자들은 돌파구를 찾아야 했다.

2. “다른 매체들이 못하는 것을 해야” 생존

참여자들이 그동안 구현하고자 노력했던 세 가지 소명의식 중에 ‘저널리즘’과 ‘이명박근혜’는 해소되거나 〈뉴스타파〉의 장점으로 주장할 수 없게 됐고, 탐사보도에서도 자신감이 흔들리는 상황이었다. 한 마디로 저널리즘은 풀렸고, 이명박, 박근혜는 사라졌고, 경쟁력은 의심됐다.

김용진이 전체 구성원들 앞에서 “우리 조직이 이 사회 이 언론 생태계에서 진짜 필요한 조직인지 아닌지 판가름 날 수 있는 시기가 될 것 같아요. ... 앞으로는 다른 매체들이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해야 우리가 살아 남는다”고 말한 것은 위기의식이 정점에 이를 때였다. 김용진을 포함한 참여자들이 탐사보도 방법을 몰라서 이런 위기감을 느끼는 것은 아니었다. 참여자들 가운데 선배 집단의 경우 앞서 설명했듯이 탐사보도 전문가들이라고 평해도 무방할 정도로 탐사보도 기능에서 탁월했다. 하고 싶은 보도만 할 수 있다면 행복해 하는 사람들이지만 “평생 탐사보도 언론인으로 남겠다”는 신념의 순수성을 고수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다.

우선 회원 독립성이 걸림돌이었다. 탐사보도에서 원칙적으로 문재인 정권도 검증이나 비판 대상에서 예외일 수 없다. 그러나 이미 경험했듯이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 보도가 나갈 때마다 회원들이 대거 이탈하는 사태가 발생했고 이는 조직의 재정적 기반을 위협했다. 초창기 〈뉴스타파〉가 안착하고 성장하는 데 회원들의 기여는 결정적이었다. 그런 만큼 회원들의 뜻에 반하는 보도를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로 특히 조직의 기반이 흔들릴 수도 있는 상황에서 탐사보도 원칙을 어디까지 고수할 것인지 결정이 쉽지 않았다.

현장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참여자들은 천장과 지옥을 겪었다. 분기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였다. 언론 통제라는 보호막 속에서 반사이익을 누리며 자신감을 가졌지만 게이트 이후 갑자기 냉혹한 광야에 던져졌다. 구현하고자 노력했던 소명의식 가운데 남은 것은 탐사보도로 참여자들이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는 영역이었다. “정권이 바뀌었으니 이제 원래 자리로 돌아가라”는 시선을 극복하는 길은 탐사보도 전문 언론으로서 존재 가치를 스스로 증명하는 것뿐이었다.

제 7 장 소명의식과 가치자유의 결합

탐사보도 언론인의 전문성은 무엇인가? 언론인은 어떻게 하면 탐사보도를 더 잘 할 수 있을까? 탐사보도를 잘하는 언론인과 못하는 이의 차이는 무엇인가? 탐사보도를 잘하는 이들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탐사보도 전문성이 아닐까? 제7장에서는 이런 질문들에 대해 현장연구를 통해 얻은 연구자 나름의 답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세 번째 연구문제에 대한 연구 결과이다.

연구자는 베버의 소명의식과 가치자유 이론을 탐사보도에 적용하면서 소명의식과 가치자유 결합의 능수능란함, 그리고 그 능수능란함이 탐사보도 정의(진실, 폭로, 변화)와 부합할 때 장인의 기능과 같이 탐사보도 전문성이 쌓여갈 것이라는 가설을 제시한 바 있다. 소명의식의 실천에서 개인이 미숙할 때는 조직이 미숙함을 보완해 주고, 궁극적으로는 조직의 보완이 필요 없을 정도로 능수능란해지면 탐사보도 전문성이 형성된다는 가설이다. 특히 능수능란함은 소명의식과 가치자유의 자유로운 결합을 실질적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연구자의 생각이다.

한 연구에 따르면 중세 장인 작업장에서 권위는 도제-직공-장인의 수직적 위계로 구체화 됐는데 도제가 직공이 되는 데는 보통 7년, 직공이 장인이 되는 데는 5년에서 10년이 걸렸다고 한다(Sennett, 2008/2010, p. 103). 아인슈타인과 피카소, 스트라빈스키, 엘리엇, 그레이엄, 간디를 연구했던 가너(Gardner, 1993/2004)는 10년의 견습기간을 거쳐야 중대한 혁신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유리를 부는 기술의 경우 장인이 되는 데는 20년 정도가 걸렸다. 성악의 경우 정밀한 연구의 결과는 아니지만 보통 전문가가 되는 데 10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경험적으로 판단하고 있었다(김한미, 2009, p. 107). 따라서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시대에 따라 분야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기능의 역사가 오래 되어 축적된 기록이 많아 비법을 전수하는 방법 등이 체계화되어 있을수록 전문가가 되기 위한 시간은 단축될 수 있을 것이다. 기능의 전수와 이를 통한 숙련된 전문가로 인정받는 과정을 거치면 사람은 스스로 받을 디디고 설 수 있는 터전이 생기고 만족감과 자부심 등을 느끼게 될 것이다.

여기서 보다 구체적인 질문이 제기된다. 선행연구에서 검토된 전문직의 세 가지 측면 즉, 조건, 정신, 실천 중에서 정신과 실천에서 탐사보도 언론인의 전문성을 구성하는 실질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전문성은 어떻게 공유하고 전수할 것인가? 탐사보도 전문가가 되는 데는 얼마의 시간이 필요한가? 예비 관찰을 하던 2014년 12월 선배

집단의 한 참여자는 후배들의 성장, 즉 탐사보도 기능을 숙달해 가는 것에 대해 막연하지만 기대를 하고 있었다.

〈자료 162〉 선배 집단 한 명과 일상대화 중에서(2014년 12월 9일)

연구자: 큰 고민이겠네. 결국 그 친구들이 끌고 가야 되잖아.

참여자: 끌고 가지. 내가 보기엔 5년 정도면 괜찮아 질 거고, 7년 후면 지 앞가림 하겠지. 처음 기획 단계부터 모든 과정. 5년 정도 까진 계속 경계 하면서 이렇게 봐줘야 할 것 같고 10년 정도 되면 완전 앞가림 하지 않을까.

연구자: 훈련이나 이런 거 시킬 수 없었네. 교육이나 이런 걸?

참여자: 바로 투입했는데 거의 없었지. 하면서 편집도 배우고.

그러나 이후 3년 6개월이 지난 시점, 즉 현장연구가 끝나는 시점에 선배나 후배 집단 모두 교육이 실패했다고 생각했다. 선배 집단은 “취재의 깊이가 떨어져”, “굉장히 맛있는 기사가 나와”, “애들이 무서워해 취재원들을” 등의 불만을 후배들에게 갖고 있었고, 후배 집단은 그동안 기능을 숙달할 적당한 기회조차 갖지 못했고 이제는 그렇게 할 동기부여도 되지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2014년 11월 예비 관찰을 시작할 당시 〈뉴스타파〉에는 공채로 입사한 지 한 달 정도 된 기자가 있었다. 연구 참여자 중 한 명인 정재원²²이다. 당시 연구자는 정재원이 앞으로 〈뉴스타파〉에서 탐사보도를 배워가는 과정이 궁금했고 연구에도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지만 예비 관찰이 중단되면서 더 이상 연구로 이어가지 못했다. 이후 2016년 3월 본격적인 현장연구를 시작했을 때 정재원은 입사 후 2년 5개월 정도가 된 상태였고, 여전히 〈뉴스타파〉에서는 막내 기자였다. 연구자는 이후 정재원에 대한 본격적인 추적 관찰에 들어갔고 심층면담은 물론 식사와 술자리 등을 자주 가졌다.

정재원에 대한 연구 결과는 그가 최승호와 관계 속에서 체험한 최승호의 탐사보도 실천과 전문성에 초점을 맞춰 제시하고자 한다. 이후 소명의식과 가치자유 관점에서 최승호를 다시 평가한다. 정재원에게 최승호는 “〈뉴스타파〉에 오게 된 중요한 계기”였고 “롤 모델 같은 사람”이었다. 예를 들어 대학 졸업 후 1년여 시민단체에서 활

22. 정재원의 경우 뒤이어 설명되는 연구결과에서 그의 보도와 보도 취지 등에 대한 직접 언급이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뉴스타파〉 홈페이지나 유튜브 등에서 누구나 쉽게 실명을 확인할 수 있어 익명으로 처리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연구 내용과 분석 결과를 사전에 설명했으며 본인의 동의를 받아 실명을 쓰기로 했다.

동안 후 시사 PD를 꿈꾸던 정재원은 언론사에서는 “사측과 제작진 간의 자유로운 의견 표명이 있어야 공정한 방송이 가능하다”며 “노동조합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최승호의 프로필을 보던 중 그가 〈MBC〉 노조위원장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 사람이 자기 방송만 잘 만들고 잘 파는 것에만 집중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부의 어떤 의사결정이나 이런 것에서도 노력을 많이 했던 사람이구나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자료 163〉 정재원과 심층면담 중에서(2016년 8월 26일)

최승호 PD가 제 롤 모델이었어요. 시사프로그램 PD, PD수첩 같은 걸 만들고 싶었던 거죠. 〈뉴스타파〉는 모집을 기자나 피디 이렇게 하지 않고 탐사저널리스트라고 했고 그게 딱 제가 생각하는 그 역할인 거 같아서.

〈뉴스타파〉에 합류한 후 정재원이 최승호를 업무를 통해 직접 체험한 것은 두 번이었다. 2017년 1월 26일 보도된 “급발진 사고’ 의혹 … 현대기차아·국과수가 덮었나’의 취재 과정에서 최승호로부터 받은 직접적인 조언과 영화 〈공범자들〉의 취재, 제작 과정에 조언출로 참여한 5개 월이었다.

제 1 절 소명의식과 가치자유 관점에서 최승호 분석

저널리즘에서 전문직주의는 상업주의의 팽배와 정치적 독립성 결여로 인한 신문의 실패에 대한 언론의 대응 전략 중 하나였다. 그러나 언론인이 전문직이라는 주장을 하면서도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전문성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합의 상태이다(McQuail, 2005/2008, pp. 214-217).

〈뉴스타파〉 내에서는 탐사보도를 잘하기 위한 또는 탐사보도 전문가가 되기 위한 경로로 두 가지 의견이 있었다. 첫 번째, 전문지식 모델로 기자나 PD 개인이 자신이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하고 싶은 분야를 정해 적극적으로 지식을 쌓고 취재원을 구축하면서 전문가가 되는 방식이다. 현장연구를 시작할 당시 취재팀 구성이 공직감시, 재정/금융, 사법정의/인권, 공공안전/보건, 교육/문화, 외교/안보로 나뉘어져 있었던 것은 전문지식 모델을 근거로 한 구분이었다. 두 번째는 소명의식 모델로 전문지식이 있다고 탐사보도를 잘 하는 것이 아니라 소명의식을 갖고 한 분야를 집중적으로 파다 보면 어느새 전문가가 된다는 방식이다.

연구자는 현장연구 후반 참여자들과 심층면담을 진행하면서 탐사보도 전문성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탐사보도를 잘하는 언론인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가?”, “〈뉴스타파〉 내에서 탐사보도 전문가를 뽑는다면 누구인가?”의 질문을 했다.

1. 참여자들의 최승호에 대한 평가

다음 자료는 탐사보도 언론인으로서 다른 언론인 보다 낫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있냐는 질문에 대한 최승호의 답이다. 오랜 탐사보도 실천에서 나온 그의 대답에는 진실과 변화, 그리고 폭로를 위한 집요함이 핵심이었다.

〈자료 164〉 최승호와 심층면담 중에서(2018년 12월 28일)

이 정도는 안 돼. 이 정도로는 진실을 드러내는 거라고 할 수가 없어 좀 더 해야 돼. 끝까지 더 가야 돼. 더 가서 다 파봐야 된다는 이야기들은 후배들한테 하면 그거는 할 수 있는 것 같아. 하다가 뭐가 나오는 것 같으면 빨리 보도하려고 애쓰잖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나는. 단편적인 얘기니까. 요만한 팩트가 나와 가지고 그것이 포털에 제목으로 조금 걸리고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배후에 있는 큰 진실을 스토리텔링을 정말 제대로 해 가지고 큰 얘기들을 한 묶음으로 시민들한테 전달을 해야 사회가 바뀌는 거지. 단편적으로 이만한 거를 꼬집어 내 가지고 던져서 그 순간에 뷰 수가 올라가고 칭찬은 들을 수 있을지 몰라도 남지는 않죠. 남는 것은 아니죠.

〈뉴스타파〉 내에서 탐사보도 전문가를 뽑는다면 누구인가? 참여자들이 가장 많이 지목한 사람은 최승호였다. 선, 후배 집단 구분 없이 최승호를 지목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특징은 대부분 관찰자로서의 평가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그들이 최승호를 전문가로 보는 이유는 일반 수용자의 시선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우선 〈뉴스타파〉 내에서 최승호가 보여준 탐사보도 성과가 전문가로 뽑히는 이유였다. 이는 좋은 탐사보도 기준 중 말하는 기준, 다시 말해 탐사보도 정의의 관점에서 최승호가 가져온 변화에 대한 평가였다.

〈자료 165〉 후배 집단 한 명과 심층면담 중에서(2017년 6월 27일)

최승호 선배 〈자백〉이 되게 굼직한, 너무 뻔한 얘기지만, 되게 굼직한 그 국가 권력이 한 탈북자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그것들을 추적해 해서 이 인생도 복원해 내면서 국가의 잘못된 부정한 행위도 동시에 저격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되게 훌륭하다고 생각했어요.

최승호는 1986년에 〈MBC〉에 PD로 입사했다. 따라서 현장연구가 이뤄지는 당시 그의 PD 경력은 이미 30년을 넘었다. 그런데도 집요하게 현장 취재를 하는 열정을 참여자들은 부러워했고 동시에 존경했다.

〈자료 166〉 선배 집단 한 명과 심층면담 중에서(2017년 6월 16일)

최승호 선배 나이에 최승호 선배 정도 될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자료 167〉 후배 집단 한 명과 심층면담 중에서(2017년 6월 30일)

최승호 선배는 나이도 많으신데 현장에 많이 가시잖아요. 사람도 많이 만나고 그런 거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또 무미건조해지기 쉬운 탐사보도에서 수용자의 흥미를 끌만한 요소를 추가해 보도의 이야기 구성력을 높이는 PD적 감각도 높게 평가됐다.

최승호에 대한 앞선 평가들이 대부분 관찰자의 시점이라면 최승호와 같이 일을 해 본 경험이 있는 참여자들은 그의 장점이나 그로부터 배운 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묘사했다. 예를 들어 다음은 영화 〈자백〉에서 최승호의 조연출을 했던 참여자가 최승호로부터 배운 점을 말하는 부분이다.

〈자료 168〉 후배 집단 한 명과 심층면담 중에서(2017년 6월 22일)

도움이 진짜 많이 돼요. 이거를 안 하면 이거를 하면 좋고 안 하면 어쩔 수가 없고가 아니라 이거는 안 하면 보도가 힘들어진다는 느낌을 이제 받게 되는 거예요. 점점. 그런 치열함이 어찌면 우리가 가지는 장점인 것 같기도 하고.

따라서 최승호가 탐사보도 전문가라면 그가 체득한 전문성의 진면목은 간접 관찰 보다는 직접 체험을 통해 더 잘 포착될 것이며 어쩌면 이 방법이 탐사보도 전문성을 탐색하는 최선의 방법일 가능성도 있다. 좋은 탐사보도 조직이라면 이런 체험이 구성원들 사이에 공유와 전수되고 이를 통해 그 사람은 왜 저런 생각을 하는지, 왜 저렇게 반응하는지, 오랫동안 탐사보도를 한 사람들 사이에는 왜 저런 공통점이 나타나는지 등에 대한 자연스러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탐사보도를 잘하는 언론인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가? 참여자들이 가장 많이 언급한 것은 소명의식 모델의 대표적인 특징인 집요함으로 대표될 수 있는 것들이었다. 예를 들어 “집념”, “끈질김 같은 거”, “열정, 적극성”, “질긴 사람 끈질긴 사람”, “한 분야를 파야” 등이었다.

〈자료 169〉 후배 집단 한 명과 심층면담 중에서(2016년 8월 26일)

연구자: 탐사보도 기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참여자: 집념이요.

연구자: 집념?

참여자: 네 포기하지 않는 집념 이걸 내가 밝혀내겠다는 집념.

〈자료 170〉 선배 집단 한 명과 심층면담 중에서(2017년 6월 23일)

한 분야를 디립다 파야지. 그런데 한 분야만 파면 그 분야만 나오나 우리가 알지만 다 연결돼 있잖아. 이 분야 파면 아 이쪽도 그러네 이쪽도 그러네 다 이렇잖아. 공공기관 하면은 아 이쪽도 마찬가지로 저쪽도 마찬가지로 다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점점 전문성이 쌓이고 좋은 기자로서 인정을 받고. 그러다 보면 뭐 이쪽 분야도 저쪽 분야도 다 커버가 가능한 기자가 되는 거.

특징은 참여자들이 자신들의 경험, 즉 탐사보도를 하면서 성공, 실패 또는 스스로 느낀 부족함에서 집요함의 중요성을 절감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다음 자료에 나오는 선배 집단 참여자는 열정과 끈기를 바탕으로 불가능할 것 같은 취재를 성공시킨 경험이 있었고, 그런 희열은 〈뉴스타파〉에 와서 처음 느낀 것이었다.

〈자료 171〉 선배 집단 한 명과 심층면담 중에서(2017년 7월 2일)

열정도 비슷한 말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자꾸 여기서 막히는데, 확인해야 될 게 막히는데, 하다가 뭐 포기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뭐 여기까지만 하자. 그러다 보면 이제 의혹으로 덮어지고 마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찾아 보면 또 확인되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여기에 와서 성장한 게 그전과 달리 이것도 동원해보고 저것도 동원해보고 하다 보니까 풀리고 하면서, 어느 순간이 그거 하나 풀리다 보니까 혹 가는게 생기더라고요. 열정과 끈기.

반대로 후배 집단의 한 참여자는 자신이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특종 기사를 쓰지 못하는 것은 집요함이 없기 때문이라며 자책했다. 또 집요함의 부족을 스스로의 단점으로 생각하는 참여자도 있었다.

〈자료 172〉 후배 집단 한 명과 심층면담 중에서(2016년 8월 26일)

참여자: 특종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거는 기자생활 통 털어서.

연구자: 그게 무슨 소리야?

참여자: 끈기가 부족한 거 같아요 끈기가.

연구자: 특종을 해본 적이 없다니?

참여자: 사회적으로 정말 반향이 될만한 그런 특종 있잖아요. 그런 특종을 해본 적이 없는 거 같아요.

연구자: 왜 그런 거 같아?

참여자: 약간 조금 글썽요. 끈기도 조금 부족한 것 같고 아직은 잘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연구자: 아직은?

참여자: 선배들이 그런 노하우 좀 잘 전수해줬으면 좋겠는데.

소명의식 모델의 특징인 집요함은 미국 탐사보도 역사에 기록되고 있는 명작을 남긴 언론인들에게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특징이었고, 미국의 한 대학이 20세기 100대 저널리즘을 선정하는 기준이기도 했다. 여기에 〈뉴스타파〉의 참여자들 스스로도 체험을 통해 집요함을 탐사보도를 잘하기 위한 가장 필요한 요소로 느끼고 있었다. 따라서 집요함은 탐사보도 언론인의 전문성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집요함 다음으로 많이 언급된 것은 전문지식이었는데 그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모두 후배 집단이었다. 선배 집단의 경우 <뉴스타파> 합류 이전부터 또는 이후 탐사보도를 통해 자신만의 전문성을 어느 정도 갖추었다고 보기 때문인지 전문지식을 강조하는 경우는 없었다. 그러나 후배 집단은 전문지식이 탐사보도 전문가가 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했다.

2. 정재원이 체험한 최승호

1) <뉴스타파> 기자 정재원

정재원은 2014년 10월 <뉴스타파>에 입사했다. <뉴스타파> 이전 그는 시민단체에서 1년 3개월, 장애인 활동보조인으로 1년 정도 일한 경험이 있는 PD 지망생이었다. <뉴스타파> 입사 후 교육은 “처음에 일주일 받은” 것이 전부였다. 당시 <뉴스타파>는 새로 합류하는 후배 집단들에 대한 교육 내용이나 방법 등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상태였다. 언론인이라는 직업 세계에 처음 발을 디는 초년병이 저널리즘 중에서도 가장 난이도가 높은 탐사보도에 바로 투입된 것이다. 이후 1년 7개월이 지난 2016년 5월 선배 집단 중 한 참여자는 연구자에게 “주니어 중에서 가장 학습 속도가 빨라. 아마 1~2년 안에 바로 위 선배들을 추월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정재원이 탐사보도에 잘 적응하며 기능도 빠르게 배워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2017년 1월 26일 보도된 “급발진 사고” 의혹 … 현대기아차·국과수가 덮었나”는 정재원이 시작부터 끝까지 혼자 주도한 취재였다. 보도는 사상 최대 규모의 리콜을 이끌었고 정재원은 방송기자연합회의 이달의 방송기자상(100회)을 수상했다. 당시 심사위원들은 “빈틈없는 취재와 완벽한 제작”이라며 호평했다. 정재원은 2015년에도 “현대기아차 위조 부품 사용” 내부 보고서 입수’(2015.09.08)와 ‘현대기아차, ‘자동차 품질 규격 미달 부품’ 3만 개 사용 확인’(2015.09.16)을 보도하는 등 “국내 자동차 결함과 관련해 국민들이 겪고 있는 여러 모순들을 해결하는데 사명감”을 갖고 있었다.

<자료 173> 정재원과 심충면담 중에서(2016년 8월 26일)

기본적으로 많은 아이템들은 분노에서 시작되거나 분노가 중간에 뭔가 연루가 되거나 하는 거 같아요 대부분의 아이тем들이 … 취재하는 국면이 있고 제작하는 국면 편집하는 국면이 있는데 모든 국면에 여러 가지 창의력들이 들어가는 거 같아요 제가 열정이 있는 아이тем이면.

2016년 8월부터 시작된 취재는 시간이 지나면서 현대기아차가 자동차 급발진 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의심되는 결함을 은폐하며 책임을 소비자에게 떠넘기고 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엉터리 조사 결과를 제시하면서 현대기아차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쪽으로 좁혀졌다. 정재원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두 가지에 집중했다. 하나는 진실을 말해줄 전문가 섭외였고 다른 하나는 공신력이 있는 자료 확보였다.

정재원이 한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이메일에는 다음과 같은 하소연이 들어있었다. 현대기아차에 맞서 소신껏 자신의 의견을 말해 줄 전문가를 찾는 과정에서 겪은 난관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자료 174〉 정재원이 자동차 전문가에게 보낸 이메일 중에서

작년부터 자동차 문제를 취재하고 있습니다만, 이쪽에서 확실한 팩트를 가지고 있어도 “가나다”라고 써 있는 자료를 보고 “가나다”라고 말해줄 전문가를 찾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 지금처럼 모두가 침묵한다면 저희가 아무리 떠들어봐야 실패할 가능성도 높을 겁니다.

정재원은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 이 사람 저 사람 용감하게 만나고 다녔고” “발품과 부지런함으로 한 승부”는 성과를 냈다. 전 국과수 교통사고분석과장이 퇴직 후 민간에 나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가 설득한 끝에 “국과수는 분석 능력이 없다. 국과수는 조사에 필요한 장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증언을 확보했고, “국과수가 사고 차량을 어설프게 조사했다”는 의혹을 가지고 있던 자동차 명장을 만날 수 있었다. 또 현대기아차의 전직 부장을 만나서는 현대기아차가 차량 결함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내부 자료와 증언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들을 통해 여러 피해자들을 만날 수 있었을 정도로 세 명의 전문가는 취재가 성공할 수 있었던 열쇠였다.

〈자료 175〉 정재원의 취재일지 중에서

취재를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깊어지게 하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니다. 가능성이 작게라도 있는 부분을 검토해서 발 품 팔아서 부지런하게 모조리 만나고 다니는 것, 그것이 거의 유일한 비결이다. 상대에게 내가 “같이 할 만한 믿을만한 사람이다” 라는 믿음을 주는 것은 부차적이지만 중요한 요소.

정재원은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활용했지만 그것 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돌파하기 위해 시도한 것이 크라우드소싱(crowdsourcing) 이었다. 정재원은 자동차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국내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진 현대기아차가 소비자를 대하는 태도에 문제가 없는지 검증하는데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며 현대기아차가 만든 자동차의 결함으로 의심되는 사고에 대한 제보를 요청했고, 관련 글이 올라올 때마다 게시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가능하면 직접 접촉하면서 신뢰를 쌓아갔다.

<자료 176> 정재원이 <보배드림>에 올린 글 중에서

품질, 가격, 결함 의심 사고에 대한 처리 방식, 리콜이나 보상 등 사후처리, 기타 여러 가지 면에서 국내외 비교를 통해 현대기아차에 대한 여론의 비판을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하나하나 검증해 볼 예정입니다. <뉴스타파>는 4만 명 가량의 후원회원의 회비로만 운영되는 언론사입니다. 지난번 이견희 회장 성매매 의혹 보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저희는 문제가 발견되고 근거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성역 없이 무엇이든 보도할 수 있습니다. 믿고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크라우드소싱은 최근 탐사보도에 새로운 희망을 더해준 취재 방법으로 2009년 <가디언>(The Guardian)의 신문판매원 톰 린슨(Ian Tomlinson) 사망 사건 추적 보도에 적극 활용된 바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었다. 언론인이나 언론사에 대한 신뢰다. 2009년 4월 1일 런던에서 벌어진 G20 정상회의 관련 집회 장소에서 신문판매원 톰린슨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최초 그가 직장에서 시위대 근처를 지나 집으로 가던 중 심장마비로 사망했으며 시위대 때문에 경찰의 응급처치가 늦어졌다고 발표했다. 언론들은 경찰 발표를 그대로 인용해 보도했고 톰린슨을 고용한 신문사는 경찰이 톰린슨을 구조하는 동안 벽돌로 공격을 당했다며 시위대를 비난했다. 그러나 <가디언>의 루이스(Paul Lewis) 기자는 사망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는 정황상 경찰 발표가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느꼈다. 루이스는 톰린슨이 숨졌을 당시 입고 있었던 옷에 착안했다. 그가 입고 있던 유명 축구팀의 티셔츠를 단서로 사망 당일 시위 현장을 찍은 보도 사진들을 뒤져 사진 속에서 그를 찾아 냈다. 사진 속에 포착된 톰린슨은 시위 진압 경찰 바로 앞에 누워 있었고 그가 최종적으로 사망한 장소에서 90미터 정도 떨어진 곳이었다. 그러나 더 이상 취재에 진전이 없었다. 루이스는 위험을 무릅쓰고 취재 내용을 온라인에

올린 뒤 네티즌과 정보를 공유하며 정보를 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며칠 동안 시위 현장에서의 톰린슨을 기억하는 증언이나 사진들이 신문사로 모여들었고 취재가 진행되는 과정은 다시 온라인 상으로 공유됐다. 이 과정을 미국 뉴욕에서 자니(Chris La Jaunie)가 모니터하고 있었다. 그는 톰린슨이 당시 시위 현장에서 경찰의 진압봉에 맞은 후 바닥으로 밀쳐지는 것을 카메라에 담아 가지고 있었고 이 사건이 온라인 상에서 이슈가 되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던 중이었다. 이후 그는 동영상을 루이스 기자에게 제보했다. 경찰의 발표가 거짓으로 밝혀지자 사망 사건에 대한 재조사가 이뤄졌고 톰린슨을 때리고 밀친 경찰관은 과실치사로 기소됐다(Lewis, 2011).

시민의 직접 참여는 사건이 터졌을 때 ‘최초의 규정자(primary definers)’로서 특권을 누렸던 경찰의 지위를 무너뜨렸다. 경찰 버전의 사건이 시민 버전의 사건으로 대체된 것이다. 워터게이트 스캔들, 미라이 학살, 베트남전 통킹만 사건 조작 등도 정부의 최초 규정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낸 탐사보도지만 이 보도들은 언론인이 단독으로 취재한 경우였다. 물론 내부의 비밀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원들의 도움이 있었지만 이들은 시민의 지위라기보다는 당사자 또는 관련자 지위였다.

〈가디언〉의 보도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을 통한 시민의 직접 참여가 탐사보도의 새로운 취재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시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정보를 요청하고 언론인들은 자신들이 찾은 정보를 다시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방식이었다. 결정적 증거를 얻은 것은 행운이었지만 온라인 공간에서 〈가디언〉이나 루이스가 신뢰를 얻지 못했다면 그런 행운은 오지 않았을 것이다. 루이스는 2010년에도 같은 방식으로 런던에서 양골라로 추방되던 사람이 항공기 안에서 사망한 이유가 사설 경호원들의 과도한 제압 때문이었다는 것을 밝혀냈고 관련자들은 기소됐다.

정재원에게도 행운이 찾아왔다. 〈보배드림〉을 지켜보던 한 국회의원실에서 먼저 연락을 해온 것이다. 해당 국회의원실은 현대기아차의 결함이나 리콜 문제와 싸워볼 의지를 가지고 있었고, 〈뉴스타파〉와는 삼성 문제로 꾸준히 협업을 해 온 터였다. “000의원실을 만나게 된 것은 정말 행운이었다.” 정재원은 자신의 취재를 되돌아 보면서 “귀한 취재 내용은 이 정도의 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며 끈기와 의지가 없었으면 실패했을 것이라고 회고했다.

〈자료 177〉 정재원의 취재일지 중에서

얼핏 보면 쓰레기더미처럼 보이는 대량의 자료들을 어느 날 밤 맘먹고

검토하고자 했던 나의 태도, 그것이 중요했다. 이런 행동을 만들어내는 것은 끈기, 의지, 관심, 몰입 같은 것인데 그런 게 있으니 이것저것 살피고 뒤져 보다가 좋은 애깃거리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자료 더미에서 (유족조차 모르고 있었던) 차에 치일 뻔한 남자, 트레일러 운전자 등의 연락처도 발견하게 되어, 원고 작성 마감일 직전에 그들 인터뷰까지 성공한 것이다.

데스크의 원고 승인이 난 상태에서 최승호가 직접 데스크와 정재원 등을 불러 회의를 소집했다. <뉴스타파>에서는 이례적인 일이었다. 최승호는 크게 두 가지를 지적하며 보완을 요구했다. 첫 번째는 보도가 비판하는 대상인 현대기아차와 국과수의 입장이 보도에 들어있지만 추가로 두 곳이 피해자나 소비자를 대신해 문제를 제기하는 <뉴스타파>의 취재에 어떤 태도로 대응해 왔는지를 자세히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시 말해 반론이란 상대방의 입장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해당 사안에 대해 갖고 있는 태도까지 포함된다는 것이다.

<자료 178> 정재원의 취재일지 중에서

우리는 영상을 하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비판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영상을 본 사람들 마음에 분노하고 싸워야 하는 대상의 이미지가 남는다. 이렇게 적들의 이미지를 암전하게 구성해 넣으면 뭐 빠진 찌뽕 같은 느낌이다.

현대기아차와 국과수를 보완 취재하면서 정재원은 “기자 생활 2년 반 만에 반론 취재의 의미를 제대로 느꼈다.” 추가 취재를 통해 국과수의 현직 교통사고분석과장의 증언을 확보했는데, 급발진 사고를 분석할 수 있는 장비와 인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그의 주장과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전직 과장의 주장을 직접 대비시켜 폭로 효과를 증가시킬 수 있었다. 두 번째는 “논리 구성상 중요한 진술을 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누구인지 설명을 해줘야 한다”는 지적으로 핵심 취재원들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설명이 추가되면서 보도 전체의 설득력이 더 높아졌다.

정재원은 보도와 이후 평가 과정에서 스스로 느낌 점을 다음과 같이 취재일지에 남겼다. 정재원의 회고는 그가 탐사보도 언론인으로서 스스로 한 단계 성장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자료 179〉 정재원의 취재일지 중에서

- 스스로 좀 애매하다고 생각했는데 귀찮다고 생각해서 넘어간 것들, 나중에 선배들의 검토나 데스크 과정에서 고스란히 질문으로 되돌아 온다.
- 한 줄 멘트로 처리해도 되는 것을 굳이 내 멘트도 하고 관련 인터뷰도 넣고 이러면 지루해진다.
- 소비자문제에서는 “이게 얼마나 나한테도 문제가 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 내각 생각할 때 가장 재미있는 부분이 핵심이며, 내가 처음에 뭐가 가장 재미있었는지를 항상 잃지 않고 그것만 톡톡톡 쳐놓고 지나간다는 생각으로 써야 한다.
- 성과를 내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는 감당해야 한다.
- 내가 모르는 과학 관련 내용을 구성하려면,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반드시 전문가에게 먼저 자문을 구하고 내용을 구성해야 한다.
- 자극적 영상 구성은 시청자에게 자극적 장면의 잔상 만을 강하게 남겨서, 내가 전달하고자 했던 주제에 대한 각인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조심하자.

자동차 결함으로 의심되는 사고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만 “힘을 가진 메이커들은 재판이든 여론전에서는든 항상 승리하고, 책임은 고스란히 피해자들이 짊어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한 정재원은 언론인으로서 “결과가 어찌 되든, 최선을 다해 내용을 만들고 양심적인 현장 전문가들과 제보자들과 힘을 합쳐 꾸준히 알려가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었다. 이런 신념 속에 5개월 동안 혼자서 열정과 끈기를 가지고 난관과 저항을 극복해 나갔다. 그리고 마지막 최승호의 조연은 화룡점정이었다. 정재원은 선배들에 대한 보조 역할에서 벗어나 홀로서기에 성공했고 탐사보도 언론인으로 성장해 가고 있었다. 이런 과정을 지켜본 선배 집단 참여자들은 정재원이 훌륭한 탐사보도 언론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한 달 보름 후, 정재원은 당시 최승호가 진행하고 있던 영화 〈공범자들〉의 조연출을 자원했고, 이는 정재원이 5개월 동안 최승호를 체험하는 계기가 됐다. 다음부터는 정재원이 최승호와 함께 일하면서 체험한 탐사보도 언론인으로서 최승호의 전문성에 대한 연구결과가 제시된다.

2) 최승호의 탐사보도 실천

(1) 완벽한 장악: “머릿속에 완전히”

정재원의 체험에 따르면 최승호는 “모든 것을 외우다시피 머릿속에 완전히 넣고 있었다.” 이런 완벽한 장악은 <공범자들>의 취재와 제작, 그리고 영화 상영 과정에서 제기됐던 여러 비판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발판이었다.

공영방송 개혁과 이를 위한 영화 제작은 최승호의 기획에서 출발했다. 때문에 문제의식의 강도나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에 있어서 최승호가 팀 내에서 가장 확고한 것은 당연했을 것이다. 그러나 최승호는 최초 기획자 이상의 업무 능력을 보여주었다. 최승호는 처음부터 가장 많은 자료를 보았고, 어떤 영상이 있는지 가장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어떤 것들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이런 거를 다 장악하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정재원에 따르면 <공범자들> 영화에서 최승호는 제작자이며 연출자, 동시에 시나리오 작가였다.

<자료 180> 정재원과 심층면담 중에서(2018년 1월 16일)

정재원: 심지어 중간에 내레이션도 최승호 선배가 다 썼어요.

연구자: 그래? 기본적 구성뿐만 아니고 글까지 본인이 쓴 거야?

정재원: 스토리는 우리가 회의를 해서 처음에 어떤 덩어리 어떤 덩어리가 어떻게 배치되어야 한다 그런 건 이제 토론을 통해서 합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거고, 그걸 실제 집필하는 걸 최승호 선배가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회의가 끝나면 구성안이 조금씩 바뀌잖아요. 그거 바꾸는 것도 최 선배가 직접 했어요. ... 최 선배 역할이 굉장히 컸죠.

연구자: 큰 스토리를 잡으면 000 작가가 쓰고 최승호 선배가 감수하고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거지?

정재원: 네.

연구자: 대단한 건데?

정재원: 그렇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를 주말에 계속 나와 가지고 막 계속 써 갖고 업데이트를 하고, 그럴만한 집중력과 그럴만한 체력이 또 있고, 그렇게 자기가 이제 다 머릿속에 넣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부분적 구성에서 사람들과 의견이 달라도 설득할 수 있고, ... 그걸 따라갈 순 없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완벽한 장악이 최승호가 모든 일을 다 처리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완벽한 장악 속에서 많은 일을 위임했고 이런 위임은 다른 팀원들의 창의력으로 이어졌다. 예를 들어 편집을 담당했던 팀원은 “내가 뛰어놀 수 있는 운동장을 마음껏 열어줬다 핵심은 자기가 다 잡고 있으니까. 자기가 봤을 때 팀원들이 잘할 수 있는 파트들이 있고 그걸 얼마든지 열어준다. 핵심만 놓치지 않으면”이라고 말했다. 정재원도 최승호가 “빠대가 되는 소수의 일은 자기가 책임을 지고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일들은 기꺼이 맡겨버린다”는 느낌을 받았다.

〈자료 181〉 정재원과 심충면담 중에서(2018년 1월 16일)

아주 빠대가 되는 소수의 일은 자기가 책임을 지고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일들은 기꺼이 맡겨 버린단 생각이 들더라고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스토리 펀딩 글을 편집하고 넘기는 일도 중요한 일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그냥 알아서 하라고 하고, 영상에 대한 것도 그렇고 되게 많이 맡긴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자기가 확실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선 자기가 확실히 하고 이를테면 그게 구성안을 짜는게 아닌가 싶어요.

완벽한 장악과 장악 속에서의 위임 아래 팀원들은 이견이 있더라도 조목조목 근거를 제시하는 최승호에게 설득됐고 그가 근거 없는 고집을 부린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없었다고 한다.

(2) 집요한 노력: “집중력도 실력”

〈뉴스타파〉 내에서 최승호의 집요함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었다. 최승호는 3년 동안 집요하게 국정원의 간첩 조작을 추적했고 보도뿐만이 아니라 영화 〈자백〉을 통해 그 실태를 폭로했다. 영화 〈자백〉에서 최승호의 조연출을 했던 참여자는 “최승호 선배한테 배운 거가 되게 큰 것 같아요”라며 집요함을 우선 뽑았다.

〈자료 182〉 후배 집단 한 명과 심충면담 중에서(2017년 6월 22일)

최승호 선배랑 하면서 더욱 명확해진 것 같아요. 재를 조져야겠다는 무조건 만나야 하는 거예요. 못 만나면 보도를 못 한단 생각으로 이 사람의 입장을

어떻게든 나는 들어야겠다는 거예요 최승호 선배는. 그게 가장 큰 비중이었고. 그리고 실제로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궁금증이 해소가 되고. 저 사람을 이 앞에 끄집어 낼 수 있는 카메라 앞에 그거에 대해서 단순히 안 되면 말고 가 아니라 단순히 전화로 끝내고 가 아니라 이 사람이 얼굴을 어떻게든 봐야겠다는 거예요.

최승호의 집요함은 선택이 아니었다. “이거를 하면 좋고 안 하면 어쩔 수가 없고가 아니라 이거는 안 하면 보도가 못 나간다”는 느낌의 집요함이다. 무조건 하는 것, 될 때까지 멈추지 않는 것, 그 과정이 상대방에게 불편함을 주더라도 중단하지 않음이다.

정재원은 최승호의 집요함에 대해 한 일화를 소개하며 “불편한 끈기”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MBC>의 세월호 보도에 대한 취재를 하던 중 당시 <MBC> 관계자를 만났는데 처음 인터뷰 내용이 최승호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는 표현을 조금씩 바꿔가며 같은 내용의 질문을 6번이나 던졌지만 답변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인터뷰는 마무리됐다. 그런데 인터뷰를 끝낸 후 나눈 대화에서 관계자의 생생한 기억이 나왔다. 최승호가 “그때 상황을 좀 더 얘기 했어야 되는데”라고 말하자 <MBC> 관계자는 “인터뷰 멘트가 좀 재미가 없었나 보죠”라고 대꾸했다. 이미 카메라도 꺼졌고 다른 촬영 장비도 철수한 상황에서 웬만하면 마무리할 법도 하지만 최승호는 당연하다는 듯이 “다시 가자”며 인터뷰를 재개했다. 촬영을 재개한 뒤에도 한참을 노력한 끝에 영화에 들어가는 인터뷰를 촬영할 수 있었다. 정재원이 보기에 <MBC> 관계자에게서 불편함이 느껴졌지만 최승호는 촬영을 이어갔다. 작은 것 하나의 노력이 가져올 결과의 차이에 대한 최승호의 정확한 판단에서 정재원은 “집중력도 실력”이라고 느꼈다.

<자료 183> 정재원과 심층면담 중에서(2018년 1월 2일)

정재원: 결과적인 어떤 구성물을 봤을 때 어떤 강력한 하나의 싱크가 가지는 힘에 대해서 저보다 훨씬 그 중요성을 알고 계셨거든요. 저는 사실 평소에 작업할 때 이를테면 잘랐을 때 앞의 멘트와 뒤의 멘트 사이에 넣을만한 어떤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 싱크가 났다 이러면 그냥 거기서 인터뷰 컷트하고 이런 식으로 가져거든요. 그런데 선배는 이제 그것보다 쓸만한 멘트는 분명히 많았어요. 연구자: 많았어?

정재원: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걸 계속 보고 있고 거기에 몰입과 뭔가 흥미를

확 끌어 당길만한 그리고 그 인터뷰는 사실 000이라는 사람이 겪었던 상황을 재현하는 거잖아요. 그걸 훨씬 더 감각적이고 직관적으로 재현해 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뭔가 강력한 게 필요하다 라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훨씬 더 크게 여겼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

연구자: 그 동안에 너는 그렇게 하지 그러니까 못해왔다는 거고?

정재원: 그렇죠 약간 안일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작은 것 하나하나에도 집중하려는 노력과 하나하나의 집중이 모여 결과에서 큰 차이를 가져오는 집요함은 최승호에게는 선택이 아닌 필수였다.

(3) 예의 바른 공격: “태도의 기술”

〈자료 184〉 정재원의 취재일지 중에서

이명박 앰부시에서 보여준 ‘태도의 기술’ 자체가 선배가 오래 전부터 쌓아 온 능력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취재 대상에 대한 공격을 뜻하는 앰부시에서 “예의 바르게 그러면서도 할 말 다 하는” 최승호식 앰부시를 보면서 정재원이 받은 느낌이다.

최승호식 앰부시가 빛을 발한 것은 ‘4대강 수심 6미터의 비밀 2’에서 이명박, 영화 〈자백〉에서 김기춘, 영화 〈공범자들〉에서 이명박 앰부시였다. 앰부시는 보도나 영화의 백미였고, 시민들은 앰부시에서 악당으로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고 분노했다. 최승호는 앰부시를 언론인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한다. PD인 그는 그동안 기자들이 보여온 취재 대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관행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다.

〈자료 185〉 최승호의 〈방송기자〉 인터뷰 중에서

기존 언론은 책임자한테 찾아가는 걸 너무 두려워하고, 대충 전화로 한 번 물어보려고 해요. 상대가 거부하면 그냥 받아들이고, 또 책임자가 있는데도 밑의 실무자급에서 답변 받는 것에 쉽게 만족하는 경향이 있어요. 기자들이 자꾸 그러니까 유력자들을 직접 찾아가 마주치면, 일반적인 언론 관행에 벗어나는 뭔가 무례한 짓을 하는 것처럼 반응한다고요(김용진, 최승호, & 박성호, 2013).

정재원이 느낀 최승호의 “태도의 기술”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 앰부시는 나의 말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상대방의 태도를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공격적이지만 예의 바르게 접근하면서 폭로 대상의 회피나 뻔뻔함, 거짓말 등을 최대한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했다. 때문에 질문하는 사람이 사안에 대해 잘 모르거나 감정적이어서는 안 된다.

〈자료 186〉 정재원과 심층면담 중에서(2018년 1월 2일)

사람들이 진짜 그걸 되게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해서 기억을 다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질문한 기자가 하는 말이나 이런 걸 본다 기 보다 상대 사람들의 태도를 더 직관적으로 보는 건데 그런데 기자가 공격적으로 나가고 준비되지 않은 것 같은 말들을 공격적으로 쏘아 붓고 이러면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도 그 태도 때문에 약간 적대감이 생길 수 있다 그런 태도를 하면 안된다.

둘째, 앰부시에서 드러난 언론인의 감정은 이성적으로 통제된 감정이어야 한다. 보도나 영화에서 최승호가 흥분하거나 분노해서 누군가를 추적하는 화면이 나오지만 정재원이 보기에 그때의 흥분, 분노 등은 의도된 감정, 즉 이성적으로 철저히 통제되는 상황에서 나오는 취재 기법이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상대방이 답변을 하든 안 하든 질문들을 쏟아내며 흥분을 감추지 않는 것이 앰부시를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정재원에게 최승호의 이런 모습은 “확실한 내공”이었다.

〈자료 187〉 정재원과 심층면담 중에서(2018년 1월 2일)

정재원: 제가 보면서 그런 예의를 연기하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연구자: 연기를 하고 있다?

정재원: 어떨 땐 그 분을 보면 자기가 그 흥분을 통제할 수 있는데 카메라가 다 찍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그렇게 자기를 둔다는 생각이 들어요. 000이나 000을 만났을 때는 그렇게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냥 그렇게 흥분한 자기가 찍히도록 내버려두고, 어떨 땐 되게 예의 바른 캐릭터가 나오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생각되더라고요. 결론적으로 만들어 놓고 보면 뭐 000이나 000을 앰부시 할 때 흥분이나 이런 건 어떤 최승호를 더 강화시키는 효과를 충분히 내고 안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저 사람이 피해자를 위해 저렇게 하는구나 하는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어떤 권력자 하고 할 때에는 굉장히 예의 바르게 질문을 던지고

함으로서 약간 입장이 애매했던 사람들이나 혹은 잘 몰랐던 사람들에게도 저 사람이 예의가 바르기 때문에 저 사람의 하는 말이나 이런 거에 조금 더 편견 없이 받아들일 수 있겠다. 그런 어떤 기반을 만든단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리 머리 속에서 치밀하게 계획된 상태에서 이뤄지는 최승호식 앰부시는 최승호의 노하우이고 능력이었다. 최승호는 이명박을 앰부시 하면서 경호원들이 밀어내려고 할 때 저항하면 몸싸움이 되지만 밀리는 척 빠져 주면서 촌철살인의 질문을 하는 것이 이명박을 더 폭로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최승호는 언론인의 흥분은 “수양이 덜 된” 행동이라고 생각했다.

〈자료 188〉 최승호와 심층면담 중에서(2018년 12월 28일)

다 예측이 가능한 부분들이다. 그런 정도의 상대를 찾아갈 때는 내 나름대로 어떤 반응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생각을 하죠. 근데 그 사람들이 거기서 정식 인터뷰를 해주겠어요. 그러나 그들이 보여주는 태도가 충분히 그 문제에 대한 태도를 시청자들에게 전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하는 거죠. 취재하는 사람은 절대로 흥분하면 안 되겠죠. 흥분한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되는데 흥분한 거로 느껴졌다면 수양이 덜 된 거고.

앰부시에서 최승호는 때로는 열정을 참지 못하는 피해자로, 때로는 참다운 언론인으로 등장하는 등 의도적으로 여러 인물을 연출하고 있었다.

(4) 평등한 관계: “자꾸 얘기하고 싶어”

완벽한 장악, 집요한 노력, 예의 바른 공격 면에서 정재원은 명백한 수준 차이를 체감했다. 그런데 이 같은 이성적인 인정 외에 정재원이 최승호로부터 마음으로 감동 받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소통 방식이었다. 한 마디로 요약하면 “평등한 관계 속 넉넉한 인정”이다. 다른 사람을 동등하게 대하는 “평등”과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넉넉한 인정”이 자신의 자발성과 주인의식을 자극해 일을 더 열심히 하게 했다는 것이다.

팀을 이루면 누군가는 주도권을 잡게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기계 부속처럼 움직이는 경우가 있는데, 최승호는 이와 달리 다른 사람의 재능이나 잠재력을 이끌어

내고 공유하는 능력이 있었다고 한다. 비법은 평등한 관계였다. 때로는 “의견이 궁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최승호는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기다렸고, 들었고, 반영함으로서 그들을 존중했다. 정재원은 “서로의 능력이 공유된 상태에서 더 큰 힘으로 간다”는 느낌 속에 “자발성이 생겨, 더 많이 노력하게 되고 애를 쓰게 됐다.”

〈자료 189〉 정재원의 취재일지 중에서

회의에서 다른 사람 의견을 권위에 기대 깔아뭉갠다는 느낌을 전혀 주지 않는다. 일단 잘 듣고 반박하지 않는다. 가능한 그 의견을 존중하고, 기본적으로 의견이 궁하다는 느낌까지 준다. 그러니까 뭐라도 자꾸 얘기하고 싶게 만든다. 00 선배와의 차이에 대해 생각. 둘 다 평등한 관계를 추구하나 00 선배는 빈틈이 없어서 딱히 뭘 말하고 싶게 만들지는 않는다. 자기가 상대적으로 더 알더라도 의도적으로 빈틈을 만들어 타인(후배)들의 의견이 들어올 공간을 만드는 것도 내공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최승호는 팀 내는 물론 외부 사람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자주 고마움을 표시했다. 후배나 다른 사람들의 작업에 대한 칭찬, 찬사, 인정 등을 굉장히 꼼꼼하게 했다. “신경증이 담긴 단어를 구사하며 납득 가능한 설명도 덧붙이지 않아 반발감만 일으키”는 다른 선배들과 달리 최승호는 “설령 부족하다고 느끼더라도 상대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고 구체적인 비평 지점에 대해 이야기”했고 정재원은 설득됐다.

〈자료 190〉 정재원과 심층면담 중에서(2017년 12월 12일)

정재원: 최승호 선배는 자기랑 같이 일한 사람들을 굉장히 잘 뭐랄까 케어해준다고 해야 하나? 그래서 마음으로 뭔가 날 생각하고 있다는 느낌을 계속 줘요. 그게 어떤 관리를 해야 된다는 자기 이성적 판단 때문이 아니라 진짜 도와줘서 미안하단 마음을 갖고 있는 거 같아요 뭔가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진심을 이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받으니까 애정과 자발심이 생겨난다고 생각이 들어요. ...

연구자: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한다 이거지?

정재원: 좋더라고요 흥이 나는 것 같고. 하여튼 이런 되게 한 명의 마스터를 둘러싼 사람들과의 관계이니까 그 마스터가 이 바닥에서 일하는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있고 좋게 보고 있다 라는 건 되게 이 사람들 입장에서 힘 나는

일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걸 잘 챙겨준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 사람은 정신 없이 일하는 과정에도 저런 걸 어떻게 생각하고 있지?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3) 정재원의 성장

영화 〈공범자들〉을 함께 하면서 정재원이 체험한 최승호는 소명의식을 실천하면서 가장 확고하고, 가장 잘 알고, 가장 부지런하고, 가장 능수능란하며, 그러면서도 열린 사고를 가진 사람이었다. 정재원이 최승호를 체험하면서 얻은 느낌은 첫째, 수준의 차이였다. 그것이 신념이든 열정이든 또는 탐사보도 기능이든 정재원은 최승호와의 수준 차이를 확실히 체감했다. 수준에서의 차이는 단기간 내에 극복하기 어려우며, 수준의 차이가 클수록 서로를 이해하는 일은 힘겨운 일이 될 것이다. 문제는 누구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가를 판결하지 못함으로써 혼란이 가중되는 것으로 수준 차이의 인정은 그만큼 중요하다.

그렇다면 탐사보도 언론인의 수준을 판결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찾는 일이 중요해진다. 객관적인 기준을 찾으려는 노력이 없으면 탐사보도 전문성에 대한 논의도 큰 진전을 보기 어렵다. 현장연구 기간 동안 파악한 바에 따르면 후배 집단은 점점 선배 집단과의 수준 차이를 인정하지 않거나 선배들에 대한 존경을 축소시키거나 철회하고 있었다.

〈자료 191〉 후배 집단 한 명과 심층면담 중에서(2017년 6월 30일)

그건 거 같아요 존경할 수 있는 선배가 조직에 있으면 이 조직에 10년 있으면 저 선배처럼 되겠지 마음이 생기는데 제가 바라는 그런 탐사보도를 하고 있는 선배가 과거엔 있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에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따라서 선, 후배 사이에 수준 차이가 있다면 차이를 확인시키고 성장으로 이끌 방법을 찾는 것이 급해 보였고 이것이 탐사보도 교육의 핵심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수준 차이가 실재함에도 이를 느끼지 못하거나 거부한다면 그는 탐사보도 언론인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수준의 차이는 이해의 문제가 아닌 느낌의 문제이다.

둘째, 정재원은 심층면담이나 사적대화에서 최승호를 체험하면서 자신이 “성장”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저는 뭐 굉장히 중요한 경험을 많이 했죠”, “깊은

의미가 있던 것 같아요”, “그런 게 되게 뛰어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같은 사람이 엄청 잘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고”, “이게 진짜 내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의 성장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등이 정재원이 배움을 나타낸 표현들이었다. 정재원의 성장에서 핵심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더 확장된다는 느낌”이었다. 자신의 과거 수준과 현재 수준의 차이, 그리고 현재 수준과 미래에 도달해야 할 수준의 차이를 최승호를 통해서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섬광과도 같은 순간의 영감이 아닌 배우고 익혀서 느낀 체득이었다.

〈자료 192〉 정재원과 심층면담 중에서(2018년 1월 2일)

어떤 모델이 있다는 게 저한테 중요한 게 그러니까 어디가 한계인지를 잘 모르잖아요 보통 이렇게 그냥 내가 알아서 하다가 보면 내가 편한 내가 편한 정도가 한계가 되기 마련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선배가 보통 하는 걸 보니까 그 한계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멀리 있다고 확인하게 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좀 더 확장된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면 저도 그렇게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점에서의 성장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 그런 긍정적인 거를 받는 것만으로도 되게 좋더라고요 평소엔 제가 더 많이 가지 않았던 이유는 이런 식으로 하는 습관이 들었을 때 그게 좋을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었 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선배 같은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걸 보니까 아 그렇게 해도 되는구나 더 가도 되는구나 그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이런 과정을 통해 정재원에게 최승호는 탐사보도 기능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면에서도 “따라갈 수 있는 리더”였다.

〈자료 193〉 정재원과 심층면담 중에서(2018년 1월 22일)

정재원: 일만 잘하는 사람은 내가 따라갈 수 있겠지만 인간적으로 뭔가 좋다고 생각되는 사람하고는 같이 있고 싶어지잖아요. 당연히 같이 있고 싶어지는 사람하고는.

연구자: 이런 게 자발성이 생기게 만든다는 거지?

정재원: 그렇죠.

최승호와 정재원 사이에 적극적인 교육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처음부터 교육 목적이 아니라 취재 또는 영화 제작을 위한 선, 후배 사이의 업무 관계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재원은 일을 하면서 최승호의 세밀한 평가와 즉각적인 문답을 통해 배움을 얻었다. 적극적인 피드백은 일대일 교육의 큰 강점이기도 하다.

〈자료 194〉 정재원과 심층면담 중에서(2018년 1월 22일)

연구자: 중간중간 최승호 선배가 평가도 해주고 그랬나?

정재원: 그렇죠. 그런데 평가라는 게 그렇다고 무슨 뭐 되게 구체적으로 막 총체적 평가를 할 순 없잖아요. 순간 순간의 이틀테면 어떤 제가 해야 될 잡이 있었을 때 그거를 선배 컨펌을 받고 이제 나가게 되니까. 스토리펀딩 글이든 영상이든 나중에 우리 뭐 할 때마다 클립이라든가 구성에 대한 거라든가 뭐 혹은 그밖에 여러 가지 잡일을 많이 했으니까 그런 거 할 때 뭐 그거랑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꼼꼼하게 인정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인정을 잘 챙겨준다고 그러니까 평가를 좀 그런 식으로 그 때 그때 많이 하시려 하는 것 같았어요. 뭐 하면 이제 칭찬 같은 거 이런 건 뭐 이렇게 하니까 좋더라.

최승호와 정재원의 관계는 장인 작업장에서의 장인과 도제의 그것과 닮아 있었다. 무엇보다 최승호에 대한 믿음과 탐사보도 기능에 대한 존경, 그리고 배움에 대한 열정 등에서 그랬다. 일대일로 진행되는 도제식 교육은 학교라는 제도가 탄생하기 오래 전부터 출현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예술, 체육, 학문 등 많은 분야에서 효과적인 교육 방법으로서 존속되고 있다. 대학에서 연구자나 각종 예술 분야에서 예술가가 배출되는 과정 등 전문 분야에서는 오히려 도제식 교육이 교수-학습의 전형으로 여겨지며 실제로 수행되고 있다. 이는 도제식 교육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장점을 암묵적으로 인정하기 때문일 것이다(김한미, 2009, p. 4). 도제가 장인이 되는 과정은 배움과 내면화 그리고 다시 전승의 여정이다. 이는 또한 소명의식이 공유되고 직업적 정체성이 확립되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 같은 고유 기능을 배우려는 도제는 소수로 그들만의 고유한 기능의 가치를 인정하고 진정으로 이를 체득하기를 원하는 사람만이 받아들여진다(유승호 & 선원석, 2014; 유승호 & 이나라, 2015). 정재원은 최승호를 통해 소명의식과 철저한 직업윤리, 그리고 그가 어떻게 최고의 탐사보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지를 배우고 배움을 내면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최승호를 체험하면서 정재원에게는 “나도 따라가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더 확장될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다. 이것이 짧은 기간 최승호를 체험하면서 얻은 정재원의 성장이었다. 최승호처럼 모범이 되면서 계속 점검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면 정재원이 그런 성장을 단기간에 이룰 수 있었는지 의문이다. 어쩌면 후배 집단 중에서 정재원은 가장 안전한 성장을 거친 셈이었다. 정재원이 최승호로부터 느끼고 배운 것은 자신의 기능이 향상되어 가는 진보이기도 했다. 왜 그래야 하는지 특별한 설명이 필요 없는 말이 진보일 것이다. 정재원은 진보를 통해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더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을 얻었다.

따라서 소명의식과 가치자유 실천의 측면에서 정재원이 체험한 최승호와 수준 차이의 구체적인 양상은 탐사보도 언론인 교육과 탐사보도 언론인 사이의 수준 차이를 판결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 그리고 탐사보도 언론인 전문성 논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재원의 체험은 한계도 가지고 있다. 정재원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최승호는 그의 롤 모델이었기에 정재원이 최승호를 냉정하게 바라보았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다. 또 직접 체험 기간 5개월은 최승호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를 내리는데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두 번에 걸친 정재원의 체험은 성공으로 평가되는 경험이었기에 최승호의 실패, 예를 들어 가치함몰에 빠진 모습들은 경험하지 못했다.

3. 소명의식과 가치자유 관점에서 최승호 평가

탐사보도 언론인에 대한 기존 연구들의 관점에서 보면 최승호는 언론인 역할 인식에서 적대인에 해당됐고, 공격적인 취재 방법을 선택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동시에 취재윤리나 도덕성의 측면에서는 스스로 엄격하고자 노력했다. 이는 다른 탐사보도 언론인들이 보인 특성과 크게 다르지 않다(Coleman & Wilkins, 2004; Lanosga, Willnat, Weaver, & Houston, 2017). 선행연구는 그러나 왜 탐사보도 언론인이 일반 언론인 보다 더 적대적인 역할과 공격적인 취재 방법을 선호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구체적으로는 설명하지 못했다. 다만 일부 연구가 역할 인식과 선호 가치 사이에 상관성을 보여주었다(Plaisance & Skewes, 2003).

본 연구는 현장 연구를 바탕으로 최승호의 특성이 발현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소명의식이라고 판단했다. 소명의식이 그의 탐사보도 실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참여자들의 최승호에 대한 평가와 정재원의 체험뿐만 아니라 최승호 스스로도 탐사보도 언론인에게 가장 중요한 직업정신이 소명의식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자료 195〉 최승호와 심층면담 중에서(2018년 12월 28일)

내가 왜 이 일을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생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소명의식이라는 것이 있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긴 세월을 언론인으로서 계속 이렇게 노력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고 왜냐하면 언론이라는 것이 너무 유혹이 많은 직업이기도 해요. 조금만 타협을 하면 개인으로서는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지점이 꽤 여러 군데 있는 직업이거든요 이 직업이. 그랬을 때 타협을 쉽게 하면 빨리 망가질 수밖에 없는 직업이죠. 그랬을 때 자기가 왜 이 일을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소명의식이 있어야 룡 텀으로 견디면서 언론인이라는 직업인으로서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죠.

최승호는 “사회가 투명해지고 평등한 방향으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 갖고 있었다. 이념적으로는 진보 쪽에 가까웠다. 가치면에서 보면 공영방송과 권력 감시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었고, 소명을 구현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취재하고 보도했다.

그는 젊은 시절 독재정권 아래에서 침묵해야 했던 과거에 대한 반성과 부채의식을 갖고 있었다. 1987년 6월항쟁을 통해 언론인이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을 때 그 발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감했고 발언하고자 노력했다. 이후 그는 PD수첩을 중심으로 탐사보도 언론인의 삶을 걷게 된다.

〈자료 196〉 최승호와 심층면담 중에서(2018년 12월 28일)

4대강에 대한 보도를 3번인가 연속해서 했거든요 이명박 시절에. 그때 당시에 MBC 임원 중에 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야. 최승호는 watchdog이 아니라 attackdog이다. 막 공격한다는 거지. 정권을 왜 이렇게 공격하냐는 거야. 내가 만든 4대강 프로그램을 보고, 4대강 문제는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4대강을 자주 다루었냐를 가지고 attackdog이라고 하는 거야 그 친구들이. 근데 내 입장에서 보면 4대강이라는 문제는 정말 대한민국의 환경을 완전히 총체적으로 망가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3번이 아니라 30번을 해도 시원치 않은 주제였기 때문에 계속하려고 했던 건데. 그것을 attackdog이라고 하면서 나를 PD수첩에서 잘랐던 거죠.

최승호는 언론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직접 경험했고 그래서 언론의 중요성에 대한 신념을 갖고 있다.

〈자료 197〉 최승호의 〈언론과 사상〉 인터뷰 중에서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실제로도 경험해 봤다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면 검사와 스폰서 3편을 만들었는데 그 위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남자 검사들이 이제 룸살롱에 잘 안 간다더군요. 처음에는 당연히 여기던 룸살롱 출입이 대중이 엄중한 의제로 받아들이니까 바뀐 거죠.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언론이 사회를 바꿀 수 있다고 봐요(최승호, 신기주, & 권영탕, 2016, p. 32).

그가 생각하는 공정방송은 “단순한 기계적 중립이 아니라 이 사회 기득권 구조 속에서 막강한 힘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들을 견제하고 비판”하는 언론이다(김도연, 2013). 최승호를 체험한 정재원은 그의 소명의식을 “힘을 가진 사람이 힘을 함부로 쓰는 것을 못 봐주는” 것으로 이해했다.

〈자료 198〉 정재원과 심층면담 중에서(2017년 12월 12일)

어떤 권력이 힘을 많이 가진 사람이 힘을 함부로 쓰는 것을 못 봐준다는 느낌? 권력에 대한 반발감, 막연한 반발감이나 이런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그런 어떤 공적인 신념 그런 게 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힘을 가진 사람이 힘을 함부로 쓰면 다른 사람들이 고통을 많이 받는다 그런 방향인 것 같아요.

최승호는 언론인 스스로 “이게 왜 중요하고 내가 이걸 왜 꼭 해야 하는지에 대한 자기 확신과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지가 없으면 시작도 못하기” 때문이다. 한 번은 정재원이 최승호에게 열정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물어보았다. 최승호의 대답은 “하고 싶은 게 항상 많다”였다.

〈자료 199〉 정재원과 심층면담 중에서(2017년 12월 12일)

자기한테 최적하게 맞는 일을 찾았기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원래 그렇게

뭔가 에너지가 많은 사람인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하나를 끝내면 또 바로 다른 큰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을만한 에너지가 바로 막 생겨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소진되지 않느냐? 물어보면, 하고 싶은 게 항상 많으니까 한 일주일 쉬면 한 일이 주 끝내고 쉬면 또 뭔가를 해보고 싶고 그렇게 되더라 소진되는 건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게 되게 열정과 에너지 그런 것도 신념에서 비롯되는 거겠죠. 어떤 방향이 없이 터져 나오는 열정들이 아니니까 어떤 방향을 향한 열정들이었고.

2013년 7월 1일 보도된 ‘화교 남매 간첩 증거, ‘허점투성이’를 시작으로 최승호는 3년 동안 국정원의 간첩 조작을 집중적으로 폭로했다. <MBC>였으면 사실상 불가능했을 취재였다. 한국 언론 현실에서 3년 동안 국정원 만을 집중적으로 비판하는 PD를 두고 볼 언론사는 사실상 <뉴스타파>가 유일할 것이다.

〈표 20〉 최승호의 국정원 간첩 조작 관련 보도 목록

보도 날짜	보도 제목
2013.07.11	화교남매 간첩 증거, ‘허점투성이’
2013.08.23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선 무슨 일이?
2013.09.19	뉴스타파 스페셜 - 자백이야기
2013.12.06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2심에서 위조의혹 중국 공문서 증거 제출
2014.01.07	“제발 저와 제 가족을 그만 괴롭혀 주십시오”
2014.02.15	중국정부, 한국 검찰 제출 중국 공문서 ‘위조’ 확인
2014.02.19	조작 감추려 적반하장 해명?... 이래서 위조다
2014.02.21	꼼짝 못 할 위조 증거-유우성 씨의 여권 공개
2014.02.21	중국, “위조 사건 조사는 끝났다. 범죄 피의자 정보 알려달라”
2014.03.11	“국정원과 검찰, 책임져야”
2014.03.13	“국정원은 중국 손바닥 위에서 놀았다” - 어느 국정원 정보원의 토로
2014.03.18	‘합동신문센터를 수사하라’
2014.03.21	“조작하려니 힘드시죠?”
2014.03.25	국정원 입만 보지 말고 사진조작을 수사하라
2014.04.04	검사들은 몰랐다고?
2014.07.03	국정원 거짓말탐지기를 속인 여자

2014.08.19	국정원 밥 먹고 14 킬로나 살찐 간첩?
2014.09.02	3 번째 간첩사건 ‘보위사 간첩’도 증거 희박
2014.10.15	진실 눈감은 대법원…기억제거패치 의문이나 ‘간첩은 맞다’ 판결
2014.11.15	“국정원 돈 2 천만 원 받고 ‘유우성은 간첩’ 거짓 증언했다”
2014.11.28	국정원의 막무가내식 소송 남발 제동
2015.04.21	국정원, “중국정부 회신 못 믿겠다”
2015.05.22	간첩 수사 협조자, 보안 경찰을 고소하다
2015.07.14	새로운 증거도 없는데…유우성씨 왜 기소?
2015.10.20	열 네 번째 자백

간첩 조작이 확인됐고 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조작에 가담한 국정원과 검찰이 변화를 거부하자 최승호는 보도가 가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영화를 만들기로 결심했고 영화 <자백>이 탄생했다.

영화 <공범자들>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 동안 공영방송 10년의 궤적을 추적했다. 처음 최승호가 계획한 것은 영화가 아닌 언론개혁의 필요성을 다룬 다큐멘터리 4부작이었다. 그가 영화로 선회한 이유는 영화라는 수단이 공영방송을 변화시키는 데 더 적합한 수단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공범자들>을 위한 취재와 제작이 한창일 즈음 최승호는 서울대 언론정보학과와 한 수업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했다. 당시 “해직 기간에도 계속 싸우겠다고 생각한 원동력이나 가치는 무엇인가?”를 묻는 학생의 질문에 최승호는 “자기가 살아 온 삶을 배신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자료 200> 서울대 특강에서 최승호 발언(2017년 5월 16일)

혼자 힘으로 싸워지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노동조합이 굉장히 중요한데. 혼자서 싸우는 게 아니고 우리는 87년 12월에 만들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오랜 세월을 견디면서 30년 동안 계속 같이 해온 거잖아. 오랫동안 우리 나름의 가치로서 가꾸면서 지켜왔던 가치가 정권이 바뀌므로 해서 정권의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무참하게 짓밟히는 상황을 봤을 때 이것은 나의 인생을 부정하고 나의 인생을 깎아 뭉개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분노하고 분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것은 자기가 살아 온 자기 삶을 배신할 수 없다는 그런 것이다.

최승호는 그러나 가치에 함몰되어 사실을 과장, 편향, 왜곡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처음 취재를 들어갔을 때 생각과 취재를 끝냈을 때 내리는 결론이 달라질 때도 꽤” 있었다. “새롭게 나온 증거를 검토해 봤을 때”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다른 팩트를 전하는 것이면” 그는 자신의 “생각을 바꾸었지 그것을 그냥 안 보기위해서 치워 놓고 원래 생각하던 방향으로만 가지” 않도록 노력했다. 원론적인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지만 최승호가 심층면담에서 이를 강조한 것은 잊고 싶은 오류의 경험이 스스로에게 있기 때문이었다. 즉 가치함몰에 빠져 진실을 외면했던 오류였다.

〈자료 201〉 최승호와 심층면담 중에서(2018년 12월 28일)

PD수첩 가서 제일 처음 했던 아이템이 지금 생각해 봐도 좀 부끄러운 거죠. 그때 뭐였냐면 〈USA투데이〉가 한국 동두천 기지촌에 대해서 보도를 하면서 sex farm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 가지고 동두천에 있는 기지촌 변영회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굉장히 반발을 하고 시위를 하고 언론에서 다루고 그랬거든. 그때 당시 나도 기지촌 문제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sex farm이라는 표현이 좀 지나친 표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고 … 일종의 민족적 자존심 이런 것이 동한 거죠. 그래서 취재를 한 거죠. 취재를 해서 그때 당시 변영회 사람들 이야기 뭐 여기서는 이제는 옛날과 같은 그런 인신매매 같은 이런 형태의 그런 것은 없고 다 아가씨들이 자의로 와서 이렇게 하는 거지 의료 시스템이나 보건 시스템이 다 잘 돼 있고 옛날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하면서. 〈USA투데이〉에서 얘기한 사람을 가둬놓고 인신매매를 해 가지고 하는 형태의 이런 거는 아니라는 주장을 많이 했죠. 방송을 내보냈죠. 그 이후에 2년쯤 지났을 때 〈한겨레21〉에서 동두천 기지촌을 다시 다룬 거야. 보니까 요즘은 러시아 여자들, 필리핀 여자들 때로는 인신매매를 해 가지고 고초를 당하다가 도망쳐 나온 경우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를 〈한겨레21〉에서 보도를 했더라고. 그 거를 보고 야 참 결국은 일종의 내 생각에 의해서 눈을 감고 나의 아젠다를 입증하기 위해서 적합한 것들만 찾아서 보도를 해서 결과적으로 보면 사기를 친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가 무엇인가? 중요한 화두에서 내가 방송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최승호는 항상 이 두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진다고 했다. 그리고 사회에 울림이 있는 탐사보도를 만들고자 노력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 참여자들이 〈뉴스타파〉의 실패를 반성하는 자리에서 최승호는 어느 순간부터인가 〈뉴스타파〉에 신념과 열정이 부족해 졌다고 질타했다.

〈자료 20〉 최승호와 일상대화 중에서(2016년 12월 20일)

계속 들어가는 거야. 계속. 응? 계속 들어가고 계속 파헤치는 거야. 근데 이게 있잖아. 우리는 탐사보도에 거의 탐사보도의 왕과 비슷한 행세를 하면서 우리가 그런 끈질김 응? 그런 끈질김 이런 거를 갖고 있었냐? 우리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 그거를 정말 오랫동안 끌고 나가면서 놓치지 않고 끝까지 가는 전략적인 어떤 그런 마인드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다 모자라는 상태야.

그는 후배들에게 “더 이상 〈뉴스타파〉라는 이름만 갖고 행세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며 반성과 함께 〈뉴스타파〉의 초심으로 돌아갈 것을 강조했다.

제 2 절 소명의식과 가치자유 관점에서 스톤 분석

이 절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해 소명의식과 가치자유 관점에서 스톤을 분석한다. 미국에서 20세기 최고의 독립 언론인으로 평가 받는 스톤(I. F. Stone)의 생애를 추적해 탐사보도 언론인으로서 공과를 평가하며, 특히 언론인이 가치함몰에 빠질 경우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연구자는 스톤 외에 다른 언론인 한 명을 등장시켜 스톤과 비교한다. 미국에서 영향력 있는 정치 평론가이자 언론인으로 활동하면서 스톤과 동시대를 살았지만 엇갈린 행보를 보인 리프만(Walter Lippmann)이다. 리프만은 진지한 교육과 전문적 지식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언론에 과학적 방법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고 그의 제안이 더해지면서 객관보도가 정립됐다. 전문가 공동체로부터 인정받은 확립된 절차에 대한 객관보도의 존중은 언론인이 이념이나 가치 또는 사적 이익 등에 빠져 보도를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경계하고자 함이었다. 객관보도를 대표하는 언론인을 선정한다는 것은 어찌면 무모한 일이지만 리프만이 객관보도의 핵심 원리를 제안했고, 객관보도를 주장했으며, 객관보도의 대표적인 인물이라는 점에서 그를 스톤과 비교함이 큰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또한 비교는 스톤이나 리프만을 치켜세우거나 폄하하기 위함이 아니다. 사후적, 결과적으로 오류로 지적되고 있는 행위의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 행적이 탐사보도 언론인에게 주는 의미를 새겨 보자는 것이다.

스톤은 20세기 최고의 독립 언론인이라는 수식어가 따라 다닐 정도로 탐사보도에 헌신한 언론인이다. ‘이지 스톤’이라는 애칭으로 더 유명한 스톤은 자신의 4쪽 자리 주간 신문인 〈I. F. Stone’s Weekly〉의 발행을 중단하기 전까지는 언론인으로서 이른바 왕따였다. 그런데 스톤이 나이가 들어 신문 발행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

자 그에게는 조지 포크상(George Polk Award)^{2 3}이 수여됐고 그의 일생은 독립 언론인의 신화로 칭송받기 시작했다(Chomsky, 2002/2013). 스톤은 요즘 유행하는 말로 역주행 언론인이다. 대학에서는 그의 이름을 딴 석좌교수 자리와 연구기금, 장학금이 한 둘이 아니고 하버드대학은 I. F. Stone Medal을 매년 우수한 탐사보도 언론인에게 수여하고 있다. 스톤과 <I. F. Stone's Weekly>는 뉴욕대학 언론학부가 선정한 20세기 100대 저널리즘에서도 16위에 올라 있다. 평생 그와 경쟁관계에 있었던 리프만이 64위인 것과 비교하면 그에 대한 평가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다(Stephens, 1999). 베트남전 미라이 학살 보도로 전쟁 탐사보도에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 허시(Seymour Hersh)가 가장 존경하는 탐사보도 언론인으로 지목한 사람도 스톤이다(Warren, 2015).

스톤의 탐사보도 언론인 인생은 1940년대 히틀러의 전체주의와 미국의 외교적 고립주의 비판, 1950년대 국가에 대한 충성 서약과 공산주의에 대한 마녀사냥 비판, 그리고 1960년대 베트남전쟁 비판으로 압축될 수 있다. 이를 좀 더 압축하면 <Picture Magazine>과 <I. F. Stone's Weekly> 시기로 나뉜다.

1. 스톤의 탐사보도 실천

1) <Picture Magazine> 시기

1940년 6월 16일 뉴욕에서는 미국 언론 역사에서 가장 혁신적인 실험이면서 논쟁적인 신문이 창간됐다. <Picture Magazine>, 줄여서 <PM>으로 불리던 좌파 성향의 타블로이드 일간신문이 그것이다. <PM>은 탐사보도를 지향하며 광고주에게 기대지 않는다면 독자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원칙 하에 광고를 싣지 않았다. 대신 <뉴욕타임스> 한 부 가격이 3센트일 때 <PM>은 5센트에 팔렸다(McFADDEN, 1985). <PM>을 창간한 사람은 잉거솔(Ralph Ingersoll)로 스톤이 합류하면서 스톤과 잉거솔은 평생 친구가 된다. 스톤이 “우리에게 글을 쓰는 새로운 방법을 가르쳐 준” 사람으로 회상할 정도로 잉거솔은 스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Shapiro, 2003, p. 193).

<PM>은 스톤에게 완벽한 신문이었다. 특히 스톤은 대기업들과 나치 독일과의 뒷거래를 폭로해 주목을 받았다. 1941년 11월 전쟁 와중에도 미국 석유회사들이

2 3. 미국에서 미디어 부분에서 뛰어난 업적을 이룬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

프랑코가 집권하고 있던 스페인을 경유해 나치 독일에 석유를 팔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했고, 보도 이후 독일로 석유 수출은 중단됐다. 스탠더드 오일의 비리를 파헤친 3부작 보도 후에는 당시 대통령이던 트루먼(Truman)이 중요 정보를 보고하지 않은 관리들을 해임했다. 물가관리국이 발주하는 국방 관련 사업을 극소수 재벌이 독점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갔을 때는 중소기업의 국방 관련 수주를 증진하기 위한 전담 부서가 신설됐다. 행정부가 소련 원조액을 크게 삭감한 사실을 연속 보도하자 원조액이 재조정되기도 했다. 또 정부 내에서 진보 사상을 가진 공무원들에 대한 조직적인 숙아내기가 진행되고 있다고 폭로했다(Macpherson, 2006/2012, pp. 338-360).

그러나 <PM>은 창간 8년 만인 1948년 5월 1일 폐간됐다. 재정난에 조직 내부의 불화와 갈등이 겹친 것이 원인이었다. 스톤은 <뉴욕 스타>(New York Star)와 <데일리 컴파스>(The Daily Compass)로 옮겨 언론인을 이어가지만 <데일리 컴파스>가 1952년 11월 폐간되면서 45세 나이에 신문사 소속 언론인 경력을 마감했다. 스톤은 <PM> 시절을 아래와 같이 자평했는데 얼마나 열정적으로 탐사보도에 헌신했는지 잘 나타나 있다.

독립적인 자유언론을 위한 온갖 실험이 이루어졌다. 이제는 다 옛날 얘기가 되고 말았지만 ... 나도 그 실험에 참여했었다 ... 우리는 다른 미국의 신문쟁이와 지식인이 누리지 못한 자유와 기회를 만끽했다.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 말은 단 한 마디도 쓸 필요가 없었다. 나는 나의 심장과 정신을 뛰게 만드는 대의를 위해 마음껏 싸울 수 있었다. 나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대의 특권을 누렸다.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밥벌이를 했으니까 말이다(Macpherson, 2006/2012, p. 539).

2) <I. F. Stone's Weekly> 시기

스톤은 1953년 1월 17일 그가 발행인이고, 편집인이고, 논설위원이고, 취재기자이고, 영업사원인 4쪽짜리 미니 신문인 <I. F. Stone's Weekly>를 창간했다. 구독자 수는 창간 당시 5천 3백 명이었지만, 1963년에는 2만 명을 돌파했고, 1971년 폐간할 때는 7만 명이었다. 창간 당시 우정청으로부터 2등 우편 요금을 적용 받은 것이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됐지만(Macpherson, 2006/2012, p. 542), 신문의 성공은 우편 요금이 아니라 보도 때문이었다.

신문이 창간된 당시 미국의 정치 상황을 보면, 트루먼(Truman)은 1947년 3월 22

일 미국 역사상 최초의 충성도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연방정부 내 공산주의자를 가려내기 위함이라는 이유를 댔지만 실제 목적은 반공 열풍을 자극해 여론을 결집시키려는 트루먼의 재선 전략의 일환이었다(Hogan, 1998, pp. 254-255). 시간이 지나면서 국가안보를 다루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전체 연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사찰이 진행됐고, 미확인 첩보를 바탕으로 조사가 이뤄지는 등 심각한 문제들이 이어졌다. 1950년에는 매카시가 등장하면서 반공산주의는 정점으로 치달았다. 매카시는 의심 가는 사람들의 명단을 흔들며 공포를 조성했고, 마녀사냥 속에서 정치인은 물론 대다수 언론인들은 침묵했다(Scialabba, 2010).

이런 상황에서 좌파 신문을 창간한다는 것은 일반인으로서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스톤은 아랑곳하지 않고 창간호부터 매카시의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누가 이 감시자를 감시할 것인가(Who Will Watch This Watchman)?” 제목의 기사에서 스톤은 매카시를 “천부적인 게임꾼”에 비유하며 상원 보고서를 근거로 그가 기업들과 가진 각종 불법적인 금전거래 내역을 폭로했다. 특히 매카시는 1950년부터 공산주의와 싸운다는 명목으로 수만 달러의 후원금을 받았지만, 그 돈이 반공 활동에 사용됐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여섯 번에 걸친 상원의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는 매카시에 대해 스톤은 “매카시는 아이젠하워의 가장 큰 골칫거리가 될 것이다”며 비판했다(Stone, 1953). 스톤은 매카시의 배후로 후버(J. Edgar Hoover) 당시 FBI 국장을 지목하고, 후버가 익명 정보원들이 작성한 오류와 허점투성이 자료를 매카시와 의회 등에 흘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스톤은 후버와 매카시 관계를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이탈리아-일본의 관계에 비유하면서 고발한 사람과 대질신문조차 못하는 상황, 도청 등을 통한 사생활 침해, 언론자유에 대한 억압, 정치적 신념을 이유로 추방하는 것 등을 적극적으로 비판했다(Macpherson, 2006/2012, p. 555).

그러나 당시 대부분의 언론인은 침묵했고 스톤은 여러 차례 자신의 신문을 통해서 이를 비판했다. 특히 1955년 <뉴욕타임스>가 자사 기사를 해고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혹독하게 비판했다. 1955년 상원 위원회에서는 <뉴욕타임스>의 편집기자 바넷(Melvin Barnett)이 불러 나와 추궁을 받고 있었다. 위원회는 그가 과거 공산주의자였다는 제보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의 이름을 대라고 추궁했지만 바넷은 묵비권을 행사했다. 그런데 <뉴욕타임스>로 돌아온 후 바넷은 해고 통지를 받았다. 통지문에는 “<뉴욕타임스>는 당신의 행동으로 당신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고 적혀 있었고, 당시 40세 이던 바넷의 언론인 경력은 그것으로 끝나게 된다. 스톤은 “<뉴욕타임스>가 적들에게 문을 열었다”며 “어떻게 사설로는 수정헌법 5조(묵비권)를 지지한다고 하면서 그 조항을 주장한 직원을 해고할 수 있냐”며 강하게 비판했다(Cross-Barnet, 2005).

베트남전 관련 보도는 그의 탐사보도 중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1964년 8월 2일 통킹만 사건이 발생했을 때 미국 언론은 대부분 통킹만 결의안에 따른 미국의 보복 공격을 환영했다. 그러나 스톤은 정부 발표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고 사건 발생 2개월 후인 9월 28일 정부 설명에서의 혼란과 사실 관계의 불일치 등을 주목하며 조작 가능성을 처음 제기했다. 스톤은 정부 설명 전체가 “마치 불 꺼진 술집에서 벌어진 한바탕 소동” 같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Stone, 1964).

스톤은 4년 뒤인 1968년 다시 한 번 통킹만 사건이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이번에는 1964년 보다 훨씬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했는데, 예를 들어 의회 속기록을 찾아 내 맥나마라(Robert Strange McNamara) 당시 국방장관의 발언이 4년 후에 어떻게 모순되게 바뀌었는지를 추적하는 식이었다. 또 4년 전에는 철저히 무시했던 북베트남 정권의 발표자료를 입수해 미군의 발표와 비교함으로써 정부 발표의 신빙성을 검증했다(Stone, 1968). 스톤의 폭로는 1971년 <뉴욕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의 펜타곤 페이퍼 보도를 통해 진실로 확인됐다. 통킹만 사건이 조작됐다는 그의 폭로가 진실로 확인된 그 해 겨울 스톤은 84세의 고령 때문에 신문을 폐간했다.

스톤이 일생 동안 FBI의 집중적인 사찰 대상이었다는 사실이 그의 사망 후 밝혀졌다. 스톤의 전기를 쓴 맥피어슨(Macpherson)이 스톤 사망 후 정보공개를 통해 알아낸 것만 해도 스톤에 대한 FBI의 사찰자료는 5천 페이지에 이른다. 그녀에 따르면 스톤에 대한 FBI의 사찰은 1936년부터 시작돼 1972년까지 36년 동안 계속됐는데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이 다 동원됐다. 예를 들어 ‘쓰레기 줍기’라는 제목이 붙은 보고서에는 스톤이 버린 쓰레기 쪼가리들을 맞춰 찾아 낸 첩보들이 들어 있었다(Macpherson, 2006/2012, p. 472).

스톤이 사망한 후 그가 소련 KGB의 첩자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처음에는 1960년대 미국 내 소련 대사관의 공보 담당관이 당시 KGB 요원이었는데 그가 “스톤을 지속적으로 만나 정보를 수집했다”고 말한 것이 근거였다(Romerstein, 1992). 그러나 곧 전직 KGB 요원의 발언이 잘못 전달되어 혼선이 생겼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은 해소된다(Knightley, 2011). 두 번째는 KGB가 냉전 시기 미국 내에 ‘블린(Blin)’이라는 암호명의 간첩을 운영했고, FBI가 블린이 스톤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간첩 의혹이 다시 제기됐다. 이에 대해서는 논쟁이 진행 중이다.

2. 스톤 대 리프만 비교

1) 루즈벨트의 대법원 재구성 계획

스톤은 현실 정치적으로는 대통령이던 루즈벨트에 대한 깊은 애정과 존경심을 갖고 있었고(Macpherson, 2006/2012, pp. 186-187) 이런 정치 신념은 그의 언론인 인생에서 하나의 오점을 남기게 된다. 루즈벨트는 집권하자마자 뉴딜정책을 통해 여러 개혁을 추진하지만 정부의 강력한 시장개입을 담은 법안들은 연방대법원에서 줄줄이 위헌 판결을 받는데 대표적으로 초기 뉴딜정책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전국산업부흥법(NIRA)과 농업조정법(AAA)이 대법원에서 휴지조각이 됐다. 루즈벨트가 “9명의 늙은이들이 나라를 망치는구나”라며 대법원을 비난한 것은 당시 상황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1936년 압승으로 재선에 성공한 루즈벨트는 다음 해 2월 대법원 재구성 계획(court-packing plan)을 내놓는데 핵심은 자신이 대법관 추가 임명 권한을 갖는 것이었다. 70세 이상의 현직 대법관 1명 당 추가로 한 명씩 대법관을 더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으로, 이 계획이 통과되면 루즈벨트는 6명의 대법관을 새로 임명할 수 있었다. 그러나 법안은 곧바로 대규모 반발에 부딪혔고 루즈벨트가 속해있던 민주당 내에서도 대통령의 독재적인 사고라며 반대가 거셌다.

루즈벨트의 대법원 장악 시도에 대해 스톤과 리프만의 반응은 명확한 대조를 보였다.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정치 평론가이자 언론인 중 한 명이던 리프만은 루즈벨트에 대한 공격을 주도하며 루즈벨트가 “권력에 취해 있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무혈 쿠데타를 계획하고 있다”고 격렬하게 비난했다. 리프만은 법안 발의 후 5개월 동안 모두 37개의 칼럼을 통해 루즈벨트와 대법원 개편 시도를 비난했는데 이 기간 자신이 쓴 전체 칼럼의 절반에 달했다(Steel, 1981, p. 319). 반면 미국 주요 신문들 중에 유일하게 스톤이 논설위원으로 있던 〈뉴욕포스트〉(New York Post)만이 루즈벨트를 지지했고, 헌법전문가를 자임하던 스톤은 법안이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반동적인 사법부가 루즈벨트를 대통령에 당선시킨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 스톤의 논리였다. 그는 사설에서 “대법원이 지금 정부와 국민의 의지를 무시하는 독재적인 거대 사법부가 되었다. 일단 국민의 명령에 따르는 자유주의적인 대통령이 대법원을 정비하면 다시는 지금처럼 대법원이 비헌법적으로 권력을 찬탈해 남용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Macpherson, 2006/2012, pp. 198-199).

2)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

리프만은 독일계 유대인으로 하버드대학에 진학할 때 트렁크 가득히 비싼 정장을 가지고 갔을 정도로 대단히 부유하게 자랐다. 당시 리프만과 같은 부유층 유대인들은 주류 사회로 편입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래서인지 리프만은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끝까지 숨기려 했다. 반대로 스톤은 포목점을 하던 부모에서 태어난 러시아계 유대인으로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히틀러의 나치 정권은 유대인과 슬라브족, 집시, 동성애자, 장애인, 정치범 등 천백 만 명의 민간인과 전쟁포로를 학살했다. 이 가운데 유대인이 6백만 명으로 당시 유럽에 거주하던 9백만 명의 유대인 중 3분의 2에 해당했다. 스톤과 리프만은 모두 유대인이지만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을 바라보는 시각은 이상하리만큼 달랐다. 스톤이 일찍부터 히틀러를 비난한 데 반해 리프만은 줄곧 침묵을 지켰다. 당시 미국 언론에서 리프만의 영향력은 대단해서 시사 주간지 <타임>(Time)은 히틀러의 만행에 대해 아무 비판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리프만을 핑계로 끌어 댈 정도였다(Macpherson, 2006/2012, p. 249).

리프만은 나치의 위협, 특히 유대인과 관련해서는 놀라우리만큼 무감각한 태도를 보였다. 리프만은 나치 독일 문제는 기본적으로 유럽의 문제이며, 유럽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현상유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스틸(Steel, 1981)은 리프만이 나치 문제를 외교 분석가로서 접근했고, 객관보도의 관점에서 일을 수행했으며, 유대인 문제에서는 훨씬 무관심했다고 분석한다. 1933년 히틀러가 집권 한 후 평화를 주장한 연설에 대해 리프만은 “선한 신념의 증거를 보여준 진정으로 정치인 다운 연설”이라며 히틀러와 나치를 옹호하는 듯한 칼럼을 썼고, 뉘른베르크법 등 유대인 학살이 점점 심해지는 상황에서도 미국이 공식적으로 항의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등 히틀러에 대해서만큼은 침묵을 지켰다(pp. 330-334). 이 뿐만이 아니었다. 1939년 5월 13일 함부르크항을 떠나 쿠바로 향하던 독일 여객선 세인트루이스호에는 유대인 930 명이 타고 있었다. 이들은 쿠바를 거쳐 미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민 쿼터 적용 대상이었지만 쿠바가 입항 허가를 취소하면서 다시 독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승객들은 루즈벨트에게 편지를 보내 여성과 어린이 만이라도 받아달라고 호소했지만 답이 없었고, 결국 이들은 영국, 벨기에, 네덜란드, 프랑스로 난민으로 흩어지게 된다(Macpherson, 2006/2012, pp. 272-273). 미국의 많은 언론인들이 세인트루이스호 사건을 다루었지만 리프만은 침묵했다. 또 1942년에는 죽음의 강제수용소의 존재가 널리 알려지지만 리프만은 아무 것도 쓰지 않았다. 또 당시 국무부가 유대인을

학살하는 나치에 대한 정보를 통제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는 불평하지 않았다(Steel, 1981, p. 373).

3) 스페인 내전

1939년 독일과 소련 사이에 불가침조약이 맺어지고 곧이어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함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까지 스톤은 공산주의 신봉자였고 이런 강력한 이념 성향은 스탈린에 대한 냉철한 판단을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1936년 스페인에서는 연합세력인 인민전선이 총선에서 승리해 제2 공화국을 출범시키자 프랑코와 군부를 중심으로 한 파시즘 진영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내전이 시작됐다. 스페인내전은 내부적으로는 공화파와 프랑코파의 전쟁이었지만, 공화파 뒤에는 스탈린의 소련이 그리고 프랑코파 뒤에는 히틀러의 독일이 지원을 하면서 세계 이념의 각축장이었고 미국도 그 영향에서 예외일 수는 없었다. 미국 내 좌파는 공화파를 지지하는 것이 히틀러를 막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고 생각했고 반대로 우파는 파시즘이 아니라 공산주의를 재앙의 근원으로 보고 공산주의를 막기 위해 프랑코파를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즉 좌파는 히틀러를, 우파는 스탈린을 우선 타도해야 할 것으로 판단했다.

스톤은 스페인 공산당을 지원하는 소련을 옹호했다. “공개적으로 혁명을 외치는 소련이 유럽의 소규모 국가들이 유일하게 도움을 기댈 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됐다”고 주장했다(Macpherson, 2006/2012, p. 281). 그는 전쟁을 지지했다. 한 기고문에서 “나는 파시즘을 증오한다. 나의 가슴은 스페인 공화국과 함께한다 … 나는 격리와 고립이 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 우리가 세계의 보모 노릇을 해야만 하냐고? 유감스럽지만 그렇다”고 열변을 토했다(Macpherson, 2006/2012, p. 289).

그러나 그는 공화파 내에서 소련 공산당의 조종을 받은 공산당이 반대파와 소수 정당을 상대로 벌이고 있던 또 다른 내전에 대해서는 철저히 침묵했다. 그는 공산당의 만행을 무시했고, 스페인 내전에서 간신히 살아 남은 오웰(George Orwell)이 낱알이 고발한 스탈린과 스페인 공산당의 잔인성에 대한 진실도 외면했다(Orwell, 1952/1995). 스톤은 후일 당시 현실을 제대로 들여다 보지 않으려 했다는 것을 고백했다. 진실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오웰이 상기시킨 메시지에 귀 기울이려 하지 않았다”고 회고했다(Macpherson, 2006/2012, p. 277). 뿐만 아니라 스톤은 스탈린이 철의 장막 뒤에서 저지른 피의 숙청에 대해서 얼버무렸다(Macpherson, 2006/2012, p. 294). 러시아 혁명이 뻗속까지 썩어 문드러진 절대군주 체제를 대체했다고 평가했던 스톤은

소련 공산당을 열렬히 지지했고, 이런 가치함물은 스탈린에 대한 판단을 흐리게 한 것이다. 피의 숙청을 한 것이 히틀러였다면 스톤의 입장은 정반대로 달라졌을 것이 명확하기 때문이다.

스탈린이 히틀러와 불가침조약을 맺고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이 터지자 큰 충격을 받은 스톤은 이후부터는 스탈린과 소련 공산주의를 맹렬히 비난했다. 이후 1956년 소련을 방문하고 돌아온 스톤은 그의 신문 전체를 털어 고백적인 칼럼을 썼다. “모스크바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나에게서는 고통이었다”는 말로 시작하는 이 칼럼에서 스톤은 이 글을 쓰지 말라는 압력을 여러 번 들었지만 결과가 나쁠 수 있다는 이유로 진실을 감추면 높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같다고 하며 지금 소련이 그런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가 소련에서 목격한 것은 “지금 수면 위로 올라가지 않으면 폐가 터질 것” 같은 충격이었다. 그는 신문 4페이지 전체를 통해 소련을 비난했다(Stone, 1956). 이 글로 6백 명의 구독자가 떠났지만 스톤은 이후 다시는 소련을 옹호하지 않았다(Radosh, 2006).

반대로 리프만은 스페인 내전 자체에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사태가 진정되고 평화적으로 해결되는 것을 원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스페인 내전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전쟁으로 인한 학살 자체에 신경을 쓰지 않았고 게르니카의 참상에도 무감각했다. 리프만은 후일 사적인 대화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스페인 내전에 대해 열정적이거나 당파적인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다. 내가 우려한 것은 유럽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었다. 나의 희망은 사태가 악화되지 않고 진정되고 평화적으로 안정되는 것이었다. 나는 비개입 정책이 중요하고 유용하다고 봤지만 그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관심이 없었다. 내 마음은 사물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는 것처럼 움직이는데 그때 스페인 내전은 관심 가는 대상이 아니었다(Steel, 1981, p. 338).

3. 소명의식과 가치자유 관점에서 스톤 평가

스톤은 평생 탐사보도를 잘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별다른 보상이 없어도 탐사보도 자체를 자신의 삶과 동일시하면서 자신만의 탐사보도를 추구해 왔다. 또 자신의 이념이나 가치를 보도에 반영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이념적으로는 공산주의자였고, 가치면에서는 시민권과 자유언론, 세계평화, 진실한 정부, 인간적인 사회를 추구했으며, 현실 정치에서는 루즈벨트 지지자였다.

그의 취재는 이와 같은 소명의식이 없었으면 불가능했다. 30년 이상을 독립 언론인으로 살면서 탐사보도에 헌신한 스톤은 집요하고 주도면밀한 취재로 유명했다. 그는 언제나 막전이 아닌 막후를 중시했다. 왜냐하면 막후가 정책이 만들어지는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공식 기록과 연구보고서, 연설문, 기자회견, 의회 증언, 예산서류를 광범위하게, 분석적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회의적으로 읽었다. 이를 통해 실마리를 찾아내고, 점들을 연결하고, 원인과 동기의 구조를 밝혀 냈다. 사건 관련 기록은 물론 기자회견 등을 정리하고 인터뷰를 곁들이는 등 스톤의 취재는 철저하기로 유명했다. “공무원들 무르팍에 앉아 비밀을 내놓으라고 징징거리 봐야 쓰레기 밖에 얻어먹을 게 없다”는 동료 언론인들에 대한 그의 조언에서도 나타나듯 스톤은 매우 공격적인 취재로 유명했다. 한 번은 기자회견에서 집요하게 질문하는 한 기자를 보던 공무원들이 자기들끼리 하는 말로 “저 친구는 뭐야? 자기가 이지 스톤이라는 거야!”라고 말했을 정도이다(Macpherson, 2006/2012, pp. 350-351).

스톤의 이 같은 취재에는 원칙이 있었다. 모든 정부는 거짓말을 하며 각성된 여론이 강제하지 않으면 그들은 도덕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Scialabba, 2010). 스톤과 다른 언론인 사이의 진짜 차이는 진실이라고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가 아니라, 행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열정을 가지고 있었는지 냉정한 자세만 유지했는지에서 생겼던 것이다. 자신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언론인 스스로 그 가능성을 확인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였다. 이 같은 모습은 선지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탐사보도 언론인에게 치명적인 함정인 가치함몰에서 스톤도 자유로울 수 없었다. <표 3>에 정리한 것처럼 스톤의 오류는 모두 가치함몰, 다시 말해 신념 과잉과 책임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루즈벨트에 함몰돼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는 루즈벨트의 대법원 장악 시도를 지지하면서 모든 정부가 거짓말을 한다는 원칙을 루즈벨트에게만은 적용하지 않았다. 이념적으로 공산주의를 신봉했던 그는 히틀러를 우려한 나머지 스탈린에 대해서는 눈을 감았고, 스페인 내전과 소련에서 벌어진 피의 숙청에 대해서는 진실을 외면했다. 당시 그의 보도는 이념이나 가치에 함몰돼 책임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흥분상태에서 나온 정파보도였으며 그의 모습은 광신도에 해당했다. 라도시(Radosh, 2006)는 의회 보고서의 각주에서도 적을 찾아내는 스톤의 호랑이 눈(tiger eyes)이 스탈린에 대해서 만큼은 의미를 정확히 보지 못했ادم 스톤의 가장 큰 잘못은 공산주의를 믿어서가 아니라 공산주의만을 유일한 대안으로 생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표 21〉 주요 사건에서의 스톤과 리프만의 행적 비교

	스톤	리프만
루즈벨트 대법원 재구성 계획	부적절	적절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	적절	부적절
스페인 내전	부적절	부적절
오류 이유	가치함몰(정파보도)	가치배제(객관보도)

반면, 리프만의 오류는 가치배제 또는 가치중립 속에서 세상을 객관적 관찰자의 입장에서 바라보았다는 점이다. 때문에 그는 후일 세상 일에 무관심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리프만은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 자체에 신경을 쓰지 않았고, 스페인 내전이 도덕적 대결이라는 인식조차 없었다. 그는 전쟁이 세계에 미칠 파장에 대해 알지 못했고, 히틀러의 군사적 지원이 야기한 참상은 고려하지 않았다. 오류에 빠진 그의 모습은 사업가에 해당했다.

제 3 절 소결: 최승호, 스톤, 리프만 비교

소명의식의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는 장인의 경우 그들은 일을 위해서, 일을 잘 해내려는 욕망으로 살았으며 별다른 보상이 없어도 일 자체에서 보람을 느꼈다. 그들은 평생 본인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했으며, 일 자체를 자신의 삶과 동일시하면서 일을 통한 자기 세계의 형성을 추구해 왔다.

따라서 언론인의 경우 언론인이라는 직업의 신성함과 윤리성, 도덕성을 준수하며 언론 자체를 위해서 삶을 살고자 할 경우 소명의식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교사의 소명이 일 자체 즉 잘 가르치는 것이 되어야 하며, 택시운전사의 경우 마찬가지로 승객의 안전이 소명의 기본이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역사에 기록되는 탐사보도를 남긴 언론인들의 경우 가치나 이념에 대한 신념이 강했다는 점에서 이념이나 가치 등도 소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언론인의 소명의식은 직업적으로 구현해야 할 윤리를 포함해야 하며 신념윤리를 넘은 책임윤리의 구현인 가치자유를 거쳐야 한다.

최승호와 스톤, 그리고 리프만은 모두 존경받는 언론인이다. 그러나 소명의식과 가치자유에 관점에서 보았을 때 그들의 특성은 달랐다.

<표 22> 최승호, 스톤, 리프만 비교

언론인	최승호	스톤	리프만
직업정신	소명의식	소명의식	전문직
실천윤리	신념윤리+책임윤리	신념윤리+>책임윤리	신념윤리<책임윤리
가치실천	자유	자유, 함몰	배제
가치연관	성역 없음	일부 성역 존재	주류 집단 이슈
가치토론	목적과 수단 적합성 검증	때로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	목적보다 수단의 정당성 중시
가치평가	적극	적극	제한
보도특성	이념성	이념성, 정파성	사실성, 중립성
언론인 유형	선지자	선지자, 광신도	사업가

언론인으로서 최승호의 일생을 연구하지는 못했지만 소명의식과 가치자유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뉴스타파〉에서의 최승호는 탐사보도 전문가로 선지자의 모습이었다. 탐사보도 정의(진실, 폭로, 변화)에 충실하고자 하는 최승호의 탐사보도에서 신념윤리와 책임윤리의 균형, 다시 말해 가치자유의 실천은 이른바 최승호식 앰부시에서 상징적으로 드러났다. 모든 것을 장악한 상태에서 취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적의 수단을 찾아가는 최승호의 능력은 〈뉴스타파〉 내 다른 참여자들도 평가하는 기능이었고, 가치자유의 실천이었다. 취재 대상에는 성역이 없었지만 그의 보도는 이념적으로는 진보에 가까웠다. 최승호는 소명의식과 가치자유 실천의 능수능란함으로 다음에 무엇이 나오며 위험한 구석이 어디인지 알고 있었고 정재원이 겪을 난관을 예상하며 안내해 주었다. 그는 언론인이 세상을 바꾸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면 객관보도의 가치배제 주장을 비판했다.

〈자료 203〉 최승호와 심충면담 중에서(2018년 12월 28일)

나는 세상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보다 나은 세상으로 만들어야 하고. 나은 세상으로 만들려고 하면 어떤 기자가 주관을 가질 수밖에 없죠. 주관을 가질 수 있는 거고. 주관에 의해서 취재의 아젠다를 세팅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장 연구 기간에는 포착되지 않았지만 최승호 역시 가치함몰에 빠져 진실을 외면했던 오류의 경험이 있었고, 심충면담에서 여러 차례 가치함몰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 204〉 최승호와 심충면담 중에서(2018년 12월 28일)

그것을 추구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기의 아젠다를 입증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휘둘러서 증거를 반대 증거가 있는데도 묵살하고 한다든지, 반대 증언자가 있는데도 무시한다든지 너무 과소평가해버린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최고의 탐사보도 언론인이라는 칭송을 받지만, 스톤 역시 소명의식이 가치함몰에 빠질 경우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스톤은 선지자였지만 때로는 가치함몰에 빠진 광신도였다. 특히 스톤의 사례는 탐사보도 언론인의 소명의식이 저절로 탐사보도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언론인이 처음부터 특정 정파의 이익을 목적으로 취재에 임할 경우 분명 정파보도이지만, 비록 스스로 생각할 때 대의에 대한 헌신이라고 하더라도 가치자유를 거치지 않고 가치함몰에 빠질 경우 언제든지 정파보도로 흐를 수 있다는 점이다. 언론인은 누구나 가치함몰에 빠질 수 있고 스톤도 예외가 아니었다. 20세기 최고의 탐사보도 언론인에게도 가치함몰은 치명적 오류를 불러오는 위험이었다. 반면에 리프만은 언론인이 가치배제에 집착할 경우 어떤 오류에 빠질 수 있는지를 예시하고 있다. 오류에 빠진 리프만은 사업가의 모습이었다.

가치함몰에 빠진 정파보도의 오류를 범하긴 했지만 스톤은 소명의식을 가진 탐사보도 언론인임에 틀림없다. 반면 리프만은 전형적인 객관보도 언론인에 해당한다. 언론인으로서 동시대를 살아온 스톤과 리프만의 인생 행적은 탐사보도와 객관보도

언론인의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 리프만: 주류, 객관/무열정, 인사이드, 관료 교류, 정보/논평, 여론 불신
- 스톤: 비주류, 이념/열정, 아웃사이드, 관료 감시, 쟁점/분노, 여론 신뢰

리프만은 냉정하고 고상한 스타일로 관찰자의 입장이었던 반면, 스톤은 다혈질적이고 열정적이었으며 대중의 편에서 발언하는 등 좌파로서의 이념적 성향이 강했다. 경력도 리프만은 일찍부터 유명해져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평론가이자 언론인으로 대접받으며 대통령과 금융가, 재벌 등과 교류하면서 인사이드의 장점을 누린 반면, 스톤은 아웃사이드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며 정부를 지속적인 감시 대상으로 보았고 나이가 들어서야 유명해 졌다(Macpherson, 2006/2012, pp. 255-259). 글쓰기 스타일에서는 스톤은 핵심 쟁점만 확고하게 주장하는 쪽이어서 그의 글에는 모호함이나 난해함 같은 것이 없었고 분노와 같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동료 언론인은 스톤을 “음모 포착 계열”로 분류했다. 음모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이다. 리프만은 정부 고위 관료로부터 받은 내부 정보를 토대로 논평을 쓰는 것이 특기였다(Macpherson, 2006/2012, pp. 203-204). 민주주의를 바라보는 태도에서도 달랐다. 스톤은 미국의 민주주의는 흠결이 있기는 하지만 인류 역사 전체를 놓고 보면 찬란한 시기에 속한다고 생각했고 시민권과 자유언론, 세계평화, 진실한 정부, 인간적인 사회 등을 헌신해야 할 신념으로 삼았다(Macpherson, 2006/2012, p. 415). 그러나 리프만은 민주주의는 국민의 주권을 주장하지만 올바른 지도자 없이는 국민은 속수무책이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모든 시민에게 전문가적 견해를 가지라는 짐을 지우지 말고 그 짐을 책임 있는 전문가에게 부과하자는 엘리트 정치론을 주장했다(Lippmann, 1922).

여기서 주목할 점은 주요 사건 때마다 리프만이 취했던 입장이다. 리프만의 오류는 기성 체제와 주류 인사들에게 봐줄 만한 잘못으로 받아들여졌다. 이유 중 하나는 그의 판단 착오가 당시 미국 사회 주류 집단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뉴딜을 비방한 것이나 히틀러의 등장에 대한 근시안적 평가, 스페인 내전과 관련해 중립을 주장한 일, 제2차 세계대전에서의 고립주의 주장 등이 그런 경우였다. 때문에 리프만의 오류는 잘못으로 비추어지지 않았고, 리프만의 영향력은 손상되지 않았다. 반면 스톤은 곳곳에서 용단 폭격을 받았고, FBI에게 평생 감시까지 당했으며, 주류 언론인들과 신문사주들로부터 멸시를 당해야 했다(Macpherson, 2006/2012, p. 282).

최승호는 스톤의 상황을 이해하는 쪽이었다. 그는 탐사보도 언론인은 행동에 있어

더욱 조심해야 하며 사소한 것이라도 약점을 잡히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 205〉 최승호와 심층면담 중에서(2018년 12월 28일)

권력 기관들은 내가 생각하기에 우리 언론에 대해서 무슨 뒤통수를 깎다든지 이렇게는 안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정도의 한국 사회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내가 뭘 잘못하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제를 다루는 언론인들은 일단 자기가 깨끗해야 되고 뭐든지, 하다 못해 신호등도 지키려고 애써야 되고 음주운전 절대 하면 안 되고 그런 게 있는 거죠.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들어올지는 사실 모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언론인들이 자기 몸가짐을 바로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이것이 스톤이나 최승호만이 겪은 특수한 경험인지 아니면 탐사보도 언론인이 살아가야 할 숙명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연구자가 느끼기에는 숙명에 가까웠다. 다시 말해 주류 집단에서 이탈해 사회의 변화를 추구한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최승호와 스톤, 그리고 리프만은 모두 여론 형성에 큰 영향력을 미쳤다. 따라서 그들이 잘못하면 그만큼 해악도 컸다. 그러나 진실을 파헤치다 이념이나 가치에 함몰돼 정파보도로 이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세상 일에 무관심하면서 진실을 찾아내려는 노력을 외면하는 것은 더 큰 문제일 수 있다. 진실이 세상에 드러날 기회조차 없애는 것이기 때문이다. 신념윤리를 넘어 책임윤리로의 조화가 베버가 그리던 이상적인 정치가의 덕목이듯이 자명해 보이는 것에 대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외치는 최승호나 스톤의 소명의식에 리프만의 책임의식이 더해질 때 선지자로서의 탐사보도 언론인이 완성되어 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제 8 장 해석 및 논의

지금까지 〈뉴스타파〉라는 시간과 공간에서 참여자들이 갖고 있던 소명의식의 양상과 실천 방법, 그리고 탐사보도의 전문성을 소명의식과 가치자유의 관점에서 기술하고, 분석하였다. 연구자는 이를 통해 참여자들에 대한 심층적, 맥락적 이해를 시도했다. 소명의식과 가치자유 관점에서 세 가지 소명의식의 내용과 실천, 그리고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 〈표 22〉과 같다.

순교와 고행의 자신감을 바탕으로 진실을 왜곡하는 한국 언론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자는 소명의식은 〈뉴스타파〉 밖에 할 데가 없다는 책임감이 더해지면서 적극적으로 실천됐다. 저널리즘 비판 대상에는 모든 언론이 포함됐지만 참여자들은 〈KBS〉, 〈MBC〉, 조중동/종편에 비판을 집중했고 방법은 적대적 공격이었다. 언론 비판이라는 목적이 적대적 공격이라는 수단을 정당화시키는 측면이 있었다. 그 결과는 탐사보도와 정파보도의 혼재였고 다른 언론인들의 반감을 불러 왔다.

〈표 23〉 소명의식의 내용, 실천, 결과 정리

소명의식		저널리즘 비판	권력 감시	탐사보도
윤리		신념윤리>책임윤리	신념윤리>책임윤리	신념윤리+책임윤리
가치		자유, 함몰	자유, 함몰	자유
가치 연관	취재대상	KBS, MBC, 조중동/종편	이명박, 박근혜 정권	성역 없음
	목적	진실 왜곡 비판	정권 감시	진실과 변화
가치 토론	취재 수단	적대적 공격	적극적 기획, 적대적 공격, 소극적 보도	적극적 기획
	목적의 실현가능성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	목적과 수단의 적합성 검증
가치평가		적극	적극	적극
보도		탐사보도, 정파보도	탐사보도, 정파보도, 객관보도	탐사보도(진보)

이명박, 박근혜 정권 감시는 분노를 핵심으로 하는 선배 집단의 특수한 소명의식

이었다. 소명의식은 정파에 따라 선택적으로 가치자유와 함몰, 배제 과정을 거쳤다. 권력 감시가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국한되면서 정권교체라는 가치에 함몰되어 갔고, 보도 결과에서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대한 적극적인 기획은 가치자유를 거친 탐사 보도였지만 끼워넣기로 대표되는 적대적 공격은 가치함몰에 따른 정파보도였다. 우호 정파에 대한 소극적 태도는 가치배제를 거친 객관보도로 이어졌다. 이런 혼재 속에서 참여자들은 정파성의 탓에 걸렸다. 생존 차원에서 최고의 탐사보도 언론이 되겠다는 소명의식은 가치자유를 거친 탐사보도를 만들어 냈다. <뉴스타파>가 안착할 수 있었던 것도 성공적인 탐사보도 때문이었다. 취재 대상에 성역이 없었고 변화를 만들어 내고자 노력했다. 적극적인 기획 보도를 만들어 냈고 활발한 가치토론을 통해 탐사보도의 역동성과 위험을 관리했다. 그 결과인 탐사보도는 이념적으로 진보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제8장에서는 지금까지의 기술과 분석 내용을 종합하여 좀 더 거시적, 이론적, 실천적 차원에서 연구자의 해석을 제시할 것이다. 분석은 ‘현상의 구조를 파악하는 작업’인 반면, 해석은 ‘현상의 의미를 이해’하는 작업이다. 문화기술지 연구에는 대부분 해석이 있다. 왜냐하면 현장 연구를 통해 얻은 자료 자체가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고 창조하는 행위로 해석이 요청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의 주관적 이해와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증가한다. 연구 대상의 경계를 넘어 일반적인 의미와 적용 가능성을 따지며, 자료를 보다 포괄적, 거시적, 주관적 맥락에서 통찰하기도 한다. 월코트(Wolcott, 1992) “그렇듯한 해석을 얻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분석의 객관성을 포기해야 한다”라는 말로써 분석과 해석을 상호 독립적 관계로 설명한다. 또한 분석과 해석이 선후 혹은 단계의 관계를 맺는다고 보지 않고, 시소와 같은 순환적 관계를 맺는다고 보았다. 말하자면 분석과 해석 양자 중에 어느 것이 더 높고 낮음이 없으며, 어느 것이 더 먼저인 가도 없다는 것이다. 요컨대, 분석과 해석은 이질적인 작업이며, 따라서 서로 다른 훈련을 요구한다. 다만 훈련 단계에 있는 연구자의 경우 해석에 앞서 분석을 충실히 연마해야 하며, 연구자의 경륜에 따라서 젊은 시절에는 분석에 치중하다가 학문적 깊이가 쌓이면서 해석에 더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조용환, 1999, p. 48).

해석은 방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신중하지 않은 해석이 연구 전체의 의미를 망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연구자가 해석에서 능력의 한계를 느낀 이유이기도 한다. 연구자는 해석에서의 방종을 경계하기 위해 역으로 현장 연구 자료에 더욱 충실하고자 했다. “자료는 해석을 지원하고 해석은 자료에 의미를 부여한다”는 조언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정권 교체를 지난 후 <뉴스타파> 내에는 위기감이 팽배해 있었다. 당장의 현실과 <뉴스타파>의 미래에 대한 반성, 걱정, 불안 등이 섞여 있었다.

〈자료 206〉 선배 집단과 일상대화 중에서(2016년 12월 20일)

참여자 1: 지금 사실은 보면 이번 사건 딱 터졌을 때 이번 사건 그냥 나 몰라라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 조직 안에.

참여자 2: 아니, 나 몰라 라는 아니야, 나 몰라 라는 아니지만.

참여자 1: 아니, 아니,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나 몰라 라는 아닌데.

참여자 2: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야.

참여자 1: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지.

참여자 2: 어떻게 할 줄 모르고 각자가 자기의 나름의 또 앞에 급한 거 있었던 것도 있고 이런 거야.

참여자들은 위기의 원인을 다양하게 진단하고 있었고 나름 타당한 근거가 있어 보였다. 예를 들어, “탐사보도 전문 언론으로서 역량을 충분히 쌓지 못했다”, “<뉴스타파>스러움을 점점 잃어가는 거 같다”, “정체성이 빨리 잡혀야 한다”, “<뉴스타파>를 만들어 갈 사람들하고 만든 사람하고 경험의 차이가 크다”, “전반적으로 느슨한 분위기가 있다”, “정치 광장의 변화 속에서 후원 지지 기반이 감소한다”, “후원회원들에 의해서 휘둘릴 수 있는 여지는 있다”, “<뉴스타파>라는 데는 계속 있을 필요가 있는가 외부에서 그렇게 생각한다” 등이었다.

연구자가 보기에 위기감은 소명의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연구자는 참여자들이 진단한 위기의 원인을 첫째, 탐사보도의 원동력, 둘째, 탐사보도의 방향성, 셋째, 탐사보도와 정파성, 넷째, 탐사보도의 취재 윤리, 다섯째, 탐사보도의 독립성 측면으로 정리한 뒤 각각의 원인에 대한 연구자의 이해와 해법을 제시할 것이다. 동시에 <뉴스타파>라는 범위를 넘어 한국 탐사보도에 대한 연구자 나름의 진단과 관점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본 연구가 말하고자 하는 한국 탐사보도에 대한 제언이기도 하다.

제 1 절 탐사보도의 원동력, 소명의식

참여자 중 선배 집단은 해직이나 퇴직을 경험한 사람들이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등장한 후 <KBS>, <MBC>, <YTN> 등 방송은 사실상 초토화 되었고, 시사 및 보도에 대한 정권의 직, 간접적 억압은 언론 수준의 급격한 하락으로 이어졌다(박인규, 2010, 2017). 그 상황에서 언론인이 할 수 있는 선택은 세 가지였다. 체제에 굴종하고

순종하고 지내느냐,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한탄하고 지낼 것이냐, 아니면 한 번 바위에 부딪히는 심정으로 저항하는가였다. 그리고 저항하던 사람들 중 일부가 “이것 만이라도 한 번 해 보자”는 생각으로 <뉴스타파>를 만들었다. 그들 마음 속에는 스스로를 양심 언론인으로 바라보며 “제대로 된 언론을 해보겠다”는 소명의식이 있었다.

이는 1970년대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당시 상황과 비슷하다. “동아투위 선배”들이 <뉴스타파> 언론인들을 보면서 안쓰러워 하고, 응원하고, 또 “<뉴스타파>가 동아투위 정신을 이어받았다”며 격려하는 것도 참여자들의 소명의식을 인정해서라는 것이 연구자의 생각이다. <동아일보>에서 해직된 후 <한겨레 신문> 논설 실장과 <KBS> 사장을 지낸 정연주는 <뉴스타파>를 박정희, 전두환 정권 시절의 향린교회에 비유했다. 당시 향린교회는 소규모 교회였지만 사회의 소금 역할을 했으며, 지식인들 사이에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다.

〈자료 207〉 정연주와 심충면담 중에서(2017년 6월 26일)

향린교회 같은 생각이 들어 나한테는 <뉴스타파>가. 그 교회는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나 뭐 이런 영향력 있는 교회가 아니야. 교인들 기껏 모여봐야 한 3-400명? 2-300명? 그런데 적어도 특히 박정희 시대나 혹은 그런 암흑시대에는 소위 기독교가 종교로서 가장 양심적인 세력이었어요 그리고 적어도 그를 따르는 무리에게는 정말 희망이었고. <뉴스타파>도 보면은 파장은 얼마 나가진 않지만 적어도 우리 사회에 양심적인 아주 상식적이고 양심적인 언론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향린교회의 그런 존재라고. 그 한계가 있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만한 의미가 있는 거지.

참여자들은 독립언론, 자유언론의 대의 아래 자신들의 소명을 열정적으로 실천했다. 정론의 길을 걷는다는 도덕적 우월감을 바탕으로 한 저널리즘 비판은 “우리 밖에 할 데가 없다”는 사명감이었고, ‘이명박근혜’ 정권은 해직과 퇴직의 책임을 묻는 분노의 대상이자 동시에 권력 감시라는 탐사보도의 본령과 맞닿아 있었다. 독보적인 탐사 보도 전문 언론이 되겠다는 목표는 마음 속 자존심이자 생존 전략이었다. 소명의식의 실천은 외부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후원회원의 수도 증가했다.

그러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겪으면서 참여자들은 스스로 말하듯 “천당과 지옥을 경험”했다. 탄핵과 대선 이후 참여자들 사이에는 <뉴스타파>의 미래에 대한 위기의식이 팽배했다. 연구자가 진단한 위기의 원인은 흔들리는 소명의식이었다. 첫째, 권언유착의 시각에서 집중적인 비판 대상이었던 보수 언론이 적극적으로 권력 감시에

나서고, 반대로 진보 언론이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진보 언론에 대한 감시에 선풍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보수 언론의 과장, 왜곡, 편향을 적극 비판하겠다는 소명의식이 당장은 해소된 것이다. 둘째, 이명박, 박근혜 두 사람이 사라지면서 분노의 대상도 사라졌고, 그들을 적폐로 규정해 보도를 이어가겠다는 마음은 있지만 열정은 예전 같지 않았다. 반대로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는 이전만큼 적극적인 권력 감시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자료 208〉 선배 집단 한 명과 심층면담 중에서(2017년 4월 3일)

사실 굉장히 그냥 거칠게 이야기하면은 안티로서 애초에 내걸었던 그 목적의식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일정 부분 해소가 되어버린 객관적으로 보면은 해소가 되어버리는 상황이 아닌가. 그러면 애들은 〈뉴스타파〉라는 데는 계속 있을 필요가 있는가 외부에서 그렇게 생각할 게 나는 무슨 뭐 그렇게 섭섭한 얘기는 아닌 것 같아. 그런 걸 보면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라는 생각이 조금 들죠.

셋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새 정권 이후의 자유롭고 경쟁적인 언론 환경에서 참여자들은 탐사보도 전문 언론이라는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다.

〈자료 209〉 선배 집단 한 명과 심층면담 중에서(2017년 6월 16일)

참여자: 저는 다른 문제는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제일 크고 시급한 문제는 탐사보도 매체로써 그에 걸맞는 탐사보도 역량을 충분히 갖고 있지 않다. 라는 게 좀 가장 큰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연구자: 좀 더 자세히 이야기 하면?

참여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각각의 기자들이 갖고 있는 전문성이 다른 매체와 비교했을 때 평균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압도를 한다고 볼 수 없고, 뛰어나다 볼 수 없고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노하우? 이런 것들도 사실은 크게 진입장벽이 높은 그런 건 아닌 거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자료 210〉 후배 집단 한 명과 심층면담 중에서(2017년 6월 30일)

아무도 보도 안하는 건에 대해서 〈뉴스타파〉가 두각을 드러내지만 누구나 다 하는 보도에서는 전혀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 너무 자화자찬하면서

〈뉴스타파〉가 있었던 거는 아니었는가 막상 경쟁해보니까 너무 못하는데 그래서 앞으로 더 위기가 되지 않을까.

넷째, 세 가지 소명의식은 선배 집단이 주도한 것으로 소명의식에서 선, 후배 집단 간의 차이는 점점 커져갔다. 선, 후배 간 소명의 차이는 악순환의 고리였다. 특히 후배 집단은 하고 싶은 취재가 있어도 발제를 포기하면서 자신의 것이 아닌 선배의 취재를 도와주는 보조 역할을 하는 경우가 반복됐다. 2013년 입사 이후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후배 집단의 발제와 취재에 대한 자신감은 줄어들었고 후배 집단 중 일부는 〈뉴스타파〉에 대한 소속감과 탐사보도 언론인으로서 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있었다(최문호 & 박승관, 2018). 종합하면, 독립언론, 자유언론의 깃발 아래 그동안 열정적으로 추구했던 소명들이 타의에 의해 해소되거나 흔들린 것이다.

〈자료 211〉 선배 집단 한 명과 심층면담 중에서(2017년 5월 24일)

후배들의 신념을 내가 뭐 깊이 있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 부분에서 그런데 다만 그 신념을 구현할 수 있는 통로들은 좀 적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신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선배들이 조금 확인하려고 하지 않은 것들도 있었고.

〈자료 212〉 후배 집단 한 명과 심층면담 중에서(2017년 6월 19일)

가장 문제요? 한두 마디로 정리는 안되는 거 같은데, 가장 큰 문제는 음 뭐 일단 다음에 이제 〈뉴스타파〉를 만들어 갈 사람들하고 지금 만들어져 있는 사람하고 아마 경험의 차이가 커 가지고. 이를테면 KBS같은 큰 조직에 있던 분들이 어떤 그 분들이 이제 의미 있어 하고 만들어가고 싶어하는 내용하고 이제 뒤에서 따라가야 되는 사람하고 경험의 차이로 인해서 좀 공감대도 안 만들어지고 어떤 아이템을 할거고 어떤 방식으로 표현 할거고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공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

결국 〈뉴스타파〉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소명의식, 반대로 위기를 맞은 것도 소명의식 때문이었다. 따라서 참여자들이 기존의 관성에서 벗어나 새로운 소명을 배양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이 절실했다. 선, 후배 집단 사이의 수준 차이를 점검하고 만일 차이가 있다면 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탐사보도 교육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싸우는 자에게 중요한 것은 싸워야 할 이유이다. 주지하다시피 사회주의를 소명으로 갖고 있었던 오웰(George Orwell)은 당시의 계급 모순과 사회주의적 대안을 역설하는 데 헌신했다. 제국 경찰, 빈곤과 좌절, 히틀러, 전체주의 등을 통렬히 비판했고, 집요하고 용기 있는 취재는 그의 주장에 설득력을 제공했다(Orwell, 2005/2010).

탐사보도 언론인들은 누구인가? 탐사보도가 갖는 특성을 바탕으로 미국 언론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자. 정부에 대한 감시자로서 언론의 역할과 진실이 갖는 방어 기능을 정당화시켰다고 평가받는 쟁어(John Peter Zenger), 정부가 법을 제정해 언론 자유를 제약하려고 했을 정도로 정부 비판을 멈추지 않았던 배치(Benjamin Franklin Bache), 기자의 임무를 받아쓰는 사람에서 수사관으로 확대시킨 베넷(James Gordon Bennett Sr.), 상업 신문에 환멸을 느낀 뒤 스스로 신문을 창간해 노동 문제에 천착했던 스윈톤(John Swinton), 잠입취재를 탐사보도의 공인된 취재방법으로 정착시킨 블라이(Nellie Bly), 뉴욕의 빈민 문제를 고발하면서 사진술을 도입해 카메라를 폭로의 도구로 정착시킨 리스(Jacob Riis), 지방정부, 대기업 그리고 노동에서의 부패가 만연해 있고 미국인 모두가 여기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 <맥클루어 매거진>의 3인방(스테펀스(Lincoln Steffens), 타벨(Ida Minerva Tarbell), 베이커(Ray Stannard Baker))와 맥클루어(S. S. McClure), 시카고의 한 도축공장을 잠입취재해 자본주의의 무자비한 이윤추구 실태를 고발, 사회주의 개혁을 주장한 싱클레어(Upton Sinclair), 생물학도로서 환경문제의 중요성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던 카슨(Rachel Carson), 변호사로서 소비자 운동에 헌신했던 네이더(Ralph Nader), 미라이 학살 보도의 허쉬(Seymour Hersh), 워터게이트 보도 주역들, 최고의 독립 언론인으로 평가받는 스톤(I. F. Stone) 등, 이들은 대상이 무엇이든, 예를 들어 정부 감시, 언론자유, 공화주의, 사회주의, 독립언론, 탐사보도, 환경, 소비자 등, 신념에 열정적으로 헌신하며, 저항하며, 변화를 추구했고 연구자는 이를 소명의식으로 이해했다. 소명의식은 용기나, 집요함, 만족할 줄 모르는 호기심, 직감 등 흔히 얘기하는 탐사정신으로 발현되고 있었고, 탐사정신의 핵심을 뽑으라면 집요함과 용기였다. 외부로부터 주어진 사실을 비판하며 자신이 진실이라고 확신한 바를 두려움 없이 말하고 행동하는 주체로서 푸코가 제시한 파레시아 자체였다(김예란, 2017).

언론의 위기는 상업화나 선정주의가 아니라 그곳에 진실이 없기 때문이다. 언론 자유는 인위적으로 만든 뉴스라는 상품을 팔기 위해 언론인들이 갖는 특권을 점잖게 표현한 말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Boorstin, 1992/2004). 언론의 최우선 덕목은 진실 추구이지만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은 언론보도가 실제적 진실로부터 상당한 거리가 있는, 언론인의 시각으로 재창조된 것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언론인은 역사의 거

친 초고를 쓰는 사람에 머무르고 있을 뿐이다(Goldstein, 2007/2009). 리프만(Lippmann, 1922)이 미국 민주주의를 부정적으로 전망하면서 그 이유 중 하나로 언론 보도가 진실이 아니라는 주장을 제기했을 때 미국 언론인들은 충격을 받았고 그가 진실을 보도하기 위한 방법이라며 제안한 것이 객관보도로 규범화 돼 20세기 전반기 미국 언론을 지배했다. 언론이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전통으로의 회귀, 즉 공적 사안에 대한 진실 보도에 충실함으로써 수용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이 것이 1997년 하버드대학에 모인 주요 언론인 26명이 현대 언론의 주요 이슈에 관해 토의한 후 내린 결론이었다(Kovach & Rosenstiel, 2007).

탐사보도 언론인들은 진실 보도를 추구했다. 리프만이 언론에 대한 비관적 진단을 내릴 즈음 한쪽에서는 열심히 뭔가를 파고 다니는 언론인들이 있었다. 그들은 정치인이나 공무원, 기업가, 또는 당시의 지배 이데올로기 등에 감춰진 진실이나 진실의 조각들을 찾아내고 폭로했다. 폭로가 성공했을 경우 변화가 일어났고 언론인 자신은 대통령과 친분 관계를 맺는 등 유명인사가 되기도 했다. 워싱턴의 지역신문이었던 〈워싱턴 포스트〉는 펜타곤 페이퍼 보도와 워터게이트 보도로 세계가 다 아는 신문사로 도약했다. 회사의 명운이 걸려 있는 상황에서 〈워싱턴 포스트〉 발행인 그레이엄(Katharine Graham)은 폭로를 선택했다. 그녀는 국방부 문서의 공개가 미국 국민이 미국이 베트남전에 개입하게 된 경위를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공개가 정부가 주장하듯 국가안보에 대한 침해가 아니라 국익에 대한 공헌이며, 그리고 책임감 있는 신문의 의무라는 신념을 갖고 있었다(Graham, 1997/1997, p. 529).

어느 날 우드워드(Bob Woodward)가 탐사보도가 죽었는지 살았는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브래들리(Ben Bradlee)한테 물었다. 브래들리는 모든 것이 변하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언제나 겉으로 보이는 것의 아래에 숨겨져 것을 찾아가려고 노력하는 일단의 무리들이 있고 그들은 결국 그들이 진실이라고 믿는 것을 출판하거나 방송하는 방법을 찾아 낼 것이다”고 말했다(Mair, 2011a, p. 28). 탐사보도 과정은 험난한 여정이다. 〈워싱턴 포스트〉의 편집장으로 워터게이트 보도를 진두지휘했던 브래들리는 당시의 두려움을 이렇게 표현했다.

신문 만들기란 크기를 알 수 없는 과일을 매일 조금씩 베어 먹는 것과 같다. 십여 번 먹어본 후 그것이 사과라는 것을 알 수도 있다. 아주 큰 사과라면 수십 번을 먹어봐야 제대로 알 수 있다. 워터게이트가 그런 사건이었다(Bradlee, 1995/2009, p. 341).

여성 탐사보도 언론인인 프리단(Betty Friedan)도 그녀의 기념비적인 취재를 할 당시 비슷한 두려움을 느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간다는 것은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당신이 돌아보고 얼마나 먼지, 또 당신이 얼마나 왔는지를 알게 되기 전까지는 얼마나 멀리 가야 할 지 알 수 없는 법이다(Friedan, 1963/2005, p. 45).

탐사보도 언론인은 무엇이 진실인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진실이라고 스스로 믿는 단계까지 파고 들어, 반격을 뚫고 폭로를 해야 한다. 한 번의 폭로로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는 오히려 희박하며 변화가 일어날 때까지 추적 보도를 해야 한다. 그래서 탐사보도 언론인은 아주 특별한 종자로 불린다(Shapiro, 2003, p. viii). 탐사보도 언론인들은 진실의 폭로와 이를 통한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스스로 존재 가치를 주장해 왔다. 명확해 보이는 것들에 대해 의문을 품는 행위를 금지했다면 우리는 오히려 그것에 대해 확신을 갖기 힘들 것이다. 현재 보증 받는 믿음이 더욱 안전해질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 나와 사람들에게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증명해 보이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사상의 자유시장, 즉 어떤 공인된 것들이라도 인간이 도전할 수 있도록 허용됨으로써 진실을 찾으려는 인간의 노력은 자유롭게 유지되어야 한다. 이성적 설득 능력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언론 자유의 절대적 가치를 주장했던 밀턴(Milton)은 열린 토론과 자유로운 믿음의 상호작용 속에서 진실은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확신했다(Milton, 1886).

그러나 진실이 스스로 세상에 퍼져나갈 수 있는 내적인 힘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나태한 감상일 수 있다. 진실이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감춰져 있는 진실을 어떻게 대낮의 밝은 햇빛 아래로 꺼내 올 수 있을까? 감옥과 처벌로 점철된 언론 자유 역사에서 탐사보도 언론인들은 시민이 진실에 보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기여를 해왔다. 또 언론 자유 역사에서 고비 마다 자유를 한 단계 발전시켰던 현장에는 탐사보도 언론인들이 있었다.

무언가를 감추고 있거나 감춰야 하는 사람이나 기관은 흔히 국익, 도덕성, 예의, 관례, 신뢰, 약속, 파장, 해로움 등을 이유로 폭로를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몰아가고 폭로자를 매도한다. 따라서 폭로는 대단한 용기를 필요로 한다. 진실을 말한다는 것은 때로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 자신이 맺은 모든 관계, 그리고 자신의 신체에 대한 위험까지도 감수해야 하는 일이다. 예언가나 현인 그리고 학자의 본질은 진실을 말하는 것과 거리가 멀다는 푸코(Foucault, 2011)의 지적은 진실 말하기와 지위, 지식은 상관관계가 없음을 뜻한다. 따라서 신체적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감춰진

것을 폭로하려는 언론인의 소명의식은 평가받아야 할 일이지 지탄의 대상은 될 수 없는 것이다.

베버는 위기에 처한 독일 사회를 구원해야 할 핵심으로 정치가를 지목하며 정치 지도자가 소명의식을 가져야 정치 나아가서 민주주의가 발전한다고 보았다. 연구자는 위기에 처한 한국 언론을 구원하고 나아가서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주체로 소명의식을 가진 탐사보도 언론인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진실을 말하는 대신 침묵할 때 그 침묵은 거짓말일 수 있다.

제 2 절 탐사보도의 이념과 가치

〈자료 213〉 선배 집단 한 명과 심층면담 중에서(2017년 4월 3일)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지향해야 하는 것이 뭔지가 합의도 아직 안 돼 있는 것 같고 조직 내부에서, 이제 탐사보도가 뭔지는 서로 간에 약간 애매모호하지만은 탐사보도로서 매체로서의 정체성이 빨리 좀 잡혀 야지 합의가 되어야지. ... 우리가 항상 지금 해대는 것 같거든요. 어떤 사안을 취재하고 보도할 때 우리가 하는 방향은 뭔지 우리의 방식은 뭔지 계속 만들어나가는 과정이고 아마 계속 그럴 것 같기는 한데 그런 부분이 계속 과정이라는 거죠.

탐사보도 전문 언론으로서 〈뉴스타파〉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라는 한 참여자의 고민이었다. 탐사보도 전문 언론 자체를 〈뉴스타파〉의 정체성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 독립언론, 자유언론을 추구한다는 주장 역시 〈뉴스타파〉만의 정체성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뉴스타파〉는 탐사보도라는 소명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이에 대해 연구자는 〈뉴스타파〉가 채워야 할 탐사보도의 내용으로 이념과 가치를 제안한다.

베버는 정치가의 행위에 어떤 내용을 담는 것이 옳은가 하는 문제들을 그의 사회과학론에서 다루지 않았다. 가치들 간의 화해의 여지가 없는 투쟁 상태인 “절대적 다신주의” 사회에서 가치평가를 배제함으로써 과학이 방향성을 갖는 것을 거부했다. 대신 방향성은 철학이나 정치의 몫으로 넘겼다. 그러나 연구자는 탐사보도에는 방향성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 역사적으로도 탐사보도에는 방향성이 있어 왔고 이는 탐사보도의 본질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탐사보도는 개혁을 추진하는, 사회적, 경제적 소수자를 돕는, 그리고 끊임없이 사회 정의를 추구하는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Hamill, 2003).

첫째, 탐사보도 언론인의 이념은 정당화되어야 한다. 즉 탐사보도 언론인이 이념을 갖고 이를 추구하는 것이 잘못된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연구자는 제2장의 이론적 논의에서 이념성은 ‘공공 사안에 대해 보도가 보이는 상대적으로 일관된 입장과 태도’인 반면에, 정파성은 이념성의 한계를 넘어 ‘특정 정파와 유착해 그 이익을 대변하거나 유리하게 보도하고 다른 정파를 적대시하거나 공격하는 행위’라고 구분한 바 있다. 김영욱(2009)은 언론사나 언론인이 특정한 정치철학이나 정치적 입장을 지니는 것이 불가피하다면서 ‘정당한’과 ‘정당하지 않은’ 행위를 구분했는데 그의 연구를 차용해 이념성과 정파성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이념성은 언론사가 어떤 사안을 어떤 비중으로 보도할 것인가와 그 사안에 포함된 많은 사실과 사실 관계 중에서 어떤 사실과 사실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고려는 이념성의 범위에 포함된다. 사안에 대한 평가에서 가치나 선호를 적용해서 서술하는 것이 허용되며, 단 이 경우 명시적으로 그것이 언론인의 가치나 선호, 또는 추정이라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 반대로 정파적 이해에 따른 다음과 같은 행위는 정파성으로 진실보도 원칙에 어긋난다.

- 사안에 대한 사실과 사실관계를 조합해서 보도하는 경우 특정한 사실 및 사실관계를 누락해서는 안 된다(사실의 고의적인 누락)
- 사실이나 사실관계를 사실과 다르게 제시하거나 상식과 다르게 제시하거나 충분한 근거나 확인 없이 제시해서는 안 된다(사실에 대한 거짓, 왜곡, 단정)
- 상반된 견해들 중 일부 견해만을 채택해서는 안 된다(견해의 은폐)
- 일부로 모호함이나 추상적인 것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경우다(미필적 고의)

연구자는 탐사보도 언론인의 이념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념 내에서 탐사보도가 작동하는 원리를 좀 더 살펴보고자 한다. 이념은 “서로 다른 세력들이 각자가 추구하는 이익을 정당화하기 위해 만들어 낸 생각의 구성물”이다(조효제, 2010, p. 29). 정치이론가들은 정치사상의 세계에서 일종의 질서 있는 인식을 갖기 위해 일관된 체계를 가진 이념의 형태로 정치사상을 파악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 왔고 이념에 일정한 명칭을 부여했다. 이념은 일정한 정치사상들 간의 논리적 연관성을 중시한다. 예를 들어 별들을 일정한 모양으로 유형화해서 별자리로 파악하는 방식과 흡사하다. 그러므로 각 이념은 특정 정치사상들의 일련의 통합체로 볼 수 있다.

슈메이커와 동료들(Schumaker, et al., 2008/2010)은 11가지 쟁점을 바탕으로

19세기 이후 서양의 이념 역사를 추적해 모두 12가지의 이념을 도출했다. 19세기의 주요 정치 이념으로는 고전적 자유주의와 전통적 보수주의, 아나키즘, 마르크스주의가 있으며 아나키즘과 마르크스주의는 고전적 자유주의와 전통적 보수주의에 대한 저항 이념으로 출현했다. 이후 20세기에는 두 가지 전체주의 이념이 출현했는데 파시즘/나치즘과 공산주의였다. 이들 전체주의 이념 때문에 야기된 새로운 문제에 대응하고 폭넓게 변화된 각종 사회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고전적 자유주의와 전통적 보수주의는 탈바꿈을 시도했고 그 결과 오늘날 현대 자유주의와 현대 보수주의라는 독자적인 이념이 출현했다. 현대로 들어서는 새로운 정치적 관점들이 이념 세계에 뛰어들었다. 예를 들어 자유 지상주의, 공동체주의, 신자유주의, 신보수주의, 평등주의적 자유주의, 사회적 보수주의, 페미니즘, 환경주의, 이슬람 근본주의, 기독교 복음주의, 세분화된 민족주의들, 그리고 KKK단 같은 극단주의 집단 등이다. 그들은 이런 대안적 관점들을 급진적 우파, 급진적 좌파, 극단적 우파, 극단적 좌파로 나누었다. 12가지 이념은 11가지 쟁점을 놓고 ‘거대한 대화’에 들어가는데 이렇게 해서 모아진 정치사상들은 합하면 모두 132개가 된다. 현실 정치는 132개의 정치사상의 상호 관계로 이루어지게 되며, 정치 사상의 일관된 결합이 이념이 되는 것이다.

그들은 한발 더 나아가 정치사상들을 다원주의 관점에서 4개의 영역으로 다시 구분했는데 다원주의 아래에서 정치는 특정 영역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다. 아래 <그림 4>의 동심원들 가운데 가장 안쪽의 동그라미는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공동체 내에서 최대한 도달할 수 있는 ‘합의’의 범주로, 예를 들어 가치 측면에서 안전, 자유, 도덕성, 연대, 번영, 평등, 민주주의 등이 있을 수 있다. 다원적 사회에서는 다양한 종교, 이념, 윤리 및 생활방식이 존중되기 때문에 시민들은 서로 용인하고 최소한의 공동 원칙을 준수하겠다는 합의를 해야만 하고 이를 통해 ‘중첩적인 합의’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합의는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반드시 동의할 필요가 없으며, 합의 내에서도 반대가 존재할 수 있다. 즉 모든 사람이 똑같은 합의에 이를 수 없는 만큼 핵심 원칙에 대해 대다수 사람들이 동의하는 방식인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합의의 잠정성이다. 즉 항구적인 합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합의는 공동체 구성원이 새로운 문제와 목표 및 인식을 접하는 가운데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변화하는 것을 가정한다. 이렇게 해서 공동체는 합의하는 영역과 합의하지 않는 영역을 발견해 나가게 되는데 이 범주의 크기는 국가, 사회마다 다를 것이다.



- ① 다원주의의 토대적 ‘합의’에 해당하는 사상
- ② 다원주의 내에서 합의와 ‘경쟁’하는 사상
- ③ 다원주의의 급진적 ‘변혁’을 요구하는 사상
- ④ 다원주의를 ‘위협’하는 사상

〈그림 4〉 다원주의 내 정치사상의 영역 구분

합의 범주 바깥의 두 번째 동심원은 통상적인 쟁점들을 놓고 합의와 ‘경쟁’ 또는 ‘경합’하는 사상들이 자리 잡고 있는 범주이다. 합의 범주 내에서 출현한 새로운 사상들로 그 동안 평범하게 받아들여졌던 사회 문제들에 대해 새로운 원칙을 제시하며 변화를 시도하는, 예를 들어 사회적 보수주의나 신자유주의, 환경주의, 페미니즘 등을 들 수 있다. 경쟁하는 사상들에 대해 토론하고 평가가 이루어지지만 무엇이 최선의 것인지 동의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경쟁하는 사상들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흔히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경우가 많고, 다원주의 핵심 가치들을 다르게 해석하거나 핵심 가치의 우선 순위를 다르게 매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쟁을 통해 사람들 사이의 상호이해가 증진되고, 화해가 촉진되며, 차이가 축소될 수 있다. 세 번째 동심원은 다원적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을 시도하는 ‘변혁’의 범주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상들은 다원주의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확고하게 믿으며, 다원적 정치를 전복하려고 하지는 않지만 ‘변혁’하려고 노력한다. 예를 들어 강한 평등주의나 자유 지상주의, 강한 도덕주의 등 급진적 다원주의 사상들이다. 다원주의는 잠재성을 바탕으로 계속 진화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급진적 사상이 다원주의에 해만 끼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네 번째 가장 바깥쪽에 있는 동심원은 다원주의를 ‘위협’하는 극단주

의 사상들이다. 때문에 다원주의는 이런 극단주의를 거부한다. 예를 들어 공동체에는 정치적 공통 분모 같은 것이 전혀 존재하지 않고 여러 이해 집단들 사이의 적나라한 권력 투쟁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떤 이념을 신봉하든 그것이 편의적이고 기회주의적인 동기가 아니라 확고한 철학이나 사상에 기반을 둔 신념이어야 하고 자신이 믿는 이념이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나름대로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면 공론장에서 시민권은 주어지지 않는 것이다 (Schumaker, et al., 2008/2010, pp. 75-85).

이 같은 네 가지 범주 속에서 탐사보도는 역사적으로 ‘경쟁’과 ‘변혁’의 범주에서 작동해 왔다. 다시 말해 ‘경쟁’과 ‘변혁’의 구간을 넓히는 기능을 해 온 것이다. 연구자가 판단하기에 예를 들어 리프만이 주로 ‘합의’의 범주에 있었던 반면, 스톤은 ‘경쟁’의 범주에서 끊임없이 합의에 도전하며 논쟁을 만들어 냈다. 열렬한 사회주의자였던 리드(John Reed)는 ‘변혁’의 범주에서 국가에 의해 반역자로 기소될 정도로 당시 미국 사회가 허용하던 한계를 넘나들었다. 즉 탐사보도가 추구하는 변화는 원칙적으로 경쟁과 변혁의 구간을 확대함으로써 일어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자신의 발표를 가장 신뢰받아야 할 합의라고 주장하지만 정부의 거짓말은 탐사보도의 핵심 영역이다. 정부의 거짓말 외에도 탐사보도의 폭로 대상은 관행처럼 이뤄진 부정부패나 권력 남용, 중요한 주장에 대한 도전, 법의 맹점, 명분과 실제의 괴리, 감추어진 것 등을 찾아내는 것이었다. 가치 면에서는 반전, 반핵, 부패척결, 소비자운동, 환경, 민권, 여성, 반독점, 정치개혁, 노동, 정보공개 등이 주로 다뤄지는 가치였다.

탐사보도는 합의를 강화하기 보다는 합의에 도전함으로써 경쟁과 변혁을 추구한다. 특정 가치, 사상, 이념이 합의를 독점 또는 과점하는 것에 도전한다. 이렇게 볼 때 탐사보도가 공동체 내에 불안을 조장한다거나 편향됐다는 비판은 탐사보도가 가진 속성에서 나오는 숙명으로 봐야 할 것이다. 따라서 탐사보도 언론인의 이념은 편향이 아니라 특성이며 개성으로 봐야 한다. 대신 진보든 보수든 탐사보도의 책임윤리를 준수하고자 하는 어떤 언론인도 탐사보도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 어느 누구든 간에 스스로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날카로운 비판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가치함몰에 빠져 이념이 다름을 견뎌내지 못하는 사람 또는 다른 이념을 가진 사람과는 함께 일하지 않겠다는 사람은 탐사보도 언론인으로 자격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뉴스타파>도 이념성을 터부시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인정, 수용하고 대신 자신들의 이념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에 대한 깊은 숙고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탐사보도는 속해 있는 사회의 발전 정도를 감안해야 한다. 즉 탐사보도가 추구하는 변화는 그것이 속해 있는 사회가 이념 또는 가치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감안할 때 실현될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얘기이다. 탐사보도가 사회가 처해 있는 위치와 너무 떨어져 있는 이념이나 가치 변화를 추구할 때는 변화의 시기가 늦어지거나 폭이 좁아질 가능성이 크다.

후쿠야마(Fukuyama, 1989)는 공산주의와 파시즘이 완전히 실패했다고 주장하며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단계에서의 ‘역사의 종언’을 주장했다. 그의 말이 맞다면 이념 논쟁도 마지막 지점에 도달해야 하지만 이념 논쟁이 종언을 맞고 있는지는 회의적이다. 후쿠야마는 단지 하나의 이념이 승리한 것을 역사의 종언으로 해석하는 우를 범했다(장준호, 2007). 헌팅턴(Huntington, 1993/2016)은 냉전 이후 문명적 정체성이 다시 등장했다고 말한다. 문화와 종교에 기반하고 있는 문명 간의 차이로 수 많은 갈등이 유발되고 그 결과 다른 문명권에서 발생한 위기에 대해서 이쪽 문명권에 속한 강대국들조차 대처하기 힘들 정도라고 말한다. 그는 모든 문명들 간의 종교적,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지 않으면 안정된 지구적 공동체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진보에 속한 정치사상들은 자본주의가 부와 권력을 유레가 없을 정도로 소수에 집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유럽과 미국은 물론 한국의 정치 현실에서 진보와 보수의 대립은 사라지거나 극복되기는커녕 확대 재생산되고 있고, 진보와 보수 사이의 대립은 한국 정치 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전선을 형성해 갈 것이다(구갑우, et al., 2010, p. 33). 그렇다면 한국은 이념적으로 어느 방향으로 향할 것인가? 또 어느 방향으로 향하는 것이 옳은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사회에 유익하지만 얼마나 많은 변화가 필요한지, 어떤 종류의 변화가 필요한지 등은 탐사보도 언론인에게 던져진 영원한 질문이다.

제 3 절 탐사보도의 함정, 정파보도

연구자는 탐사보도 언론인이 소명으로 이념 또는 가치에 대한 신념을 갖는 것을 인정 또는 권장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이 주장의 연장선상에서 정연주의 다음과 같은 제안에 연구자는 전적으로 동의하며 <뉴스타파>에도 의미 있는 제언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핵심은 이념이나 가치를 바탕으로 문재인 자체가 아닌 문재인이 하고 있는 정책이나 정책 방향성을 적극적으로 감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료 214〉 정연주와 심충면담 중에서(2017년 6월 26일)

비판을 해야 된다 안해야 한다 전제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그 정권이 누구건

간에 정권이 뭐 우호적이건 관계가 없이 어떤 정권이든 그 정권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정책이나 이끌어가고 있는 정책의 방향이나 이런 게 아까 이야기 한 그런 인류 보편적 가치 측면에서 벗어날 때에는 그거는 날 선 비판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고 봐요. 그것이 어떤 정부건 간에 그러니까 만약에 평화를 특히 나는 지금 시대에 절실한 그 가치 중 하나가 지금 특히 한반도에서 평화라고 보는데 평화를 위협하고 그런 그 이 냉전식 사고를 끊임없이 불러일으키는 그런 종류의 정책을 펴는 집단에 대해서 끊임없이 비판을 해야 될 것이고. 그것이 정권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가령 뭐 <뉴스타파>든 진보언론이 과거에 어떤 정권을 비판할 때 그 정권 자체를 비판하는 게 아니고 그 정권이 지향하는 바 어떤 방향성이 있었잖아요 그 방향성이 옳으면 나는 그 방향성 자체를 가지고 하는게 거기에 반대되는 세력을 비판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나 이런 주장은 불가피하게 형성되는 부수적 현상을 가져온다. 가치연관의 측면에서 볼 때, 탐사보도의 취재 대상 선정과 목적 설정은 대개 실재적 문제들에 의해 촉발되며 특정한 문제의 존재를 인정하는 행위 자체가 인간의 특정한 욕구와 불가분하게 연계되어 있다. 따라서 특정한 문제에 대한 관심이 전반적으로 고조되는 가운데 탐사보도에 참여하는 언론인들은 대개 같은 문제에 대해 개인적 관심을 쏟는 사람들일 것이다.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는 특정한 현실적 여건들이 스스로 신봉하는 이상적 가치들과 모순관계를 이루며 가치를 위협하는 것같이 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슷한 가치들 간의 선택적 친화력은 언론인들을 서로 연결시키는 끈이 될 것이고, 새로운 언론인 층원의 근거가 될 것이다. 이것이 개별 언론사의 탐사보도에 특정한 성격을 부여할 것인데 이러한 특정한 성격은 생생한 감수성을 가진 언론인들의 공동작업에서는 불가피한 현상이다. 왜냐하면 취재 대상에 대해 언론인들이 가지는 가치연관적 입장은 이론적으로나 실천적 행위에서 배제될 수 없기 때문이다.

<뉴스타파>는 정권의 언론 장악 시도가 사회적 논의의 전면에 부각되는 시기에 출범하였고 참여자들은 저널리즘 비판과 권력감시, 그리고 탐사보도를 소명으로 삼았다. 이들 소명이 자신들의 가장 중요한 가치와 연결되어 있다고 믿었으며, 자신들의 가치와 같거나 유사한 관점들을 옹호하였다. 참여자들은 모든 면에서 견해를 같이할 수는 없지만 세 가지 소명의식에서는 일치된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결과는 이념성이었고 이는 <뉴스타파>의 특성 또는 개성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이념이나 가치 추구에는 정파성의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 언론인 개인으로서의 가치함몰에 빠지는 경우로 정파주의적 편협함이나 미숙함은 반드시 극복되어야 한다.

<자료 215> 정연주와 심충면담 중에서(2017년 6월 26일)

〈한겨레신문〉의 그 딜레마를 직접 여러 차례 거기서 있으면서 봤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DJ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는 뭐 하여튼 계속 권력에 대한 비판만 하면 되잖아. DJ 정부가 딱 오니가 이제 이제 소위 비판하는 쪽에서 어떻게 날을 세우냐? 하는 걸 가지고 논쟁이 벌어지더라고 내부에서. 그러니까 이제 소위 진영으로 빠지느냐 아니면은 가치 지향을 해야 되느냐 그런 딜레마에 빠지는데. 아무래도 뭐 민주 정부가 오면은 소위 과거와 같은 그런 날 선 그런 소위 그 언론을 하는데 있어서 거침없이 할 수 있는 그게 많이 갈등을 일으키게 되더라고. 그거는 〈한겨레신문〉이 아마 창간 이래 지금까지 딜레마는 지금도 마찬가지야 〈경향신문〉도 마찬가지야.

정연주가 체험한 〈한겨레신문〉의 정파보도 딜레마는 〈뉴스타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스톤의 경우에서 보았듯이 탐사보도 언론인이 이념이나 가치에 함몰될 경우 감시의 눈이 멀어지고 이는 정파보도로 이어졌다. 탐사보도 언론인의 가치함몰을 철저히 경계해야 하는 이유이다.

2017년 5월 대선에서 정치지형이 바뀐 이후 〈뉴스타파〉는 문재인 정권 초반 인사검증에 있어서 만큼은 침묵했다. 당시 참여자들 내에서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도 권력감시라는 탐사보도의 본령을 지키자는 ‘원칙론’과 진보적 가치를 위해 정권에 대한 비판을 잠시 유보할 수도 있다는 ‘현실론’이 맞서는 상황에서 일단은 침묵을 택했다. 참여자들은 독립언론, 자유언론을 표방하고 있는 〈뉴스타파〉가 특정 정파와 유착하는 정파성에 대해서는 단호히 배격했다. 그러나 참여자들은 정파성의 함정이 상존하고 있다는 것을, 또 문재인 정권에 대한 침묵이 오래 갈 경우 그동안 스스로 비판해 왔던 다른 언론의 정파성과 다르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가치함몰에 따른 정파보도는 〈뉴스타파〉의 탐사보도를 위협하고 있었다.

현실에서 탐사보도 언론인들은 도덕적으로 의심스럽거나 위태로운 수단을 사용하며 부수적 피해 가능성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윤리적으로 선한 목적이 윤리적으로 위태로운 수단과 부작용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하는가? 목적과 수단 사이의 긴장은 특히 수단은 명확하고 목적은 불분명한 경우 더 커질 것이다. 설사 목적에 의한 수단의 정당화를 어느 정도 인정하더라도 어떤 목적인 어떤 수단을 정당화하는지를 윤리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현장 연구가 끝나갈 즈음 연구자는 의미 있는 회의에 참석할 수 있었다. 2017년

5월 11일 열린 2기 자문위원회의 마지막 회의²⁴였는데 이 자리에서는 <뉴스타파>의 방향성에 대한 자문위원들의 조언이 있었다. 참석자 가운데 한 명은 “<뉴스타파>가 꿈꾸고 있는 사회를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청사진을 제시해 달라. 그리고 그 청사진을 기준으로 보도를 해라. 정치분야 이외에서 구태를 찾아라. 수용자 요구를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동의하지 않는다. 큰 거 한방으로 정말 존재감을 증명해 달라”고 조언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회원들이 <뉴스타파>가 내편이라는 생각을 많이 할 것이다. 진보 정권 발목잡기냐는 반응도 예상된다. 회원들 대상으로 미디어 교육 시켜야 한다”고 말했고, “환경감시 역할 게을리 할 수 없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도 정책적 과오나 독단 등은 단호하게 지적해야 한다. 정권과 <뉴스타파>의 스탠스는 무관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 외에도 “적폐라고 생각하는 세력들을 정하고 어느 부분을 파헤칠 것인가 하는 전략적 고민이 필요하다. 진성회원들 많이 있을 것이고 그분들은 이걸 바랄 것이다” 등의 조언들이 나왔다. 전반적으로 자문위원들은 <뉴스타파>가 정파성으로 빠질 우려를 제시하며 탐사보도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프랑스의 비영리 탐사보도 전문 언론인 <메디아파르트>는 한때 ‘좌파의 본거지’라는 비판을 받았다. 출범 초기의 많은 보도들이 사르코지 당시 대통령의 불법 정치자금과 연관되어 있었고 이로 인해 2012년 대선에서 사르코지의 재집권이 불가능해졌다는 평가가 나온 뒤의 일이다. 그러나 사회당 올랑드 정부의 예산부 장관이었던 제롬 카위작의 스위스 계좌를 폭로하고 결국 그의 사임을 이끌어내면서, 좌파 정권이든 우파 정권이든 권력이 숨기고 있는 비리를 파헤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후에도 국민전선의 불법 자금 조달 사건, 녹색당 의원 드니 보팽의 성폭력 사건, 풋볼 리크스 등 <메디아파르트>의 정파를 초월한 탐사보도는 지속되고 있다 (진민정, 2018, p. 38).

제 4 절 책임윤리 강화와 교조적 객관보도 경계

미국 언론 역사를 보면, 극심한 정파보도에 대한 반성으로 객관보도가 등장 해한 시대를 지배했고, 탐사보도는 정파보도와 객관보도 사이에서 외로운 길을 걸으며

24. <뉴스타파>는 보도 방향과 내용 등에서 자문을 받기 위해 자문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위원회는 교수나 언론인, 시민단체 대표, 변호사, 회계사 등 각 분야 전문가 30여 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장은 김중배 전 <MBS> 사장이었다. 회의는 분기별로 한 번씩 일년에 4번 열렸다. 5월 11일은 2기 자문위원회의 마지막 회의였다.

민주주의에 기여해 왔다. 탐사보도는 정파보도의 가치함물은 경계하되 소명의식은 수용하며, 객관보도의 가치배제를 경계하되 사실에 대한 존중과 과학적 엄밀성은 수용해야 한다. 이것이 정반합의 변증법적 과정에서 탐사보도 언론인이 취해야 할 윤리이며, 신념윤리와 책임윤리의 결합, 다시 말해 스톤과 리프만의 결합이다.

소명을 핵심으로 한 탐사보도에서 언론인이 취해야 할 윤리적 원칙은 신념에 대한 헌신을 바탕으로 하지만 이성애 의해 규율 되는 심리적 상태인 책임윤리를 유지하는 것이다. 책임윤리 아래 가치함물에 따른 탐욕은 억제되어야 하며 충동은 조절되어야 한다. 이것이 신념윤리와 책임윤리의 유동적 균형이며, 이때의 소명의식이 비로서 베버가 말한 “객관적” 태도가 되는 것이다. 탐사보도 언론인들은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평생 동안 무엇인가를 집요하게 파고 들었고 그 모습은 냉철한 행동가였다.

참여자 가운데 한 명은 한국 언론인 가운데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가장 잘 아는 언론인이었다. <뉴스타파>가 보도한 세월호 참사 관련 보도는 이 참여자가 다했다고 봐도 될 정도였다. 그의 보도는 감정이입을 했으며, 분노했으며, 진실을 감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앞장서 공격했다. 그의 보도 이면에는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알려야겠다는 확고한 신념이 있었다. 취재 과정에서 셀 수 없을 정도로 자주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을 만났을 그에게 심층면담에서 세월호 참사 보도를 하면서 유가족과의 관계를 어떻게 관리했는지 물었다. 베버의 기준에서 보면 그는 객관적이었다.

〈자료 216〉 선배 집단 한 명과 심층면담 중에서(2017년 7월 2일)

참여자: 세월호 같은 경우 저하고 세월호의 중요한 취재원이라고 할 수 있는 가족들하고 너무 많이 들어가있어 저도 그렇게 느껴요. ... 반대로 또 세월호 그 가족 분들 하고는 밥 먹고 술 먹고 한적은 한 번도 없어요. ... 그거는 제가 이제 철저하게 안 하려 하는 거지. 안 하려 하는데 그 대신에 어떤 조금 만나서 뭔가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뭐 이럴 때에는 조금 제가 과도하게 이미 좀 이렇게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연구자: 들어가 있다라는 건?

참여자: 이 양반들이 이 토로하는 고충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단은 그렇겠네 라고 받아들여 놓고 다른 것들을 취재하는 거 있죠.

연구자: 공감하고?

참여자: 네 일단은 공감하고 그런데 이게 고민 좀 많이 했어요. 다만 이러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거. 내가 지금 취재하고 있는 이거 말고 다른 어떤 그 전략적으로 이게 어디에 활용되고 이런 부분까지 가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그 뭐

부모님들 아니라도 누구라도 이 그거에 대해서 쫘자 그 정도 내부적으로 기준을 가지고 하는 거지.

그러나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당위감, 사명감 등에 함몰된 나머지 언론인으로서 지켜야 할 책임윤리를 무시할 수 있는 위험은 <뉴스타파>에도 언제든지 도사리고 있었다. 일반 보도보다 탐사보도에서 책임윤리가 더 중요한 이유는 탐사보도가 내포하고 있는 폭력성 때문이다. 탐사보도는 수용자의 분노를 극대화하기 위해 선정적인 폭로 방식을 선택한다. 예를 들어 실명 공개, 앵부시, 또는 자극적인 언어와 영상 등이다.

연구자는 탐사보도 언론인이 지켜야 할 책임윤리의 세부 지침으로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가치자유를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인 가치토론의 활성화이다. 가치토론은 자신의 이념과 가치를 타인이 비판적으로 검토하게끔 허용하는 것이다. 가치토론은 자기와 반대되는 주장을 하는 사람을 논쟁에서 이기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며, 설령 자신의 견해를 수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더 나은 지식을 발전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탐사보도는 일반 보도보다 더 많은 결정을 포함한다. 여러 변수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에서 탐사보도 언론인들은 매 순간마다 복잡한 계산을 거쳐 본인이 생각하는 최선의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여기에는 그 결정이 가져올 결과에 대한 책임까지 고려돼야 한다. 때문에 결정들을 내릴 때 가치토론이 활성화된다면 가치함몰에서 비롯된 탐욕이나 충동 등이 방지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가치판단을 내렸다면 그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 우선 지극히 상이한 가치들을 부정확하게 혼합시킴으로써 가치들 간에 존재하는 갈등 관계를 은폐하여 모두를 만족시키려 하지 말고 자신이 현실을 가늠하고 또 판단에 이른 기준이 어떤 것인지를 수용자와 스스로에게 명확히 밝혀야 한다. 즉 가치판단 의도와 기준의 순수성 확보이다. 또 수용자와 스스로에게 자신의 서술 중 무엇이 논리적으로 규명된 것이고, 경험적인 사실 확인이며, 가치판단인지 등을 엄격히 밝혀야 한다. 즉 사실의 확인과 당위적 판단의 명확한 구분이다.

정파보도를 극복해야 하듯이 탐사보도 언론인은 객관보도도 극복해야 한다. 극복은 배척이 아닌 창조적 수용이다. 훌륭한 탐사보도를 통해 탐사보도 전문가로 평가받는 언론인들의 경우 가치를 배제한 관찰자가 아니었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이다. 한국과 탐사보도가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미국과 영국 탐사보도 역사를 보면 그렇다. 탐사보도는 주장과 반론을 넘어서, 주장을 증명하거나 반증하는 것을 추구한다. 따라서 주장과 반론 사이의 불편부당한 균형을 넘어 새로 드러난 사실들에 대한 판단을 표현한다(Spark, 2012, pp. 2-4). 풀리처상을 받은 보도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언론인의 주관성과 감정은 뉴스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았다(Wahl-Jorgensen, 2013). 연구자는 선행연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언론인 개인의 가치를 배제하라는 객관보도의 요구가 미국의 경우 탐사보도와 충돌 또는 탐사보도의 퇴조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만일 독일을 탈출한 930명의 유대인이 타고 있던 세인트루이스호가 다시 독일로 돌아가야 하는 위험에 처해 있을 때 리프만이 취했던 침묵이 객관보도라면, 〈뉴스타파〉 참여자들은 객관보도를 거부했다.

〈자료 217〉 선배 집단 한 명과 심층면담 중에서(2016년 10월 10일)

연구자: 중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기자가 중립을 지켜야 된다.

참여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 말을 저도 많이 들었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그 표면적 의미가 마치 언론이라는 게 이 사회의 일부가 아니라 동떨어진 무엇이라도 되는 것 같은 얘기잖아요. 그게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 왜 하지? 이런 생각.

〈자료 218〉 후배 집단 한 명과 심층면담 중에서(2017년 6월 28일)

기자가 문제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무슨 사안을 취재하기는 어려운 거 거든요. 자기가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게 문제가 있다는 의식이 생긴 다음에 그 사안에 대해서 취재 들어가는 건데. 당연히 기자는 어느 쪽에 마음이 약간 기울어져 있는 상태인 거죠. 근데 거기서 내가 맞는지 끊임없이 검증하기 위해서 상대방 얘기를 자꾸 들으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중립적이고 객관적일 순 없을 거 같아요.

〈자료 219〉 후배 집단 한 명과 심층면담 중에서(2017년 6월 30일)

중립이 가능할까? 사람인데? 그래서 가능하지도 않은 거 마치 가능한 척 한다고 생각하고 중립적일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뭐 굳이 치우쳐가지고 막 아예 일방적 주장을 반론도 배제하는 건 안되겠지만 다 듣고 다 취재를 하되 판단을 해서 최대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옳다고 생각하는 쪽에 더 기사를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 중립이라는 게 기계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을 거 같아요.

그러나 탐사보도 언론인은 교조적 객관보도를 경계하되 객관보도 자체를 배척해

서는 안 된다. 객관보도가 추구하는 책임윤리, 즉 사실에 대한 존중과 과학적 엄밀성 추구는 탐사보도 언론인이 적극 수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탐사보도에 도덕적 근거를 제시한 허친스위원회의 결론도 언론인이 객관보도에 충실하되 객관보도의 한계를 넘어설 것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다(Hutchins Commission, 1947/2004). 현대로 와서 탐사보도의 중요성이, 예를 들어 환경 감시나 중요 이슈를 확인하는 의제 설정, 공무원 감시 등으로 커졌지만 사실에 대한 존중과 과학적 엄밀성은 여전히 탐사보도가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이다(Gurevitch & Blumler, 1990).

마지막으로 탐사보도와 객관보도는 상호 공존하면서 시민에 복무해야 한다. 즉 모든 언론인이 탐사보도만을, 반대로 객관보도만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언론인 스스로는 물론 시민들도 모든 언론인이 탐사보도나 객관보도만을 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언론인에 대한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한 국내, 외 연구를 보면 언론인들이 생각하는 스스로의 역할정향성에는 객관적 관찰자뿐만 아니라 참여자나 적대자 역할도 존재하고 있다(김연식, 2008; Johnstone, 1976; Weaver, 2007). 감시견 기능과 공공기관 수행 지원, 그리고 중립적 입장 역할 가운데 언론이 어떤 역할에 더 치중해야 하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한 시민의 49%가 감시견 기능을 선택했다(Stone & Banning, 1997). 1990년대 사회적 이슈 해결 방법으로 언론이 스스로 제기한 공공저널리즘은 언론인의 역할에 대한 가장 격렬한 논쟁을 불러왔고 의도와 내용, 그리고 효과 면에서 아직도 평가가 진행 중이다(김민하, 2008).

제 5 절 모두로부터 독립적인 탐사보도

미국 역사에서 그런 독립언론은 존재하지 않는다. 당신도 알고 나도 알잖아. 여기에 당신들 중 자신의 솔직한 의견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만일 당신이 그런다면 당신은 이미 신문에 실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알 것이다. 나는 내 솔직한 의견을 쓰지 않기 때문에 돈을 받고 있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다. ... 만일 내가 신문에 내 솔직한 의견을 쓴다면 나는 24시간 이내에 해고될 것이다. 저널리스트의 일은 진실을 파괴하는 것이고, 떳떳하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왜곡하고, 비방하고, 돈 앞에서 아양을 떨고, 먹고 살기 위해 자신의 나라와 민족을 파는 것이다. 이것은 당신도 알고 나도 아는 일이다(Thomas, 2009, p. 63).

미국 남북전쟁 중에 <뉴욕타임스> 기자와 전쟁 이후 <뉴욕 선>의 편집인을 거치면서 뉴욕에서 영향력 있는 언론인 중 한 명이었던 스윈톤(John Swinton)이 1880년

당시 상업 신문과 그 발행인들이 가진 영향력에 환멸을 느끼면서 한 말이다. “독립 언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일”이었다. 언론의 독립성을 강조했던 그는 1883년 사회주의 성향으로 미국 최초의 노동 전문 신문인 〈John Swinton’s Paper〉를 창간했다(Spencer, 2007, pp. 59-60). 신문은 정가의 구독료를 받으면서 독립 언론을 표방했다. 노동자 집회에서 연설을 하거나 노동운동에 깊숙이 관여하는 등 확실한 진보 성향이었던 스윈톤은 죄수 노동과 중국인 이민자, 그리고 외국인 계약 노동자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많은 변화를 이끌어 냈다(Reuter, 1960, pp. 302-303). 독자에게 직접 의존함으로써 정치나 자본 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뉴스타파〉도 후원회원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정치, 자본 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했고 이 독립성은 완벽하게 지켜지고 있었다. 그러나 아래 선배 집단 참여자 두 명과의 심층면담에서도 나타나듯 독립성의 근원이었던 후원회원들이 오히려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는 〈뉴스타파〉의 근간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였다.

〈자료 220〉 선배 집단 한 명과 심층면담 중에서(2017년 7월 2일)

여기의 재원이 광고 없이 후원회원들의 후원회비만으로 운영이 된다고 하는 건 굉장히 강점이잖아요. 강점인데 그러니까 어떤 그 자본이나 권력의 영역에 대해서 신경 안 쓰고 보도를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분명히 냉정하게 따져 보면은 우리가 ... 재원인 후원회원들에 의해서 휘둘릴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거죠. 그게 증명이 된 게 지난 대선 보도 할 때 우리 내부에서 얼마나 몸조심 하면서 보도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료 221〉 선배 집단 한 명과 심층면담 중에서(2017년 4월 3일)

참여자: 회원이나 여론에 대한 종속? 숙제지요. 우리가 지금 계속 테스트를 하는 단계인 것 같아.

연구자: 테스트 단계?

참여자: 우리가 소위 우리 회원들이 라든가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불편한 기사를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것인가? 이 구조가 그리고 우리 회원들이 그런가? 실제로 모르잖아요. 그 정도를 모르는 거지. 용인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 우리 스스로를 조금 테스트하는 단계가 아닐까?

후원회원은 〈뉴스타파〉 조직의 생존과 성장 기반으로 절대적인 존재다. 동시에 독립성은 탐사보도의 생명과도 같은 절대적인 필수조건이다. 두 절대성 속에서 참여자들은 ‘회원과의 거리’라는 딜레마에 빠진 것이다. 다시 말해 회원들과 너무 멀어지면 후원 해지가 이어지면서 조직 기반이 흔들리고, 반대로 회원들과 너무 가까워지면 독립성을 잃어 탐사보도에 성역이 생겨 더 이상 탐사보도 전문 언론을 자처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연구자는 앞서 제4장에서 〈뉴스타파〉 조직을 개괄하면서 후원회원을 정파성 후원과 탐사보도 후원으로 구분한 바 있다. 회원들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없는 상황에서 지금까지의 현장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두 유형의 특징을 구분하면 아래 〈표 23〉와 같다. 박근혜의 대통령 당선 직후에 집중된 정파성 후원은 해직 언론인들이 만든 조직에 대한 ‘동정’ 차원에서 권력에 유착되거나 포섭된 언론을 비판할 수 있는 ‘대안 언론’을 지원하는 ‘기부’의 성격이 강했고, 〈뉴스타파〉 출범 초반 ‘생존’의 발판이었다. 반면 굼직한 탐사보도가 나올 때마다 증가한 탐사보도 후원은 〈뉴스타파〉 보도에 대한 ‘칭찬’ 차원에서 차별화된 ‘탐사보도’ 자체를 필요로 하는 ‘구매’의 성격이 강했고, 〈뉴스타파〉가 ‘성장’할 수 있었던 발판이었다. 만일 후원을 해지한다면 정파성 후원은 자신들의 정치성향과 반대되는 보도가 나갔을 경우, 탐사보도 후원은 보도에 흠결이 있거나 경쟁력 있는 탐사보도가 더 이상 나오지 않다고 생각할 때일 가능성이 크다.

〈표 24〉 〈뉴스타파〉 후원회원 특징 구분

	정파성 후원	탐사보도 후원
후원 계기	동정	칭찬
후원 이유	대안 언론	탐사보도
뉴스타파 기여	생존	성장
후원 성격	기부	구매
정치성향	친문재인	진보
해지 이유	정치성향과 반대 보도	보도 흠결/경쟁력 저하

이명박, 박근혜 정권 기간 동안 독립언론, 자유언론의 대의 아래 실천됐던 저널리즘 비판과 이명박, 박근혜 감시 그리고 탐사보도라는 소명은 두 유형의 회원들 모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었다. 탐사보도 전문 언론을 표방한 뒤에도 오월동주 전략 하에서 후일 언젠가는 회원 정파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크게 우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정권 교체 이후 회원 정파성은 문제인 정권에 대한 권력 감시라는 탐사보

도 본령에 충실하겠다는 참여자들의 의지를 위축시키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이미 대선 기간 비록 보도에 흠결은 있었지만 문재인 검증 보도 이후 2,000여 명의 회원이 해지하는 것을 본 뒤, 대선 후보 검증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고, 이런 위축은 정권이 바뀐 이후에도 계속됐다. 그러나 권력 감시의 위축은 탐사보도의 위축이다. 탐사보도 언론인은 정권에 대한 지지 여부가 아닌 이념이나 가치의 관점에서 정권이 잘못된 것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비판할 수 있어야 하지만, 정권 비판에 소극적이고 위축될 경우 탐사보도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고, 결국 탐사보도 후원회원의 해지가 초래될 수도 있었다.

결국 정파성 후원을 존중하다 보면 탐사보도 후원의 이탈이 우려되고, 반대로 탐사보도 후원을 존중하면 정파성 후원의 이탈이 분명해 보이는 상황에서, 그렇다고 어정쩡한 병행으로 둘 모두를 충족시키겠다는 생각은 최악의 선택일 수 있다. 둘 모두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전반적인 회원 이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강력한 연대의 대상이 동시에 견제의 대상이 된 상황에서 회원과의 최적 거리는 어디인가라는 고민은 참여자들에게 최대 난제였다.

〈자료 222〉 선배 집단 한 명과 심층면담 중에서(2017년 7월 2일)

보도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그래서 보도가 자기가 정치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 보도가 나가면 후원을 철회할 수 있는 사람들의 퍼센트는 모르지만 대부분 많이 섞여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또한 그러면서도 이게 뭐 알 수는 없는데 〈뉴스타파〉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보도들 그걸 할 수 있는 조직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하는 기대 때문에 또 후원을 계속해서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다.

연구자는 대선 전후로 일상대화과 심층면담을 통해 참여자들에게 〈뉴스타파〉와 회원과의 적당한 거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세 가지 선택, 즉 정파성 후원, 탐사보도 후원, 병행 가운데 선배 집단의 경우 대체적으로 병행이 가능하거나 시도해야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자료 223〉 선배 집단 한 명과 심층면담 중에서(2017년 5월 24일)

참여자: 진짜 어려운 거 같아. 그거야말로 너무 어려운 거 같아.

연구자: 왜 어려워?

참여자: 독자를 지금은 설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그런 건 아닐까? 이 사람들을 그냥 돈 내는 전주로만 여겼던 거는 아닐까? 저는 오히려 그 사람들하고 더 많은 소통을 해야 된다고 봐요. 좋은 언론이란 그런 걸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 전략적 숨 고르기는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약간 들기는 해요. 숨 고르기 라는 게 비겁하다는 이야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전략적 숨 고르기.

〈자료 224〉 선배 집단 한 명과 심층면담 중에서(2017년 6월 16일)

참여자: 이 사람들이 사실은 돈만 내는 게 아니고 우리 기사에서도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피드백을 주고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 하거든요.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다만 이 분들도 후원자 분들도 〈뉴스타파〉의 어떤 지향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의 폭이 넓어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죠. 기본적으로 후원자의 존재는 우리한테 좋은 거고 든든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단지 돈을 내기 때문만이 아닌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서로 바라보고 있는 방향이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맞춰가야 되지 않을까 ... 당장 뭐 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처럼 계속해서 후원자들하고 대화를 해 나가야 되는 거죠 대화를.

후배 집단은 탐사보도 후원을 선택해야 한다는 쪽에 이견이 없었다. 그러나 이들의 의견은 조직 내 역학관계 속에서 소수의견에 속했다.

〈자료 225〉 후배 집단 한 명과 심층면담 중에서(2017년 6월 28일)

지금 가진 여건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도 검열이 없이 그거를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인 건데 문재인 정부도 우리는 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료 226〉 후배 집단 한 명과 심층면담 중에서(2017년 6월 19일)

결국은 우리의 어떤 코드맞추기나 이런 색을 최대한 빨리 떨어내는 것들이 방법이다 ... 계속 우리에게 그런 기준이나 시민에 봉사하겠다는 의지 말고 다른 건 없다는 걸 적극적으로 표명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봐요. ... 지금 겁먹으면 계속 못할 거 같아요 5년간 내내.

〈자료 227〉 후배 집단 한 명과 심층면담 중에서(2017년 6월 22일)

회원들은 돈을 낸 이유가 독립언론의 존재 혹은 제기능을 원했기 때문에 그리고 독립언론이 이사회에서 역할이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후원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 회원들에게 고마운 거지. 회원들이 너희들 왜 우리말 안 들어? 라고 했을 때 그런 강압적인 회원은 고맙지 않아요. 〈뉴스타파〉 정신이라는 게 채용 공고에 써 놓잖아요. 그 정신이 회원들의 말을 들으라는 정신은 아니잖아요. 회원들도 거기에 공감을 하니까 후원을 행하는 거지 원론적으로 보면.

2018년 3월 15일 서울에서 열린 〈뉴스타파〉 5주년 심포지엄에서는 회원 독립성 문제가 중요하게 거론됐다. 특히 개별 후원이라 하더라도 특정 신념을 정체성으로 한 사람들이 다수일 경우 탐사보도의 독립성을 저해할 위험이 지적됐다. 토론자들은 〈뉴스타파〉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신념 교환’에서 ‘이익 교환’으로(이성규, 2018), ‘기부’에서 ‘콘텐츠 가치’로(정재민, 2018) 중심 이동을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즉 탐사보도로의 중심 이동이었다. 정파적 성향이 아닌 이념이나 가치를 기반으로 한 탐사보도를 주장하는 연구자 역시 같은 의견이다. 탐사보도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듯이 〈뉴스타파〉가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때, 참여자들 스스로 생각하는 “시민사회의 소중한 자산”, “시민사회의 진짜 공영방송”, “사회적 자산”으로서 〈뉴스타파〉가 지속가능할 것이다. 시민을 기반으로 하는 〈뉴스타파〉가 존재 가치를 주장할 수 있는 길은 탐사보도 전문 언론으로서 독보적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다. 정파성 회원의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으나 탐사보도 회원의 비중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참여자들이 좋은 보도를 할 때 가입한 사람들이다. 따라서 좋은 탐사보도를 생산해 낸다면 시민의 후원은 계속되고 증가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 독립언론을 향한 다양한 실험들이 시도됐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추세의 핵심은 광고로부터 탈피해 비영리 방식의 안정적인 수익 모델을 찾는 것이다. 독지가에 의존하면서 광고를 신지 않았던 〈PM〉은 20세기 미국 언론에서 기념비적인 실험으로 평가받았지만 경영난 등으로 폐간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역시 독지가 방식인 〈프로퍼블리카〉는 미국 탐사보도를 선도하며 승승장구하고 있다. 〈프로퍼블리카〉의 성공은 전세계적으로 비슷한 방식의 비영리 언론의 확산을 촉진하고 있다(이재경, 2012, p. 4). 미국의 저널리즘 연구소인 J-Lab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 자선단체들은 비영리 매체에 2005년부터 2009년까지 1억 2,800만 달러를 기부했으며, 이 가운데 절

반이 〈프로퍼블리카〉, 〈탐사보도센터〉, 〈공직청렴센터〉 등 탐사보도를 전문으로 하는 매체로 갔다(이봉현, 설원태, & 반현, 2011, p. 20). 그러나 독지가나 자선단체의 기부를 기반으로 한 비영리 방식도 여전히 독립성을 의심받고 있다. 기부자의 이해와 관련된 숨겨진 의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Browne, 2010). 스윈톤은 〈John Swinton's Paper〉을 창간하며 정가의 구독료를 기반으로 독립언론을 표방했지만 경영난을 이겨낼 수 없었다. 그러나 〈John Swinton's Paper〉와 유사한 형태로 역시 4페이지 주간지였던 〈I. F. Stone's Weekly〉는 구독료만으로 20여 년을 이어가면서 독립언론의 상징으로 인정받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메디아파르트〉가 구독료를 기반으로 한 독립언론의 실험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에서는 〈뉴스타파〉가 정기 후원 방식의 새로운 실험을 하고 있는 중이다.

구독자 또는 후원회원을 기반을 하는 경우 독자나 회원에 대한 두 가지 상반된 희망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돈을 내는 사람들인 만큼 연대의 대상으로서 보도 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비판하는 감시견 역할이며, 다른 하나는 보도를 이용하지만 바라는 것이 없고 소액인 후원금이나 구독료가 자동결재되어도 무관심한 경우이다. 후원자 또는 구독자의 편집권 또는 경영권의 관여 여부나 정도는 향후 비영리 언론매체 운영에서 중요 이슈가 될 가능성이 크다. 즉 독립성, 다시 말해 회원 또는 구독자와의 적절한 거리가 무엇인가의 문제이다.

제 9 장 결론

제 1 절 요약

본 연구는 〈뉴스타파〉 취재팀을 대상으로 탐사보도 언론인의 소명의식과 가치자유 실천을 연구했다. 〈뉴스타파〉 언론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명의식은 무엇이며, 어떻게 실천하는지, 그리고 탐사보도 전문성이 무엇인지 고찰했다.

언론 역사에서 명작으로 기록되는 탐사보도를 남긴 언론인들에게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특징이 있는데 강박적인 집요함이다. 집요함을 포함해 용기, 만족할 줄 모르는 호기심, 직감 등은 흔히 탐사정신으로 불린다. 탐사보도 언론인들은 또한 엄격한 직업 윤리를 바탕으로 이념과 가치에 대한 신념이 강했고 이를 보도에 투영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이는 연구자가 보기에 소명의식이다. 그런 이유로 탐사보도 논의에서 탐사보도 언론인의 내면세계에 대한 심층적, 맥락적 이해가 핵심 위치를 차지해야 하지만 탐사보도 언론인의 소명의식은 언론 연구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고, 축적된 연구 결과물은 양이나 깊이에서 매우 미흡하다.

연구자는 베버(Max Weber)의 이론을 주목했다. 베버는 소명의식이 있으면 무엇인가에 의존해서 살지 않고 무엇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게 되고, 이런 삶을 사는 사람만이 좌절과 절망 속에서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소명의식(Beruf)의 지적 기반으로 가치자유(Wertfreiheit)를 제안했다.

소명은 가벼운 주의주장이나 책임의식이 아니다. 베버는 ‘Beruf’를 선택하면서 소명의식이 하나님의 부름 또는 명령에 버금가는 무게를 가진 직업정신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소명의식은 신념과 그것에 열정적으로 헌신하는 행위, 다시 말해 신념과 그것을 이루려는 열정이다. 소명을 가진 사람에게 필요한 자질은 열정, 책임감, 균형감각이다. 그러나 자질만으로는 소명을 완수할 수 없으며 반드시 윤리가 필요하다. 베버는 인간 행위의 윤리적 원칙을 ‘신념윤리’와 ‘책임윤리’로 나누었다. 신념윤리는 종교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올바른 행동을 하고 그 결과는 신에게 맡긴다’는 원칙이고, 책임윤리는 ‘우리는 우리 행동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원칙이다. 소명의식이 있는 사람은 신념을 가진 인격체로서 동시에 일상을 책임윤리적으로 통일시켜 나가는 인간이다. 연구자는 신념윤리와 책임윤리의 조화 여부에 따라 언론인을 ‘선지자형’, ‘광신도형’, ‘사업가형’으로 구분했다. 어느 유형에 속하는 삶을 살지는 언론인 개인의 몫

이지만, 진정한 언론인은 선지자를 추구해야 하며, 그 핵심에는 신념윤리와 책임윤리가 조화를 이룬 소명의식이 자리잡고 있어야 한다.

베버는 소명의 구체적인 실천 방법으로 가치자유(Wertfreiheit)를 제안했다. 가치자유는 가치연관, 가치토론, 가치평가로 구성된다. 가치연관은 현실을 가치 쪽으로 끌어와서 현실과 가치를 관련시키는 것이며, 가치토론은 목적에 대한 수단의 적합성 검토이다. 목적에 대한 수단의 적합성 검토는 첫째, 목적을 달성하는데 수단이 적합한지 타당성을 판단하며, 둘째, 주어진 여건, 즉 수단에 견주어 목적의 실현가능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셋째, 목적이 실현 가능하다면 수단의 실행에 따른 부수적 결과를 추정하는 행위이다. 가치평가는 개별 또는 그 이상의 가치들에 대한 상대적인 평가를 말한다. 가치자유는 가치중립이나 가치배제가 아니다. 가치에서 벗어나거나 비켜서 있을 때 가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치에 헌신적으로 달려들어 자신의 의지를 실현시킬 수 있을 때 비로소 가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다.

소명의식과 가치자유 논의를 바탕으로 언론 보도를 정파보도, 객관보도, 탐사보도로 구분했다. 첫째, 정파보도는 특정 이념이나 가치 등을 고집하며 이를 통해 추구하는 목표는 정파성이다. 책임윤리가 부재한 상황에서 신념윤리만을 고집하는 가치함몰은 언론인이 소명을 실천하는데 있어서 경계해야 할 위험이다. 가치연관에서 보면, 언론인은 흥분이나 분노의 상태에서 자신의 이념이나 가치와 반대되는 인물이나 세력을 취재 대상으로 선정하고 정파적 이익을 취재 목적으로 설정할 가능성이 높다. 취재 대상은 견제가 아닌 사라져야 할 적대의 대상이 된다. 가치토론 측면에서 보면, 광신도형의 이런 언론인은 취재 과정에서 순환적인 반성을 하지 않고 본인이 선택한 취재 방법만이 유일한 방안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신념의 관철이라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시킨다고 믿으며 취재 윤리의 준수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그 결과 보도에서는 사실을 과장하거나 편향되게 해석하고, 왜곡할 위험성이 있다. 또한 자신이 추구하는 이념이나 가치를 절대시하면서 다른 사람의 그것들을 평가절하하는 가치평가를 적극적으로 실천할 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친 보도는 결과적으로 개별 또는 총합으로 볼 때 정파성을 보일 것이다. 둘째, 객관보도는 언론인 개인의 전문직 의식을 직업정신의 핵심에 위치시킨다. 보도 목표는 객관성으로, 윤리적으로는 신념의 부재 속에서 책임을 강조한다. 가치연관에서 보면, 객관보도는 이슈가 되는 주요 인물이나 세력에 대한 사실의 전달에 치중한다. 가치토론에서 보면, 취재 과정에서 객관화된 절차나 규범적 원칙의 준수 등 취재 수단의 정당성 확보를 중요시 할 것이다. 객관보도를 중시하는 언론인이 취재 윤리의 한계를 벗어날 가능성은 낮다. 언론인 유형에서 사업가형이 여기에 속하며 이들의 보도는 결과적으로 사실성이나 중립성의 특징을 보일 것이

다. 가치평가는 거의 하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탐사보도는 언론인의 직업정신의 핵심에 소명의식을 위치시켜 놓는다. 탐사보도가 추구하는 목표는 진실 보도를 통한 변화이다. 이를 위해 윤리적으로는 신념윤리와 책임윤리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가치연관에서 볼 때, 탐사보도의 취재 대상에는 성역이 없어야 한다. 정치권력이나 자본 권력 등 어떤 인물이나 세력으로부터도 독립적이어야 하며 어떤 정파와 유착해서도 안 된다. 가치토론에서 보면, 탐사보도는 취재 수단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취재 목적의 실현가능성을 재평가한 뒤 취재 수단과 취재 목적 사이 어울림이 있다면 혹시 뒤따를 부수적 피해를 차단하거나 최소화해야 한다. 언론인은 소명의 실천을 위해 취재 윤리가 허용하는 최대치까지 집요하게 파고 들거나 윤리의 경계를 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소명의식과 가치자유에 충실한 언론인은 선지자형의 모습이다. 소명의식과 가치자유의 과정을 거친 탐사보도는 결과적으로 개별 또는 총합으로 볼 때 이념적일 가능성이 높다. 탐사보도 언론인이 추구하는 독립적 자유언론은 정파보도를 벗어나고, 교조적 객관보도도 극복해야 이루어질 수 있다.

연구문제는 세 가지였다. 첫째, 〈뉴스타파〉 언론인들은 소명을 갖고 있는가? 갖고 있다면 어떠한 소명인가? 둘째, 〈뉴스타파〉 언론인들은 소명을 어떻게 실천하는가? 셋째, 탐사보도 전문성은 무엇이며 어떻게 쌓여가는가?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질적 연구 방법인 문화기술지를 선택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뉴스타파〉 취재팀이다. 〈뉴스타파〉는 탐사보도를 오랫동안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언론인들이 많았고, 활발한 탐사보도로 탐사보도 전문 언론이라는 평가를 받는 점에서 이상적인 연구 사례였다. 현장 연구는 예비 관찰과 본 연구로 나뉘어 진행됐다. 예비 관찰은 2014년 11월 11일부터 2015년 3월 초까지 네 달 동안 매주 화요일 〈뉴스타파〉를 방문하는 식으로 이루어졌다. 본격적인 연구는 연구자가 〈KBS〉를 퇴직하고 〈뉴스타파〉 취재팀으로 합류한 2016년 3월 21일부터 시작해 2017년 6월 31일까지 약 1년 3개월 동안 진행됐다.

〈뉴스타파〉는 취재팀 개개인의 언론인 경력이나 보도 기능 또는 겪어야 했던 경험 등의 측면에서 해직과 퇴직 언론인 중심의 조직이다. 이들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 하에서 정권이 지명한 사장에 반대하거나 그런 지배구조 아래서 행해진 보도에 염증을 느끼고 모인 사람들이었다. 참여자들은 〈뉴스타파〉에서 자유롭게 자신들의 신념을 표출했는데 그 중에서 소명의식으로 판단되는 것은 “독립언론, 자유언론”, “저널리즘” “이명박근혜”, 그리고 “탐사보도”로 요약됐다.

〈뉴스타파〉의 출발은 독립언론, 자유언론에 대한 열망이었다. 참여자들은 〈뉴스

타파> 출범 이후부터 독립언론, 자유언론을 위해 열정적으로 헌신해 왔고, 헌신에 대해 자부심을 가졌다. 이런 직업 정신 아래 참여자들은 <뉴스타파>가 보다 적극적으로 시민사회를 위해서 뭔가 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다. 독립언론, 자유언론의 대의 아래 구체적으로 실천했던 이념과 가치는 세 가지였다.

첫째, 저널리즘 비판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 아래에서 보수 언론은 정권과 유착해 있고 공영방송은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뉴스타파>가 언론 감시의 책임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사명감이었다. 언론자유를 지키다가 해직됐다는 순교와 기득권을 포기하고 정론의 길을 택했다는 고행의 자부심은 권력에 포섭되거나 불의에 침묵하는 다른 언론인들에 대한 도덕적 우월감이었고, 저널리즘 비평을 보다 적극적으로 하게 하는 원동력이었다. 참여자들은 <뉴스타파>가 문제점을 지적할 경우 대상은 더 심리적으로 위축될 것이며, 더 따끔한 충고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비판이 집중된 대상은 <KBS>, <MBC>, <YTN>, 조중동/종편이었고 구체적인 실천 방법은 적대적 공격이었다. 참여자들은 이들 언론사를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탄생과 유지에 있어 1등 공신으로 생각했다. 특히 조중동/종편에 대해서는 적대적 태도가 더 강했다. 참여자들은 <KBS>, <MBC>, <YTN>, 조중동/종편 외 다른 언론사들에 대해서는 경쟁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경쟁은 배타적이 아닌 협조적 경쟁으로 <뉴스타파>는 다른 언론사와 협업 또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도 적극적이었다. 그러나 참여자들은 협조적 경쟁 관계라고 생각했던 언론사의 행위가 공정하지 않거나 비윤리적으로 받아들여질 때는 해당 언론사에 대해 분노했고 적극적인 항의를 거쳐 기사 수정이나 사과를 받아내기도 했다. 대표적인 것이 ‘인용 생략’과 ‘단독 장사’로 주로 <JTBC>와의 관계에서 발생했다. <뉴스타파>의 언론 비판은 출범 이후 집요했다. 그러나 언론 비판이라는 목적이 적대적 공격이라는 수단을 정당화시키는 측면이 있었고 그 결과는 탐사보도와 정파보도의 혼재였고 다른 언론인들의 반감을 불러왔다.

둘째, 이명박, 박근혜 정권 감시라는 소명의식은 분노였다. 참여자들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대해 분노의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동시에 두 정권은 집권 권력으로 탐사보도의 본원적 기능 가운데 하나인 권력 감시의 대상이었다. 따라서 개인적 분노의 대상이 자연스럽게 언론인으로서 적극적으로 감시해야 할 대상이 되면서 정권에 대해 적극적인 비판 보도를 해야 한다는 소명의식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다. 소명의식은 정파에 따라 선택적으로 가치자유와 함몰, 배제 과정을 거쳤다. 참여자들은 정권 비판에 거침이 없었다. 정권에서 벌어지는 일은 분야를 가릴 것 없이 적극적인 기획을 통해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평가했다. 장기 프로젝트를 기획해 정권에 대한 주기적 평가도 병행했다. 예를 들어 공약 점검이나 예산 적절성 검증, 공직후보자 인사 검증 등이

다. 이는 가치자유를 거친 탐사보도였다. 그러나 권력 감시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국한되면서 정권교체라는 가치에 함몰되어 갔고 적대적인 공격으로 끼워넣기 방법이 사용되었다. 끼워넣기는 보도의 전체 흐름상 들어가지 않아도 되거나 오히려 맥락상 어울리지 않는데도 굳이 이명박이나 박근혜와 연관시키거나 과거 발언을 찾아서 영상을 포함시키는 경우였는데 수용자의 분노를 상승시키기 위해서였다. 적대적 공격의 결과는 정파보도였다. 반면, 우호 정파에 대한 소극적 태도는 가치배제를 거친 객관보도로 이어졌다. 참여자들 대부분은 〈뉴스타파〉의 보도가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는 적극적인 반면, 당시 야권에는 소극적이라는 것을 인정했다. 이런 상황이 고착화될 경우 정파성의 악순환에 갇히게 되는 위험성이 있어 보였다.

셋째, 탐사보도는 〈뉴스타파〉의 생존 전략으로서 소명이다. 참여자들은 주류 언론이 하지 않는 것을 보도하거나 주류 언론의 보도를 비판하던 대안 언론의 성격에서 벗어나 탐사보도를 통해 명실상부한 언론으로 인정받고자 했다. 장기기획이나 국제 협업, 또는 제보 등을 통해 수용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은 탐사보도를 할 때마다 후원회원의 수는 늘어났고 “좋은 보도하면 수용자가 반응한다”는 참여자들의 생각은 충분한 일리가 있었다. 최고의 탐사보도 언론이 되겠다는 소명의식은 가치자유를 거친 탐사보도를 만들어 냈다. 〈뉴스타파〉가 안착할 수 있었던 것도 성공적인 탐사보도 때문이었다. 취재 대상에 성역이 없었고 변화를 만들어 내고자 노력했다. 적극적으로 기획 보도를 만들어 냈고 활발한 가치토론을 통해 탐사보도의 역동성과 위험을 관리했다. 그 결과인 탐사보도는 이념적으로 진보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저널리즘 비판과 이명박, 박근혜 정권 감시 외에 참여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한 가치는 재벌과 인권이었다. 특히 비영리 언론으로서 경제 권력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은 〈뉴스타파〉가 가진 장점이었고 삼성, 이진희, 이재용은 집중적인 감시의 대상이었다.

한 가지 특징은 참여자들이 탐사보도를 실천하면서 탐사보도의 ‘말하는’ 기준과 ‘보는’ 기준, 그리고 ‘실천’ 기준이 달랐다는 점이다. 참여자들이 ‘말하는’ 좋은 탐사보도는 독자적 취재와 변화를 핵심으로 하면서 탐사보도 정의에 충실했다. 동료의 보도를 평가할 때 언급하는 ‘보는’ 기준은 탐사보도의 정의를 여전히 존중하지만 변화의 중요성은 낮추었다. 대신 말하는 기준에서 다소 언급됐던 차별화는 〈뉴스타파〉만의 색깔로 구체화되면서 중요성도 커졌다. 보도가 유발한 수용자 흥미도 새롭게 등장했다. 말하는 기준이 탐사보도의 정의에 근접했다면 보는 기준을 거쳐 실천 기준에 오면 탐사보도 정의는 그 역할이 작아졌다. 취재의 중요성은 여전히 강조되지만 말하는 기준의 취재가 과정, 즉 ‘감춰진 진실의 추적’이라면 실천 기준의 취재는 결과, 즉 ‘경쟁을 위한 특종’ 성격이 강했다. 변화의 중요성은 실천 기준에서는 더 이상 언급되지

않았다. 내가 분노하면 수용자도 분노할 것이라는 믿음 하에 참여자의 분노가 중요한 기준으로 부상했다. 차별화와 수용자 흥미도 중요하게 고려됐다. 특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볼 것인가는 보도를 평가하고 실천하는데 중요한 기준이었다. 보도가 취재나 구성 면에서 비판적 평가를 받더라도 조회수가 많이 나오면 면죄부를 받는 경우도 있는 만큼 수용자 흥미는 중요했다.

이를 탐사보도의 세속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말하는 기준이 추상적, 이성적, 논리적, 원칙적, 전체, 명분의 성격이 강하다면 실천하는 기준은 구체적, 감정적, 경험적, 현실적, 개인, 실리의 성격이 강했다. 세속화는 가치자유 실천에서 이탈해 신념 과잉으로 가는 과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참여자들이 탐사보도라는 소명의식을 실천하면서 신념 과잉에 빠져 나타나는 문제들은 동시에 세속화의 결과라고 할 수도 있었다. 따라서 탐사보도에서 신념 과잉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언론인 스스로 실천 기준에서 말하는 기준으로 회귀하려는 노력이 필요했다.

연구자는 소명의식과 가치자유 실천의 능수능란함 그리고 그 능수능란함이 탐사보도 정의(진실, 폭로, 변화)와 부합할 때 탐사보도 전문성으로 정의했다. 소명의식과 가치자유 관점에서 최승호는 탐사보도 전문 언론인으로 불리기에 손색이 없었다. 참여자 중 한 명이 최승호를 체험하면서 느낀 그의 전문성의 양상은 완벽한 장악, 집요한 노력, 예의 바른 공격, 평등한 관계였다. 특히 최승호의 가치자유 실천은 이른바 최승호식 앰부시에서 상징적으로 드러났다. 모든 것을 장악한 상태에서 취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적의 수단을 찾아가는 최승호의 능력은 〈뉴스타파〉 내 다른 참여자들도 평가하는 전문가적 기능이었다.

마지막으로 해석에서는 〈뉴스타파〉가 겪고 있는 위기의 원인을 탐사정신의 원동력과 탐사보도의 방향성, 탐사보도와 정파성, 탐사보도의 취재 윤리, 그리고 탐사보도의 독립성 등 다섯 가지 측면으로 정리한 뒤 〈뉴스타파〉와 나아가 한국 탐사보도에 대한 연구자의 제언을 제시했다.

제 2 절 함의

탐사보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서 끝나는 강단 탐사보도론을 넘어서는 탐사보도 언론인의 현실에 대한 연구들이 많지 않았다. 또 탐사보도를 논할 때는 탐사보도의 정의나 원리 만을 거론하는 경우가 많았다. 미국의 탐사보도는 커다란 현실적 함의를 갖는 것처럼 포장하면서도 정작 한국의 탐사보도는 무시하거나 폄하하는 분위기도 느낄 수 있었다. 탐사보도 생산 현장과 언론인들의 내면 세계가

쉽게 공개되지 않는 제약이 원인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런 경향은 한국 탐사보도의 착근이나 지평 개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연구자는 문화기술지 연구를 통해 〈뉴스타파〉 언론인들의 내면세계를 소명의식과 가치자유의 관점에서 연구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가 갖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고 생각한다.

첫째, 탐사보도 언론인 자체를 이해하고 해석하려는 시도였다. 세상을 바꾼 탐사보도의 결과가 아닌 세상을 바꾸는 탐사보도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그 과정에서 언론인들을 움직이게 하는 내면의 원동력을 찾고자 하였고, 연구자는 원동력을 소명의식으로 규정했다. 나아가 연구자는 탐사보도의 개별 사례를 꿰어낼 있는 탐사보도의 본질적 속성으로 언론인의 소명의식을 제안한다. 이는 탐사보도를 사후적으로만 검토해서는 연구될 수 없는 것들이다.

둘째, 탐사보도 언론인을 이해하기 위한 새로운 시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용진이나 최승호를 어떻게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한국 언론 학계는 언제부터인가 리프만과 스톤 중 리프만을 이상형으로 상정해 왔다. 그러나 사회학의 창시자 중 한 명인 베버의 시각에서 보면 스톤이 이상적인 언론인이다. 더 이상 언론인을 판단하고 구별하는 기준이 주관과 객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보다는 추구하는 것이 사익이지 대의인지, 현실에 순응하고 안주하는지 아니면 저항하고 변화를 추구하는지, 불러주는 대로 쓰지 않고 스스로 찾아내서 쓰는지 등이 되어야 한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동안 공영방송은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연구자는 그 이유로 사익을 추구하며 정권에 순응하고 정권이 불러주는 대로만 썼던 언론인들을 지목한다. 그들이 당시 내놓았던 주장이 객관보도였다.

셋째, 새로운 시각의 핵심은 소명의식과 가치자유를 기반으로 한 탐사보도 모형과 최승호에게 발견된 전문성이었다. 이를 시작으로 좋은 탐사보도 기준과 탐사보도 전문성, 그리고 탐사보도 교육 등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시작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마지막으로 각 언론사의 탐사보도가 유행과 퇴조, 그리고 부활 등 부침을 거듭하는 상황에서 본 연구가 한국 탐사보도에 작은 돌파구를 제공하기를 희망한다. 한국 탐사보도의 현실과 실천, 발전 방향성 등에 대한 원리를 놓고 사려 깊은 논의를 할 수 있는 지적 자원을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 즉, 한국 탐사보도가 처한 현실적 문제들을 해결하고, 탐사보도 앞에 놓인 함정을 피할 수 있고, 나가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탐사보도에 대한 대화에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제 3 절 한계

연구는 소명의식의 정의 하에 참여자들의 직업정신에서 소명의식으로 보여지는 공통 분모를 뽑아 소명으로 판단하고 연구와 분석을 진행한 탓에 결과적으로 <뉴스타파> 언론인 연구인지, 아니면 <뉴스타파> 조직 연구인지 모호하다는 한계도 있다. 또한 이론적 검토를 통해 참여자들 추구하는 소명의식의 층위를 논리적, 이론적으로 구성하지 못했다.

연구가 집중적으로 파고 들었던 소명의식이 참여자들 가운데 선배 집단의 신념이었다는 한계가 있다. 선배 집단 참여자들은 모두 다니던 언론사에서 해직당하거나 퇴직한 후 <뉴스타파>에 합류한 경우들이었다. 따라서 일반 언론인들은 좀처럼 겪기 힘든 해직이나 퇴직의 경험이 그들의 소명의식을 더욱 강고하게 만들었거나 강하게 자극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이 부분을 적절하게 통제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며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후배 집단 일부에서 정재원의 경우처럼 스스로 처음부터 끝까지 주도한 취재가 성공했을 경우 자신감을 기반으로 한 소명의식의 가능성이 보였지만 구체적으로 연구에 이를 담아내지 못했다.

탐사보도 모형에서 소명의식과 가치자유 실천의 결과가 개별 보도 또는 총합에서 이념성으로 나타날 가능성을 제시했지만 <뉴스타파> 보도의 결과가 이념적으로 어떤 성향을 나타냈는지 검증하지 못한 점도 한계로 남는다. 추후 다른 언론사의 탐사보도 결과까지 종합해 모형의 설명력을 검증할 기회가 있기를 희망한다.

끝으로 연구자의 능력 부족을 한계로 인정한다. 문화기술지 연구는 폭과 깊이에 따라 ‘포괄적 문화기술’과 ‘주제 중심적 문화기술’, 그리고 ‘가설 검증적 문화기술’의 세 유형으로 나뉘어 진다. 세 가지 수준의 문화기술은 상호배제적인 관계가 아닌 연계적인 관계를 이룬다. 즉 연구문제의 성격에 따라서 셋 중 어떤 수준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계획하되 다른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연구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한 사전 지식이 전혀 또는 거의 없는 경우에는 포괄적 문화기술이 불가피한 반면에, 사전 지식이 어느 정도 축적되어 있을 경우에는 주제 중심 또는 가설 검증적 연구도 가능하다. 연구자가 본 연구를 스스로 돌이켜 보건 데 결과적으로 포괄적 문화기술 연구 수준이 된 듯한 느낌을 감출 수 없다.

참고 문헌

- 강명구 (2004). 한국 언론의 구조변동과 언론전쟁. <한국언론학보>, 48권 5호, 319-348.
- 강명구 (2005). 경기장에서 나오되 이념적 스펙트럼 넓혀야-언론의 당파성. <신문과방송>.
- 강준만 (2000). <권력변환: 한국 언론 117 년사>. 서울: 인물과사상사.
- 강준만 (2007). <한국대중매체사>. 서울: 인물과사상사.
- 강형철 (2007). 탐사보도 프로그램의 내용 다양성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보> 21권 1호, 7-46.
- 강휘원 (2014). 막스 베버의 서구 프로테스탄트 자본주의 분석과 현대적 적용 논의. <현상과인식>, 38권 3호, 103-128.
- 경향신문 (2004, 09, 13). /알림/ 가을바람과 함께 경향이 새로워집니다.
- 곽상아 (2013, 2, 15). '기자'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로 돌아오다. <미디어스>. URL: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905>
- 구갑우, 김기원, 김성천, 서영표, 안병진, 안현효, (2010). <좌우파사전 : 대한민국을 이해하는 두 개의 시선>. 고양: 위즈덤하우스.
- 권수진, 신영수, 김호기, & 최문숙 (2011). <담합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경근 (1985). Max Weber의 신문사회학. <한국언론학보>, 19호, 43-58.
- 김경모, & 신의경 (2013). 저널리즘의 환경 변화와 전문직주의 현실. <언론과학연구>, 13권 2호, 41-84.
- 김균, 이정훈, & 박영흠 (2012, 5월). <‘조중동’ 담론의 형성과 한국 언론의 구조 변동>: 한국언론학회 봄철 정기학술대회.
- 김남수 (2007). <가격담합과 소비자피해구제 실효성 제고방안>: 한국소비자원.
- 김도연 (2013, 6, 17). MBC도 외면 못한 해직PD 최승호를 만나다. <미디어스>. URL: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033>
- 김민하 (2008). 한국 언론의 탐사보도와 시민공동체 형성의 전망. <한국언론학보>, 52권 4호, 105-128.
- 김민환 (2007). 한국 언론과 객관주의 보도 원칙. 임상원 (편), <민주화 이후의

- 한국언론> (101-137쪽). 파주: 나남.
- 김사승 (2008). <디지털 테크놀로지와 저널리즘>.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사승 (2012). <저널리즘 생존 프레임, 대화·생태·전략>.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상균, & 한희정 (2014). 천안함 침몰 사건과 미디어 통제. <한국언론정보학보>, 242-272.
- 김성호 (2003). 주객(主客)의 저편: 막스 베버에게 있어서 신념과 책임의 문제. <한국정치학회보>, 37권 2호, 173-196.
- 김성후, & 이진우 (2016, 1. 20). 해직 언론인 ‘잔혹사’를 아십니까? <한국기자협회보>. URL: <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38319>
- 김수지 (2016). <대안언론의 공정성 인식과 실천 : 뉴스타파 사례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연식 (2008). TV 기자와 프로듀서의 역할 인식과 공정성 인식 관계 연구. <언론과학연구>, 8권 4호, 222-252.
- 김연식 (2014). 방송 저널리스트의 전문직주의 인식에 관한 탐색적 연구. <언론과학연구>, 14권 2호, 5-30.
- 김영옥 (2011). 한국 언론의 정파성과 사회적 소통의 위기. 한국언론학회(편), <한국사회의 소통위기> (170-217쪽).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영옥 (2009). 독자가 본 한국 언론의 정파성. <미디어 인사이드>, 2~ 30
- 김예란 (2017). 진실의 레짐과 미디어. <방송문화연구>, 29권 1호, 7-40.
- 김용진, 최승호, & 박성호 (2013, 9, 5). [탐사보도 가이드⑦ 뉴스타파] “데이터 저널리즘과 발로 뚫 리포팅의 환상적 결합”. <방송기자>, 14호, 34-41.
- 김용학, & 장덕진 (1991, 12월). <베버의 가치와 사실의 비대칭적 분리>,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 김재영 (2014). 클라우드소싱 저널리즘의 성과와 과제. <사회과학연구>, 25권 3호, 205-224.
- 김재호 (2015). 옹기 장인들의 불에 대한 민속지식과 민속분류. <민속연구>, 31권, 269-298.
- 김종옥 (2015, 5, 16.).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게 진보죠". <한겨레신문>.
- 김주완 (2009). [블로거마당] 조중동과 한경서, 둘 다 외눈박이 보도?. <월간말>.
- 김진영, & 성민규 (2016). 지역 텔레비전 탐사보도 프로그램의 지역성 구현에 관한 탐색. <영상문화콘텐츠연구>, 11권, 47-77.
- 김진욱(외) (2012). 역자 서문. 김진욱(외) (편), <직업으로서의 학문, 정치> (7-9쪽).

파주: 범우사.

- 김한미 (2009). <도제식 교수 - 학습의 방법과 구조에 관한 질적 연구 : 성악 레슨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나미수 (2005). 민속지학적 수용자 연구에 대한 비판적 성찰. <커뮤니케이션 이론>, 1권 2호, 68-105.
- 남재일·오대영 (2018). 한국 탐사보도 실천경험에 관한 뉴스 생산자 인식 연구. <언론과학연구>, 18권 3호, 45-91.
- 동아일보 (2000, 05. 21.). [社告]편집국이 확 바꿉니다. 1면.
- 류성희 (2011). [서평] 앨런의 《막스 베버의 오만과 편견》에 대한 비판. <철학탐구>, 30권, 416-436.
- 박상익 (1999). <언론 자유의 경전 아레오파기티카>. 서울: 소나무.
- 박성우 (2014). 막스 베버의 사실-가치 구분에 대한 레오 스트라우스 비판의 정치철학적 의의. <한독사회과학논총>, 24권 3호, 3-34.
- 박성철, & 이덕환 (2013). 구미 유독가스 누출사고에 대한 텔레비전 뉴스보도 연구. <한국방송학보>, 27권 5호, 86-123.
- 박승관 (2011). 한국 사회와 소통의 위기: 소통의 역설과 공동체의 위기. 한국언론학회 (편), <한국사회의 소통위기> (121-169쪽).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박승관 (2017). 패권(군주)제 사회질서와 정파언론 - 그 현실과 기원. <언론과 사회>, 25권 4호, 5-58.
- 박승관, & 장경섭 (2001a). <언론권력과 의제동학>.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박승관, & 장경섭 (2001b). 한국 사회의 이중적 법질서와 언론 권력의 관계. <한국사회학>, 35권 2호, 91-114.
- 박용규 (2015). <한국의 언론인: 정체성을 묻다>. 서울: 논형
- 박인규 (2010). 구조적 통제 하의 저널리즘. <한국방송학보>, 24권 6호, 209-245.
- 박인규 (2017). 탐사저널리즘의 주체 변동.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권 8호, 27-38.
- 박정의 (2006). 탐사보도, 연성화, 정파성 보도. <신문과방송>. 1호, 110-113.
- 박종인 (2006). <국익 과 진실 보도>.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박천일 (1995). 방송의 국제뉴스 선정과정과 통제 메커니즘 비교분석 연구: 한국 KBS, SBS와 미국 CNN의 참여관찰 연구. <언론과 사회>, 70-97.
- 박해식 (2015, 12, 1). “문 대표, 노영민 건 흐지부지 처리하면 진짜 콩가루 당”. <동아일보>. URL: <http://news.donga.com/List/3/00/20151201/75116912/2>

- 박현수 (2005). <탐사보도와 CAR 실무>.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설진아 (2009). 탐사보도 프로그램의 논증모형에 관한 분석 연구. <한국언론학보>, 53권 3호, 370-394.
- 세계일보사사편찬위원회 (2009). <세계일보 20년사: 1989-2009>. 서울: 세계일보사.
- 송정민 (1996). 한국 언론의 현상유지 기제에 관한 논의 - 진실보도와 객관보도의 개념을 중심으로. <현대사회과학연구>, 7권, 101-129.
- 심재철, & 이경숙 (1999). 국민의제 형성에서 탐사보도의 역할: 박종철 사건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43권 3호, 73~108.
- 양모듬 (2015, 4, 5). FIFA 비리 15년간 추적한 '집념의 老기자'. <조선일보>.
- 양승목 (2011). 발간사. 한국언론학회 (편), <한국사회의 소통위기> (v-vii쪽).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오택섭, 이창근, & 강명구 (1993). 언론인의 책임과 윤리 / 한국언론연구원 고려대 신문방송연구소 공동 제3회 전국기자직업의식 조사. <신문과방송>.
- 우병동 (1994). 신문의 과열경쟁을 우려하는 이유. <신문과방송>.
- 우병동 (2005). 사회갈등과 언론 : '절반의 진실'로 갈등 증폭 말아야. <신문과방송>.
- 유승호, & 선원석 (2014). 장인 문화에 대한 해석적 접근: 일본 모노즈쿠리 쇼쿠닌의 일과 삶. <인문콘텐츠>, 32권, 267-283.
- 유승호, & 이나라 (2015). 여행하는 장인, 꿈빠농 드 드부아 (Compagnon de devoir)에 대한 소고. <문화경제연구>, 18권 2호, 21-40.
- 육서영, & 윤석민 (2013). 탐사보도 프로그램 제작에서 구성작가의 역할. <방송통신연구>, 127-155.
- 윤영철 (2003). 한국 언론전문직주의를 말한다 : 분열과 충돌. <한국언론학회 심포지움 및 세미나>, 1-22.
- 윤영철, & 홍성구 (1996). 지역사회 권력구조와 뉴스 만들기:지역언론의 뉴스틀 형성과정에 관한 참여관찰 연구. <언론과 사회>, 90-122.
- 윤태진, & 강내원 (2001). 온라인신문에 나타난 공공저널리즘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46권 1호, 306-343.
- 이강형 (2012). 한국 대통령선거 보도의 정파성 이슈. <관훈저널> 겨울호, 34-40.
- 이규연 (2002). 국내 탐사보도의 현실. <관훈저널> 여름호, 354-361.
- 이규연 (2006). 탐사보도의 출범, 그리고 힘로. <관훈저널> 겨울호, 112-119.
- 이민규 (2013). 비영리 탐사보도기관이 대세다. <방송기자>, 13권, 42-44.
- 이민정, & 이건호 (2014). 중앙 일간지 탐사보도 특성 연구. <한국언론학보>, 58권 6호,

64-89.

- 이봉현, 설원태, & 반현. (2011, 10월). <탐사저널리즘의 전략적 가치>: 한국언론학회 학술대회.
- 이성규 (2018, 3월). <비영리 저널리즘의 수익모델과 사용자경험 그리고 독자>.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 창립 5주년 기념 심포지엄.
- 이승선 (2005). TV탐사보도 프로그램의 법적분쟁에 나타난 특성 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233-269.
- 이영돈, 심재철, & 노성중 (2009). 탐사저널리즘의 속성의제설정. <한국언론학보>, 53권 2호, 161-182.
- 이오현 (2005). 텔레비전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의 생산과정에 대한 민속지학적 연구 KBS <인물현대사>의 인물선정과정을 중심으로. <언론과 사회>, 13권 2호, 117-156.
- 이오현 (2007). 텔레비전 코미디 프로그램의 생산과정에 대한 민속지학적 연구: KBS <개그콘서트> 생산의 제한요인을 중심으로. <언론과 사회>, 15권 2호, 131-174.
- 이용숙 (1998). 교육연구에서의 질적 자료의 분석. 이용숙 & 김영천 (편), <교육에서의 질적 연구 방법과 적용> (107-186쪽). 서울: 교육과학사.
- 이용주 (2015, 7, 6). [로웰 버그만 간담회] “모든 보도는 탐사보도가 되어야 합니다”, <방송기자>.
- 이재경 (2004). 한국저널리즘의 3가지 - 저널리즘의 위기와 언론의 미래, <신문과방송>.
- 이재경 (2012, 4월). <신문의 가치와 신뢰회복을 위한 한국형 저널리즘 모델의 성찰>: 한국언론학회 제56회 신문의 날 기념 특별기획 토론회.
- 이종규 (2006). <질적 연구방법론>. 서울: 교육과학사.
- 이준웅, & 최영재 (2005). 한국 신문위기의 원인. <한국언론학보>, 49권 5호, 5-35.
- 이충환 (2013). <저널리즘에서 사실성>.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임상우 (1992). Max Weber의 政治活動에 관한 小考. <역사학보>, 134·135권, 273-303.
- 임지수 (2016, 4, 4.). 푸틴·메시 포함 '유령회사 설립' 파문...노태우 장남 등 한국 이름 195명 등장. <JTBC>. URL: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207027&fcode=PR10000403
- 장아영(2016, 7). 탐사보도의 ‘최전선’에서 배운다: PBS <프론트라인 앤드류 메츠> 간담회. (방송기자).

- 장연화, & 백경희 (2013). 약사법상 담합행위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16권 2호, 455-485.
- 장준호 (2007). 후쿠야마 역사종언 테제에 대한 비판적 재검토. <한국정치학회보>, 41권 1호, 169-194.
- 전병근 (1994). <Max Weber의 '방법론'의 정치적 함의 : '가치자유'론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전성우 (2011a). <역자 서문-막스 베버 사회과학방법론 선집>. 전성우 (편), (7-18쪽). 파주: 나남.
- 전성우 (2011b). <역자 서문-직업으로서의 정치>. 전성우 (편), (5-14쪽). 파주: 나남.
- 정녹용 (2015, 12, 2). '乙지로 위원회' 3명 잇단 갑질에도 ... 野, 질책 없이 쉬시. <조선일보>, 5면.
- 정서린 (2010). <국내 언론사의 탐사보도팀 운영 성과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유신 (2015, 3). [조송호를 기다리며] “다시 돌아가 더 좋은 YTN을 만들 겁니다”. <방송기자>. 23권, 26-27.
- 정재민 (2018, 3월). <“지속가능한 비영리 저널리즘을 위한 방안 모색” 토론회>.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 창립 5주년 기념 심포지엄.
- 정재철 (1997). 민속지학적 수용자연구(ethnographic audience research)의 방법론적 과제와 전망. <한국방송학보>, 통권 9호, 103-144.
- 정준희 (2018, 3월). <탐사 저널리즘이 비영리를 만날 때: 당위(sollen)의 과잉과 존재(sein)의 과소 사이에서>.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 창립 5주년 기념 심포지엄.
- 정희숙·백명진·김재범 (2011). 매슬로 욕구단계이론을 통한 병입 생수 브랜드의 디자인 분석. <Archives of Design Research>, 24권 1호, 175-186.
- 조계완 (2013, 5, 15). 한겨레 첫 열린편집위 지상중계. <한겨레신문>, 8면.
- 조맹기 (1997). 언론에 대한 베버(Max Weber)의 문화사와 그 방법론. <정신문화연구>, 20권 1호, 151-173.
- 조선일보 (2003a, 1, 6). [사고] 조선일보가 현장에서 아침을 엽니다.
- 조선일보 (2003b, 1, 26). [社告] ‘조선경제’ 새롭게 달라집니다.
- 조성실 (2013). 붓 장인을 통해 본 전통공예의 전승과 변화: 전북 지역 전통 붓 제작을 중심으로. <실천민속학연구>, 21호, 271-296.
- 조수경 (2014, 7, 31). 기자에게 365일과 ‘디지털’ 자원을 줄 수 있습니까, <미디어

오늘>

- 조승호 (2015, 05). [뉴스 부문_제79회 이달의 방송기자상] 뉴스타파가 아니었다면, 이 취재를 할 수 있었을까? <방송기자>.
- 조용환 (1999). <질적 연구: 방법과 사례>. 서울: 교육과학사.
- 조찬제 (2015, 6, 2). [조찬제 선임기자의 월드 프리즘]빈라덴 죽음의 진실은 밝혀질 것인가, <주간경향>.
- 조효제 (2010). <웁간이 서문-진보와 보수의 12가지 이념>, 조효제 (편), (13-43쪽). 서울: 후마니타스.
- 진민정 (2018, 3월). <지속가능한 비영리 탐사저널리즘을 위한 방안 모색>.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 창립 5주년 기념 심포지엄.
- 차재영, & 이영남 (2005). 한·미 언론의 노근리사건 보도 비교 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239-273.
- 채백 (2001). 20세기 초 미국의 언론개혁과 신문공개법. <한국언론학보>, 45권 3호, 360-387.
- 최경진 (2003). 미디어 저널리즘에 대한 미디어 전문 기자의 역할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683-703.
- 최광범 (2004). 이달의 화제 / 중앙일보 "2003 바로잡습니다". <신문과방송>.
- 최기훈 (2016, 3, 18). 나경원-성신여대, '부정입학' 해명 거부하고도 뒤늦게 언론플레이.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 URL: <https://newstapa.org/32169>
- 최기훈 (2017, 9, 8). '나경원 의원 딸 부정입학 의혹 보도' 허위사실 아니다.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 URL: <https://newstapa.org/41279>
- 최문호, & 박승관 (2018). 한국 탐사보도 기자들의 소명의식과 실천에 대한 문화기술지 연구: 뉴스타파 취재팀을 대상으로. <언론정보연구>, 55권 3호, 249-307.
- 최승호 (2016, 7, 7). 해직 언론인, 이렇게 삽니다_영화감독으로 사는 이유_뉴스타파 최승호 PD(MBC 해직 PD). <방송기자>, 31호, 34-35.
- 최승호, 신기주, & 권영탕 (2016). 뉴스타파 PD 최승호 : 진실의 진실에 의한 진실을 위한 뉴스. <인물과사상>, 217호, 13-36.
- 최신섭 (2003). 신사약정과 법률행위. <비교사법>, 1권 2호, 99-125.
- 최영재 (2005). 언론의 정파성과 대통령 보도, 그리고 언론자유 언론과법 (Vol. 4, pp. 49-80): 한국언론법학회.
- 최영재 (2011). 분열 정치와 분열 언론 그리고 분열 여론의 악순환 이론.

- 한국언론학회 (편), 〈한국사회의 소통위기〉 (171-218쪽).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최장집 (2005).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 한국민주주의의 보수적 기원과 위기〉, 서울: 후마니타스.
- 최장집 (2013). 〈막스 베버, 소명으로서의 정치〉. 최장집 & 박상훈 (편). 서울: 후마니타스.
- 최진호, & 한동섭 (2012). 언론의 정파성과 권력 개입. 〈언론과학연구〉, 12권 2호, 534-571.
- 최치원 (2014). 막스 베버(Max Weber)의 '가치자유'와 사유의 의미에 대한 정치사상적 해석. 〈한·독사회과학논총〉, 24권 3호, 57-92.
- 최현주 (2010). 한국 신문 보도의 이념적 다양성에 대한 고찰. 〈한국언론학보〉, 54권 3호, 399-426.
- 한국탐사언론인회 (2007). 〈세상을 깊게 보는 눈〉. 서울: (주)황금부엉이.
- 함용준 (1976). 〈Weimar 憲法과 Max Weber〉.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현덕수 (2016, 5, 15). '낯섦'과 '단절'을 넘어: 23년 차 기자의 좌충우돌 탐사보도 도전기. 〈방송기자〉, 30호, 24-25.
- 홍용희 (1998). 참여관찰과 심층면담: 연구자와 연구대상자의 관계. 〈교육과학연구〉, 28호, 113-129.
- 홍주예 (2015, 5, 12). [현덕수를 기다리며] 7년 만에 '월화수목금토일'의 세계로 돌아오다. 〈방송기자〉, 24호, 30-31.
- 황일송. (2016a, 1). [뉴스 부문_제87회 이달의 방송기자상] 특종을 해놓고서 마음이 착잡한 이유. 〈방송기자〉, 28호, 54-55.
- 황일송 (2016b, 4, 12). 뉴스타파 후속보도 문제삼은 나경원 의원 이의신청 '기각'.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 URL: <https://newstapa.org/32749>
- 황일송 (2016c, 5). [뉴스 부문_제91회 이달의 방송기자상] 세월호 참사 교훈에도 변하지 않은 언론, 〈방송기자〉, 30호, 60-61.
- 황일송 (2017, 5, 10). [뉴스 부문_제102회 이달의 방송기자상] 의문의 죽음에 얽힌 검은 커넥션. 〈방송기자〉, 36호, 55.
- 황일송 (2018, 7. 9.). 성신여대, 나경원 딸 입학시킨 전형 '명백한 규정 위반'.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 URL: <https://newstapa.org/32749>
- 황호출 (2003). 현장 점검 / 2002년 언론상, 게이트 기사가 압도적, 탐사보도 증가. 〈신문과방송〉.

- Abdenour, J., & Riffe, D. (2016). The investigative DNA: Role conceptions of local television investigative journalists. *Electronic News*, 10(4), 224-242.
- Allen, K. (2005). *Max Weber : A critical introduction*. 박인용 (역) (2010). <막스 베버의 오만과 편견 : 독일의 승리를 꿈꾼 극우 제국주의자>. 서울: 삼인.
- Altschull, J. (1990). *From Milton to Mcluhan: The ideas behind American journalism*. 양승목 (역) (1993). <현대언론사상사: 밀턴에서 맥루한까지>. 파주: 나남.
- Aucoin, J. (2005). *The evolution of Aamerican investigative journalism*. 한국언론재단 (역) (2007). <탐사 저널리즘: 미국 탐사보도의 진화>. 서울: 한국언론재단.
- Babbie, E. R. (1998). *The practice of social research*. 고성호, 김광기, 김상욱, 문용갑, 민수홍, 유홍준, 이성용, 이정환, 장준오, 정기선 & 정태인 (역) (2009). 『사회조사방법론』. 서울: CENGAGE LEARNING.
- Bache, B. F. (1795). A calm observer. In B. Shapiro (Ed.), *Shaking the foundations: 200 years of investigative journalism in America* (pp. 3-8). New York: Nation Books.
- Bayley, E. R. (1981). *Joe Mccarthy and the press*. Madison: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 Bennett, W. L. (2002). *News : The politics of illusion*. 유나영 (역) (2009). <뉴스, 히깨비를 좇는 정치>. 서울: 책으로 보는 세상.
- Berry, S. J. (2009). *Watchdog journalism : The art of investigative reporting*.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Bly, N. (1887). *Ten days in a mad-house*. Sydney: Read How You Want.
- Boorstin, D. J. (1992). *The image: A guide to pseudo-events in America*. 정태철 (역) (2004). <이미지와 환상>. 파주: (주)사계절출판사.
- Bradlee, B. C. (1995). *A good life: Newspapering and other adventures*. 김영배 (역) (2009). <워싱턴포스트 만들기>. 서울: 프레시안북.
- Bromley, M. (2008). Investigative journalism and scholarship. In Hugo de Burgh et al. (Ed.), *Investigative Journalism*(pp. 174-188). London: Routledge.
- Browne, H. (2010). Foundation-funded journalism: Reasons to be wary of charitable support. *Journalism Studies*, 11(6), 889-903.
- Carson, R. (1962). *Silent spring*. 김은령 (역) (2002). <침묵의 봄>. 서울 : 에코리브르.
- Chalaby, J. K. (2004). Scandal and the rise of investigative reporting in France.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47(9), 1194-1207.

- Chomsky, N. (2002). *Understanding power: The indispensable chomsky*. 이종인 (역) (2013). <촛스키 세상의 물음에 답하다. 1: 권력이 여론을 조작하는 방식에 관하여>. 서울: 시대의창.
- Coleman, R., & Wilkins, L. (2004). The moral development of journalists: A comparison with other professions and a model for predicting high quality ethical reasoning.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81(3), 511–527.
- Cross-Barnet, M. (2005, 6, 26). The New York Times shafted my father. *Los Angeles Times*, from <http://articles.latimes.com/2005/jun/26/opinion/op-nytdissent26>
- Daly, M. (2011). The ethics of going undercover. In J. Mair & R. Keeble (Eds.), *Investigative journalism: Dead or alive?* (pp. 88–96). Suffolk, England: Abramis Academic Publishing.
- Daniel, M. (2009). *Scandal and civility [electronic resource] : Journalism and the birth of American democracy*.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 de Burgh, H. (2000). *Investigative journalism : Context and practice*. London & New York : Routledge.
- de Burgh, H. (2003). Kings without crowns? The re-emergence of investigative journalism in China. *Media, Culture & Society*, 25(6), 801–820.
- de Burgh, H. & Rong, Z. (2011). *China's environment and China's environment journalists*. Intellect Books.
- Dennis, E. (1984). *Journalistic objectivity is possible*. (in Basic issues in mass communication by J. C. Merrill & Evertte E. Dennis), Macmillan Pub. Co. Inc., pp. 111–118.
- Dickinson, R. (2013). Weber's sociology of the press and journalism: Continuities in contemporary sociologies of journalists and the media. *Max Weber Studies*, 13(2), 197–215.
- Dinan, W., & Miller, D. (2011). *Spin doctor*. 노승영 (역) (2011). <스핀닥터, 민주주의를 전복하는 기업권력의 언론플레이>. 서울: 시대의창.
- Donsbach, W. (2004). Psychology of news decisions: Factors behind journalists' professional behavior. *Journalism*, 5(2), 131–157.
- Downie Jr, L., & Schudson, M. (2009). The reconstruction of American journalism. *Columbia Journalism Review*, November/December, 28–51.

- Eisner, E. W. (1985). *The art of educational evaluation: A personal view*. Belfast: Falmer Press.
- Ettema, J. S., & Glasser, T. L. (1998). *Custodians of conscience : Investigative journalism and public virtu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Feldstein, M. (2006). A muckraking model: Investigative reporting cycles in American history. *Harvard International Journal of Press/Politics*, 11(2), 105–120.
- Filler, L. (1976). *The muckrakers: Crusaders for American liberalism*, University Park, PA: Penn State University Press.
- Fishman, M. (1980). *Manufacturing the news*.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 Fitzpatrick, E. F. (1994). *Muckraking: Three landmark articles*. Boston: Bedford Books of St. Martin's Press.
- Foucault, M. (2011). *The courage of truth: Lectures at the collège de France, 1983–1984*. (G. Burchell, Trans.). New York: Picador.
- Friedan, B. (1963). *The feminine mystique*. 김현우 (역) (2005). <여성의 신비>. 서울: 이매진.
- Frith, S., & Meech, P. (2007). Becoming a journalist: Journalism education and journalism culture. *Journalism*, 8(2), 137–164.
- Fukuyama, F. (1989). The end of history? *The national interest*(16), 3–18.
- Gans, H. (1979). Deciding what's news. *New York: Pantheon*.
- Gardner, H. (1993). *Creating minds: An anatomy as seen through the lives of Freud, Einstein, Picasso, Stravinsky, Eliot, Graham and Gandhi*. 임재서 (역) (2004). <열정과 기질 : 거장들의 삶에서 밝혀낸 창조성의 조건>. 서울: 북스넛.
- Giddens, A. (1971). *Capitalism and modern social theory*. 임영일 & 박노영 (역) (2008). <자본주의와 현대사회이론>. 서울: 한길사.
- Giddens, A. (2006). *Sociology*. 김미숙, 김용학, 박길성, 송호근, 신광영, 유홍준 & 정성호 (역) (2011). <현대사회학>. 서울: 을유문화사.
- Gitlin, T., & Frankel, A. (1980). *The whole world is watching*. Berk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Goldstein, T. (2007). *Journalism and truth: Strange bedfellows*. 김경호 (역) (2009). <언론과 진실, 이상한 동거>.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Graham, K. (1997/1997). *Katharine Graham personal history*. 뉴스위크 (역) (1997). <캐서린 그레이엄 자서전 : 워싱턴 포스트와 나의 80년>. 서울: 중앙일보.

- Gurevitch, M., & Blumler, J. (1990). Political communication systems and democratic values *The crisis of public communication* (pp. 269–289). London: Routledge.
- Haas, T. (2007). *The pursuit of public journalism: Theory, practice, and criticism*. 김성해 (역) (2008). <공공저널리즘을 쏘다>. 서울: 한국언론재단.
- Hallin, D. C. (1986). *The uncensored war, the media and Vietnam*.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Hallin, D. C., & Mancini, P. (2004). *Comparing media systems : Three models of media and politics*. Cambridge ;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amill, P. (2003). Preface. In B. Shapiro (Ed.), *Shaking the foundations: 200 years of investigative journalism in america* (pp. vii–xii). New York: Thunder's Mouth Press/Nation Books.
- Hamilton, J. T. (2016). *Democracy's detective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Hardt, H. (1976). The rise and problems of media research in Germany. *Journal of Communication*, 26(3), 90–95.
- Hardt, H. (2001). *Social theories of the press : Constituents of communication research, 1840s to 1920s*. Lanham: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 Hargreaves, R. (2002). *The first freedom: A history of free speech*. Stroud: Sutton Pub Ltd.
- Hennis, W. (1998). The media as a cultural problem: Max Weber's sociology of the press. *History of the Human Sciences*, 11(2), 107–110.
- Hennis, W., Brisson, U., & Brisson, R. (1994). The meaning of 'wertfreiheit' on the background and motives of max weber's "postulate". *Sociological Theory*, 12(2), 113–125.
- Hersey, J. (1946). *Hiroshima*. Harmondsworth: Penguin Books.
- Hersh, S. M. (1970). *My lai 4: A report on the massacre and its aftermath*. New York: Random House.
- Hersh, S. M. (2004). *Chain of command: The road from 9/11 to abu ghraib*. 강주현 (역) (2004). <지휘계통: 9.11에서 아부 그라이브까지>. 서울: 세종연구원.
- Hogan, M. J. (1998). *A cross of iron : Harry s. Truman and the origins of the national security state, 1945–1954*. Cambridge, MA: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ouston, B. (2010). The future of investigative journalism. *Daedalus*, 139(2), 45–56.
- Huberman, A. M., & Miles, M. B. (1994). Data management and analysis methods. In

- N. Denzin & Y. Lincoln (Eds.),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pp. 428–444). London: Sage.
- Huntigton Samuel, P. (1993). *The clash of civilization*. 이희재 (역) (2016). <문명의 충돌>. 파주: 김영사.
- Hutchins Commission (1947/2004). *A free and responsible press : A general report on mass communication, newspapers, radio, motion pictures, magazines and books*. 김택환 (역) (2004). <허친스 보고서: 자유롭고 책임있는 언론>.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Inglehart, R. (1977). *The silent revolution: Changing values and political styles among western public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IRE, & Weinberg, S. (1996). *The reporter's handbook*. 이용식 (역) (2000). <미국기자들, 이렇게 취재한다>. 서울: 학민사.
- Jacobs, R. N. (2009). Culture, the public sphere, and media sociology: A search for a classical founder in the work of robert park. *The American Sociologist*, 40(3), 149–166.
- Jankowski, N. W., & Jensen, K. B. (1991/2004). *A handbook of qualitative methodologies for mass communication research*. 김. 김승현, 김영찬, 김예란, 윤태진, 이상길, 전규찬 (역) (2004). <미디어 연구의 질적 방법론>. 서울: 일신.
- Johnstone, J. W. C. (1976). *The news people: A sociological portrait of american journalists and their work*. Champaign: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 Johnstone, J. W., Slawski, E. J., & Bowman, W. W. (1972). The professional values of American newsmen. *Public Opinion Quarterly*, 36(4), 522–540.
- Kaplan, A. (2008). Investigating the investigators: Examining the attitudes, perceptions, and experiences of investigative journalists in the internet age: ProQuest Dissertations Publishing.
- Kenyon, P. (2011). How to make a panorama in ten (not so) easy steps. In J. Mair & R. Keeble (Eds.), *Investigative journalism: Dead or alive?* (pp. 153–164): Suffolk, England : Abramis Academic Publishing.
- Kim, E.-G. (2015). Dynamic practices and their potential for the alternative public sphere in korea. In C. Atton (Ed.), *The routledge companion to alternative and community media* (pp. 258–267).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Knightley, P. (2011). *Unturned stone: American radical: The life and times of I. F. Stone*,

- by D D Guttenplan (quartet, pp 570, 25). *British Journalism Review*, 22(3), 79–80.
- Kovach, B., & Rosenstiel, T. (2007). *The elements of journalism: What newspeople should know and the public should expect*. Crown Publishers.
- Lanosga, G., & Martin, J. (2016). Journalists, sources, and policy outcomes: Insights from three-plus decades of investigative reporting contest entries. *Journalism*, 1–18.
- Lanosga, G., Willnat, L., Weaver, D. H., & Houston, B. (2017). A breed apart? A comparative study of investigative journalists and us journalists. *Journalism Studies*, 18(3), 265–287.
- Larson, M. S. (1979). *The rise of professionalism: A sociological analysis*. Berkeley: Univ of California Press.
- Leonard, T. C. (1986). *The power of the press: The birth of american political reporting: The birth of american political reporting*.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 Lewis, P. (2011). How “citizen journalism” aided two major guardian scoops. In J. Mair & R. Keeble (Eds.), *Investigative journalism: Dead or alive?* (pp. 31–39). Suffolk, England : Abramis Academic Publishing.
- Lippmann, W. (1922). *Public opinion*. New York: Macmillan.
- Macpherson, M. (2006). *"All governments lie": The life and times of rebel journalist i.F. Stone*. 이광일 (역) (2012). <모든 정부는 거짓말을 한다>. New York: Scribner.
- Mair, J. (2011a). How to get a story. In J. Mair & R. Keeble (Eds.), *Investigative journalism: Dead or alive?* (pp. 26–28): Suffolk, England: Abramis Academic Publishing.
- Mair, J. (2011b). Match of the decade? Andrew jennings v. Sepp blatter: A classic piece of investigative journalism. In J. Mair & R. Keeble (Eds.), *Investigative journalism: Dead or alive?* (pp. 64–72): Suffolk, England: Abramis Academic Publishing.
- Mair, J., & Keeble, R. (2011). *Investigative journalism: Dead or alive?* : Suffolk, England: Abramis Academic Publishing.
- Marcaccio, M. D. (1984). Did a business conspiracy end muckraking? A reexamination. *Historian*, 47(1), 58–71.

- Marchetti, D. (2009). The revelations of investigative journalism in France. *Global Media and Communication*, 5(3), 368-388.
- Marocco, B. (2005). The social theories of the press: Journalism and society. *Brazilian Journalism Research*, 1(1), 195-216.
- Marshall, J. (2011). *Watergate's legacy and the press: The investigative impulse*. Evanston, IL: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 McFADDEN, R. D. (1985). Ralph Ingersoll, editor and publisher, from <http://www.nytimes.com/1985/03/09/nyregion/ralph-ingersoll-editor-and-publisher.html>
- McManus, J. (1992). What kind of commodity is news. *Communication Research*, 19(6), 787.
- McQuail, D. (2005). *Mcquail's mass communication theory* (5th ed.). 양승찬 & 이강형 역 (2008). <매스 커뮤니케이션 이론>. 파주: 나남.
- Merriam, S. B. (1998). *Qualitative research and case study applications in education*. San Francisco; CA: Jossey-Bass Publishers.
- Merrill, J. C. (1984). Journalistic objectivity is not possible *Basic issues in mass communication* (pp. 104-110). New York: Macmillan.
- Mills, C. W. (1951). *White collar: The american middle classe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Milton, J. (1886). *Areopagitica*. Clarendon Press.
- Nader, R. (1970). Nader v. General motors corp., from http://courtroomcast.lexisnexis.com/acf_cases/9243-nader-v-general-motors-corp-
- Nader, R. (1972). *Unsafe at any speed: The designed-in dangers of the american automobile*. New York, NY: Bantam Books.
- Orwell, G. (1952). *Homage to catalonia*. 정효석 (역) (1995). <카탈로니아 찬가>. 서울: 풀무질.
- Orwell, G. (2005). *Why I write*. 이한중 (역) (2010). <나는 왜 쓰는가 - 조지 오웰 에세이>. 서울: 한겨레출판(주).
- Parker, R. J. (1990). The relationship between dogmatism, orthodox christian beliefs, and ethical judgment. *Counseling and Values*, 34(3), 209-212.
- Patterson, T. E. (1996). *Out of order*. 미국정치연구회 (역) (1999), <미디어와

- 미국선거 : 이미지 정치의 명암>. 서울: 오름.
- Pippert, W. G. (1989). *An ethics of news: A reporter's search for truth*. Washington, DC: Georgetown University Press.
- Plaisance, P. L., & Skewes, E. A. (2003). Personal and professional dimensions of news work: Exploring the link between journalists' values and roles.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80(4), 833-848.
- Protest, D. L., Cook, F. L., Doppelt, J. C., Ettema, J. S., Gordon, M. T., Leff, D. R. (1992). *The journalism of outrage: Investigative reporting and agenda building in america*. New York; NY: The Guilford Press.
- Radosh, R. (2006). Romancing I. F. Stone. *New Criterion*, 25(3), 4-9.
- Regier, C. C. (1932). *The era of the muckrakers*. Chapel Hill; NC: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 Reuter, F. T. (1960). John swinton's paper. *Labor History*, 1(3), 298-307.
- Riis, J. (1890). *How the other half lives*. NY: Dover Publications
- Ritzer, G. (2002). *Contemporary sociological theory and its classical roots: The basics*. 한국이론사회학회 (역) (2010). <현대사회학 이론과 그 고전적 뿌리>. 서울: 박영사.
- Ritzer, G. (1996). *Sociological theory*. 김왕배, 김용학, 김현미, 김호기, 박선웅, 박찬웅, 박해광, 송유진, 이영숙, 임현진, 장상철, 조명우, 조성남, 최셋별 & 최유정 (역) (2010), <사회학이론>. 서울: 한울출판사.
- Romerstein, H. (1992). I. F. Stone was indeed a KGB agent. *Human Events*, 52(33), 10.
- Schiller, D. (1979). An historical approach to objectivity and professionalism in American news reporting. *Journal of communication*, 29(4), 46-57.
- Schudson, M. (1978). *Discovering the news : A social history of american newspapers*. New York: Basic Books.
- Schudson, M. (1995). *The power of news*. Cambridge: Harvard Univ Pr.
- Schumaker, P., Delehanty, W., Kiel, D. C., & Heilke, T. W. (2008). *From ideologies to public philosophies: An introduction to political theory*. 조효제 (역) (2010). <진보와 보수의 12가지 이념: 다원적 공공정치를 위한 철학>. 서울: 후마니타스.
- Scialabba, G. (2010). I. F. Stone, an enemy of the state. *Raritan*, 30(1), 157-171.
- Sennett, R. (2003). *Respect in a world of inequality*. 유강은 (역) (2004), <불평등

- 사회의 인간 존중>. 서울: 문예출판사.
- Sennett, R. (2008). *The craftsman*. 김홍식 (역) (2010), <장인 현대문명이 잃어버린 생각하는 손>. 파주: (주)북이십일 21세기북스.
- Shapiro, B. (2003). *Shaking the foundations: 200 years of investigative journalism in America*. New York: Thunder's Mouth Press/Nation Books.
- Shin, W. (2015). Being a truth-teller who serves only the citizens: A case study of newstapa. *Journalism*, 16(5), 688-704.
- Shoemaker, P. J., & Reese, S. D. (1996). *Mediating the message*. New York: Longman White Plains.
- Sinclair, U. (1906). *The jungle*. 채광석 (역) (2009), <정글>. 서울: 페이퍼로드.
- Smith, J. A. (1990). *Franklin and Bache [electronic resource] : Envisioning the enlightened republic*.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 Spark, D. (2012). *Investigative reporting: A study in technique*. New York: Routledge.
- Spencer, D. R. (2007). *The yellow journalism: The press and America's emergence as a world power*.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 Spradley, J. P. (1980). *Participant observation*. 이희봉 (역) (1988). <참여관찰 방법>.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Steel, R. (1981). *Walter lippmann and the American century*. New York, NY: Vintage Books.
- Stephens, M. (1999). The top 100 works of journalism in the United States in the 20th century. from <https://www.nyu.edu/classes/stephens/Top%20100%20page.htm>
- Stephens, M. (2007). *A history of news*. 이광재 & 이인희 (역) (2010), <뉴스의 역사>.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Stone (1953, 1. 17). Who will watch this watchman? <*I. F. Stone's Weekly*>.
- Stone (1956, 5. 28). Stalinism is far from liquidated. <*I. F. Stone's Weekly*>.
- Stone (1964, 9. 28). Like a bar-room brawl with the lights out. <*I. F. Stone's Weekly*>.
- Stone (1968, 3. 4). All we really know is that we fired the first shots. <*I. F. Stone's Weekly*>.
- Stone, & Banning, S. (1997). Public perceptions of newspaper's watchdog role. *Newspaper Research Journal*, 18(1/2), 86-102.
- Swatos, W., & Kivisto, P. (1991). Beyond "wertfreiheit": Max weber and moral order.

- Sociological Focus*, 24(2), 117.
- Thomas, R. (2009). *Pay attention to politics! Politics will pay attention to you*. Xlibris US.
- Tuchman, G. (1972). Objectivity as strategic ritual: An examination of newsmen's notions of objectivity. *Th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7(4), 660-679.
- Tuchman, G. (1978). *Making news : A study in the construction of reality*. New York : Free Press.
- Underwood, D., & Stamm, K. (2001). Are journalists really irreligious? A multidimensional analysis.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78(4), 771-786.
- Wahl-Jorgensen, K. (2013). The strategic ritual of emotionality: A case study of pulitzer prize-winning articles. *Journalism*, 14(1), 129-145.
- Wanta, W. (1991). Presidential approval ratings as a variable in the agenda-building process.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68(4), 672-679.
- Ward, S. J. A. (2004). *The invention of journalism ethics: The path to objectivity and beyond*. 이은택 (역) (2007), <언론윤리의 재발견 : 객관성에 대한 역사적·철학적 탐구>.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Warren, J. (2015). A new documentary celebrates muckraking journalist I. F. Stone, from <http://www.poynter.org/2015/a-new-documentary-celebrates-muckraking-journalist-i-f-stone/342411/>
- Weaver, D. H. (2007). *The American journalist in the 21st century : U.S. News people at the dawn of a new millennium*. Mahwah: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Weaver, D. H., & Wilhoit, G. C. (1991). *The American journalist : A portrait of US News people and their work 2nd ed*.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 Weaver, D. H., & Wilhoit, G. C. (1996). *The American journalist in the 1990s : US News people at the end of an era*. Mahwah, N.J.: L. Erlbaum.
- Weber, M. (1926). *Max weber-ein lebensbild*. 조기준 (역) (2010), <막스 베버 : 세기의 전환기를 이끈 위대한 사상가>. 서울: 소이연.
- Weber, M. (1904). *Die 'objektivitat' sozialwissenschaftlicher und sozialpolitischer erkenntnis*. 전성우 (역) (2011). <사회과학적 그리고 사회정책적 인식의 '객관성'>. 파주: 나남.
- Weber, M. (1917). *Der sinn der <wertfreiheit> der soziologischen und okonomischen*

- wissenschaften. 전성우 (역) (2011). <사회학 및 경제학에서 가치중립의 의미>. 파주: 나남.
- Weber, M. (1919). *Politik als Beruf*. 전성우 (역) (2011). <직업으로서의 정치>. 파주: 나남.
- Weber, M. (1919). *Wissenschaft als Beruf*. 김진욱(외) (역) (2012), <직업으로서의 학문>. 파주: 범우사.
- Weber, M. (1920). *Die protestantische Ethik und der 'Geist' des Kapitalismus*. 김덕영 (역) (2010).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서울: 길.
- Weber, M. (1976). The historical perspective – towards a sociology of the press. *Journal of Communication*, 26(3), 96–101.
- Weber, M. (1976). *Soziologische grundbegriffe*. 전성우 (역) (2011). <사회학 기초개념>. 파주: 나남.
- Weber, M. (1904, 1917, 1976). *막스 베버 사회과학방법론 선집*. 전성우 (역) (2011). 서울: 나남.
- Weber, M. (1998). Preliminary report on a proposed survey for a sociology of the press. *History of the Human Sciences*, 11(2), 111–120.
- Wilensky, H. L. (1964). The professionalization of everyon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0(2), 137–158.
- Willis, P. (1979). *Learning to labour: How working class kids get working class jobs*. 김찬호 & 김영훈 (역) (1989), <교육현장과 계급재생산>. 서울: 도서출판 민맥.
- Wolcott, H. F. (1992). Posturing in qualitative inquiry. In MD LeCompte & WL Millroy (Eds.), *The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in education* (pp. 3–52). New York, NY: Academic Press.
- Woodward, B., & Bernstein, C. (1974). *All the president's men*, 양상모 (역) (2014), <모두가 대통령의 사람들>, 서울: 오래된생각.

Abstract

A Study of Ethnography on ‘Beruf’ and ‘Wertfreiheit’ of Korean investigative journalists - The news reporter team in <Newstapa> -

Munho Choi
Department of Communi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research explored what <Newstapa> journalists' sense of calling is, how they practice it, and what the investigative journalism expertise is. There is a common trait among investigative journalists who have left masterpieces in the history of journalism. However, the sense of calling of journalists has not attracted much attention in research and the accumulated research results are insufficient in quantity and depth.

I applied Max Weber's ‘Beruf’(the sense of calling) and ‘Wertfreiheit’(value free) theory. Beruf is a belief and a passionate devotion to it, in other words, a faith and a passion to achieve it. Wertfreiheit is a concrete method of Beruf. Based on the discussion of Beruf and Wertfreiheit, I classified journalism into partisan journalism, objective journalism, and investigative journalism.

There are three research questions. First, do <Newstapa> journalists have the sense of calling? If so, what is their calling? Second, how do <Newstapa> journalists practice their calling? Third, what is the expertise in investigative journalism and how does it accumulate? The research method was ethnography. Participants are <Newstapa> reporter team.

Participants expressed their beliefs freely in <Newstapa>, among which the judgments of the sense of calling are summarized as "independent and free press", "journalism", "Leemyungbakgeunhye", and "investigative journalism". The start of <Newstapa> was a desire for independent and free press. Participants have been devoted enthusiastically to the independent and free press since the launch of <Newstapa>.

There were three ideals and values that were practiced under the independent and free press. First, journalism criticism was a sense of duty that <Newstapa> should actively take responsibility for media surveillance. Criticized subjects were <KBS>, <MBC>, <YTN>, ChoJoongDong/CableTV, and concrete methods were hostile attacks. Participants

considered these media as the first place in the birth and maintenance of the Lee Myung-bak and Park Geun-hye regimes. However, the purpose of journalism criticism justified the means of hostile attack. The result was a mixture of partisan journalism and investigative journalism and other journalists' antagonism.

Second, the sense of calling Lee Myung-bak and Park Geun-hye was anger. Participants did not hide their feelings of anger about Lee Myung-bak and Park Geun-hye. At the same time, the two governments were the subject of power surveillance, which is one of the main functions of investigative journalism. Therefore, as the object of personal anger naturally becomes a subject to be monitored, the sense of calling to actively criticize the regimes has become firmly established. However, the power surveillance was selectively value free, depreciated, and excluded according to the party. Most of the participants acknowledged that <Newstapa> was active in Lee Myung-bak and Park Geun-hye regime, but was passive in opposition at the time. When these situations were fixed, there was a risk of being trapped in a vicious circle of partisanship.

Third, investigative journalism is the sense of calling for survival strategy. Participants tried to get out of the nature of alternative media and to be recognized as true media through investigative journalism. The number of sponsor members increased every time they conducted high-quality investigative journalism. The sense of calling of becoming a best press has created an investigative report through value free. There was no sanctuary for coverage. Investigative journalism of <Newstapa> is considered ideologically progressive.

I defined investigative journalism expertise as having a command of the sense of calling and value free when it was consistent with investigative journalism definition(truth, revelation, change). From the standpoint of the sense of calling and value free, Choi Seung-ho was a professional investigative journalist. As one of the participants experienced Choi Seung Ho, his professionalism was perfect grip, persistent effort, polite attack, equal relationship.

Finally, in the interpretation, the cause of the crisis that <Newstapa> is experiencing is summarized as the driving force of investigative spirit, the direction of investigative journalism, investigative journalism and partisanship, the ethics of investigative journalism, and independence of investigative journalism. I made suggestions on the Korean of investigative journalism.

Keywords: investigative journalism, Newstapa, Max Weber, Beruf, Wertfreiheit, investigative journalism expertise

Student Number: 2011-30881